옛날옛날 아주 먼 옛날, 잔인한 왕과 왕의 열여덟 자식들이 붉은 돌을 쌓아 만든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 열한 번째 자식인 금발머리 공주님은 왕이나 다른 형제자매들과 달리 백성들을 매우 사랑했답니다. 백성들은 그런 공주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여 그녀가 왕위에 올라야 한다며 찬양했지요. 그러나 공주님은 그런 백성들의 바람을 들어 줄 수 없었습니다. 금발머리 공주님은 왕의 첫 번째 자식도 아니었을 뿐 더러, 공주님의 어머니가 천한 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금발머리 공주님을 질투한 첫째 왕자님이 금발머리 공주님을 죽이려 자객을 보냈습니다. 자객을 피해 도망가던 공주님은 잔인한 왕에 반발해 반란을 도모하고 있는 반란군의 군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란군의 군주는 공주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자비롭고 상냥한 공주님을 죽이지 말라는 사람들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공주님을 살려주었습니다.

공주님은 반란군과 함께 지내며 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공주님은 그들의 고통에 마음깊이 공감하여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주님은 진심어린 사랑과 보살핌으로 그들을 대해주었습니다. 거기다 함께 지낸 1년 동안 공주님과 반란군의 군주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반란군의 군주는 공주님께 무릎 꿇고 얘기 했습니다.

‘반란에 성공하게 된다면 당신을 우리의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들이 공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때 마침 반란 준비를 마쳤던 반란군의 군주는 공주님과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공주님을 보내주었습니다. 공주님은 군주와 한 약속의 증표인 푸른 칼을 품에 지닌 채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반란군의 군주는 왕궁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문 근처서 노닐고 있던 공주님의 형제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근처에 있던 왕궁의 기사들은 검을 빼어 들기도 전에 반란군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반란에 신이 난 반란군들은 한층 더 힘을 내서, 성의 안쪽 깊숙이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에 숨어 있던 공주님의 또 다른 형제들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간 그들이 겪어왔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무자비한 난도질이었습니다. 반란군들은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전진하고, 전진하다 반란군의 군주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금발머리 공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왕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반란군의 군주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를 주군으로 삼겠다 말했지만 막상 왕위 찬탈이 눈앞에 있으니 욕심이 생겼거든요. 반란군의 군주는 중앙 성의 문 앞에서 도망치려 애쓰는 못되고 뚱뚱한 왕과 그런 왕을 보호하고 있는 기사들을 향해 창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기사들을 찔러 죽인 반란군의 군주가 마지막으로 못된 왕의 심장에 푸른 창을 꽂아 넣은 순간, 금발머리 공주님은 기뻐하며 반란군의 군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란군의 군주가 금발머리 공주님을 향해 창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금발머리 공주님은 반란군 군주의 푸른 눈동자에서 그 속에 어린 욕심을 읽어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주님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게 분명해서 공주님은 반란군의 군주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소중하게 품고 있던 약속의 증표인 푸른 칼로 말이죠. 반란군의 군주는 추풍낙엽처럼 스러졌고, 공주님은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배신한 반란군 일당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님은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전 왕이 다스렸던 나라보다 훨씬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여왕님이 된 공주님을 칭송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백성을 사랑한 금발머리 공주님의 머리가 새하얗게 새어가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정무를 보던 여왕님의 앞에 어느 날 신이 나타났습니다. 신은 여왕님께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응시한 여왕님은 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했던 금발머리 공주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란 당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공주님의 동복동생이 다음 왕이 되었죠.

백성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굽어 살핀 금발머리 공주님을 영원히 기억할거예요.

“오라버니, 저 이거 읽어주세요.”

여섯 살 남짓의 어린 소녀가 소중하게 품에 안은 채 들고 온 동화책을 받아든 소년의 눈빛이 어둡게 내려앉았다.

“엘리자베스, 이게 어디서 났지?”

“아버지가 사다주셨는데, 왜요?”

“숙부께서...”

고민하듯 느리게 고개를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인 소년의 눈동자에 이채가 어렸다.

“미안하지만 엘리자베스, 이 책은 보지 않는 게 좋겠다.”

“네? 왜요?”

“온통 거짓말만 쓰여 있거든.”

사촌 동생이 놀라지 않을 정도로 거칠게 동화책을 내려놓은 소년이 금방이라도 울먹일 것 같은 동생을 번쩍 안아들고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보였다.

“저런 건 네 정서에도 좋지 않아.”

“그렇지만 고모할머니 얘기잖아요. 거짓말인 걸 오라버니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 나도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어리둥절한 동생의 시선을 받으며 빙그레 웃어 보인 소년이 동생을 고쳐 안았다. 문을 열고 나가며 테이블 위에 팽개쳐진 책을 돌아보는 소년의 눈동자가 서슬 퍼렇게 빛났다.

“내 얘기를 써놨으니, 모를 수가 없지.”

본 회차는 가정폭력, 또래사이의 폭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거나 거부감이 있으신 분은 지나치고 다음화부터 감상해주세요. 이번 화는 주인공의 주변 인물과 처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장치라 보지 않으셔도 감상에는 지장없습니다

“야, 너 너희 엄마가 외도해서 낳은 애라며?”

자그마한 공터에 앉아 흙 놀이를 하고 있던 손이 문득 멈췄다. 때가 낀 낡은 옷자락을 입고 있던 금발 머리의 소녀가 고개를 들어올렸다. 검댕과 흙먼지로 검게 변한 얼굴에서 푸른 눈동자가 호기심을 담고 빛났다. 자신을 둘러싼 소년들을 응시하다가 우물쭈물하던 소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외도가 뭔데?”

“너희 엄마가 바람 펴서 낳은 자식이라고 이 멍청아!”

“뭐? 아냐! 난 우리 아빠 딸인걸.”

“아니거든? 너 너희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 너희 엄마도 안 닮았고.”

소년이 신랄하게 말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 당당한 기세에 잠깐 주춤했던 소녀는 이윽고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나 우리 엄마랑 닮았어.”

“거짓말하지 마, 넌 너희 엄마 얼굴도 모르잖아. 그런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는 너도 우리 엄마 얼굴 모르잖아!”

소녀가 발끈하며 일어섰다.

“소피아 할머니가 나 엄마랑 닮았다고 했단 말이야!”

“아니라던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너랑 네 부모님이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

맞아, 맞아. 우리 엄마도 그랬어. 우리 엄마도. 이어지는 소년들의 동조에 소녀는 짐짓 겁을 먹고 입술을 꾹 다물었다. 소녀에게는 자신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소년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우리 엄마는 너희 아빠가 불쌍하대, 여편네가 다른 남자랑 놀아난 것도 모자라 자식새끼만 남기고 홀랑 뒤져버려서.”

짐짓 제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소년의 행동에 주변의 소년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트렸다. 에그, 쯧쯧쯧 제 애비만 불쌍하지. 누군가의 한술 더 뜬 성대모사를 기점으로 일제히 낄낄거리기 시작한 소년들이 여기저기서 한마디씩을 보탰다. 나 같았으면 죽은 여편네 자식은 거두지도 않았을 거야.

“듣기 싫어! 그만해!”

소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대충 자신의 부모를 희롱하는 말이란 것을 알아챈 소녀가 발을 굴렸다. 그만해, 싫어! 귀를 틀어막고 도리질 치던 소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소녀의 눈물이 소년들을 자극했던지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소년들은 소녀를 둘러싼 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알리사는 엄마가 외도해서 낳은 자식이래요.”

“외도했대요.”

“바람 펴서 낳았대요.”

자신을 내려다보는 소년들의 눈동자에서 조롱을 읽어 낸 소녀가 입술을 깨물고 귀를 틀어막았다.

“나 갈래!”

소년들의 틈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소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소년들은 소녀의 주위를 도는 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빠져갈 틈조차 남겨주지 않았다. 소녀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그리고 으앙! 울음이 터졌지만 소년들은 막무가내였다. 그 때였다.

“야! 알리사 괴롭히지 마, 이 멍청이들아!”

“켄!”

별안간 등장한 구원의 목소리에 소녀가 반색했다. 소녀를 둘러싸고 있던 소년들이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일제히 쳐다보곤 켁, 앓는 소리를 냈다. 옅은 갈색머리에 갈색 눈을 지닌 어린 소년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그들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내 동생 괴롭히지 마!”

길게 내뺀 목소리가 알리사의 귓속을 관통한 순간, 알리사를 괴롭히던 소년들 중 가장 키가 큰 소년의 몸뚱이가 휙 하고 넘어갔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눈을 깜박이던 알리사는 뒤엉켜서 주먹질을 하고 있는 켄과 사내아이를 보고 날카로운 비명을 내질렀다.

싸워라! 싸워라! 관망 하고 있던 소년들이 일제히 외쳐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켄은 키 큰 소년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체격으로도 머리하나는 더 작았던 켄이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내리깔렸다. 열심히 저항하는 켄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지를 뿐이었다.

“안 돼! 하지 마!”

알리사가 온 몸을 날려 사내아이의 팔을 붙들었다. 덕분에 턱을 빗겨 맞긴 했지만 켄이 맞는 것에 정신이 팔려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갑작스러운 알리사의 저지에 남자아이들이 일제히 야유했다. 동시에 켄을 마구잡이로 내리 패던 사내아이가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바닥에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켄!”

알리사가 기겁한 채 켄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얼굴이 부어터져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어떻게 해, 흑, 많이 아프지?”

“대애단한 우애 납셨네.”

퉷! 켄의 이마 위로 가래가 툭 떨어졌다. 알리사가 고개를 돌려 사납게 사내아이를 노려봤지만 사내아이는 더는 그들을 보고 있지 않았다.

“친남매도 아닌 것들이.”

야, 가자. 가. 소년들이 일제히 걸음을 옮겼다. 아깝다, 더 패지 그랬어! 왁자지껄한 소음이 멀어져갔다. 훌쩍, 알리사가 코를 삼키는 소리가 공터를 가득 메웠다. 한 줄기 스산한 바람이 바닥에 누워있는 켄과 그런 켄의 앞에 웅크리고 앉은 알리사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지나갔다.

“왜 그랬어, 멍청아.”

“네가 놀림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치냐.”

속상함에 괜히 짜증을 내자 켄이 여상하게 대꾸했다.

“하하, 그래도 오늘은 저번보다 많이 때렸다.”

“그게 문제야? 네 얼굴은 어쩌고. 할머니가 보면 속상해 하시잖아.”

“괜찮아, 벌에 쏘였다고 하면 돼.”

“넌 벌에 쏘였는데 얼굴에 멍이 들어? 미안해, 많이 아프지?”

“괜찮아, 이까짓 멍이 대수냐! 이담에 정식 기사가 되면 더 많이 다칠 건데 이 정도는 별거 아냐.”

“그렇지만...”

“알리사.”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운 켄이 한층 진지해진 얼굴로 알리사를 바라보았다.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옅은 갈색의 눈동자가 결연하게 타올랐다.

“내가 꼭 정식기사가 될게.”

켄이 힘주어 말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울 할매랑 너랑 나랑 이 지긋지긋한 슬럼가를 벗어나자.”

그렇게 말하는 켄의 눈이 확고한 의지를 담고 빛났다.

“그래서 울 할매 병도 고치고, 너 예쁜 옷도 사주고. 셋이서 오순도순 사는 거야. 꼭.”

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그라졌다.

“약속이야.”

켄이 다짐하듯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그런 켄을 가만히 응시하던 알리사가 손을 뻗어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켄의 손가락에 걸었다.

“응, 꼭.”

“약속.”

“오늘 너희 아버지 오셨어?”

“응.”

아마도. 알리사가 속으로 웅얼거렸다. 오솔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 낡은 판잣집 두 채를 번갈아 바라보던 켄이 왼편의 판잣집에 시선을 고정했다.

“불이 꺼져 있는데?”

“요즘 불 안 켜. 양초가 얼마 안 남아서.”

“보급품 받은 지 얼마 안됐잖아.”

“그 날 아빠가 술마시고 잔다고, 못받아오셨어.”

알리사의 덤덤한 대꾸에 켄이 앓는 소리를 냈다.

“아직 닷새나 더 남았는데... 안 불편해?”

“적응하면 괜찮아.”

씁쓸하게 이어진 알리사의 말에 켄의 눈빛이 흐려졌다.

“혹시 너희 아버지 안 들어오신 거면 우리 집으로 와. 할머니가 스프 만들어 놨으니까 같이 먹자.”

“응, 알았어. 잘 가, 켄.”

“안녕, 알리사.”

갈래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린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멀어져갔다. 다 낡아 툭 치면 나가떨어질 것 같은 판자문의 고리를 잡고 선 알리사는 문득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능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사라지면 또다시 어두운 밤이 시작되리라.

춥고 배고픈 밤을 홀로 지새우고 싶지는 않았다. 알리사는 조급하게 문고리를 당겼다. 끼익하는 소름끼치는 마찰음이 고요한 집안을 울리고 지나갔다. 어둠이 내려앉은 집안에는 보급 빵 덩어리에 핀 곰팡이의 눅눅한 냄새만 가득 차 있었다.

“아빠?”

알리사의 조그마한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알리사는 숨을 죽였다. 집 안에서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조심스레 집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알리사의 고개가 저절로 켄의 집 쪽으로 돌아갔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배곯는 소리. 알리사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곰팡이 핀 빵 위로 고정됐다. 짧은 한숨의 끝에 낡은 문이 끼익, 닫혔다.

알리사가 잠에서 깨어난 것은 문이 열렸다가 닫힐 때마다 들려오는 소름끼치는 경칩 소리 때문이었다.

“아빠?”

눈을 비비며 비척비척 자리에서 일어난 알리사는 어둠이 눈에 익길 기다리며 더듬더듬 문 앞으로 나아갔다. 거칠게 숨을 몰아 내쉬는 소리와 함께 알코올 냄새가 훅 풍겨왔다.

‘아빠 냄새...’

낯선 이가 아니란 것에 안도한 알리사는 식탁을 더듬어 곰팡이 핀 빵을 찾아냈다.

“아빠, 집에 먹을 게 이거 밖에 없어요. 곰팡이가 조금 슬긴 했는데 이 부분만 떼어내고 먹으면 괜찮을...”

“알리사.”

에반의 조용한 부름에 알리사가 어깨를 움찔했다. 에반이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은 오랜만이었다.

“네?”

“네 엄마가 보고 싶지 않니?”

“...엄마요?”

에반이 줄리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에반은 줄리아의 죽음과 함께 태어난 알리사를 좋아하지 않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했다. 켄의 할머니인 소피아가 알리사를 챙기지 않았다면, 알리사는 기억도 못하는 아주 어릴 적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래, 네 엄마 말이다. 다른 남자랑 놀아나 너를 임신한 네 엄마!”

평소보다 강하게 풍겨오는 알코올 냄새에 알리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어린 아이의 감으로도 알 수 있었다. 지금 상황은 뭔가 위험했다.

“죽자.”

순식간의 일이었다.

“차라리 죽자.”

“꺄아아아악!”

손을 쓸 도리조차 없이 머리채가 부여 잡혔다. 알리사는 에반의 손에 붙들려 몸부림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두피가 뜯겨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

“아빠, 아빠, 싫어요! 제발!”

“죽자, 알리사. 이 애비랑 같이 죽자.”

죽자, 죽어.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에반의 눈에 붉은 섬광이 일었다.

“네 엄마 곁으로 가는 거다. 좋지? 응? 너도 좋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아빠. 싫어요.”

잘못한 것 하나 없음에도 자꾸만 잘못했다며 되뇌는 알리사에 에반의 발걸음이 문득, 멎었다.

“잘못?”

에반이 얼굴을 기괴하게 일그러트린 채로 알리사를 돌아보았다.

“넌 잘못한 게 없단다.”

나긋한 속삭임이 허공을 감돌았다.

“잘못한 건 다른 남자랑 놀아난 네 애미지. 네가 아니라. 그래, 네 잘못이 아니지! 흐으으으흑!”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름끼치는 흐느낌을 내뱉으며 에반이 알리사의 몸에 발길질을 가했다. 알리사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튀어나왔다.

알리사의 두 눈에 공포가 가득 찼다. 그리고 에반의 손에서 힘이 잠깐 빠져나간 순간을 놓치지 않은 알리사가 에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에반의 눈에 일순간 당혹스러운 빛이 어렸다가 사라졌다. 알리사는 차마 바깥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날쌔게 움직여 집안의 좁은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알리사는 이제 한 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다. 아빠의 술이 깰 때 까지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러나 알리사의 예상을 무참히 깨고, 에반은 아무렇지 않게 좁은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알리사의 몸뚱이를 틀어잡았다. 머릿속에 날카로운 경고등이 울렸다. 알리사는 입을 벌려 에반의 팔뚝을 있는 힘껏 깨물었다.

“아악!”

우악스런 소리를 내지르며 몸뚱이를 휙 뒤로 잡아 뺀 에반이 우스꽝스럽게 나자빠졌다. 에반의 팔에 이빨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알리사는 그 상황이 우스워 저도 모르게 울음 섞인 웃음을 터트렸다.

“이게!”

그러나 그뿐이었다. 낡은 원탁을 거칠게 차낸 에반이 다시 한 번 손을 뻗은 순간, 알리사의 금발이 도로 부여 잡혔다. 알리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도망갈 구석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열렸다.

“에반!”

“소피아 할머니!”

알리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어렸다. 에반의 손에서 다시 한 번 힘이 빠져나갔다. 알리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허겁지겁 소피아의 뒤로 숨어들었다. 어느 샌가 다가온 켄이 알리사의 손을 꼭 붙잡아주었다.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야!”

“비키세요, 할머니가 상관할 게 아니니까.”

“아니기는! 줄리아가 숨을 거둘 때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애가 나한테 알리사를 잘 부탁한다 말하고 갔는데! 그 남편이란 놈이 애를 잡으려 들어? 네가 애비로서 자격이 있는 거야?”

“애비로서의 자격? 애초에 내 자식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런 미친놈! 줄리아가 들으면 저승에서 올라올 소리하고 있네! 네가 그 애를 몰라? 그 애가 어디 다른 남자를 만날 틈은 있었고?”

“하지만 알리사의 외모가...”

“외모만 보고 생각하면 켄도 어디 내 손자냐? 내 미모를 하나도 닮지 않았는데!”

소피아의 당당한 외침에 켄이 할머니, 하고 앓는 소리를 냈다. 에반이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다.

“눈을 봐라, 네 푸른 눈을 꼭 빼닮았는데 이래도 네 자식이 아냐?”

“그것 말고 생김새요. 아무리 봐도 저나 줄리아는...”

“둘 다 안 닮은 게 얼마나 다행인데! 안 닮았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태어난 거 아냐! 이상한 놈들 꼬일까 전전긍긍해도 모자랄 판에 누가 누굴 죽여? 그 전에 너 죽고, 나 죽고다 이놈아!”

다시 한 번 입을 다무는 에반을 가만히 응시한 소피아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냄새나는 꼴을 보아하니 술을 한 바가지로 마신 모양인데, 깨고 나서 제대로 얘기해보자. 알리사는 내가 데려가마.”

소피아가 알리사와 켄의 손을 양손에 잡고 몸을 돌렸다. 알리사는 여전히 쑤시는 머리채를 한손으로 매만지며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 가만히 서 있는 에반은 알리사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그 날 밤, 알리사는 소피아의 미안하다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다. 그리고 다음 날, 소피아와 에반이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에반은 알리사에게 작별을 고했다.

“다녀올게요, 알리사를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지난 몇 년간 일용직 생활을 전전하며 술만 퍼마시던 에반이 좀 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겠다며 보따리를 매고 나선 것이다. 어린 알리사를 소피아에게 맡기고 돈을 많이 벌어 5년 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알리사는 그가 약속을 지킬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할 아빠라면 차라리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내심 바랐다.

그렇다고해서 이런 결말을 원한 건, 아니었지만.

“안타깝게 됐구나.”

“거짓, 거짓말.”

눈앞이 부옇게 흐려졌다.

“거짓말이죠? 아니, 거짓말일거야. 거짓말이어야 해.”

넋이 나가 중얼거리는 알리사를 안쓰러운 눈으로 내려다본 남자들이 알리사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는 문간을 벗어났다. 제자리에 멍하니 서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던 알리사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가 약속한 5년은 이미 훌쩍 넘어 어느새 약속한 날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다.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간 몸이 많이 약해진 소피아 할머니는 이젠 알리사가 없으면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켄은 2년 전부터 어느 공작가의 수습 기사로 들어가 있었다. 7년의 세월은 그렇게 엄청 난 것이었다.

“말도 안 돼.”

눈에서 눈물이 투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도시 변두리에 조그마한 집을 구했다는 편지가 왔던 게 바로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그랬는데, 그런 아빠가.

‘사고였단다. 시공을 하다가 미끄러졌는지 바닥으로 추락했는데 바로 아래에 건축 재료로 쌓아둔 벽돌이 그만... 유감이구나.’

알리사는 양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억지로 억누른 흐느낌이 목구멍을 비집고 튀어나왔다. 소피아 할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할머니가 알게 해서는 안됐다. 할머니는 기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그렇잖아도 사소한 일에도 충격을 받아 몸져눕는 할머니에게 치명적일 것이다.

알리사는 남자들이 손에 쥐어주고 간 종이를 달달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다. 아버지의 시신을 신전에 안치해 두었으니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속히 결정해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알리사의 미간이 와락 찌푸려졌다.

“이 세상에 신이 어딨어...”

눈물이 뺨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다.

신이 있다면 알리사에게서 아빠를 그런 식으로 앗아가서는 안됐다. 돌아오지 않길 바라면서도, 내심 기대했다. 아빠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어 이 지긋지긋한 슬럼가에서 빠져나가게 해 주진 않을까. 이제 술도 끊었다 했으니 술에 절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빠를 볼 일도 없었을 텐데. 신은 없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녀에게 그렇게 가혹해서는 안됐다.

“왜, 왜...!”

분노에 차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던 알리사는 퍼뜩 고개를 들어 올려 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소피아 할머니가 깨기 전에 아버지의 시신을 확인하고 장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만 했다. 결정, 결정이라. 헛웃음이 난다. 그녀에게 애초에 결정권 따위는 없었다. 아버지를 묻을 수 있는 땅이 없으니 아버지는 화장해야 했다.

그녀나 그녀의 아버지처럼 돈 없는 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신전에서는 화장을 무료로 해주고 있었다. 무료라니. 죽은 자에게 베푸는 마지막 적선인가 보지. 알리사는 그녀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삐딱하게 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판자촌과 수도를 가로질러 놓인 낡은 다리 앞까지 다다른 알리사의 발걸음이 문득 멈칫했다. 다리 난간 위에 불량스럽게 앉아 행인들을 구경하는 대여섯 명의 청년들의 옷은 굴뚝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마냥 지저분했다. 잠깐의 망설임 끝에 알리사는 계속해서 가던 길을 나아갔다.

“어? 알리사!”

그리고 청년들 중 하나가 알리사를 알아챘다. 나머지 청년들이 일제히 알리사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딜 그리 바쁘게 가냐, 알리사?”

청년들은 알리사를 향해 낄낄거리고 휘파람을 불어대며 일제히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알리사는 그런 그들의 쪽으로 미동도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자극하기라도 한 모양이었다.

“아, 알겠다!”

그들의 맨 앞에 있던 덩치 좋은 청년이 손가락을 딱 소리 나게 튕겼다.

“오늘도 매음굴에 가는 거지 알리사?”

“이야, 그런 거라면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 없는데 말이지!”

“알리사, 이리와! 우리가 동전 한 푼 줄 테니 굳이 가지 않아도 돼!”

알리사 수위 높은 농담을 던지는 청년들을 앞을 덤덤하게 지나쳤다. 처음에는 몇 번이고 상처받았던 저들의 발언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알리사는 무뎌져 있었다. 게다가 오늘과 같은 날엔 더더욱 그들의 조롱을 맞받아칠 정신이 남아있지도 않았다.

마침내 신전 앞에 도착한 알리사는 신전의 엄청난 크기에 잠깐 위압감을 느꼈다. 어째서인지 발들이고 싶지 않은 장소였다. 아빠의 시신이 놓여있다는 생각 때문일까. 발을 들여놓아 얼굴을 확인한다면 부정조차 하지 못할 거란 생각에?

“네가 혹시 에반의 딸이냐?”

갑자기 어깨위로 얹어진 손의 감각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제 딴에는 멋을 낸다고 뒤로 쓸어 넘긴 금발머리를 지닌 남자가 한 손은 주머니에 찔러놓고 다른 한 손은 알리사의 어깨에 얹은 채 비스듬하게 자리 잡고 서 있었다. 남자의 입에 물린 쇠파이프에서 독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가 흘러나왔다.

“네, 그런데요.”

알리사는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대꾸했다. 알리사의 대답을 들은 남자는 어딘가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덩치 좋은 또 다른 남자가 하나 더 서 있었다.

“네 아버지의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저기에서 우리랑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하세요.”

“글쎄, 네 아버지 빚에 대한 이야긴데 이 앞에서 하긴 좀 그렇지 않을까?”

남자가 거들먹거리는 얼굴로 신전의 입구를 훑어보았다.

“네 아버지가 편히 주무시는 걸 방해하면 안 되잖아, 응?”

알리사는 순간 울컥하고 치밀어오를 뻔 했던 화를 참아내고는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무리 저 남자가 위험해 보인다 한들 이곳은 신전 일대였다. 더구나 이런 백주대낮에 어지간히 두둑한 배짱이 아니고서야 그녀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을 리도 없었다.

남자의 뒤를 쫓아 다가간 곳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는 멀리서 보고 느꼈던 것 보다 훨씬 큰 덩치의 소유자였다. 알리사가 그들의 앞에 서자 그들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네 아버지가 우리에게 빚을 좀 졌어.”

알리사에게 처음 말을 건 남자가 말했다.

“뭐, 척 보기에도 남루하고 돈 없어 보이는 행색이라 거절하려했더니 사정사정을 하고 나서더라고. 7년 째 만나지 못한 딸이 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함께 살기로 약속했는데 번번이 돈 모으기에 실패해서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볼 면목이 없다며 얼마가 걸리던 돈은 갚을 테니 집 살 돈을 빌려 달라기에 동정심이 일어 자비를 베푼 게 실수였지. 네 애비가 돈을 빌려 간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뒈져버릴 줄 누가 알았겠냐.”

“...”

“이래서 적선은 함부로 할 게 못 돼.”

알리사는 남자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려보내며 잠깐 동안 멍하니 바닥을 응시했다. 아빠가 돈을 빌렸다고. 멍청하기 그지없는 짓이다. 알리사는 잠깐 동안이나마 슬퍼했던 것에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네가 네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할 것 같은데. 너 돈 없지?”

“아빠가 집을 샀다면서요? 그 집을 다시 팔면 되잖아요.”

“아, 회수금은 원금의 삼분의 일을 포함한 가격이었거든.”

알리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남자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원금의 삼분의 일? 그야말로 사기꾼이 아닌가.

“대체 아빠가 돈을 얼마나 빌렸다고...”

“3000아크.”

“아.”

“거 봐, 갚을 돈 없지?”

남자가 알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서 낯설지 않은 불쾌감을 느낀 알리사는 흠칫 놀라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느낌이 좋지 않다.

“일자리를 구해볼게요. 몇 날 며칠이 걸리든 그 돈 갚을게요.”

“아니, 아니. 그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남자가 알리사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잡아 앞으로 끌어당겼다.

“머리카락도 금발이고 눈도 파란색이고. 상품으로는 딱 이야.”

“이거 놔요!”

알리사가 황급히 몸을 돌렸지만 그보다 덩치 큰 남자가 한발 빨랐다. 알리사는 갑작스럽게 붙들린 팔을 비틀어 빼기 위해 노력했지만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

“넌 그래도 영광인 줄 알아라, 내가 이렇게 소개해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

“이거 당장...! 읍!”

커다란 남자의 손에 입이 틀어막힌 알리사는 몸부림쳤다. 그러나 속수무책이었다. 알리사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눈을 가늘게 뜨고 몸부림 쳤지만 신전 앞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가 처한 위험을 못 본 채 했다.

순식간에 몸이 끌려갔다. 눈을 부릅뜨고 끌려가는 길을 외우려고 안간힘을 쓰던 알리사는 신전과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대비되는 풍경에 넋을 놓고 말았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전이었는데 지금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장소는 성스러움과는 완전히 먼 곳이었다.

붉은 간판들이며 요사스러운 옷차림으로 가게의 앞에서 담배를 피워 대는 여자들. 말로만 듣던 홍등가가 신전의 바로 지척에 있었다.

“영업시간이 아니라 그런가, 한산하네.”

금발머리 남자의 중얼거림에 퍼뜩 정신이 돌아왔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이 거리에 남게 될 지도 몰랐다. 저기서 외설스러운 행색으로 담배를 피우는 여자들 사이에 뒤섞여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될 지도 몰랐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다리위에서 그녀를 비웃었던 청년들의 얼굴이다. 이렇게 된다면 꼼짝없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알리사는 입을 틀어막은 떼기 위해 몸부림쳤다. 하지만 남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알리사는 결국 입을 벌려 남자의 손을 깨무는 쪽을 선택했다.

“악!”

“갚을게요!”

남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알리사는 금발머리의 옷깃을 붙잡고 늘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절로 무릎이 꿇렸다. 거칠거칠한 흙바닥에 치맛자락이 쓸리는 게 느껴졌다.

“이 망할 년이!”

“갚을 테니,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떼어낸 남자의 손에 머리채가 쥐어 잡혔다. 목이 뒤로 꺾어졌지만 알리사는 금발머리 남자의 다리를 꽉 부여잡고 놓지 않았다. 거친 욕설이 귀를 찔렀다. 가게 앞에 앉아 창녀들이 키득거리며 그녀를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비는 것 밖에 없었다.

“제발, 제발!”

아빠, 왜 죽어서까지 날 괴롭혀요. 대체 왜!

“뭐든 해서 돈을 벌 테니까 몸을 팔라고는 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악!”

결국엔 머리채가 쥐어 잡힌 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뜨거운 햇빛이 눈앞을 가렸다. 그리고 금발 머리의 남자는 그 햇빛을 가리며 자비 없는 눈으로 알리사를 내려다보았다.

“참 세상물정 모르는 아가씨네.”

“제발...”

“나는 네게 돈을 빨리 받아내면 그만이고 너는 내게 돈을 갚으면 그만이지. 가장 쉽고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줬건만 은혜를 모르는 것도 유분수지!”

얼얼한 고통과 함께 얼굴이 훽 소리 나게 돌아갔다. 순식간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알리사는 뺨을 부여잡고 멍한 눈으로 금발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이렇게 이대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붙잡혀 가는 걸까?

“거기.”

눈앞으로 다가오는 검은 손을 바라보며 눈을 질끈 감았던 알리사에게 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소란들이야?”

“이게 무슨 소란들이야?”

머리 위에서 남자의 나직한 욕설이 들려온다. 느릿하게 눈을 뜬 알리사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기사를 한 명 발견했다. 청년이라 부르기에는 소년에 가까운 외모를 가진 기사였다. 갑옷 왼 팔에 차인 푸른 완장. 켄에게 말로만 듣던 황실 소속의 정기사라는 걸 짐작하기엔 어렵지 않았다. 어쩌면 귀족 자제일 지도 모른다. 켄이 모시고 있는 시트리안 공작가의 외동아들 역시 황실 소속 정기사라고 했으니.

“도와주세요.”

도와줄만한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발 도와주세요.”

알리사와 금발의 남자 그리고 덩치 좋은 또 다른 남자를 번갈아 보던 어린 기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상황을 유추해내기는 어렵지 않았다. 빚을 졌지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여자와 그런 여자에게 돈을 빌려준 빚쟁이들. 그의 머릿속에 완벽한 각본이 짜여졌다. 빚쟁이들은 여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몸으로 일해서 청산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 여자에게서 손 떼라.”

기사의 정중한 요구에 서로의 얼굴을 돌아본 남자들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이 계집애는 저희에게 빚이 있습니다.”

“사정은 알겠으나 매춘과 관련 된 일은 모두 불법이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지는 못하나 내 눈에 띈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하지만 남의 돈을 떼먹고선 갚지도 않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금전이 오고 가는 일인데 말입니다.”

“갚겠다고 했잖아요.”

알리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든 순간 금발머리 남자의 입 꼬리가 불쾌함을 그득 담고 씰룩거렸다.

“그렇다는데?”

어린 기사의 한쪽 입 꼬리가 소리 없이 올라갔다.

“내가 요즘 좀 들은 게 있는데 말이지. 설마, 돈을 갚겠다는 아가씨의 말을 무시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라면 죄목이 하나 추가되겠군. 빚에 대한 문제는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을 때나 처벌이 가능하다는걸 설마 모르지는 않을 테고.”

“아닙니다! 이 계집애는 애초에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기사의 시선이 알리사에게로 향했다. 알리사는 황급히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요. 분명 갚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렇다는데?”

“아, 아닙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니, 아닙니다.”

흥분으로 가득 차 버럭 소리를 내지르던 금발머리의 남자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 오늘은 이렇게 물러나지만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리란 계산 때문이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빈민가의 소녀가 며칠 내로 일자리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금발 머리의 눈짓에 덩치 큰 남자가 알리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아, 그리고 그 일자리는 내가 알아봐 주는 걸로 하지.”

남자의 검은 속내를 읽어낸 어린 기사가 냉큼 덧붙였다. 금발머리 남자의 미소에 미세한 금이 갔다.

“내 친구의 아래에서 일할 하녀가 하나 필요했는데 잘 됐어. 이제 용건은 끝났나? 이 아가씨가 돈을 벌어 갚기만 하면 되는 거겠지?”

“물론입니다.”

금발머리 남자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알리사는 제게 닥쳐온 뜻밖의 행운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멍하니 자신을 구해준 어린 기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짙은 갈색머리에 갈색 눈을 지닌 기사가 알리사를 보며 미소 지었다. 빚쟁이들이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알리사에게로 다가온 기사가 알리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일어날 수 있겠어?”

아까보다 한층 가벼워진 말투다. 아까의 꾸며낸 듯 무게 잡힌 말투보다는 훨씬 제 나이또래에 어울리는 말투였다. 알리사는 좀 전과는 사뭇 달라진 기사의 분위기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놀랐나 봐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 부축해 줄 테니까 손을 잡고 일어나 봐. 그래, 그렇게.”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간신히 서 있을 정도는 되었다. 약간의 시간 끝에 이제 걸을 정도도 되었다는 걸 확신했을 때 어린 기사는 그녀를 목적지 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자 그제야 잊고 있던 뺨의 고통이 느껴졌다. 그렇게 등 돌려 걸어 나가다 비로소 눈앞에서 홍등가가 사라지자 멈췄다고 생각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일말인데.”

알리사의 눈물을 못 본 채하던 어린 기사가 일부러 말머리를 돌렸다.

“혹시 정말 할 생각이 있다면 엘리자베스라고, 내 친구가 있는데.”

“저, 말씀은 감사드리지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왜?”

“저랑 같이 살고 계시는 할머니께서 제가 없으면 제대로 거동을 못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집에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바느질감이나 찾아보려고요.”

“아,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쉽네.”

기사가 제 팔에 달린 완장을 한쪽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내 친구랑 또래도 비슷한 것 같고 성격도 좋아보여서 네가 딱 적임자라 생각했는데.”

그리고는 제법 낯간지러운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잠깐 만난 사이에 그것도 이야기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성격이 좋아 보인다니. 정말이지 사람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혹시 마음이 바뀌면, 음. 이 신전으로 다시 찾아와.”

어느덧 도착한 신전의 앞에서 기사가 말했다.

“이름이 뭐야? 네 이름으로 그 댁 주소를 남길 테니까 마음 바뀔 때 아무 때나 열람하게 해 달라고 하면 돼. 한 달이 넘어가면 기록을 다 처분할 테니까 너무 늦진 말고.”

“알리사 더스트예요.”

“알리사, 뭐?”

“더스트요.”

멈칫하고 다시 이름을 되묻는 기사에게 반복해 대답하던 알리사의 입가에 쓴 웃음이 걸렸다. 더스트라는 성은 누가 들어도 기이할 만 한 것이었다. 만약 그게 원래 알리사의 성이 아닌 이름이었다는 걸 알면 기사가 지을 표정이 상상이 갔다.

더스트. 먼지라는 뜻을 지닌 그 단어는 원래라면 알리사의 이름이었다. 알리사의 어머니인 줄리아의 죽음 이후 한 달이나 지난 후에야 에반이 이름이랍시고 던져준 이름은 먼지였다.

알리사가 네 살이 되어서야 아이 이름이 그게 뭐냐며 당장 바꾸라고 호통 친 소피아 할머니 덕에 알리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더스트라는 원래의 이름은 꼬리표처럼 그녀를 따라붙어 그녀는 알리사 더스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원래 성조차 가지지 못한 천출이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더스트를 성으로 삼자는 소피아 할머니의 위로에 눈물을 한바가지 흘렸던 건 이미 먼 과거의 일이었다.

“그래, 알리사. 인연이 닿는다면 또 보겠지. 안녕.”

알리사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어린 기사는 자신의 이름 한 자 알려주지 않고 미련 없이 뒤돌아 멀어져갔다.

멀어지는 기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알리사는 고개를 돌려 신전의 입구를 응시했다. 아까 보았던 매춘굴과 달리 새하얀 빛으로 성스러움을 강조한 신전의 외벽을 보는 순간 토악질이 일었다. 빛과 어둠은 종이 한 장 차이라더니. 신전 뒤에 저런 곳이 있었을 줄이야.

신전 입구를 지키는 성기사 앞으로 다가가던 알리사는 제자리에 멈춰서서 주먹을 꾹 말아 쥐었다. 이 성기사는 그녀가 빚쟁이들의 손에 끌려가는 걸 보았을까, 보지 못했을까? 답은 알 수 없었다.

알리사는 결국 신전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아버지의 시신을 회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발걸음을 돌려세웠다.

알리사를 구해준 어린 기사 테오는 신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홀로 우뚝 서 있는 검은 로브를 두른 남자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서둘렀다. 그늘 아래에 서 있던 남자의 로브 아래에서 녹색의 눈동자가 선명하게 빛났다. 남자의 시선은 그에게 거의 뛰다시피 달려오는 테오가 아닌 그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금발머리 여자가 서 있었던 신전의 입구에.

신전 앞에서 머뭇거리나 싶던 여자는 뒷모습을 보인 채 천천히 그의 시야 밖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남자는 여자의 얼굴을 보았으면 하는 기이한 충동에 사로잡혔으나 결국 여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테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정찰 도중 홍등가에 끌려가던 여자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런 거라면 됐다, 시트리안 경. 그게 오늘 정찰의 목적이었으니.”

남자는 여자가 사라진 신전의 입구에서 여전히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보다, 경과 동행하던 여인이 경이 구해준 여인인가보지?”

“네.”

드물게 호기심을 드러내는 남자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던 테오는 여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백색에 가까운 금발머리. 그 색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의 친구 엘리자베스 하이텔이었다. 머리칼의 색채는 물론이고, 얼굴전체에서 풍겨오는 분위기가 엘리자베스를 떠오르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어딘지 의기소침해 보이는 그 눈. 그 눈도 엘리자베스와 똑 닮아 있었다.

알리사를 엘리자베스의 아래에 있게 하려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이복 언니 레이첼 하이텔의 기에 눌려 늘 숨죽이고 살아가는 엘리자베스에게 마음 터놓고 지낼 수 있는 하녀가 한 명 쯤은 있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안 된다니 어쩔 수 없었지만 못내 아쉬웠다.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 위로 겹쳐오는 알리사의 얼굴에 테오가 무심코 입을 열었다.

“엘리자베스랑 너무 닮아서...”

“엘리자베스?”

아차. 남자의 되물음에 레오는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다. 엘리자베스가 하이텔 공작가의 적녀가 아닌 사생아라 해도 그녀는 엄연한 황가의 핏줄이었다. 레오와 엘리자베스가 제 아무리 막역한 친구사이라 해도 엘리자베스를 감히 일개 평민 따위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도 엘리자베스를 유독 아끼는 황태자의 앞이라면 더더욱.

좀체 감정을 읽어내기 힘든 남자의 눈동자가 제게로 돌아왔을 때 테오는 불호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그랬나.”

그러나 남자는 덤덤히 대꾸하고 말 뿐이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다리고 있었던 불호령은 돌아오지 않았다.

“궁으로 돌아가자.”

“네, 태자 전... 아니, 이시르 님.”

미련 없이 고개를 돌린 이시르의 시선이 신전 쪽을 향했다가 도로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다.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무언가가 가슴 속 깊숙한 곳에 가득 들어찼다.

아버지의 유골함을 받아든 알리사는 허무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부탁으로 에반의 유골함을 가지고 돌아온 켄은 알리사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할머니였다면 이런 상황에 알리사에게 해 줘야 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을 테지만, 알리사는 소피아에게 에반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쪽을 택했다.

“알리사...”

알리사의 옆자리에 앉은 켄은 머뭇머뭇 손을 내밀어 알리사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다. 고개 숙인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알리사가 울고 있는 지, 울음을 삼키고 있는 지 알 수 없었다. 켄은 알리사가 기운을 차릴 때 까지 입 다물고 있기로 했다.

“켄.”

고개 숙이고 있던 알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렸다. 예상 외로 알리사의 눈동자에는 물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슬픔 대신 분노가 가득 들어찬 알리사의 낯선 얼굴을 보며 켄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한 눈에 보기에도 값비싼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인 넓은 방으로 서류 뭉치를 잔뜩 든 시종 하나가 들어섰다. 방의 주인이 집무를 보고 있는 책상 앞으로 다가선 시종은 책상에 잔뜩 쌓인 서류를 옆으로 밀어내 빈 공간을 만들어 그 위로 새로운 서류를 올렸다.

황태자의 집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던 시종은 이시르의 손이 서류 위에서 가만히 멈춰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예의도 잊고 고개를 들어 황태자의 얼굴을 살폈다. 다행히도 숨은 쉬고 있었다. 하지만 서류 위로 멍하게 내리꽂힌 녹색의 눈동자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기절한 게 아닐까 생각 될 정도였다.

이시르를 주인으로 섬긴 지 3년째가 된 시종은 전에 본적 없는 그의 모습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가 아는 황태자는 집무 중에 결코 딴 생각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애초에 집무를 볼 때는 방해 받고 싶지 않다며 추가할 서류가 있을 때는 노크나 어떠한 언질도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명했던 것이 황태자였다. 그 정도로 집무를 보는 것에 항상 모든 신경을 쏟아 부었던 황태자가 딴 생각이라니. 하인은 살다보니 별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황태자의 집무실을 나섰다.

하인이 떠나고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집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이시르가 몸을 움직인 것도 그 보다 몇 분이 더 지난 후였다. 이시르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던지듯 내려놓고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어제 보았던 그 금발머리 여인이 눈에 밟혀 업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차라리 어제 그 자리에서 얼굴을 확인해야 됐던 건데...

턱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얼굴을 확인해서 뭘 어쩌겠다고. 고작 뒷모습이 닮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마음이 동한다면 그는 제 마음대로 거리를 나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금발을 지닌 여자들은 무수히 많다. 어제의 그 여자도 무수히 많은 금발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그 무수히 많은 금발을 이 잡듯 뒤져도 그가 기대하는 그 얼굴일 수는 없었다.

기대? 그는 순간 제가 떠올렸던 단어 하나의 뜻을 되짚으며 기함했다. 기대라니. 그가 처한 상황에 들어맞을 수가 없는 말이다.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목 졸라 죽여도 모자랄 판이건만 그 여자를 다시 만나는 걸 기대한다? 웃기는 소리.

“벨로나.”

당신은 왜 죽어서도 나를 괴롭히는 거지?

“벨로나!”

이시르는 책상을 쾅 소리 나게 내리쳤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더미들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다가 죄다 바닥으로 쏟아졌다. 이시르는 이를 악 물고 눈을 감았다.

이미 60년도 더 된 이야기다. 그를 배신한 공주, 전 여왕은 18년 전 이 세상을 떠났고 모든 기억을 간직한 채로 남겨진 것은 그 하나뿐이었다. 그는 전생의 미련을 떨쳐야 했다. 너무 많은 것이 변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끝내 반란군의 군주 자리에 섰던 그는, 전생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인 황태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아직도 18년 전의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끔찍한 두통과 함께 어둠 속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기함했다. 얼핏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왕가의 일원이었다. 처음엔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던 그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의사로 추정되는 자는 고열에 시달리다 겨우 깨어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 했다. 마치 어린 아이를 달래는 것 같은 말투였다. 그제야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그가 증오하며 죽어간 여왕의 종손 몸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그가 다시 돌아온 그 날은 여왕이 고인이 된 지 일주일 되던 날이었다.

이시르는 집무실 책장에 꽂아 둔 동화책 한권을 꺼내들었다. ‘백성을 사랑한 금발머리 공주님’ 우습지도 않은 제목을 읽어 넘긴 그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졌다. 신경질적으로 책장을 넘기던 그는 마지막 장까지 모두 넘긴 후에야 책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먼저 배신 한 것은 그가 아닌 그녀였다. 처음부터 반란군을 이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서 어린아이들이나 보는 동화에는 본인의 이야기를 잘도 미화시켜 놓다니.

실제로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란군의 군주를 배신자로, 여왕의 배신자의 손에서 간신히 벗어난 영웅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로는 여왕이 반란군을 배신하고 그들의 목을 베었다는 건 추호도 모른 채.

그는 그의 곁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간 동료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지휘하며, 반란군을 가지고 놀았던 여왕을 죽어서도 잊지 못했다. 다시 그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도와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무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으니 한 평생 후회만 반복하며 살아가겠지.

“샨.”

자리에서 일어난 이시르는 문 밖에 서 있던 시종을 불렀다.

“테오는 어디에 있지?”

“시트리안 경은 오늘 비번이십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말을 준비해라, 머리를 식혀야겠다.”

이시르 앞에서 꾸벅 고개를 숙인 시종은 황급히 마구간으로 달려갔다. 황태자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했다.

신전. 전 여왕의 초상화가 있는 곳.

알리사는 신전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당연히 반대할 거라 생각하고 어렵사리 꺼낸 말이 무색하게도 켄은 알리사가 어린 기사에게 도움 받은 일을 듣더니 알리사가 일하는 걸 흔쾌히 허락했다.

소피아 할머니는 어떻게 하냐는 물음에 켄은 아랫집 마리가 일거리를 찾고 있으니 동전 몇 닢 쥐어주고 부탁하면 된다고 웃으며 대꾸했다. 그 때의 대화를 생각하자, 다시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고맙다며 끊임없이 감사하는 알리사에게 켄은 당연한 거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럼에도 알리사는 켄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수습 기사라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서 사람을 하나 고용하는 것은 타격이 컸다. 알리사는 일 해서 번 돈의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집안 살림에 모두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껏 소피아 할머니와 켄이 먹고 재워준 것만 생각하면 몇 십 년을 그렇게 해도 부족했다. 그래서 알리사는 더더욱 켄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알리사도 어린 기사에게 말한 대로 소피아 할머니를 돌보고 바느질감이나 받아 일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막상 아빠의 유골함을 받아들고 그의 죽음을 실감하고 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라면 아빠의 빚 때문에 평생을 쫓기며 살아야 할 판이었다. 귀족 아래에서 일하면 품삯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겠지.

때 맞춰 신전 앞에 도착한 알리사는 잠깐 동안 심호흡을 했다. 바로 어제 느꼈던 그 거부감은 오늘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들어가고 싶지 않다. 알리사는 단 한 번도 발 들여 놓은 적이 없었던 신전이라는 이 공간이 달갑지 않았다.

“저, 여쭤볼게 있어서 왔는데요.”

간신히 신전으로 들어선 알리사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남자를 향해 말을 걸었다. 서류를 뒤적이고 있는 남자는 신관이 아닌 평사원 인듯했다. 수도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 신전은 관공서의 기능을 일부 도맡아 하고 있었다.

“저는 알리사 더스트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알리사의 이름을 듣기 무섭게 고개를 든 남자가 알리사의 옷차림을 확인한 뒤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고개를 숙였다. 뭔가 뒤적이는 소리와 함께 혼잣말로 짜증내는 소리가 들렸다. 알리사는 모른 체 고개를 돌려 신전 내부를 구경했다.

신전 안쪽 벽면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여신의 석상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석상의 옆에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알리사는 눈을 가느다랗게 떴다. 2층에는 서거한 전 여왕의 초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었다. 일반 국민들에게 전 여왕의 초상이 공개되는 것은 여왕이 왕위에 앉을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축제 기간뿐이었다. 알리사는 축제를 즐긴 경험이 없어 단 한 번도 여왕의 초상을 보지 못했다.

“여기요.”

알리사를 향해 조그만 봉투가 내밀어졌다. 머뭇거리는 알리사를 향해 남자는 거의 던지다시피 봉투를 건네주었다. 남자는 더는 방해하지 말라는 듯 서류에 코를 박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뜻밖의 불친절에 얼굴에 열이 차올랐지만 당연한 것이려니 한 알리사는 작게 감사인사를 남기고 신전을 빠져나왔다.

봉투에는 두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집 주소가 쓰인 쪽지, 또 다른 하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편지 하나. 알리사의 이름이 쓰여 있는걸로 봐선 추천서 정도 되는 게 분명했다. 알리사는 눈을 찌푸렸다. 그녀가 글자를 잘 모르긴 했지만 끔찍한 악필이란 것은 알 수 있었다. 마지막에 붉은 인주로 찍힌 도장까지 확인한 알리사는 잠깐 제자리에 멈춰 섰다. 눈에 익은 문양이었다.

“어디서 봤더라?”

어리둥절하기도 잠깐, 알리사는 종이들을 봉투 속에 밀어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반쯤 까막눈인 알리사는 쪽지에 쓰인 주소만으로 집을 찾아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신전으로 향하던 이시르의 시선은 행복한 미소와 함께 거리를 활보하는 국민들 사이를 쉼 없이 맴돌았다. 엄마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어린 아이. 장을 보고 돌아와 짐을 한 아름 품고 걸어가는 아낙네. 기세 좋게 거리를 걸어가는 청년. 나무칼로 전쟁놀이를 한답시고 뛰어노는 아이들.

전생의 그가 꿈꾸었던 사소한 행복이 이곳에서는 현실이 되어 있었다. 벨로나가, 공주가 만든 세상은 그가 바랐던 이상향을 그대로 닮아있었다. 비록 신전의 이면에 그 추악한 면이 여전히 남아있긴 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랬다. 그래서 이시르는 그녀가 너무나도 증오스러웠다. 이 태평성대 속에 그를 비롯한 반란군이 마음 놓고 쉬어갈 한 자리 정도는 남겨주어도 되지 않았는가. 그녀는 너무도 쉽게 체스 판 위의 말을 이용하듯 반란군을 이용해 스스로 여왕의 자리에 올랐다.

애초에 그는 그녀에게 여왕의 자리를 약조했었다. 그러니 그녀가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거머쥐게 될 자리였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벨로나는 매정하게 그들을 짓밟았다.

그는 아직도 기억했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배신을 사과하는 거짓 눈물은 가증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

신전의 지척에 이르러 그는 문득 제자리에 멈춰 섰다. 스치듯 지나가는 옅은 금발의 머리칼을 발견한 탓이다. 정수리에 전류라도 맞은 것처럼 찌릿한 느낌이 일었다. 이시르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멈춰 세운 여자는 사람들 사이에 묻혀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다.

“내가 이제 미친 건가.”

이시르는 주먹을 꾹 말아 쥐고 몸을 돌렸다.

궁전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저택 앞에 선 알리사의 목구멍으로 침이 꿀꺽 넘어갔다. 손에 들린 쪽지에 의존해 어린 기사가 소개해준 일터를 찾아온 결과는 알리사의 머리에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닐까? 어린 기사가 그녀에게 남긴 쪽지와 저택의 주소를 몇 번이고 대조해 보았지만 분명 여기였다.

그렇다면 어린 기사가 주소를 잘못 써준 게 분명하다. 이렇게 대단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집에서 알리사 같은 천민을 하녀로 들일 리가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 알리사는 자신이 없었다. 설령 어린 기사가 소개해준 게 정말 이 집의 하녀 일이라 해도 하루도 제대로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았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일을 하긴 무슨, 실수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돌아가자.”

알리사는 깔끔하게 결론을 내렸다. 역시 제 주제에 돈 버는 일을 한다고 바깥으로 기어 나오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빚은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알리사는 걸음을 멈췄다.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이 있을 턱이 없었다. 빚쟁이들의 말대로 몸을 파는 직업이 아니고서야 천민 신분에 변변찮은 직업을 구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이전에 생각했던 대로 바느질감을 얻어와 한두 푼 되는 돈을 받기엔 아버지의 빚을 갚을 때 까지 평생이 걸릴 지도 몰랐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 켄과 소피아 할머니에게 보답할 거라는 희망이 없어진 지금, 두 사람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었다.

크게 심호흡을 한 알리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택 밖의 상황을 정찰하던 기사는 알리사를 힐끗 돌아보고는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존재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남자의 행동에 주눅이 들었지만 알리사는 간신히 용기를 내서 그에게 신전에서 받아온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걸 추천받았는데요.”

머리와 입이 따로 노는 기분이다. 기사가 여전히 알리사를 거들떠도 보지 않자 알리사는 자기가 말을 하긴 했는지 잠시 동안 의심해 보아야 했다.

“저, 그러니까 어제 저를 구해준 어떤 기사 분께서 저를 이곳의 하녀로 추천해주셨는데... 아니, 추천장 같은 걸, 아니, 추천장이 맞을 거예요. 아무튼 그걸 들고 왔어요.”

횡설수설하던 알리사는 미동도 않는 기사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결론을 이야기 했다. 처음으로 기사의 시선이 알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알리사의 행색을 훑어보는 남자의 노골적인 행동에 알리사의 얼굴에 홧홧한 열기가 차올랐다. 기사는 거의 빼앗다시피 봉투를 가져갔다.

알리사는 귀찮은 얼굴로 봉투를 열어보는 기사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우습지도 않는다는 얼굴로 추천서를 읽어 내려가던 기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다. 갑자기 몇 달간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 같이 파리한 안색이 되어 추천서와 알리사를 번갈아 보던 기사는 알리사에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곤 허겁지겁 저택으로 뛰어 들어갔다.

기사의 뒷모습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던 알리사는 오도 가도 못한 채 한참을 길바닥에 서 있어야만 했다. 그렇게 얼마간의 기다림 끝에 돌아온 기사는 한 여자와 함께였다. 한 눈에 보기에도 성질 있어 보이는 얼굴을 가진 여자는 자신을 하녀장 엔이라 소개했다.

밖에서 본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서 본 저택은 상상을 초월했다. 개미가 지나가다가도 미끄러질 듯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는 바닥부터 천장에서 화려하게 번쩍이는 샹들리에와 집 안 곳곳에 놓인 값비싼 가구들. 알리사는 혹시나 자신이 작은 때라도 남길까 무서워 발끝으로 조심조심 하녀장의 뒤를 따랐다.

하녀장은 알리사가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 지 돌아보고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중간에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커다란 벽에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었다. 장교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년 남자의 초상이었다.

“그 분은 이 저택의 주인이신 하이텔 공작 전하시다. 뚫어져라 쳐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니 고개를 돌려라.”

엔은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려있는 것 같았다. 알리사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보다 공작이라니. 그녀는 상상 이상으로 더 엄청난 곳에 발을 들여놓은 걸지도 몰랐다.

“시트리안 공자께 대충 얘기는 들었겠지만 네가 맡아야 하는 건 엘리자베스 아가씨다.”

“네? 아뇨.”

알리사의 어리둥절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엔이 뒤돌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보다 한층 더 험상궂게 굳어있었다.

“설마 시트리안 공자께 엘리자베스 아가씨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거냐?”

“네, 저는 사실 그 시트리안 공자라는 분이 누군지도...”

아. 알리사의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번졌다. 그녀를 구해주었던 그 어린 기사가 시트리안 공자였던 것이다. 그제야 추천서에서 봤던 도장 문양이 왜 낯이 익었던 건지 설명이 됐다.

시트리안 공자는 켄이 모시고 있는 도련님이었다. 물론 켄은 수습기사라 직접적으로 시트리안 공자를 모시는 건 아니었지만, 알리사는 켄이 입고 다니는 기사복에 차여 있던 완장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완장에 새겨진 문장은 추천서에 있던 도장 문양과 똑같았다.

“시트리안 공자께선 무슨 생각이신지!”

엔이 짜증스러운 눈길로 알리사를 훑어보았다.

“하이텔 공작가에 이런 더러운 천것이라니.”

엔은 아무렇지 않게 모욕적인 말을 중얼거리고는 알리사를 떠밀다 시피 그들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방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알리사의 앞으로 검은색과 흰 색이 뒤섞인 단정한 드레스 하나를 내놓았다.

“하이텔 저택의 하녀들은 무조건 그 옷을 입는다. 네 그 걸레짝 차림으로 하이텔 공작가를 돌아다니고 있는 걸 누군가 본다면 경을 칠거야. 그러니 앞으로는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도록 해라.”

얼결에 화를 내야 할 타이밍을 놓친 알리사가 무언가 말하기 위해 입을 벌렸으나 그보다 엔이 더 빨랐다.

“엘리자베스 아가씨는 하이텔 공작 전하의 사생아다. 하이텔 공작부인과 엘리자베스 아가씨의 언니인 레이첼 아가씨께서는 엘리자베스 아가씨와 관련 된 것이라면 치를 떨며 싫어하시니 너도 두 분과의 접촉은 일절 없도록 해라. 특히 레이첼 아가씨와는 더더욱. 네가 할 일은 간단해. 엘리자베스 아가씨의 곁에 하루 종일 붙어 그 분의 말벗 상대나 그 분이 원하시는 걸 들어주는 거지. 더 질문 있나?”

“제가 할 일은 정말 그게 단 가요? 청소 같은 건...”

“그건 내가 알아서 지시할 테니 네가 상관 할 게 아냐.”

알리사는 이처럼 쉬운 일이 더 이상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막된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가씨의 곁에서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 따위로 보수를 받다니. 왠지 미안하기까지 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일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왜 그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걸까?

“아, 잊을 뻔 했군. 하녀들이 잠드는 방은 3층 복도 가장 끝 방이다. 옷은 매일 이곳에서 갈아입도록 하고, 엘리자베스 아가씨에게 가야하니까 서둘러 갈아입어라.”

“잠깐만요!”

알리사는 당황한 채 눈을 커다랗게 떴다. 엔이 성가신 표정으로 알리사를 돌아보았다.

“이 저택에서 잠을 잔다고 하셨나요? 출퇴근 형식이 아닌 건가요?”

“출퇴근?”

기가 막힌 표정이다.

“나참, 일개 하녀 따위가 출퇴근을 한다는 말은 또 처음 듣는구나. 주말에 허락을 받고 외출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외에는 네 멋대로 집 밖을 나서는 건 불가능해. 어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혀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알리사는 옷을 든 채 제자리에 멍하니 서서 좀 전 까지 제게 일어났던 상황을 곱씹어보였다. 그녀의 앞에서 대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던진 것도 모자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또다시 모욕했다. 엔은 그야말로 그녀를 단단히 무시하고 있었다. 알리사는 분노에 몸을 떨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치를 떨었다. 그녀가 이곳에서 하녀로 일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엔은 그녀의 상관이었다.

낡은 옷가지를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알리사는 옷에서 느껴지는 새 옷 특유의 빳빳한 감촉과 코가 싸해지는 향을 잠깐 동안 음미하듯 눈을 감았다. 비록 하녀복이긴 했으나 이 옷이 알리사가 지금껏 입어본 옷 중 가장 좋은 것이었다. 위로가 될 턱은 없었으나 알리사는 그것으로 가슴 속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삭혀냈다.

그보다는 켄이 걱정이었다. 오늘밤 알리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다. 주말까지는 이틀이 남아 있었고 켄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켄은 분명 알리사를 찾아 헤맬 텐데... 켄에게는 늘 폐만 끼치는 것 같았다.

“다 갈아입었어요.”

조심스레 밖으로 나선 알리사를 매서운 눈으로 훑어본 엔이 혀를 찼다.

“제대로 씻고 다니긴 하는 건지! 옆방은 샤워 실이니까 당장 세수라도 하고 와, 당장!”

세수를 하고 와서도 엔은 옷매무새가 엉망이다, 머리가 단정하지 못하다 잔소리를 왕창 퍼부어 댔다. 엔이 매일같이 이렇게 잔소리를 퍼부어 댄다면 엘리자베스의 하녀자리가 공석으로 남은 이유도 짐작할 만 했다.

알리사는 한참 후에야 엘리자베스의 방으로 안내 받을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방은 그들이 올라온 계단이 아닌 반대 쪽 계단과 이어져 있는 2층이었다. 1층의 화려하고 환한 외향과 달리 엘리자베스의 방으로 향하는 길은 어쩐지 휑하기만 했다. 복도에서는 1층에서 흔히 보였던 장식물 하나 놓여있지 않았다.

2층의 가장 끝 방. 문틈을 따라 복도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유일한 방 앞에서 멈춰선 엔이 문 앞에서 노크했다.

“엘리자베스 아가씨, 오늘부터 아가씨를 모시게 될 하녀를 데려왔습니다.”

“들어와.”

통통 튀는 목소리가 작게 속삭이듯 들려왔다. 엔의 뒤를 따라 들어간 알리사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아가씨. 저는 알리사 더스트라고 합니다.”

엔에게 배운 대로 예의바르게 인사한 알리사는 혹여나 실수한 건 없는 지 엔의 눈치를 살폈다.

“시트리안 공자께서 이 아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테오가?”

화들짝 놀라 묻는 목소리에는 미세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알리사에게 걸어왔다.

“고개를 들어볼래?”

알리사는 잔뜩 긴장한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렸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의 녹색드레스였다. 그리고 한쪽으로 곱게 땋아진 금발의 머리카락. 둥그스름한 창백한 얼굴과 놀라움이 번져있는 푸른 눈.

“나랑 똑같네.”

엘리자베스는 놀란 표정을 지우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네 머리색이랑 눈 색. 나랑 똑같아.”

그리고는 환하게 미소 짓는다. 보기만 해도 한없이 사랑스러운 웃음이었다.

알리사는 그제야 마음 놓고 미세하게나마 미소를 지어보일 수 있었다. 그녀가 모시게 될 아가씨는 생각보다 까칠해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엔보다는 덜할 것이다.

“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불편한 티를 내면서 그 자리에 서 있던 엔이 엘리자베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사라졌다. 엔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다가 마침내 더는 들리지 않게 되었을 쯤 입을 다물고 꼼짝도 않고 있던 엘리자베스가 방은 한 가운데에 놓인 소파 위에 주저앉았다.

“저 사람 싫지?”

“네?”

“나도 저 사람 싫어하거든. 마귀할멈 같잖아.”

그리고는 제 찻잔에 스스로 차를 따르는 엘리자베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알리사가 화들짝 놀라 엘리자베스의 곁으로 다가갔다.

“제가 할 게요, 아가씨.”

“됐어, 원래 늘 내가 하던 일인 걸. 그보다 앞에 앉아볼래? 네게 궁금한 게 많은데.”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던 알리사는 조심스럽게 엘리자베스가 마주보이는 소파 위에 앉았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알리사를 보던 엘리자베스가 알리사에게 다른 찻잔을 내밀며 소리 내어 웃음을 터트렸다.

“고개 들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보다 테오가 널 소개해 줬다더니, 왜인지 알 것 같아.”

엘리자베스의 두 눈이 반짝 빛났다.

“너랑 나랑 많이 닮았다. 눈이나 머리색 말고도 분위기가 많이 닮았어. 생김새는 조금 다르지만.”

그 후로도 엘리자베스의 수다는 멈출 줄을 몰랐다. 알리사와 엘리자베스의 닮은 점에서 시작해, 알리사의 성에 대한 궁금증. 테오와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다는 것을 비롯해 테오와 관련 된 험담까지. 그 과정에서 엘리자베스가 알리사보다 두 살 어린 열여섯 살 소녀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알리사는 엘리자베스의 수다스러움이 싫지 않았다.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는 말이 많다는 느낌보다는 즐겁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 엘리자베스가 말이 멈춘 건 날이 어두워지고 한참이 지난 후였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낭패감이 스쳐지나갔다.

“미안해, 내가 성가시게 군 건 아니지?”

어쩐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오는 엘리자베스가 귀여워 알리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 아니에요. 그 보다 부탁을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응, 뭐든지 들어줄게. 말해 봐.”

“혹시 오늘 하루만 집에 다녀오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출퇴근 형식이라 생각하고 집에 못 간다는 얘기를 안하고 나왔거든요. 가족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하지.”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풀죽은 강아지마냥 시무룩해졌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녀장한테 부탁해야 하는 건데. 그 마귀할멈은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서.”

이 집안에서 엘리자베스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알리사는 엘리자베스를 무시하듯 이야기하던 엔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래도 내일 잠깐 외출은 하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럽게 가라앉은 알리사의 얼굴을 발견한 엘리자베스가 황급히 입을 열었다.

“너한테 심부름을 시켰다고 핑계되면 돼. 오늘은 너무 늦어서 안 되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괜찮을 거야.”

“그럼 부탁드릴게요.”

어쩔 수 없었다. 켄이 걱정하겠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겠는가. 알리사는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그럼 전 이만 올라가 볼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가씨.”

“저, 알리사!”

돌아서는 알리사를 엘리자베스가 황급히 붙잡아 세웠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어쩐지 초조해 보였다.

“너는 여기 계속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고 계속 내 곁에 있을 거지?”

“네.”

알리사는 어리둥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별 일이 없지 않고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알리사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한층 더 우울해진 표정을 짓고 있던 엘리자베스가 입술을 꾹 다물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야 해, 알리사.”

알리사는 결연해 보이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달칵, 문이 닫혔다. 걱정이 잔뜩 번져있던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사라진 복도에는 적막과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알리사는 이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엘리자베스의 하녀 자리가 공석으로 남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

말로만 들었던 텃세라는 게 이런 걸까. 알리사는 단단히 잠겨버린 방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노크를 안에서는 까르륵 거리는 웃음소리만 들려올 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복도는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고 인기척이라곤 하녀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뿐이었다. 엘리자베스의 방으로 돌아갈까 싶었지만 그 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이미 잠들었을 게 분명했고,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도 아니었으니까.

어둠이 눈에 익어갈 때 쯤 알리사는 한숨을 내쉬고 벽에 등을 대고 쪼그려 앉았다. 어쩌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하녀가 남아 있을 지도 몰랐다. 하다못해 하녀장인 엔이라도.

추운 복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방 안에서 들려오는 키득거림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알리사가 멀리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은 건 한참이 지난 후였다. 알리사는 반색하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저 멀리서 다급하게 뛰어오는 금발머리 하녀가 하나 보였다.

“나 왔어!”

그녀는 알리사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문을 쾅쾅 소리 나게 두드렸다. 알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샬롯, 왜 이렇게 늦었어!”

문이 벌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머리에 동그란 막대기를 돌돌 감아 놓은 하녀 하나가 샬롯이라는 하녀의 팔을 잡아끌었다.

“빨리 와, 빨리 와.”

그리고는 알리사가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재빨리 문을 닫으려 했지만 알리사가 한 발 빨랐다. 알리사가 손과 발을 동시에 넣어 문이 닫히는 걸 방해하자 머리에 뭔가를 감아놓은 하녀의 얼굴이 와락 일그러졌다.

“뭐니?”

“나도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하녀인데, 하녀장님께서 여기가 내 잠자리라고 하셔서...”

“너 왜 반말이야?”

“어?”

“네가 뭔데 나한테 반말이냐고.”

표정을 무시무시하게 굳인 채 따지듯 물어오던 하녀가 알리사의 발을 뒤쪽으로 밀어내고 강한 힘으로 문을 밀어 닿았다. 하마터면 손이 끼일 뻔 한 알리사는 제자리에 멍하니 서서 두 눈을 깜박였다. 방 안에서는 하녀들의 깔깔거림이 높아지고 있었다.

알리사는 알지 못했지만 이곳 하이텔 공작가의 하녀들 사이에는 은밀한 따돌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도 엘리자베스의 아래에 있는 하녀를 중점으로. 딱히 이유는 없었다. 엘리자베스의 언니인 레이첼과 공작부인이 엘리자베스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던 집안사람들은 눈을 감았다.

하이텔 공작이 알게 된다면 경을 칠 게 분명했지만 여태껏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하이텔 공작의 딸이란 것만 미뤄둔다면 이 집에서 가장 뒷전인 사람이었고 엘리자베스 스스로도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하녀들이 그녀의 곁을 떠나가는 걸 그저 넋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쩌지.”

알리사는 다시 도로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한참 동안 웃음소리가 들리나 했던 방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복도로 미세하게 새어나오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복도에 남은 것이라고는 암흑뿐이었다. 알리사는 눈을 감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이라면 엘리자베스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지키지 못할 지도 몰랐다. 그래도 당장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알리사는 아버지의 빚을 생각하며 천천히 무의식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날, 하이텔 공작성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시트리안 공작가의 둘째아들 테오와 하이텔 공작의 조카이자 이 나라의 황태자인 이시르 하이텔. 귀한 이들의 방문에 공작성의 하녀들은 분주해졌지만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한결같았다. 애초에 그들이 이곳에 오는 목적도 한 가지였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방문객의 소식을 듣고 2층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온 엘리자베스의 입꼬리가 잔뜩 올라갔다. 엘리자베스는 2층 난간에 기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엘리자베스를 발견한 테오가 손을 흔들었다. 마찬가지로 손을 흔들다 이시르와 눈이 마주친 엘리자베스가 서둘러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넘어질라, 엘리자베스.”

“황태자 전하를 뵙습니다.”

“오랜만..., 입니다, 엘리자베스 공녀.”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하게 말을 걸려던 테오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슬쩍 존칭을 썼다.

“오랜만이예요, 시트리안 공자.”

엘리자베스는 마찬가지로 존칭을 써 그를 맞이했다.

“레이첼은?”

“아, 언니는.”

예의상 물은 첫째 공녀의 행방에 엘리자베스가 멈칫했다. 엘리자베스가 레이첼의 행방을 알 턱이 없었다. 엘리자베스와 눈이 마주친 엔이 냉큼 입을 열었다.

“세노아 백작 영애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렇군.”

그게 끝이었다. 이시르와 테오는 더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엘리자베스와 함께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래, 요즘은 별 일 없고?”

“네, 오라버니.”

하녀가 찻잔을 놓고 응접실을 빠져나기기 무섭게 엘리자베스는 한결 편해진 말투로 이시르를 대했다. 엘리자베스와 나란히 앉아있던 테오의 손이 분주하게 접시 위의 과자를 집었다. 처음에는 별 신경 쓰지 않고 이시르와 사소한 잡담 따위를 하던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한가득 쌓여있던 과자가 바닥을 보일 때 쯤 돼서 기겁하며 테오를 돌아보았다.

“너 며칠 굶기라도 했어?”

“말도 마, 완전 고생이야. 황태자 전하께서 나를 어찌나 굴리시는지 아주, 죽겠다. 죽겠어.”

“그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시트리안 경?”

“왜 이러십니까, 태자 전하. 여기에서까지 기사 취급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다, 테오.”

“너 또 오라버니한테 함부로 하지!”

엘리자베스가 투덜거리며 테오의 등짝을 퍽퍽 소리 나게 내리쳤다. 그깟 고사리 같은 손바닥에 맞는다고 아픈 줄 아냐며 깝죽거리는 테오의 발을 구두 굽으로 콱 소리 나게 밟은 엘리자베스는 모른 척 차를 홀짝였다.

“이 괴팍한 계집애...”

“아, 맞다. 테오. 네가 나한테 알리사를 소개시켜줬다며?”

“알리사?”

테오의 눈썹이 와락 찌푸려졌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 기묘한 이름이었다. 알리사, 알리사 하고 되뇌던 테오의 머리에 더스트라는 특이한 성을 가졌던 여자의 얼굴이 번뜩 스쳐지나갔다.

“아아! 그 금발머리 여자애? 왔어?”

“너한테 누나야 멍청아. 너보다 한 살이나 더 많단 말이야.”

“그래도 왔구나.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너한테도 아무 말 안하고 있었던 건데. 전하,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사창가에서 구해줬던 그 여자 말입니다.”

이시르는 대답 없이 찻잔을 들어올렸다. 금발 머리 여자.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뻔했다.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한 여자에게 마음이 쓰여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게 바로 어제의 일이었다. 찻잔을 든 이시르의 손가락 끝에 힘이 가해졌다. 이시르는 굳어버린 입매를 감추기 위해 괜히 찻잔을 입가로 가져다댔다.

그런 이시르의 감정 변화를 눈치 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을 놀리는 테오와 달리 엘리자베스는 이시르의 심기가 불편하단 걸 알아차렸다. 지난 16년 간 눈칫밥을 먹고 자란 결과였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도 그의 기분이 상한 이유가 테오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그녀의 하녀 때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알리사는 안보이던데? 1층에서도 본 기억이 없고.”

“아, 알리사는 내가 잠깐 심부름 보냈어.”

엘리자베스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나가던 알리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집에 잠깐 들려야한대서, 심부름을 시켜서 핑계거릴 만들어줬지.”

말을 마치며 다시 한 번 힐끗 이시르의 눈치를 살폈지만 이시르의 얼굴은 풀릴 줄을 몰랐다.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지어보인 적 없는 무시무시한 표정에 엘리자베스는 침을 삼켰다. 오라버니께서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나? 혹시 차가 입에 맞지 않으셨나?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내가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라도...

“엘리자베스.”

“네, 오라버니?”

“얼굴 펴라, 고운 얼굴에 주름 잡히겠구나.”

동전의 면을 뒤집듯 순식간에 바뀌어 버린 표정에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한 순간 헛것을 봤나 하고 생각했다. 눈을 깜박이고 다시 보아도 이시르의 표정은 일전에 보아왔던 따스한 표정이었다. 마치 좀 전의 굳은 표정이 엘리자베스의 상상인 것만 같았다.

엘리자베스는 한 순간 섬뜩했던 가슴을 진정시키고 여전히 입을 놀리고 있는 테오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시르의 얼굴을 다시 살필 생각은 하지 못했다. 혹시라도 또다시 차갑게 내려앉은 얼굴을 마주하기라도 할까봐 두려워서.

거친 마찰음과 볼을 감싸 쥐게 만드는 알싸한 고통. 비틀 거리는 몸을 겨우 주체한 알리사는 멍한 눈으로 제 뺨을 올려붙인 켄은 바라보았다. 켄이 그녀에게 손을 대는 일은 지난 몇 년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렸을 때도 켄의 손에 구해졌으면 구해졌지 맞아본 경험이 없는 알리사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 지 도통 알 수 없었다.

“이, 이!”

켄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입을 다물지도 못한 채 알리사의 어깨를 으스러질 듯 쥐어 잡았다.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켄의 고함 소리가 처절하게 산자락을 울리고 지나갔다.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얼마나!”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던 켄이 알리사를 있는 힘껏 꽉 끌어안았다. 얼결에 안겨버린 켄의 품에서 풀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났다. 어렸을 때완 달리 제법 단단해진 팔뚝이나 가슴팍이 느껴졌다. 알리사를 구해내겠다는 일념으로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또래 소년들에게 덤벼들었던 약골 켄은 더 이상 없었다.

“넌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알리사는 대꾸하지 않았다. 세상천지 어떤 오빠가 동생을 때려? 그런 물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하지 않았다.

“내가 여동생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오빠라는 소리는 듣지 않게 해줘.”

“응.”

알리사는 덤덤하게 대꾸하며 눈을 감았다. 켄과 쓸데없는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았다.

뺨을 한 대 내어주긴 했지만, 마무리는 나쁘지 않았다. 켄이 손이 발이 될 정도로 사과를 하기도 했고, 덕분에 켄과 타협이 쉬웠다. 집에서 출퇴근하지 않는다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켄에게 부풀어 오른 뺨을 보여주자 그는 곧장 백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소피아 할머니에게도 당분간 밖에서 일하게 됐다는 걸 납득시켰으니 이걸로 됐다.

“아, 맞다. 꽃.”

엘리자베스의 심부름을 기억해 낸 알리사는 걸음을 돌려 세웠다. 아무 꽃이나 보이는 대로 대충 사와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화병에 꽂아 둘 거라 했으니 이왕이면 장미꽃이 좋을 것 같았다. 때 마침 가장 처음 보이는 꽃집에 생생한 장미꽃이 놓여 있었다.

“장미 꽃 50송이 주세요.”

“네, 색깔은요?”

“전부 이걸로요.”

알리사는 붉은 장미가 한데 뭉쳐 포장 되는 걸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손에 들린 동전 5개를 손 안에서 만지작거렸다. 지금껏 가져본 것 중 가장 큰 돈이 수중에 있었다. 이 돈이면 켄과 소피아 할머니, 알리사 세 사람의 일주일 치 식사를 사고도 남았다. 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돈이 귀족들 입장에선 고작 꽃 몇 송이를 사는 데 쓰인다는 걸 알자 어쩐지 속이 쓰렸다.

“아가씨, 여기요.”

“감사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꽃향기를 맡으며 돌아선 알리사는 흠칫 놀라 멈춰 섰다. 그녀의 눈앞에 웬 늙은 노인 하나가 서 있었다. 노인이 두르고 있는 잿빛의 망토는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역력했으며 한쪽 발에는 낡아 떨어지기 직전인 가죽신이, 다른 한쪽은 부르튼 맨발이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한 백발의 머리카락과 기다란 수염을 아무렇게나 늘어트린 노인의 두 뺨은 홀쭉하게 들어가 있었다.

“...님, 요. 잘못. 제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자비를, ...요. 제가...”

“아가씨, 무시하고 그냥 가요.”

꽃집 주인이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었다.

“저 영감 정신을 놨어요. 몇 년 전부터 헛소리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노인인데 조금 있으면 기관에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가요. 얼른.”

“하지만, 꺅!”

거칠한 손바닥이 그녀의 팔목을 휘어감는 감각에 알리사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뭐예요?”

“고, 공주님. 제가 잘못, 잘못 했어요. 그, 그러지 마세요. 고, 공주님 제발. 제발...”

알리사는 눈을 훼까닥 뒤집고 중얼거리는 노인을 겁에 질린 얼굴로 바라보았다. 알리사의 팔을 꽉 감싸 쥔 노인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난건 지 알라사를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장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이목이 알리사에게로 집중됐지만 누구도 도울 생각이 없어보였다. 저 노인네 또 시작이네, 하고 다들 혀만 찰뿐이었다.

“저기다!”

인파 너머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하나 들려오고 짧은 소란이 일었다. 알리사는 인파를 헤집고 달려오는 몇몇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안심했다. 사람들이 노인을 알리사에게서 떼어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알리사의 몸을 뒤로 잡아끌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공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우리 아빠를 살려줘요!”

“뭣들 하나? 조용히 시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의 몸이 축 늘어졌다. 목 뒤쪽을 쳐 기절시킨 것이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알리사의 눈이 커다래졌다.

“나이 드신 노인을 그렇게 대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정을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정을 모르면 좀 빠지세요. 방금 전 까지 저 남자에게 변을 당할 뻔 했던 아가씨께서 누굴 걱정하는 겁니까?”

기도 차지 않는다는 눈으로 알리사를 쓱 훑어보고 사라지는 남자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알리사는 꽃다발을 꽉 움켜쥐었다. 변이라니. 순간 두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그 노인은 알리사를 해칠 의사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는 뭔가 간절해 보였다. 알리사에게서 다른 누군가를 보기라도 한 걸까.

알리사는 노인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지금 황가에는 딸이 없으니 그가 말하는 공주님은 아마 18년 전에 승하한 전대 여왕일 것이다. 그 노인은 여왕님과 아는 사이였던 걸까? 의문을 품기도 잠깐, 어차피 그녀와는 관련 없는 일이었다. 알리사는 다시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했다.

하이텔 공작성에서 밤을 보내게 된 지 둘째 날,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하녀들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알리사가 무슨 짓을 하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은 조금 더 일찍 올라가 문을 돌려봐도 매한가지였다. 문은 잠겨 있었고, 방문 열쇠를 가지고 있던 하녀는 문을 열고서도 알리사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그 덕에 알리사는 일주일 남짓한 시간을 방문 밖에서 보내야만 했고, 알리사는 포기하고 말았다.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 집에서 엘리자베스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게 분명했다. 집안사람들은 엘리자베스를 거의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고 하녀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른 것은 아니었다. 겉으로는 엘리자베스를 윗사람으로 깍듯이 대했지만 은연중에 엘리자베스를 무시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곤 했는데, 때론 제 시간에 와야할 엘리자베스의 식사가 오지 않곤 했다. 그럴 때마다 엘리자베스는 살을 빼는 중이라며 웃곤 했지만 어딜 봐도 더 이상 빠질 살은 없었다.

황태자가 가장 막역하게 대하는 사촌이 엘리자베스라는 걸 알게 된 알리사는 황태자에게라도 말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말하려다 포기하고 말았다. 애초에 알리사 앞에서 다이어트 핑계를 대며 웃어넘기는 걸 보면 엘리자베스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알리사는 고용인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예의는 합당하게 지켜야 한다고 여겼다.

그래도 복도에서 새우잠을 자는 건 이제 그만 두어야 했다. 어차피 다른 고용인들과 잘 지내기에는 단단히 글러먹었다는 걸 알아차린 알리사는 더는 하녀 방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가 잠자리로 결정한 곳은 2층의 탈의실이었다.

이름만 탈의실이지 성인 남자가 다섯은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한 탈의실에는 추우면 덮고 잘 수 있는 옷들도 제법 있어, 딱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판자촌 생활만 18년인 알리사는 이 정도 방이라도 감지덕지였다. 딱딱한 바닥에서 누워 자서 등이 배긴다고 말할 처지도 못되었다. 땅바닥은 고사하고서라도 태풍에 집이 무너져 내리면 흙바닥에서 잘 때도 있었다. 게다가 벌레나 쥐가 나오지 않는 잠자리는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몰랐다.

“전보다 표정이 좋아졌네, 알리사.”

문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잠을 자던 일주일과 그 이후 일주일을 비교해서 확실히 얼굴이 좋아진 모양이었다. 타이밍 좋게도 엘리자베스와 함께 산책을 할 때 나온 이야기라, 주변의 고용인들 몇몇이 청소나 정원 손질 따위의 일을 하고 있었다.

“네, 요즘 잠자리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알리사는 주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랗게 대꾸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 너무 잘 대해 주셔서요.”

“낯간지럽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도 싫지 않은 듯 얼굴을 붉히며 웃어버리는 엘리자베스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알리사는 괜히 눈을 힐끔대는 고용인들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노려봐주었다.

같은 하녀들의 텃세가 너무 심하다는 것만 제외한다면 엘리자베스의 하녀 일은 거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녀장인 엔의 간섭이 닿지 않다보니 더더욱. 어쩌면 엘리자베스의 하녀가 따돌림을 받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이 너무 편하다는 데 있을 지도 몰랐다. 가장 심한 텃세인 잠자리 문제를 해결한 알리사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다.

“정원에 도둑고양이가 돌아다니나 했더니. 너구나, 엘리자베스?”

그 순간 가시 돋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자베스가 어깨를 움찔하며 몸을 돌렸다.

“레이첼 언니.”

붉은 머리에 초록 눈을 가진 화려하게 생긴 미녀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레이스가 풍성하게 달린 푸른색의 드레스는 엘리자베스의 수수한 남색 드레스와 비교해 훨씬 화려했다.

불쾌한 시선으로 엘리자베스를 응시하던 레이첼이 부채를 접어 그 끝으로 엘리자베스의 어깨를 꾹 눌렀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언니라고?”

레이첼의 얼굴에 조소가 어렸다.

“누가 네 언니니? 내가 분명 네게 하이텔 공녀님이라는 존칭을 쓰라고 이야기 했을 텐데.”

엉망으로 일그러진 얼굴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아름다움이 완전히 사라진 얼굴로 레이첼은 고이 땋아 묶은 엘리자베스의 머리카락을 잡고 거칠게 당기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흘러나오다가 사라졌다.

“어제 황태자 전하께서 또 널 찾아오셨다면서?”

엘리자베스는 침묵했다.

“네 어디가 그렇게 예쁘다고!”

알리사는 숨죽인 채 엘리자베스와 레이첼의 눈치를 살폈다. 문득 내려다 본 엘리자베스의 주먹은 꽉 쥐어져 떨리고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결코 함부로 손을 놀리지 않았다.

“죄송해요, 하이텔 공녀님.”

엘리자베스의 단호하게 대꾸했다.

“앞으로는 제대로 존칭을 쓸게요.”

“그래, 그래야지. 어머, 잠깐...”

레이첼의 관심이 알리사에게로 돌아온 것은 한순간이었다. 알리사는 레이첼과 눈이 마주친 순간 흠칫 놀라 고개를 숙였다.

“이건 또 뭐야?”

“언니, 그 아이는!”

“하이텔 공녀님이라고 하랬지.”

엘리자베스의 몸을 무심히 밀쳐낸 레이첼이 부채 끝으로 알리사의 턱을 들쳐 세웠다. 알리사는 시선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 깔고 레이첼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어디서 또 이런 걸 주워 왔다니?”

알리사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이 하늘로 향하게 바짝 올려 당긴 레이첼이 입술을 삐죽이며 알리사의 머리카락 색을 들여다보았다.

“금발?”

알리사의 몸이 순식간에 짐짝 내치듯 내쳐졌다. 넘어지며 발목을 삐끗한 알리사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눈물을 집어삼켜야만 했다.

“아주 너 같은 것만 주워오는 구나.”

“...”

“보기 좋네, 끼리끼리.”

손에 들린 부채를 슬쩍 내려다본 레이첼이 부채를 집어던졌다. 날아간 부채는 엘리자베스의 머리에 튕겨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더러워서 더는 못쓰겠어. 주워 쓰든지 네 마음대로 하렴.”

“...”

“역시, 천한 것들은 천한 것들 끼리 어울려야지.”

엘리자베스에게 닿기도 싫다는 표정으로 지나쳐 사라지는 레이첼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정원 위로 울려 퍼졌다. 알리사는 입술을 꾹 깨물고 눈을 감았다. 엘리자베스의 눈물이 풀밭으로 스며드는 걸 발견했음에도 위로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흔들림 없는 엘리자베스의 등이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겠다는 완고함을 내보이고 있었다. 알리사는 엘리자베스를 존중해야했다.

레이첼에게 내동댕이쳐져 발목을 다치게 된 알리사는 꼼짝 없이 앉아 있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일주일만 푹 쉬면 나을 정도의 사소한 부상이었지만 알리사의 몸이 워낙 약해 쉽게 낫지 않을 게 분명했다. 엘리자베스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회복까지 한 달은 족히 걸렸을 것이다.

죄송하다며 자꾸만 머리를 조아리는 알리사에게 괜찮다며 미소 지은 엘리자베스가 시간 때우기 용으로 선택한 것은 독서였다. 글자를 모른다며 부끄러워하는 알리사를 위해 엘리자베스는 친절하게 낭독해주었다. 엘리자베스가 가지고 온 로맨스 소설들은 도통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았다. 알리사는 조곤조곤하게 속삭여오는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좋았다. 엘리자베스가 읽는 글자를 함께 보며 어떻게든 글자를 익히려 노력하면서, 알리사는 엘리자베스와 함께 그 책속의 주인공이라도 된 마냥 함께 울고 웃곤 했다.

“그런데 알리사.”

책을 잠깐 덮어두고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던 엘리자베스가 알리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정말 남자랑 여자 사이에는 친구가 없는 걸까?”

“네?”

뜻밖의 질문이었다.

“이런 로맨스 소설들에서 소꿉친구였던 남녀는 전부 사랑에 빠지거나 한 사람의 비극적인 짝사랑으로 끝나서 말이야.”

엘리자베스가 들고 있는 책은 때 마침 소꿉친구였던 귀족 영애와 기사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었다.

“나는 테오랑 둘도 없는 막역한 사인데, 우리도 나중에는 결국 서로 좋아하거나 누구 하나가 짝사랑하는 사이로 끝나게 될까?”

“아뇨, 그건 아닐 거예요.”

알리사는 고민하는 엘리자베스가 귀여워 짧게 웃음을 터트렸다. 여동생이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 늘 오빠라고 주장하는 켄을 보다가 저보다 두 살 아래의 엘리자베스를 보다보니 마치 동생처럼 느껴졌다. 물론 엘리자베스가 이런 알리사의 생각을 안다면 경을 칠지도 몰랐다.

“저도 저보다 한 살 많은 이성 친구가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걸요?”

“아, 네 친구도 한 살 많아? 나랑 테오랑 똑같네.”

“어려서부터 워낙 남매처럼 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켄이 절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한 집에서 클 수 있었겠어요?”

“뭐? 한 집?”

화들짝 놀라 책으로 입을 가리는 엘리자베스에 알리사는 아차하고 말을 멈췄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이미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알리사를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다.

“같은 집에서 살았다고? 그게 가능해?”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켄이랑은 거의 남매나 다름없거든요.”

알리사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갓난아기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에다가 7년 전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 게다가 켄의 할머니도 같이 살았고요.”

“그럼 네 부모님은?”

“엄마는 절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빠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엘리자베스의 눈이 침울하게 변했다.

“알리사도 나랑 똑같구나. 우리 엄마도 날 낳다가 돌아가셨는데.”

알리사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을 멈추었다. 알리사가 누군가를 위로할 처지가 못 된 탓이었다. 다행이도 엘리자베스는 혼자 씩씩하게 기운을 차렸다.

“켄이라는 알리사 친구도 좋은 사람일 것 같아.”

“켄이요?”

“알리사의 친구라고 했으니까 좋은 사람이겠지. 왠지 그럴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 테오 공자께서는 켄을 알지도 모르겠네요.”

“테오가? 왜?”

“켄이 테오 공자의 밑에 수습 기사로 있거든요. 처음으로 수습 기사가 된 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뜻밖의 우연에 엘리자베스가 놀란 토끼눈을 했다.

“그럼 테오한테 좀 신경써달라고 말해볼까?”

“네?”

“테오가 아닌 척 해도 내 말은 다 들어주거든.”

엘리자베스는 누가 듣기라도 하는 마냥 조그맣게 속삭였다.

“어때? 부탁해볼까?”

“괜찮아요.”

“왜?”

“켄이 원하는 건 자기 실력으로 올라가는 거지 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 도움이 없어도 켄은 잘할 거예요.”

알리사가 아는 켄은 틀림없이 노력파였다. 알리사의 입김이 없어도 충분히 잘 해낼 것이다. 알리사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주 쯤 더 지나자 가벼운 산책은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리가 한층 나아졌다. 그 동안 몸이 제법 근질거렸던 모양인지 엘리자베스는 알리사의 다리가 빨리 낫기 위해서는 약간의 활동이 필요하다는걸 알자마자 알리사를 데리고 정원으로 산책을 다니기 시작했다. 물론 산책의 대부분은 정원의 한적한 곳에서 이루어지곤 했다. 아닌 척 해도 엘리자베스는 레이첼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노력해봤자 이곳은 공작 저택이었고, 엘리자베스의 행선지에는 못해도 한두 명의 하녀들이 있었다. 결국 레이첼이 마음만 먹는다면 엘리자베스를 찾아내는 건 그저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대개 레이첼이 엘리자베스를 찾는 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였다. 가령 엘리자베스의 몇 안 되는 장신구나 옷 중에 조금 예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 둘씩 레이첼의 손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것들의 대다수는 레이첼의 품 안에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거나 돌려받는다 해도 엉망이 되어 다시는 못 쓰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알리사는 레이첼이 빌려가는 옷들이 레이첼이 입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한 지 의심스러웠다.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미가 넘치는 레이첼의 체형에 비해 엘리자베스의 몸은 툭 치면 쓰러질 듯 갸날픈 탓이었다.

“엘리자베스.”

레이첼의 요구를 군말 않고 들어주는 엘리자베스였지만 알리사는 꾸며낸 듯 나긋나긋한 레이첼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얼어붙는 엘리자베스의 등을 알 수 있었다. 그 말투는 레이첼이 원하는 게 있을 때만 나오는 말투였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는데, 당연히 너도 참석하겠지?”

엘리자베스의 뒤에서 말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알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레이첼의 입에서 엘리자베스를 향한 파티참여 권유가 나오다니. 파티장에서 레이첼이 무슨 핑계로 엘리자베스를 망신 줄지 몰라 괜히 겁이 났다.

하지만 레이첼이 엘리자베스에게 파티 참여를 권유한 것은 알리사가 생각한 그런 이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레이첼은 평소에 늘 그렇듯 엘리자베스에게서 얻어내고 싶은 게 있을 뿐이었다. 바로, 황태자의 참여.

레이첼은 사교계를 주름 잡고 있는 몇 명의 귀족영애 중 한 사람이었고 레이첼이 사교계를 평정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황태자와 사촌이라는 점이었다. 물론 레이첼 자체로도 사람을 끌어들이고 꼬드기는 재주가 있어 그녀의 주위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황태자를 만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는 걸 레이첼은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황태자는 귀하신 몸이라는 걸 입증이라도 할 심산인지 그녀를 비롯한 사촌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 덕에 레이첼은 사촌이라는 가까운 위치였음에도 황태자와 그리 친한 사이가 되지 못했다. 황태자가 직접 찾아 올 정도로 아끼는 사촌인 엘리자베스를 제외하고는.

천것의 딸인 저 계집애의 어디가 그리 예뻐서 황태자가 감싸고도는 지 도통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레이첼은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이복동생이란 점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런 레이첼을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었다.

“황태자 전하께서는 바쁘세요.”

이미 몇 번 겪어 본 경험이 있어 레이첼의 속내를 간파한 엘리자베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난 번 방문 때 이시르에게서 업무가 밀린 게 많아 한 달 간은 들리지 못할 거란 이야기를 전해들은 기억이 있었다.

“일이 많다고 했으니 못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참석하라는 거잖니?”

레이첼은 별것 아니라는 듯 빙그레 미소 지었다.

“다른 사촌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전하께서 너는 예뻐하시니까, 응? 그런 편애를 받는 네가 참석한다는데 황태자 전하께서 안 오실 리가 없잖아?”

“안 오실 거예요.”

“네가 편지 한 통 넣으면 되는 일이야, 엘리자베스.”

“...”

“오늘 아버지가 오신대. 가족 끼리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니? 착한 동생이라면 언니 말을 잘 들어야지, 엘리자베스.”

언니가 아닌 존칭을 쓰라며 다그치던 게 어제 일처럼 선명한데, 레이첼은 순식간에 가면을 덮어쓰고 착한 언니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네가 이 언니와 잘 지내지 못하는 걸 보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 하실 것 같니? 가엾은 엘리자베스,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누가 보면 어디 아프기라도 한 줄 알겠어.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파티에 참석하지 않아도 좋아. 이 저택에서 누가 너를 뭐라 하겠니?”

“...할게요.”

엘리자베스가 핏기가 죄다 빠져나간 얼굴로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편지는, 써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마세요.”

“나는 너를 믿어. 그럼 저녁 식사 때 보자.”

레이첼이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알리사는 이번에도 엘리자베스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홀로 눈물을 삭힐 거라 생각하고 조심스레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하지만 예상 외로 알리사를 돌아본 엘리자베스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아버지가 오신대.”

애써 명랑한 척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눈물에 흐려진 눈동자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다.

“그간 공무 때문에 외국에 나가 계셨거든. 아버지가 사들고 오는 선물 중 절반은 내꺼야. 처음부터 언니 선물이랑 내 선물을 구분해서 사오시니까 빼앗길 염려는 없어.”

물론 그것들이 후일 레이첼의 손아귀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거기까진 이야기 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명목뿐인 아버지인 하이텔 공작이 자신의 선물을 잊지 않고 사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처지였다.

“오늘 저녁엔 집안사람들이랑 먹을 테니까 너는 내 방에 있어 알리사. 나중에 나랑 함께 선물을 뜯어보자.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는 자리엔 나올 필요 없어. 혹시 누군가 네 행방을 물으면 다리를 다쳐서 못 나온다고 할 테니까 무리하지 마.”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아가씨. 지금도 곧잘 산책을 하는 걸요.”

“금방 다녀올 테니까 괜찮아. 네 저녁은 미리 받아두자.”

어쩐지 긴장해 보이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알리사는 군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엘리자베스는 안도한 듯이 미소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어쩐지 표정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알리사의 물음에도 엘리자베스는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선물을 푸는 건 내일 함께 하자며 피곤하다고 알리사를 먼저 밖으로 내보낸 엘리자베스의 방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전에 없던 일이었기에 한동안 멍하니 방문 앞에 서 있던 알리사는 천천히 걸음을 돌려 이젠 전용 침실이 돼버린 탈의실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레이첼의 핍박은 물론 하녀들의 외면에도 마음고생을 하는 엘리자베스를 이대로 지켜만 보는 게 옳은 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엘리자베스의 자존심을 지켜주느라 엘리자베스의 눈물을 못 본 채 했지만 이런 걸로 위로가 되는 걸까?

알리사는 곧잘 울음을 터트리곤 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빠는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 그녀를 다그쳤지만 소피아 할머니와 켄은 늘 알리사를 달래주곤 했다. 가끔은 민망한 마음에 위로하지 말라는 헛소리를 지껄였던 것도 같지만 그래도 그들의 위로는 항상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다.

알리사의 위로가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크게 다스려줄 수 없을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자베스는 처음 만난 날 알리사가 자신의 곁을 떠나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표현했다. 그건 아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떠나간 탓 일거다. 힘듦을 내색하지 않는 건 정을 주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겪는 상실감을 반복해서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문득 잠이 든 알리사는 불현 듯 잠에서 깨어났다. 갑자기 왜 깨어나게 된지 알 수 없었다. 넘어지는 꿈이나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다던가 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직 주변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으니 일어날 시간이 돼서 습관적으로 눈을 뜬 것도 아니었다. 그냥 갑자기 깨어났다.

몸을 바로 누인 알리사는 두 눈을 감고 다시 잠들기 위한 준비를 했다. 천천히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때쯤이었다. 어디선가 들려온 미세한 소음이 알리사의 잠을 방해했다. 눈을 번쩍 뜨고 인상을 찌푸린 알리사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귀를 기울이다가 저도 모르게 비명이 튀어나올 뻔한 입을 꽉 틀어막았다.

벽 너머의 어딘가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미세한 신음 소리. 자지러지는 여자의 웃음소리와 굵직하게 울리는 남자의 목소리. 공작 부부의 침실 일 수는 없다. 작지만 또렷하게 들려오고 있는 이 소리의 행방은 분명 복도 끝이었다. 두 갈래로 나눠진 2층 복도 중 하녀들의 탈의실이 있는 이 층은 하녀들의 샤워실과 쓰지 않고 남겨진 방들만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었다.

알리사는 몸을 둥글게 말고 눈을 질근 감았다. 알리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결국 반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알리사는 엘리자베스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자는 어제의 다짐을 실천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다시 웃는 가면을 덮어쓴 엘리자베스와 함께 엘리자베스가 공작에게 받은 선물의 포장을 하나 둘 풀어냈지만 자신이 지금 손을 제대로 움직이고 있기는 한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옷 선물을 풀며 쉼 없이 재잘거리는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조차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

옷을 보며 감탄을 아끼지 않던 엘리자베스가 알리사의 상태를 알아차린 건 그 보다 한참이 지나서였다.

“알리사, 무슨 일 있어?”

엘리자베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있었다. 알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은 채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신의 일로도 스트레스를 받은 엘리자베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싶지는 않았다.

“아뇨, 아무 일도 없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이다. 갑자기 잔뜩 토라진 표정을 지은 엘리자베스의 손길이 조금 거칠어졌다. 알리사는 엘리자베스의 그런 심경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간밤에 들려왔던 그 소리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속이 매스꺼워졌다.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층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엘리자베스에게 알리사는 단호하게 대꾸했다. 그 이후로 아무런 말없이 종이봉투를 뜯어내는 알리사를 가만히 바라보던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푹 숙였다.

“왜...”

물기 섞인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에 알리사가 고개를 들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왜 말을 안 해줘, 알리사?”

엘리자베스가 들고 있던 드레스 위로 눈물이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너도 내가 못 미더운 거야? 왜, 말을...”

울먹거리며 중얼거리던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어린 아이처럼 울음을 터트리며 드레스자락에 얼굴을 묻었다. 갑작스러운 엘리자베스의 눈물에 알리사는 간밤의 일에 대한 걱정을 죄다 잊고 황급히 엘리자베스에게 다가갔다. 엘리자베스의 어깨 위에서 토닥거리는 손길에 엘리자베스는 급기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미안, 미안해 알리사.”

번쩍 고개를 들어 올린 엘리자베스의 얼굴 위로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너를 탓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네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응, 나도 알아. 미안, 미안해. 내가 괜한 투정을 부린 거야.”

엘리자베스는 알리사의 옷깃을 꽉 쥐고 눈물 고인 눈으로 알리사를 올려다보았다.

“나도 너한테 전부 다 이야기 할게. 그러니까 너도 네 걱정에 대해 말해줘. 응? 그러니까 날 떠나지마. 날 버리고 가지 마, 알리사.”

“저 아무데도 안가요.”

알리사는 미묘하게 떨려오는 엘리자베스의 어깨를 천천히 다독여주었다. 코를 훌쩍거리며 다른 한 손으로는 눈물을 닦아내던 엘리자베스가 알리사의 품으로 폭 안겨들었다. 정말 어린 여동생이 생긴 기분이다. 알리사는 엘리자베스의 머리를 토닥였다.

“사실 나 어제 너무 힘들었어.”

“어제요? 저녁 식사 시간 말이죠?”

“응,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다들 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나는 모두랑 잘 지내고 싶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는 거야?”

“그래도 공작 전하께서는 아가씨를 생각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아가씨 선물도 사 오셨는걸요.”

“아냐.”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봤자 나는 뒷전이야. 나는 그냥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 태어난 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아닌 척 하시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레이첼 언니를 더 좋아해. 나만 이방인이 된 기분이야. 나는 가족이 아냐. 그 사람들은 날 가족으로 취급하지도 않아.”

엘리자베스가 몇 주 만에 하이텔 공작 일가와 함께한 저녁식사는 겉보기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녀들은 엘리자베스가 그릇을 비울 때 마다 더 필요한 건 없느냐고 공손한 태도로 물어왔고 오랜 만에 집에 돌아온 공작은 그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다.

엘리자베스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하이텔 공작이 집에 있을 때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엘리자베스가 이 식사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이텔 공작 때문이었다. 엘리자베스도 공작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 집 식구들 중 엘리자베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오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는 그의 다정함에 괜한 자신감이 솟아 어쩌면 공작부인과 레이첼과도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기도 했으나 이제 다 옛날 일이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아직도 그들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공작이 엘리자베스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먼 미래에는 레이첼과 공작부인도 마지못해 그녀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엘리자베스, 이것 좀 먹어 보렴.”

그러나 역시나 헛된 기대였다. 레이첼의 착한 언니 흉내를 웃으며 받아들이던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레이첼이 그녀의 앞에 놓아 준 것은 새우였다.

“편식하면 안 돼, 엘리자베스. 골고루 먹어야 살이 찌지.”

엘리자베스는 갑각류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다. 일전에 새우를 먹다가 구토를 하고 복통을 앓은 뒤로 엘리자베스는 갑각류는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됐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경기를 일으키며 토를 했던 자리에는 그들 모두가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공작이 그 사실을 알고 레이첼을 만류하기를 바랐다.

“역시, 언니답구나 레이첼.”

심장이 난도질당한 기분이었다.

“언니인 네가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잘하니까 엘리자베스도 너를 잘 따르는 거지.”

그녀가 새우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잊었다는 것에 화가 난 건 아니었다. 그저...

“엘리자베스, 레이첼을 본받거라. 훗날 네게 좋은 귀감이 될 거다.”

공작이 정말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와 닿았다. 레이첼의 입가에 미묘한 조소가 걸렸다. 엘리자베스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들어 곱게 까진 새우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 안에 넣고 삼키지 않은 채,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참을 제자리에 앉아있어야 했다.

그녀를 더 슬프게 했던 것은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엘리자베스가 입을 열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엘리자베스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잊은 듯 했다. 끔찍했던 식사시간이 끝나고 후식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화장실로 뛰어 달려간 엘리자베스는 입 안에 오래 머금고 있어 불어터진 새우를 뱉어내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신물을 죄다 토해내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이야기를 끝내고도 계속해서 서럽게 울음을 터트렸다.

“나 레이첼 언니한테 내가 받은 옷이랑 장신구들을 죄다 뺏기는 게 너무 싫었어.”

“네, 알아요.”

“그리고 레이첼 언니 부탁으로 이시르 오라버니한테 파티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것도 알아요.”

“아버지한테 미움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죄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엘리자베스는 알리사의 옷을 잡고 늘어졌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 알리사.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 알리사.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사랑 받을 수 있어?”

“가족이 아니어도 아가씨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아요.”

엘리자베스의 머리를 천천히 토닥거린 알리사는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저는 아가씨의 가족은 아니지만... 음, 아가씨는 기분 나빠 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가씨를 여동생 보는 느낌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아가씨의 친구 분인 시트리안 공자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친구로서 아가씨를 사랑하고 계실 거고, 아, 황태자 전하도요. 황태자 전하도 사촌인 아가씨를 사촌으로서 사랑하실 거예요.”

“아냐, 그걸 로는 부족해.”

“그럼 좋은 일을 하면 돼요.”

“좋은 일?”

“네, 아가씨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아가씨가 알지 못하는 헐벗고 굶주린 어린아이들에서부터 길거리의 노인들까지요. 그 사람들은 분명 아가씨가 베푼 것 이상으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허례허식이 아닌, 마음으로 보살피면.”

“마음으로?”

“네.”

머리를 들어 올린 엘리자베스가 눈물 콧물이 번져 엉망이 된 얼굴을 새로 받은 드레스 자락으로 대충 닦아내고 눈동자를 굴렸다.

“너는 그런 걸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누가 네게 가르쳐 준거야?”

“아뇨, 저도 예전에 누구한테 들은 거...”

알리사는 말을 미처 끝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듣다니? 누구에게? 알리사는 누구에게서도 저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사는 방금 전까지는 저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있었다.

“꼭 고모할머니 이야기 같네.”

엘리자베스는 자신만의 생각에 심취하느라 알리사의 머뭇거림을 눈치 채지 못했다.

“네? 고모할머니요?”

“응, 여왕님 말이야. 왜, 몰라? 백성을 사랑한 금발머리 공주님이라고 유명한 동화도 있잖아. 옛날옛날 아주 먼 옛날, 잔인한 왕과 왕의 열여덟 자식들이 붉은 돌을 쌓아 만든 아름다운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 열한 번째 자식이었던 금발머리 공주님은 몰라?”

“아뇨,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왕님의 실화였나요?”

알리사의 어리둥절한 물음에 엘리자베스가 뭘 그런 걸 묻느냐는 표정을 지었다.

“당연한 거 아냐? 세상에, 그게 실화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니!”

“하지만 여왕님이 반란군의 수장이랑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요.”

“음, 그거야 그렇지만.”

엘리자베스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동화니까 아무래도 각색 된 부분이 있었을 거야. 실제로는 반란군이 아니라 여왕님이 먼저 반란군을 배신했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던 사이였다는 것도 지어낸 걸지도 모르지.”

“여왕님이 반란군을 먼저 배신했다고요? 하지만 동화에서는 반란군 군주가 먼저 배신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 여왕님이 먼저 배신하다니, 그게 동심파괴가 아니면 뭐겠어. 게다가 천민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른 왕은 모양 떨어지니까 황실에서 손을 쓴 거지. 나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황족들만 열람할 수 있는 황실 역사서를 보니까 고모할머니가 먼저 반란군을 배신한 게 맞더라. 아, 근데 어디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생각해보니까 황실 기밀 유출이잖아.”

황급히 입을 막고 눈치를 보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이 마치 겁먹은 강아지 같아서 알리사는 소리 죽여 웃었다.

“어디 말 할 곳도 없어요.”

알리사의 대꾸에 엘리자베스는 그제야 안심한 듯 손을 내렸다.

“으, 그런데 내가 여왕님이면 진짜 끔찍했을 거 같아.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죽이다니.”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였단 것도 각색 됐을 거라면서요?”

알리사는 감정 이입을 한 채 중얼거리는 엘리자베스를 놀리듯 대꾸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엘리자베스는 언제 울었냐는 듯 한층 멀쩡해진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였다.

“그래서 알리사, 너는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던 거야?”

엘리자베스의 질문에 잊고 있었던 지난 새벽의 일이 다시금 떠올랐다. 알리사는 잠깐 동안 잊고 있던 그 경험을 떠올리자 속이 뒤집힐 것처럼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엘리자베스가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었으니 자신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옳았지만 아직 열여섯 살 소녀인 엘리자베스가 받을 충격이 걱정되어 쉽사리 입을 뗄 수 없었다.

“솔직하게 말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조금 더 확신하게 되면 그 때는 꼭 말해 드릴게요.”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엘리자베스가 잔뜩 풀이 죽어 중얼거렸다.

“대신 다음에 꼭 말해줘야 해.”

“네.”

그 날은 그렇게 웃으며 대꾸한 알리사였지만 막상 정체불명의 신음 소리가 삼일 밤 내내 계속되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엘리자베스에게 확실히 이야기하기로 한 약속도 있고, 대체 누가 이 저택에서 이토록 풍기 문란을 일으키는 건지 알아야겠다는 데 생각이 미치자 더는 망설일 것이 없어졌다.

남녀가 정사를 나누는 질척한 소리는 2층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알리사가 잠을 자는 탈의실과는 불과 방 두 칸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문 앞까지 다가간 알리사였지만 막상 문 앞에 도착하니 처음의 패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고역인데 눈으로 보았다가는 기절하고 말지도 몰랐다.

알리사는 문 앞에서 몇 번이고 심호흡 하고 돌아서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제 배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알리사가 포기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녀는 방문이 조금 열려있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정사가 진행 중인 방에도 빛 한 줌 없고 복도에도 마땅히 빛이랄 게 없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어쩐지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더라니. 어둠이 눈에 익고 나서야 비로소 알아챈 사실에 알리사는 혀를 내두르며 뒷걸음질 쳤다.

맹세코 안을 엿보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알리사는 이제 막 그 자리를 벗어나려던 참이었고 더는 호기심을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여자의 간드러지는 목소리는 그녀의 발목을 붙잡아 세웠고, 침실로 고개를 돌리게까지 만들었다.

알리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달빛 아래에 흔들리고 있는 반라의 여자였다. 그녀의 어깨 위로 구불구불한 금발머리가 몸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다. 그 밑에 누워있는 남자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자였음에도 누구인지 쉬이 짐작이 가능했다. 남자의 위에 올라탄 여자가 아양 섞인 목소리로 공작님, 공작님 하고 그를 불러댔기 때문에.

알리사는 기가 빠져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알리사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정사 장면 자체 보다는 그 정사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알리사는 어깨 위까지 오는 곱슬곱슬한 금발머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알리사는 그녀를 딱 한 번, 이곳에 온 첫 날 본 적이 있었다. 잊을 턱이 없었다. 머리에 괴상한 무언가를 돌돌 말아놓은 그 여자 때문에 하마터면 문 사이에 손이 끼일 뻔 했으니까.

그녀는 이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인 하녀였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정사를 나누는 남자는 이 하이텔 저택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소유자인 공작이었다. 두 가지 사실 만으로 알리사는 반쯤 패닉에 빠져버렸다.

알리사는 엘리자베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공작을 향한 엘리자베스의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금, 여기서 공작의 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자 얼마나 더 큰 충격이 있겠냐마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였다.

며칠 전, 하녀와 공작의 정사를 목격한 이후 알리사는 몇 가지 추측과 결론을 내렸다. 그 중 가장 먼저 내린 결론은 엘리자베스의 출생에 관한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를 천한 피라 업신여긴 레이첼을 떠올려보면, 그게 어쩌면 하녀를 지칭하는 것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작의 여성 편력이 일구어낸 결과물이 엘리자베스라면, 이 일을 알게 되면 엘리자베스는 분명 상처받을 것이다. 그러니 일단은 엘리자베스에게 침묵해야 했다.

그래서 알리사는 알려달라고 자꾸만 보채는 엘리자베스에게 엘리자베스가 열여덟 살이 되는 날 가르쳐주겠다며 대충 얼버무렸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악을 쓰던 엘리자베스는 그럼 최소 2년 동안은 내 곁에 있겠네? 하는 계산과 함께 곧 잠잠해 지고 말았다. 이럴 때 보면 애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사람을 잘 믿어서 되겠냐는 순수한 걱정이 뒤따르곤 했다.

“어차피 이시르 오라버니는 안 오실걸.”

파티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저택의 구석에 멀찌감치 떨어져있던 엘리자베스가 알리사에게 소곤거렸다. 레이첼은 아까부터 틈틈이 엘리자베스를 돌아보며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었다.

“편지를 보내긴 했지만 답장도 없으셨고...”

사실 마지막에 레이첼 언니의 부탁이니까 올 필요 없다고 쓰긴 했어. 엘리자베스가 레이첼의 눈치를 살피며 한 마디를 덧붙였다.

아니나 다를까,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걸어오거나 아는 체 하지 않았지만 차라리 다행이었다.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관심보다는 무관심이 나았다.

“알리사, 이리 와봐.”

엘리자베스가 레이첼의 시선이 딴 곳을 향한 틈을 타 알리사를 잡아끌었다.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던 공작저의 홀과는 달리 정원은 한산한 편이었다. 엘리자베스의 걸음이 빨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자베스와 알리사가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정원의 한 구석이었다.

“아무리 레이첼 언니라 해도 여기까진 안 올 거야. 손님이 저렇게 많이 와 있는데 파티의 주최자가 빠질 수는 없잖아?”

엘리자베스는 잔뜩 신이 나서 재잘거렸다.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우리 여기서 책이나 읽을래? 저번에 보던 소설이 딱 중요한 곳에서 끊겼거든. 어때, 알리사?”

“그럼 제가 다녀올게요.”

“아냐. 누가 널보고 심부름을 시키기라도 하면 곤란하니까 내가 갔다 올게.”

“그러다가 레이첼 아가씨한테 들키면 아가씨가 곤란해지시잖아요.”

“네가 걸려도 곤란해지긴 매한가질 걸. 네가 언니한테 문초를 듣는 것 보단 내가 듣는 게 더 나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리사.”

엘리자베스가 걸어가며 신신당부했다.

“내가 늦더라도 어디가면 안 돼. 기다려!”

엘리자베스의 땋은 머리가 팔랑 대며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제자리에 멀뚱히 서서 엘리자베스가 사라진 나무 너머를 뚫어져라 응시하던 알리사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알리사보다 세 배는 더 크지만, 나무치곤 그리 높지 않은 키를 가진 나무의 잎은 설탕물을 발라놓기라도 한 마냥 윤기가 흘렀다. 동백나무인가. 알리사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나뭇잎을 천천히 매만졌다.

아직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즘 밖에 되지 않아 꽃이 피진 않았지만 나중에 겨울이 와서 꽃이 핀다면 그것도 제법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보다 엘리자베스는 지금쯤 방 안에 도착했을까. 알리사는 고개를 돌렸다.

업무에 한창 열중하던 이시르의 손이 결재 중이던 서류 위에서 문득 멎었다. 엘리자베스가 보낸 편지가 책상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지나친 미련이다.

레이첼의 부탁이니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보고 쓰레기 더미정확히는 결재하지 않을 서류들이었지만와 함께 놓아두었던 편지를 제 손으로 직접 찾아낸 것은 실로 그 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부정하며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는 이해 못할 자신의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아래에 있다는 그 금발 시녀가 자꾸만 떠올라서다.

단 한 번, 뒷모습 밖에 보지 못한 여인 따위 무시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히고 그의 일을 훼방 놓는 건 그녀를 본 순간 먼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 그 뿐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시르가 하이텔 공작저를 찾을 이유는 충분했다.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친 이시르는 결재 중이던 서류를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감정의 조각 따위, 그 여자의 얼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여자가‘그녀’가 아니라는 것만 알게 된다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라질 것들이었다. 별 것 아닌 감정을 이렇게 붙잡아 두고 질질 끄는 건 현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하이텔 공작 저에 발을 들이고 이유모를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기 전까지는.

“황태자 전하, 오셨어요?”

테오와 함께 걸음 한 그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레이첼이었다. 테오에게 눈짓해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낸 이시르는 형식적인 미소와 함께 제 사촌 동생에게 인사했다.

“오랜만이구나, 레이첼.”

“네, 자주 놀러오세요. 오라버니.”

사적으로는 엘리자베스에게 밖에 허락하지 않은 호칭을 레이첼은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레이첼에게 망신을 줄 생각은 없었던 이시르는 그런 사촌 누이의 무례를 옅은 웃음과 함께 무마했다.

“내가 올 때 마다 네가 없지 않았느냐.”

정확히는 이시르가 들린 목적이 엘리자베스였기에 레이첼과 마주할 일이 없었던 것뿐이지만 이시르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이시르의 말 속에 담긴 외면을 읽어낸 레이첼은 속으로는 독기를 삼켰지만 그녀의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해 웃는 낯으로 이시르의 팔을 잡아끌었다.

“나중에 춤을 출건데 제게 오라버니와 함께할 영광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마.”

여상히 대꾸한 이시르는 천천히 공작 저를 둘러보았다. 엘리자베스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데리고 있다는 그 금발머리 하녀도. 엘리자베스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 건 아니었기에 이시르는 레이첼에게 엘리자베스의 행방에 대해 묻는다던가 하지는 않았다. 물론 엘리자베스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해도 레이첼에게 묻지는 않았을 거다. 엘리자베스의 심정을 헤아려 줄곧 레이첼과 엘리자베스의 관계를 모른 척 해온 이시르였지만 레이첼이 엘리자베스에게 어떤 행동을 일삼고 있는지 모르지 않았다.

“잠깐 실례하지.”

“네, 얼른 다녀오세요.”

엘리자베스를 찾는 이시르의 눈치를 읽어낸 레이첼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시르를 보냈다. 어차피 이시르의 관심을 얻는 건 일찍이 포기했다. 그러니 황태자를 이용해 사교계에서의 제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이 무사히 진행되고 있는 이상 더는 이시르를 붙잡아둘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이시르를 여기서 더 붙잡아 두었다가 엘리자베스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기라도 하면 그녀의 손해였다.

주변을 둘러보며 알만 한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은 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정원 쪽으로 물러선 이시르의 걸음이 문득 멎었다. 테오가 유리잔을 깨트리는 사소한 소동을 일으킨 덕에 그를 향해있던 관심이 한순간에 가셨다. 이시르는 완전히 몸을 돌려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전에도 하이텔 공작저에서 비슷한 파티가 열렸었고 그럴 때 마다 엘리자베스가 향하는 장소가 있었다. 이시르가 엘리자베스에게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도 이 정원에서 엘리자베스를 만나고 난 후였다. 황태자의 몸에서 깨어난 지 10년이 지난, 열 네 살의 어느 겨울 날. 그에게 달라붙는 사람들을 피해 정원으로 도망친 그는 활짝 피어있는 붉은 동백꽃을 보며 옛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때는 추운 겨울날이었고 주변을 시찰하던 그는 동백 군락에 몸을 숨긴 금발의 여인을 발견했었다. 매섭게 빛나는 녹색 눈과는 대조되게 몸을 움츠러트리며 잔뜩 경계하던 그 여인은 그가 칼날을 갈고 있던 왕가의 일원이었다.

엘리자베스와도 그런 식으로 만났던 것 같다. 붉은 동백 꽃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옅은 금발머리는 그가 기억하는 벨로나의 전유물이었다. 여덟 살의 어린 소녀는 그를 보며 움츠러들었고, 엘리자베스에게서 발견한 벨로나의 색채에 이시르는 넋을 놓았다. 마치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 날처럼.

“엘리자베스.”

이시르는 제 사촌 누이의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정원 깊숙한 곳으로 걸음을 들여놓았다. 인기척은 있는데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다시 한 번 이어진 나직한 부름에 아까보다 인기척이 한층 더 짙어졌다. 어쩐지 놀란 것 같기도 한 분주한 움직임이다. 이시르는 낮게 웃으며 잎이 무성한 동백나무를 돌아갔다.

“무엇 때문에 그리도 놀라...”

웃으며 말을 이어가던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시르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의 눈동자에 허리너머로 길게 늘어트려진 백금발이 비쳤다. 아직 채 피지 않은 동백꽃 향기가 올라오는 것 같다. 향기에 취하기라도 한 걸까. 이성이 마비되고 머릿속이 혼미해졌다.

“벨...”

분명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벨로나.”

그가 속삭였다.

낯선 이의 등장에 놀라 얼어붙었던 알리사는 낯선 이름의 등장에 눈을 느리게 깜박였다. 잔뜩 긴장한 채 제자리에 서 있던 알리사는 더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느리게 몸을 돌렸다. 동백나무에 몸이 반쯤 가린 남자가 멍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굉장히 짙은 검은 머리였다. 그 머리 아래에 자리 잡은 녹색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향해 있는 걸 발견한 순간, 알리사는 그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엘리자베스에게 말로만 들어왔던 황태자였다. 엘리자베스는 그가 오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녀가 틀렸다. 알리사는 함부로 쳐다봐서는 안 될 높은 분을 만났다는 생각에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엘리자베스 아가씨께서는 잠시 방에 들르셨어요.”

감정 한 줌 들어있지 않은 알리사의 대꾸에 한 순간 물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이시르는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않는 알리사를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그녀의 앞으로 다가섰다. 갑작스러운 접근에 놀라 움찔하는 어깨가 보였다. 이시르는 가슴 속 깊숙이 부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아내고 그녀의 턱을 들어올렸다.

“당신은 벌써 나를 잊었습니까.”

거친 손길에 젖혀진 고개의 통증과 한순간 엄습해오는 공포에 알리사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황태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그녀의 머리로는 알 수 없었다.

“왜, 왜 이러...”

“똑바로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의 가치 밖에 지니지 못했습니까.”

이시르는 이를 갈았다. 그를 향한 공포에 질린 두 눈이 그를 점점 더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내면 속의 괴물이 이를 드러내며 사납게 그르렁거렸다.

“대답해.”

이시르는 광기에 젖어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대답해, 대답 하란 말이다! 당신의 입으로, 내가 누구인지 대답해!”

“...하.”

“뭐?”

“황태자..., 전하.”

그녀의 대답에 또다시 넋을 잃기도 전에 그녀의 뺨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몇날 며칠 밤을 불안 속에 보내느라 심약해 진 정신이 기어코 바닥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알리사는 제 눈앞의 황태자가 자신에게 왜 이렇게 구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두려웠다. 핏대를 세우고 그가 누구인지 대답하라며 소리 지르는 그가 무서웠다.

“제발.”

알리사는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덜덜 떨리는 입술을 떼어냈다.

“제발 놓아 주세요...”

이시르의 얼굴이 고통스레 일그러졌다.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뚝 하고 끊어진 기분이다. 간신히 붙들고 있던 이성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알리사의 볼을 따라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 끝으로 닦아냈다. 그녀에게는 울음을 터트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오래 전, 그를 배반하고 그의 심장을 꿰뚫은 순간부터 그녀는 눈물을 흘릴 자격마저 잃었어야 했다. 이시르는 이젠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알리사의 푸른 눈동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멈칫했다.

벨로나 하이텔의 녹색 눈동자와는 다른 푸른 눈동자지만, 이것은 분명 벨로나의 눈이었다. 처음 이 눈을 마주한 그 날, 그녀를 살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왕가의 피가 흐르는 그녀의 목을 베어냈어야 했다.

이시르는 그녀의 뒷덜미를 쥐어 잡고 그녀의 입술에 거칠게 입 맞추었다. 놀라 반쯤 열린 입술을 놓치지 않고 찾아든 이시르는 혀로 그녀의 입술 곳곳을 유린했다. 알리사가 그의 가슴을 밀쳐내고 몸부림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손으로는 그녀의 허리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그녀의 뒤통수를 받친 채로 그녀의 숨결을 죄다 집어 삼킬 듯 끊임없이 그녀의 입속을 헤집어놓았다.

알리사가 저항하려 그의 혀를 꽉 깨물었음에도, 입 안으로 비릿한 피 맛이 감돌았음에도 이시르는 멈추지 않았다. 이시르가 일방적인 입맞춤을 멈춘 것은 그로부터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이래도.”

숨쉬기가 버거워 비틀거리는 알리사의 귀 속으로 이시르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이래도 나를 모른다고?”

“...”

“당신이 나를 잊었다고?”

알리사는 멍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야 했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잊어! 당신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모든 걸 잊어, 왜!”

분노에 잠겨 소리 지르던 그의 눈에 이채가 돌았다. 순식간에 그의 손아귀에 목덜미가 틀어 잡히고 그 충격으로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알리사는 컥컥 거리는 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 한 채 겁에 질려 이시르를 올려다보아야만 했다.

“벨로나.”

“...”

“벨로나.”

“...”

“당신을 증오합니다.”

희미해지는 정신 너머에서 이시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지기를 반복했다.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왜 저를 그런 식으로 배신했는지. 제게 사랑한다 속삭였던 그 입술로 왜 저를 난도질 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나를 잊어. 당신이!”

알리사의 목을 한층 더 강한 힘으로 옥죄인 이시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변명을 하십시오.”

사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당신에게 입이 있다면, 내게 변명을 하란 말입니다!”

황태자로 살아온 지난 18년의 세월은 그의 생각의 많은 일부를 바꾸어놓았다. 그녀가 그를 그렇게 등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반란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벌어질 혼란 때문이었다.

반란군이 승리의 깃발을 붙잡고 약속대로 벨로나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해도 피해 갈 수 없는 논란은 분명 존재했다. 왕가를 끝낸 것은 반란군인데 왜 공주가 왕위에 오르냐 하는 문제부터, 신분이 낮은 자들에 의해 반란이 성공해 왕이 바뀐다면 후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무턱대고 반란을 조장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문제까지. 자칫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이시르는 머리로는 그것을 이해했으나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당신이 왜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를 이해시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시르는 그녀에게 그 대답을 얻기를 원했다. 그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백성들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한 마디면, 그를 이해시킬 수 있는 그 한마디면 그는 그녀를 용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 과거를 잊음으로서 또다시 그를 배반했다.

“지난 과거를 모두 잊을 정도로 그 기억이 아프셨습니까.”

이시르는 창백하게 질려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알리사의 목에서 천천히 손을 떼어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기억을 잃어.”

마지막 중얼거림은 허망하게 허공으로 흩어졌다. 알리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뺨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다.

“저는...”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지독하게 닮은 목소리다.

“전하께서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는 어김없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이시르는 인정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알리사의 얼굴로 느리게 손을 뻗었다. 땀에 젖어 축축해 진 금발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그녀의 얼굴을 느릿하게 쓰다듬었다. 알리사는 반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아 두려움에 질린 얼굴로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겁에 질린 알리사의 눈동자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고통스레 일그러졌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입술 위로 제 입술을 겹쳤다. 첫 번째 입맞춤보다 한층 더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이시르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에게서는 머리가 아찔해 질 것 같은 향기가 났다. 그것은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향이었다. 그는 그 향에 심취해 눈을 감았다. 본인은 아니라 말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모든 증거가 그녀가 벨로나임을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이시르는 절망했다.

저항하지 못하고 이시르의 입술을 받아들이던 알리사의 귀에 무언가 투둑하고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뒷목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린 알리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풀 밭 위에 나뒹굴고 있는 책들이었다. 그 다음은 충격으로 잔뜩 얼어있는 녹색 눈동자였다.

알리사와 이시르를 혼란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던 엘리자베스는 알리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굴을 붉히며 몸을 돌렸다. 얼핏 본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알리사의 것을 꼭 닮은 금발머리가 나무들 너머로 사라졌다.

“아가씨!”

알리사는 화들짝 놀라 강한 힘으로 이시르를 떠밀었다. 이시르의 몸은 아까와는 달리 순순히 뒤로 밀려났다. 알리사는 원망 어린 눈으로 이시르를 쳐다보고는 황급히 엘리자베스가 사라진 곳으로 달려 나갔다. 빠르게 멀어지는 알리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이시르의 두 눈에 체념이 어렸다. 아직도 코끝에 그녀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아가씨!”

알리사는 멀어지는 엘리자베스의 뒤를 쫓았다. 다친 발목이 아파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갑작스러운 엘리자베스의 난입에 파티 장에 작은 소란이 일었지만 다행이 레이첼은 그 소란을 눈치 채지 못했다. 사람들을 밀치고 계단을 올라가는 엘리자베스를 뒤쫓던 알리사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몸을 간신히 추스르고 계단을 밟아 올랐다. 파티장이 보이지 않는 2층 복도의 입구에 들어섰을 때 쿵 하고 복도를 울리는 소리가 났다.

“아가씨!”

알리사는 바닥에 나자빠진 엘리자베스를 발견하고 창백하게 질려 뛰어갔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필요 없어!”

“아가씨!”

알리사는 얼얼해진 손등을 문지르며 멍한 눈으로 엘리자베스를 응시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꼴도 보기 싫어. 저리 꺼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엘리자베스는 부축하려는 알리사를 무시하고 빠르게 자신의 방으로 걸어들어 갔다. 그런 엘리자베스의 뒤로 빠르게 따라붙던 알리사는 한층 더 심하게 전해지는 발목의 고통에 인상을 찌푸리며 황급히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엘리자베스가 한 발 더 빨랐다. 그녀는 알리사의 면전에 대고 문을 닫았다.

“아가씨...”

알리사는 엘리자베스가 놀라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엘리자베스의 방문을 두드렸다.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럼 내 눈이 잘못 되기라도 했다는 거야? 오라버니랑 네가...! 네가!”

엘리자베스는 뒷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다. 알리사는 간절하게 엘리자베스의 문고리를 붙잡고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아가씨, 제발 제 말을...”

“너 마저 날 이상하게 취급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문부터 열어주세요.”

여전히 발목이 아프다. 알리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치맛단을 걷었다. 갑작스러운 달리기로 무리를 한 발목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알리사는 손가락 끝으로 발목을 꾹꾹 눌렸다. 신음이 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눈물이 핑 돌아 고개를 치켜들었다.

아직도 맞닿았던 입술이 뜨겁다. 황태자는 그녀를 질식시킬 생각이기라도 한 것처럼 끊임없이 그녀의 숨결을 삼키고 삼켰다. 알리사는 여전히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을 질끈 감았다. 미처 마르지 않은 눈물이 한줄기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무서웠다.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갈구하듯 소리 지르는 그가 너무 무서웠다. 동시에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소리가 너무 애절해서 두려웠다. 그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가 원망하는 대상이 제가 아님이 분명한데도 그 말이,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 잠깐 동안 정말로 그녀가 뭔가 실수를 한 게 아닐까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그가 뭔가 착각한 게 분명했다.

“엘리자베스 아가씨 그건 정말 오해...”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문 안에서 엘리자베스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도 이시르 오라버니도 테오도 모두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

“당연하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가씨. 저도 황태자 전하도 시트리안 공자도 모두 아가씨를...”

“더는 날 기만하지 마.”

엘리자베스는 이를 악 다물고 중얼거렸다.

“너는 이유가 있어서 내게 접근한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가씨.”

“그럼 그렇지. 내 곁에 이유 없이 남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

“아가씨, 오해예요.”

알리사는 간절하게 중얼거렸지만 엘리자베스는 귀를 막았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대했는데 너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너는 내게 붙어 뭔가 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내게 접근 했던 거야. 그렇지? 그런 거지?”

“아니에요, 아가씨.”

알리사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엘리자베스에게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는 걸 깨달았다. 엘리자베스는 지금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갈구하며 사랑받길 원했던 엘리자베스에게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그게 그녀의 의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너나 내 어머니란 여자랑 다를 게 뭐야. 뭔가 받아먹을 게 없나 싶어 이 저택에 들어와 공작을 유혹해 나를 낳다 죽은 내 어머니나 나와의 친분을 빌미삼아 이시르 오라버니와 입 맞추고 있던 네가 다를 게 뭐냔 말이야!”

엘리자베스는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아가씨, 저는...”

“아까부터 계속 아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야? 네가 오라버니와 입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기라도 하다는 거야? 내가 정신이 이상해 져서 헛것이라도 본 거야? 대체 넌 나를 어디까지 기만할 셈이야!”

엘리자베스가 제자리에 주저앉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반쯤 잠겨 있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내게 설명해!”

“...”

“네가 오라버니와 그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내게 설명해, 당장 설명하란 말이야!”

알리사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멍하니 닫혀버린 문을 응시했다. 엘리자베스에게 무어라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황태자가 그녀와 다른 여자를 착각해 그녀에게 입맞춤했다? 엘리자베스가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믿을 리가 없었다. 제 스스로도 제게 일어난 일이 믿어지지 않는데 엘리자베스는 오죽할까. 오히려 저를 더 기만하는 거라 생각 할지도 몰랐다.

“역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구나.”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분노조차 전해지지 않았다.

“결국 너도 이렇게 날 떠나버릴 거였어. 그것도 이시르 오라버니마저 데리고 말이야.”

“아가씨...”

“레이첼 언니보다 네가 더 나빠.”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꺼져.”

그녀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에서 점차 멀어져갔다.

“네 얼굴 보기 싫어.”

알리사는 꺼지라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듣지 않고 엘리자베스의 방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어차피 공작이 집에 있는 한, 엘리자베스도 함께 식사를 할 테니 아침까지 기다리면 엘리자베스가 마지 못 해 문을 열거란 계산 때문이었다. 게다가 밤새 엘리자베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라도 할 까봐, 걱정되어 문 앞을 지킨 것도 있었다. 다행이 엘리자베스의 울음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 밤을 엘리자베스의 방문 앞에서 꼬박 샌 알리사가 정신을 차린 것은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끼고서였다. 엘리자베스가 방문을 열고 방을 벗어나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알리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난 알리사가 머리를 가볍게 정돈하고 엘리자베스의 뒤를 따라 나섰을 때 엘리자베스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알리사는 황급히 엘리자베스의 뒤를 쫓았다. 그간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알리사의 동행을 막는 엘리자베스 덕에 알리사가 공작 일가의 식사 현장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식당 앞에 선 엘리자베스가 잠깐 머뭇거리나 싶더니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알리사는 그런 엘리자베스의 뒤를 황급히 쫓아 들어가 다른 하녀들의 곁에 나란히 섰다. 하녀들 몇몇이 식당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알리사를 힐끔 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알리사는 그런 시선을 무시했다. 공작 부부와 레이첼은 이미 식사를 시작한 후였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조금 늦었구나.”

공작의 반응은 그게 다였다. 심지어 나머지 두 사람은 엘리자베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잠깐 머뭇거리나 싶던 엘리자베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식기를 들어올렸다. 알리사에게 옆모습을 보이고 앉은 엘리자베스의 몸이 살짝 떨려오고 있었다. 알리사는 엘리자베스가 울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다행이 엘리자베스의 눈에는 물기하나 보이지 않았다. 단지 밤을 새기라도 한 것인지 안색이 좋지 않았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작 내외와 레이첼의 웃음소리가 간간이 식당을 울리고 지나갔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엘리자베스를 응시하던 알리사가 이상한 기분을 느낀 건 바로 그 순간 이었다.

슬쩍 눈길을 돌린 알리사는 공작이 하녀들 중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공작의 시선 끝에 있는 것은 금발머리 하녀였다. 언제나처럼 구불구불한 단발머리를 지닌 그녀는 공작과 밀정을 나누던 그 하녀였다. 엘리자베스를 걱정하느라 잊고 있던 며칠간의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알리사는 몸서리쳤다.

알리사는 재빨리 고개를 바로 했다. 이들 중 저 하녀와 공작의 관계를 눈치 채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공작부인은 뭔가 알고 있을까? 그래도 분명 매일 밤 함께 잠자리에 드는 부부인데 모른다는 게 더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저 하녀와 공작은 공작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한밤의 정사를 즐기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공작부인은 이미...

“아.”

문득 고개를 들어 공작부인의 옆얼굴을 힐끗힐끗 응시하던 알리사는 저도 모르게 나직한 신음을 내뱉었다. 어느 샌가 공작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와 있었다. 이상한 시선으로 그녀를 돌아보는 하녀들의 시선을 느낀 알리사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척 황급히 공작의 시선을 피해 눈을 돌렸다. 기분이 이상했다.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불길한 느낌에 가슴이 울렁거렸다. 알리사는 차마 고개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혹시라도 공작과 눈이 마주치게 될 까봐. 그랬다가는 밀려드는 역겨움에 토악질을 할 것만 같아서.

“엘리자베스!”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레이첼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시차를 두지 않고 일어났다. 놀라 고개를 들어 올린 알리사는 엘리자베스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엘리자베스의 손에서 떨어진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엘리자베스의 다리로 튄 듯 물이 흥건하게 고인 바닥 위로 붉은 핏물이 섞여 들었다.

“아가씨!”

화들짝 놀란 알리사가 엘리자베스에게로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바닥에 주저앉은 알리사가 깨진 컵을 치우기 위해 손을 내리는 그 때 공작가의 집사가 자신이 하겠다며 그녀를 만류했다. 알리사는 여전히 창백하게 질린 엘리자베스의 어깨를 잡고 엘리자베스를 일으켜 세웠다.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순순히 그녀를 따라나섰다.

“치료하러 가야해요. 이리오세요, 아가씨.”

“잠깐만.”

공작의 목소리가 알리사와 엘리자베스를 붙잡았다. 알리사는 저도 모르게 뻣뻣하게 굳어 멈춰 섰다. 알리사는 공작의 얼굴을 최대한 보지 않으려 애쓰며 눈을 내리 깐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하녀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나?”

“엘리자베스 아가씨의 하녀로 들어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알리사는 목소리가 떨려나오지 않았음에 감사했다.

“그래? 그런데 왜 그간 식사시간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지?”

“그건...”

“다리를 다쳐서 한 동안 걷기가 성치 않았던 아이입니다.”

웬 일로 하녀장 엔이 그녀를 옹호하고 나섰다. 어쩐지 더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라 알리사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저, 저 가봐야겠어요.”

알리사의 부축을 받으며 꼼짝 않고 서 있던 엘리자베스가 끊어질 듯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보다 깊게 베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다, 다친 네가 죄송할 필요는 없지. 올라가거라.”

공작에게 가볍게 목례한 엘리자베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엘리자베스의 손은 알리사의 옷깃을 꽉 쥐어 잡고 있었다. 알리사는 엘리자베스를 부축하려 했으나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제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잘 걸어가고 있었다.

식당에서 엘리자베스의 방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핏방울이 흘러 내렸다. 알리사는 엘리자베스를 걱정함과 동시에 엘리자베스가 그녀를 내치지 않는 다는 것에 감사했다. 어쩌면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랐다.

“다 됐어요.”

엘리자베스의 피를 닦고 소독한 뒤 연고를 발라 붕대로 마무리한 알리사가 구급함을 닫으며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침대에 걸터앉아 다리를 내 준 이후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다.

“저, 아가씨.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아니,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엘리자베스가 쌀쌀맞게 대꾸했다.

“우리 집에서 나가줘.”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엘리자베스의 눈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녀의 녹색 눈동자에는 전에 본 적 없는 냉랭함이 담겨 있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축객령이 떨어졌다.

엘리자베스의 하녀로 들어온 첫 날 알리사가 입고 들어왔던 옷은 깨끗하게 세탁돼 탈의실의 구석에 놓여 있었다. 하녀장 엔이 걸레 조각이라 칭한 옷이긴 했지만 진짜 걸레취급은 받지 않은 모양이다. 솔직히 알리사는 그녀의 옷이 아직 이 저택에 남아 있다는 것도 자신하지 못하던 참이었다. 하녀들이 입는 옷에 비하면 넝마 조각이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세탁조차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이전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옷 상태에 알리사는 스스로를 위안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창백한 피부를 지닌 여자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보였다. 알리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신이 할 일을 모두 마쳤는지 꼼꼼하게 되짚어 보았다.

제 것이 아니었던 옷을 원 위치로 되돌려 놓았으니 이제 하녀장 엔에게 가서 엘리자베스의 축객령이 있었음을 알리고 그간의 봉급을 받으면 된다. 아마 엔은 그녀에게 고운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알리사는 미리 마음을 다잡았다.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다. 빚만큼의 봉급을 벌지 못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엘리자베스와의 오해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떠나는 사실이 못내 아쉽기만 했다.

“아...”

알리사의 발걸음이 멎었다.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알리사는 흠칫 놀라 제 눈앞에 나타난 남자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심장이 쿵쿵 소리를 대며 세차게 뛰어댔다. 그녀와 공작이 마주하고 서 있는 2층의 복도는 인기척 하나 없이 텅 비어있었다.

입 안이 바싹 말라 들어갔다. 공작이 이 시간에 왜 이곳에 온 걸까? 설마 이런 환한 대낮부터 그 하녀와 밀회를 나눌 생각이었다면... 오소소 소름이 돋는다.

“너는 엘리자베스의 하녀라던 그 아이가 아니냐?”

“네.”

알리사는 두 눈을 질근 감았다. 한시바삐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어디 외출이라도 하는 건가? 하녀복이 아닌 평상복인 걸 보니.”

“아니요.”

무심코 대꾸한 알리사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저를 탓했다. 그냥 외출을 한다고 대충 둘러대면 됐을 것을.

“그럼?”

“엘리자베스 아가씨께 폐를 끼친 게 있어 오늘부터 일을 그만 두게 됐어요.”

“일을 그만 둔다고?”

“네.”

“엘리자베스가 네게 그러하고 하더냐?”

“네.”

어쩐지 대화가 길어지는 기분이다. 불편한 마음에 치맛자락을 매만졌다.

“엘리자베스가 제 감정에 치우쳐 하녀를 내쫓을 만한 성정은 아닌데.”

“제가 조금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고용인을 내쫓는 건 경우가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엘리자베스가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하며 고개를 든 순간 마주친 눈에 알리사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 죄다 잊고 말았다. 그의 눈에 담겨 있는 건 명백한 노여움이었다. 고작 천출 따위가 제 말에 토를 달아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일까. 잦아든 알리사의 기세를 읽어낸 공작의 눈이 한층 부드럽게 풀어졌다.

“고용주로서 이틀간의 외출은 허락하마. 그리고 그 동안 내가 엘리자베스와 이야기를 해 볼 테니 삼일 후에는 다시 출근하도록 하고.”

“공작 전하, 저는.”

“고용인의 사정을 생각해 주는 고용주의 말에 하나하나 토를 다는 것 역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나?”

다시 한 번 날이 선 목소리에 알리사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공작의 말대로 단순 고용인에 지나지 않는 알리사를 향한 배려라기엔 지나치게 친절하다. 알리사는 불길한 기분이 온 몸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거절의 의사를 밝히기에는 이 복도가 텅 비어있다는 점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알리사는 두말 않고 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무엇에 감사 한 건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어차피 대답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두 눈을 질근 감고 푹신한 쿠션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침묵에 잠긴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제 가슴에서 들려오는 쿵쾅거림뿐이었다. 엘리자베스는 한층 더 깊숙이 얼굴을 눌려 들어갔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얼굴을 떼지 않았다. 참고 참다가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얼굴을 들어올렸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얼굴이 틀림없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쿠션 위에 얼굴 모양에 맞혀 눈물과 콧물이 찍혀있는 걸 발견하고는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다. 드레스 소맷자락으로 눈물 자국을 닦아내던 손길이 문득 멎었다. 엘리자베스는 오늘 아침에 본 공작의 그 눈빛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명백히 알리사에게로 향해있던 검은 속내. 이 집안에서 눈칫밥만 몇 년을 먹고 살아온 엘리자베스에게 그것을 알아차리는 건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공작의 여성편력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공작이 환장하는 게 금발이란 것 정도는. 제 머리색은 물론, 그간 임신 사실이 알려져 공작부인의 손에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된 다른 하녀들을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솔직히 말해 엘리자베스가 공작의 사생아로 인정받아 이 집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엘리자베스의 어머니가 배를 꽉 동여매고 임신사실을 끝까지 숨긴 채 이 집안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여자가 아닌 남자였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에서 숨 쉬고 있지 못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눈을 질근 감고 쿠션을 꽉 감싸 안았다. 그간 식사자리에 알리사의 부상을 핑계 삼아 알리사가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혹여나 공작의 눈에 들어 알리사가 몹쓸 꼴을 당할까봐. 하지만 지난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건 괜한 그녀의 기우일 지도 몰랐다.

알리사는 오히려 영주의 관심을 기회삼아 신분 상승을 노렸을 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한 엘리자베스는 오늘 아침 식사에 따라나서는 알리사를 알고서도 일부러 모른 척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성정이 그리 모질지 못했다. 막상 알리사에게로 가닿은 공작의 눈을 발견한 순간, 엘리자베스는 순간의 화를 못이겨 알리사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알리사에게 모질게 굴어 그녀를 쫓아내 버렸다.

“잘한 거야.”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다. 어차피 제게서 이시르 오라버니를 빼앗아 가려고 시도한 여자이지 않나. 괘씸해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차라리 잘 된 일이다. 엘리자베스는 알리사의 그 영악한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고, 알리사는 공작에게 몹쓸 꼴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 모두에게 이득이 아닌가.

“잘했어.”

엘리자베스는 홀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그녀의 곁에 그 누구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시르 오라버니도 알리사도. 그녀의 곁에 남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줄곧 참아왔던 눈물이 또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소리 내어 울지도 못했다. 어차피 그녀의 곁에 그녀를 위로해 줄 사람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이시르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온 몸을 휘감아 도는 것을 느꼈다. 어제 그녀가 그렇게 떠나간 이후 레이첼과의 약속조차 까맣게 잊은 채 파티 장을 벗어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마주한 것은 벨로나의 얼굴이었다. 신전 내부에 놓여있는 어진 속의 벨로나와 이시르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축제 때를 제외하고 민간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이 그림은 그가 알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과는 달리 그림 속의 그녀는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지도 입매를 굳히고 있지도 않았다. 그림 속 그녀는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흰 머리가 섞여나기 시작한 금발을 우아하게 틀어 올리고 기품 있는 차림새로 녹색 눈을 빛내면서. 그가 기억하는 모습과도 사뭇 달랐으나 낮에 본 그 여자와는 더더욱 달랐다.

동백나무 아래에 숨을 죽이고 앉아 있던 벨로나는 공포에 가득 찬 그런 눈을 한 적이 없었다. 처음 본 순간에도 그녀의 몸은 생존 본능에 잔뜩 움츠러들었을지언정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후일, 약속의 증표로 푸른 검을 그녀에게 건넨 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를 마주보며 빛나던 그 눈동자는 두려움을 알지 못했다. 그것이 그와 연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 텐데도.

‘이거, 들고 가십시오.’

‘왜, 내가 내 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 돼?’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럼?’

‘제게는 행운의 부적 같은 것이어서요.’

‘그런 걸 지금 내게 주겠다고?’

당신은 그 때 무엇이 좋아 그렇게 웃으셨습니까. 이미 죽은 자에게서 대답이 들려올 턱이 없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쩐지 속이 쓰려 돌아 설 수 없었다.

완전히 죽었다고 말하기에는 그 얼굴이 너무도 닮아있지 않았나. 이시르는 그녀가 자신처럼 돌아왔음을 확신했다. 하지만 정말로 모든 기억을 잃고 돌아왔다면 그건 그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였다.

어떻게 그녀가 그것을 잃나.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그 끔찍한 마지막 기억을 가슴에 품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그녀는 어떻게 그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태평하게 살아갈 수 있나. 이시르는 그녀가 기억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자신이 있었다. 그게 설령 저를 파멸로 몰아넣는 길이라 해도.

“황태자 전하께서는 이곳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이시르는 고개를 돌렸다.

“어렸을 적, 신관인 제게 신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전하께서는 틈만 나면 이곳에 발걸음 하시는군요.”

대신관인 미켈이었다. 여왕의 책사였던 인물로 지금은 거의 80의 나이를 바라보는 그는, 아직 젊은 이시르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키와 덩치를 가지고 있었다.

리하이트로 살아왔던 시절, 딱 한 번 그를 마주한 적 있는 이시르는 미켈을 좋아하지 않았다. 벨로나는 그를 기회주의자라 칭했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무언가 득이 될 것만 던져주면 그녀를 배신하지는 않는다 말했다.

“여전히 신은 믿지 않습니다.”

이시르가 대꾸했다.

“대신관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은 없습니다.”

가느다랗게 뜨인 미켈의 잿빛 눈동자가 기묘한 빛을 담고 휘어졌다.

“승하하신 여왕폐하께서 그 말을 들으면 슬퍼하시겠습니다.”

초상화에 시선이 닿는다.

“여왕께서 왕좌에 오르시고 민심을 살피기 위해 신전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신앙의 힘으로 민심을 대동단결하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왕께서는 실제로도 신전을 통해 민심을 바로 잡는 데 성공하셨지요. 이 신전은 그런 큰 의미가 담긴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왕의 종손이자 훗날 제국의 통치자가 되실 황태자 전하께서 신을 부정하고 계시단걸 알면, 여왕께서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시르는 대답 없이 여왕의 초상을 응시했다. 민심의 안정이라,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신전의 힘이 너무 커져버렸다. 본업인 신을 모시는 것도 모자라, 행정 업무를 맡아 보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신전에 들어가는 세금이 너무 많았다.

그나마 이곳이 수도라 다들 행동을 삼가는 것뿐이지 당장 지방의 신전에 내려가 보면 그들의 횡포는 엄청났다. 암암리에 걷어지는 뒷돈들부터 탈세까지. 이시르가 황위에 오른 순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은 비리로 얼룩진 신전에 대한 것이었다.

“여왕께서는 슬퍼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벨로나 역시 제가 세운 신전이 시간이 지나며 어떤 부패의 양상을 띠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제위 마지막 해, 신전을 와해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준비는 그 해에 그녀가 자살하며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여왕폐하께서도 신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은 경고였다. 그가 황위에 오르는 날 신전이 지닌 힘을 모두 빼앗을 테니 더 이상의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 미켈은 그 속에 든 비수를 알아채지 못할 만큼 멍청한 자가 아니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전하께서는 황제 폐하나 황후 폐하와 참 닮지 않았습니다.”

뜬금없는 그의 말에 이시르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초상화에서 시선을 뗀 미켈이 이시르와 눈을 맞춰왔다. 속내를 알 수 없는 잿빛 눈동자가 느릿하게 움직였다.

“분명 어릴 적엔 황제 폐하와 황후 마마의 얼굴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눈 색을 제외하자면 황제 내외의 얼굴을 찾아보기 힘드니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시르의 입 꼬리가 어색하게 비틀렸다.

“모든 자식이 부모가 닮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생각조차 황제 폐하와 닮지 않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

“대게의 부모는 자신과 닮은 자식에게 더 애정이 가기 마련이지요. 황가에 자식이 황태자 전하뿐인 것이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하.”

잔뜩 일그러진 이시르의 표정을 살핀 미켈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늙은이의 농이었습니다. 황태자 전하께서는 어릴 적부터 괄목할만한 영특함을 지닌 분이셨으니, 황제 폐하와 다른 꿈을 꾼다 해도 잘 해내실 겁니다.”

이시르는 이를 악 물었다. 개국공신이자 대신관의 지위까지 지닌 미켈은 황제조차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 아직 황태자 신분인 그는 자중해야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켄과 소피아 할머니의 집은 언제나처럼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위태해 보였다. 그새 하이텔 공작 저의 화려함에 익숙해지기라도 한 것일까. 그녀가 지난 몇 년 간 살아왔던 이 집이 너무나 좁아 보였다.

알리사는 켄의 집에서 얼핏 보이는 길 건너의 그녀의 집을 바라보았다. 켄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된 이후 1년에 한 번 들릴까 말까 했던 집은 멀리서 보기엔 흉가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엉망이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게 아버지의 유골함을 묻기 위해 연장을 찾을 때였다. 집으로 다가간 알리사는 집 주변에 무성해진 이끼를 내려다보다가 좁은 판잣집의 뒤편으로 향했다.

18년 전 아버지가 몰래 묻은 어머니의 유골함 옆에 나란히 묻은 아버지의 유골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비석흉내를 내면 꽂아 둔 두 개의 납작한 작은 돌을 찾는 것이었다. 비바람에 모래가 씻겨 내려간 것인지 원래 묻혔던 것보다 더 많은 일부를 드러낸 돌 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에반과 줄리아. 성조차 가지지 못한 천민들이 가진 유일한 기록이었다. 이제는 흐릿해진 어머니의 이름과 그 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남은 아버지의 이름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알리사는 조그만 비석을 흙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알리사는 아무도 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곤 다시 켄의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 깜짝이야!”

들려온 목소리는 할머니 것이 아닌 아랫집 마리의 것이었다. 빨랫감이 잔뜩 든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그녀는 푸석푸석한 갈색 단발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막 잠드셨어.”

마리가 퉁명스레 말했다.

“켄은 네가 일하러 다녀서 할머니를 더 이상 못 돌보는 거라고 하던데, 난 네가 도망친 줄 알았지 뭐야.”

“아냐, 진짜로 일을...”

“됐어. 덕분에 돈도 벌고, 나한테는 네가 없는 편이 훨씬 좋으니까.”

마리가 바구니를 바닥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등받이가 없는 조그만 나무 의자에 주저앉았다. 몇 년 전 켄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고생하는 일은 아니었나봐? 얼굴이 반질반질하네.”

어딘지 날이 선 것 같은 마리의 목소리에 알리사는 괜히 옷깃을 매만졌다. 알리사의 모습을 위 아래로 훑어보는 마리는 제대로 씻지 못해 얼굴에 땟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의 알리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여자애들은 네가 홍등가에라도 갔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네 옷 꼴을 보니 그건 아닌 것 같네.”

“...”

“뭐, 그렇잖아. 우리 계집애들은 둘 중 하나지 뭐. 똑같이 가난한 남자 만나서 배곯아 죽던가, 그것도 아니면 창녀가 돼서 몸 굴리다 죽던가.”

가슴 쪽으로 손을 넣어 뭔가를 찾는가 싶던 마리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때 묻은 담배였다. 마찬가지로 가슴 쪽에서 찾아낸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인 마리가 담배 연기를 알리사 쪽으로 후 소리 나게 불어 날렸다. 알리사는 하마터면 기침을 할 뻔 했지만 꾹 참아냈다.

“너도 하나 필래?”

“괜찮아.”

“빼기는.”

가래 낀 목소리로 키득거린 마리는 손가락이 데이기 직전까지 물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대충 비벼 껐다.

“다음부턴 밖에서 펴.”

알리사가 말했다.

“할머니는 아프시고 여긴 판잣집이잖아. 불이라도 나면 큰일 나.”

“아, 잔소리 정말 싫다아.”

“장난치는 거 아냐.”

“어련하시겠어.”

고개를 하늘로 치켜든 마리가 입맛을 다셨다.

“그냥 켄이랑 살림을 차리지 그래?”

“뭐?”

“뭘 놀라고 그래?”

눈을 커다랗게 뜬 알리사를 흘깃 바라본 마리는 깔깔 웃음을 터트렸다.

“솔직히 이 거지 굴에서 그만큼 승진한 애도 없잖아? 저 아랫집 콜비나 제이크만 봐도 답이 나오는걸 뭐. 아직은 수습 기사라 해도 조만간 제대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당장 이 판자촌을 나가려 할 걸? 아마 켄이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날 첫 번째 사람이 될 거야.”

마리가 지금처럼 말을 길게 한 적은 또 처음이라 알리사는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찬 얼굴로 마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그 김에 너도 같이 얹혀가는 거지. 이 나이가 되도록 같이 살면서 별 다른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 아냐? 그렇잖아도 우리 몇 번 내기한 적 있었거든. 켄이랑 알리사가 했을까, 안 했을까?”

“켄은 내 오빠야.”

알리사는 수치스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그래도 그 앤 항상 내 오빠였어. 켄도 날 동생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글쎄, 너야 그렇겠지.”

마리가 알리사를 위 아래로 훑어보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올렸다.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예쁜 애랑 같이 사는 데 딴 마음이 안 생기는 남자가 있을까?”

“켄은...!”

“켄이라고 다른 남자애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걸? 너도 알고 있잖아? 마을 남자애들 대부분이 널 생각하면서 자기 물건을 위로하는 거.”

잠깐 말을 멈춘 마리가 아, 하고 손가락을 딱 소리 나게 튕겼다.

“그러고 보면 네가 켄이랑 살림 차릴 이유가 하나 더 있었네.”

그녀의 한쪽 입 꼬리가 기분 나쁜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갔다.

“밤에 함부로 나다니지 마, 알리사. 요즘 걔네 꽤 굶주려 있는 모양이더라. 여자가 혼자 있는 모습만 보이면 앞 뒤 생각하지 않고 우선 덤비고 본다던데.”

“뭐?”

“붉은 머리 한나도 저번에 그 녀석들한테 당하고 정신을 놓았다 하더라고. 하여튼 발정 난 미친 새끼들.”

머리 옆에 대고 손가락을 빙빙 돌린 마리가 바닥에 놓아둔 바구니를 주워들었다.

“나는 빨래하러 간다.”

“같이 가자!”

알리사는 갑자기 덜컥 밀려드는 걱정에 마리의 팔목을 붙잡았다. 의아하게 알리사를 돌아 본 마리는 알리사의 눈에 서린 두려움을 읽어내고는 킥킥 소리 내서 웃었다.

“됐네요, 이런 낮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걔네가 낮밤 따질 애들이 아니잖아.”

“너 같이 말라비틀어진 계집애가 무슨 도움이 되진 않거든?”

“그래도...”

알리사는 마리의 팔목을 놓지 못하고 자꾸만 망설였다.

“됐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너랑 달리 난 이미 처녀도 아니야.”

덤덤하게 내뱉어진 그녀의 발언에 알리사는 딱딱하게 굳은 채 마리의 두 눈을 바라보았다. 마리의 시선은 알리사의 뒤 쪽을 향해 있었다.

“그 새끼들 생각보다 더 굶주려 있더라고.”

마리는 코웃음을 쳤다.

“인간 말종 쓰레기 새끼들. 병이나 걸려서 뒈졌으면 좋겠어.”

마리의 시선이 알리사의 눈을 향해 돌아왔다. 충격어린 알리사의 시선에 두 눈이 휘어지게 미소 지은 마리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알리사는 차마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마리의 두 눈에는 알리사를 향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아마 아직 아무 짓도 당하지 않은 알리사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가 얽힌 복합적인 감정일 것이다. 빨리 켄이 돌아왔으면 했다.

한참을 울고 있던 엘리자베스가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온 것은 점심때가 지나서였다.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점심마저 거른 엘리자베스는 몸이 자꾸만 아래로 쳐지는 것을 느꼈다. 뒤따르며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으니 더더욱 그랬다.

“엘리자베스.”

하지만 공작의 부름이 들려왔을 땐 긴장으로 온 몸이 곧추서고 말았다. 아침 식사 때 보았던 알리사를 향한 그 음흉한 시선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입은 습관처럼 싫은 티를 전혀 내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었다.

“속이 좋지 않다더니.”

“지금은 괜찮아 졌어요.”

“그렇게 보인다. 다행이구나.”

혹시나 운 것을 알아차릴까 잠깐이나마 생각했던 것이 바보 같아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가 엉망이던 아니던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보다 오늘 네 전속 하녀가 일을 그만두는 것 같더구나.”

알리사의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그 애를 만난 걸까?

“네. 일처리가 능숙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직은 서투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사소한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귀족의 미덕이란다.”

불안감이 온 몸을 휩쓴다. 알리사는 이미 일을 그만두어 아버지와 더 이상 접점이 없을 것이 분명한데도.

“네가 아직 어려 그런 배려를 배우지 못한 것 같아 내가 그 아이에게 삼일 정도 휴식기를 주겠다고 말했단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애를 다시 받아주지 않겠니?”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다. 엘리자베스는 숨을 멈춘 채 공작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평소에는 인자하게 보였던 얼굴이 괴물의 형상이 되어 엘리자베스를 괴롭힌다.

“아뇨,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가 그렇다면 네 전속하녀가 아닌 다른 쪽으로라도 복귀시켜야겠구나. 이미 약조한 일을 무를 순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벗어나려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드는 늪에 발을 들인 기분이다. 엘리자베스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공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보지 않아도 뻔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 곁에 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

알리사의 얼굴을 마주하기는 제게도 고충이었지만 그래도 알리사가 그런 몹쓸 꼴을 당하는 것 보단 제가 희생하는 편이 나았다. 아니, 아니다. 만약 알리사가 신분 상승을 노려 공작과의 일을 치루는 쪽을 원하면 어떻게 하지? 이시르 오라버니에게 접근한 것만 봐도 그런 쪽으로의 의심도 지울 순 없었다. 그래도...

“그냥 다시 제 전속 하녀로 삼을게요.”

엘리자베스는 생각하기를 멈추었다.

“잘못 한 것은 용서할 수 있겠죠.”

엘리자베스는 자신 없게 말을 흐렸다. 하지만 공작은 엘리자베스의 의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알리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착하구나.”

커다란 손이 머리를 쓰다듬고 사라졌다.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스쳐지나가는 공작에게 인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양 팔로 몸을 감싸 안았다. 옷 속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고 있는 것만 같은 이 감각은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멍하니 멈춰서 있는 엘리자베스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다. 하이텔 공작 저에서 일하고 있는 이름 모를 하녀였다.

“저, 아가씨. 시트리안 공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저택의 하녀 하나에게 차를 내오라고 부탁한 엘리자베스는 테오와 마주앉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손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녀가 차를 가지고 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하녀가 나갈 때 까지도 눈을 마주치고 않는 엘리자베스에 테오는 어색한 미소를 지어야만 했다. 그는 제 친우의 이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 어. 알리사는?”

분위기를 깨볼까 싶어 제가 소개해준 하녀의 이름을 입에 올린 테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일함을 탓해야만 했다. 그 이름이 나오기 사나운 표정으로 테오를 노려보기 시작한 엘리자베스가 근처에 있던 쿠션을 테오에게로 던진 것이다.

“전부 너 때문이야, 이 나쁜 놈아!”

엘리자베스는 얼굴을 붉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만히 생각해보자니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테오였다. 테오가 알리사를 제 하녀로 소개시켜 주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알리사가 이시르 오라버니를 빼앗아 갈 일도, 제가 또다시 상실감을 겪을 일도. 그리고 싫어해야만 하는 대상을 걱정하느라 제 한 몸 희생하게 될 일도.

“너 진짜 싫어.”

테오를 노려보며 울먹거리던 엘리자베스가 얼굴을 감싸 쥐고 울음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전부 날 떠나는 거지? 너도 결국엔 날 떠날 거지? 그렇지?”

“아냐, 엘리자베스 난...”

“넌 내가 아니라 이시르 오라버니 편이잖아. 오라버니가 날 떠나겠다고 하면 너도 날 떠날 거지?”

급기야 목 놓아 울기 시작하는 엘리자베스를 멍한 얼굴로 바라보던 테오는 당혹감에 멍한 표정을 지었다.

“울지 마, 울지 마.”

엘리자베스의 옆으로 다가간 테오는 엘리자베스를 달래기 시작했다. 테오가 오늘 엘리자베스를 찾은 것은 어제 파티장을 빠져나가는 이시르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던 탓이었다. 괜히 입방정을 떨었다가 왕창 깨질 것 같은 느낌이라 엘리자베스는 사정을 알까 싶어 엘리자베스를 찾아 온 것인데 그녀의 상태는 이시르보다 참혹했다. 황태자 전하가 엘리자베스를 떠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고 말이다.

“내가 널 왜 떠나겠어.”

그럼에도 엘리자베스의 울음을 멈출 줄을 몰랐다. 테오는 당황한 채 눈을 굴렸다.

“난 네 편이야, 황태자 전하 편이 아니라.”

“웃기지 마. 기회만 되면 날 놀리는 게 누군데!”

“야, 그건 다 애정표현이지.”

테오는 그간의 제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엘리자베스를 달래는 것에 박차를 가했다.

“어, 같이 황태자 전하 욕해줄까?”

테오가 어색하게 입 꼬리를 말아 올렸다.

“원한다면 개새끼라고 불러줄 수도 있어.”

“오라버니 욕하지 마.”

아, 그럼 어쩌라고.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는 엘리자베스의 곁에서 테오는 막막함에 발을 굴렸다. 잔뜩 붉어져 핏발 선 눈을 손바닥으로 비비는 엘리자베스의 뺨 위로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 내렸다.

“엘리자베스.”

테오가 엘리자베스를 다독였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 봐. 누가 뭐래도 난 네 편이고, 황태자 전하께서 유일하게 각별히 여기는 혈족이 너인데 황태자 전하께서 널 떠날 리가 없잖아. 뭐, 네 언니가 또 네게 안 좋은 말을 하기 라도 한 거야?”

“레이첼 언니는 상관없어.”

코를 훌쩍인 엘리자베스가 양 다리를 소파 위로 끌어올리고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어 고개 숙였다. 테오는 엘리자베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겁을 집어삼키고 눈을 질근 감았다. 만약 테오마저 그녀를 떠나버린다면 이젠 진짜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테오는 그녀의 편이라 했다.

“이시르 오라버니가...”

엘리자베스는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바로 어제 본 그 장면이 또다시 머릿속에서 되풀이 되고 있었다. 바람에 나부끼던 금색 머리카락, 제 얼굴이 뜨거워지게 만들 정도로 농밀하게 맞닿아 있던 입술들.

“알리사랑.”

테오의 눈을 마주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 두 사람이 키스하고 있었어.”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오라버니가, 윽, 내 하녀랑...”

엘리자베스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렸다. 엘리자베스를 향한 갈색의 눈동자에는 놀라움이 번져 있었다.

“입술을 맞추고 있었...”

엘리자베스는 문득 말을 흐렸다. 입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무섭게 제 입술로 향하는 갈색 눈동자를 본 탓이다. 테오의 눈동자는 빠르게 원 위치를 되찾았으나 두 쌍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마주한 순간 어쩐지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당혹감을 안고 주변을 부유하던 갈색의 눈동자가 엘리자베스의 얼굴에서 떨어져 빈 허공으로 향했다.

“그게 정말이야?”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에 괜히 헛기침을 하는 테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감정이 향한 상대가 이시르임이 자명했기에 엘리자베스는 기쁨과 민망함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다. 테오라면 당연히 이시르의 편을 들 줄 알았다.

“황태자 전하가 그랬단 말이지.”

테오는 말끝을 흐리며 눈살을 찌푸렸다. 엘리자베스의 말에는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두 사람이 입술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건...

“네 앞에서 그걸 보였다고?”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짧게 끄덕인 순간 테오의 분노가 가중되었다. 황태자 전하가 엘리자베스의 앞에서 엘리자베스의 하녀와 키스하는 모습을 보였다니, 그가 제 직위를 망각했음은 물론이고 그런 장면은 엘리자베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상대가 일개 귀족 영애가 아닌 엘리자베스의 하녀라면 더더욱.

일단 황태자 전하와 이야기를 해 보겠다며 하이텔 공작가를 벗어난 테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궁궐에 있는 황태자의 집무실이었다. 황태자 전하께서 집무 중일 때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다며 그를 막아서는 시종들을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온 테오는 들어가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시르의 집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가 기함했다.

집무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서류들이며 바닥에 떨어져 잔뜩 깨져있는 장식물들이 그를 반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가운데는 검 집을 빼지 않은 긴 장검을 들고 선 이시르가 있었다. 그러게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하고 시종이 앓는 소리를 냈지만 테오는 그것에 신경 쓸 여념이 없었다.

그는 그의 뒤에 바싹 따라붙은 시종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는 부러 문을 쾅 소리 나게 닫았다. 그에게 등지고 서 있던 이시르의 고개가 반쯤 돌아 테오에게로 향했다. 녹색의 눈동자에 전에 보지 못한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뭐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비번이라 들었는데.”

물음에 대한 답 대신 의도를 알 수 없는 말 한마디가 돌아왔다. 침을 꿀꺽 삼킨 테오는 천천히 집무실 중앙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문 앞에서 보는 것 보다 들어가서 보는 방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었다. 발아래에서 뭔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슬쩍 고개를 내려 살펴보니 깨어진 화분의 파편인 듯 했다. 테오는 이시르의 검이 충분히 닿을 만한 위치에 서서 이시르를 바라보았다.

“상황이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몸을 완전히 돌려 테오를 바라보는 이시르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테오는 긴장으로 바짝 얼어붙은 입술을 간신히 떼어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엘리자베스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겁니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지 않았다.

“엘리자베스의 앞에서 알리사, 그러니까 그 애의 하녀랑 연인 사이에나 할 만한 짓을 보이셨다고요.”

알리사의 이름이 나온 순간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테오는 그런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의아함을 느꼈다. 알리사와 이시르는 원래 서로 알던 사이가 전혀 아니었다. 테오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시르와 알리사는 어제 그 파티에서가 첫 만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입술을 맞추고 있었다? 아귀가 맞지 않았다.

“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그 여자가 멋대로 전하의 옥체에 접촉한 겁니까? 전하께서 물건을 때려 부수고 계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 거고요. ...예, 그럴 리가 없겠죠. 실언했습니다.”

눈빛으로도 사람 하나를 죽일 기세라 테오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럽니다. 전하께서 먼저 입술을 맞추신 거라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하께서는 지금껏 알리사와 이렇다 할 접촉이 없었을 텐데요.”

“...”

“게다가, 전하께서 집무실을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게 어제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반쯤은 도발적으로 내뱉은 테오의 마지막 말에 이시르의 한쪽 눈썹이 소리 없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의 녹색 눈동자가 제 손에 들린 장검으로 향했다. 테오는 어쩐지 숨 막히는 기분에 입을 꾹 다문 채 이시르를 바라보고 있었다. 긴장을 한 탓일까, 이시르의 손에 들린 장검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추락한 순간 테오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쩐 일인지 이시르는 순순히 테오의 말을 시인했다. 이시르는 피곤한 기색으로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렸다.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서류더미를 쳐내고 소파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주제넘다, 시트리안 경.”

단호하게 한 마디를 뱉어낸 이시르는 소파 위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엘리자베스는, 많이 상처받았나?”

“알긴 아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아까보다 한 층 더 주제넘어진 그의 발언에도 이시르는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다.

“그 하녀는?”

“엘리자베스에게 듣자하니 며칠 정도 일을 쉬는 모양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원래 내쫓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하이텔 공작 전하께서 극구 만류하셨다더군요.”

“숙부께서?”

“예에.”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하고 실없는 질문을 던졌던 테오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감지하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척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아직 단 하나의 의문점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대답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는다. 테오는 반쯤 포기한 채 그의 대답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시르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테오와 이시르는 여전히 미동도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이시르의 입술이 열렸다.

“나는 그녀를 내 비로 삼을 생각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시르의 대꾸에 테오는 입을 쩍 벌렸다.

“미치셨습니까?”

예의범절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수년 동안 이시르를 봐왔지만 지금처럼 이시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오히려 이시르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던 때가 그의 마음을 읽기 더 수월했던 것 같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테오의 혼란 섞인 질문에도 이시르는 지그시 두 눈을 감을 뿐, 별 다른 기색은 내비치지 않았다. 테오는 알지 못했지만 이시르도 오랜 시간 고심한 끝에 결정한 문제였다. 벨로나를, 그녀를 곁에 두는 것은 그에게도 고역이었다. 그녀는 그를 배신한 사람이었다. 정작 당사자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시르는 그녀를 놓을 수 없었다.

“전하!”

“내가 바래왔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다.”

명분은 충분했다. 이시르가 황위에 오른 후 해야 하는 일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부패한 신전을 뿌리 채 뽑아내는 것. 두 번째는 신전과 황실에 몰린 권력을 나누어 백성들에게 더 많은 권위를 심어주는 것. 그것은 과거의 리하이트가 바랬던 일이며 동시에 그와 함께했던 반란군이 소망했던 것이었다.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황태자라는 지위를 차지하게 된 이상, 이시르는 그 점을 철저히 이용할 생각이었다.

“테오, 너는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꺼이 합류 하겠다 약속했고, 이건 그 일의 일환일 뿐이다. 백성들에게 권력을 고루 나눠주기 위해선 그들이 권력을 가질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걸 먼저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지. 천민 출신의 여자가 황태자비가 된다면 모든 백성들의 권위를 높이는 것에 누구도 반발하지 못하게 된다.”

“억지입니다.”

테오가 이를 악 물고 대꾸했다.

“제가 보기엔 황태자 전하께서는 그것을 핑계로 알리사를, 그 여자를 전하의 곁에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시르는 입을 다물었다.

“게다가 왜 하필 엘리자베스의 하녀입니까. 저는 그 점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게다가 알리사의 의견은요. 이건 황태자 전하께서 독단으로 행동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그녀의 의견은 중하지 않았다. 벨로나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그를 배반하고 홀로 끔찍한 과거를 잊은 순간부터 그녀는 싫다 말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신전의 의심을 피해도 부족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황태자 전하께서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건 신전에서도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하께서 황위에 오르시는 순간 신전을 와해시킬 것임을 어느 정도 눈치 채고 경계하는 자들도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 와중에 천출을 비로 내세우시겠다고요? 이건 명백히 자살행위입니다. 전하를 끌어내릴 기회만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자들이 그걸 핑계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

“신전의 권력이 이미 너무 많이 커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틈을 내보인다면 신전의 권력을 더 심어주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는커녕, 손해만 극심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

순순히 인정하는 이시르에 테오는 홀로 안도했다. 적어도 이시르에게는 아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냉철함이 남아있는 듯 했다.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천출을 전하의 비로 들인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건 전하께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

“그 말에도 틀린 건 없군.”

조용히 대꾸한 이시르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분명히 테오의 말에는 잘못 된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면 모든 게 너무 많이 늦어져 있을 것이다. 아직 정정한 현 황제의 건강을 생각하자면 황제의 옥체에 별 다른 변고가 생기지 않는 한 이시르가 황위를 물려받는 건 몇 십 년 후에나 가능한 일일 듯 했다. 그 때면 벨로나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불현 듯 이시르의 턱에 힘이 들어갔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는 벨로나의 얼굴을 그리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온 몸에 휘몰아쳤다. 그를 이런 식으로 망가트려놓은 벨로나에게는 감히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예?”

“엘리자베스의 하녀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지금은 집으로 돌아갔고 삼일 뒤에나 돌아온다고...”

무심코 대꾸하던 테오는 기시감을 느끼고 말끝을 흐렸다. 이시르는 알리사를 자꾸만 하녀라 지칭하고 있었다. 제 비로 삼겠다고 말한 여자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는 이시르의 행동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를 만나러 가야겠다.”

이시르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를 만나서 그 애의 오해를 풀어주는 편이 낫겠군. 엘리자베스가 그 하녀를 많이 아낀 것 같던데 엘리자베스의 유일한 말동무 상대를 쫓을 수는 없지.”

“예.”

어련하시겠습니까. 테오는 뒷말을 간신히 삼켜냈다.

소피아의 곁에 앉아 잠이 든 그녀의 팔과 다리를 마사지하던 알리사의 손길이 문득 멎었다. 뒤쪽에 놓인 낡은 시계로 돌아간 눈동자가 걱정스러움을 가득 머금고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다. 마리가 너무 늦다. 빨래를 하는 계곡은 가는 길이 험해서 그렇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빨랫감이 그리 많지도 않았으니 돌아오려면 진작 돌아왔어야 했다.

요즘 걔네 꽤 굶주려 있는 모양이더라. 여자가 혼자 있는 모습만 보이면 앞 뒤 생각하지 않고 우선 덤비고 본다던데.

겁을 주듯 말했던 마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불길한 느낌이 든다. 알리사는 내키지 않는 걸음을 옮겨 좁은 집을 나섰다. 때 마침 한손 안에 들어올 크기의 모난 돌이 바닥에서 나뒹굴고 있는 게 보였다. 알리사는 주저 않고 그것을 집어 들었다.

하늘이 붉게 변한 걸 보니 조만간 해가 질 모양이었다. 알리사는 계곡 쪽으로 떨어지지 않은 걸음을 걸어 나갔다. 하지만 그 마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계곡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문득 멈춰선 알리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기분 나쁠 정도로 낮게 울리는 웃음소리들은 알리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을 때, 소리들은 이미 그녀의 가까이로 와 있었다. 나무 사이사이로 잔뜩 불량해 보이는 표정을 지은 소년들의 머리통이 보였다. 재빨리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뛰어들려고 한 알리사는 소년들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갈색 단발머리의 소녀를 발견하고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입고 있는 옷가지의 한쪽 어깨는 가슴 반절이 보일 정도로 내려가 있었고 치마의 천은 흉측할 정도로 갈가리 찢겨 옷으로의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마저도 물에 흠뻑 젖어 몸에 바싹 달라붙어 몸매를 완연히 내보이게 만들었다. 더구나 청년들에게 붙잡혀 산발이 되어 있는 머리채부터 잔뜩 부어 핏물이 번져있는 입술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었다.

“마리!”

알리사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도 차마 마리에게 다가서지 못했다. 알리사의 지척까지 다가온 청년들이 양 옆으로 갈라서 마리를 붙잡고 있는 다른 두 청년이 지나갈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청년들은 마리를 던지다시피 알리사의 곁으로 밀쳐냈다.

“하여튼 계집애가 더럽게 힘만 쎄서는.”

퉤 마리의 얼굴로 침을 뱉는 청년의 얼굴 위로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부들부들 떨리는 마리의 몸을 붙잡은 알리사는 눈을 치켜뜨고 청년을 얼굴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이 쓰레기 새끼들.”

“우리도 알아.”

청년은 입가 가득 느긋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알리사는 제 턱으로 뻗어지는 청년의 손을 탁 소리 나게 쳐 냈다.

“나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했다간 켄이 가만있지 않을 거야.”

“그러라지 뭐. 어차피 그 땐 이미 늦었을 건데.”

청년이 나지막하게 키득거리며 알리사의 턱을 으스러져라 부여잡았다.

“히야, 이 계집애는 어떻게 날이 갈수록 예뻐지지? 켄은 이런 좋은 걸 우리한테 공유도 하지 않고 말이야.”

명백한 조롱조로 이어지는 청년의 말에 나머지 청년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트려댔다. 알리사는 등 뒤의 판잣집에 잠들어 있는 소피아 할머니가 이 소리를 듣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다.

“우릴 너무 원망하지 마, 알리사.”

청년이 그녀의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며 말했다.

“네가 돌아왔단 걸 우리한테 고자질한 건 마리니까.”

“뭐?”

“마리는 너도 우리한테 당했으면 좋겠대. 자기가 당한 것처럼.”

일제히 높아지는 낄낄거림을 무시한 알리사는 돌아가지 않는 고개를 억지로 돌려 마리를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 숙이고 있던 마리의 머리가 천천히 들렸다. 빗자루 같은 갈색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에는 일말의 죄책감 하나 보이지 않았다.

“너 혼자 고귀한 척 하지 마.”

마리가 가래 껴 걸걸한 목소리로 읊조렸다.

“이 시궁창 속에서 너 혼자 깨끗한 척 하지 말란 말이야...”

음험하기 그지없는 그녀의 마지막 말에 알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혼란 속에 정지해버린 사고 속에 그녀의 앞으로 다가오는 검은 손길들이 보였다. 다급하게 고개 돌린 알리사는 제 얼굴 가까이 다가온 청년의 얼굴에 경기를 일으키며 침을 뱉었다. 청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이 미친년이!”

짝 마찰음과 함께 뺨이 돌아가며 몸뚱이가 비틀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틈은 없었다. 어릴 때와 달리 켄은 그녀를 구하러 달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와 달리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일은 단순한 어린아이들의 조롱 따위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녀 스스로가 그녀를 구해야만 했다. 알리사는 손에 든 돌로 청년의 머리를 냅다 후려쳤다. 경기하는가 싶던 청년이 입에 개 거품을 물며 뒤로 나자빠졌다.

“꺄아아아악!”

알리사는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산 아래로 냅다 달려가기 시작했다.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잠금장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집은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했다. 설마 그 자식 죽은 건 아니겠지? 죽어도 싸지만 설마 죽지는 않았을 거야.

알리사는 그녀의 뒤로 따라붙는 청년들의 기척을 느끼고 달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 했지만 어디서 그런 초인적이 힘이 나왔나 싶게 그녀는 그들에게 잡히지 않고 잘도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한참을 그렇게 달리고 달리던 알리사는 튀어나온 무언가에 걸려 나자빠지고 말았다. 가속에 의해 허공으로 튕겨 올라간 몸은 가파른 내리막길로 떨어져 데굴데굴 구르기 시작했고 알리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팔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구르는 내내 이곳저곳에 부딪히고 긁힌 온 몸이 욱씬거리며 아파왔지만 멈출 틈이 없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알리사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산의 나머지를 내려 시가지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갔다. 거기서부터는 안심이었다.

알리사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발 닿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를 쫓아오다가 입맛만 다시고 돌아갈 청년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린 물줄기가 흙으로 엉망이 된 얼굴 위에 하얀 선을 그려냈다. 여기저기에 스친 상처가 쓰라렸다. 알리사는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예상치 못하고 벌어진 일들 때문인지 눈앞이 희뿌옇게 변했다가 선명해지기를 반복했다. 공작 저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었고 집으로 다시 갈 수도 없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켄을 만나야만 했는데 판자촌으로 향하는 입구에서 켄을 기다릴 자신이 없었다. 분명 그곳에는 알리사가 오기만을 벼르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터였다.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아!”

갑작스레 팔로 밀려드는 통증에 알리사는 나직한 신음을 흘리며 제자리에 멈춰 섰다. 누군가에게 붙들린 팔이 파르르 떨렸다. 그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장악한 순간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아까의 추격전에 그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산을 구르면서도 손에서 끝까지 놓지 못했던 돌멩이가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알리사는 돌아가지 않는 고개를 억지로 돌려 제 팔을 붙잡은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청년들이 아니었다.

“아...”

낯설지만 동시에 낯익은 상대였다. 깊숙이 눌려 쓴 검은 로브 아래에서 홀로 빛나는 녹색 눈동자가 익숙했다. 분노를 담고 빛나고 있는 눈동자임에도 어째서인지 안도감이 밀려왔다. 억눌려진 눈물이 또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동시에 알리사는 다리에서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켄을...”

켄을 불러주세요. 미처 끝맺지 못한 말과 함께 세상이 암전 되었다.

“켄?”

낯선 이름자를 내뱉고는 무너져 버린 알리사의 몸을 단단히 붙들어 잡은 이시르의 눈동자가 의문을 담고 아래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서 흘러 바닥으로 떨어진 돌에 엉겨 붙은 핏자국을 확인한 이시르의 한쪽 눈썹이 불쾌함을 가득 담고 휘어졌다.

흙과 생채기로 엉망이 된 얼굴과 여기저기 찢겨 너덜너덜해진 옷가지며 산발이 되어있는 머리카락. 눈에 띄게 부어 있는 한쪽 뺨과 절뚝거리던 다리. 돌멩이가 들려있던 한쪽 손은 돌멩이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찍힌 탓인지 엉망이 되어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그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에게서 급히 도망쳐 나온 것 같은 모양새이지 않은가.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사라진 이시르를 뒤늦게 알아채고 헐레벌떡 달려온 테오가 그의 뒤에서 외쳤다. 이시르는 대답 없이 고개를 까닥했다. 이시르의 품에 안긴 여인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그에게로 다가온 테오는 알리사의 얼굴을 알아보곤 기함했다.

“설마 전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건! 예, 그럴 리가 없죠.”

괜히 입방정을 떨었다가 매서운 눈빛만 되받은 테오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나저나 얘는 몰골이 왜...”

엉망이 된 그녀의 모습에 미처 말을 잇지 못하는 테오에게서 시선을 돌린 이시르는 알리사를 바로 고쳐 안았다. 그제야 제 안일함을 깨달은 테오가 황급히 그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제가 안겠습니다.”

“됐다.”

하지만 이시르는 테오의 손길을 거절하고는 한쪽 팔을 알리사의 무릎 아래로 끼워 넣어 옮기기 쉬운 자세로 들어올렸다. 겉보기에도 말라보였지만 막상 들어 올려보니 얼마나 말랐는지 새삼 실감이 났다. 벨로나일적의 그녀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다.

혹여나 발견하지 못한 상처가 없는지 그녀를 찬찬히 내려다보던 중 머릿속이 차갑게 내려앉고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저를 배신하고 여왕의 자리에 올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가. 그녀에게 화가 났다. 그리고 그녀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상대에게 분노가 들끓었다.

그녀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 누구보다 고귀한 위치에 있던 그녀가 한없이 추락해 받는 취급은 전생의 그가 받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할 지도 모른다. 시궁창 속에 태어나 지옥에서 살아갔던 리하이트는 남자가 받는 취급보다 여자가 받는 취급이 더 험악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미묘한 음성의 물음에 이시르는 고개를 반절쯤 돌렸다가 정면을 응시했다. 테오의 목소리에 담긴 껄끄러움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 않았다.

“일단 의원에게 보여야지.”

“그런 다음엔요?”

“혹시 켄이라는 자를 아나?”

점점 더 심도 깊이 파고드는 테오의 물음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 책으로 기대 없이 던진 물음이었다. 그러나 테오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꺼내왔다.

“켄이 한 둘 입니까? 당장 제 아래에 있는 수습기사 중에도 그 이름이 있는데요.”

이시르의 시선이 테오에게로 도로 돌아갔다.

“남자?”

“예, 그럼 기사가 남자지 여잡니까?”

투덜거림이 섞인 말투다. 이시르는 고개를 바로 했다. 테오는 한 둘이냐고 말했지만 사실 켄이라는 이름은 흔한 게 아니었다. 이번 생애에서의 그녀의 혈육은 아닐까, 추측도 해보지만 추측은 그저 추측일 뿐이다. 이유모를 불쾌함이 또다시 온 몸을 휩싸고 돈다. 기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한 남자가 떠오른 탓이었다.

그녀의 최측근 중 한사람이었던 금발머리에 갈색 눈을 지닌 기사. 기사라는 직위에 맞지 않게 곱상했던 얼굴과 한눈에 보기에도 귀하게 자란 태가 났던 그 남자를 리하이트는 좋아하지 않았다. 정확히는 좋아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리하이트는 벨로나를 향한 그 남자의 눈빛을 항상 불쾌하게 여겼었다.

“그 기사를 불러라.”

명을 덧붙이며 돌아본 테오의 눈동자는 짙은 갈색 빛을 띠고 있었다. 이시르는 부러 그 눈을 피했다.

“예?”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앞 뒤 설명은 하지 않고 내려진 명령에 멀뚱히 서서 눈동자만 굴리던 테오의 표정이 당혹스럽게 변했다.

“어, 어디로 부르면 됩니까?”

“여기서 제일 가까운 의원이 어디에 있지?”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음, 일단 저쪽 방향으로 가시면 여관이 하나 있으니 그곳으로 가 계십시오. 의원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으로 제 말을 마친 테오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시르는 테오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축 늘어진 알리사의 몸이 그의 품 안에서 흔들렸다.

바닥을 향해 길게 늘어트려진 백금색 머리카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이시르의 시선이 점점 아래로 떨어졌다. 입가로 나지막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폭발할 거라 생각했던 분노는 예상 밖에도 수면 아래 고요한 상태로 놓여있었다.

여관 주인은 검은 로브를 눌러쓴 그와 만신창이가 되어 기절한 알리사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시르가 금화를 하나 쥐어준 순간 태도가 돌변해 그들을 방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이시르는 허름한 방의 정 중앙에 놓인 침대 위로 알리사의 몸을 누이고 근처에 놓인 조그마한 의자 위로 엉덩이를 붙여 앉았다.

불투명한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침대에 채 닿지 못하고 마루 위로 떨어졌다. 그늘 속에 앉은 이시르는 알리사의 쪽으로 시선 한 번 돌리지 않고 느리게 눈을 감았다. 느린 박자로 이어지는 알리사의 숨소리는 고요에 잠긴 방에서 들려오는 유일한 소리였다. 이시르는 눈을 뜨고 침대 위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다.

순간, 말로 형용하지 못한 괴리감이 몰려들었다. 이시르의 주먹이 소리 없이 쥐어졌다. 그 가운데 다시 미약한 숨소리가 이어진다. 이시르는 주먹에 가했던 힘을 풀어냈다.

“벨로나.”

그녀는 듣지 못할 부름이었다.

“당신을 증오합니다.”

나는.

“당신을 증오해야 합니다.”

이시르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지금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고 설령 들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그와 반란군에 대한 모든 기억을 죄다 잊어버렸다. 60년 전 적벽성에서 일어난 참극을 그녀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워 그녀의 이마 위에 입술을 맞추었다. 그리고 눈꺼풀에, 콧잔등에, 뺨을 넘어 입술 위로. 미약하나마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입술을 떼어낸 순간 그는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음을 알았다. 문질러 닦아낸 눈물을 속으로 집어삼킨 그는 알리사의 한쪽 손을 들어 올려 그 위로 키스했다. 60년 전 그녀는 공주로, 그는 반란군의 군주로 존재했던 그 때처럼.

이시르는 그녀를 곁에 두어야만 했다.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분노를 토해내고 그녀를 증오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가 필요했다. 그녀가 과거를 잊었다 해서 그가 증오할 상대를 잃어서는 안됐다. 적어도 그녀를 곁에 둔다면 마음 놓고 미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를 곁에 둘 수만 있다면...

노크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와라.”

이시르는 문 쪽으로 시선을 두지 않고 말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시르 님, 의원이랑 수습기사 켄을 데려왔습...”

“알리사!”

테오의 말은 요란스럽게 울려퍼진 외침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았다. 낯설지 않은 이름자에 고개를 돌리던 이시르는 투우장의 소 마냥 침대로 달려드는 옅은 갈색머리의 기사를 하나 발견했다. 기사치고는 부족한 덩치와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그 청년이 켄이라는 남자임을 짐작하기에는 어렵지 않았다.

“알리사, 알리사가 왜...!”

먼저 방안에 있던 이시르에게 덤벼들 기세로 소리 지르던 청년의 기세가 눈이 마주친 순간 한풀 잦아들었다. 청년의 한쪽 입 꼬리가 부르르 떨려왔다.

“시트리안 공자님.”

켄은 질문 상대를 바꾸어 테오를 바라보았다.

“알리사가 왜 이곳에 있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동행 한 의원은 온 방안을 가득 메운 흉흉한 기색에 주춤 거리다가 환자로 추정되는 여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테오의 부름에 의해 이곳까지 달려온 의원은 이렇게 높은 분들을 앞에 둔 것도 처음이었거니와 환자를 앞에 두고 이런 살기를 내뿜는 이들도 처음이었다.

“알리사가 왜 저런 꼴이 되어있는 겁니까.”

질문 같지 않게 이어진 두 번째 질문에는 힘이 잔뜩 실려 있었다. 테오는 이시르에게 도움의 눈길을 보냈지만 이시르의 시선은 테오가 아닌 켄을 향해 있었다. 테오는 켄을 향한 이시르의 거슬림을 읽어내고는 학을 뗐다.

“저, 이시르 님.”

테오는 결국 이시르를 불러 그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켄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심이...”

잔뜩 가라앉아있는 켄의 옅은 갈색눈동자가 이시르에게로 돌아갔다. 대답을 종용하는 그 시선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던 이시르의 시선이 알리사에게로 향했다.

“처음 볼 때부터 만신창이가 돼 있었다.”

그리고 다시 켄에게로.

“기절하기 전에 경의 이름을 불러서 경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고.”

“처음부터, 저 꼴이 돼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잔뜩 가라앉은 켄의 목소리에 테오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확실히 누가 들어도 믿지 않을 만한 이야기였다. 켄 역시 이시르의 말을 부정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혹시.”

하지만 잠깐 동안 고민하는가 싶던 켄은 설마 하는 표정으로 알리사를 돌아볼 뿐이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켄은 이시르의 말을 믿는 눈치였다.

“그 녀석들이 또!”

“켄...?”

켄이 판자촌의 불량한 청년들을 떠올리고 기함한 순간, 침대에서 끊어질 듯 미약한 부름이 들려왔다. 상처에 약이 발라지는 고통 속에 깨어난 알리사가 켄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알리사!”

켄은 화들짝 놀라 침대 위로 다가갔다. 걱정스러움이 가득 담긴 켄의 얼굴을 발견한 알리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더니 한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다.

“켄!”

고통도 잊고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운 알리사가 켄의 목덜미를 끌어안아 그에게로 매달렸다. 파도처럼 밀려들어온 안도감에 의도치 않은 울음소리가 입 밖으로 자꾸만 터져 나왔다.

“괜찮아, 알리사. 괜찮아.”

켄은 익숙한 손길을 내뻗어 알리사의 등을 토닥여주었고 알리사는 오래도록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켄, 켄. 그 녀석들이, 그 나쁜 새끼들이... 흐어어어엉!”

이어지던 고자질은 울음소리에 파묻혀 끝을 맺지 못했다.

“나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서...”

“걱정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새끼들 다 죽일 거야. 내가 그 자식들 전부 죽여줄게. 울지 마, 울지 마 알리사.”

끝없이 이어지는 흐느낌과 다독임에 알리사를 치료하고 있던 의원의 손이 어쩔 줄 모르고 허공에서 맴돌았다. 마찬가지로 어쩐지 보고 있기 머쓱한 기분이 들어 그들에게서 눈을 떼고 이시르에게 눈을 돌렸던 테오는 잠시 멈칫하고 말았다.

이시르의 시선은 알리사인지 켄인지 모를 상대에게 박혀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차갑게 내려앉은 이시르의 시선에 테오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어딘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가슴 한 구석에 싸하게 퍼져나갔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던 알리사의 울음이 마침내 멈추었을 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차츰 잦아든 등의 떨림이 완전히 멈추고 켄의 품에서 몸을 일으켜 세운 알리사가 코를 한 번 훌쩍 하고 엉망이 된 얼굴을 옷깃으로 닦아냈다.

제법 거센 마찰 탓에 쓸린 상처가 남은 뺨이 갑자기 후끈 거려와 나지막한 신음을 흘린 알리사가 고개를 절반쯤 돌렸다. 그녀가 기절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켄이 아닌 다른 이였다는 걸 떠올린 탓이다.

먼저 보인 얼굴은 테오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아니었다. 제 팔목을 붙잡은 남자는 녹색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조금 더 고개를 돌렸을 때야 보인 황태자의 것과 같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읽어내기 힘든 그 눈을 마주하기 무섭게 알리사는 흠칫 놀라 켄의 옷깃을 꽉 부여잡았다. 그녀는 아직도 저를 붙잡고 대답을 종용하던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거칠게 다가왔던 입맞춤도, 그녀에게 퍼부어졌던 분노어린 폭언도.

“일단 치료부터 받자, 알리사.”

알리사의 몸이 미세하게 떨려오고 있다는 걸 깨달은 켄이 그녀를 도로 침대 위로 눕히며 말했다. 무얼 해야 할지 몰라 허공만 바라보고 있던 의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알리사는 부러 이시르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아무 것도 없는 천장만 올려다보았다. 상처 위로 덧발라지는 약물이 화끈 거렸으나 이를 악 물고 참아냈다.

그런 알리사를 안타까운 눈으로 돌아보던 켄은 알리사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음을 깨닫고 이시르에게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이시르와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그런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시르의 시선이 알리사를 향해 고정된 채 꼼짝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켄은 그 점이 탐탁지 않아 양 입 꼬리를 굳혔다. 시트리안 공자가 존대를 하는 걸로 봐선 높은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왜 알리사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지 켄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다.

치료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찰과상과 타박상이 대부분이니 신체적으로 과격한 일만 하지 않으면 될 듯합니다. 약을 두고 가겠으니 환부를 깨끗하게 하고 하루에 두 번씩 바르도록 하세요.”

알리사를 치료한 의원은 알리사에게 약을 꼭 바르라며 누차 반복했다. 환부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상처부위가 감염될 수 있다는 말로 알리사를 겁줬지만 알리사는 그저 웃는 수밖에 없었다. 판자촌에는 몸을 씻을 만한 마땅한 곳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치료비와 약값으로 테오가 내민 금화를 받은 의원은 황망해하며 여관을 빠져나갔다. 의원이 여관방에서 사라진 뒤 어색한 정적이 그들 사이로 내려앉았다. 알리사는 여전히 이시르에게 눈을 돌리지 않은 채로 켄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숙였다.

“여기까지 옮겨주셔서 감사드려요, 황태자 전하.”

황태자라는 말에 알리사의 곁에 있던 켄의 눈이 괜히 커다랗게 뜨였다. 설마하니 황태자일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켄도 늦게 서야 그의 앞에 고개를 숙였다. 알리사는 머뭇머뭇 허리를 들어 올리고 바닥을 응시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시르는 그녀에게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알리사를 공포에 질리게 했던 첫 만남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다. 알리사는 그제야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 여겼던 황태자의 착각이 풀린 것이라 생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시르를 향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에 알리사는 이시르의 쪽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쓰며 테오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정말 감사드려요, 시트리안 공자님.”

“아니, 뭐. 난 한 것도 없는데...”

갑작스러운 그녀의 감사인사에 테오는 미묘하게 말끝을 흐렸다. 비록 불발시키긴 했지만 이시르가 알리사를 비로 삼겠다 말한 전적이 있었기에 둘 사이에 모종의 무언가 있으리라 추측했지만 지금 알리사가 보이는 반응은 그런 생각을 하기엔 너무나 이상했다.

게다가 이시르의 눈빛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온 여인에게 보이기엔 지나치게 차갑기만 했다. 그건 결코 혼인까지 생각한 여자에게 보일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

“오늘 쓰신 돈은 꼭 갚을게요. 일자리도 구해다주셨는데 공자님께는 늘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아냐, 죄송할 것 까진 없고.”

이시르에게 힐끗 시선을 돌린 테오는 곧 켄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켄은 시종일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알리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보다 놀랍긴 하네. 내 수습기사랑 네가 남매였을 줄이야.”

“아, 아뇨. 친남매는 아니에요.”

알리사는 그의 말을 정정해주었다.

“아, 그러네. 켄 경은 알리사랑 다르게 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럼 무슨 사이야? 혹시 정인 사이인가?”

테오는 물음을 던져놓고야 아차 했다. 그가 이시르의 존재를 망각하고 헛소리를 하고 만 것이다. 테오는 생각보다 말이 먼저 앞서는 자신의 주둥이를 뽑아버려야겠다 생각하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이시르의 표정은 차마 살펴 볼 수 없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테오에게는 다행이도 알리사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 쳤다.

“친남매가 아니긴 해도 친남매나 다름없는 사이예요.”

“음, 그래. 그렇지. 아주 좋은 자세야.”

하하. 테오의 어색한 웃음이 이어졌다. 테오는 여전히 이시르의 쪽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켄의 어깨를 팡팡 소리 나게 두어 번 내려쳤다.

“여동생 좋지, 여동생. 나도 한 때 여동생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말이야.”

“시트리안 경.”

이시르의 목소리가 대책 없이 이어지던 테오의 말을 끊어놓았다.

“이만 엘리자베스에게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 네. 전하.”

역시나 알리사의 쪽으로 시선 한 번 던져주지 않고 걸어가는 이시르의 걸음이 묘하게 테오의 신경을 자극했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움이다.

“살펴 가십시오.”

켄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의례적으로 고개를 까딱하던 테오는 알리사가 긴장으로 바짝 얼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역시나 무언가 이상했다. 알리사와 이시르의 사이에는 일반적인 마주침에 있어야 할 통상적인 반응이 존재하지 않았다. 애초에 입맞춤이란 행위 자체는 홀로 하는 게 아니었다.

“전하.”

여관을 벗어난 테오는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혹, 전하께서 알리사에게 일방적으로 입을 맞추셨던 겁니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긍정이다. 테오는 그에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전하.”

전에 없이 암담해지는 기분이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테오가 그를 따르는 이유는 그가 황태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테오는 이시르를 믿었다. 이시르라면 그의 할아버지가 꿈꿔왔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시르를 따르는 것만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고를 따르는 길이라고. 그러나 점차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

“전하께선 더 이상 제가 알던 전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이상이 그저 이상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밀려들던 걱정은 엘리자베스를 찾아온 자리에서 정점을 찍었다.

“나는 네 하녀를 내 비로 삼을 거다.”

그들의 앞에 차를 따라놓은 하녀가 물러가자마자 앞 뒤 설명 없이 떨어진 통보였다. 이시르에게 변명을 종용하기도 전에 떨어진 말에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다.

“예?”

“전하!”

놀란 것은 엘리자베스뿐만이 아니었다. 입 안 가득 머금었던 차를 하마터면 모두 뱉어낼 뻔 한 테오는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오, 오라버니. 그게 대체 무슨...!”

“그 얘기는 진작 끝나지 않았습니까!”

엘리자베스의 중얼거림은 테오의 외침에 완전히 묻히고 말았다.

“정말이지 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전하!”

“흥분하지 말고 목소리 낮춰라.”

“제가 지금 흥분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누차 말씀 드렸지만 지금은 신전의 눈을 피해야 할 때입니다! 게다가 천민 출신의 여자라면 나중에 전하가 황위에 오고 나서 비로 맞아들여도 충분하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그래서가 아니다.”

이시르가 테오의 말을 단호하게 끊어냈다.

“내가 황위에 오르고 일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늦어져.”

이시르의 미간이 불편한 기색으로 일그러졌다. 이곳에 보았던 켄이란 자의 눈빛이 아직도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공주의 기사를 자처했던 과거의 한 남자가 벨로나에게 지어보였던 눈빛이었다. 그를 항상 신경 쓰이게 만들었던 그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거슬리게 만들었던 건 그를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모습이었다. 겁에 질려 눈 한 번 제대로 마주치는 그녀의 모습은 그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는 충분했다. 그 눈을. 그가 기억하는 그 눈을 그에게 제대로 고정시키고 싶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는 그 눈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가 그를 보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가 아니면 안 돼.”

“전하.”

“내 비는 그녀여야만 한다.”

이곳이 아닌 딴 곳에 정신이 잔뜩 팔린 듯한 이시르를 낙담한 얼굴로 바라보던 테오의 얼굴이 종잇장처럼 일그러졌다. 그는 알리사를 향한 이시르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오라버니.”

테오의 혼란과 이시르의 분열을 겁먹은 얼굴로 지켜보던 엘리자베스가 간신히 입을 열어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 못할 상황 속에 더듬더듬 입을 연 엘리자베스의 눈동자에 눈물이 고였다. 엘리자베스는 자꾸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알리사를 오라버니께서 왜...”

엘리자베스는 무너지는 세계를 감당해 낼 역량이 없었다.

“아니, 그 전에 오라버니랑 알리사가 왜 입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전 부터 오라버니와 알리사가 알던 사이였던 건가요? 그렇다면 알리사가 왜 제 하녀로 들어 온 거죠? 아니, 아니.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오라버니. 제발 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 알리사를 왜 오라버니의 비로 삼겠다는 거예요? 알리사가 왜. 대체 왜...”

“엘리자베스.”

이시르의 손이 울먹이고 있는 엘리자베스의 손 위로 덮어졌다. 엘리자베스의 뺨을 따라 눈물이 한줄기 흘러내렸다.

“나는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 거다.”

이시르가 엘리자베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 이런 것뿐이었다. 그가 60년 전 반란군의 군주였고, 그녀가 과거의 여왕이었다는 말은 백번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테니. 애초에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다. 그러니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명이자 진실이었다.

“나는 부패한 신전을 뒤집어엎고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닌 권력을 고루 나누어 줄 거다. 그리고 황가의 힘 역시,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기능만 하게 두고 모조리 백성들에게로 돌려줄 생각이다. 애초에 그래야 마땅한 것이었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본보기가 필요하지. 평민과 천민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권력을 나누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선 천민 출신의 황후를 내세우는 것만큼 좋은 본보기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알리사를 정치의 희생양으로 쓰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

이시르의 입가에 뜻 모를 미소가 걸렸다. 벨로나가 여왕이 되기 위해 그와 반란군을 희생양으로 썼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그녀를 발판 삼아 나라를 바로 잡으려하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알리사와 입을 맞추고 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나요? 알리사가 기꺼이 오라버니의 정치적 제물이 되겠다고 자처하던가요?”

이시르는 대답 없이 엘리자베스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벨로나의 것과 닮았으면서도 다른 엘리자베스의 녹색 눈이 그를 꿰뚫을 듯 노려보고 있었다.

“아니군요. 오라버니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죄 없는 제 하녀를 책망하고 내쫓으려 한 거네요.”

엘리자베스의 눈이 어둡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오라버니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따르겠어요.”

“엘리자베스!”

당연히 화를 낼 거라 생각했던 엘리자베스에게서 나온 뜻밖의 반응에 테오가 흠칫 놀라 소리쳤다. 엘리자베스는 전에 없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눈빛으로 이시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알리사를 희생하고자 하는 오라버니의 생각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는 오라버니가 말한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버니라면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번복하시지 않을 거니까. 오라버니가 옳다 말한 일은 항상 옳았기에 이번에도 오라버니를 믿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엘리자베스의 눈빛이 한층 더 깊어졌다.

“하지만 저는 알리사가 제 하녀가 불행해지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만 약조해 주세요. 만약 알리사가 원하지 않는다면. 오라버니의 비가 되는 것이 알리사가 행복해 지는 방향이 아니라면, 알리사를 희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애는 사랑받아야 해요. 저는 몇 안 되는 제 사람을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너는, 그걸로 만족해? 만족 할 수 있어?”

갑갑함이 가득 담긴 테오의 물음에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테오에게로 돌아갔다.

“너는 날 사랑해?”

“뭐, 뭐? 어, 뭐. 그야 당연하지.”

“오라버니는 절 사랑하세요?”

“물론이지.”

망설임의 기색 없이 이어진 두 사람의 대답에 엘리자베스의 입 꼬리가 곡선을 그리며 휘어졌다.

“그거면 됐어요.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이시르가 먼저 떠나고 하이텔 공작저에 엘리자베스와 단 둘이 남은 테오의 손이 찻잔의 주변에서 정처를 잃고 자꾸만 맴돌기를 반복했다.

“엘리자베스.”

테오의 나직한 부름에 차를 입 안 가득 머금고 삼키던 엘리자베스의 눈이 의아함을 담고 돌아갔다.

“정말 그걸로 되겠어?”

“무슨 말이야?”

“네 하녀가 어쩌면 너 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 지도 모르는데...”

테오는 미처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뭇머뭇 말문을 흐렸다. 탐탁지 않은 눈치의 테오를 바라보던 엘리자베스의 한쪽 입 꼬리가 가볍게 올라갔다.

“괜찮아.”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어차피 난 하녀들에게도 항상 무시당하고 살아왔는걸. 지금껏 날 유일하게 무시하지 않은 하녀가 알리사야. 내가 보아 온 알리사의 모습이 거짓이 아니라면 알리사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도 나를 깔보거나 무시하지는 않을 테니까. 난 상관없어.”

“뭐,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만.”

“너야 말로 괜찮은 거야?”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질문했다.

“아까부터 탐탁지 않아 보이던데.”

테오의 얼굴은 이시르의 말이 이어지는 내내 엉망으로 일그러져있었다. 잠깐 동안 어둡게 내려앉은 얼굴로 찻잔만 바라보나 싶던 테오가 한쪽 입 꼬리를 끌어올리며 나지막한 웃음을 터트렸다.

“별 수 있겠어? 내가 뭐라 한다고 꺾일 고집도 아니고.”

“그야 그렇지.”

“게다가 아무리 미친 짓을 하신다 해도 내가 여태 본 귀족 중에 가장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말이야.”

“그것도 그래.”

뜻밖의 공감대에 두 사람은 마주본 채로 가벼운 웃음을 터트려버리고 말았다. 테오는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머금은 채로 찻잔을 들어올렸다. 찻물에 비친 그의 얼굴은 뭐라 형용하기 힘든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는 채였다.

“그래도 이 계획은 조금 멈춰주셨으면 하는데...”

입술 사이로 미처 막아내지 못한 한숨이 튀어나왔다.

겁에 질려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알리사를 어르고 달래 간신히 집으로 데려온 후, 잠이든 알리사와 할머니를 두고 집을 나선 켄의 이가 뿌득 소리를 내며 갈렸다. 켄의 손에는 그가 직접 만든 목검이 들려있었다. 알리사를 저 꼴로 만든 놈들을 기필코 죽여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불량 청년들의 우두머리인 콜비를 찾아 나선 켄이었지만 정작 콜비 패거리는 머리카락 한 오라기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 얌전히 있을 녀석들이 아니었다.

한 시간 가량을 밖에서 방황하다 내일을 기약하며 돌아선 켄은 뒤 쪽에서 느껴진 인기척에 재빠르게 몸을 돌렸다. 그의 눈동자에 바닥으로 내려앉는 푸석푸석한 갈색 단발머리가 비쳤다. 히이익, 하고 급하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다. 마리는 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양 팔을 교차해 제 얼굴을 가렸다. 켄은 그 짧은 순간에도 엉망이 되어 있는 마리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

“내, 내가 잘못했어!”

마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움찔움찔 뒤로 물러났다.

“때리지 마, 켄. 때리지 마!”

켄의 한쪽 입 꼬리가 씰룩였다. 켄은 날듯이 마리에게로 달려들어 마리의 멱살을 틀어쥐었다. 마리가 나지막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 쳤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나운 콧김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알리사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 했어. 때리지 마, 켄. 때리지 마.”

양 손바닥을 싹싹 빌며 그의 한쪽 다리를 붙잡는 마리를 누군가 본다면 켄이 마리를 때리는 일이 잦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번 알리사의 뺨을 쳤던 걸 제외하자면 맹세코 동네의 여자애들에게 손찌검 한 번 해본 적 없는 켄은 마리의 그런 행동에 기가 찰 지경이었다.

“그 자식들 어디 있어! 내가 그 자식들 전부 죽여 버릴 거야! 어딜 내 여동생한테 손을...!”

“토마스 아저씨, 토마스 아저씨한테 갔어!”

“토마스 아저씨?”

다급한 마리의 외침에 켄의 얼굴이 아연해졌다. 토마스는 이 판자촌 유일한 의원의 집이었다.

“단체로 길가에서 뭘 주워 먹고 탈이라도 났냐? 걔네가 거길 왜 가!”

“네, 네가 그랬잖아!”

“뭐?”

“네가, 네가 그 녀석들을 때려서 그렇잖아!”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켄은 기가 찼다.

“나 다 들었어! 걔네 완전 피 떡이 돼서 토마스 아저씨 네에 옮겨졌다면서! 얼마나 더 패야 마음을 풀 생각이야!”

“하? 그건 대체 무슨...”

“아아악! 때리지 마!”

경기를 일으키며 자지러지는 마리에 켄은 때릴 의지마저 잊고 말았다. 마리의 반응으로 보건데 그녀의 말이 거짓인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체 누가 그 무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인가. 그의 손에 들린 목검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당장 꺼져.”

물론 마리를 향한 날카로운 힐난도 잊지 않았다.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켄의 매서운 시선에 딸꾹질마저 하기 시작한 마리가 후다닥 그 자리를 벗어나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켄은 땅바닥에 닿은 목검의 끄트머리를 가만히 내려 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동안 삭힌 화가 많았던 마을의 누군가가 벌인 짓이리라 예상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녀석들 패거리 모두를 죽사발로 만들었을 정도라면 상대도 만만치 않게 많이 다쳤을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평소 녀석들에게 앙심을 품은 이들이 무리를 지어 벌인 복수일지도 몰랐다. 어느 쪽이든 켄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손목은 왜 그러십니까?”

당번으로 궁에 출근했다가 안부인사차 이시르에게 들린 테오는 그의 손목에 돌돌 감겨 있는 새하얀 붕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와 만나지 못한 이틀 새 이시르가 칼을 들 일이 없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시르의 검술 솜씨가 수준급이라 여러 명을 상대한다 해도 그가 다치는 일은 좀체 잘 벌어지지 않았기에 테오에게 이시르의 부상은 생소한 것이었다.

“별건 아니고, 좀 삐어서.”

그러니까 왜 삐었는지를 물은 것인데 이시르는 동문서답하고 있었다. 테오는 그러려니 하고 어깨를 으쓱였다.

“집무를 보고 있을 때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 했는데 너는 이곳을 놀이터 마냥 드나드는 군. 한시바삐 일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말이야. 직속상관의 말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이젠 근무태만까지 할 셈인가?”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십니까.”

테오가 넉살맞게 대꾸했다.

“오늘 엘리자베스에게 언제 들리실지 여쭤보러 온 것뿐인데요.”

“오늘?”

“네. 알리사가 다시 출근하는 날이 오늘이잖습니까.”

“아, 그렇군.”

이시르가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리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책상에는 언제나 그렇듯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할 일이 많으십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럼 내일로 미루는 편이...”

“아니, 최대한 빨리 끝내고 출발하도록 할 테니 경은 일이나 하고 있도록.”

“예,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

“요즘, 대신관 미켈의 동태는 어떠하지?”

흘리듯 내뱉어진 물음에 돌아서던 테오의 걸음이 멎었다.

“아직은 별 움직임 없이 잠잠합니다.”

이시르의 앞으로 다가간 테오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렇잖아도 요즘 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폐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겠지.”

잠자코 이시르를 바라보던 테오의 얼굴에 불안감이 깃들었다.

현 황제인 스테판 2세는 신전에 무한한 신의를 품고 있는 자였다. 그는 신앙에 관한 문제로 그와 잦은 충돌을 일으키는 이시르를 그리 탐탁지 않아 했다. 그러나 그의 기호와는 상관없이 이시르는 줄곧 그의 유일 후계자였고 황제의 유일한 혈통이었던 이시르가 황위에 오르는 것은 예정된 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최근 이시르가 스테판 2세의 행동을 경계해야 할 만 한 사건이 터졌다. 스테판 2세가 스무살이나 어린 여자를 그의 비로 들인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의 사이에 여태 아이가 없어 이시르의 입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스테판 2세가 황비에게 남다른 총애를 보이고 있는 지금, 그녀가 황제의 혈통을 배기라도 한다면 이시르의 자리 보존이 힘들어 질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었다.

“궁내에 황비 전하께서 회임을 하셨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황제 폐하께서 이리도 조용하시겠느냐.”

“그건 알고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지금은 확실히 경계하셔야 할 때 입니다.”

“그것 역시 알고 있고.”

그러신 분이 알리사와 관련 된 일 앞에서는 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십니까. 테오는 뒷말을 간신히 집어 삼켰다.

“나중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떠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같았다. 문이 탁 소리를 내며 닫힌다. 테오의 기척이 멀어져 갔다. 집무실에 홀로 남아 다시 서류를 훑어 내리던 중 밖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 올린 순간 노크소리가 났다. 업무를 보고 있을 때는 훼방 놓지 말라했던 명을 어기는 사람이 오늘만 벌써 두 명이었다. 이시르의 미간이 소리 없이 구겨졌다.

“전하.”

시종의 목소리다. 그는 이시르의 명을 목숨처럼 따르는 자였다. 물론 테오는 논외였다. 하지만 테오는 이미 조금 전에 왔다 갔으니 다른 이변이 생겼음이 분명했다. 가령 이시르보다 더 높은 지위를 지닌 사람의 부름이라던가.

“황후 폐하께서 전하를 찾으십니다.”

역시나. 이시르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후는 짙은 검은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 올린 채로 이시르를 맞이했다. 화려한 황금색 드레스에 가려진 몸은 이전에 보았을 때 보다 한층 말라 있었고 한 때는 생기로 반짝였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다.

“그간 밀린 업무를 보느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황후 폐하.”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 몸을 제외하자면 그녀와 이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지만, 지난 18년의 세월동안 그녀는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고 그는 그녀의 앞에서 아들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냈다. 어머니의 사랑이란 걸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에게 그녀는 명목뿐인 어머니 이상의 존재였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더군요.”

황후의 목소리가 조곤조곤하게 울려 퍼졌다.

“전하께서 고뿔에나 걸리지 않으실지 이 어미는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건강에 이상은 없던가요?”

“염려해주신 덕분에 건강합니다. 황후 폐하께서는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무탈하겠습니까.”

서릿발처럼 차가운 음성이 그의 귀로 내다 꽂혔다. 이시르는 숙였던 고개를 들어올렸다. 황후의 눈에 붉은 핏발이 서 있다.

“앉으세요.”

그녀가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거절치 못하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이시르는 그녀가 직접 따라주는 차를 양 손으로 받았다. 황후가 눈짓으로 접대실에 든 시녀들을 물렸다. 모자의 것을 제외한 인기척이 삽시간에 사라졌다. 짙은 국화차의 향이 코끝으로 스며들었다.

“전하.”

찻잔을 든 황후의 손은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입술을 축이는 정도로만 차를 음미했다.

“그 여자가, 황비가 회임을 하였다 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헛소문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런 확신도 없이 이리 말씀 드리겠습니까?”

노기 서린 눈으로 그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는 잿빛이었다. 그녀가 이시르에게 물려준 것은 리하이트일 적의 것과 같은 새까만 머리카락뿐이었다.

“그 쪽에 사람을 심어두었었습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나온 것이니 확실합니다.”

황후가 솔직하게 실토했다.

“황비 측에서는 좀 더 안정기에 들 때 까지 조용히 할 셈속인 모양이더군요.”

“폐하의 연세 쉰에 자식을 보시다니. 감읍할 일이군요.”

“이시르. 저는 지금 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잔잔하게 울려 퍼진 이시르의 대꾸에 황후의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화를 내 무얼 하겠습니까.”

이시르의 얼굴이 어둡게 내려앉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염려는 할 만 했다. 스테판 2세가 앞으로 움직일 방향에 따라 그의 목이 간당간당한 위치에 놓여있으니 당분간은 스테판 2세의 비위를 맞춰줌이 옳았다.

“전하. 전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한 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이 어미에겐 전하의 안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전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압니다.”

“만일 황비 쪽에서 무슨 수작을 부린다면 그리고 그 꾐에 폐하께서 넘어가신다면 전하께서는 무엇을 하실 생각입니까.”

만일 황제가 이시르가 아닌 다른 이를 황제로 내삼으려 한다면 그가 해야 하는 일은 자명했다. 황제가 내세운 그 후계가 그의 이상으로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 할 리가 없으니.

“황후 폐하께서는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러나 이시르는 신중해야 했다. 그가 향하는 방향에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었으니.

“대책 없이 당하기만 할 거라면.”

황후는 황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먼저 목을 물어뜯는 맹수가 되십시오.”

그러나 황제를 향한 애정은 제 아들을 향한 애정을 넘지 못했다.

“저는 황태자께서 걷는 길을 따를 것입니다.”

“다녀올게요, 할머니.”

“잠깐 와봐라, 알리사.”

집을 막 빠져나가려는 알리사를 향해 누워 있던 소피아 할머니가 손짓했다. 알리사가 가까이 다가가자 끙 소리를 내며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세운 소피아가 힘겹게 벽면에 몸을 기댄 채 알리사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내 손녀, 저번부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 있는거지?”

소피아의 날카로운 지적에 알리사는 순간 흠칫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아뇨, 아무 일도 없어요.”

“없기는, 어딜 할머니 눈을 속일려고.”

“정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미소를 지은 채 덤덤하게 말을 이어가는 알리사를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본 소피아가 흘러내린 알리사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조심스레 넘겨주었다.

“네가 그렇게 까지 말한다면 더는 캐묻지 않겠지만, 너도 그렇고 켄도 그렇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니 갑갑하구나.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고된 거라면 관둬라. 켄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너까지 벌지 않아도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게다가 이 늙은 노인네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죽고 없어지면 켄이 벌어오는 돈으로 둘 다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알리사는 아무렇지 않게 죽음을 이야기 하는 소피아에 목이 탁 메여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피아 할머니마저 잃고 싶지 않았다.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사셔야죠. 켄이 장가가서 자식 낳는 것도 보고, 제가 시집가서 자식 낳는 것도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었는데 어디 사람일이 마음 가는 것처럼 되던? 당장 네 애비만 해도 그렇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소피아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야기에 알리사는 신경이 바싹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는 아직 에반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5년 있다가 널 데리러 온다 해 놓고 벌써 7년이나 지나버렸지. 네 애비를 책망하는 게 아니다, 알리사. 한 때는 좀 엇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에반은 건실한 청년이었으니 분명 널 생각하며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아니에요, 할머니.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도 전부 아빠 때문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막대한 빚을 지는 바람에 제가...

“그래도 알리사, 만약 내가 죽기 전까지 에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이다...”

소피아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가 완전히 내려앉았다.

“말씀하세요.”

“켄이랑 혼인하렴.”

덤덤하게 이어진 할머니의 말에 알리사는 잠깐 자신이 헛것을 들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피아의 진지한 표정이 환청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너희가 지난 세월 동안 남매처럼 자라오긴 했지만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지.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말거라, 나는 그래도 너를 정말 친 손녀처럼 여겼으니까. 하지만 내가 죽으면 문제는 분명 달라질 거다 알리사. 너희는 혼기가 찬 나이이고 그런 너희가 한 집에서 살아간다는 건 수많은 추문을 부를 테니 차라리 혼인하는 게 나아.”

“하지만 할머니, 저랑 켄은...”

“너희 둘 사이에 그런 감정이 없다 해도 이게 가장 나은 선택지일거라 생각한단다. 네가 시집갈 곳이라곤 이 판자촌의 청년들뿐인데 나는 너를 그런 녀석들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구나. 그나마 내 손자가 네게 보여도 부끄럽지 않을 놈이니 나는 네가 켄과 혼인했으면 한다.”

소피아의 덤덤한 말에 알리사는 느리게 고개를 숙였다. 사실 그렇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마리가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켄과 그녀는 남매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켄 역시 그녀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켄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한 알지 못할 이야기였다.

그러나 알리사는 자신에게 켄은 너무 과분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마리의 말처럼 이 지긋지긋한 거지 소굴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건 켄이 될 것이다. 만약 자신이 그런 켄과 혼인한다면 그녀도 어부지리로 이곳을 함께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지만 켄에게는 그녀보다 더 어울릴 만한 좀 더 나은 여자가 있을 게 분명했다. 그녀처럼 신분이나 삶이 비천하지도 않은 그런 여자가.

“그럴게요.”

하지만 알리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은 아니었으나 소피아 할머니가 기대하는 바를 완강하게 뿌리칠 수 없었다.

“그렇게 할게요.”

다시 한 번 반복 된 알리사의 대꾸에 소피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공작저의 앞에서 숨을 가다듬은 알리사는 기사의 앞에 휴가증을 내보였다. 하녀장 엔의 지장이 찍혀있는 휴가증은 알리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기사는 알리사의 얼굴을 익혀놓은 모양인지 휴가증을 슬쩍 내려다볼 뿐 별 다른 제제는 하지 않고 알리사를 집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집안에서 일하고 있던 하녀들이 알리사를 힐끗힐끗 돌아보는 느낌이 났다. 엉망이 된 얼굴 몰골 때문이었다.

“아, 왔느냐.”

엘리자베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걱정이 가득 담긴 걸음을 옮겨놓는 알리사를 발견한 공작이 말을 걸어왔다. 알리사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공작에게 인사했다. 공작은 여전히 그 하녀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을까. 피치 못할 호기심이 머리를 들었다가 사라진다.

“엘리자베스에게는 내가 잘 이야기 해 뒀으니 너무 걱정 할 것 없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알리사는 짧은 감사인사를 건네고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공작의 뒷말이 알리사의 걸음을 잡아 세웠다.

“얼굴이 엉망인데 어쩌다 그런 거지?”

“별건 아니고,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괜한 말을 하고싶지 않아 알리사는 대충 둘러댔다. 맞은편에서 쯧, 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린다. 무어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함께였던 듯도 했으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 고개를 갸웃했다.

“아,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만나고 나서 내 방으로 잠깐 오거라. 긴히 할 말이 있으니.”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서는 공작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알리사는 눈만 깜박이다가 늦게야 네, 하고 대꾸했다. 제게 뭘 시킬 생각인지는 몰라도 엘리자베스와 관련된 일이겠거니 했다. 샤워실로 가서 가볍게 얼굴과 손발을 씻은 알리사는 이젠 제법 익숙해진 하녀 복을 꺼내 입었다.

반대쪽 복도에 자리 잡은 엘리자베스의 방으로 향하는 내내 걸음이 무거웠다. 엘리자베스가 그녀를 보는 순간 또 울음을 터트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밀어닥쳤다. 공작과 말이 잘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에 못 이겨 허락한 걸지도 몰랐다. 애초에 그녀가 엘리자베스의 하녀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제 아무리 공작의 명이 있었다지만 엘리자베스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 놓고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것은 엘리자베스를 향한 모욕이나 다름없었다.

엘리자베스의 방 문 앞에 선 알리사는 노크를 하기 위해 들어 올린 팔을 놓았다 내렸다가를 반복했다. 이 문을 두드렸을 때 엘리자베스가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할지 짐작조차 되지 않아 더욱 겁이 났다. 알리사가 비로소 마음을 다지고 문 앞에 손을 댄 순간이었다.

“알리사.”

그녀의 손이 닿기도 전에 문이 끼익 소리와 함께 열리며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보였다.

“인기척이 느껴져서 설마 했는데, 안 들어오고 뭐해?”

“아가씨, 저...”

엘리자베스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질책했던 지난날이 모두 꿈이었던 양 덤덤한 엘리자베스의 반응에 알리사는 몸 둘 바를 몰랐다. 혹여 지나친 충격으로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하는 걱정마저 들 지경이었다.

“얼른 들어와.”

알리사의 팔을 잡아끄는 엘리자베스의 입가에서 조그만 웃음소리가 튀어나왔다. 산새의 울음소리 마냥 쪼르르 울리는 웃음에 알리사는 점점 더 당혹스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얼른 앉아, 알리사. 같이 과자나 먹자.”

아무 일 없이 헤어진 친구와 다시 만났을 때 같은 반응이다. 알리사는 어색하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저기, 아가씨.”

“응?”

알리사의 나직한 부름에 알리사를 향해 오는 눈동자는 생기 넘치는 녹색이었다. 알리사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했다. 황태자의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가 엘리자베스의 미소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생길까봐.

“오라버니 때문에 그래?”

하지만 도리어 그 이야기를 먼저 입에 담은 것은 엘리자베스였다. 알리사는 반쯤 떨어뜨렸던 고개를 번쩍 들어올렸다. 뜻밖에 엘리자베스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있었다.

“더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얼마 전에 오라버니가 다녀가셨는데 너랑 있었던 일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셨고.”

“황태자 전하께서요?”

전혀 의외였다. 시간 들여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론 보이지 않았는데. 그만큼 엘리자베스가 황태자 전하께는 중요한 사람이란 거겠지. 알리사는 그렇게 납득했다.

“응. 오라버니가 네게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했다며?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에요, 아가씨께서 왜 사과를 하세요.”

“아냐, 정말 미안해.”

널 정치적 제물로 쓰려는 오라버니를 말릴 수 없어서 미안해. 엘리자베스는 뒷말을 집어삼켰다.

“있잖아, 알리사.”

엘리자베스가 알리사의 앞에 차를 따라 놓았다.

“나 네게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당연하죠.”

“너도 날 사랑하지?”

“물론이죠.”

어린아이 같은 엘리자베스의 질문에 알리사는 망설이지 않고 대꾸했다.

“나는 정말 그걸로 됐어. 나는 그걸로 충분 해.”

스스로에게 되뇌듯 중얼거린 엘리자베스는 새하얀 이를 빛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있지.”

엘리자베스가 다시 한 번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께서는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싶대. 그리고 나도 오라버니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전에 네가 해준 말이 떠오르는 거야. 사랑받고 싶다면 백성들을 마음으로 보살피라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은 내가 베푼 것 이상의 사랑을 돌려줄 거라고.”

그러고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알리사는 잠자코 엘리자베스의 말이 이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 안에 숨어서 혼자 울지 않기로 했어. 어차피 레이첼 언니가, 공작부인이, 아니면 아버지가 내게 사랑을 줄 거라는 희망은 버린 지 오래니까. 혼자 울고 낙담하는 걸로는 아무 것도 되지 못해.”

“잘 생각하셨어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가슴 벅찬 기쁨에 알리사는 저 마저 기뻐지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 엘리자베스는 알리사를 붙잡아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어가기 시작했고 알리사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가만히 경청하며 생각이상으로 훨씬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석양이 지고 있었다. 그제야 공작의 요구가 생각 난 알리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안에만 찾아가면 되긴 했지만 공작의 전적을 아는 알리사로서는 이것보다 더 늦은 시간에 공작을 찾는 것이 불편할 수 밖에 없었다.

“아가씨, 저 잠깐만 나갔다 와도 괜찮을까요?”

“응? 어딜?”

“아까 공작 전하께서 잠깐 들리라고 하셔서...”

공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무섭게 서서히 굳어져가는 엘리자베스의 표정을 발견한 알리사는 저도 모르게 말을 멈췄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엔 이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꼭 가야 하는 거야? 오늘?”

“네. 전 그냥 일개 고용인일 뿐인걸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엘리자베스를 보고 있자니 엘리자베스가 뭔가 아는 것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사라졌다.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알리사와 엘리자베스는 고작 두 살 차이였지만 알리사는 엘리자베스가 마냥 어리게만 느껴져 그녀가 남녀 간의 밤일에 대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 남녀 주인공이 제 아버지와 이 공작 저에서 근무하는 하녀라면 더더욱.

“그럼 빨리 갔다 와야 해.”

“네, 금방 다녀올게요.”

“응, 꼭이야.”

엘리자베스는 불안감이 가득 담긴 얼굴로 알리사를 배웅했다. 공작의 집무실은 4층에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4층.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층이었다. 엘리자베스의 방이 2층에 있으니 당연한 수순이다. 알리사가 하는 일이라곤 엘리자베스의 곁에 붙어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 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공작 전하.”

알리사는 문 앞에 서서 노크했다. 복도의 끝에 난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석양이 유독 붉게 빛나고 있었다. 고개를 돌려 석양빛을 구경하던 알리사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반쯤 열린 방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들어와라.”

문 앞에 서 있던 공작이 그녀에게 손짓했다. 알리사는 방 안으로 내키지 않는 걸음을 옮겨놓았다. 공작이 문간 옆으로 비켜섰다. 알리사의 몸이 방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순간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방 안이 적막으로 가득 찬 탓일까. 뒤에서 공작의 미세한 숨소리가 느껴졌다. 알리사는 온 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몇 발자국 가량을 더 나아갔다. 왜인지 소름이 돋았다.

하이텔 공작저에 도착한 이시르는 갑갑해져오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괜히 애꿎은 하늘을 노려보았다. 왕위찬탈을 위해 치열하게 애썼던 지난 과거가 떠올리자 눈앞이 까마득해졌다. 그 때도 실패하였는데 이번이라 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주변 환경은 열악했지만 차라리 상황은 그 때가 더 나았다. 리하이트는 더는 잃을 것 없는 천민이었고 그와 함께한 군대 역시 굶주림 말고는 두려울 것 없는 천민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이시르 하이텔에게는 잃을 게 너무나도 많았다. 당장 그의 든든한 조력자인 테오를 비롯해 엘리자베스까지. 게다가 무엇보다 큰 희생은 반란에 실패하게 된다면 다시는 넘보지 못할 황제의 자리다. 지금의 삶에서라면 가만히 있어도 제 손에 들어올 자리라 그간 너무 안일했던 건 아닌가 문득 착잡한 감상이 치밀었다.

애초에 제가 자리 잡은 이 몸의 운명이었던 것을 제가 손쉽게 채가려는 것을 막으려는 하늘의 장난처럼만 느껴졌다. 이시르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신의 멱살을 쥐어 잡고 묻고 싶었다.

제게 왜 이러는 거냐고. 당신은 백성을 위해 내가 하고자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냐고.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하나 기꺼이 내놓을 수 있건만 당신은 그 위에 앉아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참극을 감상만 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엘리자베스에게 전하와 내가 왔다고 전해라.”

문 앞에 선 기사의 앞에서 머리에 뒤집어 쓴 로브를 끌어내린 테오가 말했다. 그와 그 뒤에선 이시르를 알아 본 기사는 경례를 붙인 뒤 허겁지겁 공작 저로 뛰어 들어갔다.

테오가 다시 이시르의 뒤로 와 섰다. 옮기는 걸음이 무거웠다. 화려하지만 인간미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작 저의 정원을 가로질러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허겁지겁 달려오는 집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뒤로 몇몇의 하녀가 황급히 따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아가씨의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앞에 머리를 조아린 채 잔뜩 긴장한 티를 내고 있는 집사를 힐끗 바라 본 이시르는 뒤집어쓰고 있던 로브를 벗어 내리고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이제와 생각하니 우스운 일이다. 60년 전에는 이들 앞에 개처럼 머리를 조아려야했던 그가 형태조차 없는 신분 하나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에게 조아림을 받을 처지가 되다니.

타인을 제 아래에 두었다는 것에 대한 희열 같은 종류의 것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쾌했다. 사람 사이에 귀천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저 사람의 숙인 머리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명목상의 신분 때문이었다.

“저, 전하!”

방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엘리자베스의 다급한 부름이 들려왔다.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이시르는 고개를 들어올렸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다급함과 안도감 그 외의 오만 감정 따위로 점칠 되어 있었다.

“야, 위험! ...하잖습니까.”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넘어질 뻔한 엘리자베스를 간신히 붙잡은 테오가 소리를 지르다 주변의 고용인들을 의식하고 격식을 갖추었다.

“전하, 저, 저...”

엘리자베스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렸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눈동자가 고용인들을 의식한 탓인 듯 했다. 불안한 기분이 밀어닥쳤다.

“물러가봐라.”

고용인들에게 명한 이시르는 엘리자베스의 어깨를 돌려세우고 그녀를 층계참 위로 이끌었다. 힐끗 돌아보니 멀어지는 고용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비로소 그들에게 대화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을 쯤에 이르렀을 때 이시르는 어깨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냐, 엘리자베스.”

“저, 그게 알리사가 돌아오질 않아서요.”

아까부터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던 심장은 그 이름자가 들려온 순간 완전히 내려앉고 말았다. 테오가 엘리자베스의 방문을 열었지만 엘리자베스는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버티고 섰다.

“아버지께서 부르셨다고 나간 지 한참 지났는데...”

엘리자베스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으로 이시르의 옷깃을 꼭 쥐어 잡았다.

“오라버니께서도 제 아버지의 여성편력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금발에 이상할 만큼 집착하는 아버진데, 혹여나 해서요. 오라버니께서 알리사를 비 삼겠다고 하셨잖아요.”

“...”

“오라버니, 만약 알리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네?”

금발에 집착해? 변태야? 테오가 중얼거렸다.

“엘리자베스.”

이시르는 손바닥으로 번지는 땀을 애써 무시하며 고개를 돌렸다.

“숙부님의 방이 어디지?”

머리가 몽롱했다. 몸이 붕 떠 허공을 부유하고 있는 느낌이다. 알리사는 눈을 느리게 깜박이며 벽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가봐야 해요...”

입술 사이로 발음이 잔뜩 뭉그러져 흘러나왔다. 술기운 때문에 스스로를 제대로 가누는 것이 불가능했다.

“잔이 비었구나.”

“안돼요.”

알리사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엘리자베스 아가씨가 기다리시는데...”

몇 잔 마신 것 같지도 않은데 병째 들이킨 것처럼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공작이 처음 술을 권했을 때 사양하고 사양하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받아 마신 게 불과 몇 분 전이었다. 처음 마셔본 술은 너무나도 쓰고 달고 독했다.

술과 함께 허송세월을 보낸 아버지가 떠올랐다. 맛있지도 않은 이게 뭐라고 그토록 마셔댄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제 딴에는 지독한 술이 아니면 괴로움을 희석할 수 없었던 거겠지. 하지만 그 피해는 언제나 알리사의 몫이었다.

“갈게요.”

알리사는 공작의 허락이 떨어지건 말건 아랑곳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곳에 올 때부터 느껴졌던 불쾌함이 그녀에게 자리를 벗어날 것을 종용하고 있었다. 아니다. 이유모를 불쾌감은 아니었다. 알리사는 밀려드는 불안감의 원인을 어렴풋이나마, 어쩌면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술 한 잔 하라는 공작의 제안을 거절치 못한 제가 어리석었다.

거절하면 받게 될 엄벌에 잠깐 눈이 멀어 더한 위험을 외면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더는 안 된다. 정신없는 중에도 간신히 붙잡고 있었던 이성이 알리사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엘리자베스 아가씨의 잠자리도 봐 드려야하고...”

말끝을 흐리는 알리사의 몸이 비틀거렸다. 간신히 균형을 잡고 선 알리사는 흠칫 놀라 굳어졌다. 공작이 어느새 눈 앞 까지 다가와 있었다. 이미 중심을 잡고 선 알리사의 몸을 구태여 부축하는 손길에 알리사는 딱딱하게 굳어져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술을 뒤집어 쓴 몸은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오히려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기만 했다. 한쪽 허리를 감싸 쥔 공작의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혼자 갈 수 있...”

“엘리자베스가 잠들면 다시 이곳으로 오거라.”

가슴이 섬뜩 했다. 고개를 들어 올린 알리사는 저를 내려다보는 공작의 눈에서 어두운 기운을 발견하고는 몸을 떨었다. 맹수의 눈앞에 떨어진 초식 동물이 되었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거부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너무나 순진한 믿음이었다.

“싫...”

목소리가 달달 떨려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알리사는 눈을 감았다.

“싫어요.”

완강하다기엔 지나치게 조용하고 또 너무 많이 떨려오고 있었다. 알리사는 감았던 눈을 부릅떴다. 푸른 눈동자가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빛났다.

“싫어요.”

보다 분명한 의사 전달이었다. 공작의 눈이 불쾌한 기색을 그득 담고 휘어졌다.

“하녀 주제에 말이 많아.”

아마 그것이 이 자의 본색일 것이다.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숨통을 옥죄일 듯 다가오는 공작의 기세에 알리사는 주춤했지만 눈을 내리깔지는 않았다.

“저는 하녀지 창녀가 아니에요.”

엉덩이가 소파에 걸렸다.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다.

“공작님이 원하시는 게 공작님에게 몸을 내어줄 창녀라면 잘못 찾아 오셨어요. 저는..., 악!”

“말이 많아.”

소파 위로 넘어간 몸 위로 육중한 무게가 느껴졌다. 입이 틀어 막힌 알리사는 공작의 손을 깨물기 위해 입을 벌렸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질러낸 비명은 입 속에 갇혀 읍읍 거리는 소리로 밖에 나오지 않았다.

알리사는 눈물 고인 눈으로 공작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 갇힌 그의 얼굴은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몸을 있는 힘껏 버둥거려도 보았지만 역시나 무의미 했다.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무기력함에 온 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옳지, 착하구나.”

그런 알리사의 행동을 포기나 받아들임으로 이해했던지 공작이 어둠 속에서 비열하게 웃었다. 검은 가죽 소파 위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응시하던 공작이 알리사의 입을 틀어막지 않은 한쪽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 쥐고 그 위로 입술을 맞추었다.

“나는 항상 이 색이 좋았어.”

공작이 중얼거렸다.

“고모님의 색채라 그런가, 옛날부터 좋아했지. 특히 너는 고모님의 젊은 시절을 상상하며 빚어낸 조각상처럼 그녀와 닮았더구나.”

눈언저리를 훑어 내리는 손가락이 소름끼쳤다.

“고모님이 젊었을 때 꼭 너처럼 생겼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 엘리자베스가 완벽하게 고모님의 색채를 물려받았지만 그 애는 제 어미를 꼭 빼닮았더군. 고모님의 느낌이 나려면 내 쪽을 닮았어야 했던 건데.”

그가 말하는 고모님은 전 여왕을 말하는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 분은 내게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었는데. 그들이 고모님을 나락으로 떨어트렸지 그래.”

알리사는 공작의 시선을 피해 눈동자를 옆으로 옮겼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술잔은 손을 조금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공작의 무게에 눌려 팔을 움직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조금의 틈만 생긴다면 어떻게든 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락. 그래, 나락. 거기에 함께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나는 한편으론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랐어.”

공작이 한숨을 내쉼과 동시에 아까보다 움직이는 것이 한결 편안해졌다.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부귀영화를 어찌 누리고 있을까. 그런데도 말이다. 나는 가끔 고모님의 꿈을 꾸곤 한단다. 늘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나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구나.”

조금만, 조금만 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 건 모두 당신 탓인데!”

유리컵에 닿을 듯 말 듯 내밀어졌던 손이 도로 제자리로 걷어졌다. 알리사는 속으로 비명을 집어삼켰다. 공작의 손이 어느새 알리사의 치맛단을 위로 밀어올리고 있었다. 알리사는 있는 힘껏 몸을 비틀었지만 역시나 요원했다.

“누가 누굴 원망하는지.”

그 말을 끝으로 알리사의 가슴께로 손을 뻗은 공작이 거칠게 그녀의 옷 앞섬을 찢어발겼다. 놔, 놔! 틀어 막힌 입에서 나오는 건 여전히 읍읍 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알리사는 눈앞에 눈물이 팽 도는 것을 느꼈다.

이 와중에 마리의 말이 떠오르는 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녀의 말대로 알리사는 여태껏 홀로 고고한 척 해왔던 걸지도 몰랐다. 켄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갇혀 아무 것도 듣지 않고 보지 않겠다는 듯 귀를 막고 눈을 막아왔던 걸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젠 그 마저도 끝이겠지. 눈앞에 펼쳐진 것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이대로 끝이구나. 완전히 들춰진 치맛단의 감촉에 알리사는 눈을 질근 감았다.

“뭐, 뭐야?”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요란한 소리가 이는가 싶더니 몸 위가 휑해지는 느낌이 났다. 어디선가 들어온 바람에 위태로이 흔들리던 촛불이 모두 꺼져버렸다. 알리사는 공작의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것을 들었다. 갈피를 못 잡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알리사의 발에 물컹한 감촉이 느껴지고 공작이 꽥 소리를 질렀다. 알리사가 바닥에 나동그라진 공작의 몸을 발로 밟아버린 것이다.

질겁하고 있을 틈도 없었다. 갑작스레 손목을 붙잡아 오는 누군가의 손길에 흠칫한 알리사는 어딘지 익숙한 향을 맡고는 그의 손에 속절없이 이끌려 갔다.

“누, 누구냐?”

공작의 외침이 높아진다. 그가 몸을 일으켜 세움과 동시에 알리사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바로 지척에서 들려왔다. 알리사를 잡아 이끈 사람이 알리사를 창가로 끌고 온 것이다. 침입자가 알리사의 몸을 감싸듯 끌어안았다. 얼핏 들어 올린 고개 사이로 보이는 것은 황태자의 얼굴이었다.

“전...!”

저도 모르게 이시르를 부르려던 알리사는 뒤 쪽에 서 있는 공작을 의식하고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동시에 이시르가 깨진 창문 앞에 가서 섰다.

“뭐, 뭐하시려고요?”

한 순간 술기운이 가셨다.

“여긴 사층 이예요.”

상대는 대답조차 없었다. 다만 뭔가를 가늠하듯 건물 아래를 이리저리 둘러볼 뿐이었다.

“이, 이...! 누구냐고 물었잖느냐!”

노기에 찬 공작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시르는 그의 말을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꽉 잡으십시오.”

알리사에게만 들리게끔 조용히 속삭인 이시르는 그녀의 몸을 힘껏 붙잡고는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기겁해 눈을 질근 감은 알리사는 어딘가에 착지한 느낌을 받고는 눈을 떴다. 동시에 이시르의 몸이 다시 한 번 날듯이 허공으로 향했다.

그는 건물 벽 중간 중간에 놓인 지지대 위로 뛰어내려 아래층으로 향하고 있었다. 발 한 번 잘못 놀렸다가는 바닥으로 바로 떨어져 못해도 뼈가 아작 날 상황이었다.

“무서우면 눈 감으셔도 됩니다.”

너무 늦게 말해줬다. 알리사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제 눈으로 똑똑히 들여다본 상황이었다. 이시르의 발이 담장을 짚었다. 동시에 무게 중심을 잃은 듯 그의 몸이 흔들렸고 알리사는 본능적으로 그의 옷깃을 꽉 틀어쥐었다. 다행이 다시 균형을 잡고 선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공작저의 바깥과 연결된 담장 아래로 훌쩍 뛰어내렸다. 마치 곡예사라도 된 기분이었다.

땅에 무사히 발을 디뎠다고 안심할 게 아니었던 듯 이시르는 알리사를 안고 있던 팔을 풀어내기 무섭게 알리사의 손목을 잡고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시르의 검은 머리가 달빛 아래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알리사는 그 모습을 보며 이시르의 뒤를 쫓았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이 속도도 그나마 그가 배려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불평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고 생각한 듯 그가 걸음을 멈췄다. 개미 새끼 하나 지나다니지 않는 인적 드문 골목길이었다.

“저...”

“여기에 있으십시오.”

감사인사를 전할 틈도 없었다. 알리사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이시르는 그렇게 말하고 골목을 벗어났다.

텅 빈 거리에 홀로 남은 알리사는 몸을 부르르 떨며 찢겨져 나간 앞섬을 여몄다. 골목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아까까지만 해도 몸을 휩쓸고 있었던 공포만큼은 두렵지 않았다.

공작은 잔뜩 노한 채 집안의 고용인들을 힐난하고 있었다. 이 집에 강도가 들 때까지 무엇을 하였느냐, 그 강도가 감히 저희 주인의 방에 들어섰는데 얼마나 아둔하면 그걸 알지 못할 수 있느냐. 한 마디, 한 마디 마다 공작의 얼굴이 끊임없이 울긋불긋하게 변했다.

그는 그가 방에 끌어들여 겁탈하려 시도한 하녀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연한 것이다. 어느 누가 하녀 겁간을 시도하다 강도에게 그 하녀를 낚아채었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것인가.

벽 뒤에 숨죽여 그의 노기 어린 목소리를 듣고 있던 이시르는 제 어깨 위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발견하고는 바닥으로 털어냈다. 사병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오다 묻은 것이었다.

“숙부님.”

이시르는 일그러지는 얼굴 위로 정중한 표정을 덮어씌우고 공작의 앞으로 나섰다. 뜻밖의 방문객을 발견한 공작의 눈썹이 미묘하게 찌푸려졌다가 제자리를 찾았다.

“황태자 전하께서 어찌...”

“엘리자베스를 보러 들렸습니다. 숙부님이 계신다기에 인사 차 찾아뵈었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겁니까?”

“별 일 아닙니다.”

그는 이시르와 대화하기를 기피하는 눈치였다. 그럴 만도 했다. 현 황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상을 가진 공작은 이시르를 비롯한 황후 쪽이 아닌 황제의 후비 쪽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

“저택에 강도가 들어...”

“강도라니. 지금 하이텔 공작저에 강도가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부끄러운 말이지만, 보안이 허술해진 틈을 타 잠입한 것 같습니다.”

“강도와 직접 마주하셨습니까?”

능청스러운 이시르의 물음에 공작은 그를 의심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워낙 어두운 탓에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다행이도 도둑맞은 물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시르의 얼굴을 보지 못했음이 확실해 지는 순간이었다. 지금 이시르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 줌으로 확실한 알리바이를 보였으니 앞으로도 공작이 이시르를 의심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이시르는 한쪽 입 꼬리를 삐딱하게 말아 올렸다.

“물적 피해나 인명피해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바쁘신 것 같으니 저는 이만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모쪼록 범인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고개 숙여 인사한 이시르의 양 손에 힘이 실렸다. 돌아서는 순간 표정관리가 제대로 되기는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시르의 얼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발걸음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이시르는 엘리자베스에게 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알리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시르에게는 그녀에게 들려 알리사에게 벌어진 일들을 설명해 줄 만한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정원을 가로질러가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정문을 통과한 순간 보초병들이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로브를 뒤집어쓰기 위해 습관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알리사를 구할 때부터 쓰고 있던 로브를 보면 공작이 알아챌까 담벼락 밑에 대충 던져두었었다. 이시르는 걸음에 박차를 가했다. 골목 사이사이를 지나 담벼락 아래에 놓아둔 로브를 집어올린 이시르는 홀린 듯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갔다. 빨라졌던 걸음이 문득 멎었다. 어둠 속에 잠긴 골목길이 그의 녹색 눈동자 위로 드리워졌다.

이시르는 어둠 속에 웅크려 앉은 인영을 발견하고는 머뭇거렸다. 인기척을 느낀 인영이 둥글게 말았던 몸을 천천히 폈다. 어둠 속에 푸른 눈이 말갛게 빛났다.

이시르는 제자리에 멈춰선 채 꼼작도 하지 않았다. 제 참을성을 시험해 볼 생각은 없었다. 여기서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섰다간 이성을 잃을 지도 몰랐다. 고작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나를 배신했느냐고, 지금의 그녀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다시 내뱉으며 두 사람을 동시에 난도질 할 지도 몰랐다. 그러나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 알리사의 옷 앞섬이 찢겨져 나간 것을 발견했을 때, 이성은 가슴 속에서 깨어난 짐승에게 씹어 삼켜졌다.

“벨로나.”

입술 새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절로 새어나왔다.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낮고 차갑게 울리는 그 목소리에 알리사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려왔다. 또다. 그는 또다시 그녀와 다른 누군가를 혼동하고 있었다.

“전하...”

떨리는 입술 사이로 튀어나온 목소리는 잔뜩 갈라진 채였다. 알리사는 자꾸만 흘러내리는 앞섬을 단단히 여미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무서웠다. 그녀를 겁탈하려드는 공작이 무서웠고 이시르가 그녀를 내려놓고 간 어둠이 무서웠으며 지금 그녀의 앞에 돌아와 눈을 빛내고 있는 그가 무서웠다. 특히 지난번처럼 그가 그녀를 다른 사람과 겹쳐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포는 배가 되어 그녀에게로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 감사 인사였다. 이시르는 그녀의 인사를 귀담아 듣고 있지 않았고 알리사 역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전한 인사였을 뿐 진심을 담지는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당신은 절 미치게 합니다.”

이시르는 날카롭게 읊조리며 그녀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섰다. 공작이 덮쳐오던 조금 전의 악몽이 순식간에 되살아나 알리사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몸을 움츠러뜨렸다. 그런 그녀의 앞에 선 이시르는 주먹을 꽉 말아 쥐었다. 여몄음에도 미처 다물어지지 못하고 벌어진 사이로 창백한 속살이 보였다.

이시르는 알리사의 몸에 남아있는 공작이 강제로 취하고자 했던 흔적들을 지워 없애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었다.

“전하.”

겁에 질린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놓았던 이성을 조금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시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가 아는 그녀는 이런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됐다.

“벨로나.”

이시르는 알리사의 몸을 제 품 속으로 당겨 있는 힘껏 끌어안았다. 덜덜 떨리던 그녀의 어깨가 크게 움찔하고 미동하더니 곧 딱딱하게 얼어붙어 움직임을 멈추었다. 이시르는 그녀의 왼쪽으로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질근 감았다.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사실이었다.

“만일 당신이 다시 태어났다면 당신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유복한 가정에서 세상의 잔혹함을 모르는 철부지 아가씨로 자랐기를 진심으로 바래왔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제 마음이 바래지지 않게, 당신을 증오하는 내 마음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게.”

“...”

“그런데 당신은 내게 그 마저도...”

점점 더 숙여지던 고개가 완전히 숙여진 순간, 알리사와 이시르는 동시에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알리사는 이시르의 품에 파묻힌 채로 눈을 질근 감았다.

당연히 느껴지리라 생각했던 충격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시르가 알리사의 몸이 다치지 않게 단단히 붙들고 있던 덕분이었다. 알리사는 감았던 눈을 떴다. 넘어지며 처음의 자세가 흐트러진 탓에 그녀의 얼굴은 이시르의 목 바로 옆, 하늘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어 있었다.

원한다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알리사는 감히 입을 열 생각을 하지 못했다. 위에서부터 내리 눌려지는 몸은 공작의 것만큼이나 무거웠지만 그 때처럼 두렵지는 않았다.

“왜 내가 당신을 미워할 이유마저 앗아가 버리십니까.”

원망어린 목소리로 읊조려진 이시르의 말에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무력감이 온 몸을 휘어 감았다.

“싫어요.”

알리사는 잔득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도 싫어요.”

아버지의 빚을 갚는 걸 실패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괴롭힐 것이다. 켄에게는 무어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 빈민가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돌아간다면 또다시 판자촌 양아치 청년들의 검은 손이 그녀를 옥죄려 들 테고 무사히 도망쳤던 저번과는 달리 다음에도 무사할 거라는 보장이 없었다.

비참하다. 잘못을 한 건 제가 아닌데 숨어야 하는 쪽은 알리사였다. 천민이라서.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나약한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흐윽...”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잇새로 흘러나오는 흐느낌을 억누르지 못했다. 알리사는 입술을 있는 힘껏 깨물어 소리를 집어 삼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몸의 떨림은 숨겨지지 않았다.

“저도 이런 제가 싫어요.”

알리사의 중얼거림에 흐느낌이 섞여 나왔다.

“유복한 가정에서, 아니 하다못해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한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라고, 흐윽, 저라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줄 아세요?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왜 전하께서는 절 다른 사람이랑 혼동하고 자꾸 저를 원망하세요. 대체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전하께서 왜 자꾸 제게..., 윽.”

목이 매여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알리사는 달달 떨리는 어깨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알리사는 눈을 질근 감았다.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대에 대한 전하의 분노를 받아줄 수 없어요. 저는 제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요. 제발...”

지척에서 들려온 이시르의 한숨소리에 알리사는 나직이 말끝을 흐리며 눈을 떴다. 말을 쏟아내고 나니 서서히 상황판단이 되기 시작했다. 알리사는 이시르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지 못했다.

다시 덜컥 겁이 났다. 이시르가 그녀를 무례하다 얘기할 지도 몰랐다. 분노하고 또다시 무시무시한 태도로 돌변할 지도 몰랐다. 알리사는 저도 모르게 이시르의 옷깃을 꽉 움켜잡았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떨림이 이시르에게도 고스란히 가 닿았다.

이시르는 감았던 눈을 떴다. 떨리는 그녀의 몸이 느껴졌다. 코끝에는 그녀의 체취가 맴돌았다. 익숙한 향기. 눈물이 날 것 같다. 이시르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도로 내쉬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나 그녀는 모든 것을 잊었다. 그래서 합당한 분노를 토해내는 제게 이러지 말아 달라 애걸하는 것이다. 말 한마디에 이시르의 목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그녀는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천민이기 때문에.

분노할 지도 모른다 생각했는데 이시르는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은 채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시르는 그녀의 몸을 움켜 쥔 손을 함부로 놀리지도, 그렇다고 떼어내지도 않았다. 알리사는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척에서 느껴지는 이시르의 머리카락만큼이나 새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밤하늘은 그녀가 겪은 끔찍한 일과는 너무 멀리 있었다.

“만일 당신을 도울 사람이 없는데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이시르가 천천히 그녀의 위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녹색 눈동자에 담긴 심증을 헤아릴 수 없었다. 알리사는 눈물로 범벅이 됐을 제 얼굴을 손으로 대충 닦아내고는 몸을 반쯤 일으켜 세웠다. 앉은 자리에서 두 사람의 눈이 다시 한 번 마주쳤다. 알리사는 재빨리 눈을 내리 깔았다.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당신은...”

이시르의 목소리가 서서히 흐려졌다. 갑작스럽게 내려앉은 침묵에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올린 순간 어깨 위로 무언가가 툭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검은 로브였다. 이시르가 두르고 있었던. 잠깐 동안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알리사는 유독 휑하게 느껴지는 가슴팍에 황급히 로브를 집어 들어 앞쪽을 가렸다. 슬쩍 고개를 들어 올리니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고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알리사의 감사인사가 조그맣게 울려 퍼졌다. 이시르의 시선이 알리사에게 돌아왔다. 다시 바라본 그의 눈동자는 어딘지 불안해보였다. 아직 맞닿아있는 신체의 일부가 떨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알리사는 그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어 잔뜩 긴장한 채 이시르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벨로나.”

이시르가 다시 한 번 낯선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을 부르는 그의 눈은 여전히 잘게 떨려오고 있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난.”

진정으로 미쳐버릴 지도 몰랐다.

“당신이 밉고, 당신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당신이 눈앞에 없으면 불안해져서.

속절없이 흔들리던 이시르의 눈빛이 완전히 허물어진 순간, 알리사는 숨을 멈췄다. 순식간에 그녀의 목 뒷덜미가 끌어당겨지고 그의 얼굴이 눈 깜짝할 새에 그녀의 눈앞으로 다가왔다. 저항할 새도 없이 입술이 맞닿았다. 부드럽다고 말하기엔 어딘가 거친 입술은 뜨거우면서 동시에 차가웠다. 놀라움에 벌어진 입술 새로 뜨거운 혀가 들이닥쳤다.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혀를 휘감아오는 그 느낌에 알리사는 눈을 질근 감았다가 떴다.

‘벨로나.’

환청일까, 어디선가 그렇게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알리사는 제가 벨로나라는 여자가 아님에도 어쩐지 속이 턱 하고 막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머릿속에 어두운 장막이 들어앉은 것 같았다. 걷어내고 싶은데 도통 걷어낼 수 없는 그런 장막이. 그리고 그 장막은 이시르의 입맞춤이 계속되면 계속 될수록 점점 아래로 내려앉았다. 알리사는 저항할 수 없었다.

숨이 점점 막혀오며 한층 농밀해지던 입맞춤이 비로소 멎었다. 이시르의 얼굴이 알리사의 얼굴에서 멀어져갔다. 알리사는 거칠어진 숨을 몰아 내쉬며 멍하니 이시르의 두 눈을 응시했다.

“그냥 제 눈이 닿는 곳에 있으십시오.”

하루 동안 벌어진 너무 많은 일들에 몸에 무리가 가서일까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시야가 흐려졌다.

“영원히.”

그의 마지막 말은 먼 곳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눈앞이 암전됐다.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다. 실재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가 온 몸을 압박하고 있었다. 눈을 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해도 몸이 제 것이 아닌 양 말을 듣지 않았다. 몸은 끊임없이 무거워지고 있었다. 심해 속에 묻혀 버린 것 같다. 비명을 지르면 이 압박감이 가실까, 입 하나 벙긋할 수 없었다. 알리사는 절망했다. 밀려든 무기력함에 좌절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비로소 압박감이 사라진 순간, 그녀는 눈을 번쩍 떴다.

“알리사, 괜찮아?”

여기에 있을 리 없는 이가 요란스럽게 그녀의 시야 속으로 들어왔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아 깨웠는데 괜찮은 거지? 응?”

“엘리자베스 아가씨...”

“응, 응. 나 여기 있어. 나 여기에 있어, 알리사.”

잔뜩 갈라져 나온 목소리에 엘리자베스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눈으로 알리사의 손을 붙잡았다.

“이시르 오라버니한테 네가 변을 당할 뻔 했다는 걸 들었어.”

엘리자베스가 침대 곁에 놓인 의자에 주저앉으며 빠르게 읊조렸다.

“미안해, 미안해 알리사. 나는, 나는 정말...”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엘리자베스의 어깨 너머에서 천장으로 시선을 옮기자 썩 고풍스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알리사의 형편에는 지나치게 호화로운 벽지가 보였다. 여기는 어디인걸까, 엘리자베스에게 묻고 싶었지만 입 안이 칼칼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공작에게, 금발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걸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랬는데도 내가 널 하녀로 삼는 걸 거절하지 않아서 그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거야. 미안해, 알리사.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전부 내 탓이야.”

엘리자베스의 눈물이 알리사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알리사는 멍한 시선을 엘리자베스에게로 보냈다. 엘리자베스는 알리사에게 미안해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알리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고사하고서라도 알리사는 엘리자베스를 이해했다. 정확히는 그간 엘리자베스가 지니고 살아왔을 외로움을 이해했다.

“괜찮아요.”

알리사가 말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가씨.”

알리사는 바싹 마른 입안을 적셔줄 물을 찾아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알리사의 앞으로 물 컵 하나가 불쑥 내밀어졌다. 알리사는 제게 컵을 내민 상대를 멍한 얼굴로 올려다보았다. 테오였다. 언제부터 서 있었던 것 일까, 호기심이 잠깐 머리를 들었다가 사라졌다.

“물 찾는 거 맞지?”

“네, 감사…합니다.”

어설픈 감사 인사를 전하고 물을 삼키고 나자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알리사는 몸을 반쯤 일으켜 세웠다. 그러자 좀 더 확실하게 방의 전경이 보였다. 알리사가 여태껏 잠을 잔 방 중에서 가장 좋은 방이었다. 그것만큼은 확실했다.

“여기는 어디예요?”

알리사는 의도적으로 이시르에 대한 물음을 피했다. 정신을 잃기 전 들었던 그의 곁에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았다.

“근처에 있는 여관이야, 오라버니께서 기절한 널 여기로 옮겨온 다음 우리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 오라버니는 지금 황궁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들어간 상태야.”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물음에 대꾸했다. 허공을 응시하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 알리사는 양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가야겠어요.”

알리사는 엘리자베스와 테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쓰며 중얼거렸다.

“그간 감사했어요, 엘리자베스 아가씨.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트리안 공자님.”

“알리사.”

알리사가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선 순간 테오의 목소리가 알리사를 불러 세웠다.

“실은 네게 할 말이 있는데 말이지.”

알리사의 앞으로 황급히 다가온 테오가 엘리자베스에게 눈짓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다 핀 엘리자베스가 알리사와 테오의 눈치를 살핀 뒤 방을 빠져나갔다. 알리사는 테오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다. 그가 꺼낼 이야기라는 게 이시르와 관련된 것임은 듣지 않아도 뻔했다.

“알리사.”

“네.”

알리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꾸했다. 그리고 테오는 그런 알리사의 반응을 통해 알리사와 이시르의 사이에 벌써 무슨 이야기인가가 오갔음을 짐작했다. 잠깐 말을 고르던 테오는 천천히 입술을 땠다.

“혹시 전하께서 네게 널 비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했어?”

“네?”

하지만 그는 알리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몇 단계 더 앞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생각지 못한 테오의 발언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든 알리사는 당황한 표정의 테오의 얼굴을 발견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 아니. 그 이야기는 아직 안하셨나 보네.”

테오는 결론부터 튀어나가 버린 제 입을 탓하며 손바닥으로 입술을 찰싹 소리 나게 때렸다.

“그렇다면 놀라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말이야, 실은 전하께서 널 비로 삼겠다는 말을 하셨어.”

“저를요?”

“응, 너를.”

테오의 단호한 대답에 알리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제 이시르가 말했던 제 곁에 있으란 말이 이런 뜻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행이었다. 지금에서야 확실해 졌다. 그건 알리사를 향해 한 말이 아니었다. 벨로나라는 여자, 제 곁에 있으라는 말은 분명 그 여자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겠지. 그렇다면 알리사가 불편해 할 이유는 없었다.

“아마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아요.”

알리사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말했다.

“전하께서 비로 삼고 싶어 하는 여자 분은 제가 아닌 걸요.”

“아냐, 전하께서 본인 입으로 분명히...”

“벨로나라는 여자 분이요.”

알리사는 뒤이어진 테오의 대답을 미처 듣지 못하고 덧붙였다.

“전하께서 비로 삼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분 이세요.”

“뭐?”

“틀림없어요, 저를 보면서 자꾸 그 여자 분의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제가 아닌 그 분을 찾아가면 될 거예요.”

알리사의 말이 끝나고 나서도 정적은 제법 길게 이어졌다. 어쩐지 뒤바뀐 것 같은 공기의 흐름에 참지 못한 알리사가 고개를 들었을 때, 테오는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건 대체 무슨 농담이야, 알리사?”

“네?”

농담이라니, 나름 성심껏 내놓은 답변이 농담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너 네가 말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알고 그러는 거야?”

“아뇨, 제가 만나 본적도 없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벨로나 하이텔.”

테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황태자 전하와 엘리자베스의 고모할머니이자 선황제 폐하의 누님이신 벨로나 폐하의 본명이야.”

테오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걸렸다.

“세간에 여왕님이라는 호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벨로나 1세라고도 불렸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야? 너 정말 역사에 관심이 없구나.”

정확히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닌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을 뿐이지만 알리사는 그런 그의 실수를 정정해 주지는 않았다.

“아무튼 황태자 전하께서 벨로나라는 여자 분을 비로 삼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테오가 여상하게 대꾸했다.

“패륜을 저지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그럴 리가 없다. 알리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입을 반쯤 벌렸다. 승하하신 여왕 폐하의 본명이 벨로나라면 황태자 전하께서는 어째서 그 이름을 그렇게 애타게 불러댔단 말인가.

이시르의 눈빛은 결코 여왕을 향해 나올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 담겨있던 것은 분노와 증오, 갈망, 애정... 알리사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감정들이 뒤섞인 복합체였다.

“아무튼 알리사,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말이야.”

테오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황태자 전하의 비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테오의 눈빛이 전에 없이 낮게 내려앉았다.

“처음에는 나도 그 분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 분이 너를 비로 삼겠다며 들이댄 이유가 그럴싸하다고 여겨 말리지 않았지만... 역시 이건 아닌 것 같아. 전하는 그냥 너를 비로 삼을 그럴싸할 핑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 분명 이대로라면 그 분과 내가 함께 꿈꿨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지도 몰라. 당연한 말이겠지만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나는 네가 이곳을 떠나주었으면 좋겠어.”

“네?”

전혀 예상치 못한 테오의 말에 알리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황태자 전하의 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은 알리사에게도 다행인 일이었다. 알리사에게는 이시르의 비가 되어야 할 이유도 목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죄다 제쳐놓고 이곳을 떠나라니.

“말 그대로의 의미야. 아, 엘리자베스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는 마. 이건 내 독단으로 하는 말이니까.”

여상하게 중얼거린 테오가 엘리자베스가 빠져나간 문을 흘낏 돌아보았다.

“그 애는 오히려 네가 황태자 전하의 비가 되기를 바라는 눈치던데 다 꿈에 부푼 소리지.”

“저기, 시트리안 공자님.”

“네가 무슨 말을 할지는 나도 알아. 너는 황태자 전하의 비가 될 생각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너도 네 주제를 알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알리사, 그건 네가 거절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테오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다.

“내가 모시는 분께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황태자 전하께서는 약간 독단적인 면이 있어. 한 번 무언가에 꽂히면 쟁취할 때 까지 거기에만 몰두하는 게 황태자 전하시니까. 그런 황태자 전하라면 틀림없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황태자비로 삼으려 들겠지. 나는 네가 황태자비가 되어 나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거나 그런 게 두려운 게 아냐. 내가 두려운 건 황태자 전하께서 원하신 바를 이룬 후에 불어올 폭풍이야.”

테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하게 변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황태자 전하의 위치는 위태로워. 너는 모르겠지만 황제 폐하의 애첩..., 모니카 황비가 회임을 했어. 모니카 황비가 회임한 그 아이 때문에 황태자 전하의 입지가 흔들리는 건 시간문제일거야. 실제로 이미 황태자 전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몇몇 귀족들이 호시탐탐 황태자 전하를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황제 폐하조차 그들을 모른 척 하는 실정이거든. 그런 와중에 네가 황태자비가 된다면 분명히 넌 황태자전하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거야.”

“저는...”

“그러니 떠나줘.”

테오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 아버지가 진 빚은 내가 갚아줄 수 있어. 네가 지낼 곳도 내가 마련해 주고 앞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 돈을 쥐어 줄 테니 먼 곳으로 떠나줘. 황태자 전하가 널 찾지 못할 곳으로 멀리멀리.”

“...아니요.”

잠깐 동안 망설이듯 입술을 꾹 물었다 땐 알리사가 고개를 내저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어, 왜?”

알리사가 거절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테오의 얼굴에 낭패의 빛이 스쳐지나갔다.

“켄이 절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알리사의 입에서 떨어진 대답은 너무나 허무해서, 테오의 입가에 잠깐 웃음기가 어렸다가 사라졌다.

“설마 말하고 떠날 생각이었어?”

“네?”

“남매 같은 사이라고 했지? 켄 경에게 듣자하니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다고. 켄 경이 네 보호자를 자처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만약 네가 떠나겠다고 한다면 켄 경은 너를 붙잡거나 아니면 너를 따라나서겠다고 하겠지. 하지만 너는 켄 경이 널 따라 떠나기를 원하지는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 너는 결국 이곳에 남는 걸 선택할 거야,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한 거고 맞지?”

“...네.”

“하지만 두 사람은 진짜 남매가 아니잖아.”

테오가 일침 했다.

“켄 경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혼자 떠나. 켄 경에게 듣자하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사가 되기를 꿈꿔왔다던데 아무런 혈연관계도 아닌 소꿉친구 때문에 코앞까지 다가온 꿈을 포기하는 건 너무 잔혹한 처사지 않겠어? 응?”

테오가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잊지 말길 바라. 만약 네가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우긴다면 나는 언제든지 켄 경의 꿈을 좌절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협박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떨려왔다.

“황태자 전하의 감정 때문에 제가 떠나야 한다는 건 불합리해요.”

그럼에도 그 불합리에 따지고 들지 못하는 것은 현격한 신분 차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억울하기는 매한가지다. 이시르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리사가 알 게 무어란 말인가.

“응, 협박이지.”

테오는 순순히 시인했다.

“대의를 위한 것이니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는 말아줘.”

그렇게 말하는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에 알리사는 입술을 꾹 깨물며 뒤로 물러났다. 시트리안 공자는 분명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공과 사가 확실한 사람이었다.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새벽에 판자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놓인 다리 앞으로 사람을 보낼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나와야 해. 그 정도쯤은 알고 있지?”

상냥한 목소리로 내뱉어지는 협박에 알리사는 아무 말도 못 한 채 문 뒤로 물러났다.

“네가 정말 켄 경을 위한다면 나올 거라고 믿어.”

알리사는 대답 없이 방문을 열었다.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낯선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계단 아래 창가 앞에 등을 보이고 서 있는 엘리자베스가 있었다. 알리사는 그녀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고 건물을 빠져나왔다.

불합리하다 여기면서 끝내는 새벽에 홀로 빠져나올 자신을 알고 있어 화가 났다. 그리고 그 분노의 불꽃은 생전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여왕에게로 향했다.

황태자 전하가 부르짖던 그 이름이 서거하신 여왕폐하의 것이라면 왜 이시르가 그녀를 여왕의 이름으로 불러대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를 겁탈하려 들었던 하이텔 공작 역시 그의 고모님을 운운하며 그녀에게 덤벼들지 않았던가. 하이텔 공작의 고모 되는 이가 바로 여왕이었으니 이 쯤 되면 이미 죽고 없는 여왕폐하가 원망스러웠다.

그놈의 벨로나, 벨로나. 그놈의 금발, 금발! 만약 제가 금발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녀와 같은 옅은 빛의 금발을 지닌 사람은 흔치 않기는 해도 길에서 가끔 마주치곤 했다. 그렇다면 이시르가 그녀에게 자꾸만 집착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 전 여왕과 그녀의 얼굴이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자 또다시 분노가 밀려왔다.

여왕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여왕의 초상화가 민간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축제일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당장 보지 않으면 안됐다. 저를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만든 그 여왕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여왕의 초상화가 있는 곳은...

“신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내일 그녀가 있을 곳은 더는 이곳이 아닐 테니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

궁에 심어둔 첩자를 통해 들려온 모니카 황비의 임신 소식은 대신관 미켈을 미소 짓게 했다. 그가 간신히 쌓아올린 부와 명예와 권력 따위를 빼앗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황태자를 처리하고도 안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았나.

모니카 황비가 아들을 낳아준다면야 더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상관은 없었다. 이미 벨로나 여왕이 최초로 여왕의 자리에 오른 전례가 있기에 또다시 여왕이 탄생한다 해도 대중은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눈엣가시 같은 황태자를 치워버릴 발판은 안정적으로 만들어졌으니 이제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약점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이시르의 평판은 제법 좋은 편이었고 아주 사소한 결점 따위는 그에게 흠집하나 남기지 못할 터였다. 황태자를 와해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좋으련만 마땅한 수는 보이지 않았다.

“미켈 님.”

신전의 정원을 가만히 돌아다니고 있던 그에게 아무런 무늬도 그려져 있지 않은 회색의 로브를 쓴 신관하나가 다가왔다.

“그 미치광이 노인이 또 찾아왔습니다. 어찌할까요?”

80이 훨씬 넘은 노인 치고는 미끈한 이마 위로 깊은 주름이 팼다. 쯧, 혀를 한 번 찬 미켈은 여왕에게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미치광이 노인을 떠올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내가 나가보지.”

미켈은 그 미치광이 노인이 미쳐버리게 만든 것에 일조한 사람이었고 제 아무리 냉혈한인 미켈이라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남아있었기에 그 노인을 매섭게 내 칠 수 없었다. 그러고 보니 미켈의 입장에서는 그를 노인이라 말하기도 우스웠다.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닌 탓에 마치 미켈과 같은 연배의 노인처럼 노후해진 그였지만 미켈과 그 노인의 나이 차는 열다섯 이상이었다.

노인은 신전의 입구에 붙들린 채였다. 장정들의 손아귀에 붙잡혀 몸을 버둥대는 노인은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제대로 씻지 못해 원래는 백발이었을 머리카락과 수염이 흙먼지에 새까맣게 물들어 뒤엉켜 있었다.

“폴.”

“으어, 으어어어어!”

장정들의 손에 붙잡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웅얼거리던 노인이 미켈을 발견한 순간 경기를 일으키며 장정들의 뒤에 숨으려 애썼다. 그러나 장정들은 그런 노인을 단단히 붙든 채로 미켈의 앞으로 들이댔다.

“폴, 폴. 이 한심한 놈아.”

조곤조곤 속삭이는 미켈의 눈동자에 불쾌함이 가득 찼다.

“반란군의 군주도, 여왕도 이미 죽었어.”

“으어어, 으어어어!”

“네가 용서를 구할 상대는 이미 남아있지도 않은데 너는 왜 아직 살아 있느냐.”

스스로 내뱉고도 우습다 여겼던지 미켈의 한쪽 입 꼬리가 들썩였다가 도로 제자리를 찾아내려갔다.

“그 쓸모없는 목숨, 진즉 죽여 없애야 했던 건데. 벨로나가 너를 감싸고 돌지만 않았어도.”

쯧, 다시 한 번 혀를 찬 미켈의 이마가 미묘하게 구겨졌다. 노인이 갑자기 조용해 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고, 공주...”

미켈의 어깨 너머로 시선을 돌린 노인 폴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에 미켈의 이마가 더더욱 찌푸려졌다.

“공주님, 공주... 공주님 제가 잘못...”

“뭐지? 어딜 보는 게냐.”

“공주님, 제가, 제가 잘못...”

자꾸만 앵무새처럼 말을 되풀이하는 폴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린 미켈의 몸이 문뜩 멎었다. 한 곳에 굳어져 움직일 줄 모르는 미켈의 잿빛 눈동자에 한 사람의 인영이 고스란히 내담겼다. 미켈은 잠깐이나마 시간을 역행해 과거로 돌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그도 아니라면 제가 노망이 나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공주...”

미켈의 눈이 가늘어졌다.

“벨로나?”

그럴 리 없다고 여겨 다시 한 번 돌아보아도 분명 벨로나였다. 그것도 젊은 시절의 벨로나. 아직 여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그저 많고 많은 왕의 자식들 중 하나였던 시절의 벨로나가 신전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미켈 님, 이 노인은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들 해.”

홀린 듯 멍하니 다가서는 미켈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켈은 반사적으로 대꾸했다. 평소대로 한다면 폴은 3일간 좁은 독방에 가둬졌다가 신전 바깥으로 내보내 질 것이다.

미켈의 관심은 더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미켈은 이제 그에게서 등을 돌린 채 신전의 행정직을 도맡아하는 평사원에게 말을 걸고 있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로 길게 늘어진 백색에 가까운 금발은 틀림없는 벨로나의 색채였다. 한 때 나마 욕정을 품었던 그 색채를 어찌 쉬이 잊겠는가. 하지만 옷차림은 벨로나와 달리...

“낡았군.”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 컸던 것인지 제 앞에 선 금발 여자의 어깨가 움찔했다. 여자의 얼굴이 미켈에게로 돌아왔다. 한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틀림없는 벨로나였다.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대신관님.”

미켈을 알아본 평사원이 미켈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눈앞에 선 여자의 눈이 덩달아 커졌다. 그리고 그 모습마저도 그가 기억하는 벨로나의 모습이었다. 미켈은 요란하게 뛰어대는 제 심장을 알아차리고는 진정하기 위해 애를 썼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녀가 돌아온 거라면 그에게 복수하기 위함 일 텐데, 그녀가 제게 달려들면 어떡하나. 이대로라면 제대로 된 저항한 번 하지 못하고 목이 뜯겨나갈 것이다.

“저기.”

그러나 여자는 미켈에게 살짝 고개 숙여 인사 했을 뿐 별 다른 관심은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순식간에 고개를 돌려 미켈에게서 등을 보였다.

미켈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벌하기 위해 찾아온 귀신도 악마도 무엇도 아니었다. 그녀의 눈도 녹색이 아닌 푸른색이었다.

당연한 일일 것이다. 신조차 존재하지 않는 데 귀신이니 악마니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뻔한 수순이다. 저 여자는 단순히 벨로나와 닮은 여자일 뿐인 것이다. 놀라울 정도로 목소리마저 닮아있지만.

“어째서 안 되나요?”

“원래 축제 기간이 아니면 민간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정말 잠깐이면 괜찮아요. 잠깐만, 잠깐만 보게 해주세요.”

뒤늦게 그들의 대화 내용이 귀에 꽂혔다.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던 미켈은 그것이 2층에 있는 여왕의 초상화를 지칭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한 박자 늦게 그의 영리한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벨로나와 소름끼칠 정도로 닮은 여인이 어째서 여왕의 초상화를 찾는 것인지 궁금도 했으나 그 전에 그녀의 쓰임새가 먼저였다. 벨로나와 끔찍이 닮은 이 여인을 이용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잠깐 동안 제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던 미켈의 머리에 번뜩이는 생각 한 줄기가 스쳐지나갔다. 미켈의 입가에 가식적인 미소가 하나 걸렸다.

“실례하지만.”

미켈은 알리사의 뒤에서 나직이 속삭였다.

“그 문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해가 산등성으로 넘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수도 전역을 붉게 물들인 석양은 새하얀 신전의 외벽마저 붉게 물들였고 그 붉은 빛은 창문을 넘어 대신관 미켈의 집무실 소파에 조금 못 미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알리사의 푸른 눈이 그 붉은 빛을 가만히 응시했다. 불안을 감추지 못한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채 조금의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미켈이 알리사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고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찻잔을 내려다본 알리사는 아까보다 조금 더 주눅이 드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녀의 앞에 내 놓은 것은 엘리자베스의 집에서 본 것만큼 고급스러워 보이는 찻잔이었다.

“제가 이 귀한 걸 어떻게...”

“마음 놓고 먹도록 해요. 난 이 신전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니.”

그렇게 말하는 미켈의 두 눈이 곡선을 그리며 가늘게 휘어졌다. 눈 옆에 자글자글하게 나 있는 주름 때문일까. 인심 좋아 보이는 미소였다.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미켈입니다. 이곳의 대신관이죠.”

“아, 저는 알리사 더스트입니다. ...대신관 님.”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던 알리사가 황급히 호칭을 덧붙였다. 대신관 씩이나 되는 이런 사람이 왜 그녀를 보자고 한 걸까? 혹시 여왕의 초상화를 보여 달라 막무가내로 떼 쓴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일까?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의 무모함이 얼마나 한심한 짓이었던 것인지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정말로 그 여왕의 초상화가 보고 싶었다.

“더스트. 먼지라... 진짜 성 입니까?”

“아, 아뇨.”

알리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내저었다.

“원래는 이름이었는데 알리사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 성으로 쓰게 됐어요. 저는 천민이라 원래 성이 없는 걸요...”

“스스로를 천민이라 호칭하다니, 돌아가신 여왕 폐하께서 들으신다면 통탄하시겠습니다. 그 분은 언제나 모든 백성들이 평등함을 이야기하셨죠.”

“저, 그 여왕폐하요.”

생각지도 못한 데서 들려온 언급에 알리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어올렸다. 미켈의 덤덤한 얼굴에서 기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 분께서 저랑 정말 닮으셨나요?”

알리사는 질문을 내뱉고 나서야 자신이 또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 했다. 한낱 천민과 여왕 폐하가 닮았냐는 질문이라니. 어쩌면 대신관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기분 나쁜 물음이 없을 지도 몰랐다.

“죄송합니다.”

알리사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말아 쥐었다.

“제가 실언을...”

“아닙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알리사를 부드러운 노인의 목소리가 감싸 안았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인 것도 당신과 여왕폐하가 너무나도 닮아있던 탓이니까요.”

그런 그의 말에 알리사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어올렸다. 미켈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저는 여왕 폐하가 당신과 비슷한 나이일 때부터 여왕 폐하를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여왕 폐하를요? 그럼 대체...”

“올해로 89세입니다.”

덤덤하게 이어진 미켈의 대꾸에 알리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외적으로 아무리 봐도 그는 결코 곧 90세인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기껏해야 70대이겠거니 생각했는데 89세라니. 동안도 이런 동안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나이보다 덜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저를 좋아하지 않는 세력들은 능구렁이가 원래 오래 산다며 비꼬고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며 미켈은 허허 웃었다.

“이 대신관이라는 자리도 여왕 폐하께서 안겨주신 자리죠. 혹, 여왕 폐하 이전에는 신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종교가 탄생한 기간이 너무나도 짧은 것 치고 우리 제국의 신앙은 여타 왕국에 비해 굉장히 견고한 편이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미켈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신앙을 이용하면 백성들을 화합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여왕 폐하께서 생각하셨죠. 여왕 폐하가 아니셨다면 오늘 날과 같은 에트로시아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왕 폐하를 따른 것도 그 분의 그런 면모를 존경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신관을 자처하여 귀족이었던 제 성을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 여왕 폐하와 닮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며 스스로를 대견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미켈을 뿌듯한 얼굴로 말을 마쳤다. 하지만 알리사는 그의 말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여왕폐하와 닮은 얼굴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곤욕을 치렀기 때문이다. 하이텔 공작이고 이시르고 간에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법이 없었다.

“그러고 보니 여왕 폐하의 초상화를 보길 원하는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알리사는 망설였다. 누군가에서 함부로 얘기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의 속에 담긴 응어리를 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이 사람에게라면 털어놓아도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라면, 신관인 그라면. 고해성사를 하듯 풀어놓아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떠날 거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을 지위와 신분을 가진 이 분에게만은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녀가 처한 현실이 다시 한 번 실감이 나서. 아무런 힘이 없는 천민이라, 권위 있는 자가 내리는 명령에 저항할 수 없는 그녀의 처지가 너무나도 날카롭게 그녀의 온 몸을 난도질해서.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군요.”

미켈이 말했다. 마치 그녀를 이해한다는 것처럼.

“제가 감히 예상컨대 여왕 폐하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물음을 듣는 순간 간신히 버티고 있던 둑이 터져버렸다. 알리사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미켈의 은근한 물음에도 알리사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만약 그에게 털어놓았다가 일이 잘못되어 켄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알리사는 말했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켈의 목소리가 알리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하지만 언제든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다면 저를 찾아오세요. 신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알리사는 미심쩍음을 가득 담아 질문했다. 알리사는 신이 없다 믿었다. 그런 그녀에게 신의 존재를 믿으며 받들어 모시는 신관이 그녀에게 손을 내민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물론입니다.”

미켈은 잔잔하게 웃었다.

“신은 사랑하는 자식들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대답이 늦는다 해도 신은 언젠가 당신의 목소리에 응답할 겁니다.”

상냥한 대답과 미소. 알리사는 가슴속 깊은 곳에 져 있던 응어리가 천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알리사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 할 필요 없습니다. 신의 대리인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아무튼, 여왕 폐하의 초상화를 보는 건 대신관의 권한으로 당장이라도...”

“미켈 님.”

다급한 노크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 목소리에 알리사와 미켈의 고개가 동시에 문을 향해 돌아갔다. 미켈이 무어라 입을 열기도 전에 벌컥 열린 문 너머에는 신관 하나가 다급한 숨을 몰아 내쉬며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워낙 급한 일이라.”

신관이 망설이듯 알리사의 눈치를 살피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황궁에서 급하게 전갈이 와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황궁에서?”

한순간, 미켈의 얼굴에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 알지 못할 표정에 알리사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왜 이러지? 그러나 영문 모를 그 감각을 헤아릴 틈은 없었다. 순식간에 표정을 뒤바꾼 미켈이 전의 상냥한 미소와 함께 알리사를 돌아보았다.

“죄송합니다. 오늘 구경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애석하게도 제게 일이 생겨버렸군요. 혹, 가능하다면 내일 오시겠습니까?”

“내일...이요.”

알리사의 표정이 흐려졌다. 내일이면 알리사는 이 도시에 없을 것이다. 그녀는 테오의 명을 받아 그녀를 데리러 올 이를 따라 이곳을 떠날 테니까. 오늘이 아니면 여왕의 얼굴을 알게 될 기회는 영영 없을 게 분명하다.

그런 알리사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미켈은 알리사의 곤란한 표정을 다르게 이해한 모양이었다.

“내일이 곤란하면 그 이외의 날 언제든 시간이 날 때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참 상냥한 요구가 아닌가. 그 이전까지 단 한 번도 그녀를 배려해 주는 높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알리사였기에 더 이상 미켈을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올게요.”

꼭이란 단어를 붙이지 못하는 것은 기약하지 못할 약속이기 때문이다. 알리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웅은 않겠습니다. 보다시피 일이 생기는 바람에...”

“괜찮아요,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떠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대신관실의 문을 닫기 직전, 알리사는 미켈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문이 탁 소리를 내며 닫혔다. 신전을 빠져나온 알리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어느새 어둡게 내려앉아있었다.

문이 탁 소리와 함께 닫힌 순간, 미켈의 입가에 내려앉았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늘 증오어린 표정으로 분노어린 말들을 내뱉었던 이의 외양을 가진 사람에게 듣는 감사인사는 상당히 불쾌하군, 그렇지 않나?”

“예?”

아무 것도 아닐세. 어리둥절히 반문하는 신관에게 미켈이 나지막하게 대꾸했다.

“그래서.”

미켈은 이제 제 곁으로 가까이 다가온 신관에게 한쪽 눈썹을 찌푸려 보이며 입을 열었다.

“얼마나 급한 사안이기에?”

“그것이 황후 폐하께서 자살을 시도하셨다 하여...”

“뭐라?”

가늘게 뜨였던 미켈의 두 눈이 확장됐다.

“황후가, 황후 폐하가 자살을 시도해?”

“예. 지금 목숨이 위태롭다 하여, 한시바삐 가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 서두르는 게 좋겠군.”

미켈의 걸음이 분주해졌다. 황후가 자살을 시도하다니. 미켈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23년 전, 당시에는 하이텔 공자였던 현 황제에게 열여덟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집온 현 황후는 야망이 있고 영민한 여자였다. 그런 점에서 현 황후는 미켈의 마음에 꼭 들어차는 여자였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 황후와 황제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황위 계승권자 이시르 하이텔이 그가 이루어 낸 모든 업적을 붕괴시킬 각오가 된 위인이란 것을 알게 되기 전 까지.

물론 이시르가 황위에 오르고 미켈이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을 무너트릴 때, 그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란 것은 분명했으나 미켈은 그가 쌓아 둔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생각만 해도 속이 쓰렸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황제와 현 황후의 사이에서 그가 이시르를 대신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후계자가 태어나는 일은 요원해 보였고 미켈은 결국 황제를 꼬드기기 시작했다. 그는 그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여자를 이용해 황제를 현혹 시켰고 마침내 그녀를 황비의 지위에 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황후가 그에게 대적해 왔다는 점이었다. 황후는 틀림없이 황제를 사랑했다. 그녀는 스스로 야망도 있고 권력욕도 있는 여자였으나 그 전에 황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섰기에 미켈은 황후가 그녀를 그런 자리로 밀려나게 만든 이시르를 원망하고 증오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황후는 황제의 변절에 대해 이시르를 탓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시르를 두둔하는 쪽을 택했다. 언젠가 한 번 그런 황후를 향해 은근한 물음을 던진 미켈에게 황후는 어떤 어미가 제 자식을 내치겠냐며 덤덤하게 이야기 할 뿐이었다.

미켈은 그런 황후의 말이 우습다 여겼다. 성장과정에서 자식을 내치는 어미를 직접 보고 경험한 그는 어미가 자식에게 가지는 모성애를 맹신하지 않았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는 본성이 아니다. 무수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시르를 믿고 그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황후가 자살을 시도한다? 그녀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시해하려 들면 모를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퍼뜩, 불안한 감정이 온 몸을 훑고 지나갔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더냐?”

“그, 방 안에서 독약을 드셨다고...”

신관의 대꾸에 미켈의 양 미간이 엉망으로 구겨졌다.

“독약?”

“예, 시녀가 발견하여 구조하였다고 하는데 아직도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미켈은 황후에게 벌어진 일의 전말을 예상했다. 독약. 모니카 황비는 이전에 미켈을 통해 약초학을 배운 적이 있었다. 약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녀라면 분명 독약을 제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어떠한 전갈을 넣은 적도 없고 그녀에게서 어떠한 전갈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녀가 독단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필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괘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어딜 제 마음대로 이런 행동을 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이 다 누구의 덕인데 제 주제를 모르고...

“그렇다면 폐하께서 해독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약재를 요구했겠군.”

“아, 아닙니다. 황실에서 전달해 온 것은 황후폐하의 안녕을 빌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라?”

미켈의 발걸음이 문득 멎었다.

“안녕을 빌어?”

“예, 아무래도 황실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제 아무리 가망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는 하나 황후가 아직 죽지 않은 이 시점에 황후의 명복을 빌어달라며 대신관을 부른다? 황제는 황후가 죽을 거라 장담이라도 한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죽기를 바란다는 것인가. 어쩌면 후자일지도 몰랐다.

황태자가, 이시르 하이텔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조금은 궁금해졌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황후와 그런 황후를 완전히 놓은 마냥 행동하는 황제. 이시르 하이텔이 이 사태를 읽어내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모두가 그에게서 돌아 선 정세를 읽어내고 포기 하던가, 아니면 좀 더 혈안이 되어 덤벼들던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겠군.”

“예...?”

“아무 것도 아닐세. 빨리 가도록 하지.”

죽음의 그림자가 황궁을 덮치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은 황궁의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가던 이시르의 걸음에 좀 더 박차가 가해졌다.

이시르는 막 황제를 알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황후가 자살시도를 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황후의 전속 시녀를 처형한 것에 대해 황제에게 분노하기 위함이었다.

황후는 주변 모든 사람이 황비의 사람일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장 아꼈던 전속 시녀 하나만을 곁에 두고 모두를 물린 상황이었다. 그러니 황후가 누구를 만났는지 알고 있는 것도 전속 시녀뿐이었고 그 때문에 그녀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러니 목을 치기 전에 수상한 자의 침입이 없었는지 등에 대해 추궁을 했어야 했는데 황제가 그 과정도 없이 독단으로 시녀의 목을 친 것이다. 마치 범행을 은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걸음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시르는 제 얼굴 근육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황제에게는 좀 더 훌륭한 의원을 구해 어떻게든 황후를 구하려는 노력을 할 생각 따윈 전혀 없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황제는 황후의 죽음을 원했다. 황후가 죽고 사라져 황비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황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 질 테니.

“차도가 있나?”

황후의 방으로 들어선 이시르는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인 궁의를 붙잡고 질문했다.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은?”

“발견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앞에서 고개를 조아린 궁의는 약재가 담긴 대야를 들고 황후가 누워있는 침대를 향해 걸어갔다. 황후의 침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의원은 총 다섯이었다. 이들은 황후의 목숨을 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단지 그들의 눈앞에 있는 이시르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다. 제 아무리 미움 받고 있다 해도 이시르는 황태자였다. 아직까지는.

이시르는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억지로 떼어 황후의 곁으로 걸음을 옮겼다. 창백한 낯으로 누워 있는 황후의 새까만 머리카락이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었다. 주름진 눈꺼풀 아래에 감춰진 기품 있는 잿빛 눈동자를 떠올리던 이시르의 손이 황후의 이마 위에 얹어진 천 위로 향했다.

물 묻은 천으로 정성스레 황후의 얼굴을 닦아 낸 그는 나지막한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지금쯤이면 알리사가 깨어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녀를 곧장 찾아갔어야 했으나 황후의 소식을 듣고 나자 그럴 수 없었다. 황후는 다시 시작한 이번 생애에서 이시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이제 그를 떠나려 한다. 이시르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자살이라고...”

하얗게 질려있는 황후의 뺨을 닦아내던 이시르가 가만히 중얼거렸다. 그는 황후가 자살을 시도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그를 향해 황제를 목을 먼저 물어 뜯으라 종용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목숨을 내버릴 리가 없었다.

게다가 그를 향한 유언 하나 남기지 않고 그녀가 목숨을 끊는다고? 엉성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누군가 그녀를 음해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녀가 죽으면 득을 보게 될 누군가가.

“모니카 황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들라하라.”

예상치 못한 이의 방문이었다. 느리게 고개를 돌린 이시르의 눈에 옅은 갈색의 머리를 위로 틀어 올린 그 또래 여인이 비쳤다. 입매를 일자로 굳힌 그녀의 헤이즐넛 색 눈동자가 이시르를 담았다.

가벼운 목례. 이시르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시선이 모니카 황비의 배로 향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회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더니 아직 배가 부르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황후폐하의 상태가 많이 위독하다 하여 찾아뵈었습니다.”

이시르와 고작 한 살 밖에 차이나지 않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확연히 어린 티가 났다.

“황제폐하께서도 들리지 않는 걸음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의 날선 목소리에 움찔하며 이시르의 눈치를 살핀 황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걸렸다.

“아랫사람이 되어 어찌 윗사람을 찾아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황비전하께서 제 윗사람이 되면 저를 찾아뵙지 않을 거라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황태자 전하께서는 황제가 될 것인데요.”

“확신하십니까?”

황비의 말에 가만히 질문한 이시르는 옅게 웃었다.

“저 조차 확신하지 못하는데 황비전하께서는 확신하시나 봅니다.”

“...물론입니다.”

한 박자 늦게 들려온 황비의 대꾸에 그는 입가에 띤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황후를 응시했다. 황후가 죽으면 가장 유리해 지는 것은 황비다. 하지만 현재 황제에게 가장 많은 총애를 받고 있으며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시르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황비가 위협을 무릅쓰고 황후를 시해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지나치리만큼 범행을 은폐하려 드는 황제의 태도가 이상했다. 만일 황제의 지시 하에 누군가가 벌인 일이라면 증인이 될 시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면 될 문제였다. 그 편이 좀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렇지만 황제는 굳이 증인을 죽이는 쪽을 택했다. 그것은 증인이 입을 열어 나올 이름이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이이기 때문이겠지.

황후의 궁에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으며 황후를 시해했다는 책임을 지게 되어서는 안 될 사람. 심지어 황제가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태도를 내보일 만한 유일한 사람. 위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건 모니카 황비가 유일했다. 뭔가 서서히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시녀는 이미 죽었고, 남은 것은 황후뿐이었다. 황후가 깨어나야 이 모든 답을 알 수 있었다.

“밖에 누구 있나?”

이시르는 모니카 황비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밖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쳤다. 모니카 황비가 아주 잠깐 움찔하는 것이 보였으나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고 동시에 바깥에 서 있던 기사가 하나 뛰어 들어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테오 경을 불러와라. 지금부터 이 황후 궁 일대는 시트리안 가문에서 호위하도록 한다.”

황후를 보호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이게 최선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는 황후가 깨어나기 전까지 모니카 황비가 범인이라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낼 필요가 있었다.

켄과 소피아의 판잣집 문을 열자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가볍게 열렸다. 천천히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던 알리사는 이상하리만큼 내려앉은 정적에 의문스러움을 느끼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켄이 기사가 된 이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는 한 번도 꺼진 적 없던 등불이 꺼져 있었다.

“할머니?”

알리사는 소피아를 부르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집안을 느리게 밟아 들어갔다.

“켄?”

지금은 켄이 돌아와 있을 시간임이 분명했고 아직은 소피아도 켄도 잠을 잘 시간이 아니었다. 알리사는 감으로 손을 뻗어 찬장을 찾아 그 위에 놓인 성냥을 양 손에 들었다.

어쩐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소피아 할머니와 켄이 그녀를 버리고 떠나버린 건 아닐까? 달달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고 성냥에 불을 붙인 순간 소피아가 늘 누워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보였다. 알리사는 하나, 둘, 집안의 등불을 밝혔다.

“켄.”

집 안에는 정말로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

알리사는 조급해 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이었다. 오늘이 할머니와 켄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시트리안 공자가 보낸 사람을 만나면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게 분명했다.

“켄, 할머니!”

마지막인데, 분명 마지막인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다. 얼굴을 보게 된다면 떠나기 싫다는 마음이 커질 게 분명했지만 그래도 더는 보지 못할 얼굴 마음에라도 실컷 담아놓고 싶었는데.

“어디 갔어요? 네? 대체 어디로...!”

좁은 집안을 거의 발작적으로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소리치던 알리사의 눈이 문득 소피아의 베개 위에 놓인 쪽지로 향했다. 알리사와 마찬가지로 글자를 정식으로 배운 적 없어 엉망진창으로 쓰여 있는 그 쪽지를 남긴 사람은 다름 아닌 켄이었다.

수도, 병원, 시장의 로렌의원. 몇 개의 단어를 겨우 읽어낸 알리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구겼다. 알리사의 이름이 쓰여 있지는 않았지만 알리사에게 보내는 게 분명했다. 소파아 할머니가 위독한 게 분명하다. 알리사는 읽지 못할걸 알면서도 몇 번이고 쪽지를 읽어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알리사는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허겁지겁 집안을 뛰쳐나왔다.

마을의 불량배들에게 쫓길 때와 다름없는 속도로 산을 뛰어 내려간 알리사는 몇 번이고 넘어질 뻔 했지만 그 때 마다 번번이 균형을 바로 잡고 의원으로 달려갔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로렌 의원을 겨우 찾아 낸 알리사는 몇 안 되는 병실을 뒤진 끝에 소피아와 켄을 찾아냈다.

미동하나 없이 꼼짝도 않고 누워 있는 소피아의 곁에는 켄이 양손을 맞잡고 이마에 댄 채로 앉아있었다.

“켄.”

알리사는 숨을 헐떡이며 켄의 이름을 불렀다. 켄이 멈칫하는가 싶더니 기도하던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알리사를 돌아보았다. 울기라도 한 듯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 되어 있었다.

“알리사.”

잔뜩 갈라진 목소리로 알리사를 부르던 켄이 알리사가 그의 가까이로 다가서자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오늘 밤이랑 내일이 고비래. 아직 제대로 못해 드린 게 너무 많은데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알리사, 나는 할머니가 없으면 안 돼. 할머니가 없으면, 할머니가 없으면...”

알리사는 기계적으로 중얼거리는 켄에게서 애써 시선을 돌려 침대에 누워 있는 소피아를 흐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메말라 있는 입술과 푹 꺼진 양 뺨, 잔뜩 찌푸려 져 있는 미간 등이 그녀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마지막에 대화 했을 땐 분명 건강하셨는데... 혹시 할머니가 위독해 진 건 나 때문이 아닐까? 할머니를 줄곧 간병해와 누구보다도 잘 보살필 수 있었던 내가, 아버지의 빚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할머니의 곁을 떠나버려서. 또 나 때문에...

“알리사.”

켄의 목소리가 멍하니 소피아를 바라보던 알리사를 현실세계로 끌어당겼다. 알리사는 자꾸만 밀려드는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애쓰며 다시 켄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켄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 무서워.”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는 할머니가 없는 삶이 상상이 안 돼.”

알리사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켄의 모습을 그날 처음 보았다. 알리사에게 켄은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고 굳건한 사람이었다. 어릴 적에나 지금에나.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그저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루 종일 기도 했어. 할머니를 데려가지 말라고, 제발 내 곁에서 할머니를 빼앗아 가지 말라고. 그런데 할머니는 전혀 나을 기미가 없어. 우리는 신에게도 버림받은 거야. 왜지? 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한 평생 나 하나만 믿고 사신 우리 할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삶에 여유가 좀 생기니까 할머니를 데려가려 하는 거지? 응? 알리사? 말해줘.”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절망이 그를 집어 삼키고 있었지만 알리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정말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었다.

“두 사람한테는 죄가 없어.”

알리사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쓰며 웅크려 고개를 숙인 켄의 양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정말이야, 두 사람한테는 죄가 없어.”

잠깐 동안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알리사는 고개를 숙여 켄의 머리카락에 뺨을 묻었다. 죄가 있다면 오히려 그녀일 것이다. 그간 보살펴 준 켄과 소피아의 은혜를 뒤로 하고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급급해 소피아를 제대로 간병하지 못한 그녀에게.

“아빠가 죽고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 이제 할머니마저 나를 떠나려고 해.”

고개를 숙인 채 멍하니 중얼거리던 켄이 고개를 들고 알리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절대로 날 떠나면 안 돼, 알리사.”

그 말이 알리사에게 얼마나 잔인한 요구인지, 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응? 알리사?”

어린아이처럼 고집스럽게 대답을 종용하는 켄을 멍하니 바라보던 알리사의 두 눈이 흐려졌다. 오늘 새벽에 시트리안 공작가에서 사람을 보내 올 것이고 그녀는 떠나야만 했다. 그에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과연 오늘밤 당장 떠날 수 있을까? 소피아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 혹 할머니가 정말로 돌아가시게 된다면... 알리사는 할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지는 않았다.

‘만약 네가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우긴다면 나는 언제든지 켄 경의 꿈을 좌절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

시트리안 공자의 말이 불안하게 맴돌았지만 알리사는 애써 외면하기로 했다.

“물론이지.”

알리사는 켄을 향해 덤덤하게 대꾸했다.

“내가 널 두고 어딜 갈 수 있겠어.”

미켈은 황후궁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마주친 황비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가 애써 표정을 바로 했다. 황비는 불안에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황비 전하.”

“오랜만입니다, 대신관님.”

미켈의 인사에 황비는 덤덤히 대꾸하는 듯 했으나 떨림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동시에 미켈은 황후에게 독을 쓴 것이 황비임을 확신했다.

“최근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어 황비 전하를 위한 약재를 좀 가져 왔는데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물론입니다.”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미켈의 핑계를 알아차린 황비는 순순히 만남에 응했고 그들은 곧 모든 호위를 물린 후 황비의 개인 응접실로 함께 걸음을 옮겼다.

“어리석은 계집애.”

응접실의 문이 닫히기 무섭게 표정을 굳힌 미켈이 처음 꺼낸 단어였다.

“황후 독살이라니, 네가 정녕 제정신이더냐?”

“저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황후가 심기를 건드려서 욱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미켈의 엄격한 목소리에 황비가 불안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를 믿고 궁으로 보낸 건 네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영민한 계집애라 생각해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지시하지도 않은 짓을 해 내 뒤통수를 때려? 이 궁에 너를 보내준 사람이 누구인데.”

“죄송해요...”

작게 중얼거린 황비가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 황비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미켈이 쯧하고 혀를 찼다.

“됐다. 이미 벌어진 일에 너를 계속 탓해봐야 무얼 해. 차라리 눈엣가시 같은 황후를 치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생각하는 편이 낫지. 그래서 약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간 것 같더냐.”

“분명 치사량 까지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죽지를 않아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이지만 어쩌면 곧 깨어날 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깨어나기 전에 손을 써야겠다 싶어 아까 황후의 침실로 찾아갔는데 이시르 황태자가 있어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시르 황태자가?”

“네.”

가만히 대꾸한 황비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시르 황태자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황후의 호위를 강화시켰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 시트리안 공작가에서 황후 호위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눈치 챈 모양이군.”

미켈은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시르 하이텔이 작정하고 나선다면 모니카 황비와 자신의 관계를 파헤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설령 그런 증거를 찾아낸다 해도 황후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 황비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대신관이 황비와 연관이 되어 있건 말건 그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아무래도 황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야겠다. 네 말대로 혹여 황후가 깨어나 그녀를 시해하려 든 범인이 너라고 지목하기라도 한다면 너는 물론이고, 너와 연관된 모든 사람의 목이 잘려 나갈게 분명할 테니 말이지. 나도 예외일 순 없을 테고.”

“황후궁은 시트리안 공작가가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황비의 몸에 주입할 독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미켈의 물음에 불안한 눈으로 미켈의 얼굴을 올려다본 황비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켈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퍼져나갔다.

모두가 잠자리에 든 깊은 새벽, 소피아 할머니가 깨어났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던 그녀의 얼굴이 엉망으로 일그러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소피아는 곧 끔찍한 비명을 질러댔고 켄과 알리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에 무력감을 느끼며 의원이 소피아에게 진통제를 먹이는 것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의사가 떠난 뒤에도 소피아는 앓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알리사는 시트리안 공자가 말했던 새벽이 지금쯤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나가지 않는다면 분명 시트리안 공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알리사는 갈 수 없었다. 그녀는 가선 안됐다. 시트리안 공자에게 소피아 할머니의 곁을 지키고 싶다는 알리사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는 없었다.

알리사는 양 손을 모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켄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그녀 역시 양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신은 믿지 않지만 그들이 기대고 의지 할 수 있는 곳이 신 밖에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이 상황이 현실감 없게 다가왔다.

잔인한 시간이 흐른다.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다. 알리사는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했다.

장시간 보초를 서느라 말라버린 목을 축이기 위해 벽에 기대서서 물을 마시던 테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황후 폐하는 여전히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시르는 무슨 생각인지 집무실에 들어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늦은 새벽이니 알리사는 지금쯤 수도를 벗어나고 있으려나, 하는 것에 문득 생각이 미쳤을 때 테오는 자신 휘하의 기사가 빠르지만 차분한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알리사를 밖으로 빼돌리기 위해 보낸 기사 중 한 사람이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테오는 목소리를 낮춘 채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기사에게 질문했다. 기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다.

“면목 없습니다.”

“설마 알리사가 잘못되거나 한건...”

“그게 아니고 그 분이 나타나지 않으셔서 그냥 돌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의 대꾸에 테오는 표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매를 굳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의 표정 변화에 기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테오는 표정을 풀 생각은 하지 않았다.

“확실해? 엇갈린 건 아니고?”

“확실합니다. 조금 전에 동이 텄는데 나타나지 않은 걸 보면 작정한 모양입니다.”

“그래, 그렇단 말이지.”

테오는 눈 커플을 내려 깔고 천천히 복도의 무늬를 훑어 내려갔다. 그가 그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음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켄 경이 어떻게 되든 제 알바가 아니라는 거겠지. 그것도 아니라면 켄 경과 죽고 못 살 관계이거나.

“그럼 본가로 가서 수습기사인 켄 경이 오늘 출근하는지 확인하고 출근 시간 이후로 내게 보고해 주겠어?”

“예, 그러겠습니다.”

테오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고개를 숙인 기사는 다시 빠른 속도로 궁을 벗어나 사라져갔다. 그런 기사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테오의 입가에 위험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는 이시르가 다시 알리사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워 지기 전에 알리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종지부 맺길 원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다시 테오를 찾은 기사는 켄이 오늘 출근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했다. 그에게서 결석계를 쓰겠다는 별 다른 연락도 없었다고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알리사가 켄 경에게 테오의 협박에 대해 털어놓은 모양이었다.

친남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녀 간의 특별한 사이도 아닌 것 같아 그 만큼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일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가 한참 잘못짚은 모양이었다.

“시트리안 경.”

하지만 테오가 기사에게 무어라 다른 지시를 내릴 틈은 없었다. 이른 아침부터 황후궁에 불청객이 찾아온 탓이었다.

“어쩐 일이십니까, 미켈 대신관님.”

대신관 미켈. 황태자를 늘 못마땅해 하며 호시탐탐 그를 끌어내리기 위한 기회를 엿보는 자.

“황제 폐하의 명에 따라 황후 폐하를 치유할 수 있는 해독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시르를 불러와야 할 모양이었다. 그를 안으로 들인 테오는 그 휘하의 기사에게 이시르를 불러올 것을 명령했다.

“대신관이 찾아왔다고?”

밤을 샌 탓에 충혈 된 눈을 한 채 서류를 넘기던 이시르는 그 뜻밖의 소식에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 황후 폐하를 치유할 수 있는 해독제를 가져왔다 하여...”

“그래서, 설마 그를 안으로 들였나?”

“예, 황제 폐하의 명이 있었다고 하여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젠장. 그 말을 듣는 순간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이 몰려왔다.

이시르는 밤새 뒤적였던 서류를 급하게 덮고는 복도를 달려가기 시작했다. 집무실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는 미켈과 모니카 황비가 사적으로 만난 적이 있음을 기록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황비가 정말로 범인이라면 대신관이 할 일은 하나 밖에 없었다.

아직은 황비가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만약 미켈의 방문 이후 황후가 죽는다면 그건 황비가 범인이라는 것이 확실해 지는 것이었다. 동시에 황후가 죽으면 이대로 끝이었다. 황후가 죽는다면 황비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릴 유일한 증인이 사라진다.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지지자가 사라지는 격이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다.

미켈이 건네 준 약을 받은 궁의들은 군말 없이 약물을 주사기 속으로 집어넣었다. 미켈이 황궁에 가져온 약들은 이미 몇 번 그 효능이 증명된 바가 있었고 황제는 신전의 약물을 전적으로 맹신한다는 것을 의원들은 잘 알고 있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 약물들은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황후 폐하께서는 계속해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고, 효과가 있다면 깨어나시겠지요.”

그렇게 말한 미켈이 주사기를 들고 있는 궁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테오는 불안감에 문 쪽을 끊임없이 힐긋거렸다. 테오에게는 황제의 명을 받고 찾아왔다고 말하는 미켈을 저지할 만큼의 힘이 없었다. 그러니 지금 미켈을 저지할 수 있는 건 이시르 뿐이었다.

주사기의 바늘 끝이 황후의 팔에 닿았다. 그리고 바늘이 살을 쑤시고 들어가려는 순간이었다.

“황태자 전하!”

“멈춰라.”

타이밍 좋게 문을 박차고 들어선 이시르는 거센 숨을 몰아 내쉬며 궁의들을 저지시켰다. 주사기를 꽂는 것을 멈춘 궁의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이시르를 바라보았다. 궁의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간 이시르는 궁의의 손에 들린 주사기를 빼앗아 들고 사나운 시선으로 궁의들을 노려보았다.

“약의 성분은 제대로 확인해 보았나.”

서슬 퍼런 이시르의 말에 궁의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용기 있는 궁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름 아닌 황후의 팔에 주사를 놓으려했던 궁의였다.

“대신관님께서 직접 가져온 약이라 따로 검토가 필요 없다 사료되어...”

“제 아무리 대신관께서 들고 온 약이라 하더라도 그게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거라 할 수 있다고 보나?”

“하지만 대신관님께서...”

“황태자 전하.”

상황을 지켜보기라도 하듯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던 미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당연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미켈을 의뭉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던 이시르의 입가에 비뚜름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제가 대신관을 의심할 리가 있겠습니까. 허나, 저는 대신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혹여 대신관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약에 나쁜 짓을 해 놓았다면 대신관께서 되레 독박을 뒤집어쓰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모니카 황비를 저격한 말이었고 미켈 역시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 미소 짓고 있는 이시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던 미켈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황태자 전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저는 그저 감읍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황태자 전하, 저는 제 주변에 두는 모든 이들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미켈이 이시르의 손에서 주사기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누군가 저지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주사 바늘을 자신의 팔에 꽂아 넣었다.

“전하께서 제 측근들을 믿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제 측근들의 결백함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신의 팔에 약물을 주입했다. 약물이 모두 팔 안에 들어갈 때 까지 표정변화 하나 없이 이시르를 바라보고 있던 미켈이 곧 빈 주사기를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다.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테오는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찬 얼굴로 미켈과 이시르를 바라보았다. 이시르는 매우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이제 제 측근들의 결백이 증명이 되었다면 챙겨온 여분의 약을 쓰시지요. 저는 다시 신전으로 가 약물을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묵례한 미켈은 아무렇지 않은 걸음으로 뒤돌아서서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방 안에 정적이 가득 내려앉았다. 테오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무렇지 않은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던 미켈의 발걸음이 점점 다급해 졌다. 그의 얼굴은 어느 순간부터 고통 속에 엉망으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미켈은 호흡이 점점 가빠오며 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안 된다. 아직은 안됐다. 황비의 궁이 코앞이었다.

“미켈 님?”

황비의 응접실 문이 열리고 닫히기 무섭게 미켈은 제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어졌다.

“해독제, 해독제를 다오. 해독제가 필요하다. 당장!”

미켈의 애타는 목소리에 황비의 걸음이 다급해 졌다. 허겁지겁 뭔가를 찾나 싶던 황비가 주사기를 가져와 미켈의 눈앞에 가져다 댔다. 재빨리 그것을 빼앗아 들은 미켈은 달달 떨리는 손으로 약물을 모두 제 팔로 주입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호흡이 아까보다 편해지기 시작하며 불안에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황비의 얼굴이 보다 또렷하게 시선 속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됐나요?”

그가 정신을 차린 것을 알아차린 듯 황비가 다급하게 질문했다.

“황태자의 방해가 있긴 했지만 잘 넘어갔으니 됐다. 내가 진짜 해독제를 들고 가기 전에 황후는 이미 죽고 없는 목숨일 테니.”

그런 그의 대꾸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던 황비의 두 눈이 행복한 빛을 담고 휘어졌다. 그런 황비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미켈의 입가에도 비릿한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곧 그가 바라마지 않는 이시르의 몰락이 찾아올 게 분명했다.

언제 잠이 들었던 걸까. 퍼뜩 잠에서 깨어난 알리사는 창문을 통해 새어드는 햇빛에 잠깐 인상을 찌푸렸다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앉아있던 의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감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켄이 흠칫 몸을 떨며 눈을 떴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꼼짝도 않고 있는 소피아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던 켄이 떨리는 손가락 끝을 소피아의 코 아래에 가져다 댔다가 안도 섞인 탄식을 내뱉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출근 시간이 지났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흐려진 듯도 싶었지만 켄은 곧 어제의 위태로웠던 모습을 감추고 싶어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알리사를 돌아보았다.

“할머니 덕분에 땡땡이도 다 쳐보고, 좋은 경험 했네. 그렇지?”

대답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멍한 눈으로 켄을 바라보던 알리사는 이내 웃으며 응, 하고 대꾸했다. 하지만 켄과 시선을 맞추지는 못했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묻지 못했는데 너 일은 어떻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거야? 난 솔직히 네가 내 쪽지를 볼 줄 몰랐어. 공작 저에서 한 번 일하기 시작하면 외출하기 힘들다고 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켄의 물음에 알리사의 입가에 어색한 미소가 내려앉았다가 사라졌다. 켄에게 공작 저에서 있었던 일을 곧이곧대로 말 할 수는 없었다.

“실은 나 잘렸어.”

“뭐?”

알리사의 핑계에 켄이 화들짝 놀라 반문했다.

“어쩌다가?”

“그냥, 내가 실수를 좀 했거든.”

알리사는 켄이 그녀의 핑계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랐다.

“설마 뭐 비싼 장식품을 깨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비슷해.”

“그런 대형 사고를 쳤다면 그럴 수도 있지. 설마 돈을 물어줘야 할 정도로 큰 사고를 친 건 아니지?”

“그렇지는 않아.”

그리고 알리사에게는 다행이게도 켄은 그런 그녀의 말을 진실이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혹은 진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눈감아 주기로 결정했다던가.

“그럼 이제 다시 집에 있겠네.”

“응.”

“그러면 밤늦게 집에 들어와도 외롭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웃는 켄의 미소가 흐렸다. 알리사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감각 속에 주먹을 꾹 말아 쥐었다.

아냐, 켄. 소피아 할머니는 분명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괜히 저주가 되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까봐.

알리사와 켄은 다시 침묵을 지키며 서로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무거운 공기 속에 켄은 소피아의 얼굴을 응시한 채, 알리사는 소피아의 손가락 끝을 응시 한 채 가만히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소피아의 의식이 돌아왔다. 알리사는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다.

궁의들의 걸음이 다급해졌다. 황후의 숨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궁의들은 어떻게든 황후를 살리기 위해 그들이 들고 있던 약물들을 모두 털어 황후에게 쏟아 붓기 시작했다. 입으로 넣을 수 있는 약은 입으로 넣고 주사로 넣을 수 있는 약은 주사로 넣는다.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가진 약이 아니라면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황후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창백해졌고 차가워졌으며 일그러졌다. 의식이 없다하여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황후는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다.

이시르는 황후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무력함을 느꼈다. 이것은 흡사 60년 전의 먼 옛날, 죽어가는 그의 동지들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때의 무력감과 같았다. 그 때의 그는 권력을 지니지 못했기에 동지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권력을 지녔음에도 그는 그에게 소중한 사람 하나조차 지키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시르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냈다.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은 그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60년 전, 그토록 멀어보였던 것은 고작 이 정도의 힘밖에 지니지 못했다. 제 소중한 사람 하나 지킬 수 없는 이러한 힘을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가.

“황후 폐하!”

그의 곁에 있던 테오가 용수철처럼 튕겨 올라 소리 질렀다. 동시에 고개를 돌린 이시르는 황후의 몸이 침대 위에서 크게 한 번 덜컥 거렸다가 서서히 침대 위로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갑작스러운 팽창과 수축의 순간이 지나고 궁의 중 한 사람이 떨리는 손끝을 황후의 팔목으로 가져다 댔다. 한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느낌이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다.

황후의 맥을 재는 궁의의 얼굴이 조금 창백하게 질리는 것도 같았다. 침을 삼키고 망설이는가 싶던 궁의가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

“면목 없습니다.”

그는 또다시 그의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승하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래왔으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다. 그런데 어째서 새삼스럽지 않은 이 상황이 이렇듯 현실감 없게 느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인기척이 느껴졌다. 느리게 고개를 돌린 이시르는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미켈의 가증스러운 얼굴과 마주했다. 그의 손에는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해독제가 들려 있었다. 이시르는 미켈과 황비의 사적인 만남을 담고 있는 간밤의 서류에 대해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 서류 역시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황비의 유죄를 증명해줄 유일한 증인인 황후가 죽었다. 그러니 황비와 미켈이 한통속이라는 걸 이제와 밝힌다한들 그건 이시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황후 폐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이시르는 최대한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으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대신관께서는 황후 폐하께 예우를 갖추어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저는 황제 폐하께 이 사실을 알리러 가겠습니다.”

테오가 뒤에서 그를 작게 부르는 소리가 났으나 이시르는 그를 무시했다. 지금은 그 누구도 곁에 두고 싶지 않았다. 황후 침실의 거대한 문이 쿵 소리를 내며 그의 뒤에서 닫혔다.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이시르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는 어둠 속에 내던져 진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힘들게 뜨인 소피아의 두 눈이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켄에게로 한 번, 알리사에게로 한 번 움직였다. 가쁜 숨을 내뱉으며 천장을 똑바로 응시한 소피아가 손을 들어 올려 까딱, 그들을 향해 손짓했다. 가까이 오라는 신호였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 켄과 알리사는 소피아가 놀라지 않을 속도로 황급히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런 켄과 알리사의 얼굴을 한 번에 담기라도 하듯 몸을 조금 움직여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 소피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고목나무 같은 미소를 짓던 그녀의 양 팔이 힘겹게 올라와 각각의 손으로 알리사와 켄의 뺨을 얼러 만졌다.

“할머니.”

켄의 목소리는 잔뜩 메여 있었다.

“할머니, 무리 하지 마. 병원비는 충분하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켄의 다급한 덧붙임에 소피아가 그게 아니라는 듯 느리게 눈을 깜박였다. 켄이 말을 멈추고 정적이 찾아왔다. 켄과 알리사의 뺨을 만지던 소피아의 손이 경련함과 동시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다.”

사랑한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생명의 빛이 꺼짐과 동시에 그녀의 양 팔이 그녀의 몸 위로 느리게 추락했다. 알리사는 켄의 절망어린 비명과 오열을 들었다.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켄의 곁에서 알리사는 비명이 나올 것만 같은 것을 애써 참아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 잡고 몸을 둥글게 웅크러트렸다.

“이건 악몽이야.”

알리사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장례를 치를 처지는 되지 못했다. 켄이 수습기사의 일을 하며 돈을 제법 벌어 둔 것은 사실이었으나 어느 정도 산다하는 평민들조차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장례비용을 아무렇지 않게 지불할 정도의 돈은 없었던 탓이었다. 에반의 시신을 그러했듯 소피아의 시체 역시 화장하는 수밖에 없었다.

화장터로 가기 위해 새하얀 천으로 둘러싼 소피아의 시체를 업고 의원을 빠져나와서야 켄과 알리사는 황후가 승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소피아의 죽음에 슬퍼하는 동안 스치듯 들려왔던 누군가의 죽음이 이것에 관한 것인 모양이었다.

힘없는 걸음이 닿는 골목어귀의 집 앞 기둥 곳곳에 흰 천이 둘러매져 있었다. 황후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의미였다.

“황후폐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구나.”

할머니의 죽음에 슬퍼하는 건 우리 두 사람 밖에 없는데. 켄의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 흩어졌다. 알리사는 켄의 등 뒤에 업힌 새하얀 천을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면서 켄보다 한 발자국 늦게 그의 걸음을 쫓아갔다. 정오의 볕이 눈부시게 내리 쬐고 있었다.

소피아의 시체는 화장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뼛가루가 되어 조그마한 단지에 담겨 돌아왔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뚜껑 덮인 단지를 받아 든 켄의 팔이 떨리고 있었다. 알리사는 자신의 양 손으로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켄과 알리사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맞물렸다가 곧 바닥으로 흩어졌다.

“어디에 묻을까.”

의미 없는 물음이었다. 켄은 유골을 묻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알리사가 제 아버지를 묻었던 것처럼 집근처에 불법으로 매장하는 수밖에 마땅히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자연스레 집으로 향하던 켄의 발걸음이 문득 멎은 것은 바로 그 때였다.

“아니다, 묻지 말고 그냥 뿌리자.”

“응?”

예상 밖의 이야기였다.

“죽어서까지 그런 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뿌리자. 자유롭게 날아가실 수 있게... 할머니께서도 그걸 더 좋아하실 거야.”

알리사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긍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 이 수도에는 뿌릴 장소가 그리 마땅치 않았다. 그런 알리사의 의문을 눈치 챈 켄이 손을 뻗어 알리사의 손목을 잡아 이끌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느냐는 물음은 하지 않았다. 정적 속에 그들은 계속해서 걸어갔다. 걸어가고, 걸어가다가 아주 잠깐 켄의 걸음이 멈췄지만 그것은 황후의 장례 행렬을 보기 위해 줄지어선 사람들을 피해가기 위해서지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알리사는 켄에게 이끌려 걸어가는 내내 황후의 장례 행렬을 보고자 하는 인파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대부분이 흰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있었다.

켄의 말처럼 황후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이다지도 많은데 그 중 소피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이 낯설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죽음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탓일까 한 나라의 황후가 죽었다는 데도 아무 느낌이 없었다.

아주 잠깐, 이시르 황태자의 얼굴이 스쳐지나간 것 같기도 했다. 그러고 보니 황후는 황태자의 친모 되는 이일 것이었다. 그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오늘 소중한 사람을 잃은 셈이다. 그 분은 괜찮을까?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켄이 그녀를 이끌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강가였다. 슬럼가와 연결되는 다리아래 흐르는 개울과 연결되는 바로 그 강. 알리사의 손목을 놓은 켄은 말없이 단지의 뚜껑을 열었다. 단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뼛가루를 움켜쥐어 빼내자 켄의 손아귀에서 흐르듯 빠져나간 뼛가루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다가 순식간에 강물 위로 흩어졌다.

“너도 보내드려.”

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알리사는 뼛가루를 허공으로 흩뿌렸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마지막까지 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알리사는 억지로 눈물을 집어삼켰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마지막 가루까지 물속으로 떠다 보내고 한동안 멍하니 강물만을 응시하고 있던 켄이 곧 고개를 숙여 단지 마저 강물로 떠내려 보냈다. 이제는 정말로 할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 났다.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리기라도 한 듯 켄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치마가 더러워지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켄의 곁에 주저앉은 알리사는 무릎위에 양팔을 포개고 고개를 숙여 켄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없었다.

“켄.”

알리사는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한 박자 늦게, 그의 눈동자가 그녀와 시선을 맞춰왔다.

“무슨 생각해?”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이었어.”

켄이 손을 뻗어 뺨 아래로 내려온 알리사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조심스레 넘겨주었다. 어쩐지 그 손길이 조금 간지러워 알리사는 저도 모르게 조금 웃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그런 알리사의 반응을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켄의 얼굴에도 곧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너는 어렸을 때부터 간지러움을 잘 탔었지. 그건 여전하구나.”

“뭘 그렇게 새삼스럽다는 듯이 이야기해. 네가 여전히 울보라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얘기인걸.”

“뭐?”

알리사의 짓궂은 농담에 켄의 얼굴이 황당함이 떠올랐다.

“난 한 번도 울보였던 적이 없거든. 울보였던 건 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씩씩했는데.”

별 것도 아닌 것으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말다툼을 벌이기를 한창. 두 사람은 곧 의미 없는 논쟁에 무승부를 선언하고는 동시에 웃어버리고 말았다.

“아무튼.”

켄이 말했다.

“생각이 많아. 이제 할머니도 집에 안계시고 너도 직장을 잃었으니 너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질 텐데 콜비 패거리가 네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오기라도 하면...”

켄의 미간이 불안한 기색을 담고 일그러졌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중얼거린 켄이 숙였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알리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양 팔 위에 올려놓았던 고개를 들어 올린 알리사는 고개를 돌린 채 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켄의 몸은 어느새 거의 알리사를 마주보는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다.

“켄?”

알리사는 자신을 바라보는 켄의 시선이 낯설다고 생각했다. 그의 옅은 갈색 눈이 보내오는 시선은 평소와 같이 따뜻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는 뜨거운 것 같기도 했다. 생소한 빛이었다.

‘그래도 알리사, 만약 내가 죽기 전까지 에반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말이다. 켄이랑 혼인하렴.’

소피아의 말이 갑자기 왜 떠오른 것일까. 알리사는 아까보다 한층 짙어진 켄의 두 눈을 멍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소피아의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켄이 알리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리가 없기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그녀의 오빠나 다름없는 존재니까. 그녀는 그에게 여동생이나 다름없는 존재니까.

“켄.”

하지만 정말 친남매는 아니지. 거기에 생각이 미친 순간 켄의 입술이 순식간에 알리사의 입술에 닿아왔다. 느리지만 빠르게 그리고 부드럽게 축축한 덩어리가 그녀의 입 안으로 넘어왔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다가온 그의 행동에 벌어진 입술에서 희미한 소리가 퍼져 나왔다.

갈 곳을 잃은 손이 불편해 갈팡질팡 하는 동안 그의 입술이 좀 더 강한 힘으로 그녀의 입술을 눌려 찍었다. 몸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불쾌하지는 않았으나 좋지도 않았다. 알리사는 이 행위가 정말 옳은 것인지 확신 할 수 없었다.

“알리사.”

입술을 떼어낸 켄이 알리사의 양 어깨를 내리누르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켄이 평소에도 나를 이렇게 불렀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알리사, 알리사.”

어쩐지 거칠어진 목소리로 정신없이 그녀의 이름을 부른 켄이 그녀의 얼굴을 몇 번이고 쓸어내렸다. 마치 그녀의 얼굴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손가락 끝에 각인시키기로 작정한 모양새로.

그리고 다시 한 번, 켄의 입술이 알리사의 입술을 정신없이 탐하기 시작했다. 멍하니 눈을 깜박이고 있던 알리사는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황태자가 그녀에게 했던 키스에 비하면 이건 정말 신사적이고 양반인, 알리사를 배려한 입맞춤이었다. 비록 그 때만큼 열정적이거나 숨이 가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게 켄의 방식이겠지.

그리고 바로 그 때, 알리사의 입술에서 떨어진 켄의 입술이 그녀의 턱 언저리를 맴도나 싶더니 곧 목덜미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 잠시만 켄.”

점점 더 짙어지기 시작하는 행위에 흠칫 놀란 알리사가 황급히 켄을 저지했다.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

“미안.”

그녀의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야 켄은 그들이 있는 곳을 자각한 모양새였다. 그리고 그가 방금 전까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미안해, 알리사.”

켄의 잇따른 사과에 알리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동안 멍하니 있나 싶던 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알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었다. 켄은 알리사의 얼굴을 쳐다 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다시 큰 길로 나서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황후의 장례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를 지나 그대로 그들의 집으로 향하는 다리 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다리를 건너는 동안 알리사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 자신이 새벽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시트리안 공자가 이미 집에 사람을 보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 할머니를 오늘 잃은 켄을 두고 이대로 떠날 수는 없었다. 차라리, 켄에게 모든 걸 사실대로 털어놓을까? 알리사는 그런 충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역시, 이대로 그냥 가는 건 안됐다.

“켄.”

알리사는 계속해서 마을로 올라가려는 켄을 붙잡아 세웠다.

“우리 지금 들어가면 안 돼.”

“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듯 켄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알리사는 차마 뒷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어떻게 서두를 꺼내야 하지? 내가 사실 시트리안 공자에게 협박을 들었는데 말이야...

켄이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속에서 엄청난 갈등을 시작할 것이다. 그가 평생 꿈꿔왔던 기사의 일과 알리사와의 의리 사이에서. 켄이 그런 고민을 하게 할 권리가 그녀에게 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 였다.

“집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알리사는 자신의 말이 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됐다. 그녀에게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다.

집을 제외하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 밖에서 노숙을 할 게 아니라면 해봤자 허름한 여관정도나 있을까. 그리고 그 마저도 황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수도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덕분에 오늘따라 장사가 잘 된다며 즐겁게 이야기 하는 주인에게서 열쇠를 받아든 켄은 알리사의 가까이로 다가온 뒤 알리사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두가 슬퍼하는 건 아닌가봐.”

여관 주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는 여관 주인을 티나지 않게 힐끗 쳐다본 알리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런 사람들이라도 있다면 소피아 할머니가 가는 길이 조금이나마 덜 씁쓸하겠지.

여관주인이 내어 준 건 낡고 허름하여 침대 하나와 탁상하나가 겨우겨우 들어가 있는 비좁은 방이었다. 그럼에도 위생 상태가 판자촌의 그들 집 보다 낫다는 것에 기뻐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이제 말해 봐.”

탁상 앞에 놓인 의자를 빼내 앉은 켄이 말했다.

“왜 집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한 거야?”

도저히 피해 갈 수 없게 단단히 정곡을 찌른 질문이었다. 알리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침대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시트리안 공자의 사람이.

“...할머니가 없는 집안이 무서워서.”

역시 사실대로 말 할 수 없다.

“네가 애냐.”

켄은 마치 우스운 말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나지막하게 웃음을 터트렸다. 알리사는 입술을 잘근 씹었다. 알리사는 이런 식으로 켄의 삶을 망가트리고 싶지 않았다. 켄은 정식기사가 되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켄의 인생을 알리사가 방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했다.

“켄.”

나지막한 알리사의 부름에 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셨다.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알리사의 눈동자가 잠깐 천장을 향해 흔들렸다가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네가 꼭 정식기사가 됐으면 좋겠어.”

“네가 되지 말라 해도 될 계획이니까 걱정 마.”

뭐 그렇게 당연한 말을 하냐는 듯 그가 웃었다. 알리사는 그런 켄에게 마주 웃어 보일 수가 없어 입 안이 썼다.

“내가 너한테 되지 말라는 소리를 왜 하겠어. 그건 네 소원이기도 하지만 내 소원이기도 하단 말이야.”

“네 소원은 그거 말고 딴 걸로 해도 돼. 내가 뭐라고 네 소원까지 나한테 쓰고 그래.”

“넌 내 제일 친한 친구니까.”

“그리고 가족이지.”

켄이 알리사의 말을 정정했다. 가족을 잃는 것 보다 친구를 잃는 게 낫지 않을까 배려 차원에서 꺼낸 단어가 순식간에 의미를 잃었다.

“알리사.”

켄이 그녀를 부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온 켄의 얼굴을 멀거니 올려다보는 알리사를 가만히 내려다보던 켄이 무릎위로 가지런히 올린 알리사의 한쪽 손을 양 손으로 감싸 쥐었다.

“우리 어렸을 때 약속한 거 기억나?”

켄이 말했다.

“내가 꼭 정식기사가 되서 돈 많이 벌면 우리 할머니랑 너랑 나랑 그 지긋지긋한 슬럼가를 벗어나자고 약속했던 거. 기억나?”

“응.”

“그래서 울 할머니 병도 고치고, 너 예쁜 옷도 사주고 셋이서 오순도순 살자고, 내가 아내를 얻으면 넷이서 너도 남편을 얻으면 다섯이서 함께 살자는 거.”

“응, 기억나.”

“그런데 벌써 이 약속이 깨져버렸네. 내가 정식기사가 되기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

그렇게 말하는 켄의 미소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알리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켄이 갑자기 이 말을 왜 꺼내는 지 알 수 없었다.

“알리사.”

켄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 고개 숙인 알리사에게 시선을 맞춰왔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아 마주보지 않으려 했던 눈동자를 더는 피할 수 없었다. 알리사의 손을 붙잡은 켄의 손에 힘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갔다.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머니랑 얘기를 한 게 있어.”

켄이랑 혼인하렴. 소피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이야기가 쉽겠네.”

알리사의 조그만 중얼거림에 켄의 얼굴에 안도어린 미소가 내려앉았다.

“할머니랑 너랑 나랑 살자는 약속도 이미 깨졌으니까 나머지 약속도 깨도 될까? 나는 이제 너랑 다른 의미의 가족이 되고 싶어.”

이런 상황을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리사는 켄이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바랐다.

“너는 나를 그런 의미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알리사는 조용히 대꾸했다.

“그런 의미로 좋아하는 게 맞아.”

켄이 대답했다.

“네가 여자로 좋아, 알리사.”

“아냐, 틀려 켄. 너는 그냥 나를 여동생으로 사랑하는 것뿐이야. 너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알리사는 켄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내려고 했으나 켄의 두 손이 그녀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소피아 할머니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해서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야.”

“너는 여동생한테 키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오빠한테 키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렇지만 너랑 나는 친남매도 아니잖아.”

켄은 약간 화가 난 것 같았다.

“난 네 오빠가 아냐, 알리사.”

“우리가 같은 집에 산 세월만 7년이야. 네가 날 여자로 봐왔다면 그렇게 오래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없어.”

“사춘기 전까지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널 위해 참았어. 네가 나랑 같은 감정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거든.”

“그렇다면 계속 참는 편이 나았을 거야.”

알리사가 쌀쌀맞게 대꾸했다.

“나는 여전히 너랑 같은 감정이 아니야, 켄.”

그 말을 내뱉은 순간, 알리사는 켄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켄 역시 마찬가지였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은 다투고 있었던 것이다.

켄의 손에 붙잡혀 있던 알리사의 손이 다시 무릎 위로 떨어졌다. 알리사는 켄이 상처받은 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최대한 동요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지만 모를 수 없었다. 켄을 보아온 세월만 18년 이었다. 그의 그런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렇다면 켄이 나를 여자로 보고 있었다는 건 왜 그간 알지 못했지? 아, 알면서도 부정했던 거구나. 소피아 할머니와 켄에게서 멀어지는 게 싫어서. 그럼, 내가 나쁜 건가?

알리사의 고개가 천천히 앞으로 향했다. 그리고 알리사는 그대로 켄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어떻게 해야 켄의 기분이 나아질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예상치 못한 알리사의 행위에 켄이 아주 잠깐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으나 그는 곧 양손을 알리사의 양 옆 침대 매트 위로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입맞춤이 한층 짙어지고 점점 깊게 다가오는 켄의 몸에 균형을 잡기 힘들다고 생각될 때 쯤 알리사의 허리를 잡아 올린 켄이 그녀가 침대 위로 눕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알리사의 몸 위로 올라탄 켄이 알리사의 입술에 보다 짙게 입 맞추기 시작했다. 강가에서의 입맞춤은 입맞춤이 아니었던 것 마냥 조금 더 격렬해 진 행위에 알리사는 숨이 막혀오는 걸 느꼈다. 뜨겁고 말랑한 덩어리가 입안 곳곳을 헤집고 지나가자 자신도 모르는 새에 달뜬 신음이 입술 밖으로 새어나왔다.

알리사는 켄과 자신 사이에 얼마 남지 않은 빈공간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켄의 가슴에 닿은 손등에 그의 심박 수가 그대로 느껴졌다. 자신의 심장박동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빠른 그 두근거림에 알리사는 차마 켄을 밀어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켄과는 예전의 그 관계를 더는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이곳에 없는 사람일 테니까.

입맞춤이 점점 짙어지다 더는 숨을 참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쯤 켄의 뜨거운 손이 알리사의 옷자락을 헤집기 시작했다. 차가운 몸에 뜨거운 것이 닿자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생소한 감각 탓에 알리사는 긴장하며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켄의 손길에는 더 이상 배려가 없었다. 하나씩, 하나씩 다급하면서도 차분하게 알리사의 옷자락을 벗겨내는 그의 행동에 알리사는 멍한 눈으로 켄을 바라보았다. 결국엔 이렇게 되는 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는 감각은 소름끼쳤다.

하지만 추위는 곧 온몸을 감싸 안은 뜨거움으로 중화되었고 그 이후로는 생소한 감각들만이 이어질 뿐이었다. 그것은 때론 아프기도 했고 때로는 발끝부터 소름끼치는 느낌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멀어졌다가 가까워진다. 오랜 시간 산길을 달린 것 마냥 숨이 가빴다가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를 반복한다.

알리사는 켄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눈을 질근 감은 채 이 모든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 어느 때 보다 기나긴 밤이었다.

다음 날, 낯선 고통 속에 눈을 뜬 알리사는 자신의 몸 위로 올려 진 켄의 팔을 조심스레 치우고 침대 아래로 내려왔다. 간밤의 흔적이 무수히 남은 맨살 위로 바닥에 아무렇게나 팽개쳐진 옷자락을 걸쳤다. 피로함에 눈을 꼭 감고 누워 있는 켄의 얼굴을 한 번 바라본 알리사는 천천히 눈을 내리 깔았다.

“안녕, 켄.”

문이 열렸다가 탁, 소리와 함께 닫혔다. 정적만이 남은 방 안 커튼 너머로 한 줄기 햇빛이 새어들었다. 알리사는 테오를 만나지도 않았으며 다시 한 번 신전을 찾아가지도 않았다. 알리사는 그 길로 수도를 떠났다. 그녀는 그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기를 바랐다.

알시는 에트로시아 제국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의 크기가 작긴 했지만 수도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큰 도시 탈레로 향하는 주요 길목 중 하나였기에 알시 마을은 언제나 여행객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알시에 산적들이 나타나 탈레로 향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소문이었던 이야기를 직접 겪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알시에 오는 여행객은 더 이상 없게 됐다.

덕분에 알시의 상인들은 유례없는 불황을 맞이했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불황으로 몰고 간 얼굴모를 산적들에 불평하면서도 그들이 마을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에 안도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불황 속에도 알시의 구석에 위치한 마담 킨의 술집은 이전과 다름없는 손님의 수를 유치하고 있었다.

그 이유인 즉슨 1년 전부터 마담 킨의 술집에서 일하게 된 종업원 때문이었다. 언제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를 이 수수께끼의 종업원은 알시 마을에서 보기 드문 미인이었던 것이다.

“마담, 나는 마담 말고 그 엄청난 미인이라던 종업원이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왜 매번 마담이 바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늘도 어김없이 붐비는 마담 킨의 술집 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하나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술집 전체에 적막이 내려앉았다. 대답을 종용하는 시선들이 바 앞에서 주문 받은 술을 제조 하고 있던 마담 킨에게로 모아졌다.

마담 킨은 30대 후반의 화장이 짙은 여자였다. 비록 얼굴에 자리 잡은 주름들은 어찌 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커다란 눈이 라던가 날카롭게 내려오는 콧날 따위가 그녀의 젊은 시절 아름다움을 방증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지금은 미인이 아닌가 하면 그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분위기가 그녀를 본인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게 하고 있었다.

마담 킨은 그녀를 지켜보는 좌중을 한심한 시선으로 쳐다보다가 양 미간을 모았다.

“그 앤 부엌 담당이고 내가 바 담당이니 내가 늘 여기에 있는 게 당연하지.”

“뭐? 그런 미인을 고작 부엌데기로 고용했단 말이야?”

화들짝 놀라 질문하는 남자에 마담 킨이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기는 환락가가 아니야, 여자가 있는 술집을 찾는 거라면 다른 곳을 알아봐.”

“에이, 왜 그래 마담. 이왕이면 예쁜 여자가 눈앞에 있는 게 술맛이 더 좋다는 거지. 그런 음흉한 의도가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내 술이 예쁜 여자랑 함께 하지 않으면 맛이 없다는 거야?”

마담 킨의 으르렁거림에 넉살좋게 받아치던 손님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런 말이 아니란 거 알잖아. 마담 술은 언제나 일품이지.”

“그렇다면 술이나 맛있게 마시고 썩 꺼져.”

마담의 단호한 대꾸에 손님이 끙 소리를 내며 입을 다물었다. 마담 킨의 불같은 성격은 알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물론 성격과 달리 그녀의 체구는 굉장히 가늘었기에 힘으로 제압한다면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술집의 그 누구도 그녀의 거친 언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녀를 잘못 건드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언제 소동이 벌어졌냐는 듯 술집은 순식간에 다시 시끌벅적 해졌다. 마담과 언쟁을 벌인 손님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손님들이 떠나가고 정적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늦은 새벽이었다.

마담 킨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냥 어질러져 있는 술집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여튼 지저분하게도 먹는다니까, 이걸 언제 다 치운담.”

마담 킨은 입고 있던 옷자락의 소매를 양쪽 위로 걷어 올리다 느껴진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머리에 두건을 두른 종업원이 막 부엌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부엌 정리는 끝났니?”

“네.”

“그러면 이제 홀 청소 좀 하자, 내가 식탁 위를 치울 테니 네가 바닥을 치워.”

“네.”

고분고분하게 대꾸한 여자가 가게 구석에 놓여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었다. 마담 킨은 테이블 위를 치우다가 힐끗 종업원의 옆얼굴을 보았다. 왜 마을 전체에 소문이 다 났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한 미인이기는 했다.

옛날 일터에도 내로라하는 미인들이 많았지만 저만큼 눈길을 끄는 이는 없었다. 그나마 그들은 화장을 짙게라도 했지 저 애는 민낯이었다.

“나도 너 같을 때가 있었는데.”

“네?”

“혼잣말이었어.”

잠시 뒤, 청소가 모두 끝나고 마담 킨과 종업원은 나란히 섰다. 가게 곳곳에 켜져 있던 촛불들을 모두 끄고 마지막 촛불 앞에 선 마담 킨은 자신의 머리를 툭툭 쳤다. 그런 그녀의 행동에 그제야 자신이 머리 위에 두건을 둘렀다는 것을 깨달은 듯 종업원이 서둘러 머리두건을 풀어냈다.

풀어낸 두건 아래 있던 결 좋은 금발 머리가 사륵 흘러내렸다. 겨우 어깨를 넘는 짧은 단발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정리한 종업원이 두건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도 수고했어, 알리사.”

“네, 마담도요.”

마담 킨의 말에 알리사가 옅은 미소와 함께 대꾸 했다. 마담 킨은 술집 안에 있는 조그마한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뒤를 따른 알리사가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쪽문 안쪽에 자리 잡은 것은 조그마한 규모의 가정집이었다.

“피곤할 텐데 얼른 가서 자.”

“네.”

마담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알리사는 옛날에는 창고로 쓰였던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다. 마담 킨은 알리사가 닫은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짙게 한 화장을 지우고 흰머리가 듬성듬성 난 적갈색 머리를 빗어 내리던 마담 킨은 알리사의 월급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해 냈다. 이번에도 알리사는 극구 거절하겠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유흥거리를 즐길 돈은 필요할 테니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억지로 쥐어줘야겠다 싶었다.

또래답지 않은 어른스러움 때문에 마담은 알리사가 아직 스물이 채 안된 여자아이라는 것을 종종 잊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제 동생 같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마담 킨이 일찍 결혼했다면 제 아이가 알리사 또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았다.

침대로 누우며 알리사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마담 킨은 문득, 알리사를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의 알리사는 지금처럼 머리가 짧지도, 깨끗하지도 못했다.

마담이 알리사를 처음 만난 것은 버섯을 구하기 위해 들어간 술집 뒤쪽 숲길에서였다. 며칠 동안 씻지 못한 것 같은 지저분한 행색에 마담 킨은 그녀를 노숙자라 생각해 피하려고 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가느다랗게 들린 그 목소리가 남자의 것이 아닌 여자의 것이란 걸 알았을 때 마담은 마음을 바꾸었다. 무엇보다 먼지투성이 아래 있는 그녀의 얼굴이 굉장히 예쁘다는 사실도 한 몫을 차지했다. 그녀는 여자들, 특히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자들이 겪는 수많은 고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마담이 알리사를 홀이 아닌 부엌으로 보낸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였다. 마담은 알리사가 예쁜 여자라는 이유로 상품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자의 상품화라면 이제 지긋지긋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은 과거의 그녀로 충분했다.

“...담.”

정말로.

“마담!”

마담 킨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언제부터인가 깜박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킨은 창밖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침 공기가 느껴지는 걸 보니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마담이 일어나는 시간은 고정돼 있었고 알리사가 깨우지 않아도 그녀는 알아서 일어났을 것이다. 알리사도 분명 그걸 알고 있을 건데 대체 왜 깨운 거지?

“무슨 일이야?”

방문을 열자 난감한 얼굴을 한 알리사가 서 있었다.

“그게, 손님이 와서요.”

“손님? 아직 영업시간까지는 한참 남았잖아.”

“가게 손님이 아니라 마담의 개인 손님인 것 같아서요...”

“내 손님?”

엉뚱한 그녀의 대꾸에 마담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설마 하는 얼굴을 했다. 마담은 다급하게 가게와 연결된 쪽문을 열고 나갔다. 바 앞에 옅은 금발 머리를 가진 청년이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코렌카!”

그녀의 부름에 앉아있던 남자가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구리 빛 피부를 가진 남자의 입가에 시원스러운 웃음이 걸려 있었다.

“오랜만이야, 제니아.”

알리사는 마담 킨을 찾아온 뜻밖의 손님을 위해 차를 끓이며 마담과 그 남자의 관계가 무엇일지 생각했다. 남자는 마담보다 열 살 쯤 어려 보였다. 이십대 후반쯤 됐을까. 1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마담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다. 처음에는 가족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지만 그러기에 그들은 너무 닮지 않았다. 마담이 차갑게 생겼다면 그 남자는 덩치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순하게 생긴 얼굴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연인 관계일 지도 몰랐다. 나이차가 제법 나 보이긴 했지만 마담 쯤 되는 인물에게 한참 연하의 애인이 있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알리사는 쟁반 위에 주전자와 찻잔을 올리고 조심조심 바로 향했다. 바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비스듬한 옆모습이 보였다. 마담은 원래의 평정심 가득한 표정을 되찾은 상태였다.

“아, 고마워. 알리사.”

차를 내려놓는 알리사를 향해 마담이 퍼뜩 인사했다.

“갑자기 손님이 와서 얼마 못 잤지? 밤에 힘들 테니 들어가서 좀 자둬.”

알리사는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마담 킨의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푸른빛이 섞인 오묘한 갈색 눈동자가 알리사의 눈동자와 마주치기 무섭게 남자가 그녀를 향해 눈웃음을 지어보였다.

“새로 온 종업원인가보네. 일 년 전 까지만 해도 혼자 일했잖아.”

“뭐, 그렇게 됐어.”

마담의 덤덤한 대답을 들으며 알리사를 몸을 돌렸다. 저 남자에게선 뭔가 익숙한 분위기가 풍겼다. 분명 상냥하게 생긴 외모인데, 왜 저 사람한테서 슬럼가의 콜비 패거리에게서 느껴졌던 위협적인 분위기가 날까.

“그보다 우리 마담은 능력도 좋지, 어디서 저렇게 예쁘장한 종업원을 구한거야? 마담 젊을 때 생각이 나는데.”

“입에 발린 말은 집어치워. 내 젊을 때 보다 훨씬 나으니까.”

당사자가 아직 떠나지도 않은 자리에서 저런 말이라니. 알리사는 약간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집으로 통하는 쪽문으로 걸어갔다.

“아, 저 종업원 이름이 알리사야?”

황급히 문을 닫기 무섭게 마담과 남자의 대화는 희미하게 들려왔다. 알리사는 방으로 향하며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했다. 침대에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아침부터 요란하게 들려온 노크 소리 때문에 얼마 자지 못한 것은 맞지만 갑작스러운 소동이라 잠이 다 깨버린 탓이다.

알리사는 침대에 누워 몸을 뒤척이다가 이불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수도를 떠나온 게 벌써 1년 전의 일이었다. 시트리안 공자의 말 때문에 이시르가 그녀를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역시, 시트리안 공자의 걱정은 괜한 기우였던 것이다. 애초에 천민인 알리사에게 황태자씩이나 되는 사람의 관심이 오래 지속 될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사는 수도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시트리안 공자의 협박 전까지 그녀가 수도에 있어야 했던 유일한 이유였던 켄과의 관계는 이제 파토 나고 말았다. 그와 몸을 섞고 도망치듯 수도를 떠나온 이상 옛날의 관계는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수도를 떠나온 것이 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게다가 알리사는 이곳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마담 킨에게는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모든 삶을 통틀어 지금만큼 마음이 편했던 적은 없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한참을 뒤척이던 알리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잠도 오지 않고 그렇다고 이곳에서 마땅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 정원에 나가서 떨어진 낙엽들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마담과 낯선 남자의 뒤를 소리죽여 지나친 알리사는 정원으로 나가 낙엽을 쓸기 시작했다. 이제 곧 할머니의 기일이었다. 할머니를 뿌린 그 강에는 찾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울적해졌다. 알리사는 비질을 멈추고 바닥에 쌓인 낙엽들을 응시했다. 이 근처에 강이 있던가, 있다면 그곳에라도 가서 할머니한테 기도해야지.

“일을 하는 거야, 아니면 명상을 하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알리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마담의 손님이 막 가게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마담이 자러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일을 하고 있어? 노동이 체질인가.”

“그냥, 잠이 안와서요.”

알리사가 얼결에 대꾸하자 남자의 얼굴에 일순 당황한 표정이 어렸다.

“왜 이렇게 예의가 바르지? 상대가 예의 없이 굴면 그쪽도 예의 없이 구는 게 맞을 텐데.”

본인이 예의가 없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모양새에 알리사는 잠깐 당황했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다짜고짜 반말을 듣긴 했지만 어쨌든 초면인데다 이 사람은 그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다. 남자는 알리사가 입 밖으로 생각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의 생각을 알아차리기라도 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울적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좀 노안이긴 해도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나 아직 스물일곱 밖에 안됐어.”

“그렇게 보여요.”

“아, 그럼 다행이고. 난 또 서른 대로 본 줄 알고 말이야.”

남자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힐끗 곁눈질 했다.

“옛날부터 마담이 자기보다 몇 살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반말 하는 걸 봐와서 다른 여자들도 다들 그런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예의 없이 구는 거 너무 기분 나빠 하지 마, 태생부터 못 배워먹어서 말이야.”

배운 게 없는 건 알리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알리사는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이 남자는 불편했다. 콜비 패거리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 때문일 것이다.

“나 여기에 좀 자주 들릴 예정이라서 종종 보게 될 것 같은데 편하게 굴어도 괜찮아.”

“노력은 해 볼게요.”

알리사의 자신 없는 대꾸에 남자가 짧게 웃음을 터트렸다.

“굉장히 솔직한 아가씨네, 이름이 알리사라고 했나? 나는 코렌카야. 내가 좀 더 편해지면 코리라고 불러도 좋아.”

“네, 코렌카 씨.”

알리사의 대꾸에 만족스럽게 웃는가 싶던 코렌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게 뒤쪽으로 난 산길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가 향하는 방향에는 온통 숲뿐이었기에 그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알리사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이내 관심을 끄기로 했다. 그나저나 자주 들릴 예정이라니. 그녀가 부엌에서만 일하기에 그 남자를 볼 일이 좀체 없을 거라는 사실에 알리사는 안도했다.

낙엽을 다 쓸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알리사는 마담이 아까의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는 걸 발견했다. 그녀의 표정은 제법 심각해 보였다. 무슨 얘기를 나눈 걸까 조금은 궁금해졌으나 알리사는 묻지 않았다. 궁금한 게 제 아무리 많더라도 그저 피고용인일 뿐인 알리사에게 의문을 토로할 여유는 없었다.

“아, 알리사 미안한데 이것 좀 치워 줄래?”

마담의 요구에 알리사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날 하루 종일 마담의 상태는 좀 이상했다. 요리 주문서를 잘못 가져다 주기도 했고 주문서를 누락하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가게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그 다음날은 마담도 여유를 되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알리사는 그런 마담의 여유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었다.

코렌카가 자주 들리겠다고 한 게 불과 어제였다. 코렌카의 자주가 얼마나 자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그게 그리 멀지 않은 날 일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리사의 예감은 빗나갔다. 코렌카는 그 날 이후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고 마담은 완전히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렇게 평화로운 몇 주가 흘러갔다.

알리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가게가 문을 열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 서둘러야 했다. 오늘은 할머니의 기일이었고 알리사는 근처의 강으로 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할 생각이었다. 바로 전날 마담 킨을 통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제법 걸어야 하긴 했지만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다.

바쁘게 준비를 하고 짧은 단발머리를 하나로 내려 묶은 알리사는 음식을 할 때 쓰곤 했던 두건을 머리에 두른 다음 바지를 입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혼자 나갈 거면 최대한 남자 같은 차림으로 가라는 마담 킨의 당부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마담이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리사도 잘 알고 있었다.

최대한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면서 한참을 걸은 끝에 그녀는 강을 찾아냈다. 강을 마지막으로 본 게 꼭 1년 전의 일이었다. 알리사는 이 세상에서 소피아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리운 기분 속에 강가에 아무렇게나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알리사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할머니가 이제는 고통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저곳에서는 행복하기를.

“죄송해요, 소피아 할머니.”

알리사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할머니의 소중한 손자인 켄 한테 그렇게 행동해서 죄송해요.

“저를 미워하셔도 원망하지 않을게요.”

한줄기 바람이 불었다. 한동안 기도하던 알리사는 느리게 눈을 떴다. 어쩐지 스산한 기분이 들었다.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난 알리사는 인기척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녀가 채 움직이기도 전에 입이 틀어 막혔다. 비명 소리는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했다. 알리사는 몸을 비틀어대기 시작했으나 그보다 머리 위로 천이 씌워지는 게 더 빨랐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다시 한 번 반항하던 알리사는 뒷목으로 엄청난 충격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암전이었다.

머리 위에 뒤집어 쓰였던 천이 벗겨지고 눈앞이 밝아졌다. 갑작스레 찾아온 빛에 눈이 부셔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뜬 알리사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 했다. 여덟 명 가량의 남자들이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전히 잘못 데려왔는데 이제 어쩔 거야?”

“착각한 멍청한 놈이 대체 누구야?”

“아니, 옷차림 때문에 여자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남자들의 수군거림 속에 알리사는 의자 뒤로 돌려 묶인 그녀의 손목을 움직여보았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어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알리사는 눈동자를 굴려 그녀가 있는 장소를 살펴보았다. 나무로 된 천장과 벽면이 보였다. 나무로 된 지저분한 바닥에는 빈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집 안 곳곳에는 사용할 수 있긴 할까 의심될 만큼 낡은 가구들이 제멋대로 놓여있었다. 이 좁은 집에 다른 방은 없는 것 같았다. 난로라던가 식기 따위가 놓일 위치가 없는 걸로 봐선 이곳은 어쩌면 집이 아닌 창고 같은 것 일지도 모른다. 마을 전반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알리사로서는 그것만으로 여기가 어디인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아니, 애초에 이곳이 마을이기는 할까?

“얼굴도 확인을 안 하고 데려왔단 말이야?”

“확인 할 겨를이 어디 있어. 수상해 보이니까 그냥 데려왔지.”

“그렇게 대책 없는 말이 어디 있어.”

알리사의 바로 앞에 있던 남자가 한숨을 내쉬며 한 손으로 제 얼굴을 쓸어내렸다. 겁에 질린 알리사의 눈동자와 남자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님자 역시 사나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알리사는 그제야 이들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소문 속의 그 산적들이다. 알시를 거쳐 탈레로 향하는 여행객들에게서 물건을 빼앗는다는 그 산적들. 아직까지 마을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었다는데 어쩌면 그 첫 번째 희생양이 그녀가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눈앞이 아찔해졌다.

알리사는 형체 없는 공포가 몸을 뒤엎는 것을 느꼈다. 1년 전, 공작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 했을 적 느꼈던 것과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이었다. 그것이 막연한 공포였다면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다. 이번에는 그녀를 구해 줄 황태자조차 없었다.

“사, 살려주세요.”

알리사의 눈앞에 있던 잿빛 머리 남자가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기 무섭게 그녀는 빠르게 읊조렸다. 그런 알리사를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남자들의 입가에 아주 잠깐 한줄기 웃음이 걸렸다가 사라졌다. 그들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잠시 뒤 잿빛 머리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아가씨, 우린 사람 안 죽여.”

그렇게 사나운 얼굴로 말해봤자 믿음은 가지 않았다. 그럼 죽기 직전 까지 고문하나요? 알리사는 차마 뱉지 못할 물음을 삼켰다.

“게다가 아가씨 마을 사람이지? 우린 마을 사람은 안 건드려.”

“마을 사람이라고? 마을에 저런 미녀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혹시 몰래 들어온 신전의 끄나풀일 가능성도...”

다시 한 번 남자들 무리에서 소음이 일었다. 그런 그들을 못마땅한 눈빛으로 돌아 본 알리사 앞의 남자가 조용히 하란 의미로 손을 휘휘 저었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남자는 뭔가 생각하는 듯한 눈치였다. 알리사의 금발 머리를 힐끗 쳐다보나 싶던 남자는 곧 뭔가 깨달은 듯 아, 하고 짧게 탄성을 흘렸다.

“누군지 알겠다. 왜, 최근에 한창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 금발머리에 푸른 눈, 거기다가 미인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더 있겠어? 코리의...”

“어이, 전우들. 이번에 또 지나가던 불쌍한 여행객을 잡아왔다며?”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남자가 문을 벌컥 열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우리도 그런 줄 알았는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 무슨..., 어, 이게 누구야.”

낯선 이의 등장에 놀라는 것도 잠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차린 알리사의 얼굴에 충격이 어렸다. 알리사는 그녀의 눈앞에 얼굴을 바싹 들이댄 남자를 혐오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안녕, 알리사? 2주 만인가?”

“...안녕하세요, 코렌카 씨.”

알리사는 마지못해 인사했다. 그런 알리사의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라도 한 양 알리사에게 환하게 웃어 보인 코렌카가 알리사에게 등을 보이며 돌아섰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코렌카의 목소리는 이전과 다름없었으나 어째서인지 위압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알리사가 그에게서 콜비 패거리의 기운을 느꼈던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소문속의 그 산적이었다.

“어떤 정신머리 없는 놈이 일처리를 이따위로 했지?”

심지어 우두머리의.

“미안해, 알리사. 내 친구들이 뭔가 착각을 한 모양이야.”

코렌카가 알리사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지만 알리사는 못들은 체 했다. 찻잔을 받아든 알리사는 잔을 삐걱거리는 탁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찻잔을 한참 동안 빤히 바라보던 알리사는 밧줄이 묶여 있던 자리 그대로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한 제 손목을 노려보았다. 멍이 들 게 분명했다. 이래서야 가게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있을까.

“화난 거야? 혼쭐을 냈으니까 화 풀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알리사는 마지못해 대꾸하며 손목을 탁자 아래로 숨겼다. 푸른색의 눈동자가 허공을 방황 했다. 산적, 산적이라니! 마담 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알지 못할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마담 킨이 이런 양아치 범법자와 계속 접촉 할 리가 없었으니까.

알리사는 가급적이면 그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한시 바삐 이곳을 벗어나길 바랐다.

“사람 성의가 있는데, 마시지 그래?”

코렌카의 상냥하면서도 강압적인 목소리가 떨어진 순간 알리사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올렸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뭐가?”

“산적 짓 말이에요. 왜 아무 죄 없는 행인들의 물건을 빼앗고 겁주는 거냔 말이에요.”

알리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코렌카의 얼굴에 일순 황당함이 어렸다. 알리사의 푸른 눈동자가 그의 갈색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한동안 받아주는가 싶던 코렌카의 눈꼬리가 서글서글하게 휘어졌다.

“제니아가 널 애지중지 하고 있다더니 그게 정말이었던 모양이네.”

코렌카의 느닷없는 말에 알리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갑자기 마담 킨의 얘기가 왜 나온단 말인가.

“우리가 산적이란 걸 알아차린 걸 보면 아주 무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산적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 우리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네 그렇지?”

“산적들의 정체가 산적 말고 더 있나요.”

“응, 있지.”

알리사의 신랄한 일갈에 코렌카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산적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정의의 사도에 가깝거든.”

이건 또 무슨 궤변이란 말인가. 알리사는 어이가 없었다.

“못 믿겠다는 표정이네, 하지만 정말이야. 우리가 행인들의 물건을 빼앗은 건 사실이지만 목숨을 빼앗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 산적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어?”

일단 아니긴 했다. 알리사는 고개를 내저었다.

“하지만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착한 행위인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남의 물건들을 빼앗는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

코렌카가 알리사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앉았다.

“여전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이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해주자면, 너도 신전의 폐단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

알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도에 있을 때는 미처 몰랐지만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신전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모양이었다. 마담 킨의 하소연을 여럿 들어 그들의 부패한 행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신전이 제국에 귀속되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이라는 걸 빌미삼아 세금을 몇 배로 떼어가거나 신전에 공물을 잔뜩 바치는 마을에만 지원을 해주는 둥의 차별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 등등.

“알시 마을은 신전에 뒷돈을 따로 바치고 있지 않았어. 탈레로 향하는 행인들의 대부분이 알시를 거쳐 갔기 때문에 신전의 지원이 없더라도 마을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거든. 그랬는데 그게 신전의 심기를 거슬렀던 모양이야. 몇 년 전부터 신전에서 알시 마을의 세금을 다른 마을의 세배에 달하는 양으로 걷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힘없는 빛이 어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횡포에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고 나는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 했어. 알시 마을은 내게 굉장히 소중한 곳이니까... 그러다가 나랑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랑 함께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적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지. 여행객들의 물건을 빼앗으면 여행객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테니.”

“여행객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신전이 횡포를 부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임시방편도 되지 못해요.”

“네 말이 맞아, 통행자들을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무런 효과도 불러일으키지 못해. 하지만 신전 관계자들이 마을에 세금을 징수하러 오는 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세금을 가지고 돌아가는 신전 관계자의 앞에 산적들이 나타나 돈을 빼앗았다는데 어떤 누가 항의할 수 있겠어?”

알리사는 말문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코렌카의 말에는 여러 가지로 어폐가 존재했다. 지금 당장은 이것으로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일이 장기화 된다면 신전이 황실과 접촉해 군대를 불러올 지도 모를 일이었다. 혹은 산적을 토벌하기 위해 기사단이 출동한다던가.

어쩌면 산적들이 마을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았다는 사실로 마을 사람들과 산적들을 한 통속이라 몰고 갈 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파멸이다. 알리사조차 알고 있는 사실을 코렌카가 모를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는 도통 알 수 없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아.”

코렌카가 조용히 덧붙였다.

“하지만 알리사,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모두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네가 1년 전에 이 마을에 왔다고 했지? 산적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진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우리는 훨씬 이전부터 활동해 왔어. 너는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전의 상황을 모르잖아. 그건 정말 지옥이었어. 모두가 굶어 죽기 직전이었고, 모두가 삶의 의지를 잃었었어.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러지도 못했지. 외부에는 산적들의 등장으로 마을이 유례없는 불황을 맞이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글쎄, 오히려 이전보다 살기가 좋아졌어. 적어도 공물을 마구잡이로 끌어가는 신전의 끄나풀들이 오지 않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산적들을 소탕한다는 목적으로 신전에서 군대를 대동하면요? 그 땐 꼼짝없이 모두 죽을 거예요.”

“그건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가 그렇게 차가운 표정을 지은 것은 그를 본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알리사는 차마 더 이상의 질문은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사는 그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휘말려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마을을 위한다는 것을 명목삼아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가 그에게 있는가. 답은 알 수 없었다.

“가자, 데려다 줄게.”

자리에서 일어난 코렌카가 말했다. 알리사는 입도 대지 않은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손바닥으로 감싸 쥔 찻잔은 미지근하기만 했다. 알리사는 찻잔 속의 차를 단숨에 목구멍 속으로 밀어 넣었다. 혀끝으로 느껴지는 떨떠름한 감각과 고소한 냄새는 마담이 마시는 차와 똑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마담 킨은 당신이 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알리사는 코렌카의 넓은 등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잠깐 머뭇거리나 싶던 그가 고개를 돌려 알리사를 보았다.

“그녀도 알고 있어.”

“당신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얼 하고 있는 지도요?”

“응.”

대답은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알리사는 그런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알리사가 짐작하는 것을 마담 킨도 짐작하지 못할 리가 없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코렌카 씨를 말리지 않는 걸까? 알리사는 코렌카를 만났던 마담 킨이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도 지금 알리사가 들은 것과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들었던 걸까. 그리고 홀로 마음의 정리를 했다던가. 그렇게 생각하자 마담 킨이 보였던 행보가 이해가기 시작했다.

어쩌면 마담 킨과 코렌카의 사이는 알리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복잡한 것일 지도 몰랐다.

“이젠 정말로 가자, 네가 가지 않으면 제니아가 걱정할거야.”

알리사는 그제야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이 새까맸다. 가게가 문을 열 시간은 한참 지난 듯 했다. 마담 킨 혼자 가게를 보고 있다면 분명 일이 굉장히 바쁠 것이다. 알리사는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제니아한테는 네가 우리랑 있었다고 전해뒀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녀가 걱정한 것은 그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다행이었다. 적어도 걱정은 끼치지 않았으니.

가게로 향하는 내내 알리사와 코렌카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 알리사도 코렌카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코렌카 역시 마찬가지였다.

알리사가 갇혔던 곳은 놀랍게도 마을 번화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에 버려진 낡은 창고였다. 창고 뒤 길이 나지 않은 숲을 조금 헤집고 들어가면 마담 킨의 술집 뒤쪽으로 난 숲길로 나갈 수 있었다.

알리사가 갔던 강과 마을 번화가가 제법 거리가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봐선 산적들이 알리사를 둘러메고 걸은 거리가 제법 된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산적 활동을 하는 범위가 제법 넓다는 걸 짐작하기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가 본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산적이 있을 지도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가게 앞에서 알리사는 코렌카에게 작별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알리사의 인사보다 코렌카의 행동이 더 빨랐다. 알리사가 무슨 말인가를 하기 전에 코렌카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알리사는 그의 돌발행동에 당황하고 말았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코렌카가 가게 안에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무엇보다 당장 마담 킨의 반응조차 짐작 할 수 없었다.

문 위에 달린 종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울렸다. 술집 홀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문 앞에 서 있는 코렌카를 향해 쏠렸다. 그런 코렌카의 뒤에서 알리사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런 소동도 벌어지지 않기를 빌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게 누구야!”

“코렌카! 우리 산적 나리 아니신가!”

“오랜만이구나, 코리.”

술가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일제히 반가운 듯 인사했다. 심지어 그를 산적이라 칭하기도 했다. 알리사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으로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담 킨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까지 그가 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인 즉슨 마을 사람들 모두가 코렌카의 산적 행위가 불러올 위험을 이미 감수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왜지? 알리사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

코렌카가 딱딱하게 굳어선 알리사를 향해 장난스럽게 속삭였다.

“서로 쉬쉬할 뿐이지 이 사람들도 전부 알고 있어.”

“지금 전혀 쉬쉬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아, 그건 다들 술이 들어가서 그렇지. 맨 정신으로 만나면 안 저래.”

아무렇지 않게 대꾸한 코렌카가 그를 향해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사람 좋은 미소와 함께 인사하기 시작했다. 알리사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있는 코렌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런 알리사의 감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코렌카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그녀에게로 옮겨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개 중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휘파람을 불었다. 알리사는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부엌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마담.”

알리사는 그녀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쓰면서 마담 킨을 향해 사과했다.

“빨리 들어가서 준비할게요.”

“아, 괜찮아.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마담이 무어라 말을 한 듯도 했으나 알리사는 뒷말을 마저 듣지 못하고 황급히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 쾅 소리 나게 문을 닫았다. 그녀를 주목하는 그들의 눈빛이 기분이 나빴다. 바닥을 내려다 본 채 숨을 가다듬고 있던 알리사는 손을 더듬어 문고리에 걸린 앞치마를 집으려다가 느껴진 묘한 위화감에 고개를 들어올렸다.

“아, 안녕, 아가씨.”

“또 보네.”

우락부락한 덩치의 남자들이 각자 후라이팬과 냄비를 붙잡은 채 그녀에게 인사했다. 알리사는 잠시 동안 할 말을 잃었다. 누군가 했더니 코렌카의 동료라던 산적들이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보시다시피.”

“요리를 하고 있어.”

그걸 몰라서 한 질문은 아니었다. 절대로.

“그러니까 왜 여기서 요리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었어요.”

어색하게 덧붙여진 알리사의 말에 두 사람이 서로에게 눈짓했다. 곧 깊은 한숨과 함께 어깨를 으쓱한 남자들이 능숙한 솜씨로 조리를 이어가며 입을 열었다.

“마담 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거든.”

“맞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누가 누구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건지. 마담 킨이 저 산만한 덩치의 사내들을 협박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지만 상상이 잘 가지 않았다. 차라리 그들의 취미가 요리라 마담에게 요리를 하게 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 윽박질렀다는 편이 더 신빙성 있게 여겨졌다.

“저, 이제 제가 할게요.”

혹시나 이 남자들이 요리하기 짜증난다며 프라이팬과 냄비를 무기 삼아 뛰쳐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한 알리사가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리사에게 자리를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듯 고개를 휘휘 내저었다.

“마담이 우리한테 시킨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지.”

“하지만...”

“어허, 우린 혼나고 싶지 않아.”

그러며 열심히 요리를 하는 그들의 솜씨는 한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닌 마냥 능숙하기만 했다. 알리사가 어쩔 줄 모르고 그들의 곁에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문득 뭔가를 떠올린 표정으로 알리사를 보았다.

“그러고 보니 아가씨가 온 걸 보면 코리도 같이 왔겠네. 걘 지금 뭘 하고 있어?”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팔자 한 번 좋구먼, 우리 대장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 남자의 곁에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하던 또 다른 남자가 콧방귀를 꼈다.

“안 봐도 뻔하지, 아저씨들이랑 이야기가 다 끝나면 누님 앞에서 재롱이나 부리고 있지 않겠어?”

“누님?”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모를 단어에 알리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알리사가 그들에게 그 호칭에 대해 채 묻기도 전에 부엌문이 열리며 마담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마담의 갈색 눈동자가 매서운 기운을 담고 두 산적들에게 고정됐다.

“너희 설마 그 새를 못 참고 농땡이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요, 마담.”

군기가 바짝 잡혀 대꾸하는 산적의 모습은 정말이지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알리사는 더욱 혼란스러워 졌다. 알고 보면 마담이 이 산적들의 진짜 우두머리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알리사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 만에 하나를 가정해보았다.

“저 녀석들한테 얘기는 전해 들었어. 저 놈들이 너를 외부인으로 착각해서 납치해 갔었다지?”

자리에 얼어붙어 마담과 산적들의 관계에 대해 추측하고 있던 알리사를 향해 마담 킨이 말했다.

“지은 죄가 있으니 오늘 하루 동안 널 대신해서 일하라고 한 거니까 너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그러면 마담께 너무 죄송한걸요. 홀이라도 같이 봐 드릴까요?”

“홀?”

덧붙여진 알리사의 말에 마담 킨이 미간을 찌푸렸다.

“됐어, 내가 너를 왜 홀에 내보내지 않는 건지는 대충 알고 있잖니.”

난 네가 저 남자들의 안줏거리가 되길 원하지 않아. 마담 킨의 눈빛이 어둡게 내려앉았다.

“들어가서 좀 쉬어둬. 심지어 오늘이 할머니의 기일이라면서, 이런 날까진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상냥한 듯 단호하게 떨어진 그녀의 명령에 알리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 손에 쥐었던 앞치마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1년간 일해 온 부엌에서 산적들이 아 뜨거를 외치며 요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면서도 조금은 우스웠다.

“들어가, 아가씨.”

“다음에 또 봐.”

“수고하세요.”

다소 살갑게 인사를 주고받은 산적들을 뒤로 하고 마담 킨을 따라 홀로 나간 알리사는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으려 애쓰며 가게 구석의 쪽문 쪽으로 슬금슬금 걸어갔다.

손님의 대부분은 가게 정중앙을 차지하고 앉은 코렌카의 주변에 모여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덕에 알리사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기에 그녀는 처음으로 코렌카의 존재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쪽문 앞에 서는 것에 성공한 순간, 코렌카의 눈동자와 알리사의 눈동자가 허공에서 마주쳤기 때문이다.

찰나의 순간, 알리사가 왜 그곳에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가 싶던 코렌카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어디가, 알리사?”

눈에 띄지 않으려는 알리사의 행동이 죄다 물거품이 됐다. 코렌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앞에 운집해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 순간 알리사를 향해 쏠렸다. 알리사는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내가 쉬라고 했어. 자러 가는 것뿐이니까 내버려 둬.”

“하지만 나는 알리사가 이곳에 있는 편이 더 좋은데.”

마담 킨이 알리사를 보호하고자 나섰지만 코렌카는 그런 마담 킨의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마냥 대꾸했다.

“이곳의 사장은 나야, 코렌카. 내 직원 관리는 내가 하게 내버려둬.”

“내가 원한다니까?”

“코렌카!”

알리사는 마담 킨의 얼굴이 그렇게까지 일그러지는 것은 처음 보았다.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과 싸울 때도 낮지만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분노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던 마담 킨이 소리를 지르다니. 코렌카 씨가 마담 킨의 신경을 제법 거슬린 모양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코렌카는 그것에 전혀 놀란 기미가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얼굴가득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었다.

“뭘 걱정하는 지 잘 알아.”

코렌카가 나지막하게 대꾸했다.

“네 기분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 내가 널 믿는 만큼 나를 믿어줘, 난 이제 열 살짜리 코흘리개가 아니란 말이야.”

이어진 그의 말에 마담 킨은 침묵했다. 어쩐지 불길한 침묵이었다. 알리사는 마담 킨이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았다.

“알았어.”

마담 킨이 대꾸했다.

“대신 문제가 생긴다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쓸데없는 걱정이야.”

코렌카가 환한 미소와 함께 대꾸하기 무섭게 마담 킨의 눈동자가 알리사를 향해 돌아왔다. 마담 킨의 얼굴에 미안함이 잔뜩 서렸다.

“아무래도 오늘 하루만 나랑 같이 홀을 좀 봐야 할 것 같네.”

“아니에요.”

내키지는 않았으나 그걸 곧이곧대로 말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바를 향해 걸어가는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알리사는 그녀가 여기 남아있게 만든 코렌카가 원망스러웠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자, 이제 각자 자리로 가서 술이나 마시죠.”

코렌카가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마냥 순식간에 코렌카의 곁을 벗어나 각자의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바 바로 앞에 아까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았으나 알리사가 그걸 알 턱이 없었다.

“마담, 여기 추가 주문 좀 할게.”

얼마 지나지 않아 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마담을 향해 말했다. 그들 대다수의 시선은 알리사에게 꽂혀있는 채로였다.

“예쁜 아가씨가 따라주는 술이라니, 간만에 술맛 좀 나겠구먼.”

벌써부터 피곤해지는 기분이었다.

알리사가 홀의 일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까지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일에 적응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적응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었다.

바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알리사에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개 중 몇몇은 그녀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한 탓에 마담 킨의 중재가 몇 번이나 있었다.

정작 알리사가 홀에서 일을 하게 만든 주범인 코렌카는 알리사가 어떤 곤경에 처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건배를 하며 술을 마시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가 그녀의 존재에 대해 잊은 게 아닐까 생각 될 정도였다.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무용담 마냥 부풀려 이야기 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어색한 웃음을 지은 채 서 있던 알리사를 힐끗 쳐다본 마담 킨은 도움을 주기 위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 쪽으로 가 있어.”

마담 킨이 가리킨 방향은 바의 끄트머리 쪽으로, 그 앞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있는 늙은 노인이 하나 홀로 앉아있었다.

“커트 할아버지라고 우리 가게 단골인데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괜찮을 거야, 저 분이랑 이야기나 하고 있어.”

마담 킨의 배려에 알리사는 고마움을 느끼며 황급히 노인이 앉아있는 바 앞으로 걸어갔다. 커트는 다가온 알리사를 힐끗 쳐다만 볼 뿐 별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제 앞의 술을 입 안으로 털어 넣었다. 불빛 아래 그의 머리가 훤했다.

마담 킨이 대화를 하고 있으라 했지만 마땅한 주제가 없어 알리사는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적 속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알리사는 커트가 술을 마시는 속도가 제법 빠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저 잘 마시는 건가하고 생각했지만 곧 그 생각을 철회했다. 술잔을 들어 올리는 그의 손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저기.”

오지랖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덜컥 겁이나 알리사가 입을 연 순간 노인의 손에서 미끄러진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순식간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커트와 그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서 있는 알리사에게로 고정됐다.

“할아범, 뭐요? 눈앞의 직원이 너무 미인이라 놀라기라도 한 건가?”

“나이 들어선 주책은!”

누군가가 던진 말에 와하하, 웃음소리가 높아졌다. 그들의 그런 반응에 노인이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 한 알리사는 고개 숙인 채 꼼짝도 않고 있는 노인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알리사의 물음에 노인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다치신 곳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점잖은 말투로 대꾸하는 노인의 목소리는 걸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노인의 얼굴이 천천히 알리사를 향해 돌아왔다. 주름진 얼굴에 자리 잡은 그의 왼쪽 눈동자는 초점 잃은 탁한 잿빛이었다. 알리사는 그녀를 보는 그의 눈동자가 약간 초점이 나가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내가 할게, 있어.”

노인이 괜찮다는 걸 확인한 알리사는 깨진 유리잔을 치우기 위해 다급하게 손을 뻗었으나 마담 킨의 제지가 더 빨랐다. 마담 킨이 빠른 속도로 깨진 유리잔을 치우는 걸 멍하니 바라보던 알리사는 초조하게 입술을 씹었다. 아무 예고 없이 놀라게 해서 컵을 떨어트리신 걸까, 알리사는 조금 더 조심스럽지 못했던 그녀의 행동을 탓했다.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알리사는 바로 옆에 놓인 컵에 물을 따르며 노인에게 말했다.

“너무 빨리 드시는 것 같아서 물이 필요한지 여쭤보려는 거였는데.”

“고맙...소.”

알리사가 내민 컵을 받아드는 노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다른 한손으로 떨리는 손목을 진정시키며 느리게 물을 들이마신 노인이 컵을 바 위로 내려놓고는 거친 숨을 내뱉었다.

“닮았군, 닮았어.”

이어진 노인의 중얼거림은 수도에서의 일이 생각나게 했다.

“누구와요?”

그 때의 일을 떠올리자 약간 주눅이 든 알리사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으나 커트는 다시 입을 열 생각이 없어보였다. 굳게 닫힌 그의 입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알리사는 대답을 듣는 걸 포기하곤 비어있는 컵 안으로 물을 따랐다.

“승하하신 여왕 폐하랑 너무나도 닮았어.”

느린 속도로 부어지던 물줄기가 문득 멎었다. 알리사는 물을 붓다 말고 고개를 들어 멍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이 마을에서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알리사는 입가에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컵 속으로 물을 마저 부은 뒤 물병을 내려놓았다.

“여왕 폐하의 얼굴을 알고 계시나 봐요.”

무심하게 들렸으면 하며 꺼낸 말이었지만 커트가 어떻게 느꼈을 진 알 수 없었다. 알리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나 싶던 노인이 다시 술병을 술잔으로 기울였다.

“모를 수가 없지요. 젊었을 적, 황궁에 소년병으로 있었으니.”

노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그러나 알리사는 그의 그런 목소리 변화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했다. 알리사는 노인이 한때 소년병으로 궁에 있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당사자가 아닌가 생각 될 만큼 닮아 제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걸 보면 헛것은 아닌 듯 하고... 알리사 양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지금껏 이 술집에 있던 그 어떤 손님보다도 정중한 물음에 알리사는 조금 기뻐졌다. 심지어 그녀를 아가씨가 아닌 이름으로 불러준 것도 이 노인이 처음이었던 것이다.

“저는 수도에서 태어났어요.”

“수도?”

“네, 정확히는 수도의 슬럼가 에서요.”

덧붙여진 알리사의 말에 잠깐 알리사를 응시하나 싶던 커트가 술을 쭉 들이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다.

“그것 참 아이러니한 일이올시다. 여왕 폐하가 여왕이 될 수 있게 만든 그 반란군들이 슬럼가 출신이었으니.”

“아저씨, 설마 궁에 병사로 있었을 적 이야기를 하는 거요? 우리가 들려 달라 할 때는 그토록 입을 열지 않더니. 아리따운 아가씨 앞이라고 정말이지 다 늙어 주책이구만. 거 어디 우리도 들어나 봅시다.”

누군가가 소리치기 무섭게 술집에 앉아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끌끌 혀를 찬 커트가 다시 한 번 잔에 술을 따랐다.

“그간 입을 다물었던 건 괜히 황궁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가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할까 그랬지.”

“변명은, 그럼 왜 이제 와서 입을 여는 거요?”

“이제 살만큼 산 노인이 죽음이 뭐 그리 두렵겠나. 게다가 알리사 양을 보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덧붙여진 커트의 말에 사람들이 알리사를 힐끗 거렸다.

“정말 이 아가씨가 여왕 폐하를 닮았소?”

“속고만 살았나, 여왕 폐하 젊을 적이랑 소름 끼칠 만큼 닮았네.”

“기억이 미화 된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노망이 났다고 말하는 게지?”

“아이고, 그런 말이 아니란 걸 알지 않소.”

말을 꺼낸 남자가 커트를 향해 손사래 쳤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알리사를 곁눈질한 남자가 이내 납득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금발머리 공주님이었다더니 저런 외모였다면 그럴 만도 했구먼.”

“큰 일 날 소리를, 자네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왕 폐하께서 사랑받았던 건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었네. 폭군이었던 벨트로 슬하의 자식들 중 유일하게 사치하지 않고 제가 가진 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공주였기 때문이었지.”

커트가 단호하게 대꾸하며 알리사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시선이 그녀는 공주와 달리 그렇지 못함을 탓하는 것 같아 알리사는 괜히 눈을 돌렸다.

“제 아무리 성군이면 무얼 하나, 우리는 그 여왕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누군가 말했다. 여왕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 신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말을 꺼낸 사람 주위에 몰린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에야 신전의 본질이 훼손되어 그렇지 이게 처음 설립된 당시에는 그처럼 위대한 업적은 없었던 게 사실이긴 하네. 그게 어디 여왕 폐하의 탓이겠는가. 그 이후로 집권한 전 황제와 현 황제 폐하가 신전을 휘어잡지 못한 탓이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더니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말은 과장되게 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웃어넘긴 사람들이 커트에게 이야기를 재촉했다. 그래서 소년병으로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내가 16살 때 소년병으로 처음 입대 했었지.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해가 반란이 있던 해였고 나는 공주 전하의 반란군 토벌전에 참여했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지 바닥에 즐비하게 쌓인 반란군의 시체와 왕족들의 시체... 토벌전이 모두 끝나고 들것에 들려 나가던 폭군 벨트로의 시체까지...”

중얼거리는 커트의 두 눈이 두려움에 젖어들었다. 그는 마치 16살로 돌아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소?”

“아무 일도 없었네.”

“엥?”

잔뜩 호기심을 담고 이어졌던 질문이 한 순간 어리둥절함을 담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모두가 아는 대로 공주 전하가 여왕의 자리에 올랐고, 나는 이후로 30여 년 간 궁에서 병사 일을 하다가 퇴직하고 이 마을로 들어와 살았지. 일개 병사였을 뿐인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알고 있겠나.”

“뭐요, 고작 그런 이야기뿐이면서 지금껏 우리가 들려 달라 했을 때 입 다물고 있던 거요?”

사람들의 투덜거림이 이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술만 홀짝이던 노인이 다시 한 번 알리사를 보았다. 잠깐 뭔가를 고민하나 싶던 그가 이내 마음먹은 표정으로 술잔을 내려놓았다.

“자네들은 모르겠지만, 당시를 직접 겪은 사람들이 쉬쉬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긴 하지.”

“쉬쉬하는 내용이요?”

이번에는 알리사도 조금 관심을 보였다.

“모두들 백성을 사랑한 금발머리 공주님에 대한 동화는 알고들 있겠지. 어릴 적, 아, 자네들은 그때 청년들이었나? 아무튼 젊은 시절 어디선가 듣고는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을 테니.”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화가 여왕 폐하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럼 혹시 이 동화에 나오지 않는 실제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

이번에는 정적이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그렇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 눈치만을 볼 뿐이었다. 알리사는 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 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전에 엘리자베스가 그녀에게 이야기 한 적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밀이라는 엘리자베스의 신신당부가 있었기에 알리사는 굳이 입을 열지 않았다.

“동화에 이런 대목이 있지. ‘반란군들은 먼저, 성문 근처서 노닐고 있던 공주님의 형제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자네들은 폭군 벨트로의 자식들을 죽인 게 정말 반란군이라고 생각하나?”

나지막하게 떨어진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들이 죽이지 않았다면 누가 죽였다는 말이오?”

“사실, 공주님이 계획한 일일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네. 당시 2살이었던 막내 왕자만이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그러했지. 살아남은 그 막내 왕자가 왕실에서 유일한 공주님의 동복 출생이었거든.”

“와, 이거 정말 누군가 고발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황실 모독죄로 잡혀 들어가겠는데요.”

다른 남자 하나가 키득거리며 덧붙인 말에 커트가 그만할까? 하고 질문했지만 그 누구도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커트의 이야기가 제법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잠깐 동안 좌중을 둘러보나 싶던 커트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반란군의 군주가 먼저 공주님을 배신했다는 부분. 그 대목은 죄다 거짓이야.”

술잔을 들어 올린 커트가 목구멍으로 술을 집어 삼켰다.

“모를 수가 없지. 나를 비롯한 병사들이 공주님께 명령을 받았었거든. 곧 반란군이 들이닥칠 테니, 그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반란군의 군주가 여왕 폐하를 정말로 배신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론 반란군의 군주와 여왕폐하가 대면하기도 전에 반란군은 모조리 토벌 당했었네. 반란군의 군주가 공주님의 목에 정말로 창을 겨눴다면, 그건 배신당했다는 것에 분노했기 때문이겠지.”

“내가 아는 여왕 폐하와는 너무 다른 이야긴데.”

“원래 높은 분에게 흠이 될 불쾌한 진실은 은폐되기 마련이지 않나. 우리도 입단속을 단단히 당했어. 이젠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를 향해 잔뜩 집중된 좌중의 시선을 느끼듯 잠깐 눈을 감는가 싶던 커트 노인이 걸걸하게 내려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래서 한 때 우리 사이에선 이런 의문이 퍼졌었지. 폭군 벨트로를 죽인 것도 정말 반란군의 군주였을까. 혹, 여왕이 되기 위해 제 형제들을 죽이고 왕마저 죽인 공주의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황실에서 새로이 꾸며낸 대목은 아니었을까. 폭군 벨트로가 죽을 당시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고 없기에 왕이 살해당하는 걸 본 이가 아무도 없었으니 말일세.”

커트의 시선이 문득 알리사에게로 와 닿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동화로 각색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동심을 지키기 위해서였겠지만, 역사와 가장 다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지. 공주님이 편안하게 숨을 거뒀다는 대목. 여왕폐하께서 사실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나. 하지만 이게 또 조심스럽단 말이야. 자네들은 여왕 폐하께서 정말로 자살했을 거라 생각하나?”

노인의 마지막 물음에 그의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소, 인파 속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말을 꺼낸 사람을 한동안 응시하나 싶던 커트 노인의 입술이 추가 설명을 위해 다시금 떼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왕궁에 있던 시절의 여왕 폐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제 목숨을 버릴 분이 아니었어. 그 후회에 대한 한을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면 모를까... 참고로 이건 내 개인의 생각이니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좋네.”

“그럼 누가 감히 여왕 폐하를 살해했단 말이요?”

“글쎄, 아마도 여왕 폐하 주변 인물 중 한 사람이지 않겠나.”

“거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네요.”

커트 노인의 곁에 서서 그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마담 킨이 퉁명스레 말했다.

“공주님이 먼저 반란군을 배신했다는 것과, 형제와 벨트로 왕을 죽였다는 건 그럭저럭 믿음이 가네요. 하지만 어떤 대단한 이가 한 나라의 황제를 자살로 위장한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겠어요?”

“믿든 말든 그건 자네들의 자유요. 말했다시피 여왕 폐하가 자살하지 않았을 거란 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믿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만약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여왕 폐하께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알겠네요.”

“우리에게 현재의 평가가 어떻든 대단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 인건 사실이긴 하지요. 이 왕국이 제국의 칭호를 쓰게 만든 것 역시 여왕 폐하이니. 정작 본인은 황제 보다 왕으로 기억되길 원했지만 말이요.”

그 말을 끝으로 커트 노인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서 그에게 옛 이야기를 더 해줄 것을 종용하던 사람들 역시 그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자 곧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커트 노인이 한 말들을 찬찬히 곱씹으며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여왕과 그녀가 닮은 것은 정말 외모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알리사는 그의 물 잔이 빈 것을 발견하고는 다시 물을 채워 넣었다.

노인은 침묵했고 알리사는 더 이상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래서.”

입을 다문 채 술만 들이키나 싶던 노인이 다시금 입을 연 것은 가게 안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손님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 한 시점이었다.

예상치 못하게 들려온 목소리에 알리사는 어리둥절하게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뿌연 눈동자와 또렷한 검은 눈동자 두 개가 모두 알리사의 얼굴을 향해 있었다.

“알리사 양은 여왕 폐하께서 정말 자살하셨을 것 같습니까?”

뜻밖의 물음이었다. 알리사가 답을 알 리가 없었음에도 노인은 마치 알리사의 말이 곧 정답이기라도 하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르겠노라 답하려던 알리사는 이내 마음을 바꿨다.

“아니요.”

단호한 대답에 노인의 주름진 이마가 울렁거렸다.

“얘기를 듣고 보니 자살하실 분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타살을 당했다는 것도 믿기 힘들지만, 왕위에 오르기 위해 형제를 죽이고, 왕을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죽인 여왕폐하께서 자살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렇군요.”

노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덧그려졌다.

“사실 과거의 여왕 폐하와 닮은 알리사 양이 내놓는 대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제게 그 분은 감히 우러러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존경스럽고 대단했던 분이었기에 그 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서... 알리사 양의 대답이 진실은 아니란 건 알면서도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고맙소이다.”

“아니에요.”

그녀가 한 것이라곤 제 의견을 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 인사를 듣자 조금 민망해졌다. 어색한 웃음과 함께 도리질 치는 알리사의 얼굴을 찬찬히 훑나 싶던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시게요?”

“나이가 들어놓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소이다. 더 이상은 무리요.”

말과 달리 커트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빈 술병 세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계산은 저번에 미리 주셨던 돈에서 차감할게요.”

마담 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노인이 느린 속도로 술집을 가로 질러 걸어갔다. 가게 문에 달린 방울이 두 번 딸랑거렸다.

노인이 떠나고 남은 빈 술병과 술잔, 안주 접시 따위를 치운 알리사는 아직 가게 문을 닫기 까지 한참이나 남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커트 노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잘 넘어갔으나 이제 다시 인고의 시간이 될 게 분명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알리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취한 사람들이 가득한 술집 내부의 풍경은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다. 술잔이 벌써 몇 개나 깨진 건지 손님들이 깬 술잔의 개수를 가늠하고 있던 알리사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산적들이 어느새 부턴가 술판에 합류해 있는 걸 발견하곤 한숨을 내쉬었다. 술이 저렇게 좋을까? 옛날에 공작의 강요로 마지못해 마셨던 술은 쓰기만 할 뿐 맛이 없었다. 이런 걸 왜 돈 주고 사 먹는 거지?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 올 테니 잠깐만 혼자 있을래?”

“아, 네! 다녀오세요.”

마담 킨이 황급히 쪽문으로 들어가는 걸 힐끗 바라 본 알리사는 새삼 그녀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커트 할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 이미 두어 차례 싸움이 벌어질 뻔 했지만 마담 킨의 중재로 번번이 큰 소동은 면했다. 알리사였다면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기는커녕 그들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새우등 터졌을 지도 모를 노릇이다.

“마담은 어디로 간 거야?”

바 앞에 서서 컵들을 닦고 있는 알리사를 향해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얼굴도 붉지 않고 눈도 풀리지 않은 걸로 봐선 취객은 아닌 모양새였다. 그녀는 남몰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술에 취한 손님보다야 그렇지 않은 손님을 상대하는 게 편하겠지.

“잠깐 들어가셨어요, 곧 나오실 거예요.”

“뭐?”

티가 나지 않을 뿐 취하지 않은 건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가 알리사의 쪽으로 고개 숙여 되물은 순간 강한 알코올 냄새가 코끝으로 밀고 들어왔다. 어쩐지 불길한 기분이다. 그녀는 최대한 벽 쪽으로 물러나며 다시 입을 열었다.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오실 거예요.”

“너 뭐야!”

알리사의 침착한 대꾸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선 대답과 전혀 상관없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맞닥트린 상황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분명 잘못한 게 없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왜 그녀에게 소리를 지른단 말인가?

“왜 그러세요?”

“너, 너 뭐냐고!”

알리사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되물었으나 상대는 막무가내였다. 급기야 시작된 삿대질에 알리사는 더더욱 어쩔 줄 모르고 뒤로 한 발자국 더 물러났다.

“벤, 왜 그래!”

“아가씨 울겠다!”

비교적 정신이 멀쩡해 보이는 다른 남자들은 그녀를 도와 줄 생각이 전혀 없어보였다. 낄낄대고 책상을 쳐대며 그저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그들이 이다지도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

“너도 내가 더러워? 그래서 이렇게 피하는 거지? 어? 어?”

그녀가 뒷걸음질 친걸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백 번 양보해 그녀가 그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고작 그것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까지 그녀를 무섭게 압박하는 게 옳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며 뛰어대기 시작했다.

“죽여 버린다, 진짜!”

순간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고작 뒷걸음질 친 것 하나로 죽여 버린다는 협박이나 듣고 있어야 하는 그녀의 삶이 기구하게 여겨졌다. 마담이 왜 그간 그녀를 홀로 보내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마담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지? 마담은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폭언들을 참아내지? 나는 이렇게나 무서운데...

“아니, 이 년이 왜 손님이 말을 하는데도 대답이 없어? 지금 얼굴 믿고 설치는 거야 뭐야? 확 그냥!”

남자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린 순간 그 모습에 과거의 아버지가 투영돼 보였다. 알리사는 반사적으로 귀를 틀어막고 제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 순간의 그녀는 과거의 10살짜리 소녀에 지나지 않았다.

“잘못,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빠. 귀를 틀어막은 팔이 덜덜 떨렸다. 알리사는 눈을 질끈 감고 익숙하되, 결코 익숙해지지 않았던 고통이 밀려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예상한 고통은 오래도록 밀려오지 않았다.

아, 바가 그들 사이를 막고 있어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자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간은 영원과도 같이 이어졌고 그녀가 기다리는 그것은 결코 찾아오지 않았다.

“...씨.”

알리사는 감았던 눈을 떴다. 누군가 그녀의 양 팔을 잡고 그녀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 산적 중 한 사람이다.

“아가씨, 괜찮아요?”

당신 같으면 괜찮겠어요? 그 물음이 턱 끝 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내밀어진 도움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치기엔 지금의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멍한 눈으로 산적의 눈을 응시하고 있던 알리사는 술집이 잔뜩 조용해 졌다는 걸 느꼈다. 두려움 속에 느리게 고개를 돌린 알리사는 남자가 들어 올렸던 팔이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많이 취했어, 아저씨.”

코렌카였다. 그가 남자의 팔목을 붙잡고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뭐, 뭐야 코리. 너도 이젠 날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뿐 이지. 아내가 도망가 버렸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풀면 쓰나. 괜히 손 한번 잘못 놀렸다가 내일이 되면 분명 후회할 걸.”

“네가 뭘 안다고, 어린놈이!”

“에헤이.”

남자가 다시 한 번 팔을 크게 휘둘렀으나 그것보다 코렌카의 힘이 더 강했다. 코렌카에게 조금이라도 닿기는커녕 도리어 몸만 비틀거리고 만 남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니 힘 빼지 말고 집이나 가셔.”

코렌카가 퉁명스레 내뱉은 말에 남자가 얼굴이 붉어진 채 몸을 부들거렸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홱 고개를 돌린 남자의 눈동자가 알리사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 시선이 담은 분노에 그녀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그보다 코렌카가 남자의 눈앞으로 손을 밀어 넣어 알리사를 향해 있는 남자의 시선을 차단하는 게 더 빨랐다.

“마담한테는 이러지도 못하면서 알리사한테는 그러는 이유가 뭐야? 아, 설마 나 때문인가. 제니아를 건드렸다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란 걸아니까?”

그는 이미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물은 것 같았다. 아무런 대꾸 없는 남자를 흥미롭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던 코렌카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그런 논리라면 알리사도 건드려서는 안 되지.”

코렌카가 남자의 어깨를 꽉 쥐어잡았다. 그 보다 못해도 스무 살은 많아 보이는 남자를 대하는 그의 모습에는 어떤 위화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제니아가 이 애를 가족처럼 느끼고 있다면 나한테도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거 알잖아? 그리고 혹시 알아, 얘가 나랑 다른 의미의 가족이 될 사이인지 아닌지.”

“뭐?”

전혀 뜻밖의 말에 놀란 것은 남자뿐만이 아니었다. 알리사가 넘어지지 않게 그녀를 제대로 붙잡아 주고 있던 산적을 비롯해 당사자인 알리사조차 코렌카의 말에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알리사와 눈이 마주친 코렌카가 입을 반쯤 벌리고 있는 알리사를 향해 눈을 찡긋했다.

“왜, 제니아의 집에서 1년 동안 산 여자랑 내가 안면 하나 없이 지내 왔을 리가 없잖아? 여기는 제니아의 집이기도 하지만 내 집이기도 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지 않나?”

“뭐야, 코리! 저 아가씨랑 벌써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뒤쪽에서 상황을 방관하며 술을 마시고 있던 남자들 중 하나가 우렁차게 외쳤다.

“그럼 내가 이런 미인을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

“역시 젊은 놈이라 그런지 패기가 좋아!”

이어진 코렌카의 대꾸에 다른 남자의 외침이 이어졌다. 남자들 무리에서 한 순간 튀어나온 웃음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알리사는 코렌카의 대답은 물론이고 그 뒤로 이어진 말들과 웃음소리가 제법 불쾌했으나 그런 기분을 토해내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많이 혼란스러웠다. 마담 킨과 코렌카가 그렇고 그런 사이일 거라 생각했는데 알리사와 코렌카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봐선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럼 대체 두 사람은 무슨 사이인 거지?

“이제 이 아가씨가 임자 있는 몸이란 걸 알았으면 다들 눈독들이지 말길 바라. 아저씨들이 그렇게 자꾸 눈길을 주면 내가 질투난단 말이야. 알리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일부러 티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네.”

“알았다, 알았어!”

“그래서 결혼은 언제쯤 할 계획이냐! 너도 혼기가 꽉 찼는데 마담한테 조카를 보여줘야지!”

가게에 앉은 남자들의 외침을 애써 듣고 있던 알리사는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마담한테 조카를 보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란들이야!”

언제 돌아온 건지 모를 마담 킨이 쪽문 앞에서 짜증 섞인 소리를 내질렀다.

“설마 벤 아저씨를 때린 건 아니겠지? 코렌카 킨!”

아, 그제야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산적들이 누님이라 부른 상대가 누구였는지. 가게 사람들이 왜 마담 킨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지. 코렌카와 마담이 왜 그렇게도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는지.

마담 킨과 코렌카는 남매사이였던 것이다. 외모가 닮지 않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녀의 예상이 빗나갔다.

알리사는 코렌카가 화들짝 놀라 그가 붙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놓는 것을 보았다.

“오해야, 제니아. 자세한 건 알리사가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며 그가 알리사를 향해 다시 한 번 윙크했다. 알리사는 코렌카가 왜 그녀를 홀에 남겨두라고 그다지도 우겼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코렌카는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것이다. 알리사가 곤경에 휘말렸을 때 그녀를 도와 그와 알리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 그녀에게 눈길 주는 남자들을 모두 쳐내는 목적으로.

하지만 전혀 고맙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녀에게 귀띔을 해주는 편이 좋았다. 그녀의 의사 한 번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 친절에는 조금 화가 났다. 아니, 애시 당초 이걸 친절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럴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녀를 도울 수도 있었을 거다. 이 술집에 앉은 남자들이 그녀를 희롱하기 전에, 그녀를 두렵게 만들기 전에.

하지만 알리사는 그걸 표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감정을 코렌카에게 분명히 전달한다면 그녀는 도움을 주는 것에도 고마워 할 줄 모르는 몰상식한 여자가 되고 말테니까.

알리사와 산적들, 코렌카와 가게 손님들을 찬찬히 둘러보던 마담 킨의 미간에 주름이 졌다. 결국 마담 킨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손님을 내보내고 가게 문을 닫았다. 그 후 이어진 알리사의 설명을 들은 마담 킨의 손이 코렌카의 등짝을 매섭게 내리쳤다.

“이 무식한 자식! 그걸 친절이라고 베풀어?”

얼결에 얻어맞은 코렌카가 억울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아니, 칭찬은 못해줄망정, 왜 때려?”

“칭찬? 칭찬 받을 일을 해야 칭찬을 해주지. 욕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

마담 킨이 콧방귀를 내뀌며 코렌카의 뒤에 서 있는 산적들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너희는 안 치우고 뭐해?”

“네? 저희요?”

서로를 마주보고 시선을 교환하던 산적들이 손가락으로 자신들을 가리켰다. 그 모습이 어울리지 않게 어리숙해 보였다.

“그럼 여기 너희 말고 누가 또 있어? 도울 거면 확실하게 도와야지. 당장 청소 해.”

“하지만 여기서 제일 많이 논 건 코리인데...”

“코렌카도 곧 시킬 거니까 당장 시작해.”

억울함이 잔뜩 담긴 산적들의 항변은 마담의 단호한 목소리에 막혔다. 잠깐 툴툴 거리나 싶던 산적들은 곧 근처에 있던 빗자루와 걸레 따위를 집어 들고는 술집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듯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본 마담 킨이 고개가 곧 코렌카를 향해 돌아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알리사에게 미리 허락을 구했어야지. 어딜 당사자도 모르게 혼자 일을 꾸며놓고 칭찬 듣길 바라고 있어?”

“그래도 결과적으로 알리사에게 치근덕거릴 남자들이 없어졌으니 좋은 거 아닌가?”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마담 킨이 다시 한 번 코렌카의 등짝을 퍽 소리 나게 때렸다.

“어차피 그럴 거였다면 처음부터 도와주던가. 몇 번이나 곤경에 처하고 나서야 도와주는 건 대체 무슨 심보야?”

“그 편이 더 멋있으니까? 원래 정의의 사도는 제일 마지막에 나서는 법이잖아.”

“멋은 무슨, 얼어 뒤질 멋.”

다시 한 번 퍽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이번 것은 제법 아팠던 것인지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른 코렌카가 한손으로 제 등짝을 문지르며 인상을 찌푸렸다.

“마담은 아직도 날 너무 어린애 취급 해.”

“네 행동을 돌이켜 봐. 내가 어린애 취급을 하게 생겼는가, 아닌가. 2주 전에도 그래, 1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나 죽을 지도 몰라.’라니! 네 덕에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심란 했는지 알아?”

“그랬어? 미처 몰랐네, 미안.”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 보이는 표정으로 미안하다 말하는 그의 모습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부드럽게 웃으며 마담을 응시하는 코렌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알리사는 마담 킨이 왜 코렌카를 만나고 하루 종일 심란한 모습을 보였던 것인지 그제야 알게 되었다.

코렌카가 마담 킨에게 자신이 죽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가 산적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누나도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거잖아. 산적이 토벌당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말이 충격적이었을 지는 몰랐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당사자의 입에서 전해 듣는 건 다르지.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튼 알리사한테 사과해.”

“내가 왜?”

코렌카는 새삼 결백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항변하는 것 같은 그의 표정에 알리사는 온 몸의 힘이 쫙 빠지는 것을 느꼈다.

“왜긴 왜야. 네가 알리사를 남겨 두라고 박박 우긴 탓에 알리사가 안 좋은 일들을 겪었으니까.”

“아.”

그는 그제야 뭔가 깨달은 눈치였다. 아주 짧게 그의 얼굴에 낭패가 어리나 싶더니 그의 시선이 알리사에게로 돌아왔다.

“미안.”

진심이 담기기는 한 사과였다. 하지만 어쩐지 내키지 않았다. 지난 십여 년 간 꾹꾹 누르고 살아온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난 탓이다.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그녀에게 손을 들어 올린 그 때 투영되어 보인 아버지의 모습은 기억하고 싶지 않던 것이었다.

아버지와 헤어진 이후로 알리사는 의식적으로라도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왔다. 그녀를 폭력으로 대한 아버지이지만 만나지 않은 세월동안 그도 반성했을거라고, 그러니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왔다. 폭력과 고통으로 얼룩진 지난날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것들 쯤은 잊을 수 있다며 스스로를 기만했다.

그리고 정말로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가 밉다.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그녀를 향해 폭력을 휘둘렀었던 아버지가 여전히 밉고 그녀에게 빚을 남겨 그녀가 이지경이 되게 만든 아버지가 원망스럽다.

흙과 모래 따위로 억지로 덮고 덮었던 밑바닥이 드러난 느낌이다.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가 밉다. 그녀를 강제로 홀에 남게 만들어 제 밑바닥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코렌카가 미웠다.

“괜찮아요.”

하지만 알리사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 할 수 없었다. 괜찮지 않다고 말했다가는 이들이 그녀의 밑바닥을 알아차릴까봐. 마담 킨이 그런 그녀를 불쾌하다 이야기 할까봐.

“다음부턴 조심 해.”

마담 킨이 코렌카를 향해 퉁명스레 내뱉었다.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코렌카가 다시 한 번 알리사에게 사과했다. 괜찮아요. 알리사는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정말 괜찮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그녀가 속삭였다. 응, 괜찮아. 그녀는 다시 스스로를 기만했다.

“이제 너도 가서 청소나 도와.”

“어, 나도?”

“응.”

코렌카를 향해 매몰차게 대꾸한 마담 킨이 알리사를 돌아보았다.

“알리사는 들어가서 쉬도록 해.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았어.”

“아니에요, 저도 도울게요.”

“됐어. 나도 오늘은 치울 생각 없으니까 너도 이만 가서 자.”

등을 떠미는 마담 킨의 손길에 알리사의 몸은 맥없이 쪽문을 향해 밀려났다. 마담 킨보다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전에 없던 피로가 갑작스레 몰려왔다.

“안녕히 주무세요, 마담.”

“그래, 너도.”

습관처럼 저녁 인사를 한 알리사는 비척거리는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 속에 몸을 뉘였다.

그 날은 하루 종일 악몽을 꿨다. 그녀는 10살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끊임없이 손찌검했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줄리아가, 줄리아가...! 아버지의 가래 낀 목소리가 그녀를 덮쳐온다. 몸을 떨며 귀를 틀어막아도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그 소리는 점점 비통한 울음소리로 바뀌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그녀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한이 담긴 그 울음소리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소름이 끼쳐오기 시작했다. 나한테 왜 이래요? 마음속으로 외친 소리에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눈을 뜬 적도 없는데 눈앞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백꽃이 흐드러진 어느 곳의 밤이었다. 하이텔 공작저에서 본 동백나무 정원이 생각나는 풍경이었다. 그 곳을 그리워 한 적은 없는데 왜 이게 보이는 건지 모를 일이다.

그녀는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시선 대신 푸른빛이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두려움과 안타까움의 감정이 공존하기 시작했다. 눈앞의 장면들이 소용돌이쳤다. 붉은 동백꽃과 푸른빛이 섞여들고 섞여들다가 종래에 거친 숨을 내쉬며 현실로 내동댕이쳐졌다.

“아.”

알리사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냈다. 이제 겨우 동이 트고 있었다. 다시 침대에 몸을 눕혔지만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다. 다행이 다시 잠들고 난 후로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얼굴이 왜 그렇게 퉁퉁 부었어?”

일찍부터 술집을 찾아온 코렌카가 능청스러운 물음을 던졌다. 사람 속도 모르고. 알리사는 퉁명스럽게 생각하며 꽉 찬 쓰레기봉투를 가게 밖으로 내려놓았다.

“응? 왜 이렇게 부었냐니까? 꼭 만두 같네.”

“잠을 좀 못 잤어요.”

알리사의 덤덤한 대꾸에 코렌카의 능청스러운 얼굴에 아주 잠깐 균열이 일었다.

“혹시, 나 때문이야? 그런 거면 다시 한 번 미안해.”

“괜찮다니까요.”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서 이전보다는 마음이 조금 풀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진짜 괜찮은 건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 집에 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아, 그러고 보니 잊고 있었다. 마담 킨과 코렌카가 남매랬지.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그들이 남매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그의 얼굴을 힐끗 거렸는데 그걸 눈치 챈 모양이었다. 알리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그보다 코렌카가 더 빨랐다.

“내가 제니아랑 닮지 않아서 그러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눈치가 제법 빨랐다. 알리사는 부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자 코렌카의 얼굴에 알만하다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 닮지 않은 게 당연해. 배다른 남매라서.”

둘 다 서로의 어머니를 닮았어. 덤덤하게 뱉어진 이야기에 알리사는 납득했다. 코렌카가 부드러운 인상이라면 마담 킨은 날카로운 인상으로 그들은 분위기조차 닮지 않았던 것이다. 배가 다른 남매에 각자의 어머니를 닮았다면 그럴 만도 했다.

“별로 놀라지 않네?”

코렌카가 의외라는 듯 말했다.

“재혼이나 이중혼은 대개 귀족들의 전유물인데 말이야.”

덧붙여진 그의 말에 알리사는 한 박자 늦게 놀라 눈을 커다랗게 떴다. 바람이 난 게 아닌 이상, 평민들에게는 배다른 남매라는 게 존재하기는 힘들었다. 재혼을 하는 게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만큼 힘들었을 뿐 더러 평민들에게 이중혼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마, 아니죠?”

알리사의 당황어린 물음에 코렌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왜 있겠어?”

“정말요?”

“응, 정말로.”

그의 진지한 대꾸에 알리사는 충격어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정말 귀족출신이라고요?”

“응, 속고만 살았어?”

세상에. 이렇게 예의범절 밥 말아먹은 남자가 귀족출신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럼 마담 킨도 귀족 출신이었다는 것 아닌가. 백 번 양보해 마담 킨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코렌카는 그러리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첫 만남부터 반말을 해대는 이 남자가 정말로 귀족출신..., 일 수 도 있겠구나. 생각해보면 귀족들이 천민이나 평민에게 존대를 하는 게 더 이상하긴 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놓아버리는 건 정말 그저 예의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 알리사에게는 이 사실이 제법 충격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응, 당연하지.”

오늘도 해가 떴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잔잔한 어조였다. 알리사는 뒤로 넘어갈 것만 같은 기분을 간신히 억누르고 그에게서 조금 멀어졌다.

“근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17년 전에 가문이 망해서 이제 귀족도 뭣도 아니니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신경 쓰지 말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왜 자꾸 멀어져? 제니아라면 모를까 나는 귀족으로 산 세월보다 평민으로 산 세월이 더 크니까 그렇게 낯설어 하지 않아도 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귀족들의 삶이 뭔지 죄다 잊은 지 오랜걸.”

환하게 웃는 그는 평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꺼낸 말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알리사는 마음이 조금 놓이는 걸 느끼며 다시 코렌카에게 조금 더 가까이 서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마담은 아직 자고 계세요.”

“그렇구나.”

깨워 달라고 하지 않는 걸 보니 마담을 만나러 온 건 아닌 모양이었다. 정말 그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걸까?

가게 안으로 들어온 코렌카가 바를 넘어 가더니 찬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 그를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던 알리사는 그가 찬장에서 꺼낸 게 마담 킨이 즐겨 마시는 찻잎 봉지라는 걸 알아차렸다. 능숙한 손길로 찻잔을 꺼내 찻잎을 넣은 코렌카가 문득 알리사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내가 바텐더가 될 테니 네가 손님 노릇 좀 하지 않을래? 술은 아니고 차를 만들 거지만.”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 놀음에 동참해주지 않으면 피곤해 질 거라는 예감이 들어 알리사를 고개를 끄덕였다. 바 앞에 앉은 알리사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보나 싶던 코렌카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여 들고 왔다. 주전자에 담긴 물을 붓는 모습은 제법 진지해 보였다.

“이 차, 우리 가문이 멸문하기 전에 가문에서 즐겨 마셨던 차래.”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의 눈은 찻잔을 향해 있었다.

“귀족 가문이 마시던 차 치고는 제법 저렴해서 평민 신분이 된 지금도 마실 수 있더라. 나는 솔직히 차 맛이 다 거기서 거기라 생각하는데 제니아는 생각이 좀 다른 모양이더라고. 나한테 이 차를 제대로 타는 방법도 가르쳐 줬어.”

똑같은 높이까지 맞춘 물의 높이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던 코렌카가 알리사의 앞으로 찻잔을 내밀었다.

“마셔 봐, 아마 끝내줄 거야.”

사실 알리사도 차 맛이 거기서 거기라는 코렌카의 말에 동의 했기에 차를 한 모금 음미해도 대체 다른 차들과 뭐가 다른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기대어린 코렌카의 눈빛을 차마 무시할 수 없어 알리사는 맛있다는 둥의 입에 발린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제법 만족스러워 보였다.

“안타까운 일이지, 가문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이 차를 내 손으로 직접 타먹는 일은 없었을 건데.”

말과 달리 그는 전혀 안타까워 보이지 않았다. 알리사는 그의 얼굴을 의문스럽게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한 번 차를 음미했다. 여전히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따뜻한 게 들어간 탓인지 몸이 나른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알리사 네가 수도 출신이라고 했지?”

“네, 정확히는 그 외곽의...”

“판자촌, 나도 알아.”

코렌카가 고개를 끄덕였다.

“곧 축제기간이던데, 그 시기에는 수도에 사람이 많지?”

“네.”

고개를 끄덕인 알리사는 재빨리 덧붙였다.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저는 그 시기에 마을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서요.”

18년 간 수도에서 살아왔음에도 축제를 즐긴 적 없는 알리사로서는 사람이 얼마나 몰리는 지조차 알지 못했다. 켄을 통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다.

축제하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떠오른다. 축제 기간에만 공개되는 여왕의 초상. 그녀가 그토록 보길 바랐으나 끝끝내 보지 못했던 그것.

“그런데 코렌카 씨도 축제에 참석한 적이 없나 봐요? 한 때 귀족이었다면서...”

알리사는 생각을 떨치려 애쓰며 화제를 전환했다.

“모든 귀족들이 수도에 사는 건 아니니까. 나는 10살 까지 영지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 제니아가 사교 파티인지 뭔가 때문에 수도로 몇 번인가 가곤 했지.”

그는 추억에 잠겨드는 표정을 지었으나 곧 현실로 돌아왔다. 벽에 비스듬히 기대선 코렌카가 찻잔을 들어 차를 입 안 가득 머금었다가 속으로 삼켰다.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번 축제는 특히 더 붐빌 것 같다고 하더라. 여왕의 검이 공개 된다고 해서.”

“여왕의 검이요?”

“그래, 동화 속에 나오는 푸른 검 말이야. 금발머리 공주님이 반란군 군주의 목을 벤 그 검.”

아, 반란군 군주와의 약속의 증표였다가 종래에는 그의 숨통을 끊는 데 쓰였던 그 검을 말하는 모양이었다. 백성을 사랑한 금발머리 공주님에 대한 동화를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동화 속 공주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 생각했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당해 약속의 증표였던 검으로 그 목을 베어야 했다니.

하지만 그게 실화였고, 사실 먼저 배신한 게 공주였다는 걸 알게 되자 안타깝기 보다는 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강단이 있어야 하는 걸까.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 검을 보기 위해 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알리사는 잔뜩 질린 낯빛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말에 어깨를 으쓱한 코렌카는 다시 한 번 차를 마셨고 알리사도 찻잔을 들어올렸다.

“아무튼 오늘 내가 널 찾은 건 부탁할 게 있어서 인데...”

“뭔데요?”

찻잔을 입에서 떼어낸 알리사가 물었다. 코렌카의 얼굴에 아주 잠깐 갈등의 빛이 어렸다가 이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번 축제 기간에 내 친구들과 함께 수도에 좀 가지 않겠어?”

노곤했던 정신이 한순간 깨어났다.

함께 수도에 가지 않겠냐니. 그녀가 그곳에서 도망쳐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할 수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무턱대고 거절한다면 코렌카가 이유를 물을 것이고 그녀는 또다시 둘러댈 말을 고민해야 할 게 분명했으니 알리사는 일단은 거부하지 않았다.

“수도에는 왜요?”

“이번 축제 때 수도에 갈 일이 있는데 그곳 지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 제니아한테 부탁해볼까도 고민했는데, 가게를 비울 순 없잖아. 그렇다고 너만 가게에 두고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같이 가더라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수도가 얼마나 넓은데요. 친구 분들이랑 가려는 곳이 제가 모르는 장소 일 수도 있잖아요.”

“중앙시장인데, 몰라?”

하필이면 중앙시장이라니. 모를 리가 없었다. 소피아 할머니가 돌아가신 의원이 있는 곳도 중앙시장이었다. 모른다고 대답할까 고민했지만 코렌카가 수도에 가게 되면 할렘가와 중앙시장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 거짓말을 하는 것도 요원했다.

“아는 모양이네.”

코렌카의 말에 알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라갈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었다. 알리사의 표정을 읽기라도 한 마냥 코렌카의 얼굴에 난감한 미소가 어렸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무기를 구하러 가는 거라, 지리를 아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무기요?”

“응, 신전 측에서 군대를 끌고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게 분명하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하지 않겠어?”

예상치도 못한 대꾸였다. 알리사는 정신이 까마득해지는 걸 느끼며 느리게 눈을 깜박였다.

“무기들을 옮기기엔 사람들이 많아서 인파 틈으로 적당히 섞여 들어갈 수 있는 축제기간 만큼 적당한 때가 없어.”

“하지만 왜 수도까지 가야해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알시에 대장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다른 마을에서 무기를 구했다가 그들이 의심이라도 해서 신고를 한다면 난감해 지기도 하고. 우리 마을의 빌터 아저씨네 형제가 수도에서 대장간을 하고 있어서 보안 문제를 생각하면 수도로 가는 게 최선책이야.”

알리사는 입술을 꾹 다물고 바닥이 보이는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무기를 수도 밖으로 밀반입하는 일을 도우라니. 이렇게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친구 분들이랑 가면 눈에 엄청 띌 것 같은데요.”

알리사는 거절에 앞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었다. 코렌카가 친구들이라 지칭한 이들은 산적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덩치는 하나같이 독보적이었다. 게다가 인상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으니 축제 구경을 온 평범한 백성이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다.

“그게 네 도움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지.”

코렌카의 생뚱맞은 대답에 알리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게 이유라고? 왜?

“네 외모가 제법 귀족처럼 생겼으니 네가 같이 간다면 우리를 귀족 아가씨를 호위하는 호위기사들 정도로 위장할 수 있지 않겠어?”

“그거 굉장히 터무니없는 발상이란 거 알죠?”

알리사는 그의 천진난만한 대꾸에 퉁명스레 대꾸했다. 혹여나 그가 농담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의 얼굴이 사뭇 진지한 걸 봐선 진심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통할 것 같은데.”

“안 통할 걸요?”

“그래도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란 말이야.”

코렌카가 고집스레 대꾸했다.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제일 안전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했다. 덩치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손에 무기 같은 걸 들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보단 호위 받는 여자가 있는 편이 의심을 덜 사겠지.

“하지만 누가 저를 귀족 아가씨라 생각하겠어요?”

“왜, 외모는 천상 귀족 아가씬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걸 알잖아요.”

퉁명스레 대꾸한 알리사는 얼굴에 열이 조금 차오르는 걸 느꼈다. 차마 제 입으로 할 수 없던 말은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여자를 누가 귀족이라고 생각하겠느냐는 말이었다.

“옷이 문제라면 나한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갑자기 들려온 마담의 목소리에 알리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인지 마담 킨이 가게와 연결된 쪽문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서 있었다.

코렌카와 알리사를 번갈아 본 마담 킨이 느리게 다가와 알리사의 옆에 놓인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마담 킨을 응시하는 코렌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17년도 더 된 옷을 아직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때 입었던 옷 아냐. 몇 년 전에 추억에 젖어서 샀던 옷이지. 허영에 부풀었던 시절이 있었어.”

마담 킨의 입가에 자조가 어렸다.

“자괴감이 들어서 옷장 속에 처박아 둔 이후로 꺼낸 적이 없는데, 필요하다면 빌려줄게.”

“네 옷이면 키 때문에 알리사한테 맞지 않을 텐데?”

“옷 수선쯤은 할 줄 알아.”

마담의 퉁명스러운 대꾸에 코렌카의 얼굴에 쾌재가 어렸다. 그가 기대감에 부푼 표정으로 알리사를 쳐다보았다.

“제니아도 도와준다는데 어때?”

“네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 어찌 보면 위험한 일이니까.”

마담 킨이 조용히 덧붙였다.

알리사는 침묵 속에 주먹을 말아 쥐었다. 사실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마음은 반대를 외쳐대고 있었다. 그토록 보기를 고대했던 여왕의 초상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랐다.

수도로 가서 황태자를, 시트리안 공자를, 엘리자베스 아가씨를, 아니면 켄을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며칠씩 머무는 게 아니라 몇 시간 잠깐 들렸다가 오는 것이라면 더욱이.

알리사는 갈등하기 시작했다. 여왕의 초상을 보는 게 수도에 가서 누군가를 만날 위험을 감수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답은 ‘그렇다’였다. 여왕을 알고 지낸 이들이 모두 닮았다고 말하는 알리사의 외모가 여왕과 어느 정도로 닮았는지 보는 것은 알리사에게 제법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여왕과 닮은 이 외모 때문에 겪은 몇 번의 고충을 생각하면 먼발치에서 여왕의 초상을 보는 걸로도 모자랐다.

“갈게요.”

알리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옳은 선택이란 건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장사가 끝나고 알리사를 방으로 보낸 뒤 제 방으로 돌아온 마담 킨은 옷장 문을 열었다. 잔뜩 낡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린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 금색 자수로 장식된 붉은 드레스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옷더미를 헤집어 드레스를 밖으로 꺼낸 마담 킨은 등불 아래 드레스를 놓았다.

몇 년 간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탓에 오래된 옷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상한 곳은 없어보였다. 빨고 나면 새 옷처럼 말끔해 질 것이다. 사실 한 번 밖에 입어보지 않았기에 새 옷이라 불러도 무방하긴 했다.

부드러운 드레스의 감촉을 손끝으로 느끼던 드레스를 가슴팍에 끌어안은 채 힘없이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코렌카의 손을 붙잡고 이 마을로 들어오기 전 과거의 향수에 젖어 구매한 옷이었다. 딱 한 번 착용하고 이전과 달리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옷이 이렇게 다시 빛을 보게 될 줄 몰랐다.

“붉은 해가 뜨는 아침, 새들은 노래하고...”

어릴 적 들었던 동요를 낮게 흥얼거리던 마담 킨은 눈을 질근 감았다.

제니아 이사벨라 킨은 킨 남작가문의 첫째 딸이었다. 영지 내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그녀는 그녀를 탐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고, 때때로 그들을 가지고 놀며, 아름다운 것들에 있어서는 허영심 많고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는 철부지 아가씨였다. 새 어머니가 낳은 10살 차이의 남동생과 그녀의 사이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나쁜 편도 되지 못했다.

그러다 그녀가 20살이고, 그녀의 남동생이 10살이었을 적. 가문이 몰락했다. 아버지가 어느 백작가의 횡포에도 굴복하지 않고 명예를 지키겠노라 결심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그 일이 충격이었던지 아버지는 몸져누웠고 의원에게 갈 형편조차 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그리고 젊고 아름다웠던 평민 출신의 새어머니는 가문의 몰락과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충격 속에 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고프다며 차라리 죽고 싶다며 우는 어린 남동생의 곁에서 제니아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통스러운 나날의 반복이었다. 제니아와 코렌카는 길거리를 떠돌았고 배가 고플 때면 코렌카를 시켜 밥을 동냥했다. 차마 제니아 스스로 동냥질을 할 용기는 없었다. 아마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온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헛소리를 시작하는 코렌카를 마주했을 때, 제니아는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때 죽느니만 못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몸을 팔아 돈을 받는 행위를 했다.

몇 번이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가문이 몰락하기 전 수많은 남자들을 가지고 놀았던 제니아 이사벨라 킨은 더 이상 없었다. 권력이라 생각했던 그녀의 외모는 아버지를 통해 얻은 진짜 권력을 잃은 순간, 그 힘을 잃었다. 남자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은 상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코렌카를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 제니아는 분노를 집어삼켰다. 우애 좋은 남매는 아니었으나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죄라고, 그 애를 놓을 수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감각은 무뎌지고 자신을 향한 혐오마저 사라졌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나날이 지속되고 비로소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몸을 팔지 않아도 되게 됐을 때, 제니아는 코렌카를 데리고 도망치듯 알시 마을로 들어왔다.

그녀가 살아온 과거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제니아는 그 때를 잊으려 애쓰며 몸을 파는 일을 제한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때론 무례하게 굴었지만 그래도 친절했고, 외부에서 들어온 제니아에게 일을 주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코렌카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함께 일해 모은 돈으로 가게를 차렸다.

그렇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나 했는데 신전의 횡포로 또다시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 때 제니아가 느낀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게 코렌카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제 스스로 산적이 되겠다 말했을 때의 충격과 같을까. 목숨 받쳐 키워온 동생이 제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하는 말에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죽음 앞에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음이랑 싸우는 거지.’

하지만 악을 쓰는 그녀를 향해 코렌카가 그렇게 말했을 땐, 제니아도 납득하는 수밖에 없었다.

‘누나가 나를 살린 방식이 그거였다면 내가 누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밖에 없는 걸.’

우리한테 친절했던 마을 사람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칠 자신은 없잖아. 코렌카는 그렇게 덧붙였지만 제니아는 그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자리를 잡으려면 그녀는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몸을 파는 행위를 해야만 할지도 몰랐다. 그건 제니아가 두려워하는 것이었고 코렌카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를 구하기 위해 뭐든 했던 과거의 제니아처럼 코렌카 역시 제니아를 구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담 킨은 눈을 뜨고 품에 안았던 드레스를 옆으로 내려놓았다. 이번 일을 끝으로 알리사는 더 이상 우리 일에 말려들지 않게 해야지. 알리사가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에 동참할 필요는 없었다.

마담은 책상 위에 놓인 가위를 집어 들었다. 알리사에게 맞게 옷을 줄여야했다.

축제까지 하루가 남은 시점이었다. 아직 장사를 시작하지 않은 마담 킨의 술집에 앉아 초조하게 탁자를 두드리던 코렌카의 손가락이 멎었다. 코렌카는 탁자에서 떼어낸 손가락 끝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불안 때문일까, 머리가 아팠다.

코렌카와 친구들은 신전이 군대나 기사를 끌고 오는 시기를 축제 이후로 예상하고 있었다.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버텼으나 이제는 한계였다. 맞서 싸워도 수가 많지 않은 그들이 토벌 당하리란 것은 자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자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죽을 땐 죽더라도 마을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싸우다 죽어야만 했다.

“코리.”

나지막하게 부르는 목소리에 코렌카는 고개를 돌렸다. 마담 킨이 복잡한 표정을 지은 채 쪽문 앞에 서 있었다.

“알리사는?”

“안에서 옷 갈아입고 있는 중이야.”

덤덤하게 대꾸한 마담 킨이 코렌카의 앞으로 걸어왔다. 제자리에 앉은 코렌카의 앞에서 한참동안 그를 내려다보던 마담 킨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다. 가만히 손을 내뻗어 그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마담 킨의 손길이 퍽 다정했다.

“왜 이래? 안 어울리게.”

코렌카의 짓궂은 놀림에도 마담 킨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코렌카는 계속해서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마담 킨의 팔목을 붙잡았다. 좀 더 세게 잡으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한 뼈대가 느껴졌다. 17여 년 전만 해도 보기 좋게 살이 붙어있던 몸은 이제 키에 비해 완전히 깡말라 있었다.

“밥 좀 잘 먹으라니까. 자느라 매번 아침도 거르지?”

“난 밥보다 잠이 좋아.”

마담 킨의 퉁명스러운 대꾸에 코렌카는 못 말린다는 듯 웃었다. 그런 코렌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마담 킨이 그에게 붙잡히지 않은 다른 한 손을 코렌카의 어깨 위로 올렸다.

“수도에 가서 필요한 걸 다 사면, 알리사는 두고 와.”

“뭐?”

전혀 뜻밖의 요구에 코렌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알리사를 두고 오라고? 왜?

“우리 마을의 문제에 알리사를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을 겪기에 저 애는 너무 어려.”

“무슨 소리야.”

코렌카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이건 우리 산적들 선에서 해결 할 테니까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 알리사가 위험에 휘말릴 이유는 없어.”

그의 대답에 마담 킨이 무언가를 말하고자 입을 열었으나 코렌카는 고개를 저어 그녀의 대답을 막았다.

“게다가 내가 죽으면...”

일순 마담 킨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코렌카는 멈추지 않았다.

“너한테는 가족이 필요해, 제니아.”

“나한테 가족은 너 밖에 없어.”

“거짓말 하지 마. 네가 알리사를 여동생처럼 여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코렌카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제니아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알리사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알리사도 제니아를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 같았으니 아마 그녀는 제니아의 곁에 남아줄 것이다.

“네 말이 맞아.”

마담 킨이 조용히 대꾸했다.

“알리사를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어, 인정할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리사를 마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거야.”

“그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코렌카, 너는 마을 사람들이 정말 너희들을 혼자 죽게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해?”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제 친구들을 혼자 죽게 내버려 둘 거 같느냐고? 물론이다. 가만히 있으면 피해를 입지 않을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싸울 이유가 없지 않은가.

“또,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잊었어? 네 친구들은 이 마을 사람들의 아들이고 손자야. 그리고 너 역시 그들에겐 아들이고 손자나 마찬가지지.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 없어.”

“이미 얘기가 다 된 일이야.”

마담 킨의 조용한 덧붙임에 코렌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미 얘기가 되었다고? 뭘? 산적들과 함께 제 목숨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는 게?

“우두머리는 나야. 누구 마음대로 우리를 돕네 마네를 결정해?”

“네가 거절해도 개인적으로 움직일 사람들이야.”

“누나!”

탁자가 쾅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코렌카는 잔뜩 붉어진 얼굴로 마담 킨을 노려보았으나 그녀는 눈썹하나 꼼짝하지 않았다. 한참을 씩씩거리던 코렌카는 이내 주먹을 꽉 말아 쥐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구야? 내가 좀 만나봐야겠어.”

“곧 출발해야 약속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 아니었니? 약속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쇠들을 다시 녹이겠다 말했다고 들었는데.”

마담 킨의 말에 코렌카는 개탄스러움이 몰려오는 걸 느꼈다. 혹여나 단속에 걸릴 걸 염려한 대장장이가 약속 시간보다 늦으면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었다는 걸 숨기기 위해 다시 녹여 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마담 킨의 말대로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갔다간 길어지는 대화 탓에 늦어 버릴 지도 몰랐다.

“돌아오는 즉시 얘기할 거야. 무기 하나 없는 사람들이 뭐로 싸우겠다는 건데?”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농기구라도 들고 싸우겠지. 아무튼 나중에 대화를 하든 말든 알리사는 데리고 돌아오지 마. 혹시나 일이 잘 풀려서 우리가 살아남게 되면 다시 만나도 늦지 않으니까.”

“알리사가 그걸 용납할 것 같아?”

“나는 네가 재량껏 잘 말해주리라 믿어.”

마담 킨의 태평한 대꾸에 코렌카가 무어라 반박하기도 전에 쪽문이 열리며 불편한 걸음걸이의 알리사가 나타났다. 고개를 돌린 마담 킨에게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생각한 것 보다 훨씬 잘 어울리네, 알리사.”

“감사합니다.”

코렌카는 잠깐 동안 말문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금색으로 수놓아진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알리사의 모습은 그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귀족처럼 보였다. 마담 킨이 머리도 손 댄 것인지 땋은 채 틀어 올린 금발이 우아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걸어오는 알리사가 비틀거리지만 않았어도 그녀가 사실은 귀족 여식인 건 아닌지 고민했을 게 분명했다.

“마차가 이미 와 있으니 타고 가면 될 거야. 하루 정도 걸리니 멀미 조심하고.”

다정하면서도 분명하게 속삭인 마담 킨이 코렌카에게 일어나라 손짓했다. 코렌카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으나 한시가 급했다.

“내가 한 말 잊지 마.”

알리사의 뒤를 따라 문밖으로 나가는 코렌카를 향해 마담 킨이 말했다. 코렌카는 반항의 의미로 대답하지 않았으나 마담 킨은 두 번 반복해 말하지 않았다.

가게 앞에 도착해 있는 마차에는 이미 산적 무리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둘은 마부 석에 앉아있었다. 덩치 큰 남자들이 둘이나 탄 마차는 제법 갑갑해 보였지만 알리사는 아무런 불만 없이 코렌카의 에스코트 하에 마차로 올라탔다. 코렌카가 마차 문을 닫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코리.”

마담 킨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코렌카는 마담 킨의 얼굴을 보았고 마담 킨은 코렌카의 두 눈을 빤히 응시했다.

“나도 널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하게 속삭인 마담이 그의 면전에 대고 문을 닫았다. 코렌카는 도로 문을 열고자 했지만 그 보다 마차가 출발하는 게 더 빨랐다.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어정쩡한 자세로 선 코렌카는 빈자리에 엉덩이를 붙였다.

기분이 이상했다.

수도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험했다. 산길을 달려서 그런 것인지 마차가 끊임없이 덜컹 거리는 탓에 그리 푹신하지 않은 의자 위에서 튕겨 오르던 엉덩이가 아팠다. 멍이 든 건 아닐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마차가 밤새도록 달리는 동안 산적들은 교대로 마부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시시한 농담을 던져댔던 산적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했던 탓인지 입을 다문 채 잠깐씩 눈을 붙였고, 알리사 역시 불편한 옷차림을 최대한 정돈하며 선잠에 들었다가 깨어나길 반복했다.

수도에서 알시에 들어가기 까지 마차를 탄 시간보다 걸은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은데 두 지역이 이렇게 까지 거리가 있는 줄은 몰랐다. 하긴, 걸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닌 몇날 며칠 이었으니 이렇게 먼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제와 생각하면 그 때 그렇게 정처 없이 걸어 알시까지 흘러든 제자신이 대견할 지경이었다.

“아가씨, 일어나.”

또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누군가의 부름에 눈을 뜨니 마차 안에 있는 것은 그녀뿐이었다. 언제 깨어난 것인지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마차 밖에서 무언가 채비를 하고 있었다.

“수도 부근이야, 이제부터는 걸어 들어가야 해.”

낯선 숲이었다. 알리사는 조심스럽게 마차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까지는 수도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 간밤에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제 보니 제법 귀족 아가씨 태가 나잖아?”

“옷이 날개라더니, 그 외모가 빛을 발하네.”

그녀를 향한 놀림에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은 알리사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구두를 벗고 들고 온 편한 신발로 갈아 신었다. 마담 킨이 신경 써서 구두까지 챙겨주긴 했지만 그녀에게 이 구두는 너무 컸다. 어차피 드레스 자락에 가려 신발이 보이지는 않을 테니 상관없을 것 같았다.

“말투 조심해.”

코렌카가 산적들을 향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제부터 알리사한테 말을 걸 때 무조건 존대를 써야하니까.”

그의 말에 산적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을 걸은 끝에 빠져나온 숲 앞에 서서 보는 광경이 눈에 익었다. 그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다시는 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수도가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알리사와 알리사의 일일 호위기사가 된 산적 무리들은 숲 속 그늘 진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알리사와 호위기사 무리에서 먼저 빠져나가 수도를 밟고 있던 코렌카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향해 손짓했다.

“가요.”

알리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들은 재빨리 숲속으로 빠져나가 가장 가까이 있던 골목 쪽으로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코렌카가 그들이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기 무섭게 누군가 입을 열었다.

“어차피 위장도 했겠다, 그냥 정상적인 출입구로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누군가 수상쩍게 여겨서 괜히 걸리면 골치 아파 진다는 걸 잊지 마. 위장이 통하는 것도 수도 안에서면 족해.”

“글쎄, 내 생각엔 시커먼 사내놈들이랑 웬 귀족 아가씨 하나가 숲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더 수상쩍을 것 같은데.”

다른 누군가가 덧붙였지만 코렌카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알리사는 그 말을 꺼낸 사람인 리처드가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튼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알려준 곳이 어디인지 기억은 하고 있겠죠, 아가씨?”

코렌카의 말투가 도통 적응되지 않아 미칠 것 같았지만 알리사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네,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응,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코렌카의 말투만큼 적응되지 않는 게 제 말투였다. 이곳까지 걸어오며 코렌카에게 몇 번이고 당부 받았음에도 코렌카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에게 반말을 쓰는 건 좀체 익숙해지지 않았다.

알리사는 코렌카가 말로 알려준 가게 위치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판자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중앙 시장이 있었고 중앙 시장의 세 번째 골목 끄트머리 상권과 연결된 좁은 샛길로 들어가면 대장간이 있다고 했다.

“약속 시간 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아니, 있어?”

“대충 사십 분 정도 있습니다.”

평소라면 20분 정도로 여유롭게 도착했겠지만 사람이 붐빌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될지 몰랐다.

“서두르자. 빨리 가야해.”

빠르게 가지 않으면 기껏 주문한 무기가 녹을 것이다. 알리사의 앞장 선 걸음에 코렌카와 나머지 사람들이 서둘러서 그녀의 뒤를 따라왔다.

“귀족 아가씨 발걸음 치고는 너무 씩씩한 거 아닙니까?”

리처드가 구태여 그녀를 놀려댔지만 알리사는 그의 농담을 받아 칠 정신도 없었다. 중앙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다급해졌다.

중앙 시장 입구에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다. 축제 기간에 중앙 시장에 와보는 것이 처음인 알리사는 순간 이곳에 제가 아는 그 곳이 맞긴 한 걸까 한참을 고민해야만 했다. 어떻게 보면 그녀가 아는 시장과 조금 다른 것도 사실이었다.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가게들이 많이 생겨 있었다.

어떻게든 인파를 헤집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녀의 곁으로 산적들이 둥글게 모여섰다. 덕분에 움직이는 게 한층 편해졌지만 그들의 독보적인 덩치 탓인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몰려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다. 남들 눈에 최대한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이들은 너무 눈에 띄었다.

“축제날이라 그런가,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이 많네.”

알리사의 뒤에 있던 일일 호위무사 중 한 사람인 헨리가 놀라움 어린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아침이라니, 엄밀히 말하자면 점심시간이 다 됐거든.”

“시비 걸지 말고 닥쳐.”

“네가 무식한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이 새끼가...!”

“쉿, 한눈팔지 말고 서둘러.”

코렌카가 재빨리 헨리와 데이비드의 다툼을 중재했다. 알리사는 사나운 얼굴로 으르렁 거리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매섭게 노려보고 고개를 돌리는 걸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했다.

알리사는 걸어가는 내내 양 옆으로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이 쪽으로.”

알리사의 말에 그들은 일제히 방향을 틀었다. 이제 곧 세 번째 골목이었다.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 주변을 살피며 머릿속으로 구도를 그리고 있던 알리사의 몸이 일순 흔들렸다. 누군가 강한 힘으로 알리사의 치맛자락을 끌어당긴 탓이었다. 넘어질 뻔 한 몸을 곁에 있던 코렌카가 붙잡았다.

“뭐야, 당신!”

“잠깐만!”

헨리가 알리사를 넘어트릴 뻔 한 상대의 멱살을 붙잡은 순간, 알리사는 황급히 그를 만류했다. 상대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뼈가 앙상한 늙은 노인이었다.

헨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나 싶더니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와 무언가 갈망하는 눈빛으로 알리사를 우러러 보았다. 양 손을 하늘을 향해 쭉 뻗나 싶던 노인이 곧 알리사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공주님, 공주님...”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1여 년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곳 시장에서 이 노인을 만났었다. 그녀를 공주라 부르며 무언가를 애원하던 노인을. 당시 느낀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 떠오른 알리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냥 미친 노인 인 것 같습니다.”

노인을 그녀에게서 떼어내는 대신 알리사가 물러서게 만든 코렌카가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노인이 악을 쓰기 시작했다. 힘이 없는 것인지 목소리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두가 듣기에는 충분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공주님!”

“시간도 없는데 그냥 가죠.”

코렌카가 그녀를 재촉했으나 이상하게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동안 노인을 내려다보던 알리사는 그의 말투가 10살 정도 어린아이들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걸걸하게 내려앉은 목소리 때문에 미처 눈치 채지 못했던 것이다.

“아가씨.”

코렌카가 나지막하게 그녀를 불렀다. 알리사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래, 이렇게 이유 모를 감상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었다.

“폴 할아버지!”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짐작하건데 누군가 그를 찾아온 모양이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알리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사이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집중했다.

“할아버지, 어쩌다 여기까지 와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엘리자베스 아가씨가 와 계신다고요.”

알리사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엘리자베스 아가씨? 설마 그 엘리자베스 아가씨겠는가.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은 흔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아가씨라는 호칭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무엇보다 엘리자베스가 이곳에 있을 리가 없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엘리자베스는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 나간다고 해도 항상 호위 기사 여럿을 대동한 채였다. 그러니 이 길거리의 평민들이 그녀를 저렇게 친근하게 부를 정도로 그들과 긴밀한 사이가 될 수 있을 리 없었다.

“아, 찾았나 보네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알리사의 기억 속 얘기다. 걸음을 재촉하던 알리사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가 얼굴을 보고자 했던 상대는 이미 수많은 인파에 가려 털 끝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 목소리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엘리자베스 아가씨다. 진짜 엘리자베스 아가씨였다.

“왜 그러십니까?”

코렌카가 물음에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자꾸만 자꾸만 고개를 돌리고 또 돌리기를 반복하던 알리사는 늦게 정신을 차렸다.

그 분이 정말로 엘리자베스 아가씨면 뭐, 어때서. 그게 뭐가 대수라고. 어차피 알리사의 입장에선 그녀와 마주치지 않는 편이 더 나았다. 엘리자베스가 그녀를 만나면 보일 반응도 짐작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알리사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시트리안 공자가 엘리자베스에게도 알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알리사와 마주친다면 시트리안 공자에게도 그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켄이 시트리안 공작가의 수습 기사에서 제명당할 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너른 수도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칠 뻔 한 이 상황이 불안하면 불안해야지 왜 그녀를 보고자 한단 말인가.

“아무 것도 아냐, 빨리 가자.”

어느새 세 번째 골목이었다. 여기서 끄트머리 상권까지는 가는 길이 좀 수월했다. 세 번째 골목의 큰 길에 비해 이곳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걸음을 재촉하다가 마침내 끄트머리 상권에서 옆으로 빠지는 샛길을 발견했을 때, 주위에 사람이 없는 지 한 번 둘러본 코렌카가 그들을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샛길로 들어섰다.

샛길을 올라가는 동안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조금씩 멀어져 갔다. 걸음을 재촉하던 알리사는 가슴위로 오른 손을 올렸다.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요동치던 심장이 아까보다 한층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묘한 불안감이 온 몸을 엄습했지만 알리사는 고개를 흔들어 부러 모른 척 했다.

“아가씨는 여기서 기다려.”

대장간 문 앞에서 코렌카가 말했다. 알리사는 그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었으나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올게.”

그 말을 끝으로 코렌카는 몸을 돌렸다. 코렌카와 일행들이 문 안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미묘한 열기가 얼굴을 덮쳐왔다.

“생각보다 빨리 왔구먼.”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기 무섭게 안쪽에 있던 또 다른 문이 열리며 수염이 제멋대로 난 뚱뚱한 체형의 남자가 그들 일행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빌터에게 얘기 들었네. 알시 마을을 지키기 위한 산적들이라면서.”

악수를 청하는 남자는 코렌카보다 머리 하나쯤 더 작았다. 코렌카는 티 나지 않게 무릎을 조금 굽혀 남자와 악수했다. 코렌카와 악수를 하는 내내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던 대장장이가 흠, 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 녹여버리려고 했는데, 약속을 잘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지. 암.”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거, 성격 급한 청년들이구먼. 이리로 오게.”

대장장이가 그들은 이끈 곳은 또 다른 문 너머였다. 다시 실내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그곳은 머리 위로 지붕만이 드리워진 야외였다. 흙바닥 위에 자리 잡은 화덕에서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바람 때문에 불이 꺼지거나 더 커지는 건 아닐까 잠깐 걱정했지만 곧, 지나치리만큼 낮은 천장 탓에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들이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느낀 열기도 이런 구조 때문인 모양이었다.

“내가 무기 만든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직원들한테 축제를 핑계로 휴가까지 주고 몇날며칠을 나 혼자 일했네. 영광으로 알게.”

“감사합니다.”

코렌카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했다. 평소라면 상대의 나이가 어떻든 반말을 했겠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없던 예의도 끌어 모을 필요가 있었다.

“고맙긴. 알시는 자네들 고향이기도 하지만 내 고향이기도 하니까.”

대장장이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물론 그것과는 별개로, 이 일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자네들을 원망하겠지만 말이야.”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나도 그러길 바라네. 자, 자네들이 찾던 물건이네.”

대장장이가 곁에 있던 천을 들어 올리자 쇠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칼과 창 따위의 무기들이 주인을 기다리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총 27개였다. 개수를 확인한 코렌카는 자신과 제 친구들이 두른 로브를 힐끗힐끗 응시했다. 인당 다섯 개씩, 하나는 손에 들고 네 개는 품에 숨기면 거동이 조금 어색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들만은 했다. 위험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두 명은 한 자루 씩 더 들어야 했다.

“나랑 데이비드가 여섯 개, 나머지는 다섯 개씩 들자.”

코렌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기 앞으로 우르르 몰려간 산적들이 각자 무기를 챙겨 들었다.

“거 불편하기 그지없네. 이 꼴로 그 거리를 다시 가야한단 말이지.”

데이비드의 투덜거림을 들으며 코렌카는 품에 챙겨온 돈 주머니를 꺼내들었다.

“대금은 여기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뭘 굳이 확인까지야. 어련히 알아서 들고 왔겠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은 대장장이가 품속으로 돈 주머니를 밀어 넣었다. 그 허술하기 그지없는 태도에 어깨를 으쓱한 코렌카는 남아있는 제 몫의 무기들을 챙겨들었다. 생각했던 것 보다 빨리 끝난 것 같아 다행이었다. 코렌카는 대장장이를 돌아보았다.

“여기 뒷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들어온 문 말고.”

코렌카가 물었다.

“저쪽에 하나가 더 있는데, 왜, 거기로 나가게?”

“네.”

“그건 자네들 마음이긴 한데, 여기로 가면 곧장 큰 길이네. 지금 시간이 딱 여왕 폐하의 어진이 행차하는 시간 때라 황궁 근위병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네. 딱히 떳떳한 의도로 받은 무기들이 아닌데 괜찮겠나?”

걱정 어린 대장장이의 물음에 코렌카는 일순 머뭇거렸다. 하지만 부탁해오던 제니아의 표정을 떠올리자 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뿐이었다.

“괜찮습니다. 알려 주세요.”

“나한테 피해만 없게 하게, 이리로 오게.”

“코리, 그럼 내가 알리사를 데려올...”

“아니.”

알리사를 데려오겠노라 몸을 돌리던 헨리의 팔을 붙잡은 코렌카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알리사는 데려가지 않아. 우리끼리 간다.”

“뭐?”

“왜?”

“이유는 나중에 알려줄게. 우선 가자.”

황당하다는 표정의 친구들에게서 몸을 돌린 코렌카는 대장장이가 안내해주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미안해, 알리사. 코렌카는 생각했다. 제니아의 소원이라 어쩔 수 없었어.

언제 나오려나. 알리사는 신발 앞코로 낙서를 하며 생각했다. 들어간 지 제법된 것 같은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야기라도 하는 모양이었다. 한참동안 흙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던 알리사는 문득 고개를 돌렸다. 대장간 뒤편으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푸른 잎을 뽐내고 있는 동백나무 한 그루가 언뜻 보였다.

뭔가에 홀린 것 마냥 그곳으로 걸어간 알리사는 손을 뻗어 동백나무 잎을 매만졌다. 설탕물을 발라놓은 마냥 반질반질한 감촉이 마음에 들었다. 아직 꽃이 필 시기가 아니라 꽃봉오리만이 맺혀 있는 동백나무를 멍하니 바라보던 알리사는 문득 인상을 찌푸렸다.

동백나무 정원에서 이시르와 키스했던 장면이 떠오른 탓이었다. 하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동백나무, 뭔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다. 알리사는 일순 동백꽃을 보고 싶다는 기이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피지도 않은 동백꽃을 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야?”

“말을...!”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온 사람들은 말소리에 알리사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저 멀리 골목으로 멀어지고 있는 남자들 무리가 보였다.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알리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코렌카씨?”

그럴 리가 없음에도 왜 그들이 알리사와 함께 이곳에 온 코렌카와 산적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남자들이 골목너머로 사라졌다. 알리사는 등골이 오싹해 지는 것을 느꼈다. 불길했던 기분이 실체화돼 나타난 것만 같았다. 낡아있던 남색의 로브들. 틀림없다. 그들은 알리사의 동행자들이었다.

알리사는 대장간으로 들어가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무겁게 겹겹이 진 치마가 거추장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나마 신발이라도 편해서 다행이었다.

“코렌카 씨!”

알리사는 소리를 질렀으나 그녀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닿았을 것 같지는 않았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갈 리가 없잖아. 내가 함께 왔다는 걸 잊었을 리가 없어. 알리사의 걸음이 조금 더 빨라졌다.

그들이 돌아서 사라진 골목으로 들어서자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길이 나왔다. 엄청난 수의 인파가 그곳에 몰려 있었다. 덕분에 알리사의 걸음이 지체됐으나 그건 알리사가 쫓고 있는 상대도 마찬가지인 듯 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우뚝 솟은 남자들의 뒷모습을 발견한 알리사는 인파를 헤집고 그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코렌, 코렌카 씨!”

인파에 떠밀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기는 한가 싶었지만 알리사는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들의 뒷모습이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가를 반복했다. 더 이상은 무리였다. 알리사는 있는 힘껏 숨을 들이마셨다.

“코렌카 씨!”

그녀의 요란한 외침에 그녀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몇몇이 인상을 찌푸렸다가 알리사의 옷차림을 보고 옆으로 황급히 물러났다. 덕분에 아까보다 걷기가 수월해 진 알리사가 몇 발자국을 더 나아갔을 때였다. 선두에 서 있던 남자의 얼굴이 그녀를 향해 돌아왔다. 코렌카였다. 알리사는 손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그는 매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어?”

분명 시선이 마주쳤는데.

“코렌...!”

다시 한 번 외치던 이름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와 두 번째로 눈이 마주친 리처드마저 그녀를 외면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알리사를 완전히 무시할 작정이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그녀는 버림받은 것이다.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모두의 합의 하에 벌어진 일임은 분명했다. 이제와 왜 라고 물어도 대답해 줄 사람은 곁에 없었다.

“모두 길 양쪽으로 비켜나시오, 여왕 폐하의 어진이 납시오!”

황급히 길 양쪽으로 퍼져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리사는 걸음을 멈췄다. 문득 올려다본 하늘은 푸르기만 했다. 흐리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쓴 웃음이 흘러나온다.

“비키시오, 비켜!”

알리사는 천천히 고개를 내렸다. 옷과 맞지 않는 신발 앞 축이 드레스 자락 아래로 비죽이 튀어나왔다. 분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신이 벌이라도 주는 걸까.

“여왕 폐하 납시오!”

알리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인파들이 갈라선 사이로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가 지나고 있었다. 그 가마는 알리사가 서 있는 방향으로 느리게 다가오고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의 미간이 길을 막고 서 있는 알리사를 발견하고는 잔뜩 찌푸려졌다.

“뭐요? 비키시오!”

커다랗게 떨어진 불호령에 알리사의 걸음이 느리게 인파들 사이로 향했다. 여왕의 어진이고 뭐고, 이제는 하나도 보고 싶지 않았다. 여왕의 초상화 하나 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녀가 얻은 것이라곤 상실감과 배신감뿐이었다.

“엄마, 엄마, 저게 그 칼이야?”

그녀의 곁에 선 어린아이가 쫑알거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알리사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화려한 가마 뒤로 따라오고 있는 커다란 유리 관 속에 은색으로 빛나는 검이 한 자루 놓여 있었다.

“푸른 칼인데 왜 하나도 안 파랗지?”

“칼이 푸른색이여서 푸른 검이 아니라 손잡이에 푸른 천이 감겨 있어서 푸른 검이라고 불리는 거래.”

과연 그 말마따나 검 손잡이 부분에 천이 하나 감겨 있긴 했다. 빛이 바래서인지 푸른빛은 아니었지만 한 때는 푸른색이었을 것처럼 보였다.

“아이, 뭐야. 시시해.”

알리사는 속으로 어린아이의 말에 공감했다. 정말,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알리사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가마 위에 놓인 거대한 초상화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기 전 까지.

흰 머리가 뒤섞인 금발 머리를 하나로 틀어 올린 초상화 속의 여왕은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눈가와 입가에 진 주름이 그녀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고급 진 옷차림으로 웃고 있는 나이든 여왕의 모습은 정말, 알리사의 나이든 모습을 짐작케 할 만큼 그녀와 닮아있었다. 알리사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여왕과 닮았다 말했는지 알 수 있었다.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지 않음의 차이만 제외하자면 소름끼칠 만큼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다.

단 하나, 눈동자 색을 제외하고는.

“아...”

그녀와 다른 부분인 녹색의 눈동자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알리사는 문득 뺨을 매만졌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 저 언니 여왕 폐하랑 닮았어.”

그녀를 지칭함이 분명한 어린 아이의 소곤거림에도 알리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저 눈동자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럴 리가 없음에도 초상화가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만 같았다. 기분이 이상했다. 알리사는 그 시선에서 헤어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초상화와 그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초상화의 눈동자는 집요하게 그녀의 눈동자를 좇고 있는 것 같았다. 기억해, 기억해 내. 내면의 무엇인가가 그녀를 향해 속삭인다. 시선을 떼지 마, 도망치지 마. 속삭임이 점점 커지고 커져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여왕의 눈동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고 그녀는 벗어날 수 없었다.

점점 가까워지던 초상화가 그녀를 지나 시야에서 여왕의 모습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뒤따르던 여왕의 검이 눈에 담겼다. 그리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알리사는 제가 어디로 향하는 지도 알지 못하고 허겁지겁 발 닿는 데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여왕 폐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야!”

“아, 뭐예요?”

인파를 파고들며 알리사는 무작정, 무작정 걸음을 옮겼다.

‘벨로나.’

알리사를 이를 악 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당신 누구야, 닥쳐.

‘제정신입니까?’

‘당연하지, 나처럼 제정신인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인 듯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가 또 다른 목소리에 답한다. 나는 이런 거 몰라, 시끄러워.

알리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만가지 환청들이 그녀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무거운 집념들이 그녀의 등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었다. 꺼져, 제발 꺼져. 알리사는 눈을 질근 감고 발작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제발 전부 다 꺼져.

“여왕 폐하!”

“아아아아아아아악!”

귀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거대한 목소리에 그녀는 제자리에 멈춰 서서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머리가 아팠다. 끔찍한 두통이 그녀를 엄습해 오고 있었다. 아파, 아파. 제발 그만 해. 멈춰, 멈춰!

고통을 채 감당해내지 못한 몸뚱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넘어졌다. 알리사는 발작을 일으키며 귀를 막았다. 당신의 죗값은 스스로 치러야지. 누군가가 속삭인다. 알리사는 온 몸을 비틀었다. 무언가가 자꾸 머릿속으로 파고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저항은 그리 길지 않았다. 방금 전에 본 여왕의 녹색 눈동자가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놀이는 여기까지야.”

여왕이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속삭였다. 여왕의 환각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거짓말처럼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왕의 몸이 환하게 빛났다. 알리사는 거친 숨을 몰아 내쉬며 느리게 눈을 깜박였다. 사라지는 여왕의 환각 너머로 여전히 푸른 하늘이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여왕이,

비로소, 눈을 떴다.

“공주 전하, 저는 내일부터 궁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개 숙인 스승의 말에 찻잔을 들어 올리던 손이 문득 멎었다. 달칵, 소리와 함께 내려놓은 찻잔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공주의 녹색 눈동자가 느리게 제 스승을 향해 움직였다.

“펠로스 오라버니의 짓인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군요.”

“송구합니다.”

재차 이어진 스승의 사과에 공주는 가만히 고개를 내저었다.

“스승님의 잘못이 아닌걸요. 오히려 이 못난 제자를 가르치시느라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가시는 길 섭섭지 않게 충분히 보답하겠습니다.”

“헤어지는 제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공주 전하께서 제 가르침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더더욱 머리를 깊이 조아리는 스승을 바라보던 공주의 눈빛이 처음으로 흐려졌다. 그녀의 스승이 바뀐 것만 벌써 세 번째였다.

벨로나 하이텔, 에트로시아의 왕 벨트로의 열여덟 자식 중 열한 번째 자식인 그녀는 벨트로의 모든 자식 중에 가장 뛰어났다. 영리했던 그녀는 자신의 뛰어남이 첫째 오라비이자 이 왕국의 후계자인 펠로스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늘 경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숨기려 했음에도 펠로스는 그녀의 뛰어남을 알아차렸고 끊임없이 그녀를 핍박해 왔다.

“공주 전하, 왕태자 전하의 후환이 두려워 백성들을 돌보는 현재의 행위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백성들에게는 공주 전하 같은 왕족이 하나쯤은 필요합니다. 오라버니가 두려워 백성들을 향한 베풂을 멈춘다면 그들은 희망을 잃고 왕족들을 공격하려 들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결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간 감사했었습니다. 공주 전하.”

“감사했었습니다, 스승님.”

스승과의 작별 인사는 담백했다. 문이 닫히고 스승의 걸음 소리가 멀어진다. 벨로나는 다시 찻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 더 이상의 스승은 필요치 않았다. 펠로스가 또 다시 스승을 쫓아낼 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벨로나는 방금 밖을 빠져나간 스승에게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웠다.

“멍청한 펠로스.”

벨로나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걸렸다. 그녀의 이복 오라버니가 그녀의 뛰어남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승과 마지막으로 둔 체스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례에서 스승의 패배 선언으로 끝나버린 경기였다.

새하얀 손가락이 체스판 위로 올라간다. 벨로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칵, 소리와 함께.

“체크메이트.”

게임이 끝났다.

은은한 붉은 빛을 띠는 벽돌로 쌓아져 적벽성이라 이름 붙은 중앙 궁 앞에는 에트로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하나 있었다. 1년 내내 기온이 낮은 편인 에트로시아의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추운 계절에서도 버텨내는 식물들을 전 세계에서 들여와 심은 정원은 푸른빛을 찾을 수 없는 때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벨로나는 왕가의 허영 넘치며 과하기까지 한 소비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이 정원의 존재에만큼은 불만이 덜했다. 동백나무가 잔뜩 있다 하여 동백 정원이라고 불리는 이 정원을 산책하는 건 그녀의 일과 중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기사 하나와 시녀 하나만을 데리고 산책 중이던 벨로나는 평소와는 다른 기류를 느끼고 고개를 갸웃했다. 어디선가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별생각 없이 소리의 근원지로 발걸음을 옮기던 벨로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고 말았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녀의 배다른 형제자매들이 공놀이하거나 수다를 떨면서 놀고 있었다.

넷째 왕자 유진이 찬 공이 동백나무 하나를 가격했다. 요란하게 흔들리는 동백나무를 보며 인상을 찌푸린 벨로나가 재빨리 몸을 틀었다. 저들과는 마주치지 않는 편이 그녀의 정신 건강에 더 이로웠다.

“창녀의 딸이 왕족의 정원에 들어오다니, 별일이 다 있네.”

그녀가 자리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기분 나쁜 음성이 들려왔다. 벨로나는 입술을 꾹 깨물고 뒤로 돌아섰다. 누군가 했더니 그녀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일곱 번째 왕녀 로제타였다.

“어머, 본인 얘기했다고 돌아보는 것 봐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키득거리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느리게 로제타의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은 일곱 번째 왕녀 로제타와 열두 번째 왕녀 샤인 그리고 셋째 왕녀 피아나였다. 로제타와 샤인과는 달리 피아나는 벨로나를 비웃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말리지도 않았다.

벨로나가 로제타의 앞에 서자 고개를 들어 벨로나를 바라보던 로제타와 샤인의 얼굴에 웃음기가 가셨다.

“여기가 어디라고 네깟 게 와.”

“내가 어디 못 올 곳이라도 온 것처럼 말하는구나.”

로제타의 도발에 벨로나는 덤덤하게 대꾸했다.

“당연하지, 어디 여기가 창녀의 딸이 오기에 가당키나 한 자리니?”

“그 입 다물어, 나는 창녀의 딸이기 이전에 왕의 딸이야.”

“여기 왕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다고?”

로제타의 비웃음 어린 대꾸에 벨로나의 얼굴이 마구잡이로 일그러졌다.

창녀의 딸, 벨로나가 제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하나, 죽을 때 가지 그녀의 뒤를 따라다닐 수식어였다.

로제타의 말대로 벨로나의 어머니는 창녀였다. 벨트로가 사창가에 갔을 때 그의 눈에 들어 후궁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된 창녀. 그런 출신 때문에 왕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벨로나의 어머니를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나마 벨로나의 어머니가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이라 내쫓기지 않았을 뿐, 아이를 낳고 나면 왕의 총애를 잃은 그녀의 위치가 또 어떻게 될지 몰랐다. 벨로나야 공주였으니 쫓겨나지는 않겠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다.

“너 같은 게 나와 같은 공주라니, 천박하다니까.”

이어진 로제타의 말에 벨로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누군가 말리기도 전에 탁자 위에 올려 진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로제타의 얼굴로 부어버리고 말았다.

“아악!”

“천박해서 미안하구나.”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명을 질러대는 로제타의 머리카락을 꽉 붙잡고 그녀의 눈앞으로 얼굴을 가져댄 벨로나가 나긋나긋하게 속삭였다.

“네 말마따나 나는 천박한 창녀의 딸이라 이런 방법밖에 몰라.”

그리고 로제타의 얼굴을 그 상태 그대로 탁자 위로 쾅 소리 나게 찧어버렸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엎어져 있는 로제타와 화들짝 놀라 제자리에 얼어붙은 샤인을 싸늘한 눈으로 쳐다본 벨로나는 환하게 웃었다.

“멍청한 년,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로제타의 뒷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이번과 비슷한 꼴을 당했음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야 마는 로제타를 보고 있자니 그 무식함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다.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먼저 피하려고 했던 건데...

“벨로나.”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는 그녀를 피아나의 목소리가 붙잡았다. 벨로나는 몸을 돌리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서서 피아나의 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다.

“너는 성격을 좀 죽이는 편이 좋을 거야. 펠로스 오라버니가 거슬려 하는 게 네 그런 점이니까.”

“충고 고마워, 언니.”

하지만 별로 들을 가치는 없는 이야기였다. 피아나는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고 있었다. 펠로스가 거슬려 하는 건 그녀의 이런 성격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벨로나가 백성들에게 지지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 늘 조심해 왔으나 벨로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그들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벨로나 공주님이 왕이 되면 좋을 텐데. 벨로나 공주님이 남자였다면 왕이 될 수 있었을 지도 모르는데. 이런 발언들을 펠로스가 곱게 듣고 있을 리 없었다.

벨로나는 얼굴을 딱딱하게 굳힌 채 빠르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에서 쫓아오는 시녀와 호위 기사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칼리스 경, 경이 날 말릴 줄 알았는데.”

고개 돌리지 않고 꺼낸 그녀의 말에 뒤쫓아 오던 기사의 침묵이 늘어졌다가 곧 나지막한 한숨이 이어졌다.

“어차피 듣지도 않잖습니까.”

“그건 그렇지.”

“그래서 그냥 안 말렸습니다.”

“요컨대 직무 태만이라는 거네.”

벨로나의 농담 아닌 농담에 침묵이 찾아왔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계속해서 걸어갔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는 곧, 그 기분의 원인을 마주할 수 있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반대편에서 오고 있던 불청객과 마주치고 만 것이다. 몇 번을 맡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싸한 향수 냄새에 인상을 찌푸린 벨로나는 주춤거리며 두어 발자국 물러났다. 붉은 머리를 가진 남자의 잿빛 눈동자가 그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펠로스였다.

“사랑하는 내 동생, 벨로나.”

그녀를 발견한 펠로스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걸렸다. 키가 크고 창백한 피부에 날렵한 턱 선을 가진 그에게서는 위험한 분위기가 풍겼다. 그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맹수를 만난 것 같은 위압감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것은 그의 잿빛 눈동자 뒤에 담긴 경멸이나 분노, 혹은 갈증 때문일 것이다. 벨로나는 그가 그녀의 피를 보고 싶어 못 견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 스승 하나가 너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벨로나는 이를 악물었다.

“매번 그렇게 스승들을 쫓아내서야, 유감이구나.”

빙그레 웃은 펠로스가 그녀를 향해 터벅터벅 다가왔다. 벨로나는 문득, 그의 뒤에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펠로스의 뒤에 있던 남자는 키가 매우 크고 근육질에 굉장히 짙은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의 잿빛 눈동자가 벨로나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벨로나는 남자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일순, 어깨로 찾아온 고통에 벨로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펠로스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꽉 붙잡고 있었다. 인상을 쓴 그녀의 얼굴 옆으로 펠로스의 얼굴이 다가왔다. 그는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주제넘은 짓은 말아라.”

벨로나는 눈동자를 움직여 펠로스의 눈을 응시했다. 마찬가지로 펠로스 역시 눈동자만 움직여 벨로나의 눈을 마주했다. 허공에서 얽혀든 시선이 서로를 집어삼킬 듯 일렁거렸다. 벨로나는 주먹을 꽉 말아 쥐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를까 펠로스의 앞에서는 참아야 했다.

“언제나 명심하고 있어요.”

벨로나는 나지막하게 대꾸했다.

“저는 제 주제를 잘 알고 있답니다.”

“네 그런 점 하나는 마음에 드는구나.”

킬킬거리며 대꾸하는 펠로스를 향해 영혼 없는 미소를 지어보인 벨로나는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펠로스의 동행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디서 보았지?

“가자, 미켈.”

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가 누구인지 기억났다. 미켈 브릴리언트. 브릴리언트 백작가의 셋째 영식이었다. 사생아라는 이유로 백작가의 후계 다툼에서 완전히 내밀린 그가 왜 펠로스와 함께 있는 걸까.

벨로나는 미켈의 두 눈을 빤히 응시했다. 펠로스를 향해 다가오는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잿빛 눈동자가 기이한 열망을 담고 빛났다. 벨로나는 그 시선을 모르지 않았다. 욕정. 이 궁 안에서 숱하게 봐왔던 빛이었다.

벨로나는 펠로스를 보았다. 그의 관심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해 있지 않았다. 벨로나는 다시 미켈을 본다. 그녀는 양 입 꼬리를 끌어올리고 그를 향해 나른하게 웃어보였다. 상대는 그녀의 미소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만 벨로나는 그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빠른 시일 내로 그가 제 스스로 그녀를 찾아 올 것이란 것을 확신했다.

펠로스의 곁에 붙어선 미켈은 더 이상 벨로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 역시 몸을 돌렸다.

“칼리스 경, 나는 저 남자가 궁금해.”

벨로나는 그의 뒤에 있는 기사를 돌아보지도 않고 혼잣말 마냥 중얼거렸다.

“경은 그렇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참 안타까운 일이네.”

그녀는 진심어린 목소리로 대꾸했다. 저 남자가 펠로스와 함께 하는 이유가 뭘까, 벨로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오라버니!”

다급함이 잔뜩 담긴 여동생의 부름에 펠로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의 동복동생인 로제타가 머리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채로 그를 부르고 있었다. 로제타의 주변에는 이복동생인 샤인이 손수건으로 그녀의 얼굴 구석구석을 닦아주고 있는 중이었다.

펠로스는 갑자기 솟구치는 짜증에 로제타의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서늘한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그는 오늘 로제타에게 미켈을 소개 시켜줄 생각이었다. 그녀를 미켈과 약혼시킨 다음 그를 완전히 자신에게 종속시킬 생각이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몰골이지? 내가 분명 몸단장 제대로 하고 있으라고 했을 텐데.”

“그게, 벨로나, 그 창녀의 딸이 저한테 차를 부었어요!”

“벨로나가?”

로제타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름자에 펠로스의 한쪽 눈썹이 허공으로 치켜 올라갔다.

“창녀의 딸이라 불렀더니 갑자기 돌변해서는...”

큽, 크하하! 로제타의 말이 이어지기 무섭게 뒤에서 들려오는 호탕한 웃음에 펠로스는 고개를 돌려 미켈을 바라보았다. 웃어도 늘 미소만 지을 뿐 크게 웃는 법 없던 그가 폭소 하는 건 펠로스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자네는 내 여동생 몰골이 우습나?”

“크흡, 아뇨. 그것 때문에 웃은 게 아닙니다.”

미켈은 웃음기를 지워내려 애쓰며 대꾸했으나 얼굴에 만연한 미소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 공주 말입니다. 왕태자 전하의 앞에서는 주제를 잘 알고 있다 말하더니, 행동하는 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 계집애가 그렇게 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건 이미 잘 알고 있다, 괘씸한 년.”

펠로스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미켈은 푸흐흐 잇새로 웃음을 흘렸다. 펠로스의 앞에서 제게 추파를 보내오던 시선이 아직도 선연했다. 처음에는 제 아름다움을 믿고 맹랑하게 구는 공주라고 생각했는데 제법 흥미가 동하지 않는가.

“펠로스 왕태자 전하.”

미켈은 혀로 입술을 쓸었다. 그 공주를 본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갈증이 한층 거세지고 있었다.

“저는 전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 들어주시면, 전하께 평생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혹, 지금 그 소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느닷없는 타이밍에 그런 소리를 하는군, 뭔가. 말해보게.”

“벨로나 공주를 저에게 주십시오.”

“자네, 제정신인가?”

펠로스가 황당하다는 얼굴로 되물어왔으나 미켈은 확고했다. 왕태자 정도 되는 위치라면 공주 하나쯤 강제로 미켈의 아내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켈은 펠로스가 결국엔 이 요구를 받아들이리란 걸 알았다.

눈엣가시 같은 여동생을 그의 심복에게로 치워버리고 허튼 짓을 못하게 감시까지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평생의 심복을 얻고 당장의 정적을 치운다. 일석이조의 기회였다.

그리고 펠로스는 그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었다.

알코올 냄새와 지독한 악취가 한데 섞여 기이한 냄새를 뿜어내고 있었다. 망자를 추모하며 울부짖는 목소리와 아픔으로 끙끙 앓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가운데 벨로나는 눈을 붙이고 있었다.

하나로 꽉 틀어 묶은 머리가 무색하게 그녀의 금발은 사방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벨로나의 고개가 꾸벅꾸벅 앞뒤로 움직였다가 멎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문득,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앞에 그녀의 호위기사인 칼리스 시트리안이 꽤 다급해 보이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기사의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초조한 기색에 벨로나는 녹색의 눈동자를 휘며 나른하게 웃었다. 칼리스가 저런 표정을 지을 만한 일은 하나 밖에 없었다. 필시 펠로스와 관련된 일이었다.

“왜, 그 남자가 찾아왔니?”

미켈 브릴리언트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녀의 예상은 맞아 떨어졌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됐네, 지금 당장 만나봐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어리둥절한 그녀의 물음에 기사의 설명이 이어진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경악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결혼?”

종래에 그녀는 결국 비명을 내질렀다.

“누가! 누구 마음대로!”

분노 속에 핏대를 세우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운 벨로나는 곧, 그곳이 임시병동이었음을 깨닫고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사방에서 신음하고 있던 자들이 침묵하며 겁먹은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사랑해야만 하는 백성들이다. 그들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됐다.

“마사, 미안한데 자리를 좀 비워도 될까?”

벨로나는 저 멀리 일하고 있던 의사에게로 다가가 조용히 질문했다.

“물론이죠, 공주님.”

벨로나의 지원으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여자는 토 달지 않았다. 벨로나는 피 묻은 가운을 벗어 칼리스에게 넘기며 아무렇게나 묶어 두었던 머리를 풀어냈다. 온 몸에 밴 피 냄새와 소독 약 냄새를 감출 수는 없을 테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입을 필요가 있었다.

“오늘 안에 못 올지도 몰라. 아무래도 아버지를 봬야 할 것 같거든.”

덧붙여진 그녀의 말에 마사는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왕을 만나야 할 정도의 일이면 제법 큰일이 생긴 거구나, 짐작한 모양이다.

“공주님, 어디가요?”

“왜 이렇게 빨리 가요, 공주님?”

신음하는 병자들이 있는 천막을 빠져나오자 활달하게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벨로나는 아이들이 안을 볼 수 없게 천막 문을 재빨리 닫고 아이들과 시선을 맞춰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다른 일이 생겨서 가야 할 것 같아. 다음에 올 때 맛있는 쿠키를 들고 올게.”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와, 하고 환호했다. 궁에서 잘 먹고 잘 놀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 이복동생들과 달리, 뺨이 홀쭉하게 들어간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벨로나는 푹 꺼진 어린아이의 뺨을 쓰다듬고 재빨리 몸을 일으켜 세웠다.

천막 앞에 묶어둔 말을 풀어 그 위로 오르자 칼리스 역시 자신의 말에 올랐다. 왕이나 제 어머니, 혹은 궁의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여자가 무슨 말이냐며 경을 칠 일이었지만 벨로나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사람의 목숨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말을 타는 것 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없었다.

“이랴!”

말을 타고 달리는 내내 긴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날렸다. 벨로나는 그 머리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했다. 잘라버릴까 하는 충동이 들었으나 이내 생각을 접었다. 그리 한다면 진정 펠로스를 향한 반항처럼 보일 것이다.

궁 근처 아무데서나 말을 세운 벨로나는 황급히 말에서 내려와 궁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말은 언제나처럼 칼리스 경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벨로나의 허름한 차림에서 그녀를 막으려던 기사들이 벨로나의 얼굴을 알아보고 황급히 성문을 열었다. 왕의 열여덟 자식 중 가장 아름다운 열한 번째 공주의 얼굴을 모르는 성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벨로나는 최대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며 제 방이 있는 별궁으로 향했다. 벨로나의 거처가 이 궁에서 가장 허름하고 구석에 있는 별궁이 된 이유는 펠로스의 입김 때문이었다.

펠로스는 벨로나가 화가 나길 바라고 그런 짓을 벌인 거겠지만 벨로나에겐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다. 별궁은 북문과 가까운 곳에 있었고 북문에서 별궁까지 가는 길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없다. 그러니 성문을 지키는 기사들만 입 다문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녀가 허름한 차림새로 궁 밖을 얼마나 자주 나다니는지 알 수 없었다.

사실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라 기사들의 입단속을 따로 시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용하게 나다니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벨로나는 그녀를 본 시녀들이 그녀를 향해 무어라 입을 열기도 전에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드레스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옷을 벗기 시작했다. 왕을 만나러 가야 하니,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걸 입을 필요가 있었다.

“원래 그렇게 둔감하십니까?”

드레스를 완전히 벗어 내리기 직전의 순간 들려온 목소리에 벨로나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녀는 채 벗지 않은 드레스로 가슴팍을 가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탁자 앞에 미켈이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손님으로 온 처지에 응접실이 아닌 침실로 찾아오는 건 무슨 경우지?”

“손님이 아니라 공주 전하의 약혼자 신분으로 찾아왔습니다만.”

“지금 나랑 장난하나?”

벨로나는 이를 악 물었다.

“나는 약혼한 적 없어. 지금 왕께 찾아가 이 약혼을 무효로 만들 생각이니 나중에 손님 신분으로 대화하도록 하지.”

“가능 할 것 같습니까?”

“뭐?”

“이 결혼에 누구의 힘이 들어갔을지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쾌한 미소와 함께한 첨언에 벨로나는 이를 악물었다. 사실 이미 답은 알고 있었다. 속으로는 그럴 리 없다고 끝없이 부정했지만 정답은 이미 한참 전에 나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펠로스. 왕태자인 그가 손쓴 거라면 일개 공주일 뿐인 벨로나가 아무리 투쟁해도 바뀌는 건 없을 게 분명했다.

“당신은 펠로스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히는 공주님과 약혼한 순간부터 완벽한 그의 사람이 되었죠.”

“어째서지? 차라리 펠로스의 친동생인 로제타와 약혼하는 편이 펠로스에게도, 당신 입장에서도 더 나을 텐데.”

“이유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독하리만큼 잔잔한 대꾸에 벨로나는 하, 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펠로스가 날 억압하라고 시켰나?”

“특별히 명하진 않았으나, 저는 제가 모시기로 결심한 분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능청스러운 그의 대꾸에 벨로나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펠로스, 망할 자식. 힘만 세고 머리에 든 건 하나도 없는 멍청한 오라비라 생각했는데 이런 데서는 머리가 제법 돌아가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러한 생각을 철회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펠로스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지 못했다. 벨로나는 백작가의 셋째 영식인 미켈이 어떻게 펠로스의 곁에 있을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짐작했다.

“당신이 펠로스의 머리구나.”

미켈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짙게 깔린 미소가 그녀의 짐작이 맞았음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벨로나는 생각해야만 했다. 그녀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상대가 펠로스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결혼과 동시에 그녀의 인생은 끝나 버릴 것이다. 벨로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벨로나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욕정이 담겨있는 미켈의 눈을 보았다. 일주일 전, 그녀가 그를 향해 추파를 던진 건 미켈이 그녀를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의 그 행위가 약혼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란 걸 알았다면 애초에 그런 행동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 벨로나 하이텔. 지금 당장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 그녀는 온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 밖에 없었다. 벨로나는 아슬아슬하게 가슴을 가리고 있던 드레스에서 손을 떼어냈다. 툭, 얇은 드레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맨 몸이 드러났다.

“이건 또 무슨 종류의 도발입니까.”

갑자기 드러난 그녀의 맨살에 미켈은 침착하게 물었으나 벨로나는 그 뒤에 숨겨진 살벌한 떨림을 읽어냈다. 그녀는 부끄러움 한 점 담기지 않은 표정으로 미켈을 향해 걸어가 오른손 검지로 그의 턱을 쓸었다. 손에 닿아오는 그의 숨결이 거칠다.

“몸이 달지?”

벨로나의 나직한 속삭임에 미켈의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내 몸을 안고 싶어서 조바심이 나겠지.”

그녀는 속삭임을 이어가며 양 팔을 미켈의 뒷목에 감았다. 팔에 무게를 싣는 그녀의 행동에 미켈의 몸이 앞으로 굽혀졌다. 서로의 얼굴이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벨로나는 미소지었다.

“잘 들어.”

벨로나가 말했다.

“당신이 이 결혼을 강행한다면, 나는 당신이 내 몸을 취하기 전에, 죽을 거야.”

“그게 무슨...”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억지로 내 몸을 탐하려 든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혀를 깨물고 죽을 작정이야.”

달콤한 목소리와 달리 살벌하기 그지없는 내용에 미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벨로나의 맨 몸을 움켜잡고 있던 손은 더 이상 미동하지 않았다. 미켈은 벨로나의 녹색 눈동자를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강력한 의지를 읽어냈다.

그가 그녀를 취하려 든다면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작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왕족의 죽음을 방관한 죄, 혹은, 왕족의 죽음을 부추긴 죄로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미켈은 그녀의 허리를 붙잡은 손을 느리게 떼어냈다. 그리고 뒤로 천천히 물러나 양 손을 어깨 위로 들어올렸다.

“좋습니다.”

미켈은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제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겁니까?”

“당신, 욕심이 많지?”

“예?”

“인간은 서로 같은 부류의 인간을 알아본다고들 하지. 나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나와 같은 부류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 당신에게만 말해줄게, 권력욕 많은 당신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 나도 권력욕이 굉장히 많거든.”

그를 회유하려 드는 벨로나의 말을 들으며 미켈은 인정했다. 그녀는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왕의 재목은 이쪽이다. 펠로스가 아니라.

“나는 펠로스가 왕이 되는 걸 막을 거야. 그리고 그를 대신해 내가 왕좌에 오를 거야.”

그녀를 거쳐 간 스승들이 그녀의 영민함을 예찬하는 것은 이미 들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여자의 몸이다. 순종적인 여인상을 으뜸으로 치는 이 나라에서 그녀의 똑똑한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지도 몰랐다.

“그러니 펠로스가 아닌 내게 붙어. 내 책략가가 되어준다면 당신이 원하는 권력을 안겨줄 테니까.”

“그런 얘기를 왜 제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 방을 나가 펠로스 전하께 바로 달려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말했잖아, 나도 당신이랑 같은 부류라고. 당신이 내 편으로 오게 되리란 걸 알고 있어.”

벨로나는 몸을 가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테이블 앞에 한쪽 다리를 꼬아 앉았다. 미켈은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내가 죽겠다고 협박했는데도 몸이 다나 보지?”

그리고 벨로나는 예리하게 그 것을 알아차렸다. 미켈은 최대한 동요하지 않으려 애쓰며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움이 잔뜩 담겨 있었다.

“하지만 네가 지금 내게 욕정 하는 건, 내가 아름다운 여자여서잖아. 지금이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취해 결혼을 핑계로 날 속박하려 들지만,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 아름다움을 잃으면? 그 때도 내게 몸이 달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아니지, 당신과 결혼해야 한다면 나는 나이들 기회도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텐데 어떻게 그때 가서 결정하지? 설마, 시간에 취미가 있는 짐승은 아닐 테고.”

그녀는 자신이 내뱉고도 우스운 듯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미켈은 인상을 조금 찌푸리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당신이 약혼을 깨고 내게 온다면 내 몸 한 번 쯤은 내어줄게. 어차피 당신이 최종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 권력이 아닌가? 당신이 원하는 것 모두 얻게 되겠지만, 저 쪽에 붙는다면 당신이 얻는 건 허울뿐인 권력 하나가 될 거야.”

그녀의 말에는 틀린 게 아무 것도 없었다. 누군가가 듣는다면 그깟 여인의 몸 따위 포기하고 그냥 안정성 있는 왕태자의 편에 붙어있으라 말하겠지만... 미켈은, 제가 한 번 갖고 싶다고 생각한 것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펠로스의 편에 붙어 권력만을 얻느니 공주의 편에 붙어 권력과 저 몸을 둘 다 탐하는 편이 나았다.

“좋습니다.”

미켈은 기꺼이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미켈이 욕심 많고 갖고 싶은 것 앞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은 맞으나, 그는 보기보다 신중한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미켈은 확실한 것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벨로나와 헤어지기 무섭게 펠로스를 찾았다.

“무슨 일인가?”

“벨로나 공주와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미켈의 덤덤한 대꾸에 펠로스의 양 미간이 일그러졌다.

“지금 장난하나? 이미 왕께서 모든 서류를 처리한 마당에 뭐가 어째?”

“하지만 펠로스 전하의 목을 묻어 뜯을 눈치만 보고 있는 여자와 제가 어찌 혼인을 하겠습니까.”

“뭐라?”

“벨로나 공주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덤덤하게 이어진 그의 대꾸에 펠로스가 책상을 쾅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겋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거기 누구 없느냐!”

미켈은 미소 지었다.

“지금 당장 공주 벨로나를 잡아와라!”

여기서 벨로나가 죽임당한다면 그게 그녀의 운명인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살아남는다면, 그 때는 그녀가 왕이 돼야 할 운명이라 생각하고 적극 도울 생각이었다.

칼리스는 시트리안 후작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머리가 좋고 영특했던 형과 달리 어릴 적부터 검을 좋아했던 그는 기사가 되고 싶었다. 기사라는 꿈을 처음 가졌던 어린 시절에는 막연하게 왕실의 기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가문에 영광이 되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왕실 주최로 열리는 펠로스 왕태자의 생일 파티에서 벨로나 공주를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처음에 그는 그저 아름다운 공주라고만 생각했다. 먼발치에서 지켜본 어린 공주는 왕실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하게 굴었고 여타 귀족들에게 상냥하게 행동했다. 칼리스가 알고 있는 정숙한 여인의 모습을 죄다 갖춘, 그야말로 완벽한 여자였다.

그 날 이후, 칼리스는 남몰래 벨로나의 얼굴을 그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사춘기의 호기심에 꿈에서까지 그녀가 나타났다. 칼리스는 그런 자신을 스스로 욕하고 반성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마음은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벨로나와 만날 기회가 생겼다. 제 여동생인 카타리나가 벨로나의 생일파티에 초대 받은 걸 데려다 주라는 명을 받은 것이다. 화려한 생일파티를 제 권력인 양 과시하는 다른 왕족들과 비교하자면 정말이지 소박한 규모의 생일 파티였다.

벨로나의 파티가 벌어지는 조그마한 홀에서 그녀에게 인사를 올리자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칼리스 역시 그녀의 생일 파티에 함께 할 수 있게 배려해주었고 덕분에 칼리스는 속으로 그리던 그녀를 원 없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너무 뚫어져라 보았던 탓일까, 벨로나와 몇 번이고 눈이 마주칠 때 마다 칼리스는 민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파티가 화근이었다. 모두의 축하 속에 파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칼리스는 벨로나 공주에게 초대 받았다. 대화를 해보고 싶었다며 보내온 그 편지가 어떤 일을 불러일으킬지 짐작도 못한 소년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벨로나를 찾아갔다.

언제나 남몰래 가슴 속에 그리던 그녀의 시녀가 내놓은 차가 코로 들어가는 지, 입으로 들어가는 지 알 수 없었다. 시녀가 물러가고 어색한 정적 속에 뜨거운 차를 벌컥벌컥 마시던 칼리스는.

‘너 나한테 관심 있지?’

입안에 머금은 차를 죄다 뱉어내고 말았다.

‘예, 예?’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다. 그의 눈앞에서 방긋방긋 미소 짓고 있는 이 공주가 한 말이 과연 맞긴 한 걸까. 그가 아는 보통의 여자들은 이성 문제에 있어 저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나한테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어. 아니, 관심이 있겠지. 그러니 나를 그렇게 흘깃흘깃 눈길질 했던 거고. 안 그래?’

‘저, 저, 그건.’

칼리스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잘 익은 홍당무 같은 낯빛이 된 칼리스는 입을 반쯤 벌리고 멍청한 얼굴이 되어 한동안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왜 그렇게 당황하니? 영식을 추궁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다만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동해서 알아보니 꽤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서 만나고자 했던 거지.’

꽤 괜찮은 남자라니. 칼리스는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써야 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보통의 여자들이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다른 여자가 한 말이라면 그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제게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 당황하게 만든 공주였다. 일반적인 의미는 아닐 것이다.

칼리스는 두근거리던 심장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의 예민함이 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최근, 벨로나 공주와 관련해 들려오고 있는 소문을 떠올렸다. 벨로나 공주가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푸는데 그게 모두 백성들에게 왕위 지지를 받기 위한 수작이라더라...

과거의 그는 여자가 무슨 왕이냐, 게다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만으로 왕이 되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웃었지만 지금은 어쩌면 그게 아주 유언비어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전하의 궁중 암투에 함께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불경죄라는 것은 안다. 공주가 먼저 궁중 암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님에도 공주를 그런 방향으로 몰아갔다는 건 분명 경을 칠 일이었다. 하지만 본능이 그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가족들을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면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완벽하게 끊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누가 뭐랬니?’

불호령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벨로나 공주는 그를 향해 코웃음 쳤다. 동시에 칼리스는 정신이 아찔해 지는 것을 느꼈다. 궁중 암투라는 말에 화를 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는 그녀의 행위는 그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칼리스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

칼리스는 다 마시지 않은 찻잔을 내려놓고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사를 예의에 맞게 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기에 급급했다. 역시 이런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었다. 공주가 단 둘만 보자고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 마냥 설렘에 젖어 의심을 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아, 그런데 가기 전에 하나만 대답해주지 그래?’

얼어붙었던 심장이 이번에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문을 빠져나가기 직전의 순간, 검 집에서 칼이 뽑히는 소름끼치는 소리를 들은 탓이다. 검을 좋아해 단 하루도 수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그가 이 감각을 모를 리 없었다. 공주의 검은 이미 그의 목덜미를 겨냥하고 있었다.

칼리스는 느리게 몸을 돌렸다. 상대에게 무기가 있고 그는 맨몸이라지만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생각하자면 생채기 하나 없이 공주를 제압하는 건 무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리하였다간 불경죄다. 제압 과정에 공주에게 상처 하나라도 난다면 그건 그것대로 곤란했다.

‘대체 제게 뭘 원하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칼리스는 억울해 견딜 수가 없었다. 공주에게 남몰래 마음을 품고 그녀를 곁눈질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줄 누가 알았으랴. 그는 과거의 그를 탓했다.

‘영식이 내 기사가 돼줬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궁중 암투에 함께할 생각이 추호도...’

‘누가 함께 하랬니? 영식은 그냥 내 호위만 하면 돼. 그게 다야.’

이미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는 상대가 할 말은 아니었다. 칼리스가 그녀의 호위 기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공주가 일을 도모해 어떤 사건이 터진다면 칼리스가 공범으로 취급되지 않을 확률은 없었다. 분명 공주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저렇게 말을 하는 건 무슨 고약한 심보란 말인가.

‘저는...’

‘시트리안 후작가가 백성들에게 남몰래 선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영식은 왕실의 기사가 되고 싶어 하지. 기사들이 중요시 하는 건 명예 아니었나? 이 썩어빠진 왕실의 기사가 되는 게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보기엔 영식의 가문이 하고 있는 일이 명예로웠다면 명예로웠지 영식이 꿈꾸는 기사일이 명예롭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제 꿈은 제가 판단합니다.’

이 대답은 괜한 오기였다. 공주의 말에는 틀린 게 없었다. 썩을 때로 썩은 현 왕실의 기사에게 명예는 없다. 그들은 그저 왕실의 비위를 맞춰 제 배를 채우려는 버러지들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칼리스는 어릴 적부터 꾸어왔던 꿈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고 싶지 않았다. 그게 괜한 객기라 해도.

‘걱정 마, 영식이 내 호위기사가 돼 주는 건 영식의 후임이 정해지기 전 까지니까.’

주먹을 꾹 말아 쥐고 자기 합리화를 거듭하던 칼리스는 이어진 공주의 말에 부끄러워졌다. 자신의 후임이 전해지기 전이라니. 그녀는 애초부터 그에게 부담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공주를 바라보았다.

‘영식은 내가 생각한 것 보다 겁 많고 나약한 것 같으니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 이상의 부담은 주지 않을게.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만 함께 해줘.’

‘겁 많고’, ‘나약한’ 그 두 단어가 칼리스의 뺨을 퍽퍽 후려치고 지나갔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지금 나약한 겁쟁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가문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라는 핑계로 스스로를 합리화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라면 오히려 그가 벨로나 공주를 모시기로 했다는 것을 더 달가워하실 것이다. 그의 아버지인 시트리안 후작은 현 왕가가 벌이고 있는 폭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 몇 안 되는 귀족 중 하나였다.

그리고 칼리스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한참 전부터 벨로나의 기세에 압도당해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여성상인 상냥하고 고분고분하며 수동적인 것과 그녀의 거리가 먼 것에 괴리감을 느껴 부정하려 했지만 그는 한참 전부터 그녀에게 잔뜩 눌려있었다.

아주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녀가 왕족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는 그 신분과 별개의 것이었다.

‘제 명예를 제 스스로 저버리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칼리스는 비로소 그녀의 앞에 무릎 꿇었다.

‘한 번 모시기로 생각한 주인을 끝까지 모시는 것 역시 기사로서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내 호위를 시작하지도 않겠다?’

‘아닙니다.’

‘그럼?’

‘공주님의 호위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리스 시트리안은 벨로나 공주의 기사가 되었다. 공주의 기사긴 하지만 왕가 사람의 기사였으니 왕실 기사가 되겠다는 꿈 역시 절반쯤은 이룬 셈이었다. 그 날, 칼리스는 스스로 맹세했다. 앞으로 절대 벨로나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무조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겠노라고.

그러니, 지금의 칼리스 시트리안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밖에 없었다.

“대답해라, 벨로나 공주는 어디에 있지?”

“모릅, 끅, 모릅니다.”

벨로나 공주의 행방에 대해 추궁하는 펠로스 왕자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

“공주의 호위기사가 공주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똑바로 불어라. 네 모가지를 부러트리기 전에.”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칼리스는 시야가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벌써 몇 번이나 몽둥이를 맞았는지 모른다.

자신이 잡힌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벨로나 공주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면 이미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실 모른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벨로나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벨로나가 내버려두고 간 말을 성 밖 마구간에 묶어두고 궁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펠로스의 기사들이 벨로나를 잡으러 쳐들어오고 있는 길이었다. 다행이도 지름길을 통해 펠로스의 기사들보다 앞질러 벨로나의 거처에 도착한 칼리스는 재빨리 벨로나를 대피시켰다.

‘늘 가던 마구간에 말들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도망가십시오. 가는 길에 옷가게가 있다면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사 입고 백성들 사이에 숨어계십시오.’

‘경은?’

‘공주 전하께서 미켈에게 군대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남아서 동태를 살피겠습니다. 낌새가 이상하면 모두 대피시키거나 최대한 티 나지 않게 행동하라고 지시해야 하니까요.’

칼리스는 벨로나의 자괴감 어린 표정을 그 때 처음 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분노하고 있었다.

‘내 탓이야. 혼인을 하지 않으려고 그에게 너무 많은 걸 흘렸어. 완벽하게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때릴 줄이야. 망할 자식.’

‘지금 후회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가십시오. 전하께서 살아남아야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와 벨로나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북문을 지키는 기사들의 귀에 벨로나 수배령이 이미 떨어진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그들은 소식을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홀로 궁을 나서는 벨로나를 의심 없이 보내주는 그들의 모습에 칼리스는 안도했다. 현 왕실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기사들의 기강이 이번만큼 고마웠던 적이 없었다.

벨로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와 함께 가는 게 맞았으나, 자칫 그녀가 쌓아올린 많은 것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에 그리 할 수 없었다. 특히 벨로나가 궁의 병사들과 기사들 몇을 설득해 일구어낸 ‘군대’를 잃는 상황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미켈이 입을 어떻게 벙긋하느냐에 따라 피바람이 불어올지도 몰랐다.

칼리스는 홀로 벨로나의 궁으로 돌아왔다. 혹시나 걸려서는 안 될 증거물이 벨로나의 방 안에 남아 있다면 제거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의 그런 독단적인 행동이 독으로 작용했다. 한 박자 늦게 벨로나의 궁에 도착한 펠로스의 기사들에게 들켜버린 것이다.

괜히 반항이라도 했다가 의심만 더 살까봐 얌전히 기사들에게 붙잡혀 온 칼리스는 펠로스의 곁에 미켈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소 짓고 있는 그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다.

도망친 벨로나의 행방을 추궁하며 이어지는 매질 속에서 칼리스는 미켈의 모든 말들에 집중했다. 언제라도 그의 입에서 벨로나 공주가 군대가 있다던데, 하는 말이 나올까봐 온 몸의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칼리스의 생각과 달리 펠로스의 고문이 끝날 때 까지, 미켈은 군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독한 자식.”

펠로스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벨로나 그 계집애가 어떤 식으로 널 꼬드긴 건진 모르겠지만 그 충성이 눈물겹구나. 벨로나에게는 너 말고도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그저 그 계집애가 좋다고... 불쌍한 놈.”

칼리스는 이를 악 물었으나 갑자기 온 몸으로 찾아온 고통에 결국 몸을 부르르 떨며 축 늘어지는 수밖에 없었다. 쯧, 혀를 차는가 싶던 펠로스의 발걸음이 멀어졌다. 칼리스는 어둠 속에 몸을 숙인 채 있었다. 벨로나가 어디까지 도망갔을까 생각하고 싶었지만 몸의 고통이 자꾸만 생각을 차단했다.

“칼리스 시트리안 경.”

그런 그의 정신이 번쩍 돌아오게 만든 건 미켈의 목소리였다. 힘겹게 고개 들어 올린 칼리스는 그의 눈앞에 있는 미켈의 얼굴을 보았다. 옅은 한숨을 내쉬나 싶던 미켈의 그를 동여매고 있던 줄을 풀어주었다.

“뭐 하는, 겁니까?”

“뭐하는 짓이겠습니까. 풀어주는 거지.”

“하지만 펠로스 왕자가...”

“이미 당신을 풀어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태자 전하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미켈이 옅게 웃으며 비틀거리는 칼리스의 몸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벨로나 공주의 행방을 모른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던데 맞습니까?”

칼리스는 침묵했지만 미켈은 예리하게 그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럼 이제 벨로나 공주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공주 전하께 전해 주십시오.”

이제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말입니다.

벨로나의 어머니인 플레시아 왕비는 임신 8개월 차였다. 부풀어 오른 배를 부여잡고 숨을 쉬기 힘들다, 잠을 자기 힘들다 늘 하소연을 하고 하던 그녀는 벨로나의 앞에서 자신은 아들을 원한다고 말했다.

제 아무리 왕족이라 해도 계집인 공주는 시집을 가면 끝이었다. 왕족으로서의 명예도 다른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순간 사라진다. 하지만 왕자는 어떤가.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왕족으로 취급받는다.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 그러니 플레시아 왕비가 더 이상 왕의 눈에 차지 않아 궁 밖으로 쫓겨나더라도 아들을 낳는다면 노후는 보장되는 셈이었다.

플레시아 왕비는 나가떨어지지 않으려고 용쓰는 벨로나를 비웃었다. 네가 제 아무리 애써봐야 네가 계집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명 단축하는 일은 하지 말고 태어날 동생이 남자아이이길 빌렴. 네 하는 꼴을 보아하니 혼인하지 못할 것 같으니, 나중에 나와 함께 동생 덕 좀 봐야 할 것 아니니?

벨로나는 그 말을 들을 때 마다 대꾸하지 않았다. 상대할 가치가 없는 말이었다. 계집인 게 뭐 어때서. 그녀는 제 어미조차 모르게 이전의 그 어떤 공주도 꿈꾸지 못했던 야망을 꿈꾸었고 심지어는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었다. 궁 안의 기사들과 타협해 궁 안에서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군대를 만들었고 백성들을 돌봐 민심을 얻었다. 그녀와 함께 이 가시밭길을 헤쳐 나갈 든든한 조력자들만 구해지면 어느 정도 승산 있는 싸움이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어미의 말에 발끈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 이 모든 건 그녀가 스스로 쌓아올린 것들이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 낸 것이 아니다. 멸시와 핍박 속에 가시를 감추고 다른 이들의 심기를 최대한 거스르지 않게 노력하면서 조금씩 육성해온 것들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미켈, 그 망할 자식의 새치 혀로 인해서!

“멈추십시오, 공주 전하!”

지척에서 들려오는 커다란 목소리에 벨로나는 이를 악 물었다. 가죽으로 된 말 고삐를 잡은 손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고개를 돌려 추격자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고 싶었으나 길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금방이라도 칠 것만 같아 그럴 수 없었다.

“벨로나 공주 전하!”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성가심이 묻어 나왔다. 벨로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조금만 더 가면 큰 길이 나온다. 큰 길로 가면 사람들을 다치게 할까 노심초사 하며 말을 탈 필요가 없지만 오히려 붙잡힐 확률이 높아졌다.

벨로나가 제 아무리 말을 잘 탄다고는 하나, 훈련 잘 된 기사만큼 타지는 못했다. 지금껏 붙잡히지 않고 말을 탈 수 있었던 건 좁은 골목을 지나는 내내 사람들과 장애물이 나타나서 기사들 역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에 제약이 있던 탓이다.

“잡았...!”

아, 하는 아쉬움 담긴 목소리는 어느새 바로 뒤까지 와 있었다. 이제는 돌아보지 않고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벨로나는 어깨 너머로 시선을 옮겼다가 이내 기겁하며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네댓 명의 기사들이 그녀의 바로 뒤까지 와있었다.

“이랴!”

벨로나는 말의 엉덩이를 발길질 했다. 속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 어느새 큰 길의 입구가 코앞까지 와 있었다.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스쳐지나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여기서 붙잡힌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차라리 죽고 싶다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모진 고문들이 내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음엔?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조리 죽어나가겠지. 최악이다.

선뜩한 기사들의 숨결이 목덜미로 느껴지는 듯하다. 그녀는 생각해야 했다. 그녀가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게 끝난다. 절대 잡혀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다. 큰 길로 빠져나가는 입구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고삐를 쥐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리고 바로 지척에 있던 소달구지의 짚더미 위로 몸을 날렸다.

어어? 하는 기사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벨로나는 소달구지 모서리에 찧은 다리로 충격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벨로나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겹겹이 져 풍성한 드레스 탓에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다.

“망할 드레스!”

이를 악 문 벨로나는 한참동안 버둥거린 후에야 겨우 땅을 밟아 내려올 수 있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게 아닐까 걱정했으나 기사들은 더 이상 그녀를 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벨로나의 행위에 급정거한 첫 번째 기사 위로 나머지 기사들의 말이 부딪혀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다. 기사들 중 하나는 완전히 나가떨어져 움직이지 않았고 어떤 이는 말 아래에 몸이 깔렸다. 또 다른 이는 뒤엉켜 자빠진 말과 기사들 아래에 깔려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른다.

벨로나는 가장 아래에 깔린 기사 하나를 멍한 시선으로 응시했다.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있는 그는 살려달라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런 기사의 얼굴을 버둥대던 말발굽이 후려친다. 순식간에 돌아가 버린 기사의 목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해있지 않았다.

벨로나는 몸을 비틀거리며 재빨리 등을 돌렸다. 구역감이 몰려왔다. 스스로가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저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남편이며 소중한 가족이다. 그런 자들이 고작 그녀 하나 잡겠다고 덤벼들다가 목숨을 잃었다. 잡히지 않으려 몸을 날릴 때부터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자 속이 탔다.

벨로나는 제가 다리를 절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목이 돌아가 죽은 자의 얼굴이 아직도 선연했다. 서로 안면조차 없던 사이인데 왜 그 얼굴이 머릿속에 새겨져 잊히지 않을까. 그녀는 뺨을 문질렀다. 권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흘리지 않기로 명심했던 눈물이 얼굴에 흥건하다.

울지 마. 누군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향해 속삭인다. 나중에는 더한 꼴도 보게 될 텐데 고작 이 정도에 흔들리면 안 되지. 그녀는 이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벨로나 하이텔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가장 강한 부분이자 욕심 많은 부분이 목소리의 형태로 그녀를 향해 속삭이고 있었다.

“응, 맞아.”

벨로나는 힘없이 대꾸했다.

“겨우 이 정도로 물러서면 안 되지.”

두 번째로 내뱉은 대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 울었냐는 듯 표정을 딱딱하게 굳혔다. 지금 당장은 살아남는 것에 집중할 때였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이 뒤따르던지 간에.

그녀는 계속해서 걸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러다 걸음을 멈춘 곳은 적벽성의 정원과 닮은 동백 군락 앞에서였다. 궁궐의 정원과 너무도 닮은 모습에 벨로나는 잠깐 동안 자신이 제 발로 궁궐에 돌어온 건 아닐까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그 생각을 정정했다. 정원사가 매일매일 돌아다녀 잘 관리된 궁의 정원과 달리, 이곳의 나무들은 전혀 관리돼 있지 않았다. 배열도 엉망이었고 높이도 들쑥날쑥 했으며 상한 꽃들도 그대로 달려 있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궁의 동백 정원에 있을 때 보다 편안한 느낌이었다.

벨로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벌써 날이 지고 있었다. 어디로 들어가 잠을 청하기에 지금 자신의 옷은 너무 눈에 띄었다. 칼리스 경이 가장 먼저 허름한 옷을 사 입으라 충고했으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추격전으로 그럴 틈이 조금도 없었던 탓이다. 이 꼴로 어딘가를 들어간다면 내가 바로 벨로나 공주요하고 광고하는 꼴 밖에 되지 않았다.

그녀는 느리게 동백 군락 속으로 들어갔다. 확신할 순 없지만 어쩐지 여기에 있으면 기사들에게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동백 군락의 가장 깊은 지점에 왔다고 생각될 때 쯤 벨로나는 자리에 주저앉아 가장 가까이 있는 동백나무에 몸을 기대고 앉았다. 늦게야 욱신거려오는 다리를 확인하기 위해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린 그녀는 인상을 찌푸렸다. 어둠 속에서도 다리가 잔뜩 부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슬쩍 눌려 얼마나 부어있는지 확인하려던 그녀는 곧 생각을 고쳤다. 옷자락이 스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아픈데, 눌리기까지 했다간 비명을 지를 게 분명했다. 도로 다리를 덮은 벨로나는 양 팔로 다리를 끌어안고 치마폭에 고개를 묻었다. 새로 입은 드레스에서는 짙은 향수냄새가 났다. 그녀는 고개를 조금 돌려 머리카락에 코를 묻었다. 그녀는 향수 냄새보다 머리카락에 배인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더 익숙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했다. 일단 안전한 장소로 몸을 피하고 칼리스 경에게 연락을 취해야 했다. 칼리스가 공범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그가 잡혔을지, 그 손아귀에서 무사히 벗어났을 지가 관건이었다. 그가 무사하기를 바라며 벨로나는 입술을 꾹 물었다. 안전한 장소라니. 웃기지도 않은 말이다. 이 세상천지 그녀에게 안전한 장소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버림받은 전쟁부상자들을 함께 돌본 마사가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녀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벨로나의 행적을 조금만 쫓을 펠로스 일당이 마사에 대해 알게 되는 건 시간문제였다. 어쩌면 그녀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이 미사에 대해 알게 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벨로나는 천천히 숨을 몰아 내쉬며 양팔에 힘을 잔뜩 주었다. 이토록 무기력한 적이 있었던가. 공주라는 신분에 보호받지 않는 그녀에게는 숨 돌릴 구석이 없었다. 제 편협한 인간관계에 회의가 들다가도 사적인 인간관계가 없음은 곧 그녀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란 걸 깨닫고 헛웃음이 나왔다.

일단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는 있겠지. 목적지가 없는 건 변하지 않겠지만 최소한 길은 보일 것이다. 잠깐이나마 눈을 붙일까 생각하며 머리를 좀 더 깊숙이 파묻던 벨로나는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올렸다. 어느새 완전히 드리워진 어둠 사이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움찔하며 동백나무에 좀 더 깊숙이 기대앉았다.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기에 상대는 너무 가까이에 있었다. 그녀는 숨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펠로스의 명령으로 그녀를 잡으러 온 기사일까...?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상대는 점점 더 그녀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둠은 그녀를 감춰주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감춰진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상대는 그녀가 이곳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벨로나는 발걸음 소리가 왼쪽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것과 그녀의 눈앞으로 어슴푸레한 등불이 드리워진 것은 거의 동시였기에 그녀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

“괜찮습니까?”

눈앞에 드리워진 등불에 당황한 그녀를 향해 들려온 첫 마디였다. 팔이 잡아 채일 거라는 예상과 다소 다른 정중한 물음에 잠깐 머뭇거린 벨로나는 느리게 고개를 들어올렸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밤하늘처럼 새까만 머리카락과 낮의 하늘처럼 푸른 눈동자를 지닌 키가 큰 사내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칼리스의 사람인가? 혹, 다른 쪽의 심복이면 어떻게 하지? 걱정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몸을 낮추는 남자를 매서운 기세로 노려본 벨로나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는 남자의 손을 저지했다.

“누구의 명을 받아서 왔는지 말해라.”

그녀의 딱딱한 말에 남자의 눈동자에 의아한 빛이 어렸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아주 잠깐 그녀의 드레스 언저리를 맴도나싶던 남자의 시선이 그녀의 가슴에 달린 브로치에 꽂힌 순간 순식간에 반전됐다.

“당신, 왕족이군.”

이를 악 문채로 읊조리는 남자의 행동에 벨로나는 동요했다. 그녀가 공주라는 걸 알고 말을 건 게 아니었나? 그럼 이 자는 대체 누구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다음 순간, 그녀는 몸이 허공으로 붕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남자가 그녀를 거꾸로 들쳐 맨 것이다.

“놔라, 감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누군지 알고?”

언성을 높이던 벨로나는 뒷말을 차마 내뱉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아무래도 이 남자는 그녀가 벨로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지금쯤이면 수배지가 떴을 게 분명하고 그녀를 스스로 벨로나라고 밝힌다면 벌어질 뒷일은 뻔했다.

“너 따위 불한당이 알 게 아냐. 당장 내려놔, 당장!”

벨로나는 버둥거리며 남자의 등을 퍽퍽 소리 나게 쳤으나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리 몸부림 쳐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곤 온 몸의 힘을 빼고 축 늘어졌다. 괜히 소리를 질렀다가 순찰을 돌던 기사들의 눈에 띄는 게 더 나을지, 이 남자에게 끌려가는 게 더 나을지 판단 할 수 없었다.

하루 사이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에 잔뜩 지친 그녀는 탈출할 기회가 생기기를 속으로 빌며 눈을 감아버렸다.

벨로나가 정신을 차린 것은 웬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였다.

“리하이트 님, 그 사람은 누구예요?”

호기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벨로나의 시야에 보이는 것이라곤 남자의 등뿐이었기에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이나 크기로 아이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하고 짐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폴? 잘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의아함이 잔뜩 담긴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를 향해 내뱉은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리하이트 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찰 돌면서 예쁜 꽃을 가져다준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네!”

벨로나는 남자가 나지막한 한숨을 내쉬는 것을 들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구나. 꽃은 못 따왔어.”

“네? 왜요?”

“꽃이 아직 피질 않았거든.”

그녀를 붙잡은 남자의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다. 벨로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동백꽃이 잔뜩 피어있었던 그 정원을 떠올렸다.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는 건 그녀 때문이었다. 그녀를 이곳으로 끌고 오느라 미처 꽃을 따지 못했던 것이다.

“기다렸는데... 그럼 다음에 따다 주세요!”

“그래.”

벨로나는 볼 수 없었지만 남자가 미소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폴, 미안한데 장로님들께 광장으로 모여 달라고 전해줄 수 있겠니? 왕족을 데려왔다고도.”

“넵, 대장님!”

우렁차게 대꾸한 아이가 달려가는 소리가 났다. 벨로나는 이 어둠 속에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잠깐 걱정했으나 당장 걱정해야 할 건 아이의 안전이 아닌 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는 남자를 대장이라 불렀다. 어린 아이가 장난으로 부르는 호칭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제대로 된 호칭일 지도 몰랐다. 산적인가? 수도 주위에 산적들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리하이트 님이니, 대장님이니 하는 격식어린 호칭을 쓰는 족속들이 단순히 마을의 일행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최소한 위계질서가 있는 무리의 일원들이라는 건데. 그런 무리로 떠오르는 것은 산적 정도였다.

“당신, 산적이야?”

“뭐?”

그녀의 물음에 남자는 코웃음 쳤다. 산적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산적 말고 다른 부류의 무리는 떠오르지 않았다.

남자는 이제 어디론가 올라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뭐가 보이기는 할까 싶었지만 남자는 비틀거림 하나 없이 잘만 걸어 올라갔다. 남자가 걸어올라 가는 내내 남자의 정체에 대해 생각하던 그녀가 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입을 열기도 전에, 몸이 흔들리며 바닥으로 팽개쳐졌다.

갑작스럽게 양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휘청거리며 겨우 균형을 잡은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다가 눈동자를 움직여 주변을 살폈다.

눈이 서서히 어둠에 적응하며 그녀가 있는 곳이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했다. 낯선 장소다. 정말 낯선 장소였다. 풀 한포기 없는 자그마한 크기의 공터를 둘러싼 나무들 사이로 샛길이 드문드문 나 있는 게 보였다. 저 길은 어디로 통하는 걸까. 또 여기는 어떤 길로 들어온 걸까. 벨로나는 그제야 부주의 했던 스스로를 탓했다. 탈출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어떤 경로로 여기에 왔는지 기억했었어야지! 그녀의 눈을 가리지 않은 이 남자도 이 남자다 싶었지만 길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그녀도 그녀였다.

“이제 날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녀의 날선 물음에 남자는 팔짱을 끼고 덤덤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장로님들이 결정하겠지.”

“장로님들?”

“마음 같아선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왕족이지만, 나보다는 그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테니.”

아리송하기 그지없는 남자의 말에 벨로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불친절하기 그지없는 남자였다. 왕족을 원수라고 칭하는 것을 보아하니 그녀가 왕족이기에 이렇게 구는 것 같긴 했지만 이 남자가 왕족에게 원한을 품은 이유가 그녀와는 관계없는 것일 거라 생각하니 괜히 짜증이 났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상황을 벗어날 묘책이 떠올랐다.

“당신 기분에 초쳐서 미안한데, 난 이제 왕족이 아니야.”

그녀의 말에 남자가 별 헛소리를 다 들었다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낮에 수배 전단이 돌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못 봤어? 황태자를 시해하려 든 죄로 쫓기고 있는 처지인데. 생각해 봐, 왕족인 내가 왜 그런 곳에 있었겠어? 척 봐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모습이었잖아.”

“그런 것 치곤 나한테 너무 쉽게 들켜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서 멀리 갈 형편이 못됐거든.”

벨로나는 드레스 자락을 들어 올려 그에게 상처를 보였다. 퉁퉁 부어오른 그녀의 다리를 미심쩍은 시선으로 쳐다보는가 싶던 남자가 다시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당신, 이름이 뭐지?”

“벨로나 하이텔.”

그녀가 이름을 내뱉기 무섭게 남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동이 일었다.

“벨로나...?”

“리하이트 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들려온 누군가의 외침에 벨로나와 리하이트의 고개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돌아갔다. 각각의 샛길에서 등불을 든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벨로나는 눈앞의 남자가 당황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잠깐 동안 굳어 있나 했던 남자의 고개가 갈 곳을 잃고 사방으로 돌아갔다가 겨우 한 방향에 고정됐다. 남자를 부른 것은 백발이 풍성한 늙은 노인이었다. 키가 작고 허리가 구부정한 늙은 노인의 얼굴 위로 등불의 불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이들 온 겁니까?”

당혹스러움이 잔뜩 담긴 남자의 물음에 노인은 난감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죄송합니다, 리하이트 님. 어쩌다보니 소문이 퍼져서...”

등불 아래 선명하게 드러난 주름살은 노인이 한마디 한마디를 꺼낼 때 마다 미묘하게 움직였다. 자신보다 훨씬 어려보이는 남자를 향해 경어를 쓰며 재차 사과하는 노인의 모습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져 벨로나는 남자의 뒤통수를 빤히 응시했다.

산적이 아니라면 여긴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집단이기에 노인이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남자에게 경어를 쓰고 있나. 귀족 사회에서가 아니라면 좀체 볼 수 없는 모습임은 분명했다.

“그보다 리하이트 님, 데려왔다는 왕족은 어디에...?”

“아, 그 여자라면 여기에.”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뭔가 딱 소리를 내며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다. 의아함에 시선을 내린 것과 섬뜩한 전율이 밀려온 것은 거의 동시였다. 묵직한 퍽 소리와 함께 이마에 강한 충격이 몰려왔다. 순식간에 콧등이 시큰해졌다. 눈물이 팽 밀려나온 것은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었다. 벨로나의 몸이 비틀거리기 무섭게 또 한 번 퍽, 하고 등에 고통이 밀려왔다.

그것이 기점이었다. 사방에서 그녀를 향한 돌멩이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벨로나는 행여나 얼굴이 다칠까, 양 팔로 제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아버렸다.

소리들이 들린다. 허공에서 날아오던 돌멩이들이 서로 맞부딪치는 소리, 그녀의 주변으로 떨어지는 소리, 그녀의 몸에 부딪히는 소리, 부딪힌 돌멩이들이 도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것들은 모두 그녀를 향한 적의였다. 악마, 더러운 년, 망할 왕족! 쓰레기! 죽여 버릴 거야! 저주에 가득 찬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벨로나는 놀라울 정도로 그 말들이 아무렇지 않았다. 저들의 말은 그녀를 향한 저주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비탄처럼 들렸다.

벨로나는 눈을 감았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돌팔매질은 고통을 가져왔으나 동시에 생각할 거리를 가져다주었다. 이들은 왕가를 원망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들을 잘 회유하면,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벨로나는 문득 그녀를 향한 돌팔매질이 멎었다는 걸 깨달았다. 탁, 타닥. 불규칙적으로 들려오던 돌멩이 소리들이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다. 느리게 고개를 들어 올리는 벨로나의 왼쪽 이마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액체가 왼쪽 시야를 차단했다. 그녀는 그녀를 향해 던져지던 돌들의 행방을 더는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유가 그녀를 보호하듯 막아서고 있는 남자 때문이란 걸 알아차렸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아랑곳 않고 빤히 올려다보는 벨로나를 가만히 응시하다가 인상을 약간 찌푸린 리하이트가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려 섰다.

“모두들 진정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이 여자에 대한 처분은 장로님들이 결정할 겁니다. 아직은 이런 식으로 공격해선 곤란합니다.”

남자의 말에 몰려든 사람들의 사이에서 미묘한 파동이 일었다. 대체로 그의 말을 수용하는 분위기였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었지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다를 것 같았다. 그리고 벨로나는 제게 적의를 품은 자들을 회유하는 것에 익숙했다. 특히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적이 거의 없던 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녀가 마사와 함께 돌보았던 수많은 백성들이라고 처음부터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그들보다 좀 더 과격하긴 했지만 결국엔 무언가를 제대로 누려본 적 없는 한낱 백성들이었다.

그녀는 뺨까지 내려온 피를 손등으로 훔치고, 그녀를 보호하기라도 하듯 그녀 앞에 굳건하게 버티고선 남자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런 그녀의 돌발행동에 남자가 어깨를 움찔하는 게 느껴졌으나 벨로나는 아랑곳 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들의 기분을 이해해.”

그녀가 힘주어 꺼낸 첫 마디에 사람들의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저 년이 지금 뭐라고 지껄이는 거야? 누군가의 외침이 커다랗게 들려왔으나 그녀는 못들은 척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샛길 쪽으로 느리게 걸음을 옮겼다.

“자네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왕족과 귀족 놈들의 곳간에는 황금이 쌓이는데, 당신네들 집은 시체치울 파리조차 없으니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왕족과 귀족 머저리들이 원망스럽겠지. 찢어 죽이고 싶겠지. 통 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어 고통스럽게 죽여도 시원찮겠지! 아니 그래?”

점점 더 고조되는 그녀의 목소리에 그녀의 눈앞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나도 모르겠네. 그러한 의미가 담긴 눈빛들이었다.

“자네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이 곧 내가 느끼는 감정이야.”

벨로나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의사를 전달했다.

“나는 제멋대로 구는 저 왕족과 귀족들을 자네들만큼이나 처단하길 원했고 그걸 원해서 실현시키려 애쓰다가 결국 왕태자를 시해하려 든 죄로 수배되는 처지에 놓였어. 이런 내가, 자네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왕족들과 같은 존재인가?”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다가 리하이트를 향해 도로 고개를 돌렸다.

“왕족인 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당신들의 분노를 모르는 바가 아니니 기꺼이 맞아주겠어. 허나, 자네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나는 당신들과 대화를 좀 해보고 싶은데.”

리하이트는 올곧은 시선을 제게로 고정시킨 채 말을 끝맺는 벨로나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느꼈다. 준비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동안 진행된 저 연설에 모두가 잠시나마 압도되었다. 그것은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왕족인 저 여자가 하는 말이니 분명 궤변일 거라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 맞은 기분이다.

리하이트는 그녀의 이름을 떠올렸다. 벨로나 하이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다. 왕을 제외한 왕족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리가 없는데. 뭔가 생각이 날 듯 말 듯 희미한 잔상만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어디서 들었지?

“어? 나 저 사람 알아요!”

벨로나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샛길의 선두에 선 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몸을 숨기고 있던 10살 소녀 피비가 꺼낸 말에 모두의 시선이 피비를 향해 돌아갔다. 갑작스러운 주목에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나 싶던 피비가 엄마의 뒤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벨로나의 얼굴이 좀 더 잘 보이는 위치에 섰다. 벨로나의 얼굴을 한동안 응시하나 싶던 피비가 제 말이 맞았다는 듯 박수를 치며 제자리에서 폴짝 폴짝 뛰었다.

“아이, 엄마 기억 안나? 아빠 손가락 잘렸을 때 치료해준 예쁜 공주님이잖아!”

피비의 말에 그제야 기억이 났다는 듯 피비의 엄마 가넷의 얼굴에도 천천히 깨달음의 빛이 퍼졌다. 동시에 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설마 저 사람이 그? 맞네, 금발머리야. 그럼 우리가 저분께 돌을 던졌단 말인가?

리하이트는 요동치는 공기 속에서 벨로나 하이텔 이란 이름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해냈다. 1년쯤 전이었나, 장터에서 나눈 대화에 그 이름이 섞여 있었다.

‘벨로나 공주님이 평민과 천민들을 위한 무료 치료소를 차렸다더군.’

‘벨로나 공주님이요?’

‘그 소문의 금발머리 공주님 말이네.’

벨로나 공주 보다는 금발머리 공주라고 더 많이 알려진 여자였다. 왕족 중에 금발머리가 몇인데 설마 그 여자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벨로나의 어깨 너머로 늘어진 옅은 금발과 그 위로 번져 있는 핏물을 물끄러미 응시하던 리하이트는 지끈거려오는 이마를 짚었다. 아무래도 그가 뭔가 실수를 한 것임이 분명했다.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기워진 흔적이 잔뜩 남은 낡은 천으로 엉성하게 만들어진 천막에서 상처 난 이마에 약초를 바르고 있던 벨로나는 슬쩍 눈을 떴다. 리하이트가 그녀의 앞에 고개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약초를 발라주던 여자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물드는 것을 보며 벨로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저 남자가 고개 숙이는 것에 이렇게 놀라는 걸 보면 이 남자가 이곳에서 남에게 고개 숙일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보였다. 그럼 뭐하나, 그 위치도 신분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을.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놀란 것은 벨로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만난 남자란 족속들은 하나 같이 쓸데없이 자존심만 높아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것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제 아무리 왕족이고 그들보다 신분이 한참 높다고 한들 그들은 여자인 그녀에게 사과하거나 틀렸다는 말을 듣는 것을 못 견뎌 했다.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였던 이라고 해봤자 그나마 칼리스 정도일까.

“됐어.”

벨로나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도로 눈을 감았다. 그럼 뭐해, 이 남자도 그녀가 왕족이 아닌 평민 혹은 천민이었다면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다.

“왕족에 원한을 품고 있는 자들을 한 두 번 본 게 아니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게다가 돌을 던진 건 당신이 아니잖아.”

“돌을 맞은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제가 그런 방식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한 사과입니다. 공주님께 돌을 던진 일은 당사자들이 내일 직접 사과할겁니다.”

이어진 리하이트의 말에 벨로나는 도로 눈을 떴다.

“아랫것들의 잘못은 그들의 우두머리에 있는 자가 책임지고 사죄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리하이트의 눈두덩이 움찔 떨렸다.

“저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그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나이 많은 이를 좀 더 대우하는 거라면 모를까. 한 마을의, 동등한 신분의 사람들 사이에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아까 그 사람들이 당신을 ‘리하이트 님’이라 호칭하지 않았나? 상하관계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

“그건...”

“게다가 아까 폴이라는 아이는 당신을 대장님이라 부르는 것 같던데. 그저 마을의 일원일 뿐인 청년에게 쓸 만한 호칭은 아니지. 나는 자네들이 반역자 무리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이 틀린가?”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리하이트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벨로나의 이마를 치료해주던 여자는 제 할 일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천막 밖으로 나가버렸다.

둘만 남은 공간에서 서로를 물끄러미 응시하는 시선에 균열이 일었다. 리하이트가 먼저 고개를 돌린 것이다. 벨로나는 그제야 조금 더 편한 자세로 벽에 기대앉았다.

“나는 당신이랑 당신이 속한 이 무리에 대한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할 얘기 없습니다.”

“나를 그런 식으로 끌고 온 게 죄송하다며. 정말 죄송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보여야지.”

“아까 전에는 괜찮다고...”

“내가 변덕이 좀 심해서.”

장난스러운 그녀의 대꾸에 리하이트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귀족이나 왕족이랑은 조금 다른 줄 알았더니 제멋대로 하려 드는 게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여긴 그냥 마을입니다.”

리하이트가 딱 잘라 말했다.

“정확히는 빈민촌이라 말하는 게 옳겠군요. 천막으로 된 집들이 잔뜩 있다는 이유로 혹자는 천막촌이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곳에 사는 이들이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래, 백 번 양보해서 당신 말이 사실이라 치자. 그럼 대장님이라는 호칭은?”

“저희끼리 임시로 지정한 촌장쯤 되는 사람이 저라서 그렇습니다. 저 만큼 젊은 놈이 무슨 촌장이냐는 눈치인데, 나라에서 등골을 빼먹으러 장정들을 보내 올 때 맞설만한 덩치가 되는 사람이 저 밖에 없으니까요.”

“아까 보니 당신보다 덩치도 좋고 나이도 많은 남자들이 여럿 있던데.”

자꾸만 캐물으려 드는 그녀의 행동에 리하이트는 이마를 짚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간 그녀의 술수에 휘말려 덥석 물 떡밥 하나를 내어줄 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아무래도 공주 전하께서 저희가 정말 산적이니 도적이니 하는 오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전혀 아닙니다. 그 분들의 얼굴이나 덩치를 볼 정신은 있고 그 분들이 팔 다리는 볼 여유가 없으셨습니까? 유심히 보셨다면 그분들의 사지가 완벽하게 멀쩡하지 않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뭐?”

“이 마을 남자들 대부분이 현왕의 무리한 영토 확장 전쟁으로 국경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공주 전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나라에선 부상입고 제대한 일반 병사들에게 어떤 보답도 않았고 심지어는 부상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왕족과 귀족에게 원한을 품고 몰려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팔다리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은 몸으로 무얼 한다고.”

“왜 못하나?”

더 이상의 의심을 떨치기 위해 아무렇게나 던진 말에 그녀는 잔뜩 인상을 썼다.

“한쪽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의지가 있다면 하겠지. 왜 못하지? 나는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말 하고자 한다면 타인의 도움을 빌려서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라도 하고자 하는 법인데, 왜 못해?”

벨로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물론 그들의 입장이 돼 본적 없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하려고 생각하면 그들 역시 할 수 있어. 왜 당신이 어림짐작해서 그들의 입장을 판단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어리석은 내 딸아, 너는 여자로 태어난 주제에 너무 욕심이 많구나. 네가 백날 발악해봐야 너는 그저 계집애일 뿐이란다. 넌 못해. 넌 절대로 권력을 잡을 수 없어. 어머니의 그 말과 사지가 불편한 자들은 무얼 하지 못한다는 저 말이 뭐가 다르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 않으나 그녀는 그의 그런 단어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비롯한 그들을 반역자 집단쯤으로 생각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잠시나마 당신들과 내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그랬어. 허나 그들이 무얼 할 수 있겠냐는 그런 말은 하지 마. 누군가에겐 분명 상처가 될 테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리하이트는 어쩐지 화가 난 것 같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화가 난 지점이 어디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초점이 어긋난 느낌이라 그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공주님은 이상한 사람이네요.”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꺼낸 첫 마디였다.

“그래? 다들 나한테 미쳤다고 그러던데. 그 말보단 훨씬 낫네.”

그리고 그녀가 대답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듯 침묵했다. 아무래도 그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반역자 집단이라는 의심은 완전히 떨쳐낸 모양이었다.

“그럼 편하게 쉬십시오.”

“잠깐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기며 몸을 돌리던 리하이트의 걸음이 문득 멎었다. 그를 불러 세운 공주의 얼굴이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나를 어떻게 할 거지? 펠로스에게, 왕실에 넘길 건가?”

“저희가 왕족 좋은 일을 왜 합니까?”

“그럼?”

“장로님들과 의논한 결과, 공주님의 다리가 낫는 즉시 여기서 내보내자는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다. 하지만 곧, 그녀는 원래의 낯빛을 되찾고 그를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신경써줘서 고마워. 후일에라도 이 은혜는 보답하도록 하지.”

“쾌유를 바랍니다.”

퍽 정중한 대꾸였으나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르지 않았기에 벨로나는 입 안이 썼다. 그들이 그녀와 같은 꿈을 꾸고 있어서 그녀의 편이 돼줬으면 했건만 녹록치 않을 모양이었다. 차라리 진짜 반역자 집단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리하이트가 천막을 빠져나가기 무섭게 그녀는 짚을 쌓아 만든 간이침대 위에 몸을 뉘였다.

제 아무리 백성들의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살피곤 했던 벨로나라지만 평생을 푹신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왔던 처지라 이런 곳에서 쉬이 잠들 수 있을 리 없었다. 차라리 의자에서 쪽잠을 청하는 편이 더 익숙하니 그게 나을 지도 몰랐다.

한참을 뒤척이던 벨로나는 느리게 눈을 떴다. 다리가 다 나으면 어디로 가야할까.

“갈 곳이 아무데도 없네.”

그녀는 어둠 속에 쓰게 웃었다.

“리하이트 님!”

리하이트는 그를 부르는 커다란 외침에 남은 옷들을 마저 걸치고 천막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이른 아침 공기가 폐부로 밀려듦과 동시에 그의 눈썹이 움찔 떨렸다. 그의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리하이트는 혹여 큰일이 난 건 아닐까, 조바심 내며 질문했다.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리하이트는 그의 눈앞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는 것을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게 다름이 아니고...”

말을 꺼낸 것은 가장 선두에 선 남자였다. 머쓱하게 머리를 긁는 남자의 왼손에는 검지와 중지가 없었다.

“장로님들께 들었는데, 공주님의 다리가 나으면 보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저희 마을 사람들끼리 의논을 해봤는데 혹시, 공주님을 여기에 계속 숨겨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주를 이곳에 계속 숨겨주면 안되겠느냐고? 그 뜻밖의 물음에 리하이트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당연히 곤란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고 단호하게 대꾸했다.

“왕태자에게 반역을 저지른 공주를 숨겨주다가 들키면, 그 이후 생길 문제들은 어떤 누가 감당할 겁니까. 게다가 무엇보다 저 공주가 여기서 계속 지내다 보면 우리가 뭘 계획하고 있는 지도 알게 될 건데. 저 공주를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리하이트의 날카로운 지적에 그의 앞에 몰려선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다. 그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던 리하이트는 나지막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지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왕족, 금발머리 공주에 대한 소문은 리하이트도 여럿 들은 적 있었고 이곳 마을 사람들도 그녀가 차린 무료 치료소에서 몇 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 당사자가 어려움에 처해 눈앞에 있으니 부채의식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부채의식 하나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벨로나에게는 반역자 집단 같은 것이 아니라며 딱 잘라 말했으나 사실 그녀의 짐작이 옳았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마을에 지나지 않았던 이 집단은 반역자 무리로 탈바꿈한 지 오래였다.

최하층인 천민들에게 지원을 하지는 못할망정 있지도 않은 재산을 탈탈 털어가는 왕실에 넌덜머리가 나서 그들은 농기구와 함께 칼을 들었다. 낮에는 손바닥만 한 땅에서 죽지 않기 위해 농사를 짓고, 밤에는 공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터에서 훈련을 한다. 그게 지난 몇 년 간 그들의 생활 패턴이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왕실이 바뀌기를 꿈꾸며 왕태자를 향해 반역을 저지른 공주가 그들을 고발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는 언제나 만에 하나를 생각해야만 했다. 어린 나이임에도 그가 가진 가능성을 보고 연대해 준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라는 지위에 놓인 그의 책임감은 막중했다.

“하지만 리하이트 님...”

“재고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리하이트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내젓고는 사람들을 지나쳐 걸어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리하이트 님, 하고 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간 밑도 끝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매사에 객관적일 필요가 있었다.

“공주님.”

그는 공주를 데려다 놓았던 자그마한 천막 앞에 도착해 그녀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아직 자고 있는 것인가 했지만 그렇다하기엔 인기척 자체가 느껴지지 않았다. 인상을 찌푸린 그는 주저하다가 천막을 슬쩍 열어보았다. 빛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는 얇은 천 아래의 밝은 공간에는 아무도 없었다.

리하이트는 의아함을 느끼며 도로 천막 문을 닫았다. 밤중에 그가 천막을 헷갈려 다른 곳에 그녀를 들여보냈던가 생각하며 몸을 돌린 리하이트는 저 멀리서 다급하게 뛰어오고 있는 붉은 머리 남자아이를 발견했다.

“리하이트 님!”

마찬가지로 리하이트를 발견한 소년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왔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애꾸눈 아버지 아래서 자란 폴은 리하이트를 가장 잘 따르는 마을 아이였다.

“아침부터 바쁘구나, 폴.”

“네, 아버지가, 집에 있는 약초를 들고 오라고 하셔서.”

리하이트는 헉헉 거리면서도 말을 끝까지 이어가는 폴의 머리를 대견하다는 듯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 행동에 헤헤 웃던 폴의 뺨이 붉어졌다. 폴은 칭찬 앞에서 항상 불타는 고구마가 되곤 했다.

“그런데 약초라니? 누가 또 다쳤나?”

“아, 아뇨! 그게 아니고 공주님께서 저희들 몸에 있는 부스럼을 보시고 치료해주고 있거든요.”

천진난만한 폴의 대꾸에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멎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커다랗게 외치고 후다닥 달려가는 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응시하던 리하이트는 폴이 뛰어왔던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무 그늘 아래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는 것을 발견하곤 걸음을 멈췄다. 인파 속에 둘러싸여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 가운데 벨로나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왜 그에게 찾아와 공주를 숨겨주자는 제안을 했는지 다시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아, 리하이트 님.”

몸을 돌려 세우다 그를 발견한 또래 청년 스콧이 반갑게 그를 불렀다.

“들었습니까? 공주님께서 부스럼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데 약이 제법 잘 듣는 모양입니다. 부스럼 자체가 당장 없어지진 않아도 가려움이 많이 덜어진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잘 됐군요.”

리하이트는 느리게 대꾸하곤 인파 속으로 들어가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벨로나를 번갈아보았다. 드레스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 않고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하게 맺혀 있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쳐보이지도 않았다. 어린 아이들의 팔이며 다리에 약초를 발라주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열정이 가득했다.

마지막 아이까지 치료가 끝난 듯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뺨을 쓰다듬은 벨로나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너무 가려워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인 사람이 더는 없다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지.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약초가 제대로 숙성이 되지 않은 거라 임시방편 밖에 안 돼. 그 아이가 약초를 들고 오면 내가 이틀 뒤에 다시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도 치료해주도록 할게.”

그게 힘들다면 약을 나눠 주던가. 나지막하게 덧붙인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무섭게 그녀를 향해 머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 사람들이 제 각각의 일터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흩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리하이트를 발견한 벨로나가 잠깐 멈칫하더니 곧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이 마을의 대장이라는 자가 사람들 몸 곳곳에 부스럼이 퍼질 때 까지 치료법을 알아보지도 않고 뭘 한 거지?”

그녀의 말은 비꼬는 것이라기보다 책망하는 것처럼 들렸다.

“의학적 지식이 전무 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알아보려는 노력을 않은 거겠지. 이 약초가 얼마나 구하기 쉽고 이 치료법이 얼마나 대중화 된 것인데. 내 치료소에서도 이걸로 찾아온 사람은 딱 한 번 봤어.”

“...제 불찰입니다.”

리하이트는 순순히 인정했다. 가끔 참지 못할 간지러움에 피가 날 때 까지 벅벅 긁어대는 이들이 있는 걸 제외하자면 그리 큰 병처럼 느껴지지 않았기에 안일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보다 당신 말이 맞더라.”

뜬금없는 그녀의 말에 리하이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돌을 던진 당사자들이 찾아와 사과할 거란 말이 맞았다고.”

“아.”

“그리고 그 얘기도 들었어. 당신이랑 내가 처음 만난 날, 당신이 거기 있었던 게 순찰을 돌던 거였다며? 그 곳에서 여인들이 몹쓸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막느라고.”

그녀의 말에 리하이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백군락의 뒤쪽에는 홍등가가 있었고 그 때문에 밤중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돌아다니곤 했다. 대게 여인과 잠자리를 할 돈이 없는 자들이 그 주위를 배회하다가 길 가던 아무 여인을 붙잡아 동백 군락 속에서 겁탈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리하이트는 종종 그곳까지 순찰을 나가곤 했다. 그런 일을 겪는 여자들 대부분이 그와 같은 천민 신분이었다.

“당신에겐 고맙게 생각해. 당신이 나를 여기로 끌고 온 의도가 뭐였든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단 거잖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어째 해석이 좀 더 커진 느낌이었으나 리하이트는 일단 잠자코 있기로 했다. 그런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응시하던 벨로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그녀가 지내던 천막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보다 약초를 가지러 간 꼬마는 왜 안 오는 거지?”

“아까 오는 길에 마주쳤는데, 금방 올 겁니다.”

“그래?”

벨로나의 시선이 다시 리하이트에게로 향했다.

“혹시 당신 지금 할 일 없나? 없으면 날 좀 돕는 게 어때?”

앞장서서 걸어가는 리하이트의 품에는 폴이 들고 온 약초가 한가득 안겨져 있었다.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약초를 다듬는 걸 도우라는 그녀의 부탁을 차마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녀가 하는 일은 그의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자기 나무가 부스럼 치료에 효과적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리하이트는 자괴감 속에 중얼거렸다. 자기 나무는 숲 속 아무데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약초였다. 흔한 만큼 몇날 며칠을 굶어야 하는 날이면 연하게 푹 끓여 죽처럼 먹었던 자기 나무 잎이 바르면 부스럼 약이 될 거라곤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녀의 말마따나 조금만 다른 마을을 수소문 했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였을 것이다.

“혹시 이거 이외에 다른 약들도 만들 줄 아십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리하이트는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새삼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무료 치료소를 차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의학을 배웠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리하이트는 귀족 여자들은 모두 허영이 많고 아는 게 없다는 편견 하나를 머릿속에서 지웠다.

“의학은 누구에게 배운 겁니까?”

“따로 배운 적은 없어. 마사가 배우는 걸 곁에서 듣기만 했지. 내가 똑똑한 건 사실이지만 의학을 진지하게 공부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거든.”

자칫하면 거만하거나 오만해 보일 수 있는 말이었으나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 마사가 누구냐면 내 시녀였던 애야. 변방의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는데 제법 똑똑하더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생을 하나 불러 와 그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도록 했는데 곧잘 하더라. 지금은 의사야. 자랑스러운 일이지.”

“그분이 원한 겁니까? 아니면 공주 전하께서 의사가 되도록 강제로 몰아붙인 겁니까?”

“반반 일걸. 내 책으로 몰래 공부하고 있던 걸 들켜서 그 애의 머리가 제법 좋단 걸 알 수 있었으니까. 그게 의학 서적은 아니었지만.”

벨로나가 지내는 천막에 도착한 리하이트는 벨로나가 약초를 빻을 준비를 하는 것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다가 곧 인상을 찌푸렸다. 여기저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녀의 걸음걸이가 영 엉성했다. 줄곧 앞질러 걸어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잠깐만 멈춰보십시오.”

리하이트의 요구에 벨로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자리에 멈춰 섰다. 리하이트는 그녀의 서 있는 자세 역시 어중간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친 다리가 많이 불편합니까?”

“못 걸을 정도는 아냐.”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해.”

머뭇거리나 싶던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리하이트는 그녀의 드레스를 슬쩍 걷어 그녀가 다쳤다고 말했던 다리를 보았다. 반대쪽 발목의 두 배만큼 부어올라 새빨갛게 달아오른 왼쪽 다리를 묵묵히 응시하던 리하이트는 상처를 누르자 벨로나의 몸이 휘청거렸다.

“만진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로 외치는 벨로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본 리하이트는 그녀의 양 미간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것을 발견했다.

“의학에 대해서 아는 게 제법 있다는 분이 제 다리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합니까?”

“며칠 두면 나을 거야. 내버려둬.”

“그건 편안하게 앉아서 쉴 때 얘기겠죠. 그 다친 다리로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리하이트는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계십시오. 약초를 빻는 건 제가 할 테니 응급처치나 하시고.”

“나중에 당신이 가면 알아서 할게.”

“그 말을 어떻게 믿고요.”

“정말이야.”

리하이트는 그렇게 말하는 벨로나의 표정이 다급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입을 열었으나 그러기도 전에 붉게 달아오르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다리가 나으면 여길 떠나야 하잖아.”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시선을 피했다.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일부러 더 다치는 일은 없을 테니 이것만 눈감아줘. 다 낫기만 하면 군말 않고 나갈 테니까.”

어쩐지 불편해 졌다. 잡혀오던 순간에도, 이후에도 당당하게 굴던 공주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탓이다. 하지만 불편한 심기는 불편한 심기고 아닌 건 아닌 거다. 입술을 꾹 다문 리하이트는 어제 벨로나의 이마를 치료하고 남은 붕대를 주워들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벨로나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걷은 리하이트는 묵묵히 붕대를 그녀의 다리에 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부하듯 다리를 움찔거리던 벨로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체념한 모양이었다.

“당신 정말 칼 같구나.”

원망하는 목소리였으나 변명하지 않았다.

이후, 별 다른 대화는 오가지 않았고 그들은 정적 속에 약초를 다듬었다. 지나친 침묵이 신경 쓰여 몇 번 돌아본 벨로나는 여전히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였고 리하이트는 그 때마다 속에 답답한 무언가가 들어차는 듯 했다. 다듬은 약초를 병에 담아 정리하는 것을 도운 리하이트는 천막을 빠져나가는 순간 까지 벨로나에게 아무런 말도 걸지 않았다.

천막을 돌아보는 리하이트의 입술 새로 낮은 한숨이 퍼져나갔다.

한참 동안 천막 밖에서 느껴지던 인기척이 사라진 걸 느낀 벨로나는 느리게 천막 문을 열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리하이트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민망함으로 가득 찼던 얼굴은 모두 죄 거짓이었다는 듯 그녀의 얼굴은 덤덤하기 짝이 없었다.

“생각한 것 보다 훨씬 강단 있어서 마음에 드네.”

지금의 그녀에게 그런 태도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벨로나는 입술을 잘근 씹었다.

아닌 건 아니라며 단호하게 행동하는 그의 태도가 사람들의 우두머리에 있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그의 행동에 점수를 매기자면 기꺼이 만점을 주겠지만 지금 그녀의 상황에 비춰 생각하면 그의 그러한 태도는 완벽하게 비관적이었다. 궁에서 내쫓기기 전에 저 남자를 알았으면 좀 좋았을까. 아니, 하다못해 저 남자가 천민이 아닌 귀족이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옆에 두고자 했을 텐데.

벨로나는 리하이트가 감아준 붕대를 내려다보았다. 쓸데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매여진 붕대를 보자 헛웃음이 나왔다. 풀어버릴 요량으로 고개를 숙였던 벨로나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래도 메 준 사람 예의가 있는데 이건 그냥 두자.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벨로나는 침대에 올라 누워 물끄러미 천장을 응시했다.

아무래도 그 남자를 설득하긴 그른 것 같으니 이젠 본격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흔들어 봐야 할 것 같았다.

“벨로나 공주님께서 다리 다친 아이를 치료해주셨다고 합니다.”

“공주님이 죽어가던 매튜 할아버지 곁을 밤새 지키고 계셨대요.”

“벨로나 공주님이 어떻게 하면 농작물을 더 잘 키울 수 있는 지 알려주셨어요.”

벨로나 공주님이... 공주님께서... 리하이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방 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 공주가 이곳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 지를 알려주고 있었다. 넘쳐흐르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리하이트는 지독한 피로를 느꼈다. 그녀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한층 풍족해 진 것은 부정할 생각이 없었으나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했다. 차라리 몰랐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갑갑하지 않을 것이다.

“왜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금발머리 공주님이라고 불리는 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벨로나가 어린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서 있던 리하이트의 곁으로 다가온 스콧이 말했다.

“의도한 것이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행동 하나하나가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그녀의 두 뺨은 추위 때문인지 붉게 상기 돼 있었다. 아이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와 말투로 속삭이면서도 추운 듯 움츠러드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리하이트는 눈을 가늘게 떴다.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그녀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리하이트에게 그녀의 존재는 불편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문득, 그녀의 고개가 그가 있는 방향으로 돌아왔다. 몇 초간 그를 가만히 응시하나 싶던 그녀의 고개가 다시 숙여지고 그녀는 눈앞의 아이들에게 미소 지었다. 리하이트는 벨로나의 치맛자락을 보았다. 그녀의 다리가 거의 다 나아간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벨로나는 회복이 더뎌 지길 바라며 괜히 이곳저곳 더 많이 돌아다니는 눈치였으나 그런들 며칠 내로 완벽히 회복될 것이다.

“그나저나 웬일로 폴이 얌전하네요.”

리하이트는 대꾸하지 않았으나 속으로 스콧의 말에 동의 했다. 또래 아이들과 함께 벨로나의 근처에 앉아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폴은 그 어느 때 보다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평소 자신의 몸이 날쌘 걸 믿고 시장으로 내려가 심심찮게 도둑질을 일삼곤 했던 폴이 얌전하게 앉아 있는 걸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리하이트 님의 꾸중 앞에서도 그렇게 듣지 않던 녀석이 옛날이야기 듣는 거에 저렇게 얌전해지다니.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스콧이 농담조로 덧붙인 말에 리하이트는 마음 놓고 웃을 수 없었다. 가급적 외면하려고 했지만 리하이트는 이 마을에서 벨로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게 불안했다. 지금도 저 공주 때문에 리하이트를 찾아와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자칫 원성으로 이어지면 리더라는 그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었다. 우두머리가 지지받지 못하는 집단은 언젠가는 붕괴한다. 리하이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문득 느껴진 인기척에 리하이트는 고개를 들었다. 언제 온 건지 벨로나가 그의 지척에 서 있었다.

“아까부터 보이던데, 뭐 할 말 있어?”

“아뇨, 없습니다.”

그 직설적인 질문에 리하이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 그럼.”

스콧과 리하이트를 번갈아 바라보는가 싶던 그녀는 곧 몸을 돌려 원래 앉아 있었던 자리로 걸어갔다. 치마 자락 아래에서 절고 있는 다리를 가만히 응시하던 리하이트의 잇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지난날엔 그녀의 앞에서 확고하게 굴었지만 그는 사실 다리가 다 나은 걸 숨기려드는 공주에게 당장 떠나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모진 성격이 못됐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개인적인 동정으로 지난 세월동안 쌓아온 그의 입지를 하루아침에 무너트릴 만큼 우유부단한 성격도 아니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눈감아 주자. 그게 리하이트가 참아 줄 수 있는 한계였다.

그러나 그가 망각한 것은 일주일은 많은 것이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점이었다. 그가 기약한 일주일은 지켜지지 못했다.

사건의 시발점은 폴이었다. 공주가 마을로 흘러들어와 아이들과 놀아주는 동안은 잠잠하나 싶었던 폴이 또 다시 도둑질을 하러 마을로 내려간 것이다.

여태까지 번번이 도둑질을 일삼았음에도 들킨 적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제 아버지에게 혼쭐이 나 훔친 물건을 도로 원위치로 돌려놓을 때 까지 물건을 도둑맞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폴은 철두철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한 횟수가 횟수이다 보니 두어 번 들킨 적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 때는 빵 한 조각, 싸구려 머리장식 같은 저렴한 것이라 큰 벌은 면할 수 있었다. 그랬기에 이번에 또 폴이 가게 주인에게 덜미를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그리 걱정하지 않았다. 제 아버지에게 된통 혼나고 나면 풀이 죽어 한 동안은 또 조용하겠지. 그럼 이 참에 단단히 일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리하이트 님,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 새끼 어떻게 합니까.”

흙바닥에 주저앉아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 범벅 된 얼굴로 중얼거리는 폴의 아버지 제크를 바라보던 리하이트의 얼굴이 잿빛이 됐다. 폴이 이번에 보석 가게를 건드렸단다. 그것도 싸구려 모조 보석을 파는 가게가 아닌 진짜 보석을 파는 가게를. 돈 많은 작자들이나 이용할 것 같은 가게를 어떻게 알고 찾아갔는지는 몰라도 보통 사고가 아니었다.

폴이 비싼 보석을 훔치려 한 것에 화가 난 상점 주인이 폴을 그대로 기사들에게 넘겼다고 했다. 옛날에 귀족 도련님께 시비를 걸었다는 누명을 쓰고 기사들에게 붙잡혀 갔던 빌터가 어떤 몰골이 되어 풀려났는지 모르지 않았기에 모골이 송연했다.

가게 주인이 폴의 아버지에게 요구한 돈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가진 모든 금과 돈을 다 털어도 그 금액은 얻지 못할 것이다. 아니 애초에 그럴 돈이 있었다면 그들이 배곯아 끙끙대는 일도 없었겠지.

“폴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놈이 저한테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 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다 잃고 남은 건 그 놈 밖에 없습니다. 리하이트 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리하이트는 푹 꺼진 그의 두 뺨과 총기 잃은 잿빛 눈동자를 응시하다가 느리게 고개를 숙였다. 왼쪽 다리와 한쪽 눈이 없는 제크는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를 향해 사정하고 있었다. 굳이 찾고, 찾고, 찾는다면 방법은 있다. 폴을 대신해서 매를 맞으면 된다. 하지만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사들이 무자비하게 내려치는 매질 속에서라면 미쳐버릴 것이다. 전쟁에 나가 잃은 한쪽 다리와 눈이 아니더라도 제크의 몸은 기근 속에 잔뜩 병들어 있었다.

“리하이트 님, 제발...”

“제크 아저씨!”

까무룩 눈을 뒤집고 기절해버린 제크를 주변에 있던 청년들이 붙잡았다. 제크의 양팔과 몸통을 붙잡아 그의 집으로 옮기는 청년들을 제한 나머지 청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리하이트를 돌아보았다.

“아니면 저희가 형벌을 나눠 받는 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제크 아저씨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건강한 사람들이 나눠 맞으면 버틸 만 할지도 모릅니다.”

“폴처럼 조그만 애 혼자라면 죽을 게 빤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청년들을 가만히 응시하던 리하이트는 결코 ‘건강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청년들의 몸을 느리게 훑어보았다. 누군가는 손가락이 없고 손이 없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 평생 지우질 못한 흉터가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얼굴 절반이 뭉개졌다. 그런 자들이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

“이틀의 유효기간이 주어졌다고 하니,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다. 이런 시기에 이렇게 사고를 친 폴이 원망스러웠다가도 그 어린 아이를 제대로 타이르지 못한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화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그의 거처를 벗어남과 동시에 리하이트는 이마를 짚었다. 오늘 공주를 밖으로 보내려 했는데 또 미뤄지고 만 것이다.

리하이트는 폴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람들 말처럼 그 애를 죽게 둘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몸 성치 않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라며 떠미는 것 역시 못할 짓이다. 그렇다면... 리하이트의 얼굴에 결연한 빛이 서렸다. 그는 그 날 오랫동안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뜬 리하이트는 채비를 마치고 폴의 집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유난히 차게 느껴지는 새벽 공기를 가로지르며 그는 걸음걸이를 재촉했다. 이상하게 심장이 울렁거렸다.

좀 더 빠르게 걸음을 서두르던 그는, 곧 그 불안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낯익은 금발을 늘어트린 여자가 폴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활짝 열린 문 안에서는 제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 잃은 부모의 애환에 찬 절규 보다는 환호성에 가까운.

“이게 대체 무슨...”

“공주님!”

맺어지지 못한 리하이트의 중얼거림이 허공으로 흩어지기도 전에 제크가 소리쳤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님. 감사합니다!”

리하이트는 단숨에 상황을 파악했다. 공주가 그도 모르게 무슨 짓을 벌인 것이다. 그의 존재를 알아채고 부드럽게 휘어지는 녹색 눈과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는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이곳의 리더는 그였다. 그녀가 무슨 짓을 벌여 폴을 구해낼 예정이었다면 그에게 언질이라도 했어야 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리하이트의 입에서 흘러나온 으르렁거림에 제크가 잔뜩 숨을 죽였다. 초연한 것은 벨로나뿐이었다.

“뭐하는 짓이긴, 내가 들고 있던 보석 중에 가장 비싼 걸 그 보석상에게 넘기겠다고 했어.”

“지금 수배 상태인 당신이?”

“큰일 날 소리를 하네, 마을 청년 하나한테 부탁하려 했지.”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제게 먼저 말을 했었어야지!”

“미안, 당사자의 가족한테 알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그랬어.”

벨로나가 느리게 눈을 깜박였다.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해. 지금 내가 우두머리인 당신에게 일언반구도 하지 않아 당신의 입지를 떨어트리고 있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냐. 당신한테도 말하러 가려고 했어.”

목소리를 높이는 자신과 달리 덤덤하기만 한 벨로나의 반응을 보고 있자니 점점 멍청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정말 마을 사람들 환심을 살 생각이었다면 온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폴을 돕겠다고 떠벌리고 다녔겠지.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맹세해. 원한다면 당신이 손쓴 거라고 말해도 좋아.”

리하이트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 입 닥치라는 말이 턱 끝까지 차올랐으나 간신히 참아냈다.

“됐습니다.”

그는 돌아섰다.

“리하이트.”

그리고 멈춰 섰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어느새 그의 바로 뒤 까지 와 있었다.

“나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 없어. 나는 정말 조용히 지내다가 떠날 거니까 곧 사라질 사람한테 감정 소모 하지 마.”

“당신이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한 일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단 한순간도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한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을 구할 지식이 있음에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건 못할 짓이니까.”

리하이트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어차피 떠날 거라면 처음부터 베풀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다 알아. 세상천지에 자기 사람들이 아프길 바라는 우두머리가 어디 있나?”

“희망을 줬다 뺏는 것보다 잔인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마을 사람들한테 보이는 친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데 그거 알아? 날 내쫓으려는 건 당신이잖아. 날 여기에 데려온 것도 당신이고, 내쫓으려는 것도 당신이야.”

리하이트는 말문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말엔 틀린 게 없었다. 그녀를 데려온 것도 그고 내쫓으려는 것도 그였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그 스스로가 마을 사람들한테 희망을 심어줬다가 뺏는 격이 아닌가.

“설마 당신 지금 내 말에 설득 당한거야?”

벨로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리하이트는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도 헛소리 한 거야. 나 하나 사라진다고 당신이 마을 사람들한테 미움 받을 일 없어. 처음 잠깐이야 허전하겠지만 곧 잊겠지. 아무래도 당신은 스스로의 위치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는 게 좋겠어. 강단 없는 리더 만큼 멍청한 작자는 없어.”

마지막으로 톡 쏘아 붙인 그녀가 그의 팔을 붙잡더니 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이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싼 보석이야. 당신이 직접 가서 주던지 다른 사람을 보내던지 마음대로 해.”

우거진 나무 사이로 빠르게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응시하며 리하이트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다. 설득 당했냐고? 부끄럽게도 설득 당했다. 그녀의 말엔 틀린 게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의 존재가 그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다.

벨로나의 공주라는 지위나 사람을 주변으로 끌어들이는 그녀 특유의 기운에 덩달아 취해 혼자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마을에서 그녀의 신분이나 기운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멍청이!”

그녀가 지내던 천막으로 들어오기 무섭게 벨로나는 빽 소리를 질렀다.

“천하의 멍청한 년, 바보 같은 벨로나!”

분노 속에 씩씩거리며 침대를 주먹으로 소리 나게 때리던 벨로나는 허공으로 크게 숨을 내뱉고 제자리에 멈춰 섰다.

“내가 미쳤지, 설득 당했냐는 질문은 왜 한 거야.”

궁 안이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혼잣말들을 내뱉으며 벨로나는 정신없이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리하이트가 그렇게 일찍 제크를 찾아올 것이라는 계산을 하지 못해 조금 곤란해지긴 했었으나 그 이후 나눈 대화에는 분명 수확이 있었다. 리하이트는 틀림없이 반쯤 설득 당했었다. 이대로라면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더 사지 않아도 이 마을에 머물 수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그녀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것이다. 그건 정말 순전히 실수였다. 당연히 설득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 리하이트가 설득당한 것에 놀라 속으로 생각한다는 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고 만 것이다. 게다가 그 뒤로 리하이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이나 하고 말았으니 이렇게 무식한 일이 있을 수 없었다.

“내가 너무 과대평가 했지. 얼마나 봤다고 점수를 후하게 쳐줘서.”

한참동안 방 안을 서성대던 벨로나는 문득 제자리에 멈춰 섰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리하이트가 말하는 걸 보아하니 곧 쫓아낼 것 같은 모양새던데 과연 그 전에 칼리스가 그녀를 찾아 낼 수 있을까?

벨로나는 리하이트의 손에 쥐어준 그녀의 목걸이를 떠올렸다. 그것은 벨로나의 생모인 플레시아 왕비가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다. 가운데 박힌 푸른 보석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섬세한 세공이 특징인 그 목걸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다.

다른 이라면 몰라도 칼리스 경이라면 그 목걸이를 알아 볼 것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그가 그 목걸이를 보았으면 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최소한 그녀가 이곳에서 쫓겨나기 전에 칼리스 경이 그걸 발견했으면 했다.

벨로나는 침대에 누워 몸을 둥글게 말았다. 시간이 조금만 느리게 갔으면 좋겠는데.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 폴은 아버지에게 잔뜩 혼이 나고 풀이 죽어 한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봤자 이틀에서 삼일 정도 밖에 가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다들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벨로나 공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원형 탁자의 바로 옆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장로가 입을 열었다.

“은혜를 입은 것도 사실이고, 공주님 자체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공주를 찾느라 혈안이 돼 있는 왕태자가, 설마 이곳에 공주가 있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게다가 공주님의 존재가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중에 의학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덧붙여진 말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리하이트 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리하이트 님이 이전에 말한 위협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리하이트 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무조건 따르겠다는 듯 굳건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리하이트는 결심을 굳혔다.

‘나 하나 사라진다고 당신이 마을 사람들한테 미움 받을 일 없어. 처음 잠깐이야 허전하겠지만 곧 잊겠지. 아무래도 당신은 스스로의 위치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는 게 좋겠어. 강단 없는 리더만큼 멍청한 작자는 없어.’

리하이트의 불안을 제대로 집었던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제 결정은...”

“...배 아파.”

벨로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자세를 찾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뒤척여보았으나 통증은 더 심해지기만 할뿐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뭔가 잘못 먹었나? 이제 미식거리기까지 한 속에 끙끙거리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운 벨로나가 문득,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시에, 찝찝하기 그지없는 질척한 액체가 다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 안 돼.”

왜 하필 지금이란 말인가. 스트레스 탓인지 월경이 멈춘 지 1년이 훨씬 넘었었는데 하필 요즘처럼 예민한 때 다시 터지다니, 자궁이란 놈은 눈치가 눈곱만큼도 없는 모양이었다.

고개를 돌려 진득한 피가 묻어있는 침대 시트를 응시한 벨로나는 뒷목을 잡았다. 이 천막 안에는 생리대로 쓸 만한 천이 마땅치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준 낡은 옷가지들을 찢어 쓰면 되긴 했지만 깨끗하지 않은 천을 곧바로 쓰자니 조금 찝찝했다.

그녀의 천막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녀 또래의 처녀가 살고 있었으니 혹 쓸 만한 게 있나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드레스 자락에도 피가 묻어 있어 누군가를 마주친다면 조금 난감하겠지만 옷이 짙은 색이라 티가 덜 나서 다행이었다.

천막을 빠져나와 좁고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가던 벨로나는 제자리에 멈춰 섰다. 걸음을 재촉하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그녀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20년 넘게 궁 안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아왔던 벨로나가 이렇게 노골적인 시선을 알아차리기란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 서 있는 것은...

“칼리스 경!”

반가움에 소리쳤던 벨로나는 그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황급히 입술을 깨물었다. 빽빽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던 칼리스는 그녀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공주 전하.”

그녀의 앞에 다가온 칼리스가 벨로나의 팔을 붙잡았다.

“왜 이렇게 마르셨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는 칼리스에 벨로나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그의 손에서 그녀의 팔을 빼냈다.

“성에서 빵 고기나 잔뜩 먹다가 풀만 먹으니 당연한 일이지. 그보다 나를 어떻게 찾아냈어?”

“보석상에서 공주님의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그 목걸이의 디자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으니 공주님께서 그걸 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법 똑똑해 졌네, 칼리스 경.”

그녀는 농담을 한다고 한 것이었지만 칼리스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풀릴 줄 몰랐다.

“이곳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고 계셨던 겁니까? 어젯밤부터 둘러봤는데, 이곳은 뭔가 이상합니다. 평범한 마을이라기엔 집들이 하나 같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구석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군사 훈련? 방금 군사 훈련이라 했어?”

벨로나는 아픔도 잊고 눈을 번쩍 떴다. 그런 그녀의 반응에 칼리스의 표정이 한층 더 굳어졌다.

“그것도 모르고 이곳에 계셨던 겁니까? 어젯밤, 공터 같은 곳에서 군사 훈련 중인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는 혹여나 공주님께서 저들을 설득해 군사로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는데, 반응을 보아하니 그건 아닌 모양입니다.”

칼리스의 반응이 어떠하든 벨로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가 초반에 품었던 의심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은 왕의 무리한 영토 확장 정책으로 장애를 앓게 된 자들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한을 가지고 칼을 갈고 있는 상대야 뻔하지 않은가. 그녀가 이 마을을 떠나서는 안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그녀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만으로는 병력이 충분하지 않으니 이들과 힘을 합친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벨로나는 하늘이 그녀를 돕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왕위 찬탈을 꿈꾸고 있는 그녀가 반란군의 소굴로 들어올 리 없었다.

리하이트만 그녀의 말에 귀기울여준다면,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런데 공주 전하.”

칼리스가 심상치 않은 시선으로 그녀를 보았다.

“어디 아프십니까? 얼굴에 식은땀이...”

그의 지적에 잊고 있던 배의 통증이 다시 알싸하게 밀려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또다시 피가 흐르는 느낌이 났다. 그 참을 수 없는 찝찝함에 인상을 찌푸린 벨로나는 칼리스의 어깨를 밀었다.

“일단 돌아가 칼리스 경.”

“예?”

“그런 다음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와. 마을 사람들은 분명 너를 경계할 거야, 그렇지만 반항하지 마. 벨로나 공주의 호위기사라고 네 신분을 밝히고, 무기를 버리고 이곳으로 다시 들어와서 만나자.”

“하지만...”

“내 호위 기사라고 하면 널 해치진 않을 거야. 나한테 생각이 있어서 그래. 아, 그리고 올 때 깨끗한 천들 좀 가지고 올래?”

칼리스의 얼굴에 떠오른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에 벨로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월경 중이야.”

“예?”

“네가 먼저 아프냐고 물었잖아. 월경통 때문에 아파. 지금 생리대로 쓸 천이 마땅찮아서 좀 들고 오라는 거고.”

벨로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칼리스의 귀가 조금 붉게 달아올랐다. 그런 칼리스의 반응에 옅게 한숨을 쉰 벨로나의 입가에 쓴 웃음이 걸렸다. 참 딱딱하고 고지식하다가도, 이럴 때는 제법 귀여운 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벨로나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이런 말들에 이젠 익숙해 질 법도 한데, 그는 항상 이런 반응이었다.

“칼리스 경, 아직도 날 좋아해?”

배려라곤 눈곱만큼도 담기지 않은 직설적인 그녀의 물음에 칼리스가 헉,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벨로나는 나지막한 한숨을 내쉬며 눈을 내리 깔았다가 도로 치켜떴다. 그녀의 호위무사로 일했던 초반과 비교해 최근엔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완전히 포기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벨로나는 양손을 뻗어 칼리스의 두 뺨을 붙잡았다. 그녀의 녹색눈동자와 마주한 칼리스의 잿빛 눈동자가 정처 없이 흔들렸다.

“전에도 말했잖아, 칼리스 시트리안.”

나지막한 읊조림이었다.

“우린 안 돼.”

칼리스의 얼굴에서 손을 뗀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은채로 그에게서 뒷걸음질 쳤다.

“그럼 나중에 봐, 칼리스 경.”

그녀는 몸을 돌렸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칼리스의 멍한 눈빛이 눈에 밟혀 다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사실 그를 받아주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칼리스는 후작의 아들이었으니 왕의 열한 번째 자식인 공주의 남편감으로 굉장히 좋은 상대였다. 게다가 귀족 중에 몇 안 되는 그녀와 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자였으니 더더욱.

하지만 칼리스는 이제 그녀에게 얼마 없는 소중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고작 감정 하나 때문에 그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가 그녀를 흠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 감정을 이용해 그를 그녀의 곁으로 끌어들였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그의 감정을 받아줬다가, 그에게 일말의 감정도 없는 벨로나가 그를 상처 입히게 되는 일은 미리 피하고 싶었다.

이번에 그에게 한 행동은 조금 잔인했을지 모르나, 벨로나는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칼리스가 그의 감정을 모두 지우길 바랐다.

“방금 뭐라고 했어?”

벨로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눈앞의 이 남자가 방금 전 한 말을 정말 제대로 들은 게 맞나? 그녀의 소망 때문에 그의 말을 왜곡한 건 아닐까?

“여기 계속 머물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된 리하이트의 말에 얼굴을 환하게 펴던 벨로나는 재빨리 표정을 갈무리 했다. 이미 한 번 멍청한 행동을 보이고 만 그의 앞에서 또 다시 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건 정말 묻고 싶었다. 대나무 마냥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을 것만 같던 남자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

“공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리하이트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제 위치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고. 그 말이 옳다 여겼습니다. 공주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과 그들이 절 생각하는 마음은 별개니까요.”

벨로나는 멍하니 눈을 깜박였다. 그에게 그 말을 한 게 정말 멍청한 행동이었다고 자책했는데 이제 보니 탁월한 선택이었던 모양이다. 벨로나는 말의 힘을 믿었지만 이번만큼 강하게 확신한 적은 없었다.

“단, 이것은 명심해주십시오. 공주님은 이제부터 이 마을을 벗어나셔서는 안 됩니다. 공주님을 의심해서라기 보단, 혹여나 공주님이 밖에 나갔다가 왕태자의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벌어질 일을 염려해 하는 말입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주님께서 이곳을 나가게 된다면 공주님은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물론이지.”

리하이트의 입장에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다. 벨로나가 그였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벨로나는 이어질 말을 기다렸으나 그는 주저 하는 눈치였다. 한참 동안 침묵 속에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 같던 리하이트가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공주님께서도 우리 마을의 일원이 되셨으니,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과도 공주님께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고요.”

아, 뭔가 느낌이 왔다. 이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얘기였다.

“초반에 공주님께는 이곳은 그저 전쟁 부상자들이 모여 만든 마을이라 말했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전쟁 부상자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한 것은 맞으나, 이곳은 마을보다는 반란군 기지에 가깝습니다.”

역시 그녀가 예상한 대로였다. 그녀의 표정을 살핀 리하이트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무기도 인력도 협소하지만 애초에 왕위 찬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 반란이 끝나면 다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리란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바라는 건 저희가 일으킨 불꽃이 더 큰 화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기하는 이유는, 현 왕실의 무자비한 징용과 세금 착취 때문입니다. 저희의 반란으로 인해 최소한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라도 멈추게 된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마을 사람들 같은 희생자들이 더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세금 착취와 같은 문제는 저희의 희생 이후 남은 사람들이 해결해 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리하이트의 말이 길게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벨로나는 숙연해졌다. 그녀가 왕위 찬탈을 꿈꾸는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지만 사실 야욕의 이유가 더 컸다. 창녀의 자식, 그것도 계집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비웃었던 모두의 코를 납작하게 눌려주기 위해서, 그것이 그녀를 움직이는 더 큰 힘이었다.

하지만 리하이트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었다. 그래, 벨로나에게는 남 일이나 다름없는 현 왕의 악행들이 이들에게는 현실이었다.

벨로나는 혀로 입술을 축였다. 그들이 꿈꾸는 반란이 끝나면 다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리란 걸 알고 있다고... 그녀는 그 말이 끔찍하다 생각했지만 동시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마을의 청년 인구는 끽해야 80명이 조금 넘어 보였다. 그 숫자로 왕궁에 갔다간 궁 입구를 제대로 밟아보기도 전에 모조리 제거 당할 것이다. 궁의 기사들이 제 아무리 기강이 약하다곤 하나, 그들은 제대로 훈련받은 군인들이었고 반란군들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이 그녀의 군대와 손을 맞잡는다면 이들의 희생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희생 없는 싸움은 불가능 했지만 그 확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그런데...”

골똘히 생각에 잠긴 벨로나의 얼굴을 의아하게 바라보던 리하이트가 고개를 갸웃했다.

“몸이 안 좋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은데.”

아까처럼 식은땀이 나는 정도는 아니라 괜찮아 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다. 벨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월경 중이야.”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그녀의 말에 리하이트는 인상을 찌푸렸다.

“월경통은 약을 먹어야 낫는다던데,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계시면 약초를 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그의 대꾸에 벨로나는 느리게 눈을 깜박였다. 이 반응은 제법 신선했다. 그녀가 이런 식으로 남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때면 모두들 그걸 왜 아무렇지 않게 얘기 하냐며 면박을 주곤 했다. 아니면 칼리스처럼 부끄러워한다던가.

“됐어. 하루 정도 앓고 나면 나아. 게다가 난 그리 심한 편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며 벨로나는 생리를 할 때면 번번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곤 했던 로제타를 떠올렸다. 그녀는 벨로나를 볼 때마다 먼저 시비를 걸어댔지만 그 기간만큼은 예외였다. 생리 기간의 로제타는 벨로나를 향해 입을 나불댈 정신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만큼은 벨로나도 그녀를 약 올리는 짓은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지. 평소에는 잘만 으르렁 대다가 서로의 고통을 공감한다는 이유로 잠깐 동안 휴전한다는 게.

“공주님, 대장님!”

멀리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다. 숨을 헐떡이며 두 사람의 앞에 멈춰선 폴이 그들의 옷자락을 잡아끌었다.

“장로님이 빨리 공터로 와 달래요.”

폴이 다급하게 말했다.

“공주님의 호위기사라는 사람이 왔어요.”

딱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리하이트가 그녀를 돌아보는 느낌에 벨로나는 얼굴 가득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보였다. 리하이트가 칼로스에 대한 의심을 풀면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지 짐작 가는 이가 있습니까?”

“물론이지. 내 호위 기사는 하나 밖에 없어.”

“믿을 만한 자입니까?”

“내 목숨을 내놓아도 좋을 만큼.”

그녀의 대꾸에 리하이트의 눈썹이 포물선을 그렸다가 내려왔다.

“앞장서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벨로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헐떡거리며 그들의 뒤를 쫓아오던 폴의 걸음이 조금 느려진 느낌이 나 벨로나는 폴의 속도에 걸음을 맞춰 걷기 시작했다. 그런 벨로나를 올려다본 폴이 짧은 웃음소리를 냈다.

아까보다 한층 신이 나 보이는 폴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은 벨로나는 리하이트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폴, 보석을 훔친 이유를 아버지께도 말하지 않았다며? 혹시 내게만 살짝 말해줄 수 있니?”

딱히 대답을 기대한 물음은 아니었다. 이 어린 아이가 침묵을 어색하게 여길까, 노파심에 던진 물음이었다.

하지만 예상 밖에 폴은 그녀가 질문해 주어 기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공주님한테만 말해줄게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미소와 함께 폴이 조용히 속삭였다. 귀를 가져다 대 달라는 손짓에 얼떨떨하게 몸을 숙여 폴의 입가로 귀를 가져다 댄 벨로나는 폴이 알려준 이유를 듣고 딱딱하게 굳어졌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돼요! 공주님을 위한 거였으니까 공주님한테만 말해주는 거예요.”

폴은 여전히 순진한 표정으로 그녀를 입단속 했다. 고맙게도, 그것은 벨로나가 폴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다.

‘공주님한테 예쁜 머리장식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훔쳤던 거예요.’

만약 이걸 리하이트가 알게 된다면 그는 또 다시 마음을 바꿀 지도 몰랐다. 애초에 그의 마음을 돌려놓는 계기에 폴을 구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하지만 사실 그녀가 한 것은 폴을 구한 게 아니라 그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한 것에 불가한 것이란 걸 알게 된다면... 그가 변덕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기회가 될 지도 몰랐다.

도둑질을 한 당사자인 폴을 탓하기엔 이 아이는 너무 어렸다. 뭐가 옳고 그른지 알 나이임을 부정할 생각은 없으나 아이들의 사고는 단순한 법이었다. 폴은 나쁜 짓을 해서 얻게 되는 것들보다 벨로나가 머리장식을 받았을 때 지었을 미소를 더 높은 가치로 친 것이다.

“그래, 폴. 이건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로 하자.”

벨로나는 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읊조렸다.

“그리고 다시는 도둑질 같은 걸 하면 안 돼. 나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라면 너무 슬프거든.”

그녀의 잔잔한 대꾸에 폴은 황급히 양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끄덕였다. 부드러운 눈길로 폴을 내려다보던 벨로나는 한참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리하이트의 등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제 곧 공터였다.

“이 자가 공주님을 만나 뵙길 청했습니다. 정말 공주님의 호위 기사가 맞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무릎 꿇려 내 놓여 진 칼리스를 가만히 응시하던 벨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인 그가 지은 죄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지는 알았으나 더 큰 그림을 생각하면 칼리스가 인내해야 할 문제였다.

“맞아, 내 호위기사야.”

“그렇다면 풀어줘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녀의 단호한 대꾸에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웅성거렸다. 그리고 그것은 칼리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주 잠깐 고개를 들어 그녀에게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내는 칼리스를 잠자코 응시하고 있던 벨로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칼리스 시트리안 경, 당신이 왕태자의 명으로 이곳에 온 게 아니란 걸 어떻게 내게 증명할 수 있지?”

침묵이 내려앉았다. 벨로나는 고개 숙인 칼리스를 잠자코 내려다보았다. 이건 응당 해야 할 통과 의례였다. 이런 식의 증명이 없다면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리하이트 역시 그녀와 칼리스를 믿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사실, 벨로나가 그를 믿는 것과는 별개로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벨로나의 탈출 이후, 칼리스는 체포 0순위였다.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혔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그녀의 앞에 나타날 수 있었단 말인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제가 왕태자의 편에 섰다면 공주 전하의 군대가 어떻게 아직까지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말이 맞다. 최악의 상황인, 그녀의 군대가 그녀에게서 등을 돌린 경우의 수만 제외하자면 그녀의 군대가 무사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칼리스가 왕태자의 편에 붙었다면 군대가 가장 먼저 죽어났을 테고, 왕실 기사들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었던 셈이니 이곳까지 소문이 나지 않았을 리 없다.

이 마을 사람들이 바깥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 해서 그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왕태자에게 공주님의 행방을 고할 지도 모르는 혀를 뽑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칼리스의 두 눈은 결연했다. 벨로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확실히 그는 여전히 그녀의 편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무사히 풀려난 것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말인데...

“풀어줘도 될 것 같네.”

벨로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리하이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칼리스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목이며 발목을 동여매고 있던 밧줄을 풀어낸 사람들이 다시 칼리스의 곁에서 멀어졌다. 아무래도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추궁하는 건 나중에 해야 할 것 같았다.

칼리스가 밧줄 자국이 남은 팔목과 손목을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 벨로나는 리하이트를 돌아보았다. 일단 지금은 리하이트의 반란군과 그녀의 군대가 손을 잡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먼저였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잠깐 자리 좀 마련 할 수 있을까.”

“...해서, 나는 내 군대와 당신의 반란군이 손을 잡았으면 해.”

결론으로 끝맺은 벨로나의 말에 칼리스의 얼굴에 경악이 스쳐지나갔다. 필히 그녀가 너무 많은 것을 리하이트에게 알렸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녀의 말이 끝난 지 한참이 됐음에도 아무런 대꾸를 않는 리하이트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벨로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도 당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살아남길 원할 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손을 잡으면 모두가 조금씩 더 살아남을 수 있어.”

“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리하이트가 느리게 입을 열었다. 말과 달리 그의 눈빛은 그녀의 요구를 수용하길 갈망하고 있었다.

“제가 이곳의 리더인 것은 사실이나, 저는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야 합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저 혼자 결정 할 수 없습니다.”

벨로나는 주먹을 말아 쥐었다. 여기서 또 그녀와 그의 차이점이 하나 드러나고 마는 것이다. 벨로나가 홀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그게 옳다 여겨지면 무조건 시행하는 유형이라면 리하이트는 주변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스타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벨로나가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건 아니었으나 그녀는 저 정도로 타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리하이트가 조용히 말했다.

“공주님이 이곳에 남아도 좋다는 결정을 하고 반란군의 존재에 대해 알려준 날, 하필 공주님의 호위기사가 찾아오고 공주님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마치 조작된 체스판 위에 놓인 기분입니다.”

그의 말에 벨로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이 한 번에 벌어진 것이 우연이라고 설명해 봤자 그는 믿지 않을 게 뻔했다.

“나는 하늘이 날 돕고 있는 거라 생각해.”

벨로나는 홀로만 품고 있던 생각을 입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 말대로 일이 이렇게 잘 풀릴 리가 없으니까.”

그녀의 침착한 대꾸에 리하이트의 푸른 눈동자가 미동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찔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그 시선을 받고 있으려니 어쩐지 부담스러워 벨로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아무튼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나는 그걸 존중해. 마을 사람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아직까진 여유가 있으니까.”

덧붙인 그녀의 말에 리하이트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할 얘기가 없어 천막을 빠져나온 벨로나를 칼리스가 뒤쫓았다. 벨로나는 칼리스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느리게 걸음을 옮기던 벨로나는 다시금 시작된 배의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다가 그를 돌아보았다.

“천은? 가져 왔어?”

“네.”

칼리스가 품에서 조그마한 꾸러미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내용물을 확인한 벨로나는 꾸러미를 손에 쥔 채 계속해서 걸어갔다.

낮에 그녀 또래 처녀에게 얻어 쓴 천은 깨끗하지 않았다. 오래 된 이불을 잘라서 빨아놓은 것이라 했다. 그래도 먼지 앉은 옷가지들 보다는 낫겠지 싶어 얻어 와 사용했는데 확실히 찝찝했다.

궁에서 배우길 여성의 생식기는 항상 깨끗해야 한다고 배웠다. 여성의 생식기가 소중하고 은밀한 부위라 주장하는 우습지도 않은 수많은 이들의 철학을 떠나서, 그곳이 오염되면 각종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 부위에 깨끗하지 않은 천을 쓴 이 곳 여인들의 몸이 어떤 위험이 노출 돼 있을지 몰랐다.

벨로나는 꾸러미를 꼭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이라도 척박한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칼리스 경, 이제 말해 봐.”

벨로나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천막에 들어오기 무섭게 칼리스의 어깨를 붙잡았다.

“누가 너를 풀어줬지? 누가 널 도왔어?”

칼리스의 눈동자에 망설임의 빛이 퍼졌다. 벨로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설마 정말로 펠로스가 널 풀어주진 않았을 거 아냐. 하지만 펠로스의 관계자가 아니라면 너를 제대로 풀어줄 수 없었을 텐데, 대체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야?”

“미켈 브릴리언트입니다.”

“뭐?”

벨로나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 누구라고?

“미켈 브릴리언트, 그 자가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었다. 벨로나의 반역 도모를 폭로해 이 지경으로 몰고 간 당사자 미켈 브릴리언트가 칼리스를 풀어주었다고?

“대체 왜?”

벨로나는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제자리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칼리스 경, 그 자가 널 풀어주며 뭘 요구했지?”

칼리스는 아까보다 한층 더 망설이고 있었다. 벨로나는 초조함에 미칠 지경이었다. 칼리스가 속 시원하게 말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는 걱정이 너무 많았다.

“너 혼자 머리 굴려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란 걸 알잖아.”

벨로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말해줘. 그 자가 뭘 요구했어?”

“저는 정말 궤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가 공주님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허, 칼리스의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헛웃음이 나왔다. 누가 누굴 돕는다고? 미켈 브릴리언트가 벨로나 하이텔을?

“내 제안을 먼저 거절하고 날 이 지경으로 만든 게 그 인간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날 돕겠다고? 감히 누가 누굴 도와. 미친 새끼!”

줄곧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런 개...! 윽.”

“공주 전하!”

다시 한 번 욕설을 쏟아내려던 벨로나는 또 다시 찾아온 배의 통증에 몸을 웅크리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눈을 질근 감았다가 뜬 벨로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바로 근처에 있던 침대에 몸을 뉘였다.

그녀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미켈 브릴리언트가 그녀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건 사실이다. 그녀의 도박을 실패로 만들며 그녀를 한껏 비웃어준 그 작자가 이제 와서 그녀를 돕겠다고 말하는 건 그다지 신빙성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군대가 존재함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을 척결하지 않았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비교적 명료했다. 그를 완전히 신뢰해선 안 되겠지만 아직 믿어볼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 자에게 날 만난 걸 얘기했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돌아가서 그 자에게 나를 찾아냈다고 전해. 도대체 무슨 속셈을 하고 있는 지 한 번 들어보기나 하지.”

벨로나는 편안한 자세를 찾아 몸을 뒤척였다.

“그리고 명심해.”

몸을 웅크려 만 채 몸을 고정시킨 그녀는 조용히 덧붙였다.

“절대로 뒤를 밟혀선 안 돼. 내가 어디 있는 지 알리지도 말고, 오직 찾았다고만 전해. 알았나?”

“네, 공주 전하.”

리하이트는 벨로나와 대화를 나눈 바로 그 날 밤, 회의를 소집했다. 벨로나와 얘기를 나눈 그들과 그녀의 군대가 협동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그의 설명이 길게 이어지면 이어 질수록 마을 청년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공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당연히 알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칼이 말했다.

“승리 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무조건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죽기 싫습니다.”

“루이, 손을 들어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입을 열지 않는 게 회의의 규칙일 텐데.”

리하이트의 지적에 죽기 싫다고 말한 청년이 황급히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으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이는 리처드였다. 그는 한쪽 귀가 없었다.

“사실 저도 루이의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리처드의 말에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으로 손을 든 건 스콧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살 확률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내가 될 거란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스콧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리하이트가 조용히 덧붙였다.

“애초에 살아남을 각오로 시작한 전투가 아니니 살아남으려는 의지를 버려야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오히려 협동하지 않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딱딱한 얼굴로 말을 이어간 리하이트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하지만 저 역시 우리 중 일부라도 살아남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는데, 이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정적이 내려앉았다. 좁은 공터에 빽빽하게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한 리하이트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공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년의 유예를 두었던 우리 계획이 어떻게 변동 될 지는 차후에 다시 알리도록 하죠. 별 다른 회의 사항이 더 없다면 이번 회의는 여기서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사안이 나오지 않자, 회의는 파했다.

올 때 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응시하던 리하이트의 눈이 어둡게 내려앉았다.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걸까.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상하다. 초조하게 엄지손톱을 물어뜯던 벨로나는 손가락 끝으로 찾아온 고통에 인상을 찌푸리며 손톱을 확인했다. 손톱 아래 벌겋게 드러난 살에서 핏방울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월경이 끝나서 당분간은 피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고야 마는구나. 벨로나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내려놓았다.

칼리스가 이곳을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다. 돌아왔다면 이미 한참 전에 돌아왔어야 할 그의 행방이 묘연함에 자꾸만 불안이 밀려들었다.

성 안의 상황을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하니 갑갑하기만 했다. 설마 미켈 브릴리언트가 그녀의 행방을 캐내느라 칼리스를 고문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다.

리하이트가 그녀의 군대와 협동하기로 했다는 걸 칼리스에게 알려야 하는데...

“아직 입니까?”

불현 듯 들려온 목소리에 벨로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리하이트가 알만하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응, 아직.”

벨로나는 초조해하고 있었다는 걸 숨기기 위해 애써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녀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도 불안해 질 것이다.

“아마 그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 잠깐 밖에 나갔는데, 며칠 전 왕비 중 하나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이 한창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뭐?”

벨로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왕비가 죽었다고?

“어떤 왕비를 말하는 거지?”

설마, 아닐 것이다. 그녀의 어미 일 리 없다. 원래도 몸이 허약했고 이번 임신 탓에 잔병치레를 하는 때가 잦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아닐 것이다.

“저도 그것까진 알지 못합니다.”

무심코 대꾸한 리하이트는 벨로나의 몸이 불안으로 사정없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 그래. 그녀가 공주였으니 그녀의 어머니 역시 왕비였다. 혹 죽은 왕비가 제 어머니일까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 리하이트는 잠깐 머뭇거리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생각지도 못한 듯 당황스러움이 잔뜩 담긴 그녀의 눈동자가 리하이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그 시선을 모른 척 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그게 다였다.

“아닐 겁니다.”

걱정을 덜어줄 의도라기엔 지나치게 담백한 발언이었지만 불안으로 가득했던 벨로나의 얼굴이 서서히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응, 아니겠지. 그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데, 쉽게 죽을 리가 없지.”

알지 못할 발언이었지만 그는 벨로나와 왕비의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막연히 짐작했다.

손이 닿은 어깨의 떨림이 멎었다. 머뭇거리다 가만히 손을 떼 낸 리하이트는 돌아섰다. 그녀에게서 의외의 모습을 보는 건 이번이 두 번째였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연찮게 그녀의 심연을 들여다 본 기분에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다.

칼리스가 돌아온 건, 마지막 만남 이후 2주가 더 지나서였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냔 물음에 칼리스는 침묵을 지켰다. 벨로나는 그게 무얼 의미하는지 알았으나 믿고 싶지 않았다.

“죽었다는 왕비가.”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내 어머니야?”

그녀의 기사는 여전히 침묵한다. 그것은 긍정이었다.

죽었다던 왕비가, 벨로나의 어머니인 플레시아였던 것이다. 정말로, 그녀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건강의 문제로 죽음에 가장 가까운 게 그녀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고 했는데...

“혹시 내가 반역자로 몰려서 그 여자에게 피해가 간 건 아니지? 나 때문은 아니지? 응?”

“절대 아닙니다.”

무너질 듯 위태롭게 소리치는 그녀를 향해 칼리스가 황급히 고개를 내저었다.

“공주 전하랑은 아무 관계없는 마지막이셨습니다.”

물론 벨로나의 수배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플레시아는 벨로나가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은 모녀였으나, 그리 살갑지 못한 관계였다. 식사 자리나 중요한 모임이 아니라면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던 것이다. 펠로스는 물론이거니와 궁 안의 사람들 모두가 그걸 알고 있었다. 게다가 플레시아 왕비는 벨로나의 도주 당시 왕의 아이를 잉태 중이었다.

그 누구도 왕의 씨를 배고 있는 왕비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왕비에게 내려진 벌은 자신의 궁에 유폐되는 것 이었다. 말이 유폐였지, 생활에 필요한 것이 모두 있었기에 지냄에 불편함은 없었을 것이다. 애초에 플레시아는 활동 반경이 넓지 않았다.

하지만 칼리스는 그런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다. 벨로나가 알게 된다면 아닌 척 해도 스스로 자책할 것이다. 벨로나는 제 모친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그렇다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플레시아 왕비를 향한 벨로나의 감정이 애증이었음을 그는 모르지 않았다.

“그럼 왜 죽은 거야? 응? 왜 돌아 가신거야?”

어머니는 내 동생을 임신하고 있었는데.

“설마 조산하셨나?”

두려움 어린 벨로나의 물음에 칼리스는 잠자코 고개를 숙였다.

“네, 최후의 힘을 다해 아기씨를 낳으셨지만 결국엔...”

벨로나의 녹색눈동자에 허무함이 가득 들어찼다.

“그리고 이거.”

칼리스가 그녀의 눈앞에 무엇인가를 내밀었다. 그녀의 손바닥에 내려놓아진 것은 폴을 구하기 위해 보석상에 팔았던 그녀의 목걸이였다. 플레시아 왕비가 그녀에게 준 유일한 선물인.

“저번에 가져다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냐, 챙겨준 것만 해도 고마워.”

칼리스의 옷자락을 붙잡고 멍한 시선을 아래로 옮기던 벨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어 칼리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런데 조산이면 내 동생은, 동생은 무사해?”

“장담 할 순 없으나, 조산으로 낳은 것 치곤 건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왕자야?”

“...예.”

사형선고와 같은 한마디였다. 벨로나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곧 배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웃어대기 시작했다. 하하하, 천막엔 그녀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으셨네.”

벨로나는 눈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계속해서 웃었다.

“그런데 품에 한 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덕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다니.”

한쪽으로 짙게 올라갔던 입 꼬리가 느리게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다.

“내가 제 때 가지 못하면 그 앤 죽겠구나. 조산으로 태어난 왕자 하나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펠로스 황태자가 제 아무리 잔혹하다고는 하나 죄 없는 어린아이를 죽일 만큼...”

“대가리가 비었지.”

벨로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펠로스는 내가 잘 알아. 멍청하긴 해도 욕심 많은 그 자식이라면 자기가 받을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갓난아이도 죽일 놈이야. 뭐, 이러나저러나 해도 지금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 생각할 테니 안심하고 있겠지만...”

벨로나는 펠로스의 보기 싫은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를 분노로 바꿔놓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또 다시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걸 알면 내 동생은 죽겠지. 그러니 그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미켈 브릴리언트의 서신을 가져 왔습니다.”

재빨리 덧붙인 칼리스가 그녀의 앞에 편지를 내밀었다.

“뭐라고 하던?”

“저한테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칼리스는 약간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그럴 만도 했다. 그녀의 기사이자 최측근인 그를 마치 전서구 마냥 대하고 있었으니. 그러나 지금 벨로나는 그런 그의 기분을 달래줄 상황이 아니었다.

미켈이 보낸 편지를 뜯어 본 벨로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안녕하십니까, 공주 전하.”

꽤 정중한 시작이었다.

“지난번의 무례에 대해 거듭 사과를 청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주 전하가 제가 따를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공주 전하를 펠로스 황태자에게 고발하는 행위를 통해 공주 전하의 주변에 믿을 만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니 저는 이제 공주 전하를 도우려 합니다. 이 내전이 끝나고, 공주 전하께서 제게 주실 것은 지난 번 공주 전하께서 약조하신 것들 그대로 일 것입니다.”

약조한 것이라,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력과 그녀의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욕심 많은 자식.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벨로나를 이를 갈았다.

“펠로스는 제가 당신의 호위 기사를 풀어준 게 그를 미끼삼아 당신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태어난 동생 소식을 들으셨을 테니, 공주 전하께서도 한시 바삐 일을 마무리 짓고 싶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까진 협소한 세력을 조금 더 키우는 것입니다. 제게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군대의 규모와 내부 사정 등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이미 조사를 통해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나, 확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은 벨로나는 이를 바득 갈았다.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던 그 인원들을 전부 알아냈다고? 그는 지금 자신의 그녀보다 한 수 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미켈 브릴리언트.”

마지막까지 읽어 내린 편지는 그녀의 손 안에서 엉망으로 구겨졌다.

그가 그녀를 위험에 몰아 시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 대한 분노가 배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벨로나는 그가 뛰어난 책략가임을 인정했다. 펠로스가 그를 옆에 둔 이유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 역시 펠로스보다 벨로나를 택하는 게 더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한 모양이지만.

답장을 쓸 만한 천을 찾아 자리에 앉은 벨로나는 펜을 집어든 채 잠깐 동안 머뭇거렸다. 이시르를 선두로 한 반란군들이 그녀를 돕겠다는 이야기를 쓰는 게 좋을까? ...아니, 아직은 아니다. 그걸 알리는 건 조금 더 신중히 결정할 문제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녀의 군대 사정을 모두 정리해 문서로 남긴 벨로나는 칼리스의 손에 천을 쥐어주었다.

“부탁할게 칼리스.”

그는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 벨로나는 그의 등을 떠밀었다.

“궁금하면 가는 길에 봐도 좋아. 펠로스 일당에게 들키지만 마.”

그게 그녀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그래도 아까보다 한결 나아보이는 칼리스의 표정에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낸 벨로나는 침묵이 내려앉은 천막 안쪽을 한참동안 노려보았다.

그러다 문득 손에서 느껴진 금속의 감각에 고개를 내린 벨로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목걸이를 발견했다. 아까부터 계속 쥐고 있었는데 이제야 겨우 그곳으로 정신을 돌릴 여유가 났다.

푸른색의 보석이 박혀 있는 원형 금장식을 눈앞에서 가볍게 흔든 그녀는 그것을 도로 제 목에 둘렀다. 다시 주인을 찾은 목걸이는 언제 떠나있었냐는 듯 그녀와 위화감 없이 어우러졌다.

숨을 한 번 크게 내쉰 벨로나는 천막을 걷어 밖으로 나갔다.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얘기 나눌 상대가 필요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안녕, 대장님.”

꺄르륵 어린아이 같은 웃음과 함께 그의 앞에서 술병을 흔들어 보이는 벨로나의 얼굴을 응시하며 리하이트는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했는데 그녀를 부축해 온 사람들의 몰골을 보아하니 그건 아닌 모양이다.

“저희가 일을 마치고 마시고 있던 술인데 이렇게 많이 드실 줄은 몰랐습니다.”

벨로나의 몸을 단단히 지탱하고 서 있던 제크가 힘에 겨운 표정으로 말했다.

“거처로 보내드리려 했는데 자꾸만 리하이트 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후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다들 들어가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벨로나의 몸을 넘겨받은 리하이트는 무게를 죄다 실어 쓰러져 오는 벨로나의 몸뚱이에 잠깐 몸을 휘청했다.

“뭐야, 당신. 생각보다 약골이네.”

깔깔 거리며 다시 웃음을 터트린 벨로나가 제 발로 몸을 지탱하고 섰다가 도로 휘청거리며 주저앉았다. 리하이트는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그녀를 붙잡아 올려 그의 침대 위로 대충 던져 놓았다. 다정과는 거리가 먼 그 행위에 벨로나가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무거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

“보아하니 술이 약한 모양인데, 왜 그렇게 많이 드신 겁니까?”

“음, 기분이 좋아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

그래도 꼬박꼬박 대답을 하는 걸 보니 아직 정신은 남아있는 모양이다.

“당신 술 잘 마셔?”

벨로나가 제 손에 들린 술병을 그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나랑 한 잔, 아니 한 병 마실래?”

“저야 그렇다 치고 공주님은 더 마셨다간 내일 고생합니다.”

“지금 마신 정도로도 고생은 해. 그럴 거면 더 마시고 고생할래.”

이건 무슨 논리인지 알 수 없었다. 리하이트는 더 마시려는 듯 병째 입안에 들이붓기 직전인 벨로나의 손에서 재빨리 술병을 빼냈다.

“아, 뭐야. 줘.”

칭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허, 하고 헛웃음을 터트린 리하이트가 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달라니까 뭐 하는 거야.”

아깐 거동도 제대로 못하더니 어디서 갑자기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벨로나는 흔들림 없이 일어나 식탁 앞으로 향했다. 워낙 급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리하이트가 제지할 틈도 없이 술병을 집어든 벨로나가 병을 도로 입으로 가져다 댔다.

“잠깐만...!”

다행이게도 리하이트가 한 발 빨랐다. 비록 병을 잡는 걸 저지하진 못했지만 그녀가 입 속에 술을 쏟아 붓는 걸 저지하는 건 성공한 리하이트가 다시 벨로나에게서 병을 빼앗아 들었다.

“이 괘씸한 자식, 감히 왕족의 술병을 빼앗아?”

리하이트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짜증을 내던 벨로나의 행동이 문득 멎었다. 그녀는 제 행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키득거리며 허리를 굽혔다가 도로 펴 리하이트를 응시했다.

“나 방금 펠로스 같았다, 그치?”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뭐긴, 안마실거면 내놓으라는 거지.”

벨로나가 짜증을 내며 손을 뻗었다. 벨로나의 손에 닿지 않게 팔을 위로 쭉 뻗어 술병을 치운 리하이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다간 정말 끝도 없을 모양이다.

그는 까치발을 하고 병 입구를 제 입에 가져다 댔다. 그리고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병 안에 남아있던 술을 죄다 마셔버렸다. 삼분의 이 정도 남아있던 술을 한꺼번에 마시자 순식간에 몸이 뜨거워졌다.

리하이트는 벨로나의 눈앞에 술병을 뒤집어보였다.

“이제 마실 것도 없습니다. 거처로 모셔다 드릴 테니 이제 그만 가십시오.”

“싫어, 나는 당신이랑 얘기 하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야. 술도 다 마셨겠다. 이제부턴 얘기를 해야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리하이트가 불만을 토로하기도 전에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은 벨로나가 양손을 깍지 끼고 제 턱밑에 가져다 댔다.

“앉아.”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는 군인 같은 자세였다. 리하이트는 팔짱을 낀 채 꼼짝도 않고 서 있다가, 졌다는 표정으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물론 팔짱은 풀지 않은 채였다.

“귀찮지? 미안.”

먼저 입을 연 것은 벨로나였다. 주정을 부릴 거라는 예상과 달리 그녀의 첫마디는 비교적 덤덤하게 시작됐다. 리하이트는 알고 있으면 돌아가라고 대꾸하려다가 곧 생각을 바꿨다. 어차피 그가 무슨 말을 하던 그녀 마음대로 할 게 뻔했다.

“내가 여기서 그나마 마음 열고 얘기하는 게 당신 밖에 없어서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었어.”

리하이트의 한쪽 눈썹이 허공으로 올라갔다가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가 그의 앞에서 마음을 열고 대한다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는데 그녀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음, 죽은 왕비 말이야. 내 어머니가 맞았어.”

이어진 벨로나의 말에 리하이트의 상체가 움찔했다. 그는 벨로나의 얼굴을 보았다. 술에 취해 잔뜩 붉어진 얼굴을 하고 있는 그녀는 슬퍼보이지도, 그렇다고 슬프지 않은 것 같지도 않았다.

“나랑 내 어머니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 어머니는 사창가 출신이었고 나는 그런 어머니의 출신을 부끄러워했거든. 로제타나 다른 형제자매들이 그걸로 비웃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상처였어.”

벨로나는 가만히 눈을 내리 깔았다.

“게다가 어머니는 계집으로 태어난 걸 비탄하는 날 항상 비웃었고... 그래서 사이가 좋지 못했지. 그래도 난 그녀를 사랑했어. 그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어머니였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듯,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절대적이지 않은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맹목적이었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가끔 내게 상냥하게 대해준 기억들이 많이 미화돼서 그랬나봐.”

깍지를 풀고 팔을 테이블에 겹쳐 올려 그 위로 턱을 괜 벨로나가 느리게 눈을 깜박였다.

“자기가 낳아놓고 계집이라 쓸모없다, 쓸모없다, 하더니. 쓸모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전에 죽어버렸네.”

참 덧없어, 안 그래?

나지막이 울려 퍼지는 그녀의 키득거림을 들으며 리하이트는 아무렇게나 헝클어진 그녀의 금발을 응시했다. 머리카락에 가려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 울고 있진 않았지만 왜인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리하이트는 식탁의 나무 무늬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제 어머니도 공주님의 어머니랑 비슷하신 분이었습니다.”

딱히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었기에 다른 이들에게 제대로 먼저 꺼낸 적 없던 이야기였다.

“제가 일곱 살 일 적 목매달아 죽었는데, 이곳 마을 사람들이 다들 좋은 이들이라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게 아니었다면 진작 죽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 둘 다 홀로 컸다는 점에서 똑같네.”

벨로나가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왕실에 복수하기 위해 모인 거라더니?”

“그 전부터 마을은 있었습니다. 군대에 끌려가 죽은 사람들을 대신 해, 살아남은 다른 자들이 새로 유입된 것뿐이죠.”

“그래? 그런데 당신은 용케도 안 끌려갔구나? 다른 이들과 달리 멀쩡해 보이던데.”

벨로나의 의문어린 물음에 리하이트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징용 됐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없는데 어떻게 전역 한 거야?”

“신체 일부를 잃는 것만이 부상이 아니니까요.”

아, 맞다. 그렇지 참. 벨로나가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응시하는 벨로나의 두 뺨은 아까보단 덜 붉어져 있었다.

“그럼 어디를 다쳤는데?”

“화살이 배를 뚫었었습니다.”

“저런. 치료는 당연히 제대로 못 받았을 테고. 목숨을 잃지 않은 걸 보면 운이 좋았네.”

“예, 운이 좋았죠.”

벨로나의 시선이 리하이트의 배로 내려갔다. 그 노골적인 시선에 리하이트는 부담스러움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헛기침을 했다.

“이제 술이 좀 깨신 것 같으니 거처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일어...”

“벗어봐.”

자리에서 일어나던 리하이트가 딱딱하게 굳어졌다.

“예?”

“벗어보라고, 그거.”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리하이트는 팔을 교차해 제 상체를 막았다.

“제정신입니까?”

“당연하지, 나처럼 제정신인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퉁명스레 대꾸한 벨로나가 휘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벗어.”

벨로나가 리하이트의 상의에 손을 올렸다.

“설마 내가 벗겨줘야 하는 거야?”

“아니, 애초에 공주님의 앞에서 벗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허.”

눈을 부릅뜨고 상의를 벗기려 시도하는 그녀의 행동에 리하이트는 속으로 비명을 삼켰다. 다시는 이 여자에게 술병을 쥐어주지 않을 것이다. 절대, 절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리하이트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나쁜 생각 하는 거 아냐.”

그녀를 변태 취급하는 리하이트의 시선을 읽은 벨로나가 억울해하며 말했다.

“상처를 보려는 거지. 치료 제대로 못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해줄 게 있으면 해주려고 하는 거야.”

벨로나의 대꾸에도 리하이트의 불신은 풀릴 줄 몰랐다. 경계 어린 눈으로 벨로나를 살피며 리하이트는 상의를 벗었다. 제대로 먹지 못해 말랐음에도 근육이 다부지게 붙은 맨몸이 모습을 드러냈다. 짐작한 대로 그의 몸은 자잘한 상처들로 엉망이었다.

그녀의 눈길을 잡아끈 것은 복부 중앙의 꿰맨 자국이었다. 세로로 길게 난 자상은 주변 피부와 달리 붉은 색을 띄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게 분명함에도 살기 위해 투쟁한 흔적이 선명하기만 했다.

“애초에 다 아문 상처를 봐서 뭐 하겠습니까.”

벨로나의 시선을 따라 제 상처를 응시한 리하이트가 말했다.

“다 보셨으면 도로 입습니다.”

“잠깐만.”

벨로나가 도로 착의하는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의 흉터에 고정된 채였다.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더니, 그런 것 치곤 상태가 괜찮은데? 꽤 솜씨 좋은 의사가 치료했나봐.”

“저도 모릅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 상태였습니다.”

“그래...”

멍하니 대꾸하던 벨로나의 손길이 느리게 리하이트이 상처로 향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그의 상체에 닿는 순간, 리하이트는 몸을 움찔 했다.

“뭐 하는...!”

“많이 아팠겠네.”

그녀의 얼굴에 씁쓸함이 가득 들어찼다.

“내가 왕족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당신 같은 이들의 희생이 있어서였겠지.”

“...그걸 이제야 아셨습니까.”

“아니, 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실감을 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이제 그녀는 술기운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리하이트는 여전히 그의 자상을 매만지고 있는 벨로나의 손을 붙잡아 떼어냈다. 도로 옷을 입은 리하이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공주님.”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기에 토라도 하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

고개 숙인 채 오랫동안 침묵하던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그녀는 뭔가를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

“벨로나.”

그녀가 리하이트를 향해 오른 손을 뻗었다. 악수를 청하는 자세였다.

“내 이름은 공주님이 아니라 벨로나야.”

리하이트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뭐?

“나는 내 군대의 대장이고 당신은 당신 군대의 대장이니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 이제부터 공주님이라고 존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이의는 받지 않아, 나도 이제부터 리하이트라고 부를게. 그러니 당신은 날 벨로나라고 불러.”

동등한 위치라 말하면서 여전히 독단적으로 밀고나가는 그녀의 행동은 모순적이었다.

그럼에도, 리하이트는 그녀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동등하던, 동등하지 않던 왕족에게 한 인격으로 대우 받는 순간이 올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다.

“리하이트.”

벨로나가 그의 오른 손을 붙잡았다.

“우리 잘 해 보자.”

그녀가 웃는다. 술 때문일까,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였음에도 그게 그녀의 진짜 미소처럼 보였다.

리하이트는 그와 함께 싸우다 죽어버린 전우들을 생각했다. 그와 함께 반란을 도모 중인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그 뒤를 따랐다.

리하이트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왕좌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황금 왕좌 위에 앉은 벨로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왕좌와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리하이트는 그녀가 왕좌에 앉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면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거라는 이유 모를 확신이 들었다.

“왕이 되어주십시오.”

리하이트가 그녀에게 말했다.

“공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공주님이라고 칭하는 구나.”

지적하는 말과 달리 벨로나는 별로 신경 쓰는 눈치가 아니었다.

“날 왕위에 앉혀주겠다는 남자들은 여럿 봤는데, 왕이 되어 달라 부탁하는 남자는 당신이 처음이네, 리하이트.”

그녀는 왕궁에 있던 시절 그녀에게 접근 했던 몇몇의 남자들을 떠올렸다.

이전에 벨로나의 야망을 알게 된 몇 안 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왕위에 앉혀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그녀에게 접근 했고, 후에는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협박했다. 펠로스에게 그녀의 야망을 모두 밝히겠다고 했었던가. 그들의 패턴은 항상 동일했다.

그들은 벨로나에게 권력을 주겠다며 접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벨로나가 권력을 가지려 하는 게 세상물정 모르는 공주의 패기쯤으로 생각했다. 그런 주제에 본인들은 왕족이라는 벨로나의 신분을 이용해 출세해 보려 든 것이다.

벨로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못이기는 척 그들을 받아주었다. 그들은 아주 가끔씩은 그녀에게 쓸모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그들이 그녀에게 본색을 드러내며 기어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했더라?

아, 그래 사고사로 위장해 죽여 버렸다. 아니면 펠로스에게 그녀의 행각을 고발할 혀와 팔목을 잘라버리던가.

“날 왕위에 앉혀주긴, 맞아, 나는 내 스스로 왕위에 앉을 거야.”

길을 닦고 걷는 것은 그녀였다. 그녀와 함께 가는 자들이 해줄 것은 그녀가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것이지 그녀를 업고 달리는 게 아니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다. 짧게 휘청거리나 싶던 그녀의 몸뚱이가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놀란 리하이트는 재빨리 몸을 굽혀 그녀의 코앞에 귀를 가져다 댔다. 일정한 숨결이 귓불을 간지럽혔다. 잠이 든 것이다.

술이 다 깬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다. 내일 깨어나면 오늘 나눈 대화를 기억이나 할까 싶었다. 한숨을 내쉰 리하이트는 한쪽 팔을 그녀의 목 뒤에, 나머지 팔은 그녀의 무릎 아래에 끼워 넣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무래도 오늘은 잠을 자기 글렀다.

“머리 아파...”

극심한 숙취로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켜 세운 벨로나는 얼굴을 양 손에 묻었다. 속은 울렁거렸지만 토 할 것 같진 않았다. 차라리 몽땅 게워내고 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물드시겠습니까?”

“응, 고마...”

곁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자연스레 손을 뻗었던 벨로나의 몸이 멈칫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남자의 푸른 눈동자를 응시했다.

“좋은 아침이네.”

어색한 미소와 함께 이어진 인사에 리하이트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벨로나는 그녀가 누워 있는 침대가 그의 것임을 알아차렸다.

“나 때문에 못 잤구나, 미안.”

“됐습니다, 그 보다 어제 대화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응, 필름이 끊길 정도는 아니었거든.”

벨로나는 당장이라도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으로 대꾸했다.

어제 나눈 대화들에 대해 후회는 없다. 하지만 이왕 이야기 할 거 좀 더 멀쩡할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술 취한 이의 주정이라고 가볍게 생각할까 노파심이 들었다.

“그런데 벨로나.”

아, 괜한 걱정이었나 보다.

그녀의 기우를 읽기라도 한 듯, 그는 어제의 요구대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벨로나는 기쁜 표정을 애써 숨겼다.

“왜?”

“그 목걸이 말입니다.”

“목걸이?”

벨로나는 제 목의 목걸이를 붙잡았다. 그러고 보니 이 목걸이를 되찾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다.

“칼리스가 찾아줬어. 그가 날 찾아낸 것도 이 목걸이를 발견한 덕분이래.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거거든. 어머니가 나한테 준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기도 하고.”

이어진 그녀의 설명에 리하이트는 잠깐 침묵했다. 그 정도로 소중한 물건을 폴을 구하겠다고 팔았다는 걸 알자 괜히 숙연해졌다. 그녀가 목걸이를 되찾아 다행이었다.

“아무튼 쉬어, 나는 이만 가볼 테니까. 침대 빼앗아서 미안해.”

“아닙니다. 어차피 할 일이 있어서 더 누워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할 일?”

그녀는 어리둥절히 중얼거렸다. 그가 이곳의 우두머리였으니 바쁜 게 당연했지만 그래도 조금 궁금했다. 그러고 보니 그는 외투를 입고 있었다. 밖에서 만난 첫날을 제외하고 겉옷 입은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마을 밖에 나가나 보지?”

“네.”

리하이트가 방구석에 있던 바구니를 집어 들었다.

“약속한 게 좀 있어서요.”

그러며 몸을 돌리나 싶던 리하이트가 머뭇거리며 벨로나를 돌아보았다. 벨로나의 목걸이로 향하나 싶던 시선이 도로 그녀의 얼굴을 향해 돌아왔다.

“꽃, 좋아하십니까?”

절대 마을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더니, 결국 그 스스로 그 말을 어겼다. 벨로나는 머리카락을 밀어 넣은 털모자를 깊이 눌려 쓴 채 그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왕실 쪽 사람이 날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런 낮에 그런 이들이 올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환한 대낮에 귀족들이 못 올 곳이 어디 있다고?”

퉁명스러운 벨로나의 물음에 리하이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직접 보고 생각하라는 것 같은 반응이었다.

간간이 새들의 날개 짓 소리만 들리는 산길을 따라 내려오자 단단히 얼어붙은 개울이 보였다. 개울의 폭은 성인 남자 한명 키 정도였다. 망설임 없이 얼음 위를 밟고 지나간 리하이트가 그녀에게 손짓했다.

조심스레 얼음을 밟아 건너편으로 넘어온 벨로나는 다시 걷기 시작한 리하이트의 등 뒤로 바짝 따라붙었다.

“겨울엔 이렇게 얼음을 넘어 다닌다 치고, 다른 계절은? 다른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보다 폭이 좀 더 좁은 곳에 나무를 넘겨 놓았습니다. 겨울엔 오히려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 잘 쓰지 않고, 다른 계절엔 그걸 씁니다.”

그렇구나, 벨로나는 일이 풀리고 난 이후에 이곳에 다리를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일만 제대로 풀린다면 리하이트와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산속에 숨어 사는 일이 없어질 테니 쓸데없는 짓일 지도 몰랐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다. 벨로나는 모자를 고쳐 썼다.

“아직이야?”

“거의 다 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길로 가고 있긴 해도 불안함을 떨치지 못한 벨로나와 달리 리하이트는 침착했다. 리하이트의 뒤로 좀 더 바짝 붙어선 벨로나는 다시 한 번 그를 재촉하려다가 멈칫했다. 리하이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은 뭔가 이상했다.

낮임에도 불구하고 침침한 기운이 감도는 저층의 건물들은 하나같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게다가 건물 앞에 나와 있는 여자들의 옷차림은 하나같이 심상치 않았다.

제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노출이 심한 그 의복들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여기 설마 홍등가야?”

벨로나의 재빠른 물음에 리하이트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리하이트가 한 말이 이해가 갔다. 그래, 귀족들은 밤이라면 모를까 대낮엔 이곳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는 속부터 썩어문드러졌으면서 귀족이란 작자들은 늘 고고한 척 했다.

“설마 나한테 좋아하냐고 물었던 꽃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노파심 속에 던진 물음에 리하이트가 황급히 고개를 내저었다.

“난 또, 네가 여자를 꽃에 비유하는 몹쓸 생각이라도 하고 있는 줄 알았잖아. 그럼 여긴 왜 온 건데?”

“저희 목적은 저기가 아니라 여깁니다.”

“응?”

리하이트가 가리킨 방향에는 동백군락이 있었다.

“여기 설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거기야?”

“네, 거깁니다.”

“약속이라던 건?”

“어린아이들에게 동백꽃을 따다 준다 했던 약속이요.”

짐작도 못했던 답변이다. 그러고 보니 전에 폴과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걸 듣긴 했었는데 그걸 지키는 걸 보게 될 줄이야.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지 않게 생겨선 제법 다정한 구석이 있었다.

“아이들을 직접 데려오면 안 되는 거야? 왜 애꿎은 꽃을 따?”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정서 상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동백 군락 자체도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은 위험합니다.”

그 비슷한 얘기를 들은 기억에 잠자코 고개를 끄덕인 벨로나는 사창가를 돌아보았다가 곧 시선을 떼어냈다. 그녀의 어머니도 저런 사창가 출신이었다.

저런 곳이 성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겠지.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는 법이다. 하물며 왕마저도 이런 곳을 드나들었는데 다른 귀족들은 어떠할까.

“발정난 개새끼들.”

“예?”

“아냐. 개한테 미안한 생각을 했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는 리하이트에게 시침을 뗀 벨로나는 곳곳에 피어있는 동백꽃들을 손끝으로 쓸었다.

이걸 보고 있으니 또 다시 적벽성의 동백 정원이 떠올랐다. 처음 이 동백 군락을 보았을 때는 동백 정원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곳이 훨씬 나았다. 정원사들이 일정한 높이로 잘라놓은 적벽성의 동백정원은 멋스러웠지만 편안함이 없었다.

벨로나는 꽃잎 한 장을 뜯어 높이 들어올렸다. 흐릿한 겨울 하늘과 붉은 꽃잎의 조화가 오묘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차가운 무엇인가가 그녀의 코끝에 닿았다. 붉은 꽃잎 앞으로 새하얀 덩어리가 스치고 지나갔다.

“방금 봤어?”

벨로나는 환한 표정으로 리하이트를 돌아보았다.

“눈이...!”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 소리치던 벨로나는 말을 멈췄다. 리하이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따 바구니에 담는 시선이 진중했다. 푸른 눈동자에 동백꽃이 담기고 사라지길 반복했다. 동백나무 사이에 선 그의 모습에는 어색함이 없었다.

꽃이 잘 어울리는 남자구나, 벨로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리하이트가 그녀의 시선을 알아차린 건 한참이 지나서였다. 바구니에 동백꽃을 소복하게 담아 올린 그가 문득 벨로나를 응시했다.

“왜 그렇게 봅니까?”

“꽃이랑은 어울리는데 붉은 색이랑은 어울리지 않네.”

그녀의 대꾸에 리하이트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벨로나는 리하이트의 푸른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짙은 검은 색의 머리와 푸른 눈동자의 조합이 오묘했다.

“리하이트, 네 눈 색 참 예쁘다. 그 색이 당신이랑 잘 어울려.”

그녀의 대꾸에 리하이트가 무심코 제 눈에 손을 올렸다.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눈동자를 돌리던 리하이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푸른색을 좋아합니다.”

“왜?”

“붉은 색과 반대되는 색이니까요. 붉은 색은 이제 지긋지긋 합니다.”

붉은 동백군락 속에서 나누는 대화치고는 모순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그녀가 그였더라도 붉은 색은 지긋지긋 할 것이다.

전쟁을 겪었다고 했지. 전쟁은 온통 붉은 빛의 향연이었다.

“그런 이유라면 나도 푸른색이 좋아질 것 같네.”

벨로나는 느리게 대꾸했다.

그녀의 앞날엔 그 누구보다 붉은 빛이 많을 것이다. 내란은 항상 피를 몰고 오기 마련이었으니.

유독 길었던 겨울이 끝났다. 나무가 우거진 산 아래에 있어 햇빛 볼 일 거의 없던 마을에도 때때로 손바닥만 한 봄 햇살이 찾아들었다.

벨로나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책상에 엎드려 잔 탓에 허리가 뻐근했다. 몸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담요가 어깨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리하이트가 왔다 간 모양이었다.

“벨로나.”

“아, 깜짝이야.”

왔다 간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어?”

“당신이 잠꼬대를 할 때부터?”

“내가? 뭐라고 했는데?”

“농이었습니다.”

농 같지 않은 표정으로 농담이라 말하니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담요를 주은 벨로나는 그가 왜 이렇게 일찍부터 찾아온 것인지 떠올리려다가 책상에 도로 머리를 박았다.

“맞아, 성 단면도를 주기로 했었지.”

“다 못 그리셨습니까?”

“응, 그리다 잤어.”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았다. 군대의 지휘를 맡고 있는 필립 장군과 미켈 브릴리언트 등 여러 사람들과 차후 계획 등에 서신을 주고받느라 잘 시간이 거의 없던 탓이다.

직접 만나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빠를 텐데 그게 불가능 하니 짧은 서신 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밀어 넣으려 애쓰다 보니 벌어진 일이었다. 물론 제일 바쁜 건 칼리스였다. 그는 여전히 팔자에도 없는 전서구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벨로나와 의논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서신을 옮기는 것도 그였으니 그의 공이 컸다.

“조금만 기다려 줄래? 금방 마무리해서 줄게.”

고개를 끄덕인 리하이트가 그녀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벨로나의 앞에 놓인 서신을 읽으려고 했으나 곧 내려놓고 말았다. 글을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었으나, 제대로 된 공부를 해 본 적 없는 그는 읽는 게 서툴렀다.

“너무 무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천천히 하십시오.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네가 내게 할 말은 아니지, 리하이트.”

벨로나는 펜을 옮기며 짧게 웃었다.

“제일 조바심 내고 있는 건 당신이잖아. 눈 밑이 검게 내려앉았어.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 거야?”

“무리 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 누가 봐도 밤 샌 모습인데.”

리하이트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정곡이 찔려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건가하고 어림짐작한 벨로나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적이 길었다.

“뭐야, 자는 거야?”

검은 머리칼이 엇박자로 흔들린다. 앞으로 두 번, 뒤로 한 번, 그러다 옆으로 한 번. 질근 감긴 두 눈 위로 그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렇게 자다간 주름 생길걸.”

벨로나의 장난스러운 지적에도 상대는 말이 없었다. 완전히 잠이 든 모양이었다. 한 번 피식 웃은 그녀는 도로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막 밖에서는 여전히 새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이 정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른 오전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리, 리하이트 님 여기계십니까?”

문 밖에서 소리를 질러대는 제크의 목소리에 리하이트가 눈을 번쩍 떴다. 벨로나와 리하이트는 거의 동시에 천막 문을 열었다.

“무슨 일입니까?”

리하이트의 목소리는 조금 갈라져 있었다.

“그, 그게 세금을 걷으러 장정들이 왔는데...”

벨로나와 리하이트의 눈동자가 마주쳤다.

“나라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아직 조세 기간이 아니고 저번 세금은 누락 없이 모두 주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받아가지 않은 게 있다고 해서...”

필립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리하이트가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를 따라 나서려던 벨로나는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저번 조세 기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았다. 세금을 걷으러 온 이들 중에 벨로나의 얼굴을 아는 자가 있을 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불안했다. 조세 기간이 아님에도 사람이 왔다니. 현 왕실의 행태를 생각하면 아주 무리는 아니었지만 왜 이런 어중간한 시기를 택한 거지? 벨트로가 제 아무리 멍청한 왕이라곤 하나, 그래도 뭔가를 제대로 걷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란 걸 잘 알 텐데.

아무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벨로나는 재빨리 천막을 빠져나왔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은 압박감을 느낀 건 리하이트 만이 아니었다. 공터를 둘러싼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선 마을 사람들은 세금을 걷으러 왔다고 주장하는 세 명의 남자들을 불안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분명 드릴 걸 모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받아가지 못한 게 있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로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린다. 재빨리 장로의 곁으로 다가가 곁에 선 리하이트는 남색 로브를 둘러쓴 사람들 앞에 가볍게 묵례했다.

“제가 이 마을의 촌장 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 아프게 또 고하라는 건가?”

귀찮다는 듯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가장 뒤편에 선 남자의 것이었다.

“새파랗게 어린놈이 촌장이라. 웃기지도 않는 군.”

고개를 숙이고 선 리하이트는 주먹을 말아 쥐었다. 조세를 걷으러 오는 놈들은 하나같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 이곳을 깔보고 비웃는 말투로.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눈을 치켜 떠.”

눈동자만 움직여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리하이트의 행동을 놓치지 않은 다른 남자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별 위협이 되지 않았다. 리하이트를 불안하게 만든 건 오직 리하이트를 비웃은 남자 하나뿐이었다. 그 남자의 잿빛 눈동자는 마치 뱀 같았다. 리하이트는 그 눈동자에서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다.

남자의 창백한 피부와 대조되는 붉은 머리카락으로 눈을 돌린 리하이트는 도로 눈을 내리깔았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음에도 어째서인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와 닮은 듯, 닮지 않은.

“저번에 미처 받지 못했던 걸 받으러 왔다.”

“말씀 드렸던 대로 저희는 모든 세금을 다 냈습니다.”

“세금? 아니, 세금 따위가 아니지. 그보다는 몇 만 배 더 귀한 것이니.”

영문을 알 수 없는 그 말에 리하이트는 도로 고개를 들었다. 천천히 로브를 벗는 남자를 응시하던 리하이트는 기시감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벨로나는...”

닮았다.

“내 사랑스러운 여동생은 어디에 있지? 바른대로 고해라.”

벨로나와 닮았다. 분위기는 달랐으나 이목구비가 닮아있었다. 그는, 펠로스 왕태자였다. 벨로나의 수배령을 띄우고 그녀의 목을 비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왕태자. 그들의 반란이 실패로 끝난다면 왕이 될 남자.

그가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벨로나가 여전히 이 마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펠로스!

벨로나는 몸을 떨며 느리게 뒷걸음질 쳤다.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그 얼굴은 분명 펠로스였다.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으나 그가 로브를 벗고 얼굴을 드러낸 순간 알아차렸다. 펠로스가 어떻게? 왜?

미켈 브릴리언트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지나갔다. 설마 그가? 한 번 배신한 자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또다시 그녀를 배신했단 말인가! 아니, 아니다. 벨로나는 단 한 번도 미켈에게 그녀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거처를 알고 있는 건 단 하나, 칼리스 뿐이었다. 하지만 칼리스가 그녀를 배신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였다. 칼리스가 뒤를 밟혔을 경우.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리하이트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는 시치미 떼기로 작정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소용없을 것이다. 칼리스가 뒤를 밟힌 거라면 펠로스가 군대를 끌고 왔을 것이니. 어쩌면 계획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의 목숨이 모두 날아갈 지도 몰랐다.

“모르기는, 수도 곳곳에 뿌려진 수배지를 봤다면 반역을 일으키려 한 공주에 대한 걸 알고 있을 텐데. 아니, 아니지. 여기에 숨겨 두고 있으니까 더 잘 알 테지. 그 년의 호위기사가 이곳으로 발걸음 하는 걸 몇 번이고 보았다. 모를 성 싶으냐?”

역시나. 칼리스가 뒤를 밟혔었구나. 벨로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네가 촌장이라 그랬나. 그 년을 넘기면 이 곳 사람들은 살려주도록 하지. 물론, 반역자를 숨겨준 괘씸죄가 있으니, 네 놈의 목은 가져가겠다.”

거짓말이다. 벨로나는 펠로스의 성정을 잘 알았다. 리하이트가 그녀를 넘겨주면 그는 이 곳 사람들 목숨을 전부 앗아갈 것이다. 펠로스에게 백성들의 목숨은 개미만도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리하이트는 선택해야만 했다. 리하이트에게 펠로스의 성정에 대해 몇 번 얘기하긴 했으나 그 정도만으론 이 상황을 파악하기엔 힘들 것이다. 결국 그는 그냥 선택하겠지.

하지만 이어진 것은 침묵이었다. 벨로나는 불안한 시선을 고정했다. 시간을 끄는 걸까 어차피 소용없는 짓이다.

“대답이 없군.”

나지막하게 중얼거린 펠로스가 검 집으로 리하이트의 턱을 툭툭 쳤다.

“하긴, 옛날부터 남자를 꼬시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년이었지. 창녀의 딸이라 그런가, 그 어미에 그 딸이라고... 정신 차리는 게 좋아. 그년 주위를 부나방처럼 맴돈 남자들이 한 둘 인줄 아나? 너도 그냥 지나가는 남자들 중 하나일 뿐이야. 마을 사람들을 생각해서 바른대로 고하지 그래.”

미친 새끼. 또 저 소리였다. 벨로나는 이를 갈며 펠로스를 노려보았다.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리하이트가 조용히 대꾸했다.

“이제야 그 계집애가 여기에 있다고 고하는군.”

“그것도 아닙니다. 한 때, 그 여자가 여기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주라는 걸 알자마자 바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반역을 저지른 공주를 숨겨주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이곳에 숨기겠습니까.”

벨로나는 느리게 물러났다. 어쩌면 저게 가장 최선의 답이었다. 하지만 펠로스는 저 말을 믿지 않을 테고 그녀를 찾을 수 있게 사람을 풀겠지. 그렇다면 벨로나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 밖에 없었다. 이곳을 벗어나 펠로스의 눈앞에서 숨어버리는 것.

시간이 없었다. 서둘러야 했다.

“그렇다면 그년의 호위기사가 왜 이곳으로 몇 번이나 찾아왔지?”

“공주가 이곳에 두고 간 패물을 보석상에 팔았었습니다. 그 기사가 그 패물들을 보았고 수소문 끝에 그것들을 판 저희를 찾아왔던 겁니다. 이후 몇 번 더 찾아온 것은 그 여자의 행방을 쫓을 다른 단서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펠로스의 분노어린 목소리가 허공을 가로질렀다. 벨로나는 도로 돌아서려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기 정신이 팔려서는 안됐다.

“벨로나! 네가 여기에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다! 당장 나오지 않는다면 이 남자의 목을 베겠다!”

리하이트! 벨로나의 걸음이 조금 느려졌다. 안 돼. 약해져선 안 돼. 여기서 포기하고 펠로스의 앞으로 가면 전부 다 죽을 거다. 차라리 리하이트가 죽더라도 마을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살리는 편이 낫다. 리하이트도 그것을 바라겠지.

아니, 아닌가? 그는 차라리 벨로나가 투항하길 바랄까? 오히려 그녀가 도망침으로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되면 벨로나를 원망할까? 아니다. 지금은 개인이 그녀를 원망할 게 두려워 일을 그르칠 상황이 아니었다.

벨로나는 귀를 틀어막았다. 돌아보지 말고 달려!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달리는 도중 발이 꼬여 몇 번이고 넘어질 뻔 한 걸 겨우겨우 면하고 아래로 도착한 순간, 익숙한 옷을 입고 있는 기사들이 보였다. 그녀의 예상대로 펠로스가 군대를 끌고 온 것이다. 도망갈 구멍이 없었다. 여기서 수도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은 개울 위로 넘어져 있는 저 나무를 밟아 건너는 것 하나 뿐이었다. 그게 아니라면 개울을 헤엄쳐 건너야 했다.

겨울이 끝나고 얼음이 모두 녹아내린 개울은 깊었다. 가장 얕은 곳도 그녀의 키를 훌쩍 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벨로나는 수영을 할 줄 몰랐다.

“빌어먹을...”

홀로 중얼거린 벨로나는 기사들이 모인 곳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시작했다. 펠로스의 신호가 있으면 기사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다. 당연하지만 수도와 통하는 유일한 입구인 저곳은 누군가가 지킬 것이고 그녀가 택할 수 있는 건 산의 안쪽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마을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아래쪽에서 달리기 시작한 벨로나는 섬뜩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았다. 모여 있던 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펠로스의 신호가 있었던 것이다.

기사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길게 내려오는 드레스를 입은 벨로나와 비교하자면 그들이 훨씬 빠른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어깨에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닿았다. 벨로나는 비명을 집어삼키고 뒤를 돌아보았다. 기사 옷을 입은 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알렉산드로!”

환한 미소와 함께 소리쳤던 벨로나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다. 근처에 다른 기사들이 있을 지도 몰랐다. 그녀 눈앞의 기사는 벨로나의 군대에서 간부 위치에 있는 자였다. 겉으로는 펠로스에게 복종하고 있지만 실상은 벨로나에게 종속돼 있는.

“공주 전하,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랍니까.”

알렉산드로가 믿을 수 없단 표정으로 말했다.

“왕태자가 여우를 잡으러 간다 했을 땐 설마 했습니다만, 정말 이곳에 계셨던 겁니까? 공주 전하께서 여기 계신 줄 알았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더 좋은 곳으로 모셨을 텐데, 칼리스 그 자식은 전하께서 계신 곳을 혼자만 알고...!”

“목소리 낮춰.”

벨로나가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내가 택한 거야. 여기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 생각했어. 설마하니 칼리스가 뒤를 밟힐 줄 몰랐지만. 그러고 보니 칼리스는 어디 있지? 일이 이렇게 됐으면 그에게 뭔가 또 피해가 갔나?”

“아닙니다.”

알렉산드로가 벨로나를 아래로 이끌며 말했다.

“펠로스 왕태자가 독단적으로 진행한 일이라 이곳에 온 저희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왕태자도 먼저 공주 전하를 잡고 칼리스를 족칠 생각이었는지 아직까진 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군, 내가 여기서 잡히지만 않으면 칼리스의 신변도 무사할 테니.”

“칼리스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건데 그가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원망스러울 게 뭐 있어. 그가 날 부러 배신한 것도 아니고, 자네들과 같은 내 사람인데.”

벨로나의 대꾸에 알렉산드로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벨로나의 그런 점 때문에 그녀의 편에 선 사람이었다. 벨로나는 일단 한 번 제 수족이 되어준 사람에겐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다.

“아무튼 서신으로만 소식을 접하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됐으니 다행입니다. 가장 먼저 공주 전하를 발견한 것도 저라서 다행이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숨어계십시오. 주변으로 오는 이들은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벨로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아래로 내려가 몸을 낮췄다. 알렉산드로가 근처에 있다 생각하자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들이 조금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벨로나는 양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신이니 뭐니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이웃 왕국에서 여신을 숭상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런 존재가 어디 있냐며 비웃었던 그녀지만, 지금만큼은 신에게 기도하고 싶어졌다.

제발 모두가 무사하기를.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죽지 마, 리하이트.”

“벨로나가 여기서 발견된다면 네 목숨은 없는 것이다.”

펠로스의 칼끝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검의 감각 아래로 리하이트는 맥박이 뛰는 것을 느꼈다. 긴장으로 경직된 목에서 따뜻한 핏줄기가 조금 흘렀다.

리하이트는 이를 악 문채 눈을 질근 감았다. 벨로나가 알려준 왕태자의 성품대로라면 벨로나가 발각되든, 발각되지 않든 이곳의 사람들은 모조리 죽을 것이다. 아주 잠깐, 벨로나를 진작 내쫓지 못한 자신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으나 그리 길지 않았다.

벨로나가 아니었다면 지난 몇 개월 동안 희망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희생이 조금 덜 할 수도 있다는 희망,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

리하이트는 눈을 떴다. 펠로스 뒤쪽으로 보이는 스콧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리하이트를 보고 있었다. 리하이트는 시선을 조금 옮겼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각종 농기구를 들고 있었다. 애초에 농기구를 무기삼아 훈련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리하이트가 지시하기만 하면 언제든 뛰어나올 준비가 돼 있었다.

‘공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날 왕위에 앉혀주겠다는 남자들은 여럿 봤는데, 왕이 되어 달라 부탁하는 남자는 당신이 처음이네, 리하이트.’

언젠가 나누었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돈다.

부탁 한 것은 그였으니 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도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리하이트는 손바닥에 앉은 땀을 닦았다. 벨로나를 찾았다는 소식, 혹은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 시발점이 될 것이다.

수색을 위해 돌아다니고 있는 잘 훈련된 기사들과 싸워 이길 자신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지금 무기조차 들고 있지 않았다. 리하이트가 신호하는 순간이 그가 죽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해줄 일은 한가지였다. 눈앞에 있는 왕태자의 목을 베는 것. 현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왕실을 향한 최대한의 복수.

“전하, 전 지역 수색을 마쳤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이었다. 리하이트는 스콧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다들 모이는 분위깁니다.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알렉산드로는 공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벨로나는 몸을 조금 일으켜 세웠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빨리 돌아가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잔뜩 지배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는 건 아직 위험했다. 펠로스가 저곳에 있다.

벨로나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다. 기사들을 모이는 게 마을 사람들을 죽이기 위함이라면... 벨로나는 눈을 감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단 한 번도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무기력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심지어 반역죄가 내려져 도망쳐 나왔던 그 날 조차 이정도의 좌절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속이 울렁거린다. 벨로나는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였다.

차라리 내가 펠로스 앞에 순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게 나았을까? 만에 하나, 펠로스가 정말로 자신의 말을 지킬 생각이었다면? 나만 붙잡히면 모두를 살려줄 생각이었다면?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닐까? 내가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양팔로 몸을 감싸 안은 채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던 벨로나는 근처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숨을 멈췄다. 펠로스와 그 일당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펠로스의 망토는 깨끗했다. 기사들의 옷 역시 특별히 피가 묻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들을 한참동안 살피던 벨로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펠로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남자는 아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자였다. 미켈 브릴리언트? 언제부터 이곳에 와 있었지?

“잠깐.”

순간, 펠로스가 멈춰 섰다. 그녀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 로브를 벗고 눈을 감은 채 숨을 들이마시나 싶던 펠로스가 눈을 부릅뜨며 그녀가 있는 방향을 노려보았다.

“쥐새끼가 있는 것 같은데.”

벨로나는 느리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펠로스와 기사들의 방향에선 나무들과 풀숲에 가려 그녀가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근처로 다가오면 분명 발각된다. 벨로나는 몸을 굽힌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펠로스 근처에 서 있던 알렉산드로가 불안에 찬 눈으로 그녀가 있는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펠로스가 손을 들어 그를 따라 나서려 드는 기사들을 제지했다. 펠로스가 느리게 그녀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쓸데없이 감만 좋아서. 벨로나는 속으로 욕설을 집어삼키며 좀 더 빠르게 물러났다. 펠로스는 지척에 와 있었다. 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달리면 눈에 띌 것이다. 어디로 가야하지? 어디로...?

“벨로나?”

펠로스의 소름끼치는 목소리가 그녀를 덮쳤다.

리하이트는 핏줄기가 말라버린 그의 목덜미를 매만졌다. 정말 죽을 뻔 했었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났다. 리하이트는 그가 스콧에게 신호함과 동시에 나타나 펠로스의 이름을 부른 짙은 갈색머리의 남자를 떠올렸다. 그 남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리하이트의 신호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펠로스는 리하이트를 겨눈 칼을 거뒀다. 펠로스가 그 자를 미켈이라 불렀다. 리하이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벨로나의 참모이자 벨로나를 펠로스에게 고발해 이 지경으로 밀어 넣은 작자. 하지만 기회주의자이기에 보답만 확실하다면 한쪽에 붙어 충성하는 자.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기에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을 벌이고 게실 줄은 몰랐습니다, 왕태자 전하.’

미켈의 탄식 섞인 중얼거림이 끝나기 무섭게 펠로스의 칼날은 미켈을 향했다. 하지만 미켈은 전혀 놀란 눈치가 아니었다.

‘제게 말씀도 않고 일을 벌이신걸 보면 제가 벨로나 공주와 한 패가 되었다고 의심하고 계시나 봅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그 입 닥치는 게 좋을 텐데. 그 새치 혀를 뽑아버리기 전에.’

‘저는 전하께 충성한 전하의 개인데, 이렇게 의심하시니 마음이 쓰라립니다. 제가 벨로나 공주의 편이라면 왜 왕태자 전하께 벨로나 공주의 반역 사실에 대해 알렸겠습니까.’

‘나도 그게 의문이란 말이지. 내게 벨로나의 기사의 행적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둥 의심받을만한 행위만 잔뜩 하고 있는 네가 왜 내게 벨로나의 반역 사실을 알렸는지. 혹, 이것도 네 계획의 일환이 아니더냐.’

리하이트는 미켈을 응시했다. 펠로스의 최측근임과 동시에 벨로나의 참모라더니, 저 정도의 연기력과 언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섭섭한 말씀입니다, 왕태자 전하. 저는 다만 확신하기 전까지 전하께 알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결국 이곳에 벨로나 공주가 없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곳에 있었다면 제가 먼저 전하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웃기는 소리. 벨로나가 정말 이곳에 있으니 네가 이렇게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 이 마을 놈들이 다 죽든 말든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나를 말리러 오지도 않았겠지!’

리하이트는 어깨를 움찔했다. 벨로나가 늘 펠로스 왕태자는 아둔하고 멍청한 놈이라 지칭해서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았다. 그가 정말 멍청하기만 한 자였다면 저런 걸 집어낼 수 있을 리 없었다.

‘예,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미켈은 덤덤하게 말했다.

‘솔직히 지금도 이들이 죽든 말든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왕태자 전하, 전하께 상관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늘 벨로나 공주가 어떻게 민심을 얻었는지 궁금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전하께서 이들을 다 죽이고 이번 일이 소문난다면 전하께서는 다신 민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깟 민심, 얻지 않아도 왕이 되는 건 나다! 민심 따위가 두려워 나를 말린다?’

‘그깟 민심이 아닙니다. 떠난 민심이 만들어낸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난 왕 겔프를 떠올려 보십시오. 현재의 민심을 유지하지는 못할망정, 더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왕태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미켈을 노려보나 싶던 왕태자가 리하이트를 도로 돌아보았다. 퉤, 펠로스가 뱉은 침이 리하이트의 상의로 떨어졌다.

펠로스가 고개를 돌렸다.

‘한번만 더 내게 의심받을 행동을 했다간, 벨로나의 목보다 네 놈의 목이 먼저 떨어질 거다, 미켈.’

그리고 펠로스는 군사들을 대동한 채 떠나갔다.

그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다가와 리하이트에게 괜찮느냐 물었지만 리하이트의 신경은 한곳에만 쏠려 있었다. 벨로나가 발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상황을 알고 도망간 게 분명한데.

그녀는 어디에 있지?

“벨로나?”

펠로스는 수풀을 확 뒤집어엎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다르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 시선을 느꼈는데. 펠로스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몸을 숨길 곳은 몇 곳 있었으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몸을 숨길만한 곳으로 도망갔다면 눈에 띄었을 구조였다.

“잘못 느꼈나.”

뒤돌아선 펠로스는 군대에게 손짓했다. 돌아가자는 의미였다. 그는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의 변수를 깨닫지 못했다.

벨로나는 눈을 질근 감고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막힌다. 펠로스에게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개울로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깊을 줄이야!

펠로스가 그녀의 행방을 알아차렸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죽기 직전이라는 사실 하나였다. 어쩌면 펠로스가 그녀를 발견했을 지도 몰랐다. 아래로 가라앉으며 죽어가고 있는 그녀를 물가에 서서 비웃고 있는 지도 몰랐다.

아래로, 아래로 몸이 가라앉는다. 하지만 여전히 개울 바닥은 느껴지지 않았다. 억지로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은 뿌연 개울물뿐이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수영이라도 배워둘 걸 그랬다.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입을 벌리는 순간 물방울이 터져 나오며 폐부로 물이 한가득 들어찼다. 온 몸의 감각들이 소리를 질러댄다. 죽기 싫어, 살려줘!

“컥!”

누군가의 손에 억지로 붙들려 끌어올려짐과 동시에 벨로나는 속에 있던 물을 모조리 토해냈다. 이곳이 땅인지 어딘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벨로나는 손에 쥔 옷가지를 놓을 생각하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콜록 거렸다.

“벨로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괜찮습니까?”

괜찮냐고?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한참을 컥컥거리던 벨로나는 그녀를 구해준 상대의 얼굴을 보았다. 리하이트 역시 그녀와 마찬가지로 온 몸이 물에 젖어있었다.

“살아, 살아있었구나.”

간신히 내뱉은 그녀의 한마디에 리하이트가 무너지기 직전인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럼 죽었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응.”

벨로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죽었을 거라 생각했어. 나 때문에 당신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어.”

예상치 못한 그녀의 답변에 리하이트의 한쪽 눈썹이 비스듬하게 휘어졌다.

“설령 제가 죽었다 해도 그게 왜 당신 탓입니까.”

“펠로스가 찾아온 건, 윽, 나 때문이니까.”

벨로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정말로 그가 죽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눈앞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그를 만나자 그가 죽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가 죽었다면 벨로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벨로나는 리하이트의 옷을 꽉 쥐어 잡은 채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원래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해서 눈물을 흘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건 죽다 살아난 그녀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벨로나는 그것을 알았다. 이건 죽다 살아난 리하이트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다.

“벨로나.”

리하이트가 한숨을 내쉬었다.

“펠로스 왕태자가 이곳을 찾아온 건 그저 여기에 당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 마을을 헤집어놓은 건 이곳이 공주가 거처로 택한 반란군의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공주가 머무르고 있는 마을과, 공주가 머무르고 있는 반란군의 기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당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이러한 위협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허울 좋을 변명일 뿐이지. 날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

벨로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리하이트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아니긴, 다른 마을 사람들도 당신처럼 생각할까? 아닐걸? 다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야. 내가 이 마을에 남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거야.”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리하이트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을 사람들도 저와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왕태자가 떠나고 나서 저와 함께 당신을 찾으러 흩어졌는걸요.”

“그랬다면 그건 당신 명령이 있어서겠지.”

벨로나는 리하이트의 가슴팍에서 얼굴을 떼어냈다. 눈물은 어느 순간 멈춰 있었다.

“그냥 인정 해, 리하이트. 당신은 그냥 날 좋아해서 날 위한 변명거리를 찾고 있을 뿐이잖아.”

날카로운 벨로나의 지적에 리하이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벨로나는 그런 리하이트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그의 옷가지를 붙들고 있던 손을 떼어 냈다.

“궁에서 지내면서 수많은 남자들과 마주했어. 그들의 열망에 찬 시선들도 숱하게 봐왔지. 그러니까 당신 눈에서 그 감정을 읽어내는 건 나한테 숨 쉬는 것 보다 더 쉬운 일이야.”

벨로나의 말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리하이트의 얼굴은 더 딱딱하게 굳어졌다. 벨로나의 한쪽 입 꼬리가 곡선을 그리며 올라갔다.

“내가 전에 말했지. 감정에 휘둘리는 리더 만큼 무능한 건 없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네.”

오랫동안 굳어있던 리하이트의 눈동자가 서서히 커다랗게 변했다. 벨로나는 자조하며 양팔로 스스로를 끌어안았다.

“감정에 휘둘리는 건 펠로스 같은 인간이나 할 짓인데,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이젠 비웃지도 못하겠어.”

리하이트의 감정을 알아차린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새벽 내내 함께 회의를 하고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리하이트는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랬겠지, 그가 그녀에게 마음을 품은 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니까 그간 모르는 게 당연했다.

평소의 벨로나였다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기 무섭게 으레 그래왔듯 그것을 이용하거나, 칼리스에게 했던 것처럼 그 감정을 잘라내기 위해 애썼을 것이다. 그래, 평소의 그녀라면 리하이트는 그녀의 사람이었으니 그녀를 향한 감정이 좀 더 커지기 전에 잘라내려 했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정확히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벨로나의 감정이 리하이트의 감정보다 앞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벨로나는 스스로가 좋아하는 이의 마음을 끊어낼 자신이 없었다.

계기는 단순했다. 왕이 되어 달라 말한 첫 남자라는 것에 마음이 쓰였을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꽃이 제법 어우러진다고 생각했을 때였을 것이다.

처음에는 부정했다. 그래도 명색이 일국의 공주인데 평민, 어쩌면 천민일지도 모를 남자에게 마음이 끌린다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하고 있는 행동이 궁에서부터 끔찍하게 여겨왔던 신분 가르기라는 걸 깨닫는 순간, 감정을 걷잡을 수 없게 됐다. 그래도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제 감정을 숨기는데 능했다. 그랬는데, 분명 그랬는데...

“난 이런 거 딱 질색이야, 리하이트.”

벨로나는 이를 악 문 채 중얼거렸다.

“나는 사랑이 숭고한 가치니, 고귀한 맹세니 하는 거 안 믿어. 나는 권력이랑 사랑 중에 택하라고 하면 언제든 권력을 택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한테는 미움 받기 싫어. 당신에게 미움 받기 싫어서 펠로스에게 날 내어줄 생각을 했을 만큼.”

벨로나가 리하이트의 얼굴을 붙잡았다.

“리하이트, 어쩌다 날 좋아하게 된 거야? 그럴 만한 계기가 없었잖아.”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손바닥 아래로 맞닿은 리하이트의 뺨이 뜨겁다. 벨로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리하이트의 옷자락 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상체를 일으켜 세워 리하이트의 얼굴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응? 어쩌다 내게 마음이 생긴 거야?”

그녀는 그의 대답이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길 바랐다. 그래서 그를 향한 그의 마음이 조금은 식을 수 있길 기도했다.

“...요.”

“응?”

“그냥, 어느 순간부터요.”

그녀가 다가가기도 전에, 리하이트의 뜨거운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맞부딪혀왔다. 밀어낼 새도 없이 입술을 가르고 들어온 혀가 그녀의 입안 곳곳을 헤집었다. 물에 빠졌다 나온 터라, 그에게서는 물 냄새가 났다. 반쯤 열린 입술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가자 그의 행위가 한층 짙어진다. 턱이 맞물리다가 멀어지길 반복하고 깊어지다 옅어지길 반복한다. 좀 더 깊이, 더, 더.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순간부터 갈망했던 행위였다. 벨로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이상하다 여겼다. 지난 23년 간,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살 맞대는 걸 열망하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사실 리하이트의 대답은 별로 상관없었다. 그가 무슨 대답을 하든, 설령 계기가 없다고 말했든 그녀는 그 대답에 만족했을 것이다.

벨로나를 리하이트의 얼굴을 붙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떼어 냈다. 그녀가 붙잡고 있지 않아도, 리하이트가 그녀의 얼굴을 놓아주지 않을 듯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양손으로 단단한 어깨를 붙잡고 그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다. 느리게 몸이 기울어지며 주변의 모든 풍경이 뒤틀리고, 곧이어 수풀이 눌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벨로나는 리하이트의 몸 위에 올라 누운 채로 눈을 감고 그의 혀에 응했다. 풀 내음, 그들에게서 떨어진 물로 축축하게 젖은 흙 내음, 그에게서 느껴지는 물 내음. 키스를 하면서 맡아볼 것이라곤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냄새들이었다. 그녀가 남자들과 입 맞췄던 순간, 그녀가 맡은 것은 언제나 짙게 뿌린 그녀의 향수 냄새뿐이었다.

벨로나에게 키스는 그런 것이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향수의 향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한 행위, 그 이상의 것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향수가 어떤 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녀가 그 냄새를 맡기 위해 몇 번이나 제 몸에 뿌려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쉽게 잊는 법이었으니.

“무슨 생각 하십니까?”

그녀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읽기라도 하듯 천천히 입술을 떨어트린 리하이트가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상체를 그에게 완전히 밀착시키고 다시 그의 뺨을 감싸 쥐었다.

“그냥, 지금이 좋아서.”

그의 눈빛이 일렁거린다. 거짓임이 명백한 그녀의 대답이 그의 어딘가를 자극한 듯 한참동안 침묵하던 리하이트가 그녀를 꽉 끌어안고 몸을 굴렸다. 졸지에 아래로 내려 깔리게 된 벨로나는 반쯤 뜨인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거짓말.”

귓가로 속삭여지는 목소리는 부드럽기보단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피식자를 노리는 포식자의 갈증 어린 울음소리가 그러할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귓불로 숨결이 닿은 순간, 열기가 차오른다. 그녀는 눈을 질근 감고 고개를 돌렸다. 이런 감각은 정말 생소했다.

“딴 생각 하지 마십시오.”

얼핏 들으면 부탁이라고 들릴 듯, 제법 정중하고 나지막한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그건 부탁이라기 보단 일방적인 강요에 가까웠다. 리하이트는 느리게 한숨을 내쉬며 창백한 피부 위로 붉게 달아오른 벨로나의 뺨을 쓸었다. 서로를 집어삼킬 듯 이어진 입맞춤 끝에 남은 그녀의 표정은 상당히 자극적이었다. 그녀의 이마 위로, 코끝으로, 두 뺨에, 턱에 입을 맞추자 그녀가 그의 목에 팔을 둘러왔다. 목덜미로 그녀의 살결이 느껴진다. 리하이트는 시선을 천천히 아래로 내렸다.

“질투 납니다.”

물기를 머금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녀의 머리카락부터 흠뻑 젖어 그녀의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옷자락은 색정적이었다. 다시금 그녀의 입술을 향해 달려든 리하이트는 자꾸만 그녀의 가슴께로 향하는 손을 진정시키려 그녀의 어깨를 붙잡은 손에 힘을 가했다.

“아...! 잠깐만, 리하이, 읍!”

하지만 그게 화근이 된 모양이다. 그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지막한 신음을 흘렸고 그게 기폭제 역할을 했다. 리하이트는 벨로나의 오른손을 자신의 왼손으로 단단히 깍지 껴 붙잡았다. 자, 잠깐! 그녀가 그렇게 말리는 소리를 들은 듯도 했다. 하지만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그녀도 그를 좋아한다는 식으로 입을 열었을 때부터 참아왔던 충동은 한 번 문이 열리자 멎을 줄을 몰랐다.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모조리 들이 마시고 싶었다. 하지만 리하이트의 충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성의 끈을 놓치기 직전의 순간, 그는 입술을 떼어내고 입안의 살을 꽉 씹었다. 비릿한 피 냄새가 나며 정신이 확 들었다.

리하이트는 그녀의 몸 위에서 일어나며 그녀 역시 마찬가지로 일으켜 세웠다.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마냥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는 벨로나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리하이트는 부러 모른 척 했다. 여전히 그녀와 맞닿았던 살들이 뜨거웠다. 하지만 옷이 젖어 있으니 금방 식을 것이다. 최소한 그들이 마른 옷으로 갈아입을 쯤에는.

“얼른 갈아입지 않으면 감기 걸립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진 그의 말에 그녀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리하이트는 그녀가 황당하다 여겨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애초에 그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훗날 반란에 성공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만날 일 없는 사이였다. 그들의 관계는 딱 거기까지였다.

그런 주제에 감히 그녀를 탐하려 들다니. 리하이트는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었다. 파멸로 끝날 관계라면 시작조차 않는 게 나았다.

“겁쟁이.”

한참을 걸어가다 들려온 말에 리하이트는 문득 자리에 멈춰 섰다. 고개를 돌려 바라본 벨로나의 얼굴은 분노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렇게 겁이 많아?”

“벨로나.”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녀가 리하이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같은 겁쟁이는 내 이름 부를 자격도 없어. 당신이 왜 그러는 지 알아, 당신이 우려한 걸 나라고 우려해보지 않았겠어?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당신을 선택했는데, 그깟 시선이 중요해?”

벨로나의 녹색 눈동자가 매섭게 그를 쏘아보았다.

“게다가 당신은 우리 사이가 그 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 제멋대로에다 변덕스러운 게 감정이야. 이 감정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고작 미래가 두려워서 현재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굴겠다고? 그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리하이트는 입술을 잘근 씹었다. 그녀의 말이 맞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었다. 이 마음이 변할 것 같지 않다고, 그녀에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과 별개로 그녀의 말 자체는 진실이었다.

“후회 하게 되실 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녀가 딱 잘라 대꾸했다.

“그런데 지금 네가 처음으로 후회하게 만들고 있잖아.”

벨로나가 느리게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날 후회시키기 싫다면 똑바로 행동해, 리하이트.”

그는 쭈뼛 소름이 도는 걸 느꼈다. 정말이지,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공주였다. 다시 그녀의 뺨을 감싸 쥐고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개며 리하이트는 처음으로 그가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 그녀와 함께할 수 있음에 기뻐했다.

애초에, 시작되지 않았어야 하는 관계였는데.

입을 열고 숨을 내뱉자 새하얀 입김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천막 밖으로 얼굴만 배꼼 내민 채 일몰을 구경하던 벨로나는 천막 입구를 단단히 여미고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깨 위로 둘러맨 이불 아래 맨살에 오소소 소름이 돋아 있었다. 정말 가을이긴 한 모양이다.

“나 추워.”

드물게 칭얼거리며 침대 위 이불 속으로 파고들자 뜨겁고 단단한 팔이 그녀의 몸을 껴안았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맨살과 맨살이 닿는 감각은 늘 그렇듯 소름끼쳤다. 맞닿은 품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옅은 미소와 함께 눈을 감았다 뜬 벨로나는 리하이트의 얼굴을 멀거니 올려다보았다.

“칼이 좋아, 창이 좋아?”

굉장히 느닷없는 물음이었다. 리하이트의 어리둥절한 시선이 벨로나에게로 내리꽂혔다.

“빨리 말해봐. 칼이니, 창이니?”

“제가 좀 더 잘 사용하는 건 창 입니다.”

“창? 왜?”

“옛날에 전쟁터에서 제 주 무기가 창이었으니까요.”

덤덤하게 이어진 대꾸에 벨로나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창, 창이라.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당신한테 그럴싸한 무기 하나 성공해주고 싶어서.”

“됐습니다.”

“됐긴, 변변찮은 무기도 없으면서. 설마 계집의 손을 탄 무기를 쓰면 망한다니 뭐니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문을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제가 언제 그런 거 믿는 것 봤습니까.”

그는 짐짓 언짢은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런 그의 표정을 확인한 벨로나는 대답대신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의 품으로 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있잖아.”

벨로나는 눈을 감은 채 그를 끌어안은 팔에 힘을 가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그녀의 질문은 당연하게 그들의 승리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녀에겐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전제 자체가 없었다. 리하이트는 그런 그녀의 자신만만함에 안도감과 포만감을 느꼈다. 그녀가 함께하는 싸움에 패배가 있을 순 없었다. 리하이트는 그녀가 지닌 당당함을 맹신했다. 제가 따르는 신에게서 내려온 신탁이라면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는 옆 나라의 광신도 마냥.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그의 대답을 기다리는 벨로나의 쭉 뻗은 콧날 위로 입 맞춘 리하이트는 제 입술을 그녀의 입술 위로 스쳤다. 어미에게 모이를 받는 아기 새 마냥 입술을 오물거려 그의 입술에 반응한 벨로나가 슬쩍 눈을 떴다. 리하이트는 손바닥으로 그녀의 이마를 덮어 눈이 보이지 않게 했다. 답답하다고 몸부림칠 법도 하건만, 그녀는 그런 그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당신과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응?”

“이 좁은 마을 안에서 함께 하는 데이트 말고, 좀 더 제대로 된.”

“정말 당신 머릿속에는 내 생각 밖에 없구나.”

놀리는 게 명백한 그녀의 어조에도 리하이트는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훈련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회의를 할 때도 그녀에 대한 생각을 단 한시도 떨쳐낼 수 없었다. 곁에 있을 때조차 좀 더 많이 눈에 담아두고 싶었다. 아무리 보고 쓰다듬어도 부족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오르지 않는 구멍 뚫린 양동이 마냥, 만족 되지 않는다.

침묵 속에 제 얼굴을 가린 리하이트의 손을 떼어 낸 벨로나가 눈을 부드럽게 휘어 웃었다. 그리고 촉, 리하이트의 입술에 짧게 입맞춤 했다.

“나도 그래.”

그녀는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그에게 속삭였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당신이랑 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

그녀의 중얼거림을 끝으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은 침묵이었다.

리하이트는 벨로나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 전쟁이 끝나면 서로의 곁에 서로가 없을 지도 몰랐다. 아니, 없을 것이다. 애초에 그들은 다른 위치에서 다른 꿈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왕위 찬탈과 생명 부지. 과정은 같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르다. 리하이트는 이 전쟁이 끝나고 벨로나에게 버림받아도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다. 왕과 천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신분들이 아닌가.

그러니 그녀와의 이 만남은 하룻밤의 꿈처럼 덧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럴 때가 있었다는 추억만을 품고 살아가게 되겠지.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에 백성으로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했다.

“사랑한다고 해줘.”

정적 속에 꼼짝 않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리하이트는 손등으로 그녀의 뺨을 쓸었다. 긴 속눈썹 아래로 녹색의 눈동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사랑해요.”

당신이 설령 나를 두고 떠난다 해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해도.

대장간에 보내는 벨로나의 주문서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던 칼리스가 제 금발을 거칠게 쓸어 넘겼다. 그의 갈색 눈동자에는 불만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작정입니까.”

벨로나는 칼리스가 제법 오래 참아왔다는 걸 알았다. 칼리스가 벨로나의 일에 토를 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가끔 입을 댄다면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인내했음을 의미했다.

“뭐가?”

벨로나는 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체했다.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이제 슬슬 본격적인 계획을 세울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주 전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곤 그 남자랑...”

칼리스가 천막을 노려보며 이를 악 물었다가 다시 벨로나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리하이트랑 뭐?”

“그 자와...”

칼리스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칼리스를 물끄러미 응시하던 벨로나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다.

“나도 알아.”

흔치 않은 벨로나의 의기소침한 반응에 칼리스는 문득 그녀를 바라보았다.

“본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경도 알잖아, 우리 병력은 턱 없이 부족해.”

“공주 전하께서 그 부족한 병력을 타개할 방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칼리스의 단호한 대답에 벨로나의 눈썹이 움찔 떨렸다.

칼리스의 말에는 틀린 게 없었다. 그녀는 부족한 병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었다. 자칫하면 도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 그녀가 가진 병력 앞에서는 최선의 방법인.

“하지만 그건 희생이 너무 커.”

“어떤 방법이든 희생은 따르는 법입니다. 대의를 위한 소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공주 전하께서 늘 하셨던 말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칼리스.”

“좀 더 솔직해 지는 게 어떻습니까? 공주 전하께서 지금 두려워하는 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그 남자의 희생이 아닙니까.”

칼리스의 날카로운 지적에 벨로나는 말문이 막혔다. 칼리스의 말 대로였다. 그녀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리하이트의 반란군을 미끼로 앞에서 고전하는 펠로스를 뒤에서 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리하이트와 반란군 일당을 모조리 사지로 밀어 넣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금 제게 이 무기를 만들어 오라 시키는 것도 그 이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무기를 쥐어주어 그가 희생되는 걸 막고 싶은 거겠죠.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경 말이 맞아.”

벨로나는 오른손으로 왼팔을 쓰다듬으며 덤덤하게 대꾸했다.

“그를 살리고 싶어서 무기를 만들어 오라 시킨 거고, 그의 희생을 막고 싶어서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맞아.”

하지만 칼리스의 지적과 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리하이트 때문만이 아니다. 이 빌어먹을 세태를 바꾸기 위해 농기구를 무기 삼아 봉기하려는 마을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도저히 그들의 시체 더미 위에 놓인 왕좌에 오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결코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과거의 그녀는 그랬다. 피 웅덩이 위에 세워진 성 안에서 살라 해도 기꺼이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건 숙명이라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를 위해 필요한 희생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그녀가 가진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러고 싶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최대한 끌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벌어서라도 희생을 줄이고 싶었다.

칼리스에게 설명해도 그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나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외쳤던 그녀이니, 지금 그녀가 하는 말은 리하이트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설득하기 위한 변명처럼 들리겠지.

“시간을 조금만 더 줘.”

이것은 명령이 아닌 부탁이었다.

“명령이야.”

그럼에도 명령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칼리스가 또 다시 설득을 시도할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벨로나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으니 그와 입씨름 하는 것은 스트레스 받는 일 밖엔 되지 않았다.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보름이면 충분해.”

병력 부족 문제를 보름 동안 어떻게 해결하겠냐마는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짓나싶던 칼리스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숙여서 들여다보던 책자 위로 핏물이 투둑, 떨어져 내렸다. 글자 위로 넓게 번지기 시작한 핏물을 짜증 섞인 눈으로 응시하던 벨로나는 코를 틀어먹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간 현기증이 밀려오며 몸이 휘청거리다 제자리를 찾았다.

“빌어먹을...”

옷자락으로 핏물을 닦아냈지만 붉은 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짜증나 죽겠네.”

밀려오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 내쉰 벨로나는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겼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고작 코피 하나 때문에 시간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책, 책, 책. 벌써 몇 권의 서적을 들여다봤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읽어봤자 원하는 답은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낱같은 희망에라도 기대보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스승들은 그녀에게 모든 가르침을 주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배운 그녀가 알지 못하는 답이라면 매달릴 곳은 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젠 책이라면 지긋지긋했다. 종이 냄새만 맡아도 토할 지경에 이르렀다. 뭔가 결실이라도 있다면 이런 기분이 덜할 텐데 결실 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미칠 지경이었다.

“공주 전하.”

“무슨 일이야.”

잔뜩 예민해져 있을 때 방문한 칼리스에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를 내고 말았다.

“들어가겠습니다.”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그의 손에는 붉은 천에 돌돌 말린 기다란 물체가 들려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코를 틀어막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칼리스가 당황한 채 질문했다. 고개를 가로저은 벨로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손에 들려 있는 물체를 응시했다.

“혹시 이전에 부탁했던 물건이야?”

“네, 그런데 보시기 전에 지혈부터 하셔야겠습니다.”

“됐어, 때 되면 멈춰.”

벨로나는 잔뜩 쌓였던 업무스트레스가 한 순간에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숨 줄, 이라는 표현은 다소 거창할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걸 맞는 표현이 없었다. 코에서 손을 떼고 물건을 받아든 벨로나는 붉은 천을 거두기 무섭게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원했던 모양 그대로 만들어낸 창과 검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검의 단면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제대로 자지 못해 눈 밑은 퀭하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설상가상으로 하관은 피투성이였으나 눈동자만큼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나도 알아.”

“잠은 제대로 주무시고 계신 겁니까?”

“아니, 주어진 시간이 보름인데 잘 시간이 어디 있어.”

벨로나는 칼리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덤덤하게 대꾸했다. 칼리스가 한숨을 쉬는 게 들렸지만 벨로나는 개의치 않았다.

“저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칼리스의 목소리가 잔뜩 내려앉았다.

“그 남자가 뭐라고 공주 전하께서 이렇게 몸 버려가며 고생하셔야 하는 겁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서도 결단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시다니, 제가 알던 공주 전하가 맞으십니까. 남자에 목매다 비극으로 끝난 여인들을 비웃으시더니, 지금의 공주 전하가 그들과 다를 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 입 닥쳐 칼리스.”

벨로나는 참다못해 입을 열었다. 이해하지 못할 걸 알기에 입대지 않으려 했지만 도무지 참을 수 없었다.

“네 그 발언이 펠로스와 다를 게 뭐야. 감히 네가 내게 그런 말을 해?”

“그럼 틀립니까. 지금 공주 전하가 보이는 행동들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것 같네 칼리스 경. 경이 감히 그딴 소리를 지껄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벨로나는 이를 악문 채 칼리스를 노려보았다.

“내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것 마냥 굴면서 날 가르치려 들지 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경보다 내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어.”

“가르치려 든 적 없습니다.”

칼리스 역시 이를 악 문채로 대꾸했다.

“지금 공주전하께서 얼마나 한심하게 행동하고 계신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경이 한 말이 날 가르치려 드는 태도가 아니면 뭐지? 게다가 한심하다고! 내가 한심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태도가 한심하다면 경이 날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만큼 한심한 행동은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짐과 동시에 칼리스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제가 공주 전하께 품은 마음이 전하를 따르게 만든 것은 맞으나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달라? 경은 날 향해 품었던 그 감정이 경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나 보지? 그렇겠지. 내가 경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직접 증명해 보였으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권력욕만 넘치고 능력이라곤 하나도 없는 일개 공주였다면? 경이 지금처럼 자신할 수 있었을까?”

벨로나는 입술을 짓씹었다. 칼리스와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게 될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다.

“같은 감정 아래에서 경이 한 판단은 옳았고 내가 한 판단은 틀리다는 건 대체 어디서 나온 편견이야?”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칼리스가 싸늘하게 대꾸했다.

“공주 전하께서는 제 감정을 이용하셨고, 저는 거기 휘둘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주 전하께서는 그 누구도 전하의 감정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데 스스로 휘둘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공주 전하의 기사로써 더 이상 전하께서 이런 식으로 본인 건강을 해치는 걸 두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칼리스 경.”

“미켈 브릴리언트에게 반란군의 존재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그가 참모이니 누구보다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겠지요. 다만 공주 전하께서 반란군의 우두머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최대한 그들의 희생을 줄이는 쪽으로 작전을 짜라 언급은 하겠습니다.”

“칼리스 시트리안!”

그녀의 성난 외침에도 칼리스는 매몰차게 몸을 돌렸다. 그를 붙잡으려 팔을 뻗었던 벨로나는 문득 동작을 멈췄다.

칼리스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군 적이 있었던가. 혹시 그의 말마따나 그녀가 정말 사랑에 눈이 멀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 문득 그런 의심이 밀어닥쳤다.

한 번 밀어닥친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라질 줄 몰랐다. 피로하지 않고 맨 정신이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생각들이었다. 벨로나는 손에 쥔 창과 검을 멍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코에서 떨어진 핏방울이 깨끗하게 닦인 창 위로 미끄러졌다.

아, 그래. 그녀는 이제 지쳐있었다. 칼리스의 말대로 이제 그만 미켈의 조언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칼리스의 말대로 사랑에 눈이 먼 어리석은 여자보다야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참모에게 맡기는 게 낫겠지.

벨로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물이야.”

짧은 한마디와 함께 그녀가 내민 천 꾸러미를 받아든 리하이트의 얼굴에 짧은 미소가 퍼졌다가 사라졌다.

“농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저를 위해 만드신 겁니까?”

“내가 언제 그런 걸로 거짓말 하는 거 봤어? 풀어 봐, 당신이 기뻐하는 게 보고 싶어.”

벨로나의 요구에 리하이트는 잠자코 천을 풀어 안에 든 검과 창을 들어올렸다. 생체기 하나 없이 깨끗한 창과 검은 맞추기라도 한 듯 그의 손에 꼭 맞았다. 기대가 잔뜩 담긴 벨로나의 눈빛에 그녀가 원하는 대로 창과 검을 휘둘러 보인 리하이트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벨로나의 몸을 끌어안았다.

리하이트의 가슴팍에 머리가 맞닿자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는 그의 심장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던 벨로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 움직이는 그의 심장소리를 듣자 감당 못할 두려움이 엄습했다.

“벨로나.”

리하이트가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야 하는 건 그녀였다. 당신이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어 준비한 선물에 기뻐하는 그에게, 그녀가 고맙다고 말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벨로나는 차마 그렇게 말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하면 그게 독이 되어 그가 정말 죽어버리기라도 할까봐.

“잠깐만.”

문득 눈을 뜬 벨로나가 리하이트의 몸을 가볍게 밀쳐냈다. 얼결에 뒤로 밀려난 리하이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벨로나는 무시했다. 그녀는 곧 품에서 푸른색 천으로 만든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이것도 내 선물이야.”

“손수건이요?”

“그래, 전쟁에 출전하는 남자들한테 여인이 손수건을 선물하면 승리 한다는 말이 있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승리보다는 무사히 살아 돌아온다는 속설이었지만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인이 남자한테 잘하면 일이 잘 풀리니 하는 말들을 믿지도 않고 오히려 싫어하는 편이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터무니없는 미신을 보며 늘 코웃음 쳤지만 그래도 손해 볼 건 없으니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나온 행동이었다.

“이런 거 안 믿으신다더니.”

그리고 리하이트는 그런 그녀의 모순을 정확히 집어냈지만 벨로나는 못들은 척 했다.

“아, 그런데 이거 손수건으로 쓰라고 준비한 거 아니야.”

“예?”

“반으로 잘라서 그립에 감아 쓰라고. 무기가 손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아...”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는 그의 얼굴에서 아쉬움의 빛을 읽어낸 벨로나는 그의 손에서 손수건을 받아들어 가감 없이 그것을 이등분했다.

“아까워 할 필요 없어. 이 일이 죄다 끝나고 나면 백 개고 천개고 만들어 줄게.”

“하지만 정성들여 만드신 게 아닙니까.”

“애초에 이럴 생각으로 만든 거야. 천도 일반 천이랑 다르잖아. 봐, 좀 더 뻑뻑하지?”

그의 눈앞에 천을 팔랑거려 보인 벨로나는 리하이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손잡이에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다. 그런 그녀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던 리하이트 역시 나머지 천을 받아들여 검의 손잡이에 매기 시작했다.

“일부러 당신이랑 잘 어울리는 색으로 골랐어.”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벨로나의 덧붙임에 리하이트가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지.”

일자로 굳어 있던 벨로나의 양 입 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천을 모두 동여매는 작업을 마친 리하이트는 벨로나를 곁눈질 했다. 손에 들린 창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는 그녀의 눈빛이 진중했다. 처음 저 눈을 봤을 때, 그는 저 눈동자가 붉다고 생각했다.

붉은 기운이라곤 하나도 없기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당시의 그는 정말 그렇게 여겼다. 아마도 저 두 눈에 담긴 독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분명 지독한 눈빛이라 여겼었는데, 그녀를 사랑하게 된 계기 역시 뭔가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저 눈빛 때문이라는 게 아이러니 했다.

물론 그 때는 이미 그녀의 눈빛에서 붉은 기라곤 전혀 찾아 볼 수 없었지만. 요즘엔 어떠하지? 그녀의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푸른색이 떠오른다. 그녀의 눈동자가 녹색이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녀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당신과도 잘 어울립니다.”

리하이트의 덧붙임에 벨로나의 의아한 시선이 그에게로 돌아왔다.

“푸른색이랑 당신 말입니다.”

“그래?”

그녀는 그의 말이 마음에 든 것 같았다. 그녀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내가 왕위에 오른 후에 왕좌를 푸른색으로 칠해볼까. 황금 왕좌는 이제 식상하니까.”

“왜 하필 왕좌입니까?”

“내가 가장 오래 머물 자리잖아.”

순간 리하이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또 한 번 그녀와 그 사이에 있는 장벽을 느낀 탓이다. 하지만 그는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다.

이미 받아들이기로 한 일이다. 그녀가 왕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벌어질 일이니 더 이상 스스로의 감정을 갉아먹고 싶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벌써부터 두려워 할 이유는 없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어느 날 아침이었다. 묘한 위화감에 사로잡혀 눈을 뜬 벨로나는 그녀의 거처에 낯선 이가 찾아와 있음을 알아차렸다.

“오랜만입니다, 공주 전하.”

“제 버릇 개 못준다더니, 허락 없이 남의 방에 들어오는 건 여전하군 그래.”

벨로나의 싸늘한 대꾸에도 미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바깥에 서 있다가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것 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었다면 어쩔 뻔 했지?”

“아, 그 반란군의 수장이란 남자와 자주 밤을 보낸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공주 전하의 밤 사정까지 신경 쓸 상황이 되지 못해서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닙니까. 전시 상황에 어찌 개개인의 생리적 현상까지 일일이 신경 쓰겠습니까.”

“뚫린 입이라고 잘도...”

“너무 거칠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면 아군이 아니라 적인 줄 알겠습니다.”

능글맞기 그지없는 대답이었다. 벨로나는 이를 악 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가 멍했다.

“한 번 배신했던 자를 경계하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 어디 있다고.”

“하지만 일단 다시 믿기로 하셨다면 끝까지 믿음을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공주 전하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 하찮은 천민 따위와 뒹굴고 계시지만 이 반란이 끝나고 나면 제가 바라는 걸 주기로 한 약속 말입니다.”

그녀는 미켈이 리하이트를 그런 식으로 지칭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지만 애써 덤덤한 척 했다. 리하이트가 그녀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설령 그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해도.

“그럼 어디 한 번 당신이 생각하는 작전을 말해봐. 서신을 보내지 않고 직접 찾아왔으니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들고 왔겠지.”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모라는 직책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신만만한 미소와 함께 대꾸한 미켈이 느리게 자리에서 일어나 벨로나의 앞으로 다가섰다.

“변방에서 벌어지던 전쟁들이 거의 끝나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칼리스가 말해주더군, 변방의 소국들을 복속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군인 취급을 개같이 하는데도 전쟁에서 승리하다니, 우스운 일이 아닌가.”

“예, 그러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요행으로 이겼다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우리 군인들도 지쳤고, 변방의 소국들도 단단히 연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왕 벨트로는 승리의 기쁨에 고취돼 분명 전쟁을 그만두지 않고 진군 할 테지요. 이대로 둔다면 자칫 영토를 잃거나 참다못한 군인들의 배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는 왕을 교란 시킵니다.”

미켈의 계획은 간단했다. 궁으로 돌아간 벨로나가 아버지인 벨트로를 찾아가 펠로스가 반란을 꾸미고 있었음을 아뢴다. 펠로스를 붙잡아 오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기사로 위장한 반란군들과 벨로나의 군대가 펠로스를 비롯한 나머지 왕족들을 척결하고, 모든 게 끝난 후 왕마저 죽인다.

“...말이야 그럴싸하다만, 정말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 될 거라 생각하나? 폐하께서 펠로스가 반란을 꾸민다는 말을 믿을 리 없지 않나.”

“그래서 공주 전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는대도 믿게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그건 공주 전하께서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희생을 줄이고 싶다 하신 건 공주 전하이시고, 저는 그런 공주 전하의 의견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구해왔으니 공주 전하께서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켈의 느긋하기 그지없는 대꾸에 벨로나는 못마땅하게 입매를 굳혔다가 바로 했다. 그의 말이 맞다. 이것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디 믿고 따르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칠 자격이 있겠느냐. 그가 벨로나가 원하는 대로 반란군의 희생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을 구해왔으니 그녀에겐 이제 머리를 굴리는 일만 남았다.

“정확한 실행일이 언제지?”

“변방의 소국가들을 완전히 복속시켰다는 연락이 도착한 후, 이틀이 지나면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 때 환궁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그럼 다시 뵙게 될 날까지 무사하시길.”

그녀에게 묵례한 미켈이 재빠르게 천막을 나가 사라졌다. 벨로나는 추위에 소름이 돋은 팔을 문지르며 책상에 앉았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란이었다.

정신없이 흘러간 계절 속에 비로소 약속한 날이었다. 만에 하나, 반란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어린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빼돌리기로 했다.

실패라는 난관 앞에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목숨을 더 부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마을의 여자들과 노인들 역시 어린 아이들과 동행할 것이다.

“조금 있다가 미켈이 올 거야.”

벨로나의 목소리가 고저 없이 울렸다. 긴장한 기색은 없었다.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럼 아무런 문제없을 거야.”

녹색 눈동자에 아주 잠깐 일렁임이 있었다. 알아차리긴 어렵지 않았으나 워낙 짧은 새 지나가 헛것을 본 게 아닌가했다.

“다들 나중에 보도록 하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지극히 담담해서 도저히 전쟁을 앞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함께 그녀는 돌아섰다.

리하이트는 로브를 눌려 쓴 그녀의 뒷모습을 지긋이 응시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로 작별 인사를 할 생각이 없는 듯했다. 작별이라, 우스운 소리다. 애초에 영영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작별 인사를 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어째서 이렇게까지 울렁거리지. 긴장이라도 한 걸까. 리하이트는 손에 쥔 창을 힘주어 붙잡았다가 문득, 그 불안감의 원인을 깨달았다.

“벨로나.”

그의 부름에 그녀가 느리게 돌아섰다.

그녀의 곁에 있던 금발의 기사도 함께 돌아섰지만 칼리스인지 칼릭스인지 하는 그 기사는 그의 관심 밖이었다.

“이거, 들고 가십시오.”

리하이트가 내민 물건을 가만히 응시하던 벨로나의 입가에 아주 짧게 웃음이 걸린 듯도 했다.

“왜, 내가 내 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죽을까봐 걱정 돼?”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럼?”

“제게는 행운의 부적 같은 것이어서요.”

“그런 걸 지금 내게 주겠다고?”

“한 짝이 더 있지 않습니까.”

리하이트의 대꾸에 벨로나의 두 눈이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휘어졌다.

“의도는 알겠지만 내가 이걸 들고 들어가면 분명 의심받을 텐데. 아, 그래. 칼리스 경, 경이 드는 게 좋겠다.”

벨로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칼리스가 리하이트의 손에서 그의 검을 들고 갔다. 검이나 창에 이름을 붙이면 더 좋다더라,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 만만하게 푸른 검이라 이름 붙인 검이 칼리스의 옆구리에 채워졌다.

리하이트는 아주 잠깐, 그녀가 쥐어줬으면 했던 검이 기사의 손에 들어간 데 불쾌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떻겠는가. 저 검이 벨로나를 지키는데 쓰인다면 그것으로 족했다.

벨로나가 선물한 검을 그녀에게 도로 선물한다는 발상자체가 다소 우습긴 했지만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였다.

“그럼 정말로 갈게.”

그녀가 돌아섰다. 리하이트도 몸을 돌렸다.

“공주님!”

벨로나는 처음에 그것이 환청이라 생각했다.

“벨로나 공주님!”

하지만 두 번째 부름에는 환청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천천히 말을 멈춰 세운 벨로나는 주변의 눈치를 살폈다. 일부러 인적 드문 길로 말을 타고 달려오긴 했지만 다른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궁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녀의 신분을 들켜서는 안됐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말에서 내려온 벨로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어두운 골목의 상자더미 아래에 익숙한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폴?”

그럴 리가 없다. 다른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있어야 할 폴이 여기에 왜...

“다행이다, 진짜 공주님이네요!”

상자 더미 아래에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폴의 몰골은 온통 검댕 범벅이었다. 마치 더러운 곳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오기라도 한 것 마냥 지저분한 폴의 행색을 본 벨로나는 기겁했다.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니, 폴? 사람들이랑 같이 가지 않았어?”

“갔었어요.”

폴이 천진난만하지만 어쩐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대꾸했다.

“그런데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화내고 윽박질러서 도망쳤어요.”

“화를 냈다고?”

“네, 자꾸 욕도 하고, 빨리 안 간다고 짜증내고...”

폴이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는 것을 보며 벨로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욕을 하고 짜증을 냈다고? 미켈이 보낸 사람들일 텐데, 설마 신분 때문에 무시한 건가?

“그럼 왜 숨어있었던 거니?”

“그 사람들이 저를 잡으러 올까봐 겁나서요.”

“하지만 여기 있으면 안 돼, 폴. 얼른 다시 돌아가렴.”

“싫어요. 그냥 아빠한테 갈래요.”

폴이 고집스럽게 고개를 내젓는 것을 보며 벨로나는 잠깐 입술을 꾹 깨물었다. 폴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다. 자칫하면 제 아버지를 잃을 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그런 어린 아이를 도로 마을에 보내 일을 그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칼리스 경, 폴을 말 위에 태워.”

“예?”

“폴, 나랑 함께 가자. 네 아빠는 밤에 만날 수 있게 해줄 테니.”

미켈이 무슨 수를 써둔 건지 왕궁의 동쪽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건 알렉산드로 하나뿐이었다.

반년 만에 다시 재회한 전우와의 회포를 풀 새도 없이 별궁으로 들어간 벨로나는 떠날 때와 달리 엉망으로 뒤집어 져 있는 제 방을 보며 탄식했다.

“보아하니 방을 뒤지고 나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은 모양이야.”

“관리하는 자들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 덕에 저희가 편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기뻐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군. 하긴, 왕태자에게 밉보인 공주궁을 관리하는 것도 우습긴 하겠어.”

옅은 한숨을 내쉰 벨로나는 방을 천천히 둘러본 뒤 방 한가운데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폴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시녀가 있었다면 과자라도 줬을 텐데, 미안하구나.”

칼리스에게 폴을 데리고 응접실로 가라고 명령한 후, 남아있던 옷 중 가장 값비싼 것으로 갈아입은 벨로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까지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잘해왔다. 이제 왕을 만나 펠로스가 반역을 꾸미고 있었다며 속이는 일만 남았다.

사실 벨로나와 그녀의 아버지인 벨트로는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였다. 벨로나는 왕이 그녀의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의문이었다. 벨트로는 여자로 태어난 공주, 그것도 열세 번째 자식씩이나 되는 공주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아마 이름이야 알 것이다. 펠로스가 그렇게 길길이 날뛰었으니 모르려고 해도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을 거다. 벨로나가 몇 번 본 벨트로는 사람 보는 눈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벨트로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벨로나가 수많은 스승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걸 진작 막았겠지. 아마 펠로스가 그녀의 스승들을 협박하기도 전에 벨트로의 선에서 정리 됐을 것이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공주 전하.”

갑작스럽게 들려온 목소리에 벨로나는 고개를 돌렸다. 언제 온 건지 모를 미켈이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또 허락 없이 들어오는군.”

“이제 적응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 펠로스에게도 그래?”

벨로나의 날카로운 지적에 미켈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펠로스를 찾아갈 때도 그렇게 노크 없이 들어오느냔 말이야. 아니지? 노크를 하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나를 우습고 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군.”

“그건...”

“여차해서 내가 공격했을 때 힘으로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는 거겠지. 그 버릇 고치는 게 좋을 거야.”

잠깐 동안 침묵하나 싶던 미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리 하지요.”

“그러고 보니 잘 됐네.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벨로나는 칼리스와 함께 응접실에 있을 폴을 떠올렸다.

“당신이 그들에게 마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했나?”

“그들이라니,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긴, 마을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이들을 말한 거지.”

“아.”

턱을 괴고 생각하는 시늉을 하던 미켈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 명령은 내린 적이 없습니다만,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는 지 이유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거기 함께 있던 어린아이가 마을 사람들을 데리러 온 장정들이 무섭다고 도망쳤어. 대체 어떤 식으로 굴었기에 그 아이가 도망을 쳐.”

“그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오는 길에 아이랑 마주쳤어.”

“아아, 하필...”

조그맣게 속삭여진 목소리엔 짜증이 잔뜩 묻어있었다. 느리게 미켈의 얼굴을 돌아본 벨로나는 뭔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켈의 얼굴이 엉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도망쳤다던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평소와 다름없는 어조였음에도 어쩐지 소름이 끼쳤다. 벨로나는 천천히 한걸음 물러섰다. 미켈의 미간이 엉망으로 구겨졌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공주 전하.”

쿵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럴 리 없다는 생각과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교차한다.

“아이를 죽일 건가?”

그녀는 제 질문이 잘못 된 것이길 바랐다. 그녀의 예상이 틀린 것이길 바랐다.

“예, 공주 전하께서는 그러지 못할 테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동시킨다던 여자와 아이들은?”

“이미 죽였습니다.”

아. 벨로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왜?”

간신히 입을 열어 꺼낸 말이 제 귓가로 돌아와 메아리 쳤다. 왜, 왜, 왜? 도대체 왜?

“이유는 이미 알고계시지 않습니까.”

미켈이 조소한다. 명백히 그녀를 향한 비웃음이었다. 뭘 부러 모른 척 하십니까. 그의 잿빛 눈동자가 그리 말하고 있었다.

벨로나는 느리게 눈을 떴다. 언제 맺힌 지 모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감히 아니라고, 모른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주 옛날부터 염두에 두고 있던 일이다. 어쩌면 오늘 리하이트와 작별하는 순간까지도 차마 지우지 못하고 있었던 가능성 일 것이다.

미켈이 그녀에게 말한 계획이 모두 거짓일 지도 모른다는 단 하나의 가능성.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가능성.

“말 해.”

하지만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다. 그의 계획이 오로지 반란군을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닐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반란군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희생되길 원한 건 아니었다.

“당신의 진짜 계획이 뭔지, 당장 말해.”

“모르는 게 약일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열어봐야 아는 법이지. 당장 말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이리 무르셔서야 어디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울지 마십시오, 진정한 군주는 자신의 감정을 내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벨로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미켈을 노려보았다. 뜨거운 핏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리는 느낌이 났다. 미켈은 그런 그녀를 당혹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곧,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 원하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벨로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감싸 쥐었다.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다. 진정하려고 해도, 진정할 수가 없었다.

“공주님, 괜찮으세요?”

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괜찮노라, 웃으며 답할 수 없었다. 정말 괜찮지 않았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교활한 자식. 벨로나는 눈을 질근 감았다.

“반란군은 전쟁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궁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입수해 그 날을 반란의 적시로 삼습니다. 반란군은 가장 먼저 궁으로 밀려 들어와 공주님의 형제들을 모조리 죽이고 궁의 깊숙한 곳으로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똑똑하고 현명한 벨로나 공주가 반란군 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벨로나 공주는 두려움에 떠는 무능한 왕을 대신해 군사를 지휘합니다. 그리고 반란군을 모두 죽이고 궁을 지키는데 성공하나, 안타깝게도 공주님의 형제들은 이미 모두 살해당한 후였습니다. 거기다 무능한 왕 마저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베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리하여 홀로 살아남은 벨로나 공주는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어떠십니까, 실로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까. 미켈이 웃는다. 기이하게 뒤틀린 그의 미소가 점점 일그러지더니 어느 순간, 한 점이 되어 사라졌다. 벨로나는 눈을 떴다.

“칼리스 경, 당장 종이와 펜을 가져와.”

벨로나는 칼리스가 가져온 종이 위에 펜을 얹었다.

“당신 계획은 죄다 엉터리야. 반란군이 내 형제들을 모두 죽이지 않는다면? 리하이트가 왕을 죽이지 않는다면?”

“애초에 그건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왕위 찬탈의 정당한 명목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 말일 뿐입니다. 반란군을 척결하고 왕이 된 공주와 반란군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된 공주 중 누가 더 당위성이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죽였나? 증인들을 없애려고?”

“역시 하나를 알려드리면 둘을 깨우치시는 군요. 과연 제가 선택한 군주입니다.”

미켈의 말이 맞다. 반란군을 척결하고 왕이 된 공주가 반란군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된 공주보다는 훨씬 당위성 있게 여겨지겠지. 왕위 찬탈에 성공한 공주와 홀로 살아남아 정통성 있는 방식으로 왕이 된 공주 중 백성들에겐 후자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미켈의 말대로라면 애초에 이 모든 계획에 반란군은 필요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존재가 단순히 쇼를 하기 위함이라면 그들이 없어도 이 왕위 찬탈 계획은 무탈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이다.

차라리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된 잔악무도한 군주로 남겠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은 원치 않았다.

종이 위에 재빨리 글자를 써내려간 벨로나는 리하이트가 이 글자들을 모두 해석할 수 있길 바랐다. 어려운 글자는 쓰지 않았지만 그는 글자를 잘 모르니까.

“폴.”

벨로나는 작게 접은 쪽지를 폴의 앞주머니에 단단히 집어넣었다.

“마을로 가는 길 기억하지? 마을로 가서 리하이트에게 전해. 절대 다른 누구의 눈에 들어가게 둬선 안 돼, 절대로. 칼리스 경, 경은 폴을 성문 앞까지 데려다 줘.”

칼리스를 보낼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가 가면 미켈의 눈에 띌 것이다. 무엇보다 칼리스에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제발 제 시간 안에 무사히 닿기를. 나를 원망해도 좋으니 부디 나머지 사람들은 살아남기를.

3시 경, 미켈이 펠로스에게 독약을 먹였다.

그로부터 30분 후,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벨로나의 형제자매들이 복면을 쓴 자들의 칼끝에 썰려나갔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귀족들 역시 모두의 감시 하에 감금당했다.

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던 왕 벨트로는 도망쳤던 공주 벨로나에게 왕태자 펠로스의 반란 소식을 듣고 도망치려던 도중 벨로나에 의해 살해당한다.

그리고 5시. 약속했던 시간, 반란군이 밀어 닥쳤다. 벨로나가 전하고자 했던 쪽지는 그들의 손에 닿지 못한 것이다.

이상하다. 리하이트는 생각했다. 수월해도 너무 수월했다. 미켈이 전하길, 손을 써뒀다곤 했지만 이렇게 까지 수월하리라곤 상상하지도 못했다. 붉은 벽돌로 쌓아올려져 적벽성이라고 불린다던 중앙 성이 벌써 눈앞에 있었다.

미리 약속했던 지원은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갈대처럼, 찌르는 족족 휘청거리며 쓰러지는 군인들을 이상하다 여기면서도 리하이트는 일단 진군했다. 벨로나를 향한 의심을 품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다. 미켈이 전해온 마지막 편지에는 적벽 성으로 오면 모든 게 끝난다는 말이 있었다. 아마도 그가 모르는 사이에 계획이 바뀐 모양이니 이대로 적벽 성에서 모든 설명을 들으면 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리하이트는 그리 생각한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탓해야 했다.

“리, 리하이트 님,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 합니, 커억!”

붉은 피가 흩날리고, 그의 곁에서 소리치던 스콧의 몸이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그의 목에는 화살이 꽂혀있었다.

반란군들은 혼비백산해 어쩔 줄 몰라 했다. 리하이트는 뒤늦게나마 반격이 시작됐다고 여겼으나, 곧 들려온 커다란 외침은 그의 짐작이 틀렸음을 알려주었다.

“벨로나 공주님의 명이다! 반란군을 모조리 토벌하라!”

어째서.

“단 한명도 살려주어선 안 된다, 모두 죽여라!”

당신이 어째서.

누군가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했다. 악의를 품은 자가 저리 외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두에 선 남자가 그가 몇 번이고 보아온 벨로나의 금발머리 기사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리하이트는 현실로 되돌아왔다.

이유는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벨로나가 그들을 배신했다는 사실 하나였다.

화살은 부러 그를 피해가기라도 하듯 그의 주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직접 적벽성에 들어가 네 눈으로 공주의 배신을 똑똑히 확인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아아아아아악!”

리하이트는 분노 속에 창을 휘두르며 적벽성으로 달려갔다. 스치는 눈길에 추풍낙엽처럼 스러지는 동료들의 몸뚱이가 담겼다. 리하이트 님, 리하이트 님! 그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러댔다.

적벽성의 문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태껏 본 적 없는 화려한 차림을 한 벨로나가 한 손에는 그가 선물한 칼을 든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리도록 차가운 겨울이었다.

칼날 같은 바람이 헐벗은 은행나무의 가지를 거세게 스치며 지나 갈 때 마다 가지의 거친 결이 서로 맞부딪치며 기괴한 소음을 자아냈다. 적벽성의 수문장으로 하이텔 왕조의 탄생과 동시에 성문 앞에 심어졌던 500살의 나무는, 성벽을 넘어서는 키를 가지게 된 때부터 왕궁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성 밖의 존재였다.

그러나 오만 모진 세월을 겪어온 나무에게도 만 하루 만에 종결된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처음으로 접해보는 것이었다. 피비린내와 함께 썩어가는 죽음의 냄새가 성벽 안팎 할 것 없이 진동하고 있었다. 성안에서 성 밖으로 던져져 성 외곽에 쓰러져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은 이미 제 명을 다한 이들이었다.

목이 잘려나가고 얼굴이 뭉개져 형태조차 알아 볼 수가 없는 이들이 반이요. 배에서 창자가 쏟아져 내린 자들이 반이었다.

하늘에 드리운 먹구름에서 곧 떨어질 빗물에 섞여 나무의 뿌리로 삼켜질 피들이 이미 고인 웅덩이에 끊임없이 더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성 외부의 일만은 아니었다. 산자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울리고 있는 성벽 내부는 망자들의 넋조차 빠져나가지 못할 만치 참상의 빛을 띠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예고에 불과했다. 사상자와 부상자들의 피로 얼룩져 그 어떤 성보다 더 강렬한 붉은 빛을 띠고 있는 왕의 성채에는 이제 막,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스며드는 중이었다.

말을 잊은 채 벨로나의 앞으로 걸어가던 리하이트의 움직임이 문득 멎었다. 발에 뭔가가 채인 탓이다. 그의 발아래에,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복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왕가의 상징인 검은 백조가 새겨진 방패며 칼, 투구 등을 들고 최후를 맞이한 모습은 마치 왕궁을 지키려다 용맹하게 전사한 기사들처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던 지 간에.

그리고 그들의 바로 뒤에, 붉은 모피로 만들어진 화려한 망토를 두르고 죽어있는 뚱뚱한 남자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그의 머리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왕관이 그가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리하이트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 기이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손에 들려 있던 창을, 왕의 시체 위로 매다 꽂았다. 이미 죽은 자에게서는 아무런 비명도 나오지 않았다. 리하이트는 느리게 몸을 굽혀 왕의 머리에 올라간 왕관을 쥐어 잡았다.

몸을 바로 세운 리하이트는 처음부터 향하고자 했던 그의 목적지를 향해 느리게 걸음을 옮겼다. 시선이 맞부딪힌다. 벨로나의 눈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다가가고, 다가가다가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도달한 순간, 서늘한 칼날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다.

온통 피투성이가 된 자신과는 달리 때 한 점 묻지 않은 벨로나의 대립 구도는 마치 서로 다른 그림을 억지로 잘라 붙인 것처럼 어색해 보일 게 분명했다. 비록 손에 무기는 들려있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맨 손으로도 그녀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럴 마음은 들지 않았다.

이미 한참 전부터, 끊겨버린 제 동지들의 비명소리를 알아버린 탓이다. 살아남은 건 그 하나뿐이었다.

리하이트는 벨로나의 어깨 너머로 눈을 돌렸다. 그녀의 뒤, 단상 위에 황금 왕좌 하나가 외롭게 놓여있었다. 눈이 시리도록 찬란하다. 그렇기에 더욱 증오스러웠다. 당신이 저것 위에 앉는 순간을 보기를 얼마나 염원했던가. 결국 그 염원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문득, 목덜미에 닿은 칼날이 부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다.

리하이트는 입을 열었다.

“무엇을.”

그의 목소리가 텅 빈 궁내부 전체를 울리고 지나갔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베십시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벨로나의 녹색 눈동자에 수심이 가득 차올랐다. 리하이트는 그것이 가증스럽다 생각했다.

“당신은, 당신은 억울하지 않아?”

“무엇이요.”

“억눌려 살아가며 그대들이 꿈꾸었던 현실을 눈앞에서 놓친 것이 억울하지 않느냔 말이야.”

그 꿈을 좌절시킨 게 누구인데, 이런 소리를 해. 리하이트는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망스럽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증오스럽습니다.”

괜한 동정심에 내버려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신을 믿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잔뜩 가라앉았던 벨로나의 눈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물었다. 리하이트는 억지로 입술을 뒤틀어 웃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겁니까.”

목소리가 잔뜩 갈라져 흘러나왔다.

“어차피 이럴 생각이었다면, 그냥 제 목숨 하나만, 제 목숨 하나만을 빼앗아 갔으면 됐던 거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어째서!”

“하이텔 왕가에 등을 돌린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들이 아니었다.”

하, 리하이트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주먹을 꽉 말아 쥐고 눈을 감았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

“보셨잖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당신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라며 함께 웃으셨던 당신은...! 그것마저 거짓이라 말씀하는 겁니까?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를 자신들의 지도자라 믿고 의존한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들을, 어떻게...”

멍하니 중얼거리던 리하이트의 시선이 문득, 푸른빛의 창을 심장에 꽂은 채 죽어 있는 뚱뚱한 왕의 시신에 닿았다. 아, 그렇구나. 하하하, 허무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너무 우스워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하하하하하! 한참동안 웃어대던 리하이트는 뚝, 웃음을 멈췄다.

이제야 알겠다. 그녀는 반란군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명목하에 스스로가 한 일에 당위성을 부여할 계획인 것이다. 역사에 기록되길, 왕을 죽인 건 그가 되겠지.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 도구로 여겨 온 거군요. 속으로 저를 얼마나 비웃으셨습니까”

“...날 용서하지 마.”

“애초에 용서 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에 눈이 멀어 이토록 많은 이들을 죽게 만들었으니.

벨로나의 손에 억지로 왕관을 쥐어준 리하이트는 눈을 감은 채 칼날의 방향으로 목덜미를 깊숙이 들이 밀었다.

“그냥 베십시오. 모두가 죽었는데 홀로 숨 쉬고 있는 게 부끄럽습니다. 부디 더 이상은 저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미안해, 리하이트.”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목덜미에 뜨거운 게 차오르더니 곧,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촤악 붉은 선혈이 허공으로 흩뿌려진다. 벨로나는 리하이트의 목에서 튄 피를 뒤집어 쓴 채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냈다. 하지만 손에 묻어나는 건은 맑고 투명한 액체가 아닌 붉고 진득한 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내는 데 실패했다. 제대로 끊지 못한 숨통을 유지한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는 리하이트는 멍한 눈으로 내려다보던 벨로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를 올려다보는 리하이트의 눈동자에 증오의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부디 당신의 욕심으로 죽어간 이들을 잊지 마시기를.

여왕폐하

벨로나는 눈을 번쩍 떴다. 억지로 쥐어짜낸 그 말을 끝으로 리하이트의 입에서 나오던 헐떡거림이 멎었다. 마지막으로 덜컥 발작하는가 싶던 움직임마저 멈춘 후에는 더 이상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리하이트의 푸른 눈동자는 생명력이 빠져나간 채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벨로나의 손가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검이 떨어져 내렸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나를 여왕으로 불러주고 가는구나. 당신이 이 문턱을 넘은 순간, 당신의 입에서 결코 들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 호칭이다.

한참동안 멍하니 리하이트의 시체를 내려다보던 벨로나는 그의 눈을 감겨주려다가 결국 돌아서고 말았다. 그녀가 그의 시체에 손을 대는 건 그를 향한 모욕이었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억지로 집어 삼킨 벨로나가 걸음을 옮길 때 마다 피 묻은 발자국이 대리석에 고스란히 찍혀 나왔다.

그녀는 왕좌로 향하는 계단을 밟아 오르며 머리 위에 왕관을 올렸다. 사락 소리와 함께 피로 얼룩진 드레스 자락이 움직이고 그녀는 마침내, 황금 왕좌의 주인이 되었다.

장터를 내질러 달려가는 폴의 입에서는 씩씩거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야?”

투덜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하던 폴은 자신을 붙잡아 세웠던 금은방 주인을 떠올렸다. 이전에 폴이 물건을 훔쳤던 그 가게의 주인이 폴을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던 것이다. 공주님의 당부도 있고 해서 무시하고 가려는데 갑자기 불호령이 떨어졌다. 괜히 소란을 일으켰다고 또 한바탕 잔소리를 들을까 겁이나 폴은 걸음을 멈췄다.

또 다시 도둑질을 하면 죽여 버리겠느니, 뭐니 아저씨의 잔소리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붙잡혀 있었을까 한참이 지나서야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아빠!”

한달음에 집으로 돌아온 폴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리하이트 님!”

온 마을이 조용했다. 저 멀찍이서 몇 번 들어본 적 있는 새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을 뿐이다.

“대장님! 공주님이 준 편지를 가져왔어요! 리하이트 님!”

폴은 짧은 다리로 마을 곳곳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곳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다. 꼬마 폴은 잠시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혹시 낮에 그에게 무섭게 굴었던 그 아저씨들이 나머지 사람들까지 모두 데려가 버린 건 아니겠지?

폴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쪽지를 한번 만지작거리곤 허겁지겁 마을을 벗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공주님한테 말해야 해, 무서운 아저씨들이 우리 아빠랑 리하이트 님을 데려간 것 같다고. 얼른 구해달라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땀줄기가 이마를 흘러내리는 것도 아랑곳 않고 장터를 도로 가로질러 성으로 뛰어가던 폴은 생전 처음 맡아보는 이상한 냄새에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성벽 근처 저 멀리 아깐 본적 없는 붉은 산이 생겨 있었다. 활짝 열린 성문에서 몇 개의 마차가 들어갔다 나오길 반복했다. 병사들이 마차를 끌고 나와 그 위에 쌓인 것들을 내던질 때 마다 산이 점점 높아졌다. 폴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으로 걸어갔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상한 냄새는 짙어졌다. 어쩐지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하는 고약한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고 코를 틀어막은 폴은 멀리서 봤을 땐 붉은 색이었던 산이 사실 붉은 색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산의 앞에서 폴은 발을 들어올렸다. 발바닥이 끈적끈적했다. 마치 단 액체를 밟은 것처럼.

폴은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산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신발을 신는 산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다. 거기다 산은 옷도 입고 있었다. 산이 옷을 입다니? 그것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아...”

폴은 그 산에 그가 아는 얼굴 하나가 파묻혀 있는 걸 발견했다. 옆집 살던 페퍼 아저씨였다.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부릅 뜨인 눈에서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뭐해요? 다시 물어도 여전히 대답은 없다. 폴은 느리게 눈을 깜빡였다. 그의 이마 위로 똑, 하고 차가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고약한 냄새가 한층 짙어졌다. 느리게 고개를 들어 올린 폴은 그가 찾던 얼굴을 발견했다.

아빠가 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아빠의 눈은 폴을 향해 뜨여 있었지만 뒤집힌 눈 위로 보이는 건 새하얀 흰자뿐이었다.

“까아아아아아악!”

폴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시체 산 위로 쓰러졌다. 버둥거리며 그 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아저씨들이 제 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마냥 일어날 수 없었다.

“무슨 일이야!”

“웬 꼬마가...!”

주변에 있던 정체 모를 남자들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들리지 않는다. 누군가에 의해 몸이 강제로 떼어졌지만 폴은 아직도 저곳에 파묻혀 있는 것만 같았다. 이 냄새가, 냄새가 몸에 베였다. 냄새가 사라지지 않아. 냄새가, 냄새가...

“왜 이렇게 늦게 왔니, 폴.”

아빠가 속삭인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아들아. 네가 공주님의 편지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은 탓이야. 네가 공주님의 편지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 공주님이 화가 난 거야. 폴,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잘못...”

“정신 차려라, 꼬마야!”

“제가 잘못했어요.”

공주님의 편지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서...

“제가 잘못했어요, 공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폴은 두 손을 모아 빌었다. 공주님 잘못했어요. 부디 아빠를 살려주세요. 우리 대장님을 살려주세요. 편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신을 놓은 것 같은데?”

“일 났구먼, 얼른 멀리로 치워버리자고.”

“그러게 왜 이곳에 와가지고, 어린애가.”

쯧쯧, 누군가 혀를 찼지만 폴의 귀에 닿지 못했다. 폴은 계속해서 두 손 모아 빌었다.

이 소원이 공주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하이텔 력 756년. 공주 벨로나, 여왕의 자리에 오르다. 기사 칼리스를 공작위에 명하다.

하이텔 력 757년. 설화 ‘백성을 사랑한 금발머리 공주님’ 구전되다.

하이텔 력 759년. 벨로나 1세, 에트로시아 왕국을 스스로 제국이라 명명하다. 하지만 자신을 황제가 아닌 왕으로 부르라고 명하다.

하이텔 력 760년. 벨로나 1세, 루거스 후작과 혼인하다.

하이텔 력 762년. 국서 루거스 공, 의문사하다.

하이텔 력 763년. 벨로나 1세, 반란군의 시체를 화장한 동백 밭 위에 신전을 세우다.

참모 미켈, 대신관으로 임명되다.

.

.

하이텔 력 778년. 벨로나 1세의 남동생 스테판 대공, 황태자로 책봉되다.

하이텔 력 780년. 신전의 폐단이 극에 달하다.

.

.

하이텔 력 796년. 벨로나 1세, 신전의 대대적인 단속을 명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황손님들!”

“황손님들 제발 멈추십시오!”

“놔라, 감히 어디에 손을 대!”

굳게 닫힌 문틈 새로 흘러나오는 요란한 소음에, 커다란 초상화가 걸린 벽 앞에서 문서를 들여다보던 여자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한때는 탐스러운 금발이었던 머리카락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하얗게 변해 있었고 주름 하나 없이 매끈했던 얼굴은 이제 옛날의 얼굴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빛 바라지 않은 녹색의 그 눈동자는, 벽에 걸린 초상화와 이 여인이 동일 인물임을 방증하고 있었다.

“고모님!”

문이 벌컥 열리며 제각기 금발과 갈색 머리를 지닌 세 명의 청년들이 밀려들어와 그녀의 앞에 정렬해 섰다.

“고모님, 고모님께서 남부의 신전을 폐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래, 그리했다.”

“제가 전에 분명, 남부에는 제 소유의 신전이 있으니 폐하시려거든 북부의 신전을 폐해 달라 간곡히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북부에는 내 소유의 신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형님!”

왁자지껄한 소음들이 높아졌다. 바로 곁에 있던 약병을 조용히 집어든 황제는 약 두 알을 꺼내 목구멍 뒤로 삼켰다.

“걱정 마라, 남부의 신전만 폐하는 게 아니라 남부, 북부, 중부, 서부, 동부 전체의 신전을 폐하는 것이야. 뭐든 과할수록 좋지 않은 법이니 최소한의 신전만을 남겨두고 모두 폐할 것이다.”

“저희에게 언질 하나 없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 청년 중 유일하게 금발을 가진 가장 어린 청년이 못마땅하게 소리를 높였다. 스테판의 셋째아들 콜린 이었다. 어릴 적에 병치레가 잦아 가장 많은 걱정을 샀던 아이였지. 지금은 가장 무식하여 걱정을 사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고모님.”

콜린보다 한층 차분한 목소리였다. 둘째 조카인 파리스였다. 이 아이라면 이야기가 좀 더 잘 통하지 싶었다.

“그래, 파리스. 너도 내게 신전을 폐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싶은 거니?”

뭘 그리 당연한 걸 묻느냐는 눈빛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녀를 가장 잘 따랐던 조카였다. 그는 그녀에게 반한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모님의 결정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왜 자꾸 고모님께서 저희 황족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력과 제물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까?”

나이 스물을 먹고도 이런 철부지 같은 사고를 하다니. 벨로나는 새어나오는 한숨을 겨우 틀어막았다. 스테판을 키울 때 이런 식으로 키우지 않았다. 그렇기에 스테판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대체 스테판의 아이들은 왜 이런단 말인가. 동생의 자식교육 실패가 통탄스러웠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은 벨로나는 벤과 파리스, 콜린의 얼굴을 차례대로 응시했다. 이들이 왜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었다. 요즘 제 조카들이 미켈의 아래에 붙어 그의 뒤꽁무니를 졸졸 쫓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더니, 그게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미켈의 감언이설에 단단히 빠졌다면 지금 와서 어르고 달래봐야 늦었다. 두드려 팬다 해도 고쳐질 게 아니니 더 이상의 말다툼은 무의미했다. 아무래도 스테판과 함께 그의 후계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해봐야 할 요량이었다. 스테판이 죽고 그 아들이 황위를 물려받을 쯤엔 미켈도 죽고 없을 테니 이 아이들만 어떻게 제어한다면 스테판의 막내아들이자 유일하게 미켈의 사상에 물들지 않은 에릭을 황제위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황족이, 그리고 귀족이 제 배를 불리기 위해 제물을 끌어 모은다면 희생되는 건 백성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나는 퍽 당황스럽구나.”

역시나. 벨로나의 설명에도 그들은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지어보일 뿐이었다.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말문을 돌렸다.

“그러고 보니 이시르가 이제 막 두 살이 되었던가, 벤?”

“아, 네.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습니다. 이시르의 눈동자가 고모님의 눈동자와 똑같은 건 알고 계십니까? 다음에는 아내와 이시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파리스는...”

“곧 해산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잠깐 동안 달력에 시선을 고정했던 벨로나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러고 보니 곧, 축제날이었다. 그 말은 리하이트의 기일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걸 의미했다.

“아이 이름은 정했고?”

“남자아이면 라칸, 여자아이면 레이첼로 짓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기쁜 소식 들리겠구나. 이제 다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렴. 나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하지만 고모님...”

“너희의 고모가 황제라는 사실을 잊은 게 아니겠지. 가족들에게 마저 명령을 하고 싶지 않다. 업무에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 웃으며 돌아가는 게 어때.”

알겠습니다. 벤이 마지못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고개 숙인 세 청년이 들어올 때와는 달리 차분한 얼굴로 문을 나섰다. 벤이 나가고, 콜린이 나갔다. 하지만 파리스는 문 앞에서 돌아서 도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벨로나는 그에게 어리둥절한 시선을 보냈다.

“할 말이 더 남아 있느냐.”

“후회 하실 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고모님을 협박할 수 있겠습니까.”

말과 달리 목소리에는 기묘한 분위기가 풍겼다. 벨로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조카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러자 뭔가를 갈구하는 눈빛이 그녀에게 되돌아 왔으나, 곧 형체를 감추고 사라졌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녀를 향해 고개 숙인 파리스가 문을 나갔다. 벨로나는 쥐었던 펜을 서류 위로 내려놓고 몸을 돌려 자신의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후회는 이미 질리도록 했어...”

어슴푸레한 등불만이 성 안을 밝히고 있는 깊은 밤이었다.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있던 벨로나는 문득 느껴진 오싹한 한기에 집중하던 것을 멈췄다. 그녀가 느리게 몸을 일으켜 세운 순간, 그녀의 주변에 밝혀놓았던 등불이 훅 소리와 함께 꺼졌다. 동시에 그녀는 그녀의 몸이 누군가의 강한 힘에 억눌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벨로나의 거센 저항에도 상대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함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들여다볼 법도 하건만 문 밖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고모님.”

뜨거운 입김과 함께 귓가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소름끼치리만큼 익숙했다.

“파리스!”

“그러게 후회하실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감히...!”

있는 힘껏 몸을 비틀던 벨로나의 눈앞에 촛불하나가 들이밀어졌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놀라 눈을 찌푸렸던 벨로나의 눈동자가 곧 충격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벤과 콜린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는 미켈이 함께였다.

“너희가 어찌 내게 이래! 너희가 어찌, 컥!”

어느새 목 뒤로 덧씌워진 천 올가미가 그녀의 목을 옥죄기 시작한다.

“이런 공주마마, 참으로 우스운 몰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제를 공주라 부르며 그녀를 희롱하는 미켈을 보면서 벨로나는 점점 더 숨이 막혀 오는 것을 느꼈다.

“미친놈...!”

“때 마침 신전 토벌 관련 건에 사인하고 계셨군요. 이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대신관의 권한으로.”

책상위에서 서류를 들어 올린 미켈이 그것을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다.

“공주 전하를 황제로 만들어주면 제게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건 공주 전하십니다. 그런 주제에 내 권력이 너무 커지니 도로 뺏으려 들어? 안될 말입니다.”

“내가 약조한 건, 컥, 권력을 주는 것이지, 당신에게 황권을 넘보아도 좋다는 게 아니, 컥, 였어.”

“그렇습니까.”

잔잔하게 대꾸한 미켈이 그녀의 목을 옥죄고 있는 기다란 천의 끄트머리를 샹들리에에 걸었다. 그리고 그는 느리게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끼릭끼릭 흔들리는 샹들리에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당신이 주신 권력조차도 내가 원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를 힘도 뭣도 없는 대신관 나부랭이로 만든 주제에. 이름뿐인 지위의 권력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까지 너무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무슨 자리를 줬어도, 만족하지 못했을 걸 알아.”

“그랬겠지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게 제가 국서의 자리를 달라고 할 때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제 말을 놀리기라도 하듯 루거스 후작과 혼인 한 당신을 생각하면 아직도 이가 갈립니다.”

“당신이랑 자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미친년.”

다시 한 번 그녀의 목을 감싼 천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한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녀를 싸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던 미켈이 곧 얼굴 위에 웃음을 덮어쓰고는 그녀에게 다가와 느리게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공주 전하, 세 번만 묻겠습니다. 제대로 대답한다면 목숨만은 살려드리죠. 저를 이 꼴로 만든 지난날의 당신을 행동을 후회하십니까?”

그리고 벨로나의 목을 옥죄고 있던 천이 조금 느슨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

“세 번만 묻는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아직 상황파악이 안되셨군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지난날을 후회합니까?”

“후회하지 않는다.”

고집스러운 그녀의 대답에 미켈이 느리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십시오.”

“...한다.”

“예?”

“후회한다.”

체념한 듯 이어지는 그녀의 잔잔한 대답에 일순 정적이 늘어지다가, 미켈의 웃음소리가 허공으로 터져 나왔다.

“목숨이 간당간당하니 이렇게 비굴해지시는...”

“네가 나를 처음 배신했던 그 때, 너를 죽였어야 했는데.”

“이런.”

그의 표정이 엉망으로 일그러졌다.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 되십니까, 공주 전하?”

“공주라고 부르지 마라.”

“살려 달라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나는 황제다.”

“빌어! 빌어! 빌란 말이야! 당장 후회한다고 말해!”

“나는 후회하지 않아. 죽이려거든 죽여. 지옥에라도 가서 네 놈 아래 놓일 내 조국이 망하지 않길 기도해야하니까.”

“닥쳐!”

편안해졌던 목이 다시 옥죄어 지고, 그녀는 고개를 꺾었다. 그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그 때 잠깐 눈이 멀었었지.”

미켈이 중얼거렸다.

“날 진짜 권력자로 만들어줄 허수아비 왕자를 내치고 이 여자를 왕위에 올릴 생각을 했다니. 그 때의 내가 잠깐 눈이 멀었었어.”

누가 할 소리를. 애초에 저 남자의 손을 잡지 말았어야 했는데.

“처리해라, 파리스.”

미켈의 손에 쥐어져 있던 밧줄이 파리스의 손으로 넘어갔다. 벨로나는 몸이 점점 위로 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목을 옥죈 밧줄을 부여잡고 최대한 버둥거리지 않으려 애썼다. 저 남자에게 살기 위해 발악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벨로나는 점점 정신이 몽롱해지는 걸 느꼈다. 그 틈에서 파리스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다.

권력 때문에 날 배신한 주제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슬퍼하느냐, 속으로 생각을 집어삼키던 벨로나는 곧 깨달음을 얻었다. 파리스는 그녀의 과거였다. 권력 때문에 리하이트를 배반하고도 그의 죽음에 슬퍼했던 그녀가 어찌 파리스를 욕할 수 있겠는가. 권력의 맛을 한 번 맛 본 자들은 이 아이에게 돌을 던질 수 없으리라.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뱉었다.

하이텔 력 799년. 벨로나 1세 자살로 생을 마감하다.

하이텔 력 800년. 동화 “백성을 사랑한 금발머리 공주님” 출간되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그녀는 여전히 알리사 더스트였다.

달라진 것이라곤 알리사 더스트의 기억에 벨로나 하이텔의 기억이 추가됐다는 것 밖에 없었다. 그것뿐이었는데, 그녀는 더 이상 알리사 더스트가 아니었다. 벨로나 하이텔로 살아온 기억이 알리사 더스트로 살아온 지난 20여년의 기억을 억누르고 있었다.

알리사는 양손으로 두 눈을 가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알리사 더스트가 된 것은 벌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 아래 권력을 탐한 그녀에게 내려진 벌. 그리고 알리사 더스트가 된 지금 제니아와 코렌카에게 버림받은 것 역시 벌이었다. 그녀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곁에 소중한 사람을 만들겠는가.

리하이트와 미켈. 두 사람의 생각이 동시에 났다. 누가 먼저랄 것은 없었다. 알리사 더스트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시르의 행동들을 벨로나 하이텔은 이해하고 있었다. 벨로나가 알리사가 되었듯, 리하이트는 이시르가 된 것이다. 과거와는 완전히 뒤바뀐 신분이라니 희극도 이런 희극이 없었다.

하지만 그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녀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리하이트를 만나겠는가.

하지만 미켈은 아니었다. 벨로나 하이텔에게 미켈 브릴리언트는 어젯밤 그녀를 죽인 원수에 지나지 않았다. 죽음을 목전에 둔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미켈이 권력을 잡은 이 제국은 그녀가 기억하는 그녀의 고향이 아니었다. 더 늦기 전에, 백성들이 더 고통 받기 전에 바로 잡아야했다. 전생의 그녀가 저지른 업보이니, 이것은 그녀가 해결해야만 했다.

그러고 보니 미켈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었지. 아마 과거의 벨로나 하이텔과 똑같이 생긴 이 외모 때문이었으리라. 아마 다시 그를 찾아가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겠지. 미켈은 그녀에게 얼마든지 그를 찾아오라고 했다.

알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올려 묶었던 머리를 풀어 내렸다. 그런 다음 대충 아무 상점에나 찾아들어가 허름한 옷과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옷의 불확실한 출처에 거부하던 상인도 옷감이 좋은 것이란 걸 알아차리곤 선뜻 바꿔주었다.

예상은 했지만 신전 측은 대신관을 보게 해달라는 알리사의 말을 거절했다. 그들은 재차 요구하는 알리사에게 대신관 님은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

“알리사 더스트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대신관님이 평민들 이름을 어떻게 하나하나 기억하시겠습니까. 제발 돌아가세요. 가지 않는다면 기사를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간다 해도 내일 역시 만날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었다. 지금의 알리사에게 그의 일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대로라면 기약 없는 방문만이 계속 될 것이다.

알리사는 미켈의 집무실과 이어진 통로로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가 빠져나오고 있는 걸 보니 미켈이 집무실에 있긴 한 모양이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어요.”

“거기는 출구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냥 신께 개인 기도를 좀 드릴까 하고...”

그녀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업무 담당자는 잠깐 미심쩍은 표정을 짓고는 다음 사람을 응대하기 시작했다. 알리사는 예배실 방향으로 걸어가며 미켈의 집무실 쪽을 곁눈질했다.

누군가 따로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지금이 기회였다.

알리사는 곧장 미켈의 집무실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봐요!”

역시나, 그녀가 채 닿기도 전에 그녀를 발견한 업무 담당자가 그녀를 향해 소리 질렀다. 알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나더니, 손목이 붙잡히고 어깨가 강제로 눌려 내려졌다. 그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나자빠졌다. 그녀를 제압한 남자들이 강한 힘으로 그녀를 내리 눌렀다.

“대신관 님은 안 된다니까, 이 여자가 진짜!”

넘어지며 충격을 받은 온 몸이 고통스러웠지만 성과는 있었다. 미켈의 집무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것이다.

“무슨 소란이지?”

“아, 아무 것도 아닙니다, 대신관 님. 미친 여자 하나가...”

“대신관 님!”

알리사는 재빨리 담당자의 말을 가로챘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알리사 더스트 양?”

“부탁드려요.”

애써 짜내려 하지 않아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알리사는 미켈의 눈에 수많은 감상이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는 중이리라. 그녀는 악의 어린 웃음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아냈다.

“물론입니다.”

“대신관 님, 아는 여자입...”

“쉿.”

미켈의 그림자가 그녀의 위로 밀려들었다. 알리사는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진 교활한 얼굴을 보았다.

“제가 얼마든지 찾아와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미켈의 집무실은 지난 번 방문했을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아니 시간을 더 돌려 20여 년 전과 비교해도 그러했다. 그 때에 비해 좀 더 낡아진 가구들만이 그 위치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황제였던 때, 물은 적이 있다. 왜 이렇게 한결같은 방 안에서 지내냐고.

“내 자리가 아닌데 정을 붙여 무엇 하겠습니까. 꾸미는 행위도 애정을 가질 때나 가능한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으로 욕심 많은 대답이었다. 당시의 벨로나는 그런 그의 욕망 어린 대답을 부러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지금은 무시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죽음 이후, 대신관이었던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얻었다. 그럼에도 방을 꾸미지 않았다는 건 아직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리라.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집무실을 관찰했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 자연스럽게 눈을 내리 깐 알리사는 침착하게 대꾸했다. 찻잔은 따뜻했다. 밖에 오래 있어 얼어있던 손이 녹자 남아있던 약간의 긴장감마저 사라져버렸다.

“조금 바뀐 것 같군요.”

“예?”

“알리사 양 말입니다. 차 한 잔 마시는 것에 벌벌 떨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 기분 나빠 하지는 마세요. 긴장한 것 같아 풀어주려는 농이었습니다.”

이전의 알리사 더스트라면 그렇구나, 하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미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가 담겨 있다는 걸 벨로나 하이텔은 알고 있었다.

알리사는 행동을 조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의심할 여지를 줘서는 안됐다. 물론 제 아무리 미켈이라 하더라도 그 벨로나 하이텔과 이 알리사 더스트가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잠깐, 같은 사람? 벨로나 하이텔과 알리사 더스트는 같은 사람인가? 그녀의 전생이 벨로나 하이텔이었다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알리사 더스트였다. 하지만 그렇게 구분 짓기에, 알리사 더스트는 벨로나 하이텔이 시작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 알리사 더스트인가, 벨로나 하이텔인가.

“...사 양?”

혹은 그 둘 중 무엇도 아닌 다른 존재인가?

“알리사 양!”

“아,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저를 만나러 와서 딴 생각을 하는 걸 보니 그간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제 생각엔 알리사 양이 제게 그것과 관련해 도움을 청하러 온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그래, 지금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맞습니다, 대신관 님.”

당장은 눈앞의 이 남자를 어떻게 지옥으로 밀어 넣을지 생각해야 했다.

“그러고 보니 알리사 양이 여왕폐하의 초상화를 보길 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축제기간이라 초상화가 이곳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려도...”

“괜찮아요, 이미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미켈의 눈이 가늘게 변한다. 필시 그녀의 표정을 살피는 것이었다.

“폐하의 초상화를 보셨다면 뭔가 느낀 게 있으시겠군요.”

“네.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제게 벌어졌던 그 일들이 전부 납득 갈 정도로.”

체념과 자조를 섞어 내뱉은 그 말에, 미켈의 눈썹이 곡선을 그리며 휘어졌다. 알리사는 머뭇거리는 시늉을 했다.

“실은 오늘 제가 여기 찾아온 것도 제 외모가 여왕 폐하와 닮아서 겪은 일들 때문이에요.”

“저런, 그게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지난 1여 년 간 찾아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했거든요.”

할 말을 따로 생각하고 오진 않았는데 미켈이 눈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하나같이 같잖아서 그런 지, 연습이라도 한 마냥 대사가 술술 튀어나왔다. 어쩌면 아주 거짓말은 아니라 그런 걸지도 몰랐다.

“그러고 보니 안색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례가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대신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절 꼭 도와주신다고 약조해 주세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멍청한 자식. 제 스스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것도 모른 체 좋다고 아가미를 벌리는구나.

“제가 대신관 님을 처음 뵀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그 날은 모니카 황비가 황후를 독살 한 날이었다. 혹여나 황비의 범행이 들키기라도 할까 노심초사 했던 그 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미켈은 입술을 잘게 씹었다.

“그 전의 저는 하이텔 공작가의 하녀였습니다. 둘째 아가씨인 엘리자베스 아가씨를 모시는 전속 하녀요.”

알리사는 그녀에게 살갑게 대했던 금발의 소녀를 기억했다. 엘리자베스, 네가 내 조카 손녀였구나. 벨로나를 닮은 엘리자베스를 가장 아꼈다던 황태자는, 리하이트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엘리자베스를 동생으로 사랑하면서도 과거 그를 배신했던 그녀가 생각나 괴로워했을까.

“그리고 도망치기 며칠 전, 돌아가신 여왕 폐하를 닮았다는 이유로 하이텔 공작님께 겁탈당할 뻔 했어요. 당시에는 고모님과 닮았다는 공작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파리스는 살아생전 그녀를 가장 잘 따랐던 조카였다. 그리고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 그녀를 죽였다. 죽음의 순간, 그 누구도 그 아이를 탓할 수 없다 여겼는데 이젠 아니었다.

알리사는 파리스가 미켈 만큼이나 증오스러웠다. 권력에 눈이 멀어 그녀를 죽인 주제에, 그녀를 그리워하며 그녀를 닮은 하녀를 제 멋대로 취하려 들다니. 조카가 그녀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쳤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도저히 수도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쳤는데,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과거 황궁에서 일했다던 사람이 여왕폐하를 들먹이며 접근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살을 조금 덧붙인 이야기에 미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런, 그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습니다.”

알리사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요컨대, 알리사 양은 정착할 곳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좋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니 말입니다.”

"아니야."

"아니긴요, 손이 부르터서 피가 철철 나는데요. 이런 건 저한테 시키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고 계신 뜨개질 거리도 이리 내요."

"이건 내가 할래. 막 재미있어지려던 참인데."

"어허."

바바라의 단호한 눈빛에 엘리자베스는 잔뜩 풀이 죽어 털실과 대바늘을 앞으로 내밀었다. 바바라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건 알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녀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매섭게 구는 것에 약했다.

"손이 다 나으면 하게 해 드릴게요."

"정말?"

"네, 하지만 한 번만 더 설거지하다가 저한테 걸리면 뜨개질이고 뭐고 쫓아내는 거로 아세요."

"알았어, 바바라."

"이번엔 진짜예요. 더 봐주고 뭐고 없어요."

"응!"

언제나 그랬듯 대답은 잘하지. 바바라는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내가 뭐 도울 거 없어?"

"없어요. 있다 해도 손이 낫기 전까진 시킬 생각 없으니 얌전히 계세요."

"응."

풀 죽은 강아지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의자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제법 안쓰러웠지만 바바라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또 봐줬다간 엘리자베스의 손이 또 엉망이 될 테고 그럼 바바라는 귀족 아가씨의 손을 저렇게 만들었다며 죄를 추궁당하는 꿈을 또 꾸게 될 것이다. 물론 꿈이 실제가 된 적은 없었지만 바바라는 늘 불안했다.

"그러고 보니 아가씨가 여기서 봉사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아직 그것밖에 안 됐어? 더 오래된 줄 알았는데."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에서 놀람이 느껴졌다. 바바라는 엘리자베스를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겠거니 하고 지레짐작했다. 한 달도 안 돼 그만둘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반년이나 가서 제법 끈기가 있는 아가씨라고 여겼는데 역시 귀족 아가씨에게 이런 험한 일이 맞을 리가 없다. 일이 힘드니 더 오래됐다고 여기는 거겠지. 이제 지칠 때가 되기도 했다.

바바라는 빈민 구제 봉사단의 단장이었다. 그녀의 가정 형편 역시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남편의 장사가 꽤 잘되는 편이라 평민 중에서는 보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어렸을 적 사흘에 한 번 빵 한 조각 겨우 먹는 날을 경험해 봐서 가난의 설움을 알고 있었던 바바라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길가에 돌아다니는 거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것이었다.

남들도 입에 풀 붙이고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라 그녀와 뜻을 함께 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으로도 족하다 여겼다. 그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다 봉사단을 모집하기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어느 여름날, 엘리자베스가 봉사단의 문을 두드렸다. 엘리자베스는 성을 밝히길 끝끝내 거부했지만, 그녀가 귀족 아가씨란 걸 숨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그보다 아가씨, 매번 이렇게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들어가시는데 집에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걱정하죠, 보통 귀족 아가씨들은 호위기사를 하나씩 데리고 다니던데 아가씨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혹시 막 몰래 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

장난삼아 슬쩍 덧붙인 물음에 어색한 침묵이 늘어졌다. 바바라는 뜨개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음."

"잠깐만요, 정말이에요?"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그럼 아가씨가 여기에 봉사 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응."

"설마 누군가가 알았을 때 저희한테까지 피해가 오는 건 아니겠죠?"

걱정스러운 바바라의 물음에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어렸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사실 안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화낸다고 해도 나한테 화를 내겠지. 바바라한테 피해는 없을 테니까 안심해도 돼."

여전히 걱정됐지만, 그녀가 그렇다면 그런 거였다. 바바라는 믿어보기로 했다.

"그보다 바바라가 나한테 사적인 질문한 거 이번이 처음인 거 알아? 나는 바바라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기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실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게다가 저희 평민들은 귀족 앞에서 늘 말조심 해야 하는걸요."

"내 앞에서는 안 그래도 돼. 나는 같이 대화하는 게 좋아."

그녀가 그렇게 말하니 어쩐 지 대화를 계속해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바바라는 입술을 다문 채 눈을 굴렸다. 대화 주제, 대화 주제가 뭐가 있지?

"그럼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뭔데?"

"아가씨는 어쩌다 우리 봉사단을 찾아오신 거예요?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귀족이라면 차라리 적선하지 이렇게 직접 일하진 않으니까요."

엘리자베스가 자세를 바꿔 앉았다. 바바라는 뜨개질 거리를 무릎 위로 내려놓고 엘리자베스를 응시했다. 엘리자베스는 뭔가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거든."

그리고 이어진 대꾸는 완전히 예상 밖이었다.

"옛날에 내 하녀였던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그랬어. 사랑받고 싶으면 그만큼 베풀면 된다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면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만족하세요?"

"아니, 전혀."

엘리자베스는 웃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내가 돌보는 이들이 날 사랑해주고 있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애초에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과연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가 봐 아무리 해도 부족해."

바바라는 엘리자베스가 끊임없이 일감을 찾았던 이유를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젠 괜찮아, 옛날에는 왜 다들 날 사랑해주지 않는지 원망하면서 혼자 앓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에 있으면 내가 진짜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서 나는 바바라랑 일하는 게 좋아."

바바라는 고개를 느리게 기울였다가 바로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지만, 표정은 조금 달랐다. 외로움. 엘리자베스의 얼굴에선 그게 느껴졌다.

"엘리자베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빠르게 복도를 가로질러 방문을 여는 순간 들려온 나지막한 부름에 엘리자베스의 발걸음이 멎었다. 엘리자베스는 반쯤 열었던 방문을 닫고 느리게 뒤돌아섰다. 테오였다.

"무슨 일이죠, 시트리안 공자님?"

격식 차린 엘리자베스의 말투에 테오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나랑 얘기 좀 해."

"저는 공자님과 할 얘기 없어요."

"잠깐이면 돼, 엘리자베스."

"돌아가세요. 저랑 공자님이 사적인 대화를 나눌 사이는 아니잖아요?"

엘리자베스의 단호한 말에 테오가 재빨리 양쪽 무릎을 꿇고 엘리자베스의 왼손을 붙잡았다.

"제발, 리지. 나는 너랑 이렇게 지내기 싫어."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매몰차게 테오의 손을 뿌리쳤다.

"내 눈앞에서 꺼져, 테오 시트리안. 나는 정말 너랑 할 말 없어."

"내가 뭘 하면 돼?"

엘리자베스가 다시 문고리를 잡은 순간 테오의 다급한 물음이 이어졌다.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내쉬고 몸을 돌렸다.

"테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알리사를 그런 식으로 빼돌린 순간부터 우리 인연은 끝이었어. 끝. 그런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나랑 연 끊을 각오하고 한 행동 아니었어?"

"말했잖아, 내가 빼돌린 게 아니라고."

"그래 네가 빼돌린 건 아니겠지. 빼돌리려 했는데 알리사가 제 발로 사라진 거였으니까. 그럼 뭐해? 네가 떠나라고 협박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 날 알리사랑 너랑 둘만 두는 게 아니었어."

"그 애가 수도에 남아있었어도 너랑 함께 있진 못했을 거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네 곁에 있을 수 있었겠어?"

"그랬겠지. 하지만 이시르 오라버니 곁에는 남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럼 나랑 헤어질 이유도 없었잖아."

조목조목 따져오는 엘리자베스에 테오는 할 말을 잃었다. 엘리자베스가 몸을 돌렸다. 잠깐만, 테오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알리사는 황태자 전하의 곁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았어. 수도에 있었어도 네 곁에 없었다는 건 똑같아."

"그래도 종종 얼굴은 볼 수 있었겠지. 하지만 너는 그마저도 못하게 만들었잖아."

"제발."

테오가 다급하게 읊조렸다.

"고작 몇 달 알았던 하녀잖아. 그 몇 달의 인연 때문에 소꿉친구인 날 버리겠다고?"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네가 내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갔다는 것밖에 없어."

"그 애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 물론 그건 아니지."

"그럼 왜?"

"네가 내게 소중했던 건 맞지만, 네가 내게 소중한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그것 뿐이야. 이제 그만 돌아가, 테오. 나 피곤해."

엘리자베스의 차가운 반응에 테오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엘리자베스가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체 뭘 해야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뭘 해야 엘리자베스와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지? 뭘 해야...

"내가 알리사를 다시 데려오면, 그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몸을 완전히 돌렸던 엘리자베스가 느리게 그를 돌아보았다. 테오는 초조하게 입술을 짓씹었다.

걱정과 달리 알리사가 사라지고 난 이후, 황태자 전하께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사라졌다는 말에 잠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나 싶더니 곧 무덤덤하게 넘어갔을 뿐이다. 그리고 모든 게 빠른 속도로 일상으로 돌아왔다. 마치 알리사를 만나고 변했던 황태자 전하가 모두 거짓이었던 것처럼.

그러니 이제와서 알리사가 돌아온다 해도, 걱정할 것은 없는 것 같았다.

"그래."

엘리자베스의 대꾸에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알리사 스스로가 돌아오겠노라고 얘기했을 때의 일이야. 알리사를 멋대로 쫓아낸 네가 다시 알리사를 협박해 데려온다면 너랑은 정말 다시 볼 일 없어."

"물론이지, 엘리자베스."

"이제 그만 가."

엘리자베스의 방문이 탁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녀의 문 앞에서 화색 한 후 집으로 돌아오던 테오는 다시 암담해지는 걸 느꼈다. 알리사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고 쫓아냈는데 그녀가 과연 덤덤하게 돌아오겠다고 할까? 변덕을 부리는 그에게 욕을 하며 쫓아내지 않는다면 다행이었다.

아니, 그 전에 알리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지? 알리사 스스로 사라졌으니 찾을 수 있는 길이 요원했다. 만약 타국까지 흘러갔다면 세상이 두 쪽 나도 그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아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국내에 있을 거야."

테오는 자신을 다독이며 생각에 잠겼다. 국내에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수배지를 붙이는 게 가장 빠를 것이다. 하지만 수배지를 붙였다간 알리사가 더 깊숙이 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그럼 또 무슨 방법이 있지? 사람을 풀어서 찾을까? 쉬이 볼 수 있는 외모는 아니니 수소문하다 보면 금세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금발과 푸른눈, 거기다가 미인이기까지 한 이들이 그렇게 적진 않을 것이지만 그녀의 금발은 유독 눈에 띄었다. 엘리자베스와 같이 백색에 가까운 금색이었으니.

그래, 저 앞에 있는 저 여자처럼 딱 저런...

"어어?"

테오는 손가락을 든 채로 입을 뻐끔거렸다. 신전 안으로 걸음을 들여놓는 이의 옆모습이 익숙했다.

"뭐야."

저 애가 어떻게 여기에 있지? 테오는 헛것이라도 보는 게 아닌가 했다. 그는 홀린 듯이 신전으로 발걸음을 들여놓았다. 신전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테오에게 알은체했지만 그는 무시했다.

테오가 쫓는 이는 신전 안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듯 수많은 사람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지나갔다. 그러다가 그녀가 걸음을 멈춰 세웠을 때, 테오 역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는 듯했다.

누구지? 석상에 가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테오는 고개를 빼꼼 앞으로 내밀었다. 미켈 대신관이다. 테오는 다시 그가 쫓고 있던 이의 얼굴을 확인했다. 틀림없다, 그녀는 틀림없이 알리사였다.

하지만 어째서 알리사와 미켈 대신관이 저렇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단 말인가. 게다가 수도를 떠나 없어야 할 알리사가 어떻게 신전에 있지? 돌아온 건가? 아님 애초에 떠난 적이 없었던 건가?

아니, 그건 아닐 것이다. 켄 경이 틀림없이 사라졌다고 말했으니. 그럼 돌아왔다는 건데 어떻게 알리사와 미켈 대신관이 아는 사이일 수 있지?

황태자 전하가 알리사를 비로 삼겠다고 했었는데, 미켈 대신관과 알리사가 잘 아는 사이라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황태자 전하는 이미 알고 알리사를 비로 삼겠다고 했던 걸까? 아니, 황태자 전하께서 미켈 대신관에게 좋은 일을 할 리가 없는데. 뭐야, 뭐야, 대체 뭐야.

"오랜만이네요."

한참을 고민하고 섰던 테오는 갑자기 그의 앞에서 들려온 음성에 어깨를 움찔했다. 테오는 숙였던 고개를 들어 올렸다. 알리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느낌 탓인가?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시트리안 공자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진 모르겠지만 눈앞의 알리사는 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이전의 알리사라면 모르긴 몰라도, 그에게 먼저 인사하는 이런 대범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어어, 오랜만이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목소리가 조금 떨려 나왔다. 테오는 부끄러워졌다.

"그간, 큼, 잘 지냈어?"

"네, 덕분에요."

뼈가 있는 그 대꾸에 테오는 차마 알리사에게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당장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그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다음에 또 보자."

테오는 허겁지겁 신전을 빠져나왔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귀족인 그가 천민 여자한테 쩔쩔매다니. 누군가가 안다면 그를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오다가 그는 그녀가 수도에 계속 있을건지, 머물 거라면 거처가 어디인지조차 묻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차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다.

뭐지.

알리사는 생각했다.

지난번에 시트리안 공자를 마주친 이후로 그가 언제 한 번쯤 말을 걸어올거라 생각했는데 그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모양이다. 테오는 그녀에게 말을 거는 대신 그녀를 미행하는 걸 택한 모양이었다. 제딴엔 들키지 않고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애석하게도 알리사는 테오가 그녀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눈에 띈 것도 어언 2주 째였다. 분명 수도를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1년 새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다.

그보다 시트리안이라. 테오가 공자이니 그는 칼리스의 친손자인 모양이다. 그러고보니 칼리스와 테오는 제법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리운 이름이다. 여왕의 기사이자 전우였던 그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칼리스는 20여년 전 건강 문제로 정계에서 완전히 발을 뺐었으니 지금쯤은 죽고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켈이 살아있는 게 가히 기적이라 할 수 있었다. 욕 많이 듣는 놈이 오래산다더니, 미켈이 그 산 증인이었다.

그보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셈이지? 알리사는 참지 못하고 몸을 돌려 테오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런 그녀를 발견한 테오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리는 게 보였으나 알리사가 더 빨랐다.

"시트리안 공자님."

그녀의 부름에 테오가 어깨를 움찔하더니 느리게 몸을 돌려 세웠다.

"안녕, 알리사. 또 보네."

"그러시겠죠, 요 며칠 동안 절 쫓아다니셨잖아요. 무슨 일이세요? 다시 떠나라는 요구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그녀의 직설적인 물음에 테오는 당황한듯 눈을 굴렸다.

"어, 그게 말이지. 엘리자베스를 만나러 가주면 안될까?"

“엘리자베스를 만나러 가주면 안 될까?”

“제가 왜요?”

뜸을 들인다는 게, 대꾸가 너무 빨랐던 모양이다. 테오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드는 게 보였다.

아, 그렇구나. 알리사 더스트가 보일만한 반응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왜냐니, 너는 엘리자베스랑 친했으니까...”

“그게 제가 엘리자베스 아가씨를 만나러 가야하는 이유인가요?”

“어, 거기다가 엘리자베스가 널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여전히 제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녀의 말이 허를 찌른 듯 테오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알리사는 느리게 한숨을 내쉬었다.

“전 엘리자베스 아가씨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왜, 왜?”

“황태자 전하의 곁에 있지 말라면서 절 쫓아낸 건 공자님이시잖아요. 황태자 전하의 주변에는 엘리자베스 아가씨도 포함된 게 아닌가요?”

“그 땐 물론 그랬었지만, 이젠 사정이 좀 달라졌어.”

“달라졌다고요? 황태자 전하께서 더는 제게 관심 가지지 않겠다고 하셨나요?”

딱히 의미를 두고 던진 물음은 아니었는데, 정답이었던 모양이다. 테오가 어떻게 알았냐는 눈빛을 그녀에게 보냈다. 듣던 중 다행인 일이었다. 그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모양이지.

“그렇다면 더더욱 잘 됐네요, 이 수도에서 언제 또 내쫓길지 몰라 전전긍긍할 일이 더는 없으니.”

“그럼 엘리자베스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혹여나 지나가다 마주친다면 인사드리겠지만 따로 찾아 뵐 생각은 없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시트리안 공자님.”

엘리자베스를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엘리자베스를 만나겠는가.

그녀가 조카들을 미켈의 꾐에 넘어가게 두지 않았더라면, 아니 앞서서 파리스의 머릿속에든 생각을 알고 엄하게 다스렸다면, 엘리자베스가 고통 속에 태어나 상처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녀를 가장 많이 닮았을 조카 손녀가, 그녀와 같은 불행 속에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난 뒤에, 잘못 닦은 이 길을 모두 제자리로 옮겨놓은 후에, 떳떳하게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마주하자.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그녀를 볼 자신이 없다.

“멈춰, 알리사.”

몸을 완전히 돌려선 알리사를 테오가 다시 한 번 붙잡았다. 테오의 얼굴을 마주한 알리사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테오에게서 아까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났다. 억지만으론 안 된다는 걸 알아채고 다른 방법을 쓸 모양이다.

“눈감아 줄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아닌 것 같네. 나는 너랑 미켈 대신관의 관계를 알아야겠어. 그는 황태자 폐하의 정적이다. 그런 미켈 대신관과 네가 어떻게 연결 된 사이기에 서로 친밀한 거지?”

“미켈 대신관님이 황태자 폐하의 정적이라고요?”

알리사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 체 했다. 테오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의 능청스러운 연기에 속아 넘어간 것 같지 않았다.

“저는 그저 일개 천민일 뿐이라, 정치에 대해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거지. 일개 천민인 네가 미켈 대신관과 아는 사이란 게.”

“수도에 다시 돌아와 갈 곳 없이 헤매고 있는 제게 거처를 마련해주신 분이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며 알리사는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게 애썼다.

“미켈 대신관이 천민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 욕심 많고 추악한 노인네가?”

“시트리안 공자님. 공자님께서 그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게는 은인이나 다른 없는 분이세요. 제 앞에선 자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허, 테오가 헛웃음을 쳤다. 알리사도 스스로에게 헛웃음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애써 꾹꾹 눌러 참았다.

“네 말에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너는 그것에 책임을 지게 될 거다.”

“개인의 사욕 때문에 정적일지도 모르는 절 눈감아 주려하신 시트리안 공자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알리사의 조용조용한 대꾸에 테오의 얼굴이 사정없이 일그러졌다.

“알리사, 내가 네게 허물없이 대했다고 해서 네가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야. 네 신분을 자각하고 주제를 아는 게 어때.”

“시트리안 공자께서는 변한 게 없으시네요. 제가 수도를 떠나던 날도 지금처럼 제 신분을 빌미삼아 절 협박하셨죠.”

“그 날은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서 지금도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고. 네가 아닌 다른 천민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면 진작 목이 날아갔을 거다.”

글쎄, 정말 미안했다면 그녀의 앞에 뻔뻔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겠지. 자비로움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 난 그 모습이 으레 귀족들이 평민들이나 천민들 앞에서 행하곤 하는 연기와 다를 바 없어보였다.

하지만 알리사는 지적하지 않았다. 방금 그 말도 벨로나를 자각한 알리사가 아닌 그냥 알리사였다면 하지 않았을 말이다. 원래의 알리사라면 진작 머리를 숙이고 이 자리를 떠났겠지. 그게 맞다. 그게 천민 신분의 알리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미 강을 반쯤 건너온 지금, 더 이상 지적한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렇군요. 무례를 범해 죄송합니다, 시트리안 공자님. 그럼 안녕히 가세요.”

테오도 더 이상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황태자 전하, 테오 시트리안 경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던 이시르의 손길이 멎었다. 업무 중일 때는 누구도 들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어긴걸 보면, 꽤 급한 모양이었다.

“들어와라.”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테오가 요란하게 들이닥쳤다. 문을 쾅 소리 나게 닫은 테오의 다급한 걸음이 소파 앞에서 멈췄다.

“무슨 일이지, 시트리안 경?”

“알리사가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서류위에 사인하던 이시르의 손이 멈췄다. 이시르는 입술을 지그시 씹으며 다음 서류를 꺼내들었다. 동요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생각이었다.

1여 년 전, 알리사가 사라진 그 날 이시르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눈앞에서 뻔뻔하게 알리사의 부재를 고하던 테오가 뭔가 수를 썼다는 건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를 추궁할 마음은 들지 않았다. 이시르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오히려 알리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안도했기 때문이다.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다. 그녀를 향했던 분노는 그녀의 부재와 함께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마냥.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의 진짜 감정을 마주했다. 빌어먹게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배신을 알게 되고 죽음을 맞이했던 순간은 물론이거니와 수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그녀를 증오해왔으며 사랑해왔다. 그는 그런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다. 그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선 그녀를 곁에 두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싶었다. 그녀로 인해 죽어간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느껴서는 안 될 감정들이었다. 사랑이라니, 스스로를 향한 원망이라니! 그가 증오하고 원망할 대상은 단 하나 밖에 없었다. 그와 마을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 간 그녀가 아니라면 누구를 저주하겠는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반란의 날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어야 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그의 역린이었다. 그녀와 하이텔 공작저의 동백정원에서 재회한 그 순간부터, 그녀가 그의 역린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안도했다. 차라리 그녀가 두 번 다시는 그의 눈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했다. 가끔은 생각이 날지도 모른다. 그의 기억 속에 나타나 또 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녀를 만난 이후로 종종 꿔왔던,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울부짖는 악몽을 다시 꾸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뿐이다. 그는 얼마든지 그의 죄 값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었다.

“내게 그 얘기를 왜 하지? 이제 더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

“다른 의미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미켈 대신관이 알리사를 이용할 셈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지?”

날카로운 무언가가 몸 전체를 관통하고 지나간 느낌이었다. 이시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제 생각엔 황태자 전하께서 알리사에게 관심을 가졌었다는 걸 미켈 대신관이 알아차리고 접근한 것 같으니 조심하십시오. 전하께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신다곤 했지만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여 알리사가 전하께 접근하더라도 상대하지 말고... 전하?”

태평하게 말을 이어나가던 테오는 이시르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전에 본 적 없는 험악한 표정이 지어져 있었다.

“미켈 대신관이 벨로나에게?”

“갑자기 여왕 폐하의 성함이 왜 나옵니까? 여왕 폐하가 아니라 알리사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전하.”

테오의 당혹감 섞인 목소리는 이시르에게 들리지 않았다. 이시르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다.

미켈이 알리사에게 접근했다면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황태자인 그가 알리사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건 이유가 되지 못했다. 눈을 제외한 그녀의 모든 것이 벨로나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기 때문에 접근한 것이리라. 리하이트의 기억 속 미켈은 벨로나의 참모였고, 정치의 동반자였으나 역사서 속 벨로나와 미켈의 마지막은 그리 좋지 못했다. 벨로나가 없애려고 했으나 없애지 못한 신전의 우두머리가 미켈이란 것만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에도 벨로나는 미켈을 교활한 자라고 묘사했다. 그런 미켈이 알리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이시르는 눈을 질근 감았다. 벨로나의 얼굴과 닮은 알리사를 정치적으로 쓸 방법이 남아있는가. 미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자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알리사를 끌어들였을 리 없다. 그리고 그게 좋은 방향일수는 더더욱 없었다.

“시트리안 경.”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 또 다시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예, 전하.”

“지금 당장 그녀를 만나러 가야겠다.”

아마 벨로나 역시 바라지 않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시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몰랐다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그는 움직여야 했다.

주어진 일을 모두 끝내고 그녀에게 주어진 조그만 쪽방으로 돌아온 알리사는 잠깐 몸을 움찔했다. 문고리를 잡은 순간 알 수 있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방 안에 있었다. 미켈인가? 그녀는 문을 열었다.

“알리사 양.”

“...대신관님.”

그녀의 예상이 맞았다. 미켈이 그녀의 방 안에 노을을 등진 채로 앉아있었다. 붉은 빛이 눈이 부셔서, 알리사는 눈살을 가볍게 찌푸리며 미켈의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역광 때문에 그의 표정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알리사는 불안해졌다. 미켈이 그녀의 방을 찾아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은 어떻습니까, 좀 할 만합니까?”

“네, 덕분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와 마주칠 때면 항상 주고받던 물음이다. 답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재차 물어오는 그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알리사는 늘 그래왔듯 조용히 대꾸했다.

“그렇군요.”

그의 대답은 평소와 달랐다. 알리사는 치맛자락을 매만졌다. 미켈이 느리게 그녀의 앞으로 걸어오면서 빛이 가렸다. 미켈의 표정이 아까보다 조금 더 잘 보이게 됐다. 그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알리사는 묘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의 큰 키 때문일까. 아님 의중을 알 수 없는 그 눈동자 때문일까.

“알리사 양.”

“네, 대신관님.”

“알리사 양은 정말 여왕 폐하와 닮았습니다. 보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칠 만큼.”

알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켈이 그녀의 얼굴로 손을 뻗는 듯하다가, 곧 힘없이 팔을 늘어트렸다.

“알리사 양은 모르겠지만, 저는 돌아가신 여왕폐하의 참모였습니다.”

모르는 건 당신이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당신의 손에 생을 마감한 그 여왕이라는 걸 당신은 알 턱이 없겠지.

“그렇기에 저는 사람을 다루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떤 이가 제 체스말로 쓰일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건 제게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까보다 불안감이 한층 거세졌다. 알리사는 뒤로 천천히 물러나며 문고리를 붙잡았다. 미켈의 눈동자가 그녀가 붙잡은 문고리로 향하는 것이 보였다. 알리사는 느리게 문고리를 젖혔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미켈의 뻗어진 손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녀의 손을 단호하게 붙잡은 미켈이 그녀의 손을 문고리에서 느리지만 강하게 떼어냈다.

알리사는 고개를 뻣뻣하게 치켜 든 채로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입매를 굳히고 그녀를 응시하나 싶던 미켈의 양 입 꼬리가 느리게 곡선을 그리며 올라갔다.

“잠깐 산책이나 할까요, 알리사 양.”

무슨 속셈이지? 알리사는 입술을 짓씹었다. 이 자와 단 둘이 있는 것 보단 밖이 좀 더 안전할 것이다. 그녀는 일단 그렇게 판단했다. 미켈이 문고리를 돌렸다. 달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알리사는 열린 문 너머에서 묘한 한기를 느꼈다.

미켈이 그녀에게 나가라고 손짓했다. 알리사는 느리게 돌아서서 앞장선 채 걸어갔다. 미켈이 그녀를 이끌고 간 곳은 신전의 뒷마당이었다. 그곳에는 붉은 꽃이 핀 동백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붉은 색채를 보는 순간, 알리사는 이 신전의 터가 어디인지 기억해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미켈이 조용히 읊조리며 동백꽃 하나를 나무에서 뜯어냈다. 붉은 꽃잎 하나가 떨어져 차갑게 얼은 흙바닥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이 신전 뒤뜰의 동백꽃들은 보통의 동백꽃보다 더 붉은데 알리사 양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요.”

“그럴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이 동백꽃들이 특히 더 붉은 것은 반란군의 피를 마시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알리사는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찔했다. 이 망할 노인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깨닫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졌다.

“반란군의 시체는 모두 화장했다고...”

혼란 속에 읊조리던 알리사는 아차 했다. 화장한 반란군의 시체를 지금은 신전의 터가 된 이 동백 밭에 뿌렸다는 건 역사서에나 기록된 내용이었다. 그랬기에 그 전말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걸 알고 있다니, 의외군요.”

다행이게도 미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뼛가루를 뿌렸다고는 하나, 이곳이 반란군의 무덤이란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 그 피를 먹고 자라서 붉다는 것도 거짓은 아닙니다. 처음 신전을 세울 터를 잡을 때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왕 폐하께서 이곳에 신전을 세운 것도 다 그 이유였습니다.”

그녀로 인해 억울하게 죽어간 반란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 사창가가 신전 뒤에 버젓이 존재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지요. 저들은 이 신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곳에 있었으니 감히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신성한 것과 신성하지 못한 것이 한 데 존재하는 장소라니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미켈의 호탕한 웃음에도 알리사는 웃을 수 없었다. 알리사의 얼굴에 떠오른 어색한 미소를 문득 발견한 미켈의 얼굴에서 한 순간 웃음기가 가셨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것 역시 참으로 유감입니다 알리사 양.”

“예?”

“탓하려거든, 여왕 폐하를 닮은 그 외모를 탓하고, 하필이면 홍등가 근처에 신전을 세운 여왕 폐하를 탓하십시오.”

그 말의 의미를 헤아리기도 전에 인기척이 났다. 좋지 않은 느낌이었다. 고개 돌린 알리사는 멀지 않은 곳에서 고개를 까딱거리고 있는 금발의 남자를 발견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어디서 본 얼굴인지 기억을 더듬던 알리사는 그 곁에 선 덩치 큰 남자를 발견한 순간 생각하는 걸 멈췄다. 빚쟁이들이었다. 아버지가 돈을 빌렸던 그 자들.

저 남자들이 어째서? 알리사가 떠나는 조건에는 테오가 그녀의 빚을 갚는 것도 있었다. 설마, 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떠났다고 돈을 갚아주지 않은 것일까? 그런 거라면 알리사는 배신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런 주제에 그녀의 앞에서 그렇게 떵떵거렸다고?

“대신관 님, 이게 대체 무슨?”

알리사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눈앞의 미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가망이 없어보였다. 미켈은 이전의 상냥한 표정을 더는 짓고 있지 않았다. 그의 연기가 모두 끝난 것이다. 그것의 의미는 명백했다.

“쓸모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리사 양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게 쓸모없는 패지 뭡니까. 여왕 폐하와 닮았으면 뭐하나, 그 외모를 이용해 먹을 수 있을 이들은 죄다 죽고 없어졌는데. 그렇다면 버리는 게 옳지. 하찮은 천민 계집애 비위 맞춰주는 것도 이제 질렸고.”

“대신관 님...”

“그 여자와 닮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내가 관심가질 일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군. 그냥 풀어주자니 아쉽고 그래서 그 여자와 꼭 닮은 얼굴에 절망이 들어차는 걸 보고 싶어서 한 번 준비해 봤네. 어때? 내 선물이 마음에 드나?”

“빚은 전부 갚았을 텐데, 저 남자들이 어떻게...?”

“빚? 빚도 있었나?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빚이랑은 상관없을게다. 저 남자들은 제법 오래된 내 동료들이라서 말이야. 고액의 세금을 내는 중계업자만큼 좋은 자본처가 없지.”

빌어먹을. 미켈이 그녀를 필요 없는 패라 판단했을 경우의 수를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은 무의미했다. 이미 물러날 곳은 없었다. 미켈이 고개를 까딱하자 인기척이 점점 가까워졌다. 알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은 체 했다.

생각해라, 알리사 더스트.

생각해,

생각해.

생각해 벨로나.

생각해 제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안 돼.”

생각날 리가 없었다. 벨로나 하이텔에게도 알리사 더스트에게도 이런 상황은 예상돼 있지 않았다. 소리를 질러봤자 도와주는 이는 없을 것이다. 미켈이 그 정도 생각도 없이 이곳으로 데려오진 않았을 테니까. 그럼 그냥 얌전히 잡혀갔다가 기회를 봐서 탈출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게 최선이었다.

알리사는 반항하기를 포기했다.

그녀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자 눈앞에 있던 미켈의 두 다리가 그녀에게서 돌아섰다. 그리고 거의 소리도 내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미켈.”

알리사는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잠시 멈칫하나 싶더니 헛것을 들었다고 판단했는지 계속해서 가던 길을 향해갔다.

“지옥에 가서라도 네 놈을 저주하지 못한 게 후회되는 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그녀의 중얼거림에 그는 마침내 걸음을 멈춰 세웠다. 그가 빠른 속도로 그녀의 앞에 다가와 섰다.

“방금, 뭐라 했지?”

알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금 뭐라 했냐고 묻지 않았느냐!”

미켈이 그녀의 얼굴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알리사는 눈물을 흘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예?”

그런 알리사의 얼굴을 흔들리는 눈으로 바라보던 미켈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거칠게 그녀의 몸을 내팽개쳤다. 덕분에 두개골이 흔들리는 느낌을 맛봐야했지만 알리사는 미약하게나마 원하는 바를 이룬 것에 만족했다. 미켈의 얼굴은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었다. 아마 당분간 편히 자지는 못할 것이다.

“어째 낯이 익은 아가씨다 했더니, 오랜만이야 그래?”

능글맞게 말을 걸어오는 남자에게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에는 알리사가 반항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그녀를 무자비하게 다루던 덩치 큰 남자는 알리사가 아무런 저항 의지도 보이지 않자 그녀를 순순히 놓아주었다. 덕분에 알리사는 제 발로 직접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게 도망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금발 남자의 파트너인 이 거구는 그녀가 도망가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거리에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간 게 한둘이 아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말이야, 아가씨의 할머니가 돈을 빌렸던가?”

“아버지가요.”

“아, 혹시 낙사해서 죽은 그 양반이었나? 이제 기억이 나는군 그래. 웬 귀족 도련님께서 아가씨의 빚을 몽땅 갚아주었었지? 특이한 케이스라 기억이 나. 근데 이 꼴이 된 걸 보니 귀족 도련님께 버림받은 모양이야.”

“그 분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난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라곤 말한 적 없는데?”

하아, 알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데 미켈 대신관에게는 어쩌다 밉 보인거야? 그 악독하기로 유명한 노인네한테 걸리다니.”

“...그러게요.”

“아가씨, 좀 더 경각심을 가지는 게 어때? 아가씨는 지금 사창가에 끌려가는 거라고.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뻔한데 두렵지도 않은가 봐?”

이걸 무슨 질문이라고 한단 말인가? 그간 여자들을 팔아넘길 때 두려움에 떠는 여자들을 숱하게 봐왔을 그들이다. 그런데도 저런 물음을 던지는 건 놀리는 것이라고 밖엔 생각되지 않았다. 알리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주변을 살폈다. 정확히 어디로 끌려가는 건지 알아야 탈출하기도 편할 것이다.

한참을 더 걸어갈 것이란 예상과 달리, 그들이 알리사를 데리고 들어간 곳은 신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낡은 건물이었다. 이제 해가 완전히 졌기 때문일까, 문 대신 달린 커튼을 치고 들어간 건물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겹겹이 쌓인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알리사는 손으로 공기를 휘휘 내저으며 남자들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출입구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탈출 가능성은 충분해보였다.

“마담!”

익숙한 호칭이다. 순간 마담 킨을 떠올린 알리사는 불현 듯 떠오른 알시에서의 추억을 꾹꾹 억눌렀다. 그녀를 내팽개치고 간 자들이다. 그러니 기억할 필요 없다.

“마커?”

“그래 나야, 아까 말했던 상품 가져왔어.”

상품. 그녀를 일컫는 말이었다. 진열장 위의 물건이 된 기분은 상당히 더러웠다. 잠시 뒤, 가장 입구 쪽에 있던 조그만 방의 문이 열리고 등이 굽은 늙은 노파가 지팡이를 짚은 채로 걸어 나왔다. 알리사를 발견한 노파가 눈을 가늘게 뜨나 싶더니 지팡이 끝으로 알리사의 어깨를 꾹 눌렀다.

“금발이라니, 상등품이구만.”

“그래, 거기다가 푸른 눈이야.”

“귀족 나리들이 좋아하겠어.”

알리사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그녀를 품평하나 싶던 노파가 마침내 지팡이를 내렸다.

“위쪽 라인에 데려다 놔.”

“위쪽? 운 좋은 아가씨네.”

그들의 대화로 미뤄 볼 때 위쪽이란 게 귀족들을 접대하는 이들과 관련 된 의미인 모양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근절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여전히 귀족들의 성매매가 진행 중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대체 황제로써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럼 나가볼...”

“마, 마담.”

중계 업자가 알리사를 도로 끌고 나가려고 한 순간, 어디선가 끊어질 듯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쓰러져 있는 여자의 형상이 보였다.

“캐서린?”

마담이 화들짝 놀라 문을 활짝 연 순간, 알리사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 했다. 여자의 손목이 침대 옆 기둥에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여자가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 건 쓰러진 탓도 있었지만 그녀의 손목에 연결된 줄이 문에 닿지 않을 정도로 짧은 것도 있는 것 같았다.

만약 저 위쪽이라는 곳에 가서 저 여자와 똑같이 손목을 묶인다면 감금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최악이었다.

“캐서린, 몸이 불덩이잖아!”

알리사의 정신을 도로 붙들어 놓은 것은 노파의 비명소리였다. 알리사는 누워있던 여자가 숨을 헐떡이나 싶더니 갑자기 왈칵 하고 핏물을 토해내는 것을 보았다. 낯설지 않은 광경이었다.

“잠깐, 잠깐만.”

알리사는 그녀를 붙잡아 세우려는 거구의 남자를 뿌리치고 캐서린이라 불린 여자의 앞으로 달려가 그녀의 이마를 짚었다. 노파의 말대로 불덩이 같았다.

“이 여자 손목 풀어요.”

“뭐?”

“이 여자 묶고 있는 이 끈 풀라고요. 제대로 눕혀서 상태를 봐야하니까.”

“네가 보면 뭘 알아? 시간 끌 생각 말고 가지 그래.”

중계 업자가 코웃음 치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알리사는 완강하게 뿌리쳤다.

“시간을 끌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알리사는 여자의 목을 짚었다. 맥박이 희미하다. 그들이 대화하는 이 시간 동안에도 여자의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코랑 입을 막을만한 헝겊이나 들고 와.”

“뭐?”

“기관지를 통해서 전염되는 전염병이다.”

알리사는 중계 업자와 노파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나 싶던 순간, 중계 업자의 뒤에 있던 거구의 남자가 여자와 알리사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멈춰선 남자가 쓰러져 있는 여자의 목을 있는 힘껏 내리누르기 시작했다.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냥 냅둬. 소문이 나기 전에 저 여자만 죽여서 묻으면 되는 거니까.”

여자의 숨소리가 거세졌다. 힘없이 쓰러져 있던 게 연기였던 것 마냥 여자가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살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다. 알리사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안 돼, 하지 마!”

남자의 몸을 있는 힘껏 밀었으나 그녀의 힘으로는 소용이 없었다. 알리사는 고개를 돌렸다. 청동으로 된 촛대가 방 한쪽에 놓여있었다. 알리사는 촛대를 쥐어 잡았다. 속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제법 무거웠지만 휘두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피해, 잭!”

퍽! 묵직한 파열음과 함께 거구의 남자가 휘청거렸다. 그리고 남자의 몸이 여자의 위로 넘어갔다. 울컥! 여자가 토해낸 피가 남자의 몸에 묻었다. 잠깐 동안 얼어붙은 듯 꼼짝도 않던 남자의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느리게 몸을 들어 올린 남자의 두 눈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담, 이 년도 죽여도 돼?”

“그건 좀 곤란한데, 잭.”

“이 년이 내 머리를 쳤어.”

방 안의 분위기가 험상궂게 내려앉았다. 알리사는 촛대를 든 손을 멈추지 않았다. 얼굴에 묻은 피를 손등으로 닦아낸 남자가 혀로 손등을 쓸었다. 그의 입주변이 시뻘겋게 변했다.

“멍청한 자식.”

그리고 알리사는 비로소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게 됐다.

“그 피를 먹다니 제정신이야?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당신이 딱 그 짝이네.”

“뭐?”

“저 여자랑 똑같은 병에 감염된 걸 축하해. 기관지로 걸리는 병이긴 하지만 병자의 피를 그렇게 핥아먹다니 이미 감염되고도 남았겠어. 또 모르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감염됐을 지도 몰라. 그렇게 여럿이 감염됐을 때 의사 부를 돈은 있어?”

“있...”

“있다 해도 그렇게 큰돈은 쓰고 싶지 않을 테고. 게다가 전염병을 치료하러 홍등가에 올 의사가 있는 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하필 여기 있는 내가 이 병을 치료할 줄 안다면 당신들이 살려야 할 사람이 누구야?”

알리사의 물음에 세 사람이 다시금 시선을 교환했다. 쓰러진 여자에게서 천천히 뒷걸음질 쳐 물러난 노파가 알리사를 향해 입을 열었다.

“뭘 원하지?”

“돈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머물 수 있는 곳 하나면 돼요.”

“좋다, 네가 시키는 대로 하마.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다오.”

“오늘도 없다고?”

이시르는 망연자실한 채로 중얼거렸다.

“예, 없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럴 리 없습니다. 알리사가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일주일 내내 보았습니다. 거기다 평사원들도 알리사라는 직원이 있었다고 증언했고요. 다만, 저희가 알리사를 찾아갔던 그 날 이후로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이시르가 알리사를 만나기 위해 신전에 들렸던 날로부터 벌써 삼주가 지났다. 삼주 전, 이시르는 알리사를 만나지 못했고 다음을 기약하며 그곳을 떠났다.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곧은 이틀이 되었고, 일주일이 되었으며 결국 삼주가 되었다.

“혹시 미켈이 미리 알고 알리사를 빼돌린 건 아닐까요?”

“그 자가 무슨 수로 알고?”

“알리사가 저를 만났다고 미켈에게 직접 보고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닐 거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시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인지 물으면 뭐라고 대답 할 말이 없었다. 그냥 느낌이다. 비록 성품은 다르지만 그 벨로나라면 절대 미켈의 앞잡이가 되거나 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했다간 테오에게 오만 소리를 들을 지도 몰랐다. 장차 황제가 되실 분이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감으로 찍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앞날이 깜깜하군요. 벌써부터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집은?”

“가봤지만 폐허였습니다.”

“경의 수습 기사라는 그 기사는?”

“알겠습니까, 켄 경이 알리사를 만났다면 티가 났을 겁니다. 여전히 죽상이던걸요.”

“설마 다시 떠난 건 아니겠지.”

“낸들 알겠습니까, 그 속을.”

무심코 대꾸했던 테오가 뜨끔한 표정을 했다. 저번에 알리사가 떠났던 것은 알리사의 자의가 아닌 타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타가 테오였다.

“제 생각엔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지?”

“감입니다.”

“이 나라의 앞날이 깜깜하군.”

“창창하다고 해주십시오.”

농담이 아니었다. 이시르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서류로 고개를 돌렸다. 처리해야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러다 문득, 이시르의 눈에 의사연합에서 올린 민원이 보였다.

“의사연합? 그 작자들이 무슨 일이랍니까. 전에 고액의 치료비를 줄이라고 명령하니까 앓는 소리나 내던 것들이 이제 와서 왜?”

“보나마나 편의를 봐달라는 내용이겠지.”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귀족 가문의 자제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닐 것 같군.”

“황태자 전하께서도 하실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했지 않나.”

이시르는 서류를 펼쳤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억울함에 대해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심드렁하게 글을 읽어내려 가던 이시르는 순간 멈칫했다. 잠깐.

“무슨 내용입니까?”

“홍등가와 빈민가에 의사도 아니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다니는 이들이 있다는데.”

“누군지 몰라도 제대로 봉사하네. 근데 그거 돌팔이 아니에요? 큰 일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건 진짜 병이 낫기 때문에 찾아 가는 거다. 그보다 들릴 때가 생긴 것 같군.”

“예? 어딜?”

“홍등가.”

이시르는 서류를 탁 소리 나게 내려놓고 벽에 걸쳐놓았던 로브를 꺼내 썼다.

빈민가 쪽은 아니었다. 빈민가에서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의사라고 칭한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홍등가 쪽은 의사연합에서 확실히 무면허 의사라고 칭하고 있었다. 뭔가 짚이는 게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말하길 알리사는 글자도 제대로 모른다고 했으니 의술을 알고 있을 리가 더더욱 없지만 가야했다. 가서,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순찰 가시는 겁니까?”

“그래. 무면허 의사는 잡아야하니까.”

홍등가의 상태는 알리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했다. 전염병에 걸린 건 캐서린 뿐만이 아니었고, 심지어 전염성은 없지만 홀로 고통스러운 병들에 걸린 이들도 대다수였다.

알리사가 일하기 시작한 지 삼주가 지난 지금, 많은 이들의 병이 어느 정도 완화됐으며 전염병이 완치된 이들도 늘어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은 이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알리사는 두 명의 환자를 잃었다. 캐서린보다 더 이전에 병에 걸렸던 어린 창녀 하나와 홍등가의 고용주 중 하나였다.

신이 선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기 때문에 어린 창녀가 죽었다는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기엔, 고용주가 악덕한 자였다. 홍등가의 사람들은 어린 창녀의 죽음 앞에 신은 없다며 울부짖었다. 알리사는 그들에게 해줄 말이 없었다. 그들의 말이 맞다. 신은 없다. 신은 그저 그녀가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신을 믿게 하여 혼란스러운 민심을 잠재우고자 했는데, 누군가에는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었다. 마치, 이전의 알리사 더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가 무료로 치료해 주신다는 의원님이 계신 곳인가요?”

그녀의 문밖에서 조심스러운 물음이 들려왔다. 환자들을 돌보고 난 뒤 엉망이 된 손을 씻고 있던 알리사는 느리게 문을 열었다. 나이 지긋한 여인이 어린 남자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다.

알리사가 이곳에서 의사역할을 자처한 이후로, 간간히 이렇게 홍등가의 거주하지 않는 이들이 그녀를 찾아오곤 했다. 알리사는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고, 그것이 소문이 난 모양인지 요즘 들어 그녀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았다. 아마 그녀가 머무는 곳이 홍등가가 아닌 일반 마을이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다. 의사연합에 속한 의사들의 진료비는 너무나도 비쌌다.

“면허는 없지만, 무료로 치료해주는 건 맞아요.”

도로 머리를 묶은 알리사의 눈에 문득, 어린아이의 목 뒤로 잡힌 물집들이 보였다.

“화상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될 때 까지 왜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았죠?”

이미 시일이 제법 지난 상처였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던 알리사는 제 실수를 인지하고 입을 다물었다. 벨로나일 적의 기억을 되찾고 나서 말실수를 할 때가 잦아졌다. 알리사 더스트로 산 세월이 절대 짧지 않으면서, 고작 기억 하나 돌아왔다고 다시 황제라도 된 양 누군가를 나무라는 꼴이라니. 알리사는 스스로가 우스워졌다.

“흉터는 계속 남을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적게 남기는 게 중요하니까 약을 드릴게요. 매일 아침저녁으로 발라주세요.”

알리사는 방 안에 잔뜩 구해다 놓았던 약초로 고개를 돌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알리사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알리사는 부러 그 인사를 모른 체 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저렇게 정중한 인사를 받을 처지가 아니었다.

아이를 위한 약을 지어준 알리사는 그들을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무래도 홍등가라는 이미지 상 보통의 사람들은 이곳을 오가는 걸 꺼린다는 걸 잘 아는 탓이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시 한 번 이어진 인사에 알리사는 옅게 미소지어보였다. 여인의 뒷모습이 멀어진다. 여인의 품에 안겨있던 남자아이가 알리사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안녕, 알리사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서렸다가, 제 어머니의 품속으로 사라졌다.

알리사는 고개를 돌렸다. 노을이 진다. 또 다시 하루가 흐른 것이다. 한참 동안 노을을 응시하던 그녀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가 도로 올라왔다. 알리사의 눈동자에 두 사람이 담겼다. 익숙한 자들이다.

알리사를 발견한 이시르의 얼굴이 옅게 흐려졌다. 알리사는 이시르의 뒤에 서 있는 테오를 보았다. 알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알린 모양이다. 알리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이시르를 향한 테오의 충성심이 깊었던 것 이다. 저 점 만큼은 칼리스와 다를 게 없었다.

알리사는 그들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묶었던 머리를 풀었다. 이제는 제법 길어져 어깨를 넘어선 머리카락이 거슬려 한쪽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녀의 예상이 틀리지 않다면 이시르가 그녀를 붙잡을 것이다. 아마 그리고 이전처럼 그녀 앞에 폭언을 뱉어내겠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알리사는 그것을 그대로 들어줄 생각이었다. 그의 분노를 받아내는 것 또한 그녀의 업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정말로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기라도 한 건가. 알리사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그가 떠났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를 응시하는 그의 얼굴은, 알리사 더스트가 기억하는 것과는 달랐다. 항상 분노에 차 있던 그 얼굴에 죄책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것은 벨로나가 원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리하이트가 벨로나 하이텔을 보며 저런 표정을 지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알리사는 그를 불렀다.

“리하이트.”

공주와 반란군의 군주로 있었던 머나먼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오랜만이야.”

그렇게, 그를 불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리하이트? 그게 누구랍니까? 하는 테오의 중얼거림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들은 제법 오래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을 것이다. 알리사는 이시르의 눈동자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감정 변화를 보았다.

한참을 가만히 서 있나 싶던 그의 몸이 비틀거렸다. 간신히 균형을 잡고 선 이시르가 테오에게 가보라고 손짓했다. 왜 그러십니까? 어리둥절하게 질문했던 테오는 곧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빠르게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테오마저 떠나고 나자, 이젠 정말 둘 밖에 없었다. 알리사는 이시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시르도 마찬가지였다. 한참 동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알리사를 응시하던 리하이트가 느리게 입을 열었다.

“벨로나...?”

알리사는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시르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다.

“벨로나.”

그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벨로나.”

또 다시 한 번. 석양 아래 얼굴을 일그러트리던 그가 느리게 그녀의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였다. 알리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자리에 서서 그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비로소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 이르렀을 때, 알리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먼발치에 있을 때 그의 얼굴에서 보였던 죄책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있었고, 그의 얼굴에 남아있는 것은 증오였다.

동시에, 알리사는 안도했다. 그가 그녀에게 죄책감을 품고 있었다는 게 그녀의 착각이어서, 그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 동안은 모른 척 해왔던 겁니까. 왜, 이제 와서.”

“모른 체한 게 아냐. 얼마 전에야 기억이 돌아왔어.”

그녀의 잔잔한 대꾸에 이시르는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동자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있었다. 그리고 그는 느리게 눈을 내리깔았다.

“그렇다면 영원히 잊은 척 하는 편이 좋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서려있었다.

“그랬다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날 보며 비웃을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건 그녀의 착각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아는 척 하길 잘했어. 나는 당신이 나를 보며 죄책감 어린 눈을 하길 원하지 않아.”

“어째서?”

“잘못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니까. 죄를 지은 건 나야.”

그녀의 순순한 인정에 이시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을 고스란히 받아내던 알리사는 뒤늦게 눈을 돌렸다. 그녀가 저 시선을 정면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든 탓이다.

“아마도 과거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알리사 더스트에게 분노를 토한 걸 후회하고 있는 걸 테지. 하지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현재의 나는 알리사 더스트지만, 결국 분리할 수 없는 한 사람이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짓이기듯 목소리를 내뱉는 이시르는 어쩐지 힘들어보였다. 알리사는 그가 주먹을 꾹 쥐었다 펼치는 것을 보았다.

“차라리 그것뿐이라면 내가 이다지도 괴롭지 않겠지.”

그는 스스로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그것뿐이었다면 죄책감 따위 느낄 겨를도 없게 당신을 처음 다시 만난 그 날, 당신을 죽이고 복수했다며 먼저 간 내 전우들을 위해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곁에 두고 복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스스로 대가면서까지 당신을 내 비로 삼아 곁에 두려고 한 이유를 아십니까?”

알리사는 느리게 한발자국 물러섰다. 불안감이 거세졌다.

“당신에겐 60년이 넘은 과거의 일이겠지만, 내겐 20년 전의 과거입니다. 20년의 세월동안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다면, 당신은 믿겠습니까?”

절규하듯 내뱉은 그 물음에, 알리사는 낮은 숨을 헐떡였다.

“벨로나, 나는 당신을 증오합니다.”

산 능선 아래로 떨어지는 햇빛에 반사된 그의 얼굴에서 눈물 한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당신이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이시르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붙잡힌 팔의 손바닥이 이시르의 가슴에 닿았다. 쿵, 쿵, 쿵. 차갑게 식은 손바닥 아래로 빠르게 뛰는 심장의 감각이 느껴졌다. 알리사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은 손이 그의 심장과 같은 속도로 뛰고 있는 그녀의 맥박을 알아차릴까봐 겁이 나서 그를 뿌리치고 싶었지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면, 변명해보십시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알리사 더스트로 있던 지난 날, 이시르가 그녀에게 끊임없이 읊조렸던 말들의 의미를 알아버린 탓이다. 그 때도 이미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던 것이다.

“제발, 뭐라고 변명해 주십시오.”

늘 태산같이 굳건하게 서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자가 또 다시 그녀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 60년도 더 지난 그 때도 그러했고, 이번에도 그러했다. 그를 무너트리는 것은 언제나 그녀다. 알리사는 눈을 깜박거리지 않기 위해 애썼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울어선 안됐다.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서 엉망으로 돌아다녔다. 알리사는 침착하게 그녀가 해야 할 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변명하라고? 그녀는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가 변명한다면 리하이트는 그녀를 향한 분노를 누그러트릴 것이다.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보아야 할 걸 보지 않고 눈을 가리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는 그녀와 거리가 먼 단어였다.

“리하이트.”

그녀는 마침내 느리게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이 죽고 결혼을 했어.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 남자를 그리면서 살았지, 단 한 순간도 당신을 떠올려 본적이 없어. 내게 당신은 그냥 과거의 남자였을 뿐이야. 당신 이전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날 지나쳐갔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당신은 그냥 딱 그만큼의 존재였어.”

그녀를 붙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늘 왕이 되고 싶었고, 당신은 그 발판이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무슨 변명을 해야 해? 사랑? 멍청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젠가 당신에게 말했지. 나는 사랑이 숭고한 가치니, 고귀한 맹세니 하는 거 안 믿는다고. 나는 권력과 사랑 중에 선택하라면 언제든 권력을 선택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까지 했던 나를 선택한 건 당신이야, 리하이트.”

툭. 그녀의 손목이 힘없이 아래로 늘어졌다. 알리사는 이시르의 상처받은 눈동자를 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는 리더 만큼 무능한 건 없다고 했지.”

조용히 덧붙인 알리사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한낱 천민 주제에 감히 주제넘게 덧붙입니다, 황태자 전하. 황족이 되어, 과거의 여왕과 같은 것을 공부했다면 그 여왕이 왜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부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이제 다 끝났다. 그와 그녀 사이에 남은 건 그녀를 향한 그의 분노 하나 뿐이다. 설령 그가 지금당장 칼을 빼들고 그녀를 죽인다고 해도 그녀는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그 또한 그녀의 업보였다.

“알고 계십니까.”

그 때, 그의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알리사 더스트는 모르겠으나, 벨로나 하이텔은 거짓말을 할 때 눈을 깜박거리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시르 역시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오, 오라버니!”

엘리자베스는 화들짝 놀라 그녀의 양손에 들려 있던 약재를 등 뒤로 숨겼다. 하지만 삐죽이 튀어나온 약재의 끄트머리가 여전히 제 존재감을 방출하고 있었기에 숨기려는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고 그녀를 향해 손을 내민 이시르를 향해 어색하게 웃어보인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손에 있던 것들을 그를 향해 건넸다.

옷은 이게 뭐며, 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물음이 돌아올 것이라는 엘리자베스의 예상과 다르게 이시르는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엘리자베스가 슬금슬금 걸음을 옮기자 이시르는 잠자코 그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과 제법 가까운 거리에 테오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부러 아는 체 하지 않았다.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이시르가 불안해 그를 힐끗 곁눈질했다가 그가 유난히 피곤해 보인다는 걸 알아차렸다.

“오라버니, 무슨 일 있으세요?”

“왜 묻지?”

“눈 밑이 어두운 것도 그렇고,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표정이 안 좋으셔서... 일이 많이 바쁘세요?”

“업무야 늘 많긴 하지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다. 걱정을 끼쳤구나.”

“아니에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엘리자베스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이시르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걸렸다.

“의사협회에서 상소가 올라와 찾아왔는데, 네가 있었던 거지. 네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나야말로 궁금한데.”

“어,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봉사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소라뇨?”

“그들의 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봉사단체를 처벌하라는 내용이던데.”

“네? 가당치도 않아요. 의술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재로 차를 달여서 먹이는 것 밖에 없는데요. 이게 무슨 상권 위협이에요? 게다가 어차피 돈 없어서 의사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요.”

이시르는 짜증스레 중얼거리는 엘리자베스를 기특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곧, 엘리자베스의 밝은 금발을 보는 순간 겹쳐오는 또 다른 인영에 기분이 급격히 내려앉았다. 생각해보니 둘의 행보는 소름끼치게 비슷했다.

“그런데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된 건지 물어도 될까, 엘리자베스? 내게 귀띔조차 하지 않은 건 좀 놀랍구나.”

“그게.”

엘리자베스가 힐끗 이시르의 눈치를 살폈다. 이시르는 계속 말해도 좋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리사가 사랑받고 싶다면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하라고 해서...”

이시르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을 발견한 엘리자베스는 말을 흐렸다. 이시르에게 알리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 엘리자베스는 재빨리 다른 화젯거리를 생각해냈다.

“그런데 혹시 저희를 처벌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물론 아니지, 그런데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지?”

“저희가 돌보는 사람들 중에 저를 좋아해 주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그 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앓아누우셨거든요. 그래서 차를 끓여드리러 가는 길이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따라오실 생각이세요?”

“네가 일하는 게 보고 싶은데, 부담스럽다면 돌아가 보마.”

“아, 아니에요. 저야 괜찮은데 오라버니 업무는...”

참,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지. 엘리자베스는 재빨리 중얼거렸다. 엘리자베스는 이시르를 곁눈질했다. 시찰을 올 때면 언제나 눈에 덜 띄는 평범한 로브를 두르고 나오는 이시르였지만 그래도 그의 큰 키나 수려한 외모 탓에 눈에 띌게 분명했다. 환자라고 둘러댈 수도 없고, 바바라가 나랑 관련 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릴 텐데 뭐라고 하지?

“오라버니,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제가 하이텔 공작가의 여식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부디 말조심 해주세요.”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한 엘리자베스는 바바라와 인사를 한 뒤, 찻주전자를 집어 들었다. 바바라는 그녀를 따라 들어오는 이시르와 테오를 의아한 시선으로 응시했지만 엘리자베스의 어색한 미소를 발견하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다. 바바라 딴에는 괜히 말실수를 할까 겁이나 침묵한 것이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런 바바라가 고맙기만 했다.

“오라버니, 차 한 잔 드시겠어요? ...테오도.”

“괜찮다.”

“나도 괜찮...”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가 봐도 고의로 끊은 것이 분명한 엘리자베스의 행동에 테오는 머쓱하게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테오는 이시르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냈지만 그는 별 관심이 없어보였다.

“다 됐다. 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전자를 도로 집어든 엘리자베스가 그들을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다. 테오는 코끝으로 수많은 약재들의 향기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폴 할아버지.”

엘리자베스의 밝은 목소리에 이시르의 어깨가 움찔 떨린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시르의 걸음이 멎었다. 무심코 걸어가다 그의 뒤통수에 코를 박을 뻔 한 테오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리, 리하이트 님!”

그리고 이시르의 어깨너머에서 노인의 요란한 목소리 하나가 터져 나왔다. 리하이트? 어쩐지 익숙한 이름이었다. 어제, 알리사가 읊조렸던 그 이름이 아닌가. 뭐지? 황태자 전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명을 만들어 썼었나? 아님 그냥 내가 모르는 무슨 암호같은건가. 뭐지.

“죄송해요, 오라버니! 폴 할아버지께서 정신이 조금 안 좋으셔서 자주 이러세요. 오기 전에 미리 언질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 리하이트 님, 아아아, 리하이트 님! 대장님, 대장님!”

“폴 할아버지, 저기 말고 여기 보세요. 차 드실 시간이에요.”

“리하이트 님! 공주님이, 공주님이! 리하이트 님, 리하이트 님!”

“아이 참, 오늘따라 더 이러시네. 폴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네? 꺅!”

“엘리자베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노인이 뿌려 친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테오가 화들짝 놀라 엘리자베스의 뒤로 달려갔다. 다행히 뜨거운 차가 엘리자베스의 옷자락에만 조금 튀었을 뿐 엘리자베스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괜찮아?”

“괜찮으니까 저리 치워.”

테오를 매몰차게 뿌리친 엘리자베스가 초조하게 입술을 쳤다. 깨진 조각을 빨리 치워야 하는데.

“리하, 끄윽, 리하이트 님. 아아아, 리하이트 님!”

“할아버지, 움직이시면 안돼요!”

거동이 불편한 몸을 움직여 이시르의 앞으로 기어가려는 폴을 엘리자베스가 저지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시르가 엘리자베스를 향해 됐다는 듯이 손짓했다.

“두 사람, 잠깐만 나가봐.”

“네? 어쩌시게요?”

“대화를 좀 해야겠어.”

“대화요? 정상적인 대화는 안 되실 건데, 일단 알겠어요. 사기 조각 조심하세요!”

깨진 조각에 대해 재차 당부한 엘리자베스가 들어왔던 곳으로 도로 사라졌다. 당황한 채 눈동자만 굴리던 테오마저 그곳을 빠져나간 후, 이시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폴의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폴?”

“대장님, 대장님.”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리며 헤헤 웃는 폴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시르는 마찬가지로 눈물이 흐를 뻔 한 걸 겨우 억누르며 폴의 두 뺨을 붙잡았다.

“대체 어떻게, 어떻게 된. 폴, 대체 왜 이런 꼴로...”

“제가 잘못했어요, 리하이트 님.”

폴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시르의 손목을 붙잡았다.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공주님. 제가, 리하이트 님, 아, 편지, 아, 편지!”

겨우겨우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나 싶던 폴이 갑자기 고개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다.

“리하이트 님, 편지, 편지, 있어요. 공주님, 편지, 주머니, 주머니, 공주님이, 편지.”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 기억났다는 듯 그가 낡은 옷자락의 조그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제가, 보관, 보관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아빠를 살려주세요. 제발, 전했어요. 이제 살려주세요. 제발.”

반듯하게 접힌 낡은 종이였다. 한 번도 펴보지 않은 듯 그 상태로 낡아버린 그 종이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이시르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흐릿해진 글씨체가 익숙했다. 벨로나의 편지였다.

사랑하는 리하이트.

궁으로 와선 안 돼. 미켈이 우릴 속였어. 함정이야, 제발 도망쳐.

살아서 다시 만나자. 설령 만나지 못하게 된대도 죽지만 말아줘. 제발.

단순하고, 간결한 단어들로만 구성된 문장들이었다. 글자를 잘 읽지 못했던 과거의 리하이트를 최대한 배려한 것이다.

이시르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다.

“폴, 이게 뭐지? 공주전하가, 벨로나가 너에게 전하라고 준 게 맞아?”

“네, 네. 주지 말고, 아무도 주지 말고. 리하이트님께 전하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제가 잘못해서 아빠가, 아빠가 산이 됐어. 산이 됐어요. 잘못 했어요 공주님, 잘못. 잘못...”

“폴, 아냐. 네 잘못이 아니다. 제발 그러지 마. 네 잘못이 아냐.”

이시르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불과 어제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한데, 이 편지는 어제 그녀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임을 말하고 있었다. 정말 그녀가 그를 발판 삼아 이용하려 했다면 이런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다.

이시르는 쪽지를 품속에 집어넣고 온 몸을 파들파들 떨고 있는 폴의 손을 붙잡았다. 주름지고 까칠한 손의 촉감이 느껴진다.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왔을 폴의 삶이 눈앞에 훤했다. 이시르는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울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시르는 말없이 폴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입술을 짓씹었다. 노인의 어깨가 들썩인다. 이시르는 그가 숨죽여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리 내서 울어도 된다.”

이시르는 천천히 읊조렸다.

“소리 내서 울어도 돼, 폴. 여기에 너를 해칠 건 아무 것도 없다.”

“으어, 흐어어.”

그리고 거짓말처럼, 폴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60여 년 전의 어느 날처럼, 폴은 아이처럼 울음을 터트렸다.

“이시르 님, 이시르 님. 공주님께 용서를, 용서를.”

벨로나. 이시르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에게는 이제 60년 전 그 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권리가 있었다.

그녀도 더 이상은 변명하지 못할 것이다.

알리사는 환자들의 피를 닦아낸 헝겊을 걷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었지만,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 헝겊을 넣은 대야를 들고 개울가로 향하던 알리사는 한쪽 머리카락을 귀 뒤로 꽂아 넣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렇게 해서야, 미켈에게 복수하겠다는 그녀의 꿈은 좌절되고 말 것이다. 창녀들을 설득하면 그녀를 돕겠지. 아마 그녀가 신전의 행각을 고발한다고 하면 기꺼이 발 벗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신전의 행각을 고발했을 때 화를 입는 건 미켈이 아니라 창녀들이 될 것이다. 수많은 경험으로 알리사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히 개인의 인품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이다. 창녀들은 약자였으나, 동시에 사회의 악이라 이름 붙여졌다. 성을 사는 이들이 없다면 창녀도 생기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구매자를 비난하는 대신 창녀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다.

어쩌면 이대로 복수에 대한 꿈은 포기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녀의 복수를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가는 길에 누군가의 희생이 따른다면 그게 과거의 벨로나 하이텔이 저지른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과거나 지금이나 그녀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백성들이 편안해 진다는 것은 같았으나, 동시에 알리사는 두려웠다. 그녀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벨로나.”

환청인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개를 돌렸다.

“황태자 전하.”

그를 칭하는 그녀의 호칭에 이시르는 아무 말도 않고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알리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쓰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다시는 마주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벨로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목소리의 떨림이 느껴졌다. 알리사는 손에 들었던 대야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흘러가는 개울물 소리가 들린다. 알리사는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리하이트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날도 그랬다. 그 때도 이런 개울가 옆이었다. 갑자기 왜 그 날의 기억이 떠오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느리게 그녀의 앞으로 다가오던 이시르가 몸을 휘청 이더니,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알리사는 화들짝 놀라 숨을 멈췄다. 어째서?

그녀의 앞에 손을 내뻗은 이시르가 그녀의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쥐어주었다. 종이였다. 알리사는 입 안이 바싹 말라가는 것을 느꼈다. 무릎 꿇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의 앞에서 알리사는 느리게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편지였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소름끼칠 만큼 익숙한 것이었다.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한 평생 마음속에 담고 살아온 편지였다. 조금만 더 일찍 폴을 보냈더라면. 아니, 처음부터 의심이라도 했더라면. 폴의 말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랬다면 리하이트를 잃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만약이라는 가정은 덧없는 것이었으나 벨로나는 끊임없이 그 만약을 곱씹었다. 신분의 차가 있으니 서로 만나지는 못해도 최소한, 서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했는데...

그런데 어째서, 그 때 닿지 못한 편지가 지금의 그에게 들려있는가.

“이게 어떻게...”

“벨로나,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알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난날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당신을 윽박지르고, 폭언을 가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아니었다. 고작 편지 한 장이 그녀가 죄를 만회할 기회가 되지 못했다.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60여 년 전 당신의 심장에 모진 말로 비수를 꽂아 넣은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알리사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그의 어깨를 붙잡은 채로 고개를 내저었다.

“이 편지는 내 면죄부가 되지 못해. 나는 당신들한테 큰 죄를 지었어. 나는, 그 당시의 벨로나 하이텔은, 막연하게나마 두려워하고 어림짐작하고 있었어. 일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 인정하기 싫어 부정했던 게 현실이 되었던 거고,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은 거야. 나를, 용서하지 마.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

“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외면한 것이 비단 당신뿐인 줄 아십니까. 저 또한 외면했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어, 모두를 죽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외면한 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알리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내저었다.

“죄인은 나 하나로 충분해.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정말 신이 있다면 당신을 황족으로, 나를 천민으로 만든 것은 내 스스로 내 죄를 깨달으라는 의미일 테지. 과거의 벨로나 하이텔은 당신들을 이해한다 말했지만 그건 죄 위선이었던걸. 당신들의 슬픔을 이해한다 말했던 나를, 당신들의 고통을 공감 한다 믿었던 나를 용서하지 마. 그 때의 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 당신들을 그 사지로 이끌고 간 거지.”

“스스로를 죄인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 또한 죄인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죄 가지고 황족으로 환생한 것이 벌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벌이겠습니까. 차라리 다시 천민으로 태어났다면 당신을 향한 사랑을 죄 잊고 원망만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황족으로 태어나 당신을 원망하면서도 이해하게 되었으니, 이게 벌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허공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혀들었다. 알리사는 자꾸만 터져 나오는 눈물을 억누르려 이를 악 다물었으나, 한 번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리하이트는 몰랐으면 했다. 그의 죽음 이후,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비참했던 최후가 동화라는 이름아래 얼마나 멋스럽게 포장돼 왔는지.

“이대로라면 당신도 나와 함께 지옥에 갈 거야.”

“신은 믿지 않으신다면서 지옥은 믿으십니까? 하지만 벨로나, 이미 지옥입니다. 당신과 내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순간부터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잊어. 잊어, 리하이트.”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덧붙여진 그의 대답에 알리사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 이 순간, 리하이트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대체 그녀가 뭐라고 그녀 하나 때문에 그마저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는가.

“벨로나, 감히 청하기 어려운 부탁이라는 건 알지만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어느 순간부터인가 뻗어진 이시르의 팔이 그녀의 얇은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알리사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서로의 심장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는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오랜만에 맡는 그의 향기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역사서에 쓰인 이야기가 아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알리사는 그를 끌어안은 팔에 좀 더 힘을 주었다. 다시는 닿을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

“폴.”

알리사의 나직한 부름에, 힘든 숨을 몰아 내쉬며 제자리에 누워있던 노인의 눈이 크게 뜨였다. 눈동자를 굴려 알리사의 얼굴을 확인하나 싶던 폴의 얼굴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입을 뻐끔거리며 누워 있던 노인은 무슨 힘이 났는지 덜덜 떨리는 팔로 상체를 지탱해 간신히 앉은 채로 다시 알리사의 얼굴을 확인했다.

“고, 공주님!”

“그래, 폴.”

“공주님, 공주님!”

하릴없이 공주님만을 외쳐대는 폴의 몸을 단단히 받친 이시르의 얼굴과 알리사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하던 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공주님, 제가 리하이트님께 편지를 전했어요. 리하이트 님이 편지를 받았어요. 네? 리하이트님, 편지를 받았다고, 말을, 말을, 공주님께 어서.”

“이미 알려드렸다.”

“정, 정말요? 정말요? 공주님, 편지를 받으셨어요? 네? 말을, 말을 해주세요. 제가 전했어요, 전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알리사는 입안을 꽉 깨물었다. 그녀가 리하이트에게 전해 달라 부탁한 편지 한 통이 뭐라고, 이 아이가 정신을 놓아버렸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폴의 말에서 그가 겪었을 일들을 어림짐작하는 게 전부였다.

“죄송하지 않아도 돼, 폴.”

알리사는 치밀어 오르는 스스로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날 이후, 실종됐던 폴을 찾는데 좀 더 주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사라진 폴을 미켈의 측근이 처리한 게 분명하다며 자포자기 했던 과거의 자신에게 욕이라도 하고 싶었다.

“리하이트에게 훌륭하게 전해줬잖니. 너는 네 할 일을 다 했고, 내가 부탁한대로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두지도 않았잖아.”

“그, 그러면 아빠를, 아빠를 살려주세요. 흑, 아빠, 저희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가, 산이, 산이 됐어요.”

아, 알리사는 어떻게 된 사정인지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 폴이 성 밖에 생겼던 그 시체 더미를 보았구나. 그곳에서 제 아비를 본 것이다. 어린 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였을 거다. 그 어렸던 아이가 정신을 놓은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알리사는 느리게 폴의 손을 붙잡았다.

“물론이지 폴.”

그녀는 억지로 입 꼬리를 올려 웃었다. 그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을 과연 선의의 거짓말이라며 포장할 수 있을까?

“네 아버지는 이미 살아나셨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공주님.”

노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노인의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알리사와 이시르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다행이다...”

그것이 폴이 이 세상에서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다.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노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아무 것도 비치지 않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알리사는 입을 틀어막았다. 통탄한 표정을 짓고 있던 이시르는 채 감기지 못한 노인의 눈을 손바닥으로 감겨주었다.

그들 사이에 긴 침묵이 늘어졌다. 리하이트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가 마음에 남아, 들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듣지 못한 벨로나의 용서가 마음에 남아, 그간 떠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이 뭐라고.

“어? 오라버니?”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엘리자베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시르와 알리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이시르의 얼굴을 확인하고 알리사의 얼굴을 확인한 엘리자베스의 눈이 충격으로 커다랗게 뜨였다.

“알리사?”

엘리자베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엘리자베스의 시선이 이시르의 품에 안겨 있는 폴에게로 닿았다. 그녀는 위화감을 느낀 모양이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는 폴을 응시하나 싶던 엘리자베스의 손에 들려있던 쟁반과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폴 할아버지!”

그것은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울부짖으며 제자리에 무너져 내리는 엘리자베스를 보며 알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는 폴을 위해 울 자격조차 없었다.

“돌아온 거야?”

엘리자베스의 물음에 알리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마 엘리자베스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네가 이시르 오라버니와 함께 있을 줄은 몰랐어. 1년 전의 너는 오라버니를 계속 밀어냈잖아.”

“그러게요.”

알리사는 치맛자락을 매만졌다. 1년 전의 그녀는 무지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 자리에 선 게 벨로나 하이텔의 기억을 가진 알리사 더스트가 아닌 오롯한 알리사 더스트였다면 아마 알리사는 이번에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겠지.

“오라버니와 무슨 대화를 한 건진 모르겠지만, 잘 돌아왔어 알리사.”

알리사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걸린 환한 미소를 보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알리사를 환영하고 있었다.

알리사는 문득 두려워졌다. 엘리자베스의 탄생과 동시에 시작된 불행이 모두 벨로나 하이텔로부터 비롯된 것이란 걸 알면, 엘리자베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제 고모할머니를 원망할까.

“다신 떠나지 않을 거지?”

엘리자베스가 독촉하듯 던진 질문에 알리사는 이시르의 시선이 제게로 닿는 것을 느꼈다.

“물론이죠.”

그녀는 옅게 웃었다.

“달리 갈 곳도 없는 걸요.”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 갈 곳이 없었다. 켄을 찾아간다면 그는 알리사를 거부하지 않겠지만, 떠나기 직전에 켄과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면 꼼짝없이 집 안에만 갇혀 은둔생활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고 보니, 켄 경은? 돌아왔으면서 왜 그를 만나러 가지 않았지?”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는데 테오가 먼저 선수를 쳤다. 알리사는 테오를 보며 고개를 내저었다.

“알리지 마세요.”

“어째서?”

“마지막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러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 네 입장이 그렇다면야.”

테오가 어깨를 으쓱했다.

방 안에 침묵이 가득 내려앉았다. 알리사는 이시르를 보았다. 그는 아까부터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

“황태자 전하.”

알리사의 나직한 부름에 이시르가 그녀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아, 여기 계십시오.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알리사와 이시르를 향해 손을 내저은 테오가 엘리자베스에게 손짓했다. 테오를 향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보이던 엘리자베스가 고개를 끄덕이고 테오와 함께 방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떠나기 전 까지만 해도 친밀해보였던 두 사람인데, 서먹해 보이는 걸 보니 그녀가 떠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러고 보니 테오가 엘리자베스를 만나달라며 찾아왔었지. 혹시, 두 사람의 사이가 저렇게 된 게 그녀 때문 인걸까? 알리사는 나중에 엘리자베스와 따로 이야기 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까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던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돌려 묻지 않는 그녀의 화법에, 잠깐 침묵하나 싶던 이시르가 한숨을 내쉬며 제 얼굴을 쓸어내렸다.

“미켈 말입니다.”

아, 듣기만 해도 짜증이 솟구치는 이름이었다.

“응, 그 자가 왜?”

“아무래도 이대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자가 당신과 내게 저지른 짓이 생각나서...”

그것은 그녀 또한 마찬가지다. 알리사는 천천히 이시르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렇지 않아도, 기억을 찾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미켈에게 복수하는 거였어.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천민에다가 여자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개인적으로라도 미켈에게 복수해볼까 하고 접근했던 건데 그것조차도 수포로 돌아갔지. 이쯤 되면 하늘이 미켈의 편이 아닐까 의심되지 않아?”

알리사는 팔을 뻗어 이시르의 목을 끌어안고 제 몸을 그의 몸으로 밀착했다. 허리를 감아오는 손이 뜨거웠다. 알리사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줄곧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다.

“제가 아는 벨로나 하이텔은 여자라는 이유로 꿈이 좌절되는 걸 싫어했던 사람인데, 못 본새에 겁쟁이가 되셨네요.”

“놀리지 마. 그 때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헛똑똑이였어. 내가 왕족이 아니었다면 여자에게 주어지는 차별을 극복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알리사 더스트가 그러지 못한 것처럼, 아니었을 거야. 벨로나 하이텔이 왕족이었기 때문에 성별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뿐이지.”

“당신이 의사로 만든 시녀 마사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마사가 운이 좋았던 거야. 하필 그녀가 모신 상전이 여자라는 이유로 힘을 쓰지 못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왕족인 벨로나 하이텔이었거든. 물론, 마사가 똑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알리사는 이시르의 품으로 좀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빠르게 고동치는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그렇다면 벨로나.”

이시르의 손길이 알리사의 뺨을 매만졌다.

“미켈에게 복수하고, 고통 받는 백성들을 구해내겠다는 지난날의 다짐은 모두 포기하신 겁니까.”

“물론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당신도 반란을 마음먹었을 때 이렇게 막막했어?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했니?”

이시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긍정이었다. 알리사는 느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벨로나.”

“응?”

“그 복수, 저랑 함께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뜻밖의 제안에, 알리사는 고개를 들었다. 이시르가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던 알리사는 문득 말을 멈췄다. 이시르가 이런 제안을 한 게 그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지난 밤 이시르와 나눴던 얘기에 따르면 현 황제의 몸 상태는 그리 좋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황제는 물론이거니와 권력의 2인자라 불리는 대신관 미켈은 이시르의 이복동생을 황태자로 삼기 위해 호시탐탐 눈치를 보는 중이었다.

알리사는 미켈의 성정을 잘 알았다. 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권세를 누린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황제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면 미켈은 누가 황태자가 되던 아랑곳 않았겠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황제가 바뀔 염려가 없었을 테니. 하지만 황제는 몸이 좋지 않았고, 그가 죽으면 새 황제가 될 이시르는 미켈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니 미켈이 애가 탈만도 했다.

황제의 몸이 좋아지는 걸 바라기는 무리고, 이시르에게 미켈의 비위를 맞추라 요구하는 것도 못할 짓이었다. 미켈의 비위를 맞추면 당장은 평화로울지 모르나, 그는 언제나 뒤통수를 칠 준비가 돼 있는 자였다.

“지금의 당신에겐 지혜가 있으나 실천할 능력이 없고, 지금의 저에겐 지혜가 없으나 실천으로 옮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시르가 말했다.

“저는, 저보다 정치에 대해선 훨씬 깨어있는 당신이 여성이란 이유로, 천민이란 이유로 좌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과거의 저는 당신이 왕족이라,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왕이 되어 달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능력을 믿었고, 벨로나 하이텔이라는 한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내가 깨버렸지. 그런데도 나에게 함께하자는 말이 나오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도 않을 사람이니까요.”

알리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알리사 더스트로 살아온 세월이 억누르고 있던 벨로나 하이텔이 슬금슬금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시르는, 리하이트는 자꾸만 벨로나 하이텔을 불러오고 있었다.

알리사 더스트라면, 아니라고, 그녀는 같은 실수를 할 것 같아 두렵다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벨로나 하이텔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다.

“맞아, 그렇지.”

알리사는 이시르의 얼굴을 응시한 채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하는데?”

“제 욕심 같아선 당신이 황태자비가 되어 제 정치적 동반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영원히 곁에 있으라는, 지날 날의 말이 겹쳐오는 발언이었다. 하지만 그 때와는 다른 의미임이 명확했다. 알리사는 입 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다.

“리하이트.”

알리사는 이시르에게 좀 더 붙어 섰다.

“키스해도 돼?”

그녀의 노골적인 질문에 잠깐 몸을 움찔하나 싶던 이시르의 얼굴에 옅은 웃음이 걸렸다.

“언제부터 묻고 하셨다고.”

“그건 그렇지.”

알리사의 대답이 이어지기 무섭게, 이시르의 입술이 알리사의 입술을 삼켜왔다. 알리사는 이시르의 목에 매달려 그의 입술을 받아들였다.

좀 더, 조금만 더, 조금 더 깊게. 점점 숨이 벅차올랐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이 입맞춤이 끝나면 그녀가 할 대답은 정해져 있었고,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늦게 대꾸하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는 노릇이다. 알리사는 이시르의 몸을 밀어냈다. 놓아주지 않을 듯 붙잡고 있던 게 죄 거짓이었던 것처럼 이시르는 순순히 물러났다.

“나는 공식적으로 당신 곁에 설 수 없어.”

이시르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의 당신이 그럴 수 없었던 것처럼, 천민인 알리사 더스트는 그렇게 될 수 없어.”

만에 하나, 이시르가 천민인 알리사와 접촉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미켈을 비롯한 반 황태자 일원들은 그것을 빌미삼아 이시르를 황태자 자리에서 몰아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당신의 책사는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알리사는 이시르의 품에서 벗어났다.

“이전에도, 지금에도, 나와 당신의 신분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지.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같으니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당신을 도울 거야.”

“벨로나.”

“다시 우리가 꿈꾸어온 세상을 만들자, 이번에는 함께.”

함께.

내뱉기는 쉬우나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이다. 지난날의 경험으로 알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새벽이슬이 차가운 돌 벽 위로 내려앉아 한기마저 느껴지는 날씨였다.

“어머나, 황태자 전하.”

황제에게 아침 문안 인사를 마치고 나온 이시르는 그리 달갑지 않은 얼굴과 조우했다. 이시르의 생모인 전황후가 죽고, 새로운 황후가 된 모니카 황후였다. 전황후의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황후의 죽음으로 이시르는 모든 물증을 잃었으나 심증을 진실로 확신할 수 있었다. 모니카 황후가 그의 어머니를 독살한 것이다.

게다가 전 황후의 죽음 이후, 조용히 내통하던 이전과 달리 당당하게 미켈과 왕래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이 살벌한 황궁 안에 제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게 실감이 났다.

“황후마마를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황태자 전하께서 하나 뿐인 동생을 챙겨 주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얼굴을 보지 못하니 제 생각이 틀렸었나 봅니다.”

“업무가 많아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종종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망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쾌함을 숨긴 이시르와 달리, 모니카 황후는 얼굴 전반에 적대적인 표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시르는 그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았다. 이를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 포식자임을 알기에 하는 행동이다. 이 궁 안에 이시르의 지지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다만 속상한 것은 황태자 전하께서 저를 어미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남입니까? 피가 통하지는 않았으나,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의 성을 쓰며 살아가는 가족 아닙니까.”

제가 죽인 여자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 제법 가증스러운 말이었다. 게다가, 이 여자와 이시르는 고작 한 살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새겨듣겠습니다.”

이시르는 별 다른 동요를 내비치지 않고 느리게 대꾸했다.

이 황가에서 눈을 뜬 이후로 그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 그거였다. 감정을 꽁꽁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야 할 황궁에서 노골적인 경멸이 뒤따라도 감정의 동요를 쉬이 보이지 않는 것. 리하이트일 적엔 이것보다 더한 것들도 들었으니 이 정도는 양반이었다.

“그런데 황태자 전하, 제가 요즘 헛소문을 하나 들었는데 말입니다.”

이시르의 눈썹이 움찔했다. 뭔가 짚이는 게 있었던 탓이다.

“요즘 황태자 전하께서 홍등가에 자주 발걸음 하신다지요. 황태자 전하를 본 자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황태자 전하의 나이가 나이인지라 한창 때라는 것은 이해한다만, 전하께서는 황족이 아니십니까? 그런 곳에 자꾸 발을 들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황후폐하께서 저를 그런 곳에 그런 목적으로 발걸음 하는 후안무치한 인간으로 보았다니, 상심이 큽니다만 오해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허나, 어디까지 감시 목적이었을 뿐 별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시르는 알리사의 안위가 걱정됐으나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황후가 알리사에 대해 알게 된다면 미켈에게 그 이야기가 또 들어갈 것이다. 제가 사창가로 버린 그 여자가 눈엣가시 같은 황태자와 관련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든 트집 잡아 그를 몰아내려 하겠지. 그러기 전에 그의 선에서 잘라내야 했다.

“그런데 저를 목격한 자들이라니. 저야 다른 목적이 있었다곤 하나 그 이들은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황후폐하께서 아는 이들이라면 귀족일 것인데 귀족들이 그런 신성하지 못한 곳을 드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질이 좋지 못한 자들이니 어울리지 마십시오.”

“어머나, 제 걱정을 다 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황태자 전하.”

모니카 황후가 두 눈을 곡선으로 휘며 웃었다.

“허나, 그 정의롭고 자애로웠으며 성군이기까지 했던 여왕 폐하, 그러니까 황태자 전하의 고모할머니께서도 그 곳 출신이 아니었습니까.”

알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시르는 그것이 알리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 생각하여 순간 아득해졌다. 하지만 분명 그런 의도로 꺼낸 말은 아니었다.

“불경죄입니다. 할머님께서는 오롯이 왕족으로 인정받았던 왕의 자식이었습니다.”

“허나 그 뿌리는 사창가에 있었지요. 저는 전 여왕 폐하에 대해 폄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벨트로 왕이 사창가의 여인을 궁으로 들여 여왕폐하를 낳은 것처럼, 황태자 전하께서 사창가에서 황실의 자손을 낳아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긴 침묵이 늘어졌다. 이시르는 그녀에게 더 이상 대꾸할 만큼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 그의 시선을 알아차린 듯 빙그레 미소 지은 모니카 황후가 이시르를 지나쳐 황제의 거처로 들어섰다.

이시르는 비어있는 검 집을 매만지며 눈을 가늘게 떴다. 황후에게서 낯선 약초 냄새가 났다.

“벨로나, 독약 중에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 있습니까?”

느닷없는 물음에 알리사는 약초를 다듬던 손을 멈췄다. 그녀에게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챙겨온 공문을 읽어 내리고 있는 이시르의 미간에 주름이 패여 있었다.

“독약은 길어봐야 며칠 내로 죽게 만드는 게 보통이지. 내가 모르는 종류가 더 있을 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건 왜?”

“별 건 아니고, 좀 의심 가는 상황이 있어서 말입니다.”

“뭔데? 말해줘.”

전 황후가 독살당한 것과 모니카 황후를 지나칠 때 맡았던 향에 대한 이시르의 설명이 이어졌다. 알리사는 그의 의심이 타당하다 여겼다. 확실히, 뭔가 수상했다.

“혹시 어떤 향이었는지 기억해?”

“조금 씁쓸하고, 톡 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허브보다 좀 더 독하고 진한느낌의.”

“이것처럼?”

문득, 그의 코앞으로 내밀어진 풀 더미에 코를 대고 향을 맡은 이시르의 눈이 크게 뜨였다.

“네, 이런 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약은 아닐 거야. 여기에 독성분이 있긴 하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는 되지 못해서 독약이 아닌 진통제로 쓰이는 약초거든.”

“그럼 그냥 제 기우인가 봅니다.”

“글쎄, 공교롭게도 마약 제조는 가능하거든.”

알리사는 약초의 일부를 떼어내 그의 눈앞에서 짓이겨 보았다.

“약이란 게 한 가지 재료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 마약도 그래. 이건 소량만 섞어 쓰면 고통을 덜어주는 약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량을 다른 재료와 결합하면 환각증상까지 일으키는 마약이 되거든. 그리고 마약 중에는 한 번 중독되면 계속 먹지 않고서는 못 견디게 되는 종류가 있는데, 이게 그런 마약 재료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시르의 눈앞에 내밀어 보인 알리사의 손은 뭔가 움직임이 불편해 보였다. 마치 근육이 마비되기라도 한 것 마냥.

“약의 오용이란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냐. 곧 돌아오겠지만 내 손 좀 봐. 한 눈에 봐도 움직이는 게 힘들어 보이잖아.”

“설명한다고 본인 몸까지 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시르의 한숨 섞인 대꾸에 알리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 보단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한 행동일 뿐이었다.

“내 생각엔 그 황후가 마약을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거 같아. 평소 황제가 자주 먹는 음식을 의심해 보는 게 좋겠는데.”

“와인 같은 것 말씀이십니까.”

“황제가 와인을 즐겨 마신다면 의심해볼만 하지.”

이시르는 종종 밤에 찾아갈 때면 와인 한 병을 곁에 두고 홀짝이고 있던 황제의 모습을 기억해냈다. 그의 기억대로라면 밤마다 와인을 마시는 황제의 습관은 그리 오래 된 것이 아니었다. 삼년이나 됐을까. 삼년 전이면 모니카 황후가 처음 궁에 들어온 때와 거의 맞아떨어졌다.

만약 정말로 황후가 약을 쓰고 있는 거라면 그게 뜻하는 바는 명확했다. 그러나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황후는 미켈의 사람이라 하지 않았어? 살날이 그리 많지 않은 미켈의 입장에선 현 황제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제게 도움이 될 텐데 왜 황제를 죽이려 할까. 그 욕심 많은 인간에겐 제 안위 말곤 중요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알리사가 그 지점을 정확히 집어냈다.

“황후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니카 황후를 황실로 보낼 때 미리 거래가 됐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부분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지.”

알리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이 미켈의 통수를 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곤 하나, 아직 황태자인 당신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잖아. 당신을 내몰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황제의 이른 죽음으로 곤란해지는 건 그들이야. 미켈은 뭔가 다른 것에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성정이 아니거든.”

“모니카 황후가 미켈의 약점을 잡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점? 알리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 간사한 인간이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힐 성격이었던가?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

“리하이트.”

“네.”

“모니카 황후의 출신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아무래도 전하의 짐작이 어느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들고 온 정보를 이시르의 앞에 내밀던 테오가 힐끗 알리사의 눈치를 봤다.

“그런데 알리사가 함께 들어도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 저는 솔직히 무슨 이유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알리사는 전하께 회의적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종의 사건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테오의 물음에 알리사와 이시르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알리사는 어깨를 으쓱했고, 이시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테오의 손에 들린 종이 뭉치를 빼앗아 들었다.

“뭡니까, 대체.”

테오가 투덜거렸지만 그들은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이시르는 제 손에 들린 종이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벨, 알리사.”

다소 다급한 이시르의 부름에 알리사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가 가리키고 있는 페이지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모니카 황비의 출신 가문인 루소 백작가에 대한 어느 산파의 폭로에 대한 내용이었다.

“모니카 황후는 루소 백작가 출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루소 백작 부인은 불임이랍니다. 후천적인 문제로 불임이 된 게 아니라 날 때부터 그랬답니다.”

테오가 말했다.

“외부에서 낳아온 자식일 가능성은?”

“백작 부인이 백작보다 더 좋은 가문 출신이란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이었다면 백작 부인 가문 측에서 가만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문서에는 모니카 황후가 루소 백작의 자식이 아닌 루소 백작의 여동생이 낳은 자식이며, 여동생은 결혼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써져 있었다. 이 종이에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여동생의 명예를 위해 루소 백작이 여동생의 딸을 자신의 자식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하지만 백작 여동생의 딸이라 해도, 백작 부인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데. 어떤 남자가 아비인 줄 알고.”

“아비 되는 이가 백작 부인의 가문을 넘어서는 권력자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중얼거렸던 알리사는 테오의 존재를 깨닫곤 황급히 말을 올렸다. 다행이도 테오는 눈치 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네. 백작 부인의 가문을 넘어서는 권력가라.”

그리고 그 순간, 알리사는 나머지 두 사람이 동시에 그녀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알았다.

백작 부인의 가문을 넘어서는 권력가이며, 대외적으로 혼인을 할 수 없는 사람. 제 측근을 황실에 들이는 걸 손쉽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그들 근처에 있었다.

“미켈, 그 자다.”

이시르가 말했다.

“그가 모니카 황후의 친부야.”

“지옥에 가서라도 네 놈을 저주하지 못한 게 후회되는 구나.”

잊고 있었던 그 목소리가 그의 집중력을 망가트렸다. 미켈은 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짓뭉개고는 책상을 쾅 소리 나게 내리쳤다.

“미친년.”

미켈은 사납게 뇌까렸다. 벨로나, 죽어서도 사람을 괴롭혀?

소리 지르는 그를 향해 놀란 눈을 해보였던 알리사가 떠오른다. 외모가 닮아 쓸모 있을 거라 여기고 곁에 둔 게 잘못이었다. 미치지 않고서야 곁에 두지 않았을 건데. 젊은 시절 욕망했고, 종래에는 파멸시킨 그 여자를 닮은 계집 따위가 뭐 그리 쓸모가 있을 거라 여겨 곁에 뒀는가. 늘 그래왔듯 그녀와 똑 닮은 얼굴이 망가지는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괴로운 것은 그였다.

그 날 이후로 벨로나의 환청이 계속해서 그를 쫓고 있었다. 이시르가 사창가를 제 집 마냥 드나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로 더 그랬다. 혹시 황태자가 그녀와 마주하지 않았을까. 벨로나의 것과 유사한 금발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게 그 황가의 내력이었으니 어쩌면 알리사가 이시르의 눈에 들었을지도 몰랐다. 빌어먹을, 눈엣가시 같은 황태자와 벨로나의 얼굴을 빼다 박은 듯 닮은 알리사가 붙어있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더러워졌다.

그러다 문득, 미켈은 인상을 찌푸렸다. 살아 있는 얼굴을 본 건 단 한번이었기에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벨로나 하이텔이 사랑했던 그 남자의 얼굴도 딱 황태자와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던 것 같은데. 미켈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워낙 오래전의 일이니 기억이 왜곡된 게 분명했다.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눈에 거슬린다는 점이 꼭 닮았으니.

사실, 벨로나의 부탁이 있었음에도 반란군 일당 모두를 척결한 것엔 약간의 사심이 들어가 있기도 했다. 당시의 미켈은 리하이트를 향한 짜증을 풀어낼 대상이 필요했다. 어차피 신분의 격차 때문에 되지 못할 것은 알지만 편지라도 주고받으며 아련한 연인인척 할 그들의 관계가 벌써부터 눈에 훤했다. 미켈은 그것을 잘라내고 싶었다.

하지만 반란군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얻은 것은 벨로나의 분노뿐이었다. 아마 그 일이 아니었다면 벨로나의 곁에서 영원한 정치 동반자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분노 속에 그를 신관이라는 허울 좋은 감투 위에 올렸고 그게 영원히 해소치 못할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벨로나를 죽이면 모든 게 다 해결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왜 또 눈엣가시 같은 황태자가 방해를 하나. 그 자가 조금 덜 똑똑했고, 백성들에게 지지도 받고 있지 않다면 일이 조금 더 수월 했을 건데.

“대신관님.”

갑작스러운 부름에 미켈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구겼던 종이를 쓰레기 통으로 넣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척 표정을 가다듬고는 문을 응시했다.

“무슨 일인가?”

“그게 손님께서 오셨는데...”

구체적인 이름을 말해주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 밖에 없었다.

“들어오시라 해라.”

그의 허락이 떨어지기 무섭게 문이 벌컥 열리고 잿빛 로브를 입은 여자가 그의 집무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문을 쾅 소리 나게 닫은 여자는 다급한 걸음으로 미켈 앞에 다가와 섰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여자의 목소리에서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미켈은 그녀에게 귀찮음이 가득 담긴 시선을 보냈다.

“진정하고 앉아라, 모니카. 왜 또 궁을 벗어났지? 서신을 넣었으면 알아서 찾아갔을 텐데.”

“두 번이나 넣었는데, 답이 없으셨잖아요.”

“그랬나? 요즘 정신이 없었군.”

미켈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에 여자의 미간이 와락 찌푸려졌다.

“혹시 노망이라도 나신 건 아니죠? 그건 곤란해요. 제 아이를 황위에 올려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말투에 버르장머리가 없어졌군. 옛날에는 말이라도 고분고분 하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모니카의 짜증스러운 대꾸에 미켈은 고개를 비스듬히 젖혔다.

“그렇다면, 누가 널 그 자리에 앉혀줬는지 잘 생각해보는 게 좋겠구나.”

“하, 가뜩이나 초조해죽겠는데, 나이가 많아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당신이 이렇게 여유롭기만 하니까 속이 타는 건 당연하죠. 약속을 하셨으면 책임을 지세요, 아버지.”

“그 호칭으론 부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요, 청렴해야 할 대신관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부와 명예를 모두 앗아갈까 봐 그러세요? 아, 그러셨지 참. 저를 황후로 만들어준 것도 그 때문이었으니까.”

잔뜩 놀리는 것 같은 모니카의 어투에 미켈은 힘줄을 한껏 세운 채 옅게 미소 지었다. 저 끊임없는 욕심으로 미루어보아, 그녀가 제 딸이란 건 역시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를 넘어서려 드는 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봤자 늑대 아래서 잔꾀를 부리는 한낱 여우에 지나지 않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좋아할만한 정보를 하나 직접 가져왔어요. 이시르 황태자가 사창가에 계속해서 드나든다는 것은 이미 말씀 드렸고, 황태자가 만나고 있는 여자의 이름이요. 그런데 참 특이하지, 이 황실에는 금발 페티시라도 있는 거예요? 현 황제만 빼고 죄다 금발 여자를 하나씩 꼭 만나더니 이번에도 금발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켈은 오소소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좋지 못한 기분이다.

“이전에 신전에서도 일한 적 있는 여자라던데, 알리사 더스트였나.”

빌어먹을 벨로나. 지옥에서라도 저주하지 못한 게 후회 된다고? 저주는 이미 시작된 것 같은데.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눈엣가시 같은 두 사람이 붙어먹다니. 미켈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들을 저지하지 못하면 그들이 그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다. 모든 게 바뀌었으니 그의 인생도 송두리 채 바뀌어 버리겠지.

그러니 그 전에 뿌리 뽑아야 했다.

“모니카, 너는 네 자식이 차기 황제만 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지.”

“물론이죠.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며 전 황후를 죽인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쉽겠군. 아무래도 네 아들에게 독을 먹여야겠다.”

미켈의 단호한 대꾸에 잠자코 듣고 있던 모니카의 눈이 사정없이 뜨였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녀는 반쯤 비명을 내질렀다.

“누구에게 독을 먹여요? 이시르가 아니라 내 아들? 노망이라도 드셨어요?”

“경거망동 하지 마라. 당연히 진짜 죽인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어쨌든 안돼요. 내 아이는 절대 안돼요.”

“여전히 철부지 어린애 같군. 그럼 어디 다른 해결책을 내 놓아 보거라.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이시르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이다.”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가 해독제만 제대로 만든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문제지.”

갈등하는 모니카의 옆에서 미켈이 조용히 덧붙였다.

모니카가 불안하게 아랫입술을 물었다 떼기를 반복했다. 미켈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느리게 한숨을 내쉬었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아이는 또 낳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죠? 어떻게 됐든, 그 애는 아버지 손자예요. 조금의 애정도 없으신 거예요?”

“피가 흐른다고 다 가족은 아니지. 너와 내가 그런 것처럼.”

“어머니가 왜 아버지를 찾아가는 날 말렸는지 알겠군요. 아버지한테 권력 이외에 중요한 게 있긴 한가요?”

미켈은 모니카의 매서운 시선을 담담히 마주했다. 답은 정해져 있었고, 그는 대답할 생각이 없었다. 미켈을 한참 동안 노려보던 모니카가 짜증스레 고개를 돌렸다.

“아이를 또 낳으라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늙은이랑? 허무맹랑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먹이고 있던 약을 좀 줄이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다시 낳는다 해도 아들일거란 보장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 애는 여자의 몸으로 황제가 된 두 번 째 경우가 되겠지.”

“잠깐만요.”

모니카가 다급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못해요. 설득하려하지 마세요.”

미켈은 대답 없이 모니카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미켈의 눈치를 살피나 싶던 모니카가 눈을 질근 감았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미켈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떠 미켈의 눈동자를 마주했다. 그녀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지만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생각을 좀 해볼게요.”

“빠르게 결정해라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을 테니.”

미켈의 대꾸에 모니카는 질렸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락하죠.”

쾅 소리 나게 문을 닫고나간 그녀의 거센 구두소리가 멀어져갔다. 집무실에 홀로 남은 미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차피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그의 자식이었다.

결국 이기는 것은 욕망이다.

미켈이 모니카 황후의 친부라는 사실은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으니 이것으로는 미켈의 약점을 잡았다고 말하기도 민망했다.

이시르는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다. 오랫동안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탓인지 눈이 침침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하자 잘 관리 된 정원의 나무들 너머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 쬐고 있었다. 묘한 적막이었다.

문득 알리사가 떠올랐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그녀를 만나러가고 싶었지만 이젠 자제 할 필요가 있었다. 사방이 적이었다. 미켈 대신관이 그의 목을 조르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허점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가 위험해 지는 건 참을 수 있었으나, 알리사는 안됐다.

“황태자 전하, 미켈 대신관이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뜻밖의 방문이었다.

이시르는 평정을 유지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미켈이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황태자 전하.”

“앉으십시오, 대신관님. 어쩐 일이십니까.”

“신전에 오시면 말씀드리려 했는데, 요즘 통 발걸음하지 않으셔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전에 들리는 횟수가 줄었다. 아니, 최근에는 일체 발걸음 하지 않았다. 원래 벨로나의 초상을 보기 위해 발걸음 했었던 곳이라 진짜가 눈앞에 있으니 허상을 쫓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탈레로 가는 주요 길목 중 하나인 알시에서 산적 떼가 들끓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세금을 징수하러 간 신전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입으니,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아 군대 파견을 허락받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미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사람을 보내놓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이시르는 대답 없이 미켈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군대를 움직이는 걸 함부로 허락했다가 언제 어디서 뒤통수를 맞을지 알 수 없었다. 미켈의 말대로 산적들은 소탕하는 게 백성들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겠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그의 목덜미였다.

“허나, 황제 폐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시르의 어깨가 움찔했다. 황제가 허락했다니. 그렇다면 이것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미켈이 그의 눈앞에 황제의 서신을 보였다.

“황태자 전하께서 편찮으신 황제 폐하 대리인으로 결재를 맡고 있으니 문서 상 허락을 위해 찾아오긴 했으나...”

“황제 폐하께서 허락하신 이상 제게 거부권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느리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미켈이 그의 앞에 서류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 진흙탕 속에 사방이 적이다. 황제조차도 그의 편이 아닌 이 상황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이시르는 서류더미 위에 올려두었던 도장을 들어 미켈이 내민 서류 위로 찍었다. 붉은 인주가 남은 서류를 흡족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던 미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황태자 전하.”

고개 숙인 그가 집무실을 나갔다. 이시르는 초조하게 책상을 두드렸다. 불길한 느낌이 든다. 그의 직감은 대게 잘 맞는 편이었다.

날이 한창 좋더니 갑자기 날이 먹구름이 꼈다.

알리사는 약초를 말리려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밖에 꺼내놓았던 약초들을 모조리 집안으로 들였다. 비가 오기 전이라 쌀쌀해서 그런지 가만히 있어도 몸이 떨렸다.

한쪽팔로 다른 쪽 팔을 쓰다듬던 알리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바깥에서 누군가의 달음박질 소리가 들렸다. 알리사는 문을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그녀의 거처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아가씨?”

“알리사!”

알리사의 어깨를 붙잡아 오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열었으나 숨넘어가기 직전인 그녀의 목에서는 아무런 말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런 스스로가 답답하다는 듯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마구잡이로 구겨졌다.

“물이라도 드실래요?”

알리사의 물음에 엘리자베스가 거세게 고개를 내저었다. 한참동안 숨을 몰아 내쉬나 싶던 엘리자베스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다.

“도망쳐야해, 도망가 알리사.”

“네?”

엘리자베스는 어느새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시르 오라버니가 옥에 갇혔어. 네가 공범으로 몰렸어, 도망쳐 빨리.”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곤두박질 쳤다. 뭐라고?

알리사는 엘리자베스가 좀 더 설명해주길 원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엘리자베스는 최선을 다해 뛰어온 것이겠지만, 말을 탄 병사들의 속도를 이길 수 있을 리 없었다.

“엘리자베스 아가씨, 죄인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한층 창백하게 질렸다. 그녀가 몸을 떨며 고개를 돌렸다. 알리사는 상황이 곤란하게 됐다는 걸 알아차렸다. 이시르가 옥에 갇혔고, 알리사도 곧 그렇게 될 예정이라면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에게 도주하라 말했던 엘리자베스 역시 공범으로 몰릴 지도 몰랐다.

대체 무슨 죄의 공범인지는 모르겠으나...

“알리사 더스트, 너를 황자 독살 용의자로 즉살한다.”

아, 그렇구나. 알리사는 상황을 대충 짐작 할 수 있었다. 미켈이 곧 이시르의 통수를 쳐 오리라 생각했지만 그게 이런 방식일 줄이야. 그녀와 이시르가 내통하고 있다는 정보를 누구에게 들은 모양이지. 거기다 이 자리에서 그녀를 죽여 없애려는 걸 보니, 이시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도 단단히 뒤집어씌울 모양이었다.

“자, 잠깐...!”

“괜찮아요, 가세요.”

알리사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 엘리자베스의 등을 떠밀었다. 이 상황에서 엘리자베스가 그녀를 옹호하고 나서는 건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엘리자베스가 주춤거리며 그녀에게서 멀어져갔다. 엘리자베스의 불안한 시선이 알리사 주변을 부유했다. 알리사는 괜찮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눈 감고 귀 막으십시오.”

그녀를 처형하기 위해 말에서 내린 사람이 엘리자베스를 향해 충고했다. 엘리자베스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알리사는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이 검 집에서 칼을 뽑는 것을 보았다.

알리사를 향해 다가오던 남자가 여전히 완전히 멀어지지 않은 채 머뭇거리고 있는 엘리자베스를 귀찮다는 시선으로 응시했다.

“하론 경, 가서 엘리자베스 아가씨를 멀리 데려가. 처리는 내가 하지.”

“알겠습니다.”

하론이라 불린 남자가 엘리자베스를 붙잡고 그들에게서 멀어져갔다. 엘리자베스가 저항하는 소리가 들렸으나 곧 잠잠해졌다.

칼을 집어든 남자가 알리사의 코 앞 까지 다가왔다. 남자의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드리워졌다. 남자가 망설이지 않고 칼을 들었다.

엘리자베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잿빛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끝났군.”

그녀를 억지로 끌고 온 기사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를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내저었다.

“안 돼, 알리사.”

“하아.”

그녀의 중얼거림을 들은 기사가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진 모르겠으나, 범죄자의 도주를 도우려 한 이상 아가씨께서도 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엘리자베스에게 그 말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기사의 손길을 뿌리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소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뒤에서 기사의 나지막한 욕설이 들렸으나 엘리자베스에겐 들리지 않았다.

연기가 나는 곳은 알리사의 거처 뒤에 있는 숲이었다. 불이 옮겨 붙지 않게 파진 구덩이 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옆의 흙바닥에는 채 마르지 않은 피가 이리저리 흩뿌려져 있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기사가 구덩이 앞으로 다가가는 그녀를 저지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엘리자베스는 헛구역질을 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불구덩이 속에서 까맣게 그을린 인간의 신체 일부가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래서 가까이오지 마시라니까.”

짐짓 엄한 표정을 지어보인 기사가 엘리자베스의 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러게 왜 굳이 확인 하셔서는...”

“진짜 알리사가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해서.”

엘리자베스는 기사의 도움을 받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체가 타들어가는 냄새에 구역질이 났지만 참을 만 했다.

“알리사는, 그 애는 잘 도망갔나요?”

“네, 덕분에. 하론 경은 황제 쪽 최측근이라 위험했는데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다행이다.”

기사의 칭찬에 엘리자베스는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보다 괜찮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엘리자베스 아가씨께 무슨 불똥이 튈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한 때 내 하녀여서 챙겨주려 했던 거라고 하면 집 안에 몇 주간 갇히는 걸로 끝날 테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어진 엘리자베스의 대꾸에 기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제가 아는 엘리자베스 아가씨 맞으십니까? 못 본 새 많이 성숙해지셨네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엘리자베스의 덤덤한 대꾸에 기사는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엘리자베스는 요란하게 뛰고 있는 심장 위로 손을 얹었다. 애써 침착한 척 했지만 무섭긴 했다. 그래도 그녀 덕에 알리사가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몸을 돌렸다.

“하론 경, 가서 엘리자베스 아가씨를 멀리 데려가. 처리는 내가 하지.”

“알겠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하론이라 불린 기사의 손에 붙들려 사라지기 무섭게 알리사의 눈앞에 칼을 들이댄 남자가 힐끗 뒤쪽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곧 칼을 검 집에 집어넣었다.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다.”

알리사는 그제야 눈앞의 이 기사가 이시르의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황태자 폐하께서 연루 된 이번 사건이 정리 될 때 까지 절대 수도로 돌아오지 말고 멀리 떠나라고 하셨다. 모든 일이 정리 되면 찾을 테니 그 전까지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죽은 듯이 살라고 하셨으니, 누군가에게 들키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는 게 좋을 거다. 방금 엘리자베스 아가씨를 데려간 그 하론 경부터가 황제 폐하의 사람이니.”

“황태자 전하께서 누명을 벗을 가능성이 있는 게 확실한가요?”

“...원래 뭐든 확신 할 수 없는 법이지.”

자신 없는 그 대꾸에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리하이트는 분명 무사하지 못할 거다. 황자 독살이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까지 씌운 걸 보면 누군지 몰라도 단단히 작정하고 꾸민 짓이었다. 이시르도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그가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뿐이었다. 죽어서 나오거나, 탈출해서 혁명의 불꽃이 되거나.

그렇지만 성공적으로 탈출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내전을 벌일 수 있는가. 답은 아니오였다. 그 나름대로 세력을 끌어 모으고 있었다 한들 궁 안의 대부분이 이시르를 적대시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제 편으로 끌어들인 이들이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도움을 청할 곳이 필요했다.

“아, 때마침 왔군. 저 자가 네가 도망가는 걸 도울 거다.”

이어진 기사의 말에 생각하는 걸 멈추고 무심코 고개를 돌린 알리사는 몸을 움찔하고 뒤로 한발자국 물러섰다. 켄이었다. 무감각한 눈으로 알리사를 응시하나 싶던 켄이 손에 쥐고 있던 마대 자루를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그 순간, 어디선가 고약한 악취가 났다. 알리사는 이 냄새를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마대자루에는 핏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저게 뭐...”

“병 걸려 죽은 네 또래 여자의 시체다. 이제부터 저게 네 시체가 되는 거지. 아무튼 출발하는 게 좋겠군.”

기사가 켄을 향해 턱을 까딱였다. 기사를 향해 거수경례한 켄이 한숨을 내쉬고 알리사의 앞으로 다가왔다. 알리사가 뭐라고 말을 내뱉기도 전에 그녀의 손목을 붙잡은 켄이 그녀를 산길로 이끌기 시작했다.

“아파.”

한참의 시간이 지나, 비로소 기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알리사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손목을 비틀어 붙잡힌 팔을 빼내려 했지만, 켄의 손은 완강했다. 알리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프다고 했잖아, 켄.”

켄이 걸음을 멈췄다. 알리사는 분노가 담긴 켄의 눈동자가 그녀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이래서 켄에게는 알리지 말아 달라 했던 건데 그녀의 부탁은 결국 덧없는 게 되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 안다. 그녀를 빼돌리는 걸 믿고 맡길만한 사람이 켄 말곤 없다 여긴 거겠지. 테오의 판단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알리사.”

“...”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켄의 목소리는 울분에 잠겨 있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 가버린 주제에 돌아오고서도 어떻게 내게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어? 아니, 그 전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라져 버릴 수가 있지? 네가 떠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잘 살았겠지. 그러니 이렇게 내 눈 앞에 멀쩡하게 살아 있는 거고.”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알잖아! 네가 떠나고 나서 매일매일 널 찾아 헤맸어.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얼마나...!”

눈시울을 붉히는 켄을 보며 알리사는 고개를 비스듬히 젖혔다. 당시에는 켄을 지키기 위해, 기사가 되고자 하는 그의 꿈을 좌절시키지 않기 위해 떠난다는 명분이었지만, 그걸 알리면 켄이 테오에게 반발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알리사는 한숨을 내쉬고 그의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럼 나한테 그런 짓을 해 놓고,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어?”

알리사의 날카로운 말에 켄의 얼굴에 충격이 퍼져나갔다. 그는 잠깐 동안 할 말을 잃은 것 같았다.

“너도, 너도 허락했잖아.”

겨우 고르고 고른 말이 저거라니. 알리사는 실망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결국 너도 여태껏 만나온 수많은 남자들과 다를 바 없었구나.

“아니, 아니지.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내게 먼저 입을 맞춘 건 너였어.”

“입을 맞춘다고 해서 그게 허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알리사!”

켄이 그녀의 양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 질렀다.

“너, 너, 왜 이렇게 변한거야?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내가 원래 어떤 애였는데? 네 말이면 토하나 달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따르기만 하는 애?”

켄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알리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은 그의 양팔을 털어냈다.

“그래 맞아, 내가 먼저 시작했지. 인정해. 하지만 내가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건 너야.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버팀목이라 믿었던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으로 날 대하고 있었다는데 내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겠어? 너는 그 날, 나를 탓했어. 정말 몰랐느냐고 날 몰아붙였잖아.”

“그래서 그게 다 내 탓이라고?”

“...켄, 내가 너를 찾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어. 너랑 몸을 섞은 그 날, 나는 네 가족이자 친구인 알리사 더스트를 버렸고, 우린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됐으니까.”

알리사가 덤덤하게 말했다.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비틀거리던 켄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를 가만히 응시하던 알리사는 손바닥을 펼쳤다가 오므렸다. 막상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고 나니 공허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18년 동안 희비를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다. 벨로나 하이텔이 아닌 알리사 더스트였다면 잊고 싶은 기억을 뒤로 하고 저 손을 잡았겠지.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롯한 알리사 더스트가 아니었다.

“거짓말.”

켄이 말했다.

“거짓말 하지 마.”

무엇을?

“너 지금 그냥 나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 나 다 들었어, 네가 황태자 전하를 도와 황자를 독살할 독약을 만들었다는 누명을 썼다는 거. 그 말은 네가 황태자 전하와 계속해서 내통하고 있었다는 의미잖아. 넌 그냥 높으신 분들한테 붙어서 너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던 거지? 맞지?”

“켄.”

“아직도 정식 기사가 되지 못한 수습 기사 나부랭이랑 붙어봤자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던 거겠지! 그런 주제에 양심에 찔리니까 전부 내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켄의 씨근덕거리는 숨소리가 높아졌다. 알리사는 켄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 후, 한숨을 쉬었다. 진실이 아니기에 그의 말엔 상처 받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저 태도에 상처를 받지 않은 건 아니었다. 너는 기어코 우리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끝내고 마는구나. 그래도 좋은 추억 정도로는 남길 수 있었을 텐데.

“할 말 다 끝냈니?”

알리사의 덤덤한 물음에 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눈에 띠게 당황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아, 알리사, 그러니까 난, 내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의미 없는 담론은 그만하자. 내가 뭘 해야 하는 지나 말해줘. 시트리안 공자께서 네게 시킨 게 있을 거 아냐.”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듣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알리사의 대꾸에 켄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알리사를 한참 동안 응시하던 켄이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너랑 함께 도망치는 게 내 임무의 끝이야.”

“뭐?”

“...시트리안 공자께서도 황태자의 최측근이란 이유로 함께 갇혔어. 그 아래에 있는 기사들의 손발이 묶인 건 물론이고, 시트리안 공작조차 집 안에 구금돼 있는 상황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테오마저 붙잡혔다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옥을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이시르는 이미 그의 죽음을 직감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수습기사라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잡히지 않은 거지만, 누군가가 고발한다면 나도 붙잡히겠지. 그래서 시트리안 공자께서 붙잡혀가기 전에 손을 쓴 거야. 내가 너를 데리고 도망 갈 수 있게.”

“정말 그게 끝이라고? 이 모든 상황을 뒷전으로 두고, 내 안전만을 보고 도망치는 게?”

“응, 고작 수습기사인 나와 아무것도 아닌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기분 나쁜 말이었으나 부정할 수 없었다. 켄의 말대로 지금의 알리사 더스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무력하게 이시르를 잃고 말 것이다. 벨로나 하이텔은 리하이트를 잃고 나라를 얻었지만 알리사 더스트는 이시르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 그녀와 그가 함께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영영 어디에도 없는 것이 돼 버린다.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의 손아귀에 이 나라가 떨어지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알고 있음에도 그걸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얼마나 사랑했던 조국인데, 그럴 순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가만히 있기 싫어.”

알리사는 입술을 짓씹었다. 도움을 청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긴 했다. 한 때, 그녀가 머물렀던 알시 마을의 산적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 졌다. 알시 마을의 산적들과 과거, 그녀가 공주로 있던 때 그녀가 이용했던 할렘가의 사람들이 겹쳐보였기 때문이다.

만약, 또 다시 너무 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면 어떡하지. 그녀의 판단 실수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면? 과거의 일이 또 다시 반복된다면?

알리사는 쿵쾅거리는 가슴 위로 손을 얹었다. 아니다, 그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는 리하이트의 말에 당당히 그렇다고 답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벨로나 하이텔은 오로지 그녀의 이성과 판단력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켄, 나를 알시로 데려가줘.”

마차는 낡은 흙길을 달리며 덜컹거렸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자갈 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알리사는 머리를 창문에 기댔다.

1여 년 전, 우연히 알시로 흘러들어가게 됐을 때는 이틀 밤낮을 꼬박 새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 지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걸었다. 당시의 알리사는 그대로 걸어가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만큼 스스로 처한 상황에 비관적이었다. 그러다 마담 킨에게 발견 돼 반쯤 죽다가 살아났었지. 코렌카가 그녀를 수도에 두고 가지 않았다면 영영 기억을 잃은 채 알시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생을 마감했을 거다.

당시에는 그녀를 수도에 버리고 간 코렌카를 원망했지만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다. 코렌카가 아니더라도 알리사는 어떻게든 수도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녀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업보를 마주하기 위해서 그것은 불가피했다.

“알리사.”

알리사는 감았던 눈을 떴다. 켄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알시에는 왜 가는 건지 말해주면 안될까?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인건지 잘 모르겠어.”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 누구?”

“한 때, 내 가족이었던 사람들.”

무심코 내뱉은 대꾸에 몸을 움찔한 켄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다물었다. 알리사는 그가 하려고 했던 말을 짐작했으나 부러 무시했다.

‘네 가족은 나밖에 없잖아.’

이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다. 다시 마차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렇게 한창 말발굽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알리사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을 알아차렸다. 어쩐지 소란스러운 느낌이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마차가 급정차했다. 알리사는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다. 지금 알리사는 남자 행색을 하고 있었다. 부러 어두운 색으로 칠해둔 피부와 얼굴에 억지로 만들어둔 흉터는 얼핏 보기엔 그럴싸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났다. 괜히 얼굴을 내밀어 책잡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마부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 하더니 험상궂은 표정의 남자가 창문에 얼굴을 들이댔다. 병사였다. 알리사는 반사적으로 그 시선을 피했다. 한참동안 눈동자를 굴려 마차 안을 살피나 싶던 병사는 이상한 게 없다고 여겼던지 곧 창문에서 멀어져갔다. 마차가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한참을 나아가서야 알리사는 마부를 향해 난 조그만 창을 두드리며 켄에게 눈짓했다.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나 싶던 켄은 왜 그러냐는 마부의 물음에 그제야 퍼뜩 정신을 차렸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켄은 알리사가 원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었다. 알리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별 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알시에 산적 떼가 들끓지 않았습니까. 신전에서 드디어 그것들을 처리하려는 모양입니다. 군대가 와 있더군요.”

군대? 알리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다행이지 않나요. 그렇잖아도 산적 때문에 알시로 가는 길이 막혀 저희 마부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드디어 그것들을 잡는다니, 여한이 없습니다.”

마부들이 산적을 염려해 알시로 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 옆의 다른 마을로 가달라 부탁했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 마저 군대가 주둔해 있다는 건 군대의 규모가 제법 크다는 걸 의미했다. 하필 이시르가 감옥에 갇힌 이 시점에 신전에서 일으킨 군대라니, 느낌이 좋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두 분께서도 상인이라고 하셨죠. 하필 로페알리드로 가는 주요 길목인 알시에서 산적떼가 들끓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알시 역할을 대체하게 된 다른 마을들에서도 고액의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상인들을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라던데...”

마부의 말을 들으며 알리사는 목을 가다듬었다.

“마부, 미안한데 저희는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너무 얇게 나가긴 했지만 제 말을 하고 있던 마부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예? 목적지까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생각해보니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요. 먼저 가십시오. 미리 지불했던 삯 그대로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럼 저야 감사하죠.”

마차를 멈춘 마부가 알리사와 켄의 짐을 내리는 걸 도와주었다.

“어이구, 무겁네요. 돌덩이라도 든 줄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능청스레 받아친 알리사는 마부가 건넨 보따리를 받아들다가 인상을 찌푸렸다. 마부의 말대로 좀 무겁긴 했다.

“돌멩이 든 거 어떻게 알았지?”

마부가 마차를 끌고 사라지기 무섭게 켄이 중얼거렸다. 어깨를 으쓱한 알리사는 들었던 보따리를 대충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안 챙겨도 돼?”

“돌멩이 든 보따리 챙겨서 뭐할 건데?”

“그건 그렇지.”

머쓱하게 중얼거린 켄이 알리사를 따라 보따리를 아무렇게나 팽개쳤다.

“근데 진짜 왜 내린 거야? 근처에 군대가 있다며, 걸리면 끝장인거 알지?”

“알아, 얼마나 많이 와 있는 지 보려고 하는 거야.”

“그걸 왜? 아니 그보다 우리 알시에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산적을 소탕하려고 군대가 와 있는 거라며. 잘못 휘말리면 골치 아파져.”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게 그 산적이니까.”

무심한 알리사의 대꾸에 켄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졌다.

“뭐?”

“지금 만나러 가는 게 산적들이라고.”

“가, 가족이었던 사람들이라면서. 너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야?”

켄의 오해를 풀기 위해 처음부터 설명하자니 이야기가 너무 길었다. 알리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높은 지대로 올라갔다가 몸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알리사를 따라 올랐던 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숨 멎는 소리를 내며 다급하게 몸을 숙였다.

“고작 산적 떼 소탕해 보겠다고 저렇게 많은 숫자가 왔다고?”

그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곳에는 개미떼마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사들과 병사들이 있었다. 확실히 몇 안 되는 산적 수에 비해서 움직이는 인원이 너무 많았다. 설마 마을 사람들이 산적들에게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을을 도륙 하러 온 건가? 그런 거라면 저 숫자가 말이 됐다.

“서둘러야 해.”

알리사는 다급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인원이 많기도 많고, 이리저리 지휘를 내리다 보면 시간이 지체 될 테니 빠르게 간다면 저들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무모해.”

알리사를 뒤따르던 켄이 투덜거렸다. 알리사는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진짜 무모하다고. 내 말 듣고 있어, 알리사? 산적들이랑 만나는 게 황태자 전하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편으로 포섭할거야.”

“뭐?”

“그래서 황태자 전하를 구할 거고.”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켄이 걸음을 멈췄지만 알리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 알리사의 뒷모습을 멍하니 응시하던 켄도 에이씨, 하는 소리를 내곤 다시 알리사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래, 운이 좋아서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 치자. 근데 당장 저기 있는 저 군대는 어쩔 건데? 그리고 무슨 수로 황태자 전하를 구해? 산적들은 많아봐야 고작 몇 십일 건데 그 숫자로 황태자 전하를 어떻게 구출 하냐고.”

“다 생각해 둔 게 있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 줘, 제발 켄.”

원래의 그녀라면 계획 하나하나를 차근차근하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쪽을 택했겠지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들이 이곳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도 이시르와 테오를 비롯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 뭐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다.

“알겠어.”

마지못한 듯 내뱉어진 대꾸였지만, 그는 더 이상 입 열지 않았다.

동료가 들고 온 소식을 들은 코렌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긴장한 눈으로 마담 킨의 가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찬찬히 훑어본 그는 이내 긴장을 숨긴 채로 미소 지었다. 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근처에 앉아있던 동료들의 어깨를 툭툭 쳤다.

“설마 긴장한 건 아니겠지, 친구들? 다들 예상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것 보단 낫지 않겠어? 다들 무기 들어, 손님맞이는 제대로 해야지.”

코렌카의 말에 산적들이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개 중 몇몇의 얼굴은 결연했으며, 몇몇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있었다. 코렌카는 쓴 웃음을 삼켰다. 오늘 밤이 지나면 그들은 몸뚱이를 잃은 채 저 들판 어딘가에 목이 걸려 있을 것이다. 저항해보려 칼을 들었지만 잘 훈련된 군인들을 이길 수 있을 리 없다. 1초라도 더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크게 심호흡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코렌카는 문득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가게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열어줘.”

코렌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벌컥 열리며 마담 킨을 선두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각자 손에 농기구며, 망치 따위를 들고 있었다.

“제니아?”

코렌카가 당황한 얼굴로 제 누나를 불렀다.

“너 아까 분명 자러 들어간다고...”

“언제 신전에서 군대를 이끌고 올지 모르는 살얼음판인데 내가 태평하게 잠이나 자게 생겼니? 우리도 소식은 들었어. 말했지, 너희는 이 마을 누군가의 아들이고 손자야. 그런 너희를 우리가 홀로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아?”

마담 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코렌카는 이를 악 물었다.

“필요 이상의 피해는 무의미해.”

그의 양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우리는 여러분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모인거야.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길 확률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건 아저씨들도 알고 있잖아? 예상한 것 이상의 피해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

“그렇다면 희생당하는 쪽은 젊은이들이 아니라 우리 늙은이들이여야지. 어차피 죽을 목숨, 살날이 얼마 남지 않는 우리가 죽는 편이 더 나아.”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말했다. 코렌카는 제 친구들을 보았다가 다시 마을 사람들을 보았다.

“제발 우리가 마을을 지키기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지 말아줘.”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우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너희를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겠지.”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코렌카의 얼굴이 붉어졌다.

“살아, 그냥. 그냥 우리 마을에 그런 산적들이 있었었지, 하고 잊고 살면 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자꾸 고집을 피워대 다들?”

“너희가 죽고 나면 신전에서는 다시 고액의 세금을 걷어 갈 거다. 그럼 그 때 마다 너희가 생각나겠지. 한 때 우리 마을을 지켜주던 가짜 산적들이 있어서 세금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이 보고 싶네 하고 생각날 거야. 어떻게 잊으란 말이냐?”

그 말에 코렌카는 말문이 막혀 친구들을 돌아보았지만, 그들도 딱히 반박할 말이 없는 듯 했다. 코렌카는 자신의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겼다.

“아으, 미치겠네! 진짜.”

한숨을 푹 내쉰 그가 다시 무슨 말인가 하기 위해 고개를 든 순간이었다. 그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

“실례할게요.”

작지만 또렷하게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엔 충분했다. 코렌카는 빠르게 눈을 깜빡였다. 허깨비를 보고 있나 했지만 헛것이 아니었다. 제니아가 헉 소리를 냈다.

“알리사? 네가 여길 어떻게?”

“오랜만이에요, 마담. 코렌카 씨랑 마을 사람들도.”

수도에 있어야 할 그녀가 왜 여기 있는 지 도통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그것도 하필 신전에서 군대를 몰고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제니아가 가장 우려했던 일을 스스로 겪기 위해 돌아오다니, 운도 지지리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담 킨이 다급하게 알리사의 어깨를 붙잡았다.

“알리사, 여긴 왜 돌아 온 거야. 내가, 내가, 무슨 마음으로 너를 마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하필 이 시기에 여기에 돌아오면...!”

“반응을 보아하니,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뭐? 어떻게 알았어?”

알리사가 원래 저런 분위기였던가. 코렌카는 그녀가 어딘지 원래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알리사의 눈동자가 코렌카에게로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 순간, 코렌카는 그 낯섦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삶에 의욕이라곤 전혀 없어보였던 지난날이 무색하게, 알리사의 눈은 삶에 대한 열망과 무엇을 향한 것인지 모를 열정 혹은 의지로 점칠 돼 있었다.

“코렌카 씨, 당신은 마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죠?”

“아, 어, 물론이지.”

얼결에 대꾸한 코렌카는 그제야 그녀의 뒤에 낯선 청년이 하나 더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뭐지, 몸이 꽤 좋은 것 같은데 운동을 하던 사람인가?

“제가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줄 테니까, 그 대가로 절 좀 도와주시겠어요?”

“황태자 전하, 뭐라도 좀 드십시오.”

옥지기의 걱정이 잔뜩 담긴 요구에도 이시르는 대답 없이 누운 몸을 뒤척였다. 20여 년간 푹신한 침대에 익숙해 있던 몸이라 그런지 고작 이틀 딱딱한 침대에 누웠을 뿐인데 허리가 아팠다. 이시르는 그의 양 손목을 단단히 동여매놓은 수갑을 눈앞으로 들어 올렸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방 안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던 도중 기사들에 의해 이 감옥까지 호송되어 갇힌 게 벌써 이틀 전의 일이었다. 그가 그의 남동생인 황자를 독살했단다. 그 황당한 죄명이 누명이라 밝혀지기는 무슨, 황태자 전하께서 독약을 타라 시켰다고 자백한 증인마저 나왔다고 했다.

누군가 억지로 상황을 조작하는 것 마냥 딱딱 떨어지는 모든 정황과, 그것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수많은 이들을 보며 그는 이 궁에 그의 편이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이번에도 모니카 황후가 꾸민 짓이라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었다. 어차피 물증이 있다 해도 곧바로 그의 손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곧 사라져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되겠지만.

이시르는 이마를 짚었다. 갇힌 지 이틀이었으니 독약이 들어있을까 걱정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은 것도 이틀이었다. 몸에 힘이 없었다. 이시르는 눈을 감았다. 괜한 생각으로 힘 빼는 것 보단 잠이라도 자며 체력을 비축해 두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될 것이다.

주변의 소음들이 차츰 멀어지기 시작했다. 철문 밖을 돌아다니는 옥지기들의 발소리도,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도, 열쇠가 철컥 거리는 소리도...

“황태자 전하.”

그리고 벨로나의 목소리도.

벨로나? 이시르는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철문을 보았지만 유일한 출입구는 여전히 굳건하게 잠겨있었고 손바닥만 한 창 너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오래 갇혀있었더니 헛 게 다 들리는군. 이시르는 자조하며 눈을 감았다.

“황태자 전하!”

하지만 두 번 째 부름과 함께 익숙한 손길이 그의 얼굴로 닿았을 때 이시르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벨로나? 이게 어떻게...”

“쉿.”

알리사가 다급하게 그의 입을 막았다. 체취마저 익숙했다. 헛것이 아니었다.

“알리사 양, 비켜.”

알리사의 뒤에서 언제 나타난 건지 모를 낯선 남자가 튀어나와 이시르의 팔을 구속하고 있던 수갑을 잘라 내주었다.

“열쇠가 없어서 일단 임시방편이..., 니다.”

이시르의 얼굴을 보며 툭 내뱉던 남자가 황급히 말을 올렸다. 알리사가 이시르의 팔을 잡아당겼다.

“들키기 전에, 빨리.”

감옥의 가장 구석진 벽면에 한사람이 겨우 기어 드나들만한 통로가 생겨 있었다. 있을 거라곤 미처 상상도 못했던 곳이다. 통로 속으로 먼저 기어들어간 알리사의 옷자락이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알리사와 함께 따라온 남자가 먼저 들어가라 손짓했다. 몸을 숙여 좁은 통로를 겨우 통과하자 한사람이 서서 지나갈 수 있는 새로운 터널이 나왔다. 뒤따라 기어들어온 남자가 몸을 돌려 입구를 막자 완전한 어둠이 드리워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벽을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던 중 성냥 긁는 소리와 함께 길이 밝아졌다. 알리사가 횃불을 킨 것이다.

“여긴 대체...”

어리둥절한 이시르의 물음에 뒤돌아본 알리사가 횃불을 가장 뒤에 서서 따라오던 남자를 향해 내밀었다.

“코렌카씨, 미안하지만 앞장서 주시겠어요? 전하랑 할 얘기가 있어서.”

“뭐, 비밀회의라도 하는 거야? 알았어, 이리 줘.”

이시르 옆의 비좁은 틈을 겨우 비집고 들어간 코렌카가 그들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대신 갈림길 나오면 알려줘야 해? 나 길 모르는 거 알지? 우리 다 죽을 지도 몰라.”

“네, 나오면 말해요.”

코렌카를 향해 대꾸한 알리사가 이시르와 가까이 붙어 섰다.

“황제들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야. 보통 황족들은 가장 깊숙한 옥에 갇히니까, 당신도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했지.”

“감옥에 비밀 통로라니, 그럼 감옥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탈출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진 거 맞아.”

알리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기득권층은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살 구실을 만들어 놓지. 이곳도 그런 곳이야. 반역이나 여러 이유로 갇히게 될지도 모를 황제가 자기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게 꾀를 부려 놓은 거거든. 하지만 황제가 아닌 황족들은 발견해도 탈출하지 못할 거야, 미로처럼 설계해둔 데다 잘못된 길로 가면 함정이 발동하는데 살아나갈 수 있겠어?”

“현 황제 폐하께서도 이곳을 알고 계시겠군요.”

“응, 그래서 누가 지키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지 뭐야. 아무도 없더라.”

이시르는 본인 목숨 하나 살고자 감옥에 비밀통로까지 만든 전대 황제들의 행각이 가증스럽다 여기면서도 덕분에 그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분명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라 전한 것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들었어.”

“그런데 왜 저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저 남자는 또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또 다시 무기력하게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조력자를 찾은 거고.”

알리사의 대꾸에 이시르의 목울대가 울렁거렸다. 그녀의 말을 이해함과 동시에 문득 머릿속에 무엇인가 스쳐지나간 탓이다.

“하지만 벨로나, 저는 이대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저만 갇힌 게 아니라 테오가 함께 갇혔었는데, 이대로 제가 홀로 도망가면 시트리안 경은 곧장 사형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사는 게 먼저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도 당신이 살아야 가능한 거잖아. 나랑 함께 새로 시작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저 또한 저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을 또 다시 잃고 싶지 않습니다. 희생되는 건 과거의 제 사람들로도 충분합니다.”

알리사는 이를 악물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는 두 사람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이 죽을 거야.”

“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황족이셨으니 더 잘 아시겠죠. 황족의 지위를 박탈당할지언정 목숨은 부지할 테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이시르가 몸을 돌렸다. 횃불이 닿지 않아 어둠만 자리잡은 좁은 터널 속으로 사라지는 그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던 알리사가 황급히 손을 뻗었다.

“리하이트!”

아슬아슬하게 붙잡힌 그의 옷자락이 금방이라도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갈 것 같았다. 알리사는 재빨리 그의 목에 양팔을 휘어감았다. 이시르의 놀란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로 닿는 게 느껴졌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신 나를 보지 않겠다고 해도 상관없어. 정말이야.”

알리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래도 좋으니까 제발 나와 함께 나가자. 당신에게 주변 사람들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아. 하지만 상대는 미켈이고,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이번에는 함께 만들자고 했잖아. 당신 없는 세상에서 나는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이젠 황족조차 아닌 나더러 혼자 뭘 하란 말이야?”

이시르의 호흡이 조금 느려졌다.

“벨로나, 저는...”

“말하지 마.”

알리사는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다. 사실 그녀는 이미 돌아올 대답을 알고 있었다. 알리사는 눈을 질근 감은 채로 옅은 숨을 몰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이시르의 입술 위로 가볍게 입 맞추고 그의 어깨를 터널 너머로 밀어 넣었다.

“가.”

얼떨떨한 그의 얼굴이 보였지만 알리사는 고개를 돌렸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알리사는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이시르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팔목을 힘주어 잡는 그의 손길도, 귓가에 속삭여 오는 목소리도.

“끝까지 살아남아주십시오.”

“듣기 싫어, 가.”

머뭇거리나 싶던 발걸음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나서야 겨우 다시 이시르가 서 있던 통로를 응시한 알리사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한참동안 제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는 알리사는 뒤돌아서 바라보고 있던 코렌카가 큼큼 하고 헛기침 했다.

“심각한 와중에 미안하지만 우리는 빨리 나가야하지 않을까?”

“미안해요. 코렌카 씨.”

알리사는 그제야 겨우 다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앞서가던 코렌카가 영문을 알려달란 듯 그녀를 힐끔 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도통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저대로 보내도 괜찮은 거 맞아?”

알리사는 코렌카가 질문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코렌카는 눈치 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물론 코렌카에게는 잘못이 없었기에 알리사는 그녀의 우울함이 그에게까지 전염되지 않도록 애써 표정을 바로 했다.

“아뇨, 죽으러 가는 건데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보내줬어? 끝까지 잡았어야지.”

“...그럴 자격이 없어서요.”

“왜? 상대가 황태자 전하라서?”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알리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말 그대로 자격이 없었을 뿐이다. 그의 목숨 결정권은 그에게 있었고, 그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미 한 번 억지로 그의 숨통을 끊었으니 이번 삶에서만큼은 그 스스로 선택해야 했다.

“하긴, 책사보단 연인 관계 같더라고. 네가 우리에게 황태자의 책사라고 했던 거, 우리 도움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지?”

어쩐지 날이 선 물음이었다. 알리사는 짐짓 놀라 코렌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일렁이는 횃불의 그림자가 내려앉은 그의 표정은 어딘지 탐탁지 않아 보였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애초에 평민 여자인 네가 황태자의 책사라는 헛소리를 곧이곧대로 믿은 내가 멍청했지. 네가 정말 책사였다면 황태자가 네 말을 따랐을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저대로 돌아간 거고 너도 붙잡지 못한 거 아냐? 나는 황태자만 구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것만 믿고 마을에 불까지 지르며 따라온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우린 갈 곳도 잃고 수배자 신세가 됐는데 이 뒷일을 어떻게 수습할거냐고.”

알리사는 그녀가 자신의 기분에 갇혀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코렌카가 그녀를 따라나선 것은 그녀에 대한 신의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황태자가 그들의 편이 되어 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람 앞에서 희망을 꺾어 버렸으니 그가 화가 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네가 그랬었지? 군대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전부 죽일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마을에 불을 질러서 마을 사람들과 산적이 한 패가 아니라는 걸 직접 보여줘야 한다고. 그런데 이제 보니 그럴 필요도 없었네. 그냥 마을 사람들은 뒤로 물리고 우리만 군대와 싸우면 되는 거였어. 그러면 명예롭게 죽을 수나 있었을 텐데...”

몸을 돌린 코렌카가 빠른 걸음으로 터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코렌카 씨!”

알리사는 그를 붙잡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잡히지 않았다. 점점 멀어져가는 불빛을 멍한 눈으로 응시하던 알리사는 천천히 고개를 아래로 숙였다.

‘애초에 평민 여자인 네가 황태자의 책사라는 헛소리를 곧이곧대로 믿은 내가 멍청했지.’

코렌카가 내뱉은 말이 따갑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황족도 뭣도 아니고 그저 여자일 뿐인 그녀는 무력하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그녀의 숨통을 옥죄어오기 시작했다.

황태자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엘리자베스는 큰 혼란이 일거라고 생각했다. 하나 뿐인 황태자가 감옥에 갇혔다는 건 둘째 치고, 백성들을 위해 노력하는 황족이라곤 이시르가 유일했으니 민중이 먼저 들고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황가에 기대가 없었던 사람들은 침묵했다. 간간히 들려오는 이야기라고 해봤자 황실 일은 황실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회의적인 내용뿐이었다.

거기다 황태자가 홍등가에 자주 갔다더라 하는 출처모를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자 민중의 반응은 더욱 싸늘해졌다. 원래 자극적인 소문일수록 진실인 양 번져나가는 법이었다. 게다가 이시르가 사창가에 간 것도 아주 거짓은 아니었던 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이시르를 향한 평판은 엉망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알리사가 하필 창가를 거처로 삼은 걸 잠시 원망했으나 오래 생각하진 않았다. 이 넓은 수도에 알리사가 머무를 곳이 없었다는 걸 엘리자베스도 알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우울함에 잠긴 채로 방문을 연 엘리자베스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 했다. 그녀의 이복 언니 레이첼 하이텔이 그녀의 침대 위에 앉아 그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와 있던 거지? 엘리자베스는 외출 금지령을 받았음에도 치료소의 일이 걱정 돼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다. 레이첼이 그녀의 외출을 알아차렸다면 큰일이었다.

“어, 언니.”

무심코 부르던 엘리자베스는 아차 했다. 레이첼은 둘만 있는 자리에서 그녀를 하이텔 공녀님이라 부르지 않으면 엘리자베스를 죽일 듯 굴곤 했다.

“왜 그렇게 놀라니? 내가 못 볼 거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어쩐 일인지 레이첼은 호칭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기분이 훨씬 좋아보였다. 엘리자베스는 애써 억지로 미소 지었다.

“언니가 제 방에 오신 게 처음이라...”

“당연하지. 내가 이딴 더러운 방에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휴, 냄새.”

레이첼이 과장되게 코를 붙잡으며 인상을 썼다. 엘리자베스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다. 이 정도는 평소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였다. 대체 왜지? 언니 기분이 왜 좋은 거지?

“외출 금지라던데, 어딜 다녀오는 건지 모르겠네. 도둑고양이처럼.”

“배가 고파서 식당에 다녀왔어요.”

“흥, 웃기는 소리. 내가 여기 얼마나 앉아있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릴 해. 보나마나 정원 구석에 박혀 책이나 읽고 있었겠지. 네가 잘하는 짓이니까.”

레이첼이 그녀의 외출을 알아버린 걸 아닐까 겁부터 집어삼켰던 엘리자베스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레이첼의 기분이 좋은 이유를 알기 전 까진 안심할 수 없었다.

“이게 다 뭐람.”

침대에서 일어나 엘리자베스의 책꽂이를 손끝으로 쓸던 레이첼이 빈정거렸다.

“하나같이 로맨스 소설이네. 아서라, 얘. 너는 연애 못해.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결혼밖에 더 하겠어? 남편 될 사람이 추남이나 아니길 바라렴.”

“저, 언니...”

“약초학? 너 이런 것도 보니?”

혹여나 찢어질까 애지중지하며 몇 번이나 완독한 서적이 레이첼의 손 안에서 허무하게 팽개쳐졌다. 레이첼의 구두 끝에 잘근잘근 짓밟히는 책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엘리자베스는 눈을 질근 감아버렸다.

“아, 그렇지 참. 얘, 그거 들었니?”

“네?”

“황태자 전하, 아니지 이제 황태자도 아닌가?”

이시르의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엘리자베스의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갔다.

“아무튼 이시르 오라버니의 처형일이 잡혔다던데 알고 있니?”

“네?”

한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방금, 뭐라고?

“안타까운 일이지 뭐야. 오라버니께서 제일 불쌍히 여기는 게 너여서 황제가 되셨으면 너한테 좋은 남자 하나 물어다 주셨을 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이어지는 레이첼의 빈정거림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불쌍한 엘리자베스. 기껏 붙잡은 동아줄이 썩어있었을 줄이야.”

레이첼의 깔깔거림이 높아졌다. 엘리자베스는 비틀거리며 한 손으로 벽을 짚고 지탱해 섰다.

테오는? 그럼 테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숙였다. 이시르 오라버니가 처형이라면 그 최측근인 테오의 최후조차 똑같지 않겠는가. 눈물 한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직 화해도 못했는데...

바싹 마른 입안에서 단내가 났다. 테오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이시르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후부터 단 한 번도 그를 따라야 하는 이유에 의문을 품은 적이 없다. 한 번 모시기로 결심한 주인을 배신하지 마라. 아주 어릴 적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가르침이었다.

그가 모시는 주인은 황가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황태자였다. 그것만으로도 곁에 있다가 목에 칼을 찰지도 모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 테오는 의연했다. 죽으면 죽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일까, 수많은 귀족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처형대 앞에 섰음에도 두려움은 없었다. 그저 그들의 죽음을 유흥삼아 포도주와 빵을 먹으며 구경하고 있는 자들이 경멸스러울 뿐이었다. 테오는 인상을 찌푸렸다. 어두운 지하에서 막 빠져나와 밝은 햇빛에 적응하지 못한 시야가 흐렸지만 그런 와중에도 엘리자베스를 찾아내긴 어렵지 않았다.

“겁도 많은 게...”

테오는 공터를 에워싼 관중석에 앉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처형대를 내려다보고 있는 엘리자베스를 보며 중얼거렸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시트리안 공작 부부는 이곳에 없었다. 자신 때문에 덩달아 자택에 구금 된 상황이라고 했으니 오지 못한 게 당연할 것이다. 설령 올 수 있다 해도 오지 않았겠지만. 어떤 부모가 하나 뿐인 자식이 죽는 걸 제 눈으로 멀쩡히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미련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가 걸렸다. 자신을 잃고 둘만 남게 될 부모님과 화해하지도 못한 마당에 하나뿐이었던 친구의 죽음을 직접 보게 된 엘리자베스. 아마 죽어서도 아픈 손가락이 되어 그를 괴롭힐게 뻔했다.

테오는 엘리자베스가 그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그녀를 향해 웃어보였다.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엉망으로 구겨 진 것 같기도 했다.

사형집행인이 그를 붙잡은 밧줄을 잡아당겼다. 앞장서라는 의미였다. 테오는 사형집행인의 얼굴을 힐끔 거렸지만 사형집행인의 얼굴은 붕대로 동여매져 있었다. 사형집행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해 마지막 가는 길에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용도였다.

눈 하나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더니, 정말 눈동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저래서 앞이 보이나 싶을 정도였다. 결국 사형집행인의 얼굴을 보는 걸 포기한 테오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마지막 숨결을 내뱉을 처형대를 바라보았다. 둥글게 매듭져 묶인 밧줄이 바람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을씨년스럽게 보이기도 했다.

테오는 겁먹은 걸 티내지 않으려고 더 씩씩하게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이시르를 지나칠 때 그는 이시르를 향해 익살맞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시르의 표정을 보고 싶었지만 사형집행인의 재촉에 그럴 수 없었다. 테오는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제법 멋있었다고 생각했다. 전하께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고 여기며 테오는 목을 휘감아오는 밧줄을 거칠한 감각을 느꼈다. 테오는 억지로 입 꼬리를 올려 웃었다.

처형장으로 꾸며진 이곳은 평소 기사들의 대련 장으로 쓰이는 장소였다. 처형대가 치워진 이 공간에서 테오는 종종 이시르와 목검으로 대련을 하곤 했다. 어렸을 때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황태자였지만 머리가 크고 나서는 드물게 그가 완승을 거두기도 했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로 추억이 담겨 있는 장소라, 퍽 나쁘지 않은 마지막이었다.

바람이 분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굽어 살피던 황제가 신호를 보냈다. 테오는 눈을 감았다.

“테오 님.”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뭐야, 벌써 죽은 건가? 테오는 어리둥절하게 한쪽 눈을 떴다. 하지만 풍경은 그대로였다.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귀족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려 있었다. 뭐야, 테오는 다시 눈을 감았다.

“눈 뜨세요, 테오 님.”

진짜 뭐야? 테오는 눈을 번쩍 떴다. 시간이 지나도 처형이 집행되지 않자 귀족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사형 집행장의 벽 너머. 성 내곽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자리에 앉아있던 귀족들이 외마디 비명을 질러대며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란 속에 테오의 앞에 있던 사형집행자가 그의 목에 씌웠던 밧줄을 벗겨내고 손목을 묶어 놓은 수갑을 풀어주었다.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접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들고 가서 황태자 전하 수갑부터 풀어드리세요.”

어쩐지 익숙한 목소리다 했더니 풀어헤친 붕대 너머로 보이는 얼굴 역시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다. 그가 수습기사로 데리고 있던 켄이었다. 분명 알리사와 함께 도망치라는 명령을 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언가 더 캐물으려던 테오는 기사들이 달려올 것을 염려해 켄이 내민 칼을 들고 이시르가 있던 방향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이게 다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풀어주랍니다. 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테오는 이시르의 수갑을 끊어내면서도 이게 혹시 죽기 직전에 꾸는 꿈이 아닐까 생각했다. 어쩌면 그는 그의 생각보다 더 많이 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이런 터무니없는 상상을 할 만큼.

“테오 시트리안 경.”

“네, 네.”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으면 좀 더 모시는 게 좋겠군.”

“예?”

테오는 얼빠진 표정으로 이시르를 응시했다. 자신의 상상이라면 이시르가 이런 반응을 보일 리가 없었다.

“반란이다.”

엄청난 얘기를 하는 사람치고 지나치게 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테오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반란이요? 누가요?”

“우리가.”

“예?”

“그리고 저들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다. 테오는 이시르의 얼굴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이내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활짝 열린 처형장 입구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여자였다. 귀족 영애들이 뒤늦게 도착한 건가 했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결코 고급 원단이 아니었다. 게다가 엉망으로 잘린 그들의 짧은 머리카락이 이미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고 있었다.

홍등가의 여자들. 속된 말로 창녀라 불리는 여자들이 평생을 살며 단 한 번도 발걸음하지 못할 황궁에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은 알리사 더스트였다.

‘애초에 평민 여자인 네가 황태자의 책사라는 헛소리를 곧이곧대로 믿은 내가 멍청했지.’

황족도 뭣도 아니고 그저 여자일 뿐인 그녀는 무력하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그녀의 숨통을 옥죄어오기 시작했다. 목 끝까지 턱 하고 차올랐던 숨이 깊은 한숨과 함께 빠져나간다. 알리사는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신분이 어때서. 내가 여자인 게 어때서. 그녀를 이를 악 물었다. 벨로나 하이텔로 살아올 때부터 이미 질리도록 들어온 말이다. 그녀의 생모조차 그런 식으로 그녀를 좌절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 없다. 벨로나 하이텔이 그랬으니, 알리사 더스트도 마땅히 그럴 것이다.

어떤 절망이라도,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알리사는 활짝 열린 처형장 입구의 선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일어날 일들을 짐작도 못한 듯, 화창한 하늘을 보는 순간 아찔한 기분이 몰려들었다.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다. 또 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배신으로 죽는 이는 없을 것이다. 죽음조차 같은 마음으로 하게 되겠지. 그것으로 충분했다. 알리사는 몸을 돌려 그녀와 기꺼이 뜻을 함께해준 홍등가의 창녀들을 보았다.

코렌카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도움을 요구할 곳이라곤 그들이 유일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홍등가의 여인들에게 연대를 요구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알리사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들은 알리사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의료 행위와 친절을 기억하고 있었고, 유곽에서 죽어가는 삶보다 싸우다 죽는 삶이 낫다고 믿었다.

게다가 그 곳의 창녀들 대부분이 신전에 의해 빚을 지고 억지로 끌려온 이들이었다. 그들을 그런 꼴로 몰아넣은 신전에 복수를 할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가능성에 그들은 기꺼이 몸을 맡겼다.

일단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코렌카를 다시 설득하는 건 쉬웠다. 알리사는 코렌카 킨과 같은 사람을 잘 알았다. 그가 떠나간 것은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으니, 다시 신뢰만 심어준다면 그는 기꺼이 돌아올 터였다. 인재 하나하나가 아까운 상황에 그의 도움은 절실했다. 타고난 완력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힘을 써줄 남자들이 없어선 안됐던 것이다.

그렇게 세력을 끌어 모은 알리사는 비밀통로를 이용해 매일같이 이시르를 찾아가 작전을 짰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모든 귀족들이 증인이 되는 자리에서 황권의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지.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의 처형일로 예정된 그 날이, 바로 결전의 날이 될 것이라고. 그게 오늘이었다.

“캐서린, 기분이 어때요?”

알리사의 말에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캐서린이 빙그레 웃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대신관에게 복수할 준비는 됐어요?”

“네.”

이를 꽉 깨물고 읊조리는 캐서린을 가만히 응시하던 알리사는 귀족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처형장 입구를 막고 선 코렌카와 그 일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코렌카가 문제없다는 의미로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다.

“미켈, 그 개자식이 이곳 어디에 있을 겁니다. 다 같이 가서 잡아오세요.”

알리사의 명령에 그녀의 뒤에 서 있던 여자들이 귀족들 사이로 파고들어 사라졌다. 귀족들은 각자 도망치기에 바빠 창녀들이 그들을 스쳐지나가던 말던 신경 쓰지 못했다.

알리사는 고개를 돌려 예정대로 황제를 잡으러 갔을 이시르를 찾았다. 켄과 테오와 함께 황제 근처에 있던 근위병들을 처리한 이시르가 저 멀리서 황제를 끌고 오고 있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들이냐! 썩 꺼지지 못할까?”

바로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불호령에 알리사는 고개를 돌렸다. 코렌카 일당을 뚫고 달아나려다 실패한 하이텔 공작이 그를 제압한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알리사를 혀를 쯧 차며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다.

“이, 이, 천한 것들이!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곧 몰려오면 너희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알리사의 조용한 대꾸에 고개를 홱 돌려 그녀를 바라본 하이텔 공작이 눈을 세모꼴로 떴다.

“너, 너, 너!”

“오랜만입니다, 하이텔 공작 전하. 안타깝지만 성을 지키는 군인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의 병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배 중인 산적들을 잡으러 떠났거든요. 황제 폐하의 허락을 받고 군대를 일으킨 누군가의 명령으로 하필 딱 오늘까지 수도에 없을 예정입니다.”

“누가 그런...!”

“누가 이런 멍청하고 한심한 짓을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알리사는 옅은 한숨을 내쉬며 하이텔 공작의 앞에 섰다.

“파리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걸까.”

“네가! 네가 감히, 그 미천한 입으로 내 이름을...!”

알리사는 대답 없이 몸을 돌렸다. 어디선가 소란이 이나 싶더니 귀족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머리를 짧게 깎은 여자들에게 끌려오는 미켈의 모습이 보였다.

마주할 때마다 치가 떨리고 분노가 일었던 자인데, 여자들의 손에 붙들려 끌려오고 있는 미켈의 모습은 그냥 볼품없는 노인의 모습 같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정정하고 또 기력이 넘치는 남자인 건 확실한데, 이전과 같은 위압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여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버둥거리는 미켈을 가만히 응시하던 알리사는 헛웃음을 터트렸다. 추악한 자식. 남 목숨 아까운 줄 몰랐던 주제에 제 목숨 아까운 줄은 아는구나. 알리사의 코앞까지 다가온 미켈의 무릎이 바닥으로 내리박혔다. 그는 어떻게든 무릎 꿇지 않고 버티려했지만 수많은 여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대신관 님.”

알리사의 부름에 고개를 홱 돌려 눈을 부릅뜬 미켈의 눈에 당혹스러움이 어렸다. 황태자와 작당해 독약을 만들었다는 죄명으로 처형당해 죽은 여자가 멀쩡히 살아 그의 눈앞에 있었으니 놀랄 만도 했다.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저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기사 중 하나가 하필 황태자 전하의 사람이어서.”

“만일에 대비해 믿을만한 사람을 함께 보냈을 텐데?”

“그렇다면 다음부턴 두 사람 모두 믿을만한 자로 보내는 게 좋겠네요. 물론 다음은 없겠지만.”

알리사의 덤덤한 대꾸에 미켈의 얼굴이 엉망으로 일그러졌다.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거지? 천민 계집애와 창녀들의 도움을 받아 황위에 오른 황태자가 귀족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백성들의 지지를 만드는 건, 올바른 정치지 당위성이 아닙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계집애가 말은 잘 하는구나.”

미켈의 신랄한 대꾸에 알리사는 그를 향해 몸을 기울여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모르긴 몰라도 당신보단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너를 그 지위에 올려놓은 게 나인데.”

“뭐라고?”

미켈의 얼굴이 와락 일그러졌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알리사의 입가에 짙은 미소가 걸렸다.

“지옥에라도 가서 네 놈 아래 놓일 내 조국이 망하지 않길 기도하겠노라고.”

“그걸,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누구냐? 누구이기에 그걸 알고 있지? 그건...”

“너와 여왕의 세 조카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그래. 그런데 네가 그걸 어찌...”

혼란과 공포로 물든 미켈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알리사는 미켈의 두 뺨을 붙잡았다.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아니야. 그럴 리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일어났지. 눈앞에 증거가 있음에도 믿지 못하겠나? 내 얼굴을 똑바로 봐. 내가 누구지?”

“말도 안 되는...”

“내가 누구냐고, 미켈 브릴리언트.”

재차 이어진 알리사의 물음에 미켈의 시선이 떨렸다. 입술을 달싹이다 멈추고, 다시 떼어냈다가 도로 다물기를 반복하던 미켈의 눈동자가 일순, 알리사의 눈동자를 향해 고정됐다.

“벨로나…, 하이텔.”

알리사는 그의 눈동자에 알 수 없는 빛이 스쳐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의미모를 눈빛을 파악하기도 전에 미켈의 곁으로 황제가 무릎 꿇려 앉혀졌다. 알리사는 미켈과 함께 그녀를 죽였던 조카 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기억보다 훨씬 늙고 병약해진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차올랐다. 분노였다.

알리사는 한숨을 내쉬며 미켈의 얼굴을 힘주어 잡았다.

“권력이 탐나 나를 살해까지 한 조카의 최후가 허수아비 황제라니, 통탄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것도 하필 당신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라니 더더욱.”

“그럼 다음 번 황제는 네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겠군.”

미켈의 차가운 시선이 이시르에게 향했다가 알리사에게로 되돌아왔다.

“어떻게 황태자를 꼬드겼지?”

“뭐라고?”

“네가 정말 벨로나 하이텔이라고 한들, 황태자는 어떻게 네 편으로 끌어들인 거지? 또 그 잘난 얼굴과 몸뚱이로 유혹했나? 내게 그런 것처럼? 네 충직했던 기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켈의 비아냥거림에 알리사는 얼굴 가득 조소를 그렸다.

“내가 언제 당신을 유혹했어? 당신 혼자 제 욕망 하나 제어하지 못해 내 발등에 입 맞춘 거지. 개새끼처럼.”

미켈의 얼굴에 모욕감이 번졌다. 알리사는 그런 그의 얼굴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가 이내 빙그레 미소 지었다.

“황태자를 어떻게 꼬드겼냐고? 유혹이고 나발이고, 그는 처음부터 내 사람이었어.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이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반란군 우두머리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야.”

“설마.”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군. 리하이트의 얼굴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고 기억했더라면 조금이라도 의심했었을 텐데.”

미켈은 혼란스러운 중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의 말처럼 비슷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는 의심하지 못했을 뿐이다. 전혀 상식 밖의 일이었으니 상상 할 수 있었을 리 없다.

“그러게 왜 군대를 밖으로 빼돌렸어 미켈. 벨로나 하이텔이 그랬던 것처럼, 이시르 하이텔이 군대 내에 자신만의 군대를 만들어 두었을까봐 걱정했나? 그래서 그들이 없는 이때를 노려 처형식을 진행하려 한 거고?”

“망할, 벨로나.”

미켈이 이를 갈았다. 알리사는 그녀의 예상이 맞았음을 깨닫고 낮게 웃었다.

“그래, 그럴 것 같았어. 고작 산적 몇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군인을 동원했기에 이상하다 했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대비하는 자세엔 칭찬해줄게. 반쯤은 정답이기도 했고.”

알리사는 알시로 가는 길목에서 보았던 수많은 군인들을 떠올렸다.

“아마 당신은 산적들이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쾌재를 불렀을 거야. 누가 황태자 측근인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군인들의 발을 더 묶어둘 핑계거리가 생겼잖아? 그 산적 무리가 황태자와 손을 잡았단 것만 알았어도 그런 실수는 안했을 건데.”

알리사가 느리게 혀를 찼다.

“당신이 내게 했던 물음 그대로 돌려줄게, 미켈. 지난 날 당신이 저지른 짓들에 대해 후회하나?”

미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독이 서린 눈으로 그녀를 노려볼 뿐이었다.

“역시 대답하지 않을 줄 알았어.”

알리사는 미켈과 그녀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곁에 서 있던 이시르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마무리는 그녀의 몫이 아닌 그의 몫이었다. 이시르가 그녀의 눈빛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들으라.”

이시르의 목소리가 허공으로 울려 퍼지자 웅성이던 귀족들이 침묵했다.

“나는 조세라는 이름 아래 엄청난 혈세를 걷었던 신전과 그걸 알면서도 눈감아준 황가를 두고 볼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다.”

알리사는 천천히 이시르의 곁에서 물러났다. 지금만큼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 쏠릴 필요가 있었다.

“이 자리에 선 저 여자들과 남자들은 모두 신전의 패악에 의해 고통 받던 자들이며, 지금과 같은 일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때는 이 숫자가 아닌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을 지도 모른다. 나는 더 이상의 희생을 원하지 않았기에 오늘이 적기라고 판단했다. 분노한 백성들에게 함께 돌을 맞아 죽을 것인지, 귀족으로써 모범을 보여 그들의 고통에 함께할 것인지 판단하는 건 그대들의 몫이다.”

덤덤하게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이어가는 이시르의 모습을 보며 알리사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60여 년 전 그에게 진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 궁 안에 그대들을 도와줄 군인들은 없다. 내게 황자를 독살하려했다는 누명을 씌운 미켈 대신관이 도망친 산적들을 붙잡는단 명분으로 군인들을 바깥으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군인들 사이에 내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걸 알고, 반란을 대비한 행동이었겠지만 그게 독으로 돌아왔군. 그 산적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 자들이란 걸 알았다면 멀리 갈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귀족들의 원망어린 시선이 미켈에게로 향했다. 호위를 목적으로 대동한 기사들은 애초에 처형장까지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귀족들은 모두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아까 전의 폭발음은 기사들이 모여 대기하고 있던 광장에서 일어났다. 최소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대들에게 묻겠다. 나와 함께 썩어빠진 황실을 개혁하겠는가, 분노한 백성들이 그대들의 목을 가져가길 기다리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제 목숨은 귀히 여기는 귀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 뿐이었다.

알리사는 그들이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깨달았다.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미켈의 잔꾀를 역이용해 귀족들을 압박하는 것만으로 황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 진 것이다. 알리사는 이시르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됐다, 이것으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알리사!”

그 때였다. 엘리자베스의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알리사는 푹 하고 살이 꿰뚫리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다. 허공으로 붉은 액체가 튀었다.

“아...”

알리사는 그녀의 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라도 했는지 주변의 모두를 뿌리치고 품에 있던 호신용 검으로 그녀를 찌른 미켈이 자결을 위해 칼을 그의 목덜미로 들이대는 것을 발견했다. 안 돼. 시야가 흔들리며 푸른 하늘이 흐릿하게 밀어닥쳤다.

알리사는 그녀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 전에 이시르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등을 받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왈칵, 그녀의 입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왔다.

“벨로나!”

“알리사!”

그녀가 알고 지내던 모든 이들이 그녀에게로 다급하게 달려왔다. 눈앞이 흐렸다. 알리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켈이 있던 방향을 보았다. 그는 근처의 남자들에게 칼을 빼앗기고 제압당해 있었다.

알리사를 바라보는 미켈의 눈동자에는 짙은 원망이 담겨 있었다. 알리사는 그 눈동자를 빤히 응시하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미켈이 죽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그에게는 죽음도 사치였다. 그는 살아서 고통 받을 필요가 있었다.

“안 돼, 알리사!”

켄의 다급한 목소리를 끝으로 그녀의 세상이 뒤집어졌다.

알리사는 처음 보는 꽃밭에 서 있었다. 형형색색 알록달록한 꽃들로 가득한 꽃밭은 사방을 둘러봐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 난생 처음 오는 곳인데도 어쩐지 낯설지 않은 공간이었다.

알리사는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았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눌려져 기울었던 꽃들은 그녀가 위치를 옮길 때 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빈자리를 채워 넣었다. 한참을 걸어가던 알리사는 머리를 아프게 할 만큼 짙은 꽃향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걸 깨달았다. 냄새란 코가 적응하면 사라지는 게 보통이었다.

알리사는 제자리에 서서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누군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다 문득, 저 멀리 익숙한 꽃나무들이 즐비해있는 걸 발견했다. 동백나무였다. 홀린 듯 그곳으로 걸어간 알리사는 동백나무 숲의 입구에 서서 잠깐 들어가기를 망설였다. 어쩐지 섣불리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였다.

“공주님!”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동백나무 뒤에서 새하얀 얼굴이 불쑥 튀어나왔다. 알리사는 화들짝 놀라 입을 가렸다.

“폴?”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그녀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인 노인의 모습이 아닌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폴이 발랄하게 그녀의 앞으로 뛰어왔다.

“얼른가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다니, 누가 말이니?”

“아빠랑 마을 사람들이요.”

폴이 그녀의 손을 잡고 동백나무 군락을 향해 잡아당겼다. 강한 힘이 아니었음에도 거부할 수 없는 느낌 속에 알리사는 폴의 뒤를 쫓았다.

활짝 핀 동백꽃들 사이를 지나 한참동안 걸어가던 폴이 문득 걸음을 멈췄다. 알리사를 한 번 돌아본 폴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더니 이내 그녀의 손을 놓고 동백나무 사이로 쪼르르 달려가더니 사라져버렸다.

“폴?”

알리사가 폴이 사라진 나무를 향해 걸음을 떼어놓았다.

“공주님.”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폴은 아니었지만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공주님.”

이것도.

“벨로나 공주님.”

이것 역시도. 알리사는 제자리에 서서 두리번거렸다. 목소리는 온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부르는 소리는 끊이지 않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자 혼란을 느끼던 알리사는 문득, 이전에도 이 상황을 겪은 적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정확히 20년 전이었다. 벨로나 하이텔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 날, 그녀는 이미 이곳에 온 적이 있었다.

그 때의 사람들은 그녀를 원망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들의 울부짖음에 머리가 아파와 정신이 아득해졌을 정도로.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의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원망에 차있지도 울고 있지도 않았다. 그냥 덤덤하게 공주님, 하고 부르고 있을 뿐이었다.

“다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메아리쳤다. 알리사는 고개를 돌렸다.

“네? 다들 어디에...”

“공주님, 저희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다시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스스로 죗값을 치루겠다고 하셨죠. 이제 치루셨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갑자기 온 몸이 무거워졌다. 마치 돌덩이가 그녀의 양 어깨 위로 놓여 진 것 같았다.

“죄책감 때문에 이곳으로 발걸음 하는 걸 멈추세요. 공주님은 아직 이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눈앞의 풍경이 허물어진다. 사방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리하이트 님 곁에 있어만 주세요. 그게 이제 저희가 당신에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황제 폐하.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었다. 알리사는 거센 충격과 함께 어디론가 굴러 떨어지는 걸 느꼈다. 허공으로 튕겨져 나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은 어두운 구멍 아래로 몸이 곤두박질쳤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의 끝에 몸이 닿은 순간.

“헉!”

알리사는 거친 숨결을 내뱉으며 눈을 떴다.

“벨로나.”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운 목소리를 들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엉망이 된 얼굴을 한 이시르가 다급하게 그녀의 뺨을 매만졌다.

“정신이 드십니까?”

“...응.”

나지막한 그녀의 대꾸에 복잡한 표정을 하던 이시르의 몸이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그녀의 손을 붙잡은 채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은 이시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눈물이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시르의 뺨을 매만진 알리사는 억지로 입 꼬리를 올려 웃었다. 미켈에게 구멍이 뚫린 배가 아팠지만 참을만했다.

“황제가 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쓰나.”

그녀의 농담에도 이시르는 웃지 않았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이미 황제입니다.”

“응?”

예상치 못한 그의 대꾸에 머리가 멍해졌다. 알리사는 눈을 깜박이다가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황제들이나 입는 붉은 색과 하얀색 황금색이 섞인 예복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거야?”

“한 달입니다. 그 동안 저는 황제가 됐고, 당신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미켈에 대한 처분은 미뤄두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알리사는 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도로 머리를 붙여 누웠다.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거나 무언가 크게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걱정했겠네.”

“제 탓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덤벼들 걸 미리 예상했어야 했는데.”

“그게 왜 당신 탓이야. 거기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걸. 그리고 안 죽었으니 됐어. 어차피 죽지도 못했겠지만.”

알리사는 힘없이 미소 짓고는 이시르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있잖아.”

“네.”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예?”

알리사는 천장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 잘못으로 희생 된 네 사람들을 만났어. 그리고 지금은 전부 기억나. 내가 벨로나 하이텔로 죽었을 때, 나는 낯선 황무지에서 깨어났었어. 그리고 피를 흘리며 나를 응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했는데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 ...네 사람들 말이야.”

알리사는 의식적으로 이시르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의 사람들이 죽어서도 고통 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시르는 그녀를 원망할 게 분명했다. 더 이상 그에게 미움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에겐 알권리가 있었다.

“나는, 그러니까 벨로나 하이텔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네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 대신 그들이 지키고 있던 당신 앞으로 나를 데려갔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을 뜨고 나를 원망하고 있었는데 당신만 잠을 자는 것처럼 고요하게 누워 있더라. 나는 당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알 수 없었지만 당신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몇 번이고 속으로만 삼켰던 후회와 사과를 했고, 당신 사람들은 그런 나를 향해 원망어린 절규만 쏟아내더라. 나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

그 순간, 알리사의 손을 붙잡은 이시르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알리사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그렇게 몇 시간이고 당신 앞에 무릎 꿇은 채 앉아 있었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 죗값은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론 치를 수 없다는 거 말이야. 그러자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절규만 하던 마을 사람들이 나와 당신 주변을 둘러싸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 어지럼증에 잠깐 정신을 잃었던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이미 알리사 더스트였어. 당신이 이시르 하이텔의 몸에서 깨어났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나는 의도적으로 내 기억을 지웠어. 어머니의 목숨과 맞바꿔 태어난 알리사 더스트의 운명을 예감해서, 기억이 있는 삶보단 없는 편이 훨씬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했거든. 나는 괴로울 필요가 있었으니까...”

알리사의 눈에 눈물이 잔뜩 고였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감자 눈물 한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국 그들은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거겠지. 당신만이라도 원했던 세상을 누리길 원했던 걸 거야.”

“하지만 저는 그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것도 못하긴. 이젠 그들이 원했던 나라를 만들 거잖아.”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잔뜩 메인 이시르의 목소리를 들으며 알리사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화내도 괜찮아. 내가 미울 거 아냐.”

“...이번에 만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번엔 모습을 보지 못했어. 대신 처음 갔을 땐 황무지였던 곳이 온통 꽃밭이었지.”

“그거면 됐습니다. 그들이 안정을 찾았다는 말이니까요.”

알리사는 고통도 잊고 몸을 벌떡 일으켜 세워 이시르의 목을 휘어 감았다.

“잠시만, 상처가 벌어질...!”

이시르의 뒷말은 알리사의 입술에 집어삼켜졌다. 어쩔 줄 모르고 허공에서 머뭇거리던 팔이 그녀의 허리를 단단하게 붙잡았다. 알리사의 턱 끝으로 마지막 눈물 한줄기가 흘러내렸다.

황제 폐하. 누군가가 떠나가는 그녀를 향해 말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왕국을 제국으로 명명하고서도, 그녀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껴 여왕이라 불리길 원했던 왕을 황제라 불러준 것이다. 스스로는 황제라 칭했지만 그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던 벨로나 하이텔이 비로소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알리사는 이제 벨로나 하이텔을 놓아줄 때라는 걸 알았다. 그들에게 황제로 인정받은 것을 끝으로 벨로나 하이텔과는 진짜로 작별할 때였다.

알리사는 이시르에게서 천천히 입술을 떼어내고 그의 뺨을 매만졌다. 이시르의 눈동자에 들어선 욕망을 읽었지만 지금은 응해줄 수 없었다. 알리사는 앓는 소리를 내며 다시 침대 위로 몸을 뉘였다. 충동적으로 그에게 키스했지만 역시 이 몸으론 무리였다. 이시르의 걱정스러운 손길이 그녀의 이마를 쓸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던 알리사는 고통이 조금 가시는 걸 느끼며 입을 열었다.

“리하이트, 나는 이제 벨로나 하이텔을 보내줄 생각인데 당신 생각은 어때?”

“지난 인연은 끝낼 때가 되긴 했죠.”

“당신 말이 맞아, 이시르.”

그녀의 나지막한 부름에 이시르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가 그를 이시르라 부른 건 처음이었다.

“뭐야, 지금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귀 끝이 조금 붉어진 이시르의 얼굴을 보며 알리사가 웃음을 터트렸다.

“아니긴? 뭐야, 진작 이렇게 불러줄 걸. 이시르?”

“그만 하십시오.”

“싫어, 이시르.”

“제발, 알리사.”

이시르의 다급한 제지에 이번엔 알리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가 알리사라 부른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벨로나 하이텔이 아닌 알리사 그 자체로 보고 불러준 것은 처음이었다. 속에서부터 간질간질한 무언가가 올라왔다. 마치 처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던 그 때처럼.

“무슨 기분인지 알겠어, 그만할게.”

알리사가 황급히 백기를 들었다. 눈을 질근 감고 숨을 고르자 이시르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알리사 역시 그와 함께 숨죽여 웃다가 문득 눈을 떴다.

“모니카 황후의 처분은 어떻게 됐어?”

“그녀의 방에서 황자 독살에 쓰인 약초가 발견 됐습니다. 비록 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처분은 같을 테니 이걸로 족합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조용히 중얼거리는 알리사의 목소리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당신 이복동생은 어떻게 됐어?”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엔 독했던 모양입니다.”

이시르는 굳이 말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알리사는 그가 삼킨 뒷말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더 이상은 씁쓸한 웃음을 감출 수 없게 됐다.

“어떻게 보면 그 여자는 나와 참 많이 닮았어.”

“모니카 황후와 당신이요?”

“응, 둘 다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 권력을 갈망해 몸부림쳤다는 점이 닮았지. 차이라곤 나는 성공했고 그 여자는 실패했다는 게 전부인걸.”

“당신은 적어도 당신의 사람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는 권력을 위해 제 자식을 독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여자와 당신을 닮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한들 흘린 피는 내가 더 많은걸.”

알리사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처음부터 미켈을 곁에 두지 않았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그녀는 창가로 고개를 돌렸다. 서리 낀 유리창 너머로 새하얀 눈이 쌓인 고요한 풍경이 보였다.

“몇 번을 후회해도 답은 찾을 수 없겠지. 후회는 이미 질리도록 했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테니 당신 몫의 후회도 내가 할게. 당신은 앞만 보고 나아가. 한 어리석은 황제가 염원한 걸 당신이 이뤄줘.”

그라면 그녀가 사랑한 이 조국을 무사히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거면 됐다.

“아뇨, 알리사.”

그녀는 불에 댄 듯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예상치도 못한 대꾸에 정신이 번뜩 들었다. 그녀는 고통도 잊고 몸을 돌려 이시르를 쳐다보았다.

“왜 그 길에 당신은 없을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이번에는 함께하기로 했으면서.”

“하지만 지금 내 신분은...”

“천민이죠.”

이시르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개혁은 혁신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민 출신의 황후만큼 혁신적인 출발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제 곁에 함께해주십시오. 마지막 개혁이 끝날 때 까지.”

“지금 이거 청혼하는 거야?”

“네.”

“병자를 앞에 두고 청혼이라니, 멋없긴.”

알리사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비로소 종지부였다.

반쪽짜리.

가문의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비천한 어미에게서 난 자식이라며 그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했다. 그 별명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다. 그의 피 반절은 귀족이었으나, 사람들은 항상 나머지 반에만 집중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은 그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집중하면서 그가 실수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물어뜯었다.

“귀족이란 놈이 그리 격식 없이 굴어서야. 실망이구나.”

아버지가 했던 말인지, 위로 둘 있는 이복형제 중 하나가 했던 말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실망이란 말만큼 우스운 단어가 없다는 것이다. 실망도 기대가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지. 거짓말쟁이들. 당신들은 애초에 나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잖아.

주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괴물이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그것은 분노 속에 잠들지 못하는 그의 귓가에 대고 매일 밤 속삭였다. 너를 무시하는 저것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거야? 네가 저들보다 훨씬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저들을 네 발아래에 두고 네게 저지른 짓 그 이상을 돌려줄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이 올라가야 해, 좀 더.

처음에는 눈을 감았다. 도중에는 귀를 틀어막았고 종래에는 입을 막았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거야. 나를 무시하는 것들이 보기 싫다면 내가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 나중에 독립하게 되면 그때는 아주 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면 됐어.

“정말 그거면 됐니?”

“예?”

여인의 물음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 푸줏간에서 커다란 칼을 들고 닭의 목을 따는 작업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던 여인이 구석에 얌전히 앉아있는 그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서 흔들리고 있는 죽은 닭의 몸뚱이를 발견한 그는 미간을 썼고, 여인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한 때는 아무렇지 않게 봤던 풍경이 이제는 인상을 찌푸릴 만큼 끔직한 모양이구나.”

여인의 지적에 그는 황급히 표정을 갈무리했다.

“그게 아니라.”

“아니긴,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응시하는 시선이 불편했다. 그는 의식적으로 여인의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속마음이 읽히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너는 아니라고 부정해도 이젠 이곳에서의 생활보다 귀족 생활에 익숙해진 모양이지. 네가 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간 게 7년 전이던가.”

“네.”

“13년을 산 이곳보다 고작 7년을 산 그곳이 익숙하다는 건 그곳에서의 삶이 더 만족스럽다는 증거란다. 만약 내가 네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종용한다면, 너는 그럴 수 있겠니?”

나긋하게 이어진 물음에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과 무시하는 사람들은 없으나 생존권을 위협받는 곳.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라도 전자를 택할 것이다. 물론 그의 어머니는 그리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예외적인 경우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아.”

여인의 나지막한 부름에 그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나는 자유를 열망해서 네 아버지의 둘째 부인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남았다는 걸, 너도 알고 있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탐탁지 않았다. 자유라니. 이런 좁아터진 푸줏간에서 무슨 자유를 찾는단 말인가. 여자가 손질한 고기는 부정이 탄다는 헛소리나 해대는 사람들 탓에 이렇게 숨어 일할 수밖에 없는 주제에, 이게 자유라고? 진짜 자유가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태평한 표정을 할 리가 없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이번에도 정곡을 찔러온 말에 그는 황급히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여인은 어림도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괜찮단다.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

피 묻지 않은 손이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눈동자를 굴려 바라본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는 여기 남았음에도 너를 네 아버지에게 보낸 이유는 너도 알고 있겠지.”

“제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해서지 않습니까.”

“그래, 그 말도 맞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네가 마음 속 깊은 곳에 품고 있던 열망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그곳에서 차별 받으며 살고 있다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구나.”

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 모습이 조금 우습다고 여겼다. 제가 누구 때문에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참지 않으면 어머니까지 곤란해질지 모르니까요. 저는 저 때문에 어머니가 해를 입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 결국은 내가 네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구나.”

어머니가 빙그레 웃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거슬리지 않게 하마.”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등을 돌렸다. 돌아선 그녀의 등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가렴.”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뻗었으나, 단호하게 이어진 어머니의 목소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거라. 누군가 네 어미에 대해 묻거든 죽었다고 하고, 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하거든 그런 여자는 네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해.”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럼 이대로 무시당하면서 살겠다고? 만약 네가 또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널 두 번 다시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거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협박이 의미 없는 것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몸을 돌렸다. 어머니 하나만 생각해서 이 지긋지긋한 곳에 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의 피 반절은 천한 것이라지만, 반절은 귀한 것이기에.

“안녕히, 어머니.”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잘 가렴, 미켈.”

그리고 그녀 역시 다시는 부르지 못할 이름을 입에 담았다.

그를 망설이게 하던 유일한 존재가 사라지자 욕망이 말했다. 이왕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 번 해볼까? 어쩌면 왕조차 네 꼭두각시 삼을 수 있을 지도 모르거든. 그러면 모두가 네 아래에 놓이게 될 거야.

얼마든지. 그는 기꺼이 욕망과 손을 잡았다.

“미켈 브릴리언트.”

나지막한 목소리에 그는 눈을 떴다. 잠깐 잠 든 사이 꿈을 꾼 듯도 한데, 기억은 잘 나지 않았다. 고개를 든 미켈은 창살너머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여자의 푸른 눈을 마주 보았다.

“벨로나.”

미켈이 말했다.

“살아있었군.”

“그래, 덕분에 거의 죽다 살아났지만 말이야.”

빈정거린 알리사가 여전히 붕대가 감겨있는 배를 미켈에게 들이밀었다.

“당신 작품이야. 어때? 만족스러워?”

그녀의 물음에 미켈은 탄식을 흘렸다.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이나 죽어줄 순 없지.”

빙그레 미소 짓는 그녀를 보며 미켈은 입술을 짓씹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의 물음에 알리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뭐가?”

“어떻게 다시 돌아 온 거냐. 대체 어떻게 환생할 수 있었지?”

“글쎄, 지옥까지 가서 너를 저주하고 있으니 누군가가 복수하라고 도와준 걸지도 모르지.”

“웃기는 소리. 지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대신관이라는 자가 내뱉기엔 어울리지 않는 말이군. 아, 이젠 대신관도 아니니 상관없나.”

나직이 중얼거린 그녀가 소리죽여 웃었다. 미켈은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으나 꾹꾹 참아 눌렀다.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러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알리사가 중얼거렸다.

“음, 모든 지위를 박탈하고 바깥으로 내쫓으면 네 자존심에 자살이라도 할 것 같으니 그건 안 되겠어. 안 그래?”

빌어먹을 벨로나. 그녀는 그를 너무 잘 알았다.

“그렇다고 이 감옥에 계속 가둬놓기엔 백성들의 혈세가 아깝단 말이지.”

턱을 괴고 고민하던 알리사가 박수를 쳤다.

“이건 어때? 나무 창살로 만든 마차에 타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는 거야. 네가 백성들에게 환영받는다면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거고, 아니라면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거지. 꽤 괜찮은 제안 아닌가?”

“미친년.”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네 욕심을 챙기는 데만 눈이 멀지 않았다면 나쁠 것 없는 제안이었을 텐데.”

혀를 차며 고개를 내저은 알리사의 눈동자가 어둡게 내려앉았다.

“미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벨로나 하이텔은 정말로 미켈 브릴리언트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주 먼 옛날에 내가 말했었지.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나와 같은 부류라는 걸 알았다고.”

“...”

“그리고 어쩌면 정말 그랬을 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의 지나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엇갈렸고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알리사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다.

“하나만 묻자. 당신이 과거에 펠로스를 배신하고 나를 선택했던 건 정말 나를 보고 욕정이 일어서, 그 뿐이었나?”

푸른 눈동자와 잿빛 눈동자가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당신 입장에선 여자인 나보다 남자인 펠로스를 택하는 것이 더 가망 있다 여겨졌을 텐데도 나를 택했잖아. 정말로 순간의 욕정 때문에 눈이 멀었던 거였어?”

미켈은 느리게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말대로 과거의 그는 순종적인 여인상을 으뜸으로 치는 이 나라에서 여자인 벨로나 하이텔을 선택하는 게 어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지 잘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선택했던 것은...

그는 자유를 열망했던 한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는 좁은 푸줏간에서 자유를 찾고자 했지만, 자유를 누리기도 전에 병든 고기를 팔았다며 분노한 사람들의 손에 매를 맞아 죽었다. 고기가 병 들어있었던 것은 고기를 손질한 여자의 문제가 아닌 사육자들의 문제였음에도 사람들은 여자가 손질한 고기라 그런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다.

그리고 그녀의 하나 뿐인 아들은 그녀와 연을 끊은 지 오래라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가 죽고 1여년이나 지나서야 남의 입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

“그래, 그 뿐이었다.”

미켈은 다시 알리사와 눈을 맞췄다.

“잠깐의 욕정에 눈이 멀어 너를 선택했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어리석은 선택이었어.”

그의 대답에 알리사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이채가 스쳐지나갔다.

“그렇구나.”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행이네, 내가 모르는 뒷얘기 같은 게 있었다면 더 분노했을 것 같거든.”

지독하게 그녀다운 대답이었다.

“미켈, 두 번 다신 만나지 말자. 당신을 내 참모로 삼은 건 벨로나 하이텔의 인생에서 다신 없을 실수였어.”

알리사가 돌아섰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던 미켈은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맞게 하겠다는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그러니 오늘이 그가 이 세상에 살아 숨 쉬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미켈은 인상을 찌푸렸다. 정말로 그는 왕좌에 오르겠다고 말하던 공주의 모습에서 자유를 갈망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었나? 그래서 펠로스가 아닌 벨로나를 택했던 것이라면...

아, 어머니.

“내 발목을 잡은 건 당신이야.”

벨로나의 이복 언니 중 하나이자, 벨로나 인격체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어떤 공주의 이야기

“허리를 좀 더 꼿꼿하게 펴셔야 합니다.”

얇은 나무 지팡이의 끝이 샬롯의 등에 닿았다.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샬롯은 인상을 찌푸리며 허리를 좀 더 앞으로 내밀었다.

“어깨를 함께 벌리란 말은 아니었습니다. 힘 빼세요.”

“이, 이렇게요?”

“또 허리를 숙이시는군요.”

“음?”

샬롯의 모호한 반응에 그녀의 예절 선생이 한숨을 내쉬었다.

“공주 전하, 이대로라면 혼인을 못하십니다. 자세 예절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주를 어떤 남자가 데려가려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은 혼처에 시집을 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있다고요.”

“크리스토프한테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하던데.”

“크리스토프님은 왕자니까요.”

그렇다면 나도 왕자로 태어났다면 좋았을 건데. 샬롯은 속으로만 생각했다. 앞뒤가 꽉 막힌 이 예절 선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몇 시간 동안 정신 교육이나 받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나 했더니, 내 얘기를 하고 있었어?”

“왕자 전하.”

“크리스토프!”

그녀의 방문을 연 크리스토프의 얼굴이 이렇게 사랑스럽긴 처음이었다. 구세주 보듯 열망에 찬 샬롯의 시선을 알아챈 크리스토프가 그녀를 향해 씩 미소지어보였다.

“미안하지만 남매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오늘은 이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틀 뒤 찾아뵙도록 하죠, 공주 전하.”

문이 닫히고 선생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샬롯은 억지로 펴고 있던 허리를 아래로 숙이고 한숨 쉬었다.

“지겨워 죽겠어. 너 아니었으면 진짜 죽을 뻔 했다니까?”

“형제 좋은 게 뭐야.”

“맞아, 너무 많다는 거 빼곤 말이야.”

“그래도 네 쌍둥이는 나 밖에 없잖아.”

“퍽이나 위안이 되는구나.”

농담조로 뱉은 샬롯이 기지개를 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태평한 거 보니 아직 못들은 모양이네. 넷째 왕비가 또 임신했대.”

“뭐? 아야!”

놀라 소리를 지르다 허리를 삐끗했다. 샬롯은 앓는 소리를 내며 탁상을 짚었다. 누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크리스토프는 그런 그녀가 웃긴 듯 소리 내 웃었다. 평소라면 웃지 말라고 머리를 잡아 뜯는 시늉이라도 했겠지만 그럴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가 들고 온 소식에 정신이 더 쏠렸다.

“왕께서는 대체 무슨 생각인거야? 이러다 우리 형제들로 기사단이라도 만들겠어.”

배다른 동생들만 이미 여덟이오, 위로는 셋이었다. 거기다 그녀의 쌍둥이인 크리스토프 하나까지. 열두 명의 형제들은 너무 많았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는 종종 제 형제들의 이름을 잊곤 했다.

“그 속을 낸들 아나. 덕분에 당분간은 펠로스 형님 눈치 보게 생겼다니까.”

“으, 싫다.”

샬롯은 붉은 머리에 회색 눈을 가진 날카로운 인상의 제 첫째 오라버니를 떠올렸다. 그의 유일한 동복동생인 공주 로제타에게도 살갑지 않은 그는 형제가 하나 늘 때 마다 늘 기분이 저조해지곤 했다. 그의 자리를 위협할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긴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왕은 아직 정정 했고, 펠로스 오라버니가 왕위를 물려받을 즘엔 모두가 장성해 있을 테니.

“왕자일지, 공주일지 내기할까?”

크리스토프의 제안에 샬롯은 가소롭단 듯 웃었다.

“매번 지면서 늘 도전해오는구나. 이번에는 왕자야. 확실해.”

“이런, 나도 왕자에 걸려고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선수 치니까 지레 겁먹은 거면서.”

“아니야. 아무튼 어쩔 수 없네. 이번 내기는 무효야.”

“찌질 해, 크리스토프.”

일부러 약을 올렸지만 크리스토프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안 넘어오네, 샬롯은 안타까움에 입맛을 다셨다.

사실 그녀의 예상과 별개로 샬롯은 태어날 동생이 차라리 공주이기를 바랐다. 그저 평민이었다면 남자로 태어나는 편이 나았겠지만, 이곳은 왕궁이었다. 공주들은 제 아래로 보면서 왕자들은 언제 자신의 목을 물어뜯을지 모르는 경쟁자로 보는 펠로스가 살아있는 한, 공주로 태어나는 게 목숨 부지하기는 좋을 것이다. 아닌 척 해도 크리스토프가 펠로스의 앞에서 얼어붙는다는 걸 샬롯은 모르지 않았다.

“으, 허리가 너무 쑤셔서 안 되겠어. 정원 산책이나 하자.”

“그래, 그럼.”

크리스토프가 샬롯을 순순히 따라나섰다. 여전히 통증이 가시지 않는 허리를 부여잡고 걸음을 옮기던 샬롯과 크리스토프의 걸음이 문득 멎었다. 그들이 종종 담소를 나누는 연못 옆 티 테이블에 이미 누군가 앉아있었다. 샬롯과 크리스토프가 시선을 교환했다. 별로 얽히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들은 몸을 돌리려 했지만, 그들을 등지고 앉아있는 이의 어깨 너머에서 그들을 말갛게 응시하고 있는 커다란 녹색 눈을 마주하는 순간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왕비님을 뵙습니다.”

샬롯과 크리스토프는 마지못해 인사했다. 그러자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앉아있던 다섯째 왕비, 플레시아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

플레시아의 눈이 반달을 그리며 부드럽게 휘어졌다.

“다섯째 왕자님과 여섯째 왕녀님이군요.”

그들은 넷째와 다섯째였지만 굳이 정정해주진 않았다. 사실 그들도 플레시아 왕비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어린 공주가 몇 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는 어쩐 일이시죠?”

의아하게 플레시아의 얼굴을 응시하다 문득, 여전히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어린 공주에게로 시선을 옮긴 샬롯이 인상을 찌푸렸다. 이복동생의 앞에 책 한권이 놓여있었다. 가슴이 섬뜩해졌다. 얼핏 본 책은 정치학과 관련 된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그를 찾아왔다. 사샤는 테이블 아래서 허벅지를 쥐어틀 듯이 꼬집었다. 혹시 꿈은 아닐까 의심하며 있는 힘껏 쥐었더니 고통에 찬 신음이 절로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눈앞의 여자가 정말로 황제 벨로나라는거지.

왕족의 목숨을 모조리 앗아간 반란에서 홀로 살아남아 왕이 되었다는 여자의 얼굴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린 동생들이 읊어대던 ‘백성을 사랑한 금발 머리 공주님’ 설화의 실제 모델이라는 건 알고 있어서일까, 그녀가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꿈일까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다.

백색에 가까운 금발을 특이하다 여기던 사샤는 눈 앞의 여자에게 내심 동병상련을 느꼈다. 아버지의 죽음 탓에 어부지리로 자작이 된 그나, 예상외의 반란으로 왕이 된 그녀의 처지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벨트로 왕의 정복 전쟁 막바지에 반란이 일어난 덕에 황제의 이름까지 거머쥐게 된 벨로나 여왕을 두고 운이 좋다고 했다.

글쎄, 사샤는 그 말에 공감하지 않았다. 반란이 없었으면 적당히 괜찮은 가문에 시집가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다 갔을 여자다. 정치의 정자도 몰라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을 게 분명하니, 그녀는 차라리 왕이 되지 않는 편이 더 행복했을지도 몰랐다.

“제법 무례하군.”

“예?”

옅은 웃음과 함께 내뱉어진 그 말에 사샤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그는 예의도 잊고 황제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불똥이 튈까 냉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폐하.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실수겠지. 다들 그렇게 말하거든.”

어쩐지 뼈가 들어있는 것 같은 말에 사샤는 등골이 오싹했다. 여인의 몸으로 황제가 된 여자라며, 주변의 취급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을 테니 피해 의식이 있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트집 잡히지 않으려면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주의해야 한다. 사샤는 잔뜩 긴장했다.

“그런데 황제 폐하께서 이런 시골까지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려 화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빤히 응시하나 싶던 황제의 고개가 천천히 기울어졌다.

“그냥 여왕이라 불러. 황제란 이름은 내게 너무 과분하니까.”

덤덤하게 이어진 그 대답에 심장이 쿵 하고 곤두박질쳤다.

“아까의 일은 정말로 실수였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변명했다.

“폐하를 우습게 보거나 한 게 절대 아니었...”

“누가 뭐라 했나?”

그녀가 웃는다. 사샤는 숨을 죽였다.

“내가 확실히 용서하지 않은 게 마음에 걸렸다면 용서하지, 루거스 자작.”

“감사합니다, 황제 폐.”

“여왕님.”

“네, 여왕님.”

강요된 호칭을 입에 담고 나자 정적이었다. 사샤는 어쩔줄 모르고 찻잔을 매만졌다. 이른 아침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여왕은 지금까지도 방문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아무런 권세도 없는 자작을 그냥 만나러 온 것은 아닐 것이다.

묻혀있다.

“리하이트, 피해!”

묻혀있었다.

“리하이트!”

붉은색이 넘실거리는 이 전장에 그는 묻혀 있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붉은색뿐이었다. 그 이외의 빛깔이라곤 찾아 볼 수가 없다. 리하이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런 중에도 하늘은 푸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무너지는 몸뚱이를 느꼈다. 살겠다는 의지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런 욕망이 있었다 한들, 사방에서 쏟아지는 적과 아군의 화살 더미 속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했다.

이 전장에 끌려온 것이 꼭 2년 전이었다. 지금껏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결국 그의 운도 여기까지였던 것이다. 2년이면 많이 버텼지. 그는 자조적으로 생각했다. 함께 전장에 나섰던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남은 것은 그 하나였으니, 이제 그가 그들의 곁으로 갈 차례였다.

눈앞이 붉게 물든다. 핏물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은 더 이상 푸르지 않았다. 죽기 전에 보는 것이라도 붉지 않길 원했는데, 어쩐지 미련이 남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고개를 숙여 그의 배에 꽂힌 화살을 한 번 응시하고는 바닥으로 힘없이 늘어졌다.

“어떡해.”

셋째 왕녀 피아나가 우는 소리를 했다.

“괜히 왔나봐, 속이 울렁거려.”

평소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점잖은 왕녀라며 정평이 난 셋째 왕녀였지만 그녀도 이런 상황에는 면역이 돼 있지 않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부상병들의 막사와 부상당하지 않았지만 곧 죽을 것처럼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병사들의 막사들에서는 전에 맡아본 적 없는 지독한 냄새가 났다. 제대로 씻지도 못한 자들만이 가득한 전장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피아나가 알 턱이 없었다.

“우웩.”

“공주님!”

결국 토사물을 잔뜩 내뱉고만 피아나를 향해 그녀를 따라나선 시녀가 달라붙었다. 시녀의 안색도 그리 좋진 않았지만, 제 주인보다는 나았다. 물론 그녀의 참을성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주인을 향해 고개 숙인 시녀 역시 주인이 뱉은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그 옆에서 구역질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럴 줄 알았지.”

그들의 곁에 있던 벨로나가 질린다는 표정으로 말했다